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3. 8. 16.(수),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은경(위원장), 김규호, 김순희, 김태영,  
박은순, 이완우, 이종민, 이한상, 임영애,  
최영호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6건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이순신 장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2	이순신 유물 일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3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공 개
4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공 개
5	과주 보광사 동종	공 개
6	불조삼경	공 개
【검토사항】 1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7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8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9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10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11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12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13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14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15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16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17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18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19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4-001

### 1. 이순신 장도 (李舜臣 長刀)

#### 가.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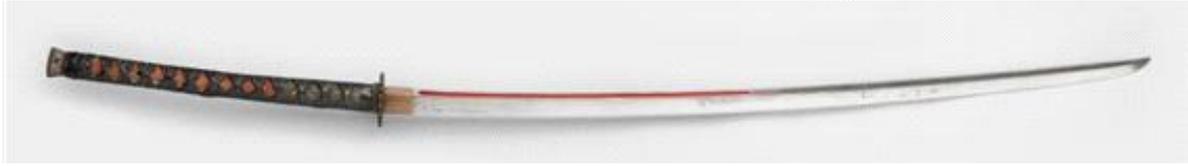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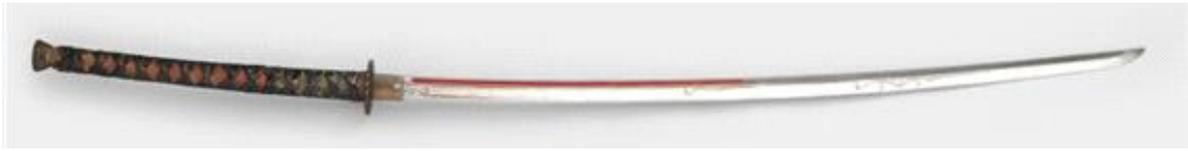
‘이순신 장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현충사관리소장으로부터 ‘이순신 유물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22.8.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2.28./'23.4.20./'23.5.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장검만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지정명칭 장도)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
- 소유자(관리자) : \*\*\* (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 수 량 : 2자루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금속, 나무, 어피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94년)
- 제작자 : 태귀련(太貴連), 이무생(李茂生)



<이순신 장도>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크기(cm)
1	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도1: 칼몸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 4.32kg</li> <li>· 장 도2: 칼몸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 4.20kg</li> <li>· 장도집1: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87.0cm, 무게 1.40kg</li> <li>· 장도집2: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92.0cm, 무게 1.24kg</li> </ul>

## 라. 추진경과

- 1963.01.21. ‘이순신 유물 일괄’ 보물 지정  
(’59년 1월 국보 제465호 지정, ’59년 8월 국보 제482호로 분할지정)
- 2021.10.25. 소유자 및 문화재제자리찾기, 장검 국보 지정 촉구서 제출
- 2021.11.24. 현충사관리소, 국보 지정 추진 타당성 등 관련 자문회의
- 2022.07.13.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의 국보 승격 청원
- 2022.08.29. 현충사관리소, 유형문화재과에 국보 지정 신청
- 2022.12.28. 관계전문가(무기·공예) 지정조사 실시
- 2023.04.20. 관계전문가(공예) 지정조사 실시
- 2023.05.04. 관계전문가(무기·공예) 지정조사 실시)
- 2023.06.08.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검토(조건부가결)
- 2023.06.22. 지정 예고 보도자료 배포
- 2023.06.27. 지정 예고 관보 공고, 의견접수 시작(~7.26.까지)  
- 국민신문고 3건, 정보공개청구 1건, 홈페이지 1건 의견 접수
- 2023.06.27. 헤럴드경제, 진위 논란 보도 / 설명자료 언론 배포
- 2023.07.07. 제407회 국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 2023.07.26. 지정조사단 회의 개최(지정 명칭 등 접수 의견 검토)

마. 지정조사단 의견서

## 지정명칭 관련 조사단 의견서

○ 지정 명칭에 대한 종합의견

1. 전통적으로 유형에 따른 ‘도’와 ‘검’의 구분은 있었으나,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에 이미 ‘도’와 ‘검’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었다는 점
2. ‘검’이라는 단어는 ‘도’라는 단어에 비해 권위나 의례에 관련되어 칼의 격을 높일 때 사용한다는 점
3. 특정한 소장자를 강조하거나 용도가 확실한 경우 외날이어도 ‘00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
4. 당해 문화유산이 오랜 기간 장검으로 인식되고 불렸다는 점

이상의 이유로 ‘이순신 장검’이라는 명칭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023. 7. 26.

## ○ 지정 명칭 관련 세부 내용

### 1. 동아시아에서의 ‘도’와 ‘검’

동아시아에서 칼은 고대 이래 ‘도(刀)’와 ‘검(劍, 劔)’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도(刀)’, 양쪽에 있는 것은 ‘검(劍, 劔)’이라 하였으나『설문(說文)』 刀部, 刃部,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즉, ▶손잡이가 짧고 휘두르는 원의 포용성을 둔 것은 ‘검’, 손잡이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것은 ‘도’라고 했다는 견해가 있으며(김성혜,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검’은 외날과 양날을 따지지 않고 전투용 도검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도’는 날붙이 생활도구를 지칭했다는 견해도 있다(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이와 같이 구분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도’와 ‘검’의 발생 기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도(刀)’라는 글자는 칼의 형태를 본뜬 상형문자로 ①병기(兵器)라는 의미 외에 ②화폐[도전(刀錢)] ③나룻배 등을 지칭하는 글자[『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이기도 했는데 무기이자 생활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검(劍, 劔)’은 사람이 칼을 차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되거나 뜻을 나타내는 ‘도(刀)’와 음을 나타내는 ‘검(劍)’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뜻풀이에서는 무기의 한 종류라는 의미 외에 ‘검’으로부터 파생된 동사인 ‘검으로 죽이다’, ‘검으로 깎다’, ‘검을 차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도(刀)’자의 다양한 의미에 비해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즉, ‘검’은 ‘도’의 한 부분으로써 ‘도’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훨씬 뒤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무예도보통지』 「예도」편에 수인씨(燧人氏,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고대 중국 전설상의 세 황제 중 한 사람)가 ‘도’를 만들고, 치우(蚩尤, 중국 황제인 현원씨에 대항했다는 중국 동북지역의 이민족 지도자로 전쟁과 병기의 신으로 불리는 전설상의 인물)가 ‘검’을 만드니 이것이 ‘도’와 ‘검’의 시원이라고 하였다. 수인씨는 생활과 밀접한 전설상의 인물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는 청동기시대 이래 화식(火食)과 함께 발생했고 이를 본딴 화폐의 통용, 죽간(竹簡)을 사용하면서 글자의 수정에 도를 사용한 것에서 파생했다는 도필리(刀筆吏), 죄인을 고문할 때 쓰던 도거(刀鋸)로부터 포정(庖丁, 푸줏간)의 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이 보인다. 이에 비해 ‘검’은 치우로 대변되듯이 청동기시대에서 철기 초기인 춘추 전국시대에 전쟁이 일상화된 가운데 특화된 무구였다. ‘검’의 기원은 의식과 관련된 특수한 칼, 전쟁에 특화된 칼로 제작된 것이었으며, ‘도’와는 구분되는 병기였다.

셋째 ‘도’와 ‘검’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명칭이 혼용되고, 검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대(漢代) 외날의 전투용 칼인 환두대도가 등장하면서 ‘도’와 ‘검’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어 양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도’가 일상생활에서 칼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검’은 전쟁, 권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조조(曹操)의 칼로 알려진 하늘에 의지하는 긴 칼이라는 의천장검(倚天長劍)이 등장하고, 한고조(漢高祖)가 쓴 검과 옥새가 결합되어 생긴 검새(劍璽)라는 단어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을 뜻하게 되었으며, 제왕의 기물을 제작하는 상방(尙方)에서 만든 상방검(尙方劍)을 대신에게 하사할 경우 제왕의 권위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 당대(唐代) 도교의 성행과 함께 8대 신선 중 한사람인 여동빈(呂洞賓)이 검선(劍仙)으로 추앙받으면서 검은 중요한 주술적 도구로 민속신앙의 중요시 되었다. 고대 일본에서도 검은 ‘보검(寶劍)’, ‘영검(靈劍)’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성행하여 고분 중기까지는 실전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또 일반 병사가 소지할 수 없었고, 황실이나 공가(公家) 등의 신분이 높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도’와 ‘검’이라는 단어는 형태와 관련 없이 혼용되었으며, ‘검’은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서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 2. 우리나라에서의 ‘도’와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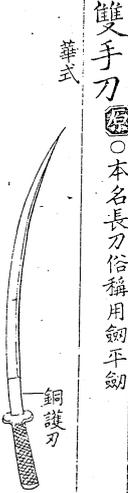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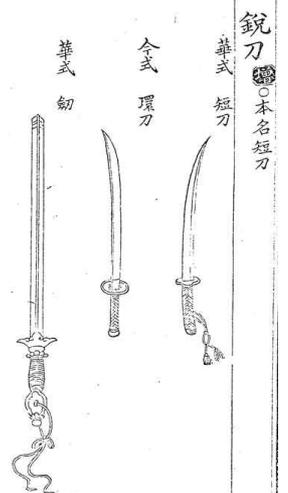
고대 우리나라에서의 ‘도’와 ‘검’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큰 차이 없이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중국식 동검에서 한층 실전적으로 발전한 세형동검(細形銅劍)이 등장했고, 철기시대에 환두대도가 본격 보급되자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양날의 ‘검’은 더 이상 전투용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조선시대 양날의 ‘검’은 신비한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왕릉의 무인석과 사천왕상, 탕화 속의 신장(神將) 등에 묘사되었고, 실제로 제작된 양날 ‘검’은 대부분 인검(寅劍)과 같은 벽사를 위한 것이거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문헌상으로 살펴보면 조선 전기부터 ‘도’와 ‘검’의 구분이 서로 혼용되었다. 『세종실록』 권133, 「오례」 군례 서례 병기 창·장검·검조에 보면 이순신 장검과 같은 형태의 도설에 ‘검(劍)’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며, 1474년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에 외날 칼은 ‘검(劍)’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칼을 ‘환도’라고 부르고 계급이나 사용자가 확실한 칼에 대하여는 ‘검’이라고 붙여주었다. 『용원필비』(1813년)에 ‘도’는 자루가 길고 칼날이 휘어 있으며 모철이 있고[刀者長柄施刀而鑄者也], ‘검’은 자루가 짧고 날이 길며 칼집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나[劍者短柄長刀而匣者也], 환도조에서 조선의 칼을 ‘환도’로 통칭하며, 운검, 상방검, 인검, 진검, 칠성검, 보검이라는 이름이 있어 소장자가 의미를 두고 제작하거나 사용한 칼을 ‘검’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대표적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1790년)에는 양날일 경우 ‘검’, 외날일 경우 ‘도’라고 하면서 후세에 도와 검이 혼용되었다고 하였다[兩刃曰劍 單刃曰刀 後世刀與劍相混].

『무예도보통지』에는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의 편명(篇名)이 보이는데 이 중 긴자루가 붙은 월도, 마상월도, 협도 등을 제외하고, 요도(腰刀, 허리에 차는 칼)로 분류한 도검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p>雙手刀 華式 ○本名長刀俗稱用劍平劍 銅護刀</p>	 <p>銳刀 華式 令式 ○本名短刀 華式 短刀</p>	 <p>提督劍</p>	<p>예도와 같음. 요도(腰刀)</p>	<p>요도 중에서 가장 짧음</p>

- 쌍수도(雙手刀) [本名長刀俗稱用劍平劍]

: 본명은 장도(長刀)이고, 속칭 용검(用劍), 평검(平劍)이라 불리며 왜구가 중국을 침범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칼로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검제(劍制)로 요도(腰刀)로 대체한다고 했다. 제시된 칼과 그 칼로 훈련할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은 모두 외날의 만곡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 중에는 ‘검(劍)’자를 써서 ‘도’와 ‘검’이 혼용되고 있다. 중국식은 전체 길이 6척 5촌에서 7척 5촌에 이르는 큰 칼이었다. 오호시대 후연의 모용수(慕容垂)는 7척 길이의 암수한 쌍의 칼을 제작했다고 밝혀, 이충무공의 것과 유사한 칼이 중국에 있었음이 주목된다.

검명	전체길이	칼날 길이(刃長)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쌍수도와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1자=30.3cm(영조척), 1근=641.9g>

- 예도(銳刀)

: 본명이 단도(短刀, 중국식)이며, 조선의 환도(環刀)로 길이가 3척 3촌이다. 제시된 칼과 도보(刀譜)의 그림은 모두 외날의 만곡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 중에는 ‘검(劍)’자를 써서 ‘도’와 ‘검’이 혼용되고 있다.

- 제독검(提督劍)

: 제독검의 제독은 임진왜란 때 명군의 제독인 이여송(李如松)을 지칭한다. 거제에

살고 있는 후손 집안에 전해진 칼로 칼날 길이 3척 4촌이며 칼날 옆면에 ㊸이라 새겼고, 이 칼을 통제사 이연상이 조사할 당시인 1746년에 칼자루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의 유명한 장수가 썼던 칼이라는 점에서 후대 ‘제독검’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제독검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외날의 직도를 묘사하고 있고 설명 중에도 ‘검(劍)’자를 썼다.

- 본국검(本國劍)

: 예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술은 신라 화랑으로 연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편명의 증보 사항으로 신검(新劍)이라 속칭한다고 한 점이다. 역시 제시된 칼과 도보(刀譜)의 그림은 모두 외날의 만곡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 중에는 ‘검(劍)’자를 써서 ‘도’와 ‘검’이 혼용되고 있다.

- 쌍검(雙劍)

: 요도 중 가장 짧은 칼이라고 하였으며 칼날과 자루를 합하여 3척 가량이고, 이름은 쌍검이지만 이충무공의 칼과는 길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시된 칼과 도보(刀譜)의 그림은 모두 외날의 만곡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 중에는 ‘검(劍)’자를 써서 ‘도’와 ‘검’이 혼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무예도보통지』의 ‘도’와 ‘검’의 용례는 편명과 내용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르거나 설명할 때는 ‘도’와 ‘검’의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이나 집단이 사용하거나 제작한 칼에 대해 ‘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충무공 이순신의 칼에 대한 인식

이충무공 장검(장도)의 명칭을 검토함에 있어 이순신 자신이나 지정되기 이전의 칼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난중일기』 「을미일기」(1595년) 7월 21일 [食後太九連彦福所造環刀 忠清水使兩助防將處各一柄分送]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전거이]와 두 조방장[박중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

이 기록은 현존하는 장검 외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제작된 칼이 환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다만 이 환도는 장검과는 크기나 형태에서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어 장검을 환도로 보기는 어렵다.

- 『이충무공전서』 「한산도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 閑山島 月明夜 上戍樓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撫大刀 深愁時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 何處一聲羌笛 更添愁

이 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시조가 지어지고 이를 『이충무공전서』에 한역(漢譯)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역은 3자씩

한 구를 이루고 있어 5언이나 7언을 기본으로 한 한시의 형식에 맞추어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한역의 ‘대도(大刀)’는 칼의 형식이나 당시의 인식을 감안하지 않고 정조대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면서 단지 ‘큰 칼’이라는 구절을 한자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검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 『이충무공전서』 「한산도야음」

한바다에 가을 빛 저물었는데 / 水國秋光暮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 驚寒雁陣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이루는 밤 / 憂心轉輾夜  
 새벽 달 창에 들어 활과 칼을 비추네 / 殘月照弓刀

이 시는 5언 절구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압운법에 의해 운자를 고려한 작품으로 운자는 모(暮), 고(高), 도(刀)이다. 즉 마지막 구절의 ‘활과 칼을 비추네 [照弓刀]’에서의 ‘도’라는 글자는 ‘검’자로 대체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즉, 이 한시에서의 칼의 표현도 장검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 『이충무공전서』 「검명」 劍銘長劍一雙分鏑即公筆也 今在公後孫家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3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에 하니 산하가 감동하네 / 三尺誓天山河動色  
 한번 휘둘러 소탕하고 그 피로 산하를 물들이고져 / 一揮掃蕩血染山河

장검의 검명에서 ‘검’으로 인식했느냐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삼척(三尺)’이라는 표현이 『사기(史記)』 「고조본기」에 나오는 대로 ‘나는 평민으로 삼척의 검을 들고 천하를 얻었으니 천명이 아니겠는가[吾以布衣三尺劍 取天下 此非天命乎]’라는 내용의 삼척검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삼척이라는 표현이 ‘검’을 나타내는 표현임에는 타당한 점이 있으나 ‘삼척검’이라고 확정하기는 무리한 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후손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 칼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이는 『충무공가승』이 편찬되던 시기인 1700년대 초 이후는 ‘장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기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순신은 이 칼을 ‘장도’나 ‘장검’, ‘환도’ 등 여러 가능성 있는 명칭 중 어떤 것을 취해 호칭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이순신이라는 특정인이 사용한 권위 있는 칼로 인식하고 ‘장검’으로 불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국보로 지정함. 지정명칭은 ‘이순신 장검’으로 함.

## 바.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순신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칼날에는 이순신의 직접 지은 ‘三尺誓天山河動色’과 ‘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시구가 금동으로 입사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징적 유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 더욱이 각각의 칼자루 안쪽 스킴베에는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라는 장인이 이 칼을 제작했다는 명문까지 새겨져 있어 이것을 제작한 제작시기와 제작장인이 밝혀져 그 역사적 가치 또한 우수하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기록인 『이충무공전서』(1795)가 현존하며, 이에 의거하면 충무공의 친필 시구를 새긴 장검 한 쌍을 1594년에 제작하여 공이 사용하다가 이후 공의 후손이 보관하였다는 소장이력까지 분명하여 학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렇게 이순신장검은 비록 일본도의 영향을 받은 칼이지만 여러 면에서 조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 장검에서 보이는 일본적 요소는 곡선적인 칼끝이나 피홈[혈조], 스킴베와 목정혈, 국화모양 코등이, 칼자루의 X자 끈매기 등인데 이 또한 한중일 모두 선진 일본도의 영향을 받은 시기인 것을 이 유물로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날에 물결문양을 음각하거나 국화꽃잎형 코등이나 덧쇠[절우] 및 호인 등은 조선적 특징이 강하다. 게다가 목제로 만든 칼자루나 칼집을 목재로 만들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피를 싸고 주합철을 하거나 주철을 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제로 칼자루 뒷마개와 절우, 칼집의 입구장식, 패용장식과 다회고리 및 칼끝마개 등에 파련문이나 거치문 및 당초문을 정교하게 은입사하여 조선적인 미의식을 가미시켜 조형적인 탁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순신장검은 1594년이라는 제작시기와 태귀련과 이언복이 제작하여 제작장인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시구를 새겨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물의 희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충무공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관련성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제작 당시에 사용되었던 칼날과 칼자루 속의 스킴베 및 칼집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고스란히 존재하여 조선 도검의 제작기술사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식 장검의 형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절우나 칼자루 뒷마개 장식이나 칼집입구장식, 다회고리 장식이나 패용장식 및 칼끝마개장식 등을 철제로 마감하면서 배푼 은입사 기법과 파련문이나 당초문 등은 16세기 말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 이후 왕실이나 민간에 까지 영향을 끼쳐 이 장검은 철제 은입사유물 중 가장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서 공예사적으로 선구적인 작품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보물로 지정되

어 있는 이순신장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조형적 가치가 매우 커 오히려 지금까지 국보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져 만시지탄이지만 국보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크다고 판단한다.

다만 장검의 칼몸 위 혈조에는 원래부터 주철을 감입했는데 세월이 흘러 원래의 철이 베껴져 화학안료로 칠해져 있던 것을 과학적 분석결과 제거한 것은 칼의 조형미로나 상징성으로 미루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시기의 장검으로서 코등이나 어피 등에 잔존하는 주철을 분석하여 모조록 칼몸 위 혈조는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에 보관하고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 옥로, 요대, 술잔의 4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장검은 첫째,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칼날에 새겨진 검명은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며 당시의 사회상과 기물명 문화를 확인할 수 있고 충무공의 가치관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다. 둘째, 칼자루 속 스페에 1594년 태귀런,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넷째,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검명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검 2점과 검집 2점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제작 관련 정보가 명확하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순신 장검 2점은 명문을 통해 1594년의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전하는 도검 가운데 가장 크고 고위 무관에 어울리는 의장용 무기로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조선의 도검 가운데 소유자, 제작 시기와 장인이 명확하고 한 쌍의 구성이면서 완전한 형태로 전하는 예는 매우 희소하다.

장검이 임진왜란(1592~1598)이라는 특정 시기에 제작되어, 시대성이 반영된 점도 중요하다. 전례 없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변화는 불가피하였고 조선의 법제에 준하는 도검을 제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일본의 특징을 활용하

였다. 이는 비록 적국이라도 무기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연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 의의를 지닌다.

장검을 제작한 공예기법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장검에는 글자와 문양을 새겨 넣기 위하여 입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입사는 금속공예품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시대에 따라 세부 기술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순신 장검에는 두 종류의 입사기법이 파악된다. 먼저 충무공의 기세와 강개한 심정이 담긴 칼날의 문구는, 글자를 파내고 그 안에 금빛이 감도는 황동을 사용하여 열로 압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반면 칼집과 칼자루의 문양은 조음입사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이는 철제 바탕에 선으로 요철을 만들고 은사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입사기법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재료와 기술의 세부 현황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검은 조선시대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의 소유품으로 역사성과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유물이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이 투영되었다. 우수한 제작 기술과 역량으로 완성되어, 장검의 제작과 장식기법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순신 장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보로 지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충무공 이순신 장검(보물 지정명칭: 이순신 유물 일괄-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몸 길이는 최대 197.2cm로 비교적 긴 칼에 속한다. 한 칼날에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三尺誓天山河動色(편의상 ‘삼척서천검’으로 호칭)’이, 다른 한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편의상 ‘일휘소탕검’으로 호칭)’가 각각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점의 칼몸마다 스킴베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 음각되어 있다.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한 것이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1자루씩을 나누어 보냈다고 했는데, 태구련은 장검의 스킴베에 새겨진 태귀련(太貴連)과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이충무공전서』(1795) 권1에 의하면, 장검 한 쌍이 공의 후손 집에 전해오는데 공의 친필이 칼에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임진왜란 때인 1594년 4월에 태귀련(태구련)과 이무생이 만들어 통제사 이순신이 소장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이순신의 후손 집에 보관되어 오다가 지금은 현충사 유물관에

소장된 2점의 칼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칼 중에서 제작자, 제작 일자, 소장자가 유일하게 명확하고, 내력이 분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칼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 전기 칼날의 보편적인 직선형이, 조선 후기 칼날의 보편적인 곡선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칼이다. 문헌적으로도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 장검(長劔)과 『용원필비』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환도(環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살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유물이다. 비록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며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 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조선의 장인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도의 장점 요소는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일본도 요소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장검의 가치가 폄하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학술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하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군용 도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며,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날은 단면 6각형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으며, 그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고,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양,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돈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만 ‘삼척서천검’의 유소혈 부분 돈을새김 문양의 동판 일부가 탈락된 것이 흠일 수도 있겠으나, 이 흠결이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고고(孤高)한 예술적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백미는 한문세대에서도 시적 의미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三尺誓天山河動色’과 ‘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이순신의 시구가 그것도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이 장검은 매우 수준 높은 조선시대 군용 환도(環刀)의 양식으로 제작된 실전용 도검이다. 이 장검은 우리 민족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유품으로

서 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상징적 중요성은 조선시대 모든 도검유물 중 단연 으뜸이며, 국보로 지정되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유물이다.

### <根據 基準>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우리 민족의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시구가 새겨져 있고, 이순신이 소장했던 칼로 인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우리나라 칼 중에서 제작자, 제작 일자, 소장자가 유일하게 명확하고, 내력이 분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칼이다. 전쟁의 무기는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과학기술이다.

일찍이 유성룡은 왜인의 장기로 조총, 용검, 돌격의 세 가지를 꼽을 정도로 일본군의 도검을 위협적으로 파악하였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다양한 도검문화가 도입되었다. 그 시기 비록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병부의 교차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상대의 선진 과학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조선의 장인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고유한 선이나 특징은 없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횡각의 각도와 완만한 선, 은입사 문양 등이 그러하다. 중국적 요소 역시 함께 농축되어 있다. 그 시대적 산물로서 충무공의 승전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현존하는 전통도검 중 가장 크다.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단연 두드러진다. 칼날은 단면 6각도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으며, 그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고, 제작된 지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 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 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만 제1점의 유소혈 부분 돈을새김 문양의 동판 일부가 탈락된 것과 병부부분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흠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도검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갈아서 쓰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 테니스라켓의 그립을 갈 듯이 소모품인 것이다.

특히 1쌍 2점을 제작하여 충무공의 호방한 친필 맹세 글을 지어 대구에 맞추어 칼에 새긴 것은 예술적 정신적 가치 측면에서 뛰어나다 하겠다. 더 연구할 부분이 많지만 쌍으로 제작하는 의도, 본인의 좌우명 같은 검결이 있는 칼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검결이 애국의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기에 국보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다.

### <根據 基準>

우리역사 상 국난을 극복한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맹세글이 새겨져 있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통무기로서, 그리고 도검의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큰 칼이며 충무공은 현재 한국인의 70%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의 1위에 속한다. 세계의 해전사에서 패전이 없었던 비교적 역사성을 거부할 수 없는 전수여력 등을 보아 호국의 의지가 함축된 유품이라는 점, 장군의 옷이나 장신구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유품이다. 일괄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괄보다는 무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칼 중에서도 단연 우수한 유품이다. 장군은 군인이고 군인에게는 무기가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칼에 함축된 국난극복의 정신은 소중한 자료로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을 상징하는 기물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모친에 대한 효도의 상징으로 국가의 위기나 일제 식민지 시기, 대한민국 건국 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선양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이순신의 이미지는 그가 지은 시조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홀로 앉아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라는 문학작품으로 투영되었으며, 시조에 등장하는

큰 칼은 실실과 관계없이 실존하는 이순신 장검으로 바로 연상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제작했고, 검명을 지었으며, 손수 잡아서 체취가 스며있는 이 장검은 바로 국난 극복의 위인 이순신의 상징으로서 적합하므로 이에 걸맞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야한다.

-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한 기물이다.

이순신 장검(보물 등록명: 이순신 유물 일괄-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몸 길이는 최대 197.2c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칼이다. 칼날에는 이순신이 지은 검명(劍銘) ‘三尺誓天山河動色 / 一揮掃蕩血染山河’이 나뉘어 각각 음각으로 입사(入絲)되어 있다. 또한 스펀마다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 음각되어 있다. 칼의 정신이 ‘하늘에 맹세하여 산하를 감동시키고, 칼을 휘둘러 왜적을 소탕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고,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한 것이라는 제작자와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검이다.

- 임진왜란기 조선검의 변화를 반영한 조선 후기 도검 제작의 표준이 되는 기물이다. 이순신 장검은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임진왜란 중 일본의 오랜 기간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상무기로 최적화된 도검의 장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제작되었다. 한편 이순신장검은 크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임진왜란 중 사용된 다른 도검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어 동시대 개량된 무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순신장검은 임진왜란으로 변화하는 변곡점에서 제작된 것으로 조선 후기 도검 제작과 검술 이론에도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기물이었다.

- 조선 중기의 공예 수준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보존 상태가 뛰어난 기물이다. 이순신장검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군용 도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며,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날에 음각 입사한 검명과 함께 새긴 물결문양,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반복하여 주철로 마무리하여 내구성을 높인 것에서 임진왜란 중임에도 우리나라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칼날은 단면 6각형의 단조 기술과 손으로만 만들었음에도 두 자루가 거의 쌍둥이와 같이 똑같으며,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야장(冶匠)의 높은 제작기술과 제련수준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장검은 매우 수준 높은 조선시대 군용 환도(環刀)의 양식으로 제작된 도검이다. 이 장검은 구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유품으로서 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로 볼 때 국보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根據 基準>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시구가 새겨져 있고, 그분 스스로 소장했던 칼로 인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무공 이순신의 다른 유물도 물론 소중하지만, 장검은 상징성과 함께 중요도로 보아 소중한 문화재로 단독으로 국보로 지정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조사보고서



을미일기에 “태귀련이 들어왔다.”거나 “태귀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내려보냈다.” 등 태귀련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55년에 녹슨 칼날을 마광할 당시 태씨 문중에 구전되어 온 전승 채록에서 “태귀련과 이무생은 왜구의 노략질에 붙들려 일본 비젠에 끌려가 10년 동안 도검 제작에 노역하고 임란 때 왜병이 두 사람을 안내인 겸 통역으로 조선에 데리고 왔다. 이후 두 사람은 싸움터에서 충무공의 군사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으나 충무공에게 엿드려 빌며 사정을 호소했다. 충무공은 이들의 말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밝혀져 진중에서 칼을 만들도록 했고, 이후 두 사람이 3년간 기량을 다해 장검 두 자루를 바쳤고 이것이 이순신장검이다”라고 했다. 구전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순신장검의 칼날과 칼자루, 칼집>

## ○ 현 상

이충무공유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에 전시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년)의 유물이다. 이 유물은 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검 2점과 갖머리에 장식으로 달았던 것으로 보이는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각대와 모습이 같은 요대(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을 한 술잔 1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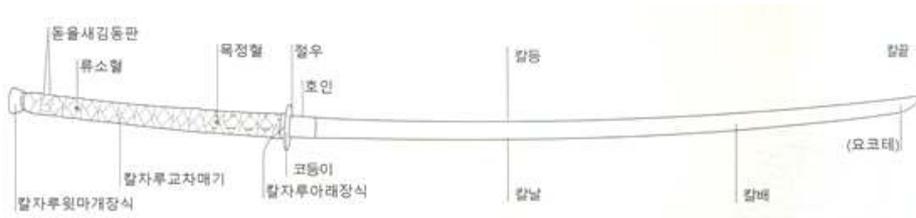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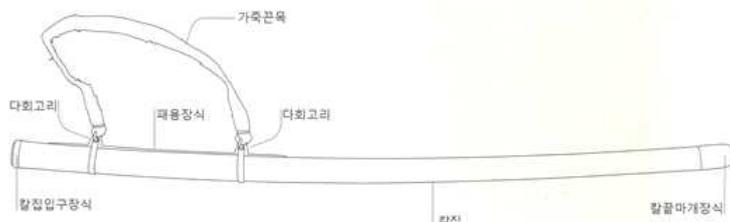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잡저 검명 세주>

이순신 장검은 칼몸[刀身]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몸의 칼날에는 각각 음각의 금동입사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이고, 다른 하나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대인 1795년에 편찬한 『이충무공전서』에 의하면, 을미일기 7월 4일에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거나 을미일기 7월 21일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보냈다...”고 한다. 아울러 잡저 검명 세주를 보면 “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긴, 즉 공의 친필이다. 지금 공의 후손가에 있다.”고 하여 장검의 제작과 관련하여 유물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고, 후손이 소장하였던 것까지 명확하게 뒷받침된다.

위 기록을 통해 이순신장검은 1594년에 만들어 충무공이 사용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12월 28일 현지조사를 통해 실측한 바에 의하면 칼몸의 길이는 196.8·197.2cm, 칼날의 길이는 137.3·137.8m이다. 칼자루의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의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이순신장검 세부명칭>



<칼집의 세부명칭>

## ○ 내용 및 특징

### 1. 장검의 제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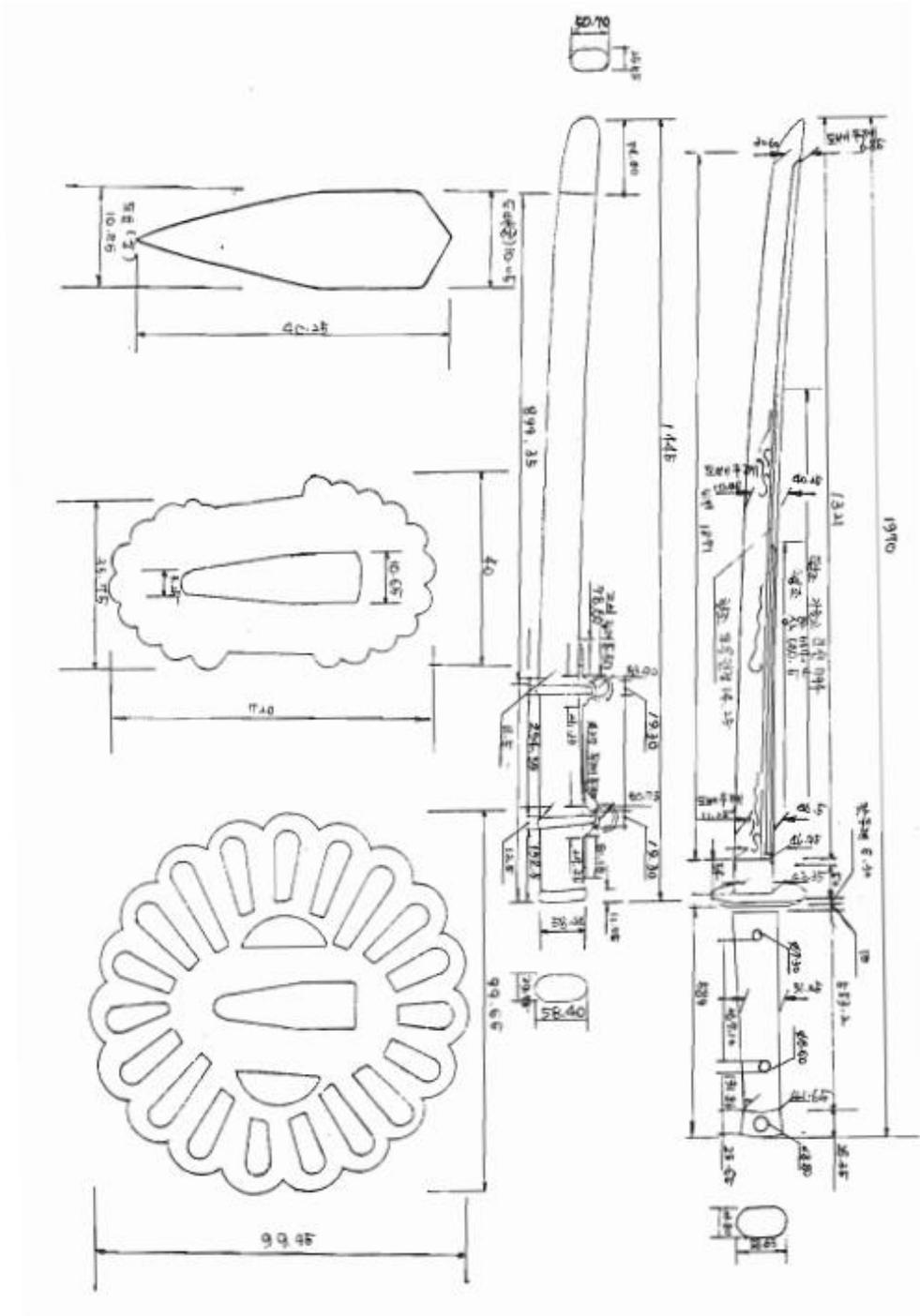
이순신장검을 제작한 시기에 대해 일제강점기인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는 이순신 종손가에서 확인한 이순신 관련 유물에 관해 적은 보고서 형식의 글인 <이순신의 유보>를 통해 이순신이 소유했던 장검 2자루에 관하여 밝혔다. 이 글에서 “순신이 소지한 명도(銘刀)로서 역사적으로 진귀한 유물일 뿐 아니라, 조선 공예미술사상 더욱 주의할 유물”이라며 그 사료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당시 이순신 장검을 해체하여 두 자루의 칼을 분해한 유리원판 사진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의하면 이순신장검 두 칼자루 속 스킨베에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甲午四月日造太貴蓮李戊生)”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갑오년 4월은 1594년 4월로 전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때이며 태귀련(太貴蓮)과 이무생(李戊生)이라는 자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순신장검의 스킨베,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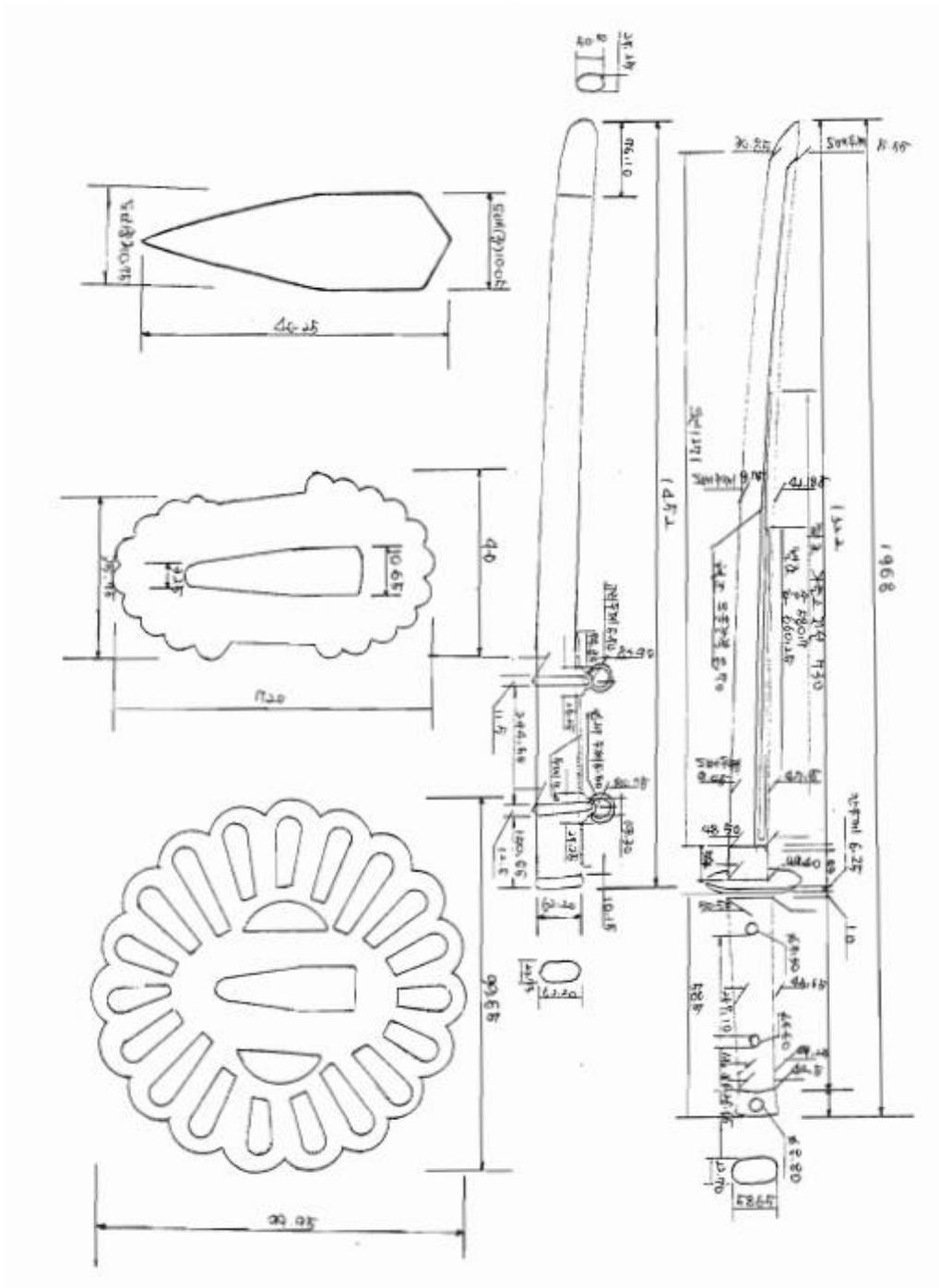
## 2. 장검의 형태와 크기

장검은 2개이며 각각의 칼몸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과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두 칼은 칼날[刀身]의 형태, 칼날[刀刃]의 부분,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 덧쇠(切羽), 호인(護刃), 칼자루, 칼집 등이 모두 동일하나 세부 크기가 약간 다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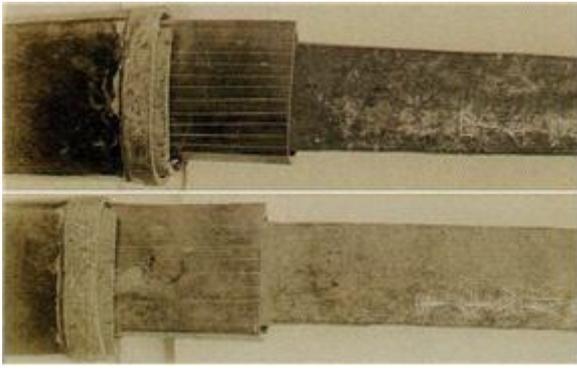
<이순신장검1의 세부 치수>1)

1)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72.



<이순신장검2의 세부 치수>2)

2)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73.



<이순신장검의 호인-위:장검1, 아래:장검2> <호인 부분의 훼손 부위 일치-위:장검2, 아래: 장검1>

### 2-1)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명문 검

칼날부분은 단면 6각형의 구조이고, 칼끝은 날카로운 뱀 머리 형상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槽) 1개가 칼날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양 3개가 따로따로 날 부분 가까이에 음각되어 있다. 명문의 글씨는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1.7cm이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는 지름 9.5cm이고, 꽃잎수는 19개의 국화문양이고 투각되어 있다. 칼날 쪽에 위치하여 코등이를 고정시키는 타원형 덧쇠[切羽]는 꽃잎형이다. 칼날의 날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짓는 호인(護刃)은 황동으로 만들었으며, 호인은 너비 4.83cm이고, 21개의 줄이 일정 간격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칼의 스페에는 코등이부터 약 18cm 위치에 1개의 구멍이 있고 여기에는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칼자루는 타원형 단면에 높이 5.5cm, 너비 2.76cm이다.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12번 교차매기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키는데, 너비 1cm에 높이 5.5cm의 철제 타원형 고리이고 파련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길이 2.58cm, 아래폭 5.85cm, 위폭 4.27cm, 밑바닥 폭 3.28cm의 형태이다. 그 표면에는 당초문과 모란꽃 문양을, 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는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부터 42.5cm 위치에 있다. 칼자루의 오른쪽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핀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매달 유소혈(流蘇穴) 1개는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위치에 있다. 여기에는 울룩불룩하게 처리한 동판을 덧대어 구멍을 보강했고 구멍 부위의 동판 일부가 탈락되어 있다.

칼자루의 형태는 가죽으로 교차매기를 하는 등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칼자루에 사용된 재질로 주칠한 어피나 울룩불룩한 돈을 새김문양 동판 및 자루끝의 은입사마구리 등은 이전 것을 재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루 표면을 교차매기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습베를 확인하기 전 표면의 교차매기가 14번으로 촘촘한 것에 비해 현재는 12번으로 조금 성글어 후대에 가죽을 다시 매고 그 위 표면에 흑칠을 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1968년 이순신장검을 분실하였다가 되찾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끝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어 당시 수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 이미 칼자루 하단이 훼손되었고 습베의 글씨를 확인하고자 교차매기한 가죽을 풀면서 딱딱하게 경화된 원래의 교차매기한 가죽 대신 새로운 가죽으로 복원하였고 이후 분실되었다가 다시 찾으려 수리하며 약간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어피나 동판 및 은입사 부속재 등이 온전하기 때문에 원래의 원재료는 대체로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 2-2)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명문 검

이 칼은 칼날 부분의 피홈(血漕)은 길이 64cm, 너비 9.1mm이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8글자가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2cm이다.

이 검 또한 호인은 황동 재질이고 너비는 4.55cm이다. 호인의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일정하게 음각되어 있다.

칼자루의 단면은 타원형이고 높이 5.5cm, 너비 2.91cm이다. 목재 위는 주칠한 어피로 감싸고 너비 2.08cm의 가죽끈으로 11번 교차매기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타원형 고리로 폭 1.2~1.3cm, 높이 5.6cm이며 철제에 파련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이고 길이 2.7cm, 하부폭 5.55cm, 상부폭 4.53cm, 밑바닥 타원폭 3.36cm이다. 깔대기 중앙에는 1개의 구멍을 뚫어 칼자루에 목재핀으로 고정하였다. 칼자루의 좌측 어피 위 유소혈에는 울룩불룩한 돈을 새김문양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旒蘇穴)을 보강하였다.

이처럼 칼자루에 사용된 목재나 주칠 어피, 울룩불룩 동판, 위아래 마개 등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나, 가죽으로 교차매기한 부분은 일제 강점기의 것보다 두껍고 숫자도 적어 습베의 음각 명문을 확인한 이후 수리복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 2-3) 이충무공전서의 참도와 비교

참도는 전장에서 군령을 집행하는 1쌍의 칼이다. 1795년 『이충무공전서』 「도설」에서 팔사품 중 참도를 설명하면서, 칼집은 나무로 만들며 쇠가죽으로 교차매기하고 주홍칠을 하며 은입사를 올린 쇠로써 장식하고 자루에는 매듭끈의 유소로 장식했

다고 한다(『李忠武公全書』「圖說」, “斬刀二刃 ... 裹鮫皮朱漆 牛皮條纏 刀環 銅鏤 玲瓏菊花樣 鞘用木 裹牛皮朱漆 飾以鍍鐵 柄貫朱絲綬.”).

이것은 현재 이순신장검과 매우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참도의 칼집 유물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쇠가죽을 싸고 주칠한 위에 종이를 감싸고, 끝 부분에는 거명쇠에 모란무늬를 은입사하여 마감했다. 칼집 중간 부분에 85cm의 붉은 삼겹바로 매듭을 맺고 붉은 술을 매달았다. 칼자루 유물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상어피로 감싸고 검은 녹피를 X자로 교차하여 감았다. 칼자루는 나무로 만들고 쇠가죽으로 싸고 주칠을 하고 칼자루 끝 또한 거명쇠에 모란무늬를 은입사하여 마감했다. 칼고리[코등이] 부분은 구리로 잔잔한 국화무늬를 투각하여 새기고 있다.



<이충무공전서의 팔사품 중 참도와 귀도>



<팔사품 중 참도>

2m에 가까운 참도나 이순신장검은 일본도(日本刀)인 노타치(野太刀)와 친연성을 보이는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중국은 일본도의 우수한 성능을 알아서 한 해에 수만 점의 일본도를 수입하였고 그것과 유사한 도검 20만 자루를 만들 정도였다. 왜구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명말 16세기 척계광(戚繼光)은 일본도를 개량하여 길게 만든 장검을 실전에 사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과 조선군은 길이가 길어 백병전에서 뛰어난 일본도를 노획에 열중하였으며, 조선 의병들 중 일부는 일본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 개량된 칼은 외형상 일본도와 다름없으며 팔사품의 참도와 유사한 형태는 명대의 『무기도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16세기 한·중·일 삼국의 칼은 여러 모로 공통된다. 무엇보다 칼날이 긴 점이다. 다음 손잡이에 쇠가죽으로 교차매기를 하거나, 어피를 사용하거나, 국화문의 코등이나 칼날의 흰 각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대 칼은 일본도에서 흔히 보이는 칼끝과 칼날을 나누는 요코테(横手)의 흔적이 없고, 유소(流蘇)를 칼 손잡이에 매거나 띠돈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스펀과 칼 손잡이의 목제 부분을 연결하는 목정혈에서도 한중일 삼국 칼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목정혈은 3개이고, 철제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반면 일본 칼의 목정혈에는 대나무 못을 끼운다. 조선 칼의 목정혈은 한두 개의 구멍에 동제 못이나 동제 파이프를 끼워 고정시키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의병장들과 휘하의 의병들은 포획한 왜군의 무기를 재활용했다. 이는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자급자족해야했던 의병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칼에 대해서는 당시 이름을 떨친 의병장들과 일부 무관들의 무기가 그러한 예에 해당했다. 또 다른 경우는 조선의 전통적 도검외장 속에 일본도의 칼날 형태나 규격을 수용하여 만든 칼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광재우 장도, 권응수 장검, 정기룡장검, 최진립장검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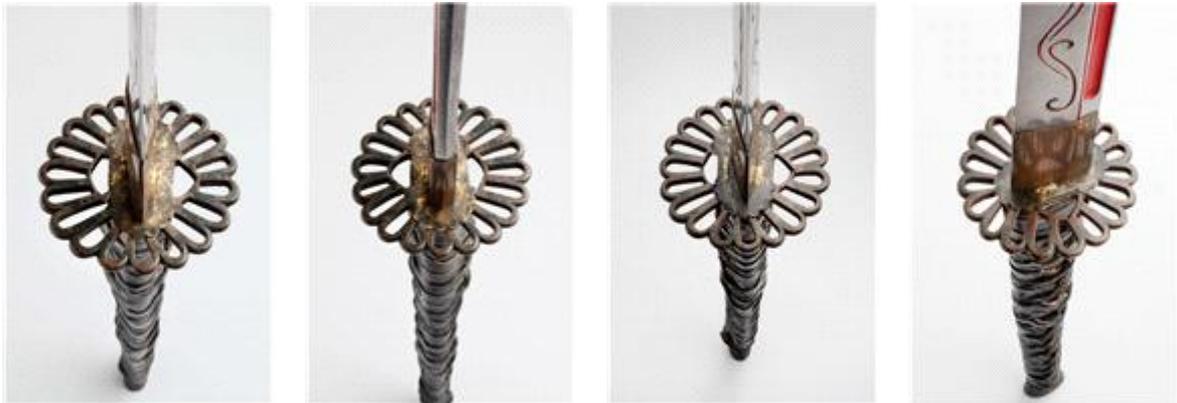
<표. 임진왜란 당시 주요 의병장들이 사용하던 도검과 비교>

도검명	사진	소장	지정
광재우 장도 (1552~1617) 93cm		충익사관리사무소	보물
권응수 장검 (1546~1698) 93cm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정기룡 장검 (1562~1622) 107.7cm		경충사	경남 유형문화재
최진립 장검 (1568~1636) 84.8cm		최재량 소장	경북 유형문화재

### 3. 이순신장검에 대한 세부 분석

장검의 칼날은 각각 137.3cm, 137.8cm의 외날 검으로 칼등 쪽을 따라 폭이 넓고 좁은 두 개의 골이 길게 파여 있고 구름문양이 음각되어 있으며 그 혈조 안쪽에 붉은 칠이 되어 있다. 혈조 아래에는 음각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금색 안료로 채워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이고, 다른 하나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떨고  
 一揮掃蕩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장검의 칼날과 호인, 코둥이>



<칼등의 중앙부와 단면>

이순신장검은 칼등의 중앙부를 살펴보면 칼날의 단면이 오각형이 아니라 분명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2개의 장검 칼몸 표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안에는 이러한 금색 안료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황동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입사 방법은 글씨를 파고 그 안에 금속사를 넣고 두드리는 것이나 이 입사는 입사된 표면이 거칠고, 기포가 있어 금속사를 이용한 입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모에 의해 글씨가 희미해진 곳에서도 입사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입사의 방법은 일반적인 입사 방법인 황동판, 황동선을 두드리며 넣는 것이 아닌 황동을 음각된 곳에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방법에 의한 입사로 보인다. 특히 도검류에 음각을 입사할 때 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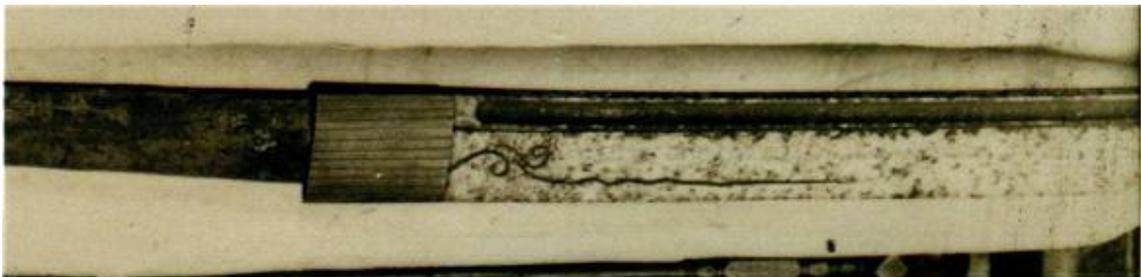


<칼몸의 글씨 '삼천'의 세부>



<글씨 '산하'의 세부>

한편 혈조의 붉은 색 안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1800년대 서양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황연이었다. 이 때문에 적색 안료를 근래 칠했다고 과학적인 성분 결과에 의해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장검에는 혈조에 붉은색이 칠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코등이 등에 남아 있는 안료 성분에 의해 석간주나 주사 등으로 혈조에 적색을 칠해야 한다고 본다.



<이순신장검의 혈조,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장검의 혈조>



<혈조의 화학 안료>

1928년 조선사편수회의 유리원판에는 칼날이 거뭇거뭇하여 녹슨 모습이 보인다. 이후 1955년 마광사 정은조 도검사의 구술 증언에 의하면 칼날을 연마하고 마광 작업을 하고 칼자루를 보수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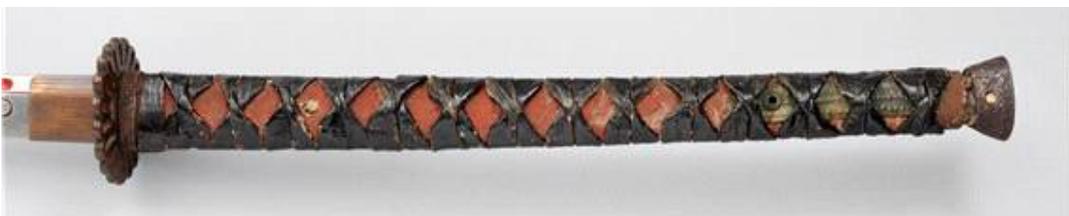


<이순신장검의 혈조 부분>

#### 4. 칼자루

칼자루는 나무에 일부 황동판을 대고 그 위를 붉은 색칠을 한 어피로 감싼 후 옷칠을 한 가죽끈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묶었다. 손잡이 끝에는 빗금무늬를, 옆면에는 모란을 은입사 하였다. 또한 칼자루 중간에는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시키기 위한 슴베구멍이 있고 대나무 못이 끼워져 있다.

##### 4-1) 칼자루의 구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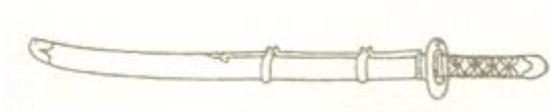


<이순신장검1의 손잡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 구멍 중 자루 아래의 것은 슴베와 자루를 고정하기 위한 ‘일본식 목정혈’이고, 상부의 구멍은 ‘조선식 유소혈’이 존재하여 조선식과 일본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순신장검의 칼자루는 X자 교차매기로 줄을 감았다. 이러한 끈매기 방식은 일

본 방식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어 1813년에 발간된 용원필비(戎垣必備)에 수록되어 있는 환도의 도해에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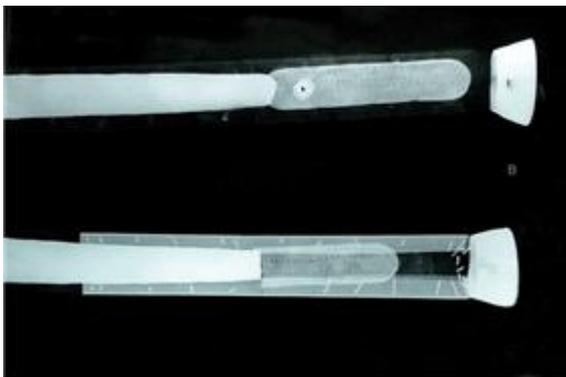
<용원필비의 환도 도해, 1813년>



<군제환도, 경인미술관 소장>

이순신장검은 도신, 절우, 코등이 등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스페를 나무에 끼우고 그 위에 금속을 덧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점에서는 스페 부분 전체를 금속으로 감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피와 검은칠 가죽 사이의 금속은 황동이고, 코등이는 청동이었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 끼우는 코등이는 순동에 미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었다.

칼자루 안쪽의 붉은색 안료는 현미경 관찰 결과 두가지 색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있던 안료 위에 덧칠을 하였다고 여겨지며,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과거의 안료는 석간주( $Fe_2O_3$ , Hematite)이고 이후의 안료는 주사(HgS, Cinnaber)와 연단( $Pb_3O_4$ , Red lead)이 혼합된 안료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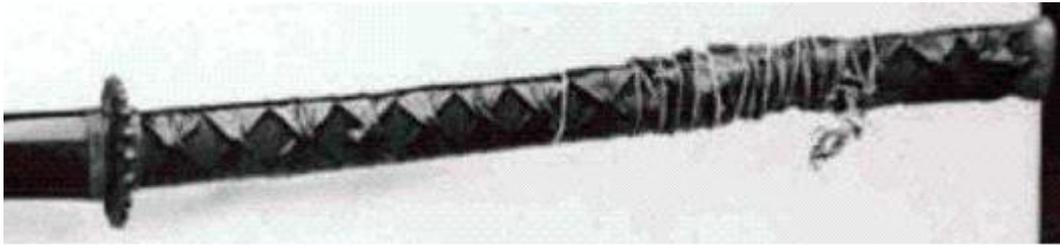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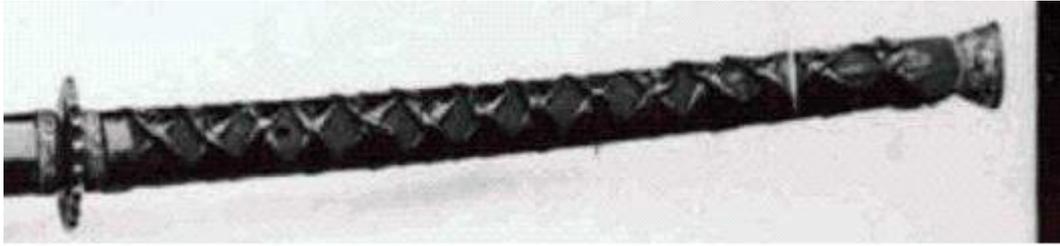
<장검 칼자루의 X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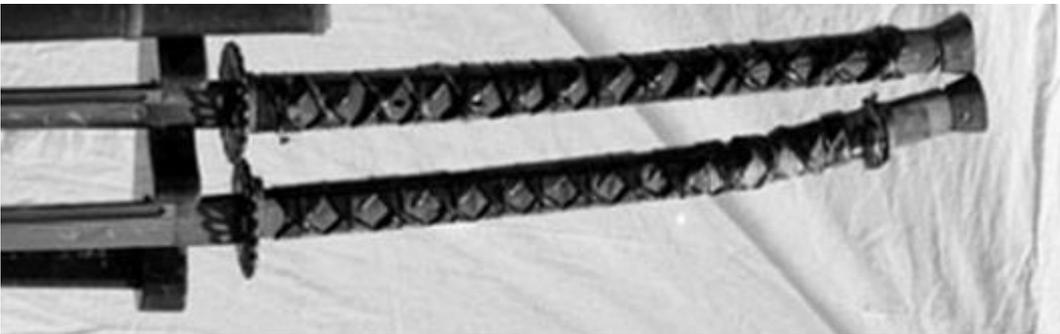
<칼날, 호인, 코등이, 절우, 교차매기>

칼자루의 경우 일체강점기에 이미 칼자루 하단이 훼손되었고 스페의 글씨를 확인하고자 교차매기한 가죽을 풀면서 딱딱하게 경화된 원래의 교차매기한 가죽 대신 새로운 가죽으로 복원하였고 이후 분실되었다가 다시 찾으면서 수리하며 약간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피나 동판 및 은입사 부속재 등이 온전하기 때문에 원래의 원재료는 대체로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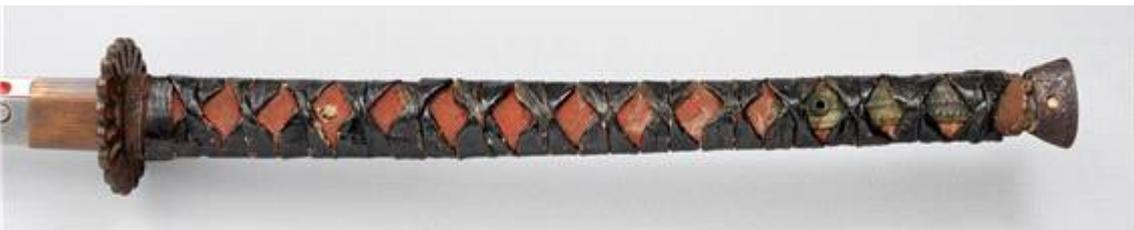
4-2) 칼자루 교차매기의 변화과정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1928년 조선편수관에서 촬영한 유리 원판 사진>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1969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흑백사진>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현재 모습>



<이순신장검1의 교차매듭, 2023년 현재>



<이순신장검1의 X-ray 사진, 2011년 과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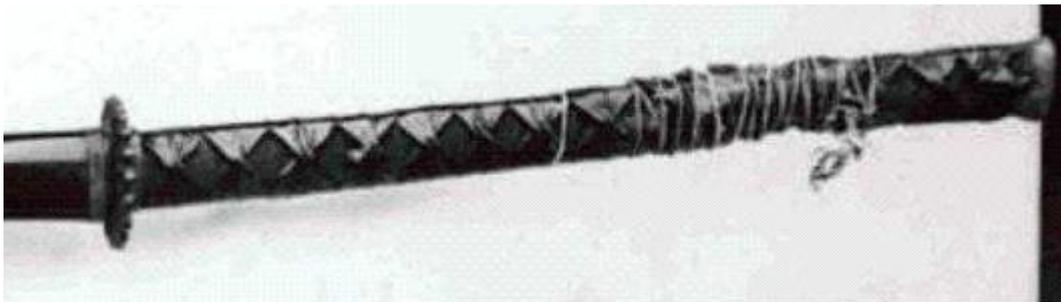
1928년 유리원판에 의하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에는 한번 一자로 띠를 돌린 후 깔대기형 뒷마개까지 총 14번의 X자 교차매기가 되어 있다. 3번과 4번 X자 사이에 목정혈이 보이고, 12번째 X와 13번째 X 사이를 밝은색의 가는 철사나 실로

묵은 흔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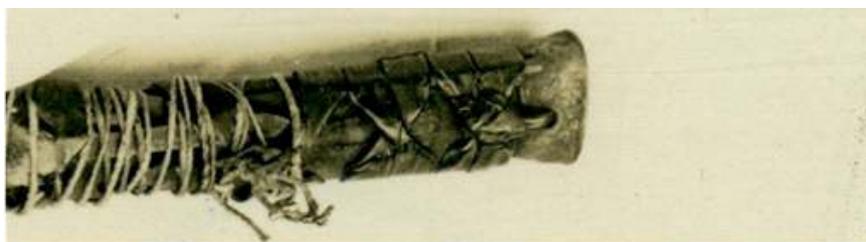
1969년 국가기록원 소장 흑백사진을 보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에 14번의 X자형 교차매기가 되어 있고 3번과 4번 사이의 목정혈이 보이거나 14번의 X자 매기를 한 후 철제 은입사 칼자루 마감장식과의 간격이 차이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 유물 현지 실측조사 당시 조사한 이순신장검1의 X자 매듭이 언제 다시 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이순신장검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서 X-ray로 투사하여 조사한 결과 장검의 칼자루의 스펀부터 내부의 목재나 목정혈 및 철제은입사 마감장식 등에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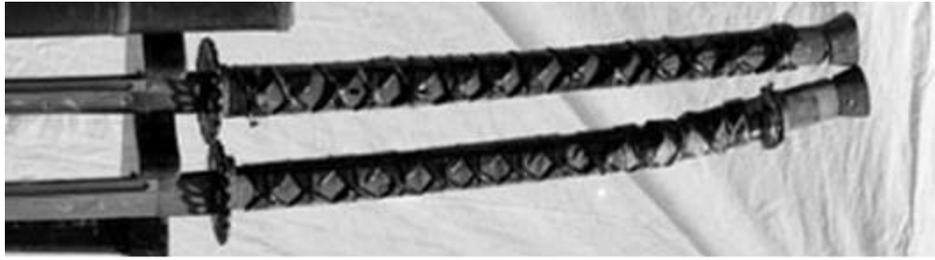
한편 이순신장검2의 경우 1928년 유리원판을 보면 처음의 X자 매기 없이 곧바로 일정한 두께로 14번 X자로 교차매기를 하고 있다. 코등이부터 7번째까지 X자가 보이고, 8번째부터 가죽으로 칭칭 동여맸는데, 10번째 부분에서 나무가 부러졌는지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11번 부분부터 뒤쪽에는 받침대를 대고 노끈으로 여러 번 동여매어 형태를 만들었고 유소혈을 지나 12번부터 다시 13번과 14번의 X자는 잘 드러난다. 더욱이 14번의 매듭은 철제은제 마감 장식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가죽끈을 넣어 엮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2번부터 14번까지의 X자 매기장식을 한 가죽 아래로는 대나무 쥘대를 넣어 고정시키고 그 끝이 은제 마감장식까지 튀어나와 있다.



<이순신장검2 칼자루의 X자 교차 장식,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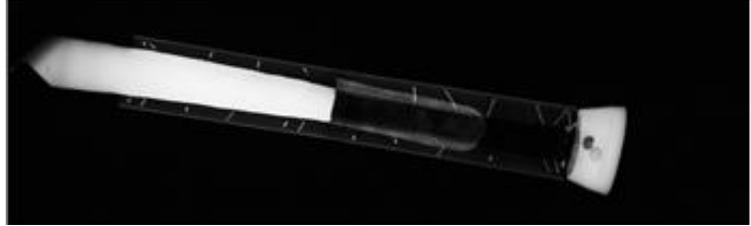
<이순신장검2 10번부터 14번까지의 X자 매기장식 모습,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이순신장검2 1969년 국가기록원 소장 흑백사진>



<이순신장검2 칼자루 교차매기, 칼자루 윗마개 장식(은입사)>



<이순신장검2의 X-ray 사진, 2011년 과학조사>

1969년 흑백 사진을 보면 이순신장검2의 칼자루가 비정상적으로 굴곡져있다. 10번째 X부터 살짝 휘어 13번 X자로 교차 매듭하고 14번째의 것은 13번과 엉켜 마감되어 있고 철제 마개장식까지 가지 않고 앞쪽에서 마감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순신장검2의 X자 매기장식을 하기 위해 가죽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매듭을 한 다음 옷칠을 새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옷칠의 경우 아래쪽 주칠 어피 위에 검은 칠이 오염되어 묻은 것에서 확인된다.

2022년과 2023년 유물 현지 실측조사 당시 조사한 이순신장검2의 X자 매듭이 언제 다시 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2011년 이순신장검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서 X-ray로 투사하여 조사한 결과 장검2는 장검1과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장검2는 칼자루의 스킴부터 자루를 이루는 목재나 목정혈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지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장검1은 칼자루의 스킴부터 목제 및 철제 은장식 마개,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돌을새김 동판까지 원형을 유지하되 표면의 가죽만 교체하고 흑칠을 했다고 보인다. 장검2 또한 칼자루의 스킴부터 목제 및 철제 은장식 마개,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돌을새김 동판까지 원형을 유지하되 목제가 취약하여 내부에 못을 박아 형태를 고정한 다음 표면 가죽만 교체하고 흑칠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순신장검의 칼자루는 스킴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목재나 목정혈,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돌을새김 동판, 철제은입사 마개장식 등까지 모두 제작 당시인 1594년의 원형을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표면의 가죽은 시간이 오래되어 딱딱하게 경화되고 끊어져 1969년 이후 어느 때인가 다시 교체한 것을 알 수 있다.

### 4-3) 칼자루의 철제 은입사 문양과 기법

이순신장검 두 자루에는 코등이 좌우의 좁은 폭 절우에는 삼각형으로 상하로 은실로 당초문대를 반복하여 시문하고 있다. 칼자루와 칼집이 맞물리는 상하 절우에 새겨진 입사문은 삼각 당초문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이암(李巖, 1507~1566)이 그린 <가응도(架鷹圖)>에서 확인된다. 매가 앉아 있는 받침대를 은입사로 장식하였는데, 삼각 당초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16세기 중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초문은 좀더 회화적이고 곡선의 부드러운 처리로 되어 있는 반면 1594년 이순신장검의 절우에 새겨진 당초문은 도안적이고 직선적인 처리여서 약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순신장검의 칼날과 칼집 사이의 철제은입사 절우와 코등이>



<이순신장검1과 2의 손잡이 끝 철제 은입사>



<한말 철제 자물통의 은입사 문양>



<이암(李巖, 1507~1566), <架鷹圖> 받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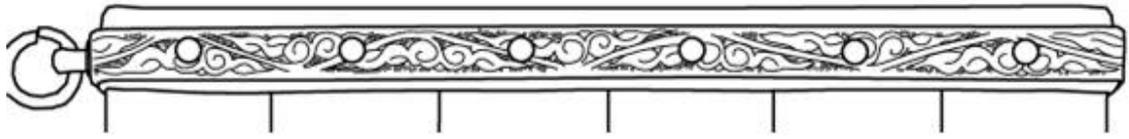
<명성왕후 상존호옥책, 1676>



<인원왕후 가상존호옥책, 1751>



<문조 추상존호옥책, 1866>



<효종 상시호옥책의 변철, 1659>



<영조 옥책의 변철, 1756>

1594년 이순신장검의 절우에 보이는 삼각형 당초문양은 이후 조선 왕실 옥책의 상하 변철에 장식되는 문양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 16세기 말 철제 은입사로 제작된 삼각당초문대는 17세기 말 왕실의 옥책 변철에서는 음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선과 유려한 곡선으로 처리되면서 시대의 변천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순신장검에 사용된 철제 은입사 장식은 조선의 대표적인 공예기법이다. 이중 은선을 가늘게 잘라 문양 부분에 끼워넣는 은입사기법이 무기류에 많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선적으로 표현되는 문양은 선을 반복하여 삼각형을 이루거나 당초문양처럼 폭이 좁은 문양대에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한다. 중심 문양이 되는 연꽃의 파련문은 그 주변을 메꾸거나 기물의 빈 부분을 장식한다.

## 5. 칼집

칼집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붉은 빛의 어피를 씌운 후 주합칠을 하여 검은 듯 보이는 바탕으로 어피가 잘 드러나고, 가죽끈목을 달았다. 칼집에는 여러 부분에 철제를 사용하여 목제를 보강하였는데, 칼집입구장식, 다회를 걸 다회고리, 그 위를 지지하는 패용장식, 칼집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칼끝마개장식이 그것이다.

### 5-1) 칼집의 구성

칼집은 목제를 만들되 어피로 싸고 주합칠을 한 다음, 철제로 칼집입구장식, 패용장식, 좌우 다회고리, 칼끝마개장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철제장식은 좁은 부분조차 파련문이나 거치문, 당초문등을 포목상감기법으로 은입사하여 조선식 장검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이순신장검의 칼집>



<이순신장검의 칼집과 가죽 손잡이 고리>



<장검의 칼집끝 장식, 철제 은입사>



<어피의 세부>



<은입사 세부>

## 5-2) 칼집 철제장식의 은입사 문양

칼집에는 여러 곳에 철제 장식을 배치하고 있다. 먼저 칼집입구를 거치문으로 장식하였다. 다음 가죽끈목을 매달기 위해 칼집의 좌우에 다회고리를 각각 철제로 걸어 고정시켰는데, 좁은 폭에도 삼각형의 거치문을 은입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칼집의 끝마개장식 또한 골무처럼 철제로 마감하여 칼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식미를 부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조선 후기에 단청이나 공예품의 문양으로 널리 유행하는 파련문이 은입사로 장식되어 있다.



<칼집 끈목 고정장식의 은입사 부분>



<칼집 입구 부분의 당초문 은입사>



<이암(李巖, 1507~1566), <架鷹圖> 받침부분>

특히 골무형으로 마감한 칼끝마개장식의 파련문의 문양은 중국의 도검이나 일본의 도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순신장검만이 갖고 있는 가장 조선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이순신장검의 마개장식에 보이는 16세기 말의 파련문 문양은 조선 전기 연꽃 문양에서 볼 수 있는 선적으로 자유롭고 분방하게 시문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자유로운 곡선적인 연꽃의 문양처리는 18세기 이후 왕실 의례 때 보록 등에 사용된 자물쇠보다는 시기가 올라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7세기 은입사된 연꽃문양은 1653년 <동화사명 청동은입사 향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 시기인 1594년 이순신장검의 연꽃 무늬와 마찬가지로 선적이면서 자유로운 구성 형식을 지니고 있다. 결국 16세기 말 연꽃의 은입사 표현이 17세기 말까지도 여전히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순신장검 1,2의 칼끝마개장식의 앞뒤 은입사, 1594년>

반면 시기가 내려가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왕실의 보록이나 인록과 같은 왕실공예품의 자물쇠에 시문된 은입사 문양은 이전시기와 다른 양식적인 특징을 보인다. 곧 전통적인 연화당초문이 자물쇠라는 한정된 공간에 시문되면서 그 문양의 특징을 간결하게 도안적으로 정리하여 패턴화된 모양으로 철제 자물쇠에 은입사한 것이다. 특히 당초 줄기 사이에 시문되어 있는 파련문은 이 시기 단청 문양과도 매우 친연성을 보이는 가장 조선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왕실공예품에서는 파련문을 중심 문양으로 시문하고 당초문양이 연결되어 무늬 구성면에서 균형과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사명 청동은입사향완, 1653년>



<진중세자인록 자물쇠, 1725년>



<효순후가례인록 자물쇠, 1727년>



<상시호보록 자물쇠, 1783년>



<추상시호보록 자물쇠, 1804년>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 철제에 은입사를 하는 경향은 왕실에서 뿐 아니라 군사용의 무기류, 더 나아가 양반이나 부유한 상공층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군사용 투구 장식이나 철퇴 등에 새겨진 파련문은 18세기 이후 장식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퇴(鐵槌)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전체적으로 입사되어 있으며, 기형 또한 철퇴의 머리 부분이 커지면서 점차 철퇴는 실전용에서 의장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제은입사 투구장식,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철퇴, 국립중앙박물관>



<철제은입사투구, 19세기, 높이 31.0cm, 육군박물관>

이로 미루어 1594년 이순신장검의 파련문은 철제에 은입사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양이고, 철제에 은입사한 이른 사례라 여겨져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이충무공전서』.

### ○ 참고문헌

-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도록』, 2014.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옥책』, 2017.
- 「되찾은 난중일기」, 『대한뉴스』 658, 1968. 1. 19.
- 강성문, 「조선시대의 환도의 기능과 제조」,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붕명, 2000.
- 광낙현, 「조선시대 도검에 관한 연구」,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2020.
-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에 나타난 문양과 매듭장식에 관한 연구」, 『학예집』 11, 육군사관학교, 2004.
-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의 유형분석-칼몸의 스페와 자루의 결합구조」, 『학예집』 11, 육군사관학교, 2004.
-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제」,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 이석재, 「형태와 용도로 본 이충무공 장검의 정체성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경희,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八賜品) 연구」, 『역사민속학』 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20.
- 조혁상,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 최응천, 『한눈에 보는 입사』, 미진사, 2016.



## ○ 현 상

1963년 보물 제326호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長劔), 옥로(玉鷲), 요대(腰帶), 도배구대(桃盃具臺)로 구성되어 있다. 장검은 길이가 약 2m에 달하는 매우 긴 검으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이 각각 검집을 갖추고 있다. 옥로

는 관모의 정상에 고정하여 장식하는 입식(笠飾)이며 누비보자기로 싸고 나무함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허리띠인 요대는 가죽 띠에 사자와 구름무늬의 띠돈[帶錢]을 부착하였으며 나무로 만들고 옷칠한 함에 담아 보관하였다. 복숭아 모양의 술잔인 도배(桃盃)는 한 쌍이 있으며 각각 받침[臺]을 갖추었다.



## 1. 명칭

1790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것은 검(劍, 劍), 칼날이 한쪽에만 있으면 도(刀)라고 하는데 후세에는 검과 도가 서로 혼용되었다고 하였다. 1813년 『용원필비(戎垣必備)』에는 옛날에는 도와 검의 제도와 명칭이 달라서 도는 자루가 길고 칼날과 모철(冒鐵)이 있고 검은 자루가 짧고 날이 길며 칼집이 있는 칼이었으나 당시에는 구분 없이 도라고 부른다 하였다. 따라서 원래는 검과 도의 구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 간행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본 유물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장검 한 쌍에 충무공의 친필을 나누어 새겼고, 후손의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다.<sup>3)</sup> 장검에 새긴 명문의 글자 역시 기록과 유물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유물은 장검(長劍)이라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구조와 제작

3) 『이충무공전서』 권1 「잡저(雜著)」 “長劍一雙分鐫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 1) 칼자루

장검 2점은 크기, 형태, 구조, 재료로 보았을 때 거의 일치하며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검1은 전체 칼몸 길이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는 4.32kg이고, 장검2는 전체 칼몸 길이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는 4.20kg으로 일반적인 도검에 비해 매우 길고 무겁다.

칼자루의 길이는 약 60cm, 두께는 5cm이며, 나무에 어피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하였다. 일부분만 직사각형의 황동 금속판을 댄 후 너비 2cm의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하여 감고 끈 위에 검은 칠을 하였다. 길이 15cm, 너비 3cm의 금속판은 가로세로로 일정 간격마다 돌기를 만들어서 마찰을 크게 만들었고, 칼자루의 한쪽면은 위쪽에, 반대면은 아래쪽에 돌기 금속판을 배치하여 양손으로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14회에서 14회 반 정도 X자로 교차하여 매듭을 반복하여 감았는데 이 역시 칼자루를 단단하게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칼자루의 위쪽 끝에는 사다리꼴로 조금 더 넓어지는 철제 마개를 씌워서 칼자루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칼자루 끝의 장식부분을 pommel이라고 하며, 장검은 칼자루 윗마개를 철제 은입사로 연꽃넙쿨무늬를 표현하였다.



<돌기 금속판> <X자형 매듭(정면)> <X자형 매듭(측면)> <칼자루 윗마개 은입사장식>

칼자루와 칼날이 만나는 부분에는 둥글고 납작한 꽃모양의 코등이가 끼워져 있다. 칼 코등이는 고동, 도환(刀環), 검비(劍鼻), sword guard 등으로 불리며, 칼자루를 권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순동으로 만든 코등이의 지름은 9.5cm, 두께는 0.5cm이고, 꽃잎 수는 2점 모두 똑같이 19개이다.



<꽃모양 원형 코등이>

## 2) 칼날

칼날은 칼등 방향으로 조금 휘어 있고 칼끝은 예리하다. 칼날의 단면은 칼날의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육각도(六角刀) 단면을 보이고 있다. 육각도는 대나무 등 딱딱한 대상을 벨 때 유리하다. 호인(護刃, rain-guard, chappe)은 칼날 위를 감싸서 두른 덧쇠로, 칼을 칼자루에 꽂을 때 칼날을 보호하는 동시에 칼날과 칼집의 결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구리로 만들어 동호인(銅護刃)이라고도 한다. 장검의 호인 역시 구리로 만들었으며<sup>4)</sup> 길이는 45.5~48.3cm, 두께는 14.7~15.7cm이고 한쪽 면에 10~13개의 선이 새겨져 있다. 혈조(血漕)는 칼날에 홈을 낸 것으로 글자 그대로 피가 흘러나오도록 홈을 만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칼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장검의 혈조 너비는 0.91cm, 길이는 64.0~66.5cm이다.

장검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글자가 각 8자씩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장검1에는

4) 과학적 분석 결과 주석의 함량이 5%인 구리(Cu : Sn = 95 : 5), 즉 청동으로 확인되었다.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2.

“三尺誓天 山河動色”, 장검2에는 “一揮掃蕩 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있으며, 한 글자는 가로 세로 1.1cm 크기로 전체 명문 길이는 약 12cm이다. 선각한 글자의 안쪽에는 금빛 물질을 채워 넣었다. 칼날의 위, 중간, 아래의 세 부분에는 넝쿨 혹은 물결무늬가 선각(線刻)으로 장식되어 있다.



<장검의 칼날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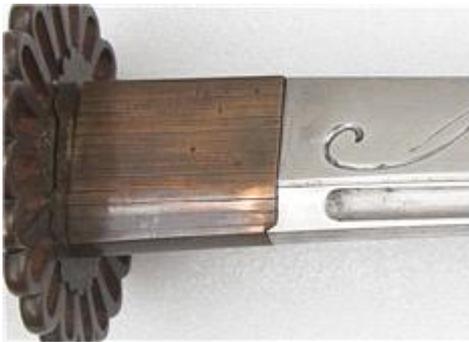
<칼등(칼날의 위쪽)>



<칼날의 아래쪽>



<육각도 단면>



<구리로 만든 호인>



<혈조와 선각무늬>

### 3) 칼집

장검을 찌는 검집, 즉 칼집은 칼날의 곡률을 맞추어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패용할 수 있도록 가죽끈을 매달았다. 검집1과 검집2의 길이는 144.5cm로 동일하나 황토색 가죽끈의 길이는 검집1이 87.0cm, 검집2가 92.0cm로 5cm 가량 차이가 난다. 나무를 깎아 틀을 만든 후 어피를 감싸 씌우고 그 위에 검은 흑칠을 하였다. 어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칼집의 윗부분에는 철테를 두르고 아래에는 길이가 긴 골무형태의 철마개를 씌웠다. 칼집의 위쪽에는 철테 2개가 더 둘러져 있는데, 이는 칼집, 즉 칼을 패용할 끈을 매달기 위한 목적의 철테이다. 칼집의 상단을 따라서 철로 만든 띠가 부착되어 있고 철테를 두른 부분 위쪽으로 구부러져 고리를 만들며, 여기에 다시 둥근 고리를 끼우고, 그 고리에 납작한 끈을 통과시킨 후 바느질로 고정하였다. 끈은 검과 검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강도가 높아야했으

로 심지, 직물, 끈 등 여러 재료를 겹쳐서 만들었다. 이때 끈의 두께로 인해 일반적인 바느질이 어려우므로 미리 일정 간격으로 칼금을 넣은 후 여러 겹의 실을 사용하여 가죽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박음질인 새들 스티치(saddle stitch)로 튼튼하게 고정시켰다. 칼집의 테와 아랫마개, 칼집을 패용하기 위한 테와 고리에는 모두 은입사기법으로 연꽃과 넝쿨무늬, 줄무늬, 기하무늬를 장식하였다.



<검집(칼집)의 구조>



<검집1의 패용고리와 가죽끈>



<검집2의 패용고리와 가죽끈>



<끈의 연결방식>



<복합재료의 끈과 바느질 상태>



<끈 바느질용 구멍>

## ○ 내용 및 특징

### 1. 칼날에 새겨진 검명(劍銘)

장검의 칼날 위쪽에 각 8자씩 새겨진 명문은 『이충무공전서』(1795)의 검명(劍銘) 기록<sup>5)</sup>과 일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장검 한 쌍이 충무공의 후손 집안에 전해오는데 공의 친필이 칼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劍銘 [長劍一雙分鐫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5)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 「잡저(雜著)」.

三尺誓天 山河動色 二 一揮掃蕩 血染山河”

(검명-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기니 곧 충무공의 친필이다. 지금 충무공의 후손집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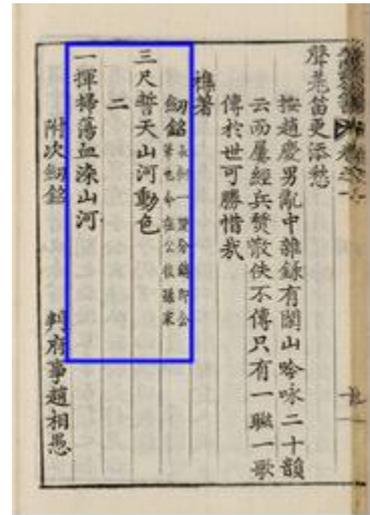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장검1의 명문  
“三尺誓天 山河動色”>



<장검2의 명문  
“一揮掃蕩 血染山河”>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장검의 명문>

칼에 글자를 새기는 검명은 기물명(器物銘)의 한 종류이다. 기물명은 옛 군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사물에 명(銘)을 붙인 것이며, 이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수신(修身)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원래는 기물에 실제로 글을 새겨 조각하였지만, 훗날에 와서는 반드시 새기는[刻] 과정을 밟지 않고도 일반 문인들의 문필생활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기물에 직접 글을 새기던 관행이 기물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기물명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압도적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제작된 것은 수기적(修己的), 잠언적(箴言的) 성격의 기물명으로,<sup>7)</sup> 검명 역시 이에 해당한다.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은 “내명자경 외단자의”라는 구절을 새긴 큰 칼을 차고 심신을 경계하였다.<sup>8)</sup> 조선 후기 실학자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는 고검(古劍)에 대한 검명(劍銘)이 10편이나 실려 있으며<sup>9)</sup>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이복연(李復淵, 1688~1732)이 통제사 재직 시절

6) 김동준, 「한국 기물명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소고」, 『진단학보』 97, 2004, pp.89~91.

7) 위 논문, pp.96~103.

8) 위 논문,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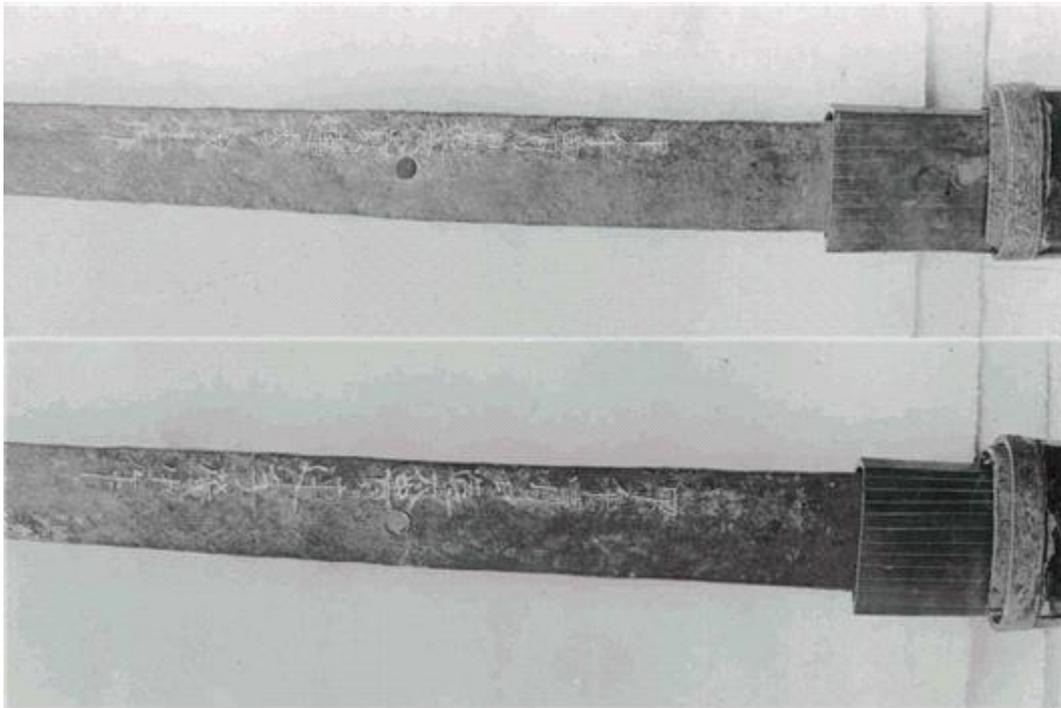
9) 성해응의 검명 10편의 제목은 <家中古劍銘>, <俞揔管劍銘>, <李貞翼劍銘>, <林將軍劍銘>, <崔將軍劍銘>, <南氏短劍銘>, <李提督劍銘>, <斫石劍銘>, <忠貞劍銘>, <六稜劍銘>이다. 조혁상, 「조선후기의 도검증여(刀劍贈與)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27, 2014, pp.10~13.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여 한 쌍의 장검을 만들어,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의 구절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sup>10)</sup>

장검 유물에는 충무공의 다짐을 검명으로 새겨 심신을 수련하고 검명을 볼 때마다 다시 각오를 상기시키는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다.

## 2. 스페에 새겨진 명문(銘文)

스페란 칼자루 속에 들어박혀 있는 뾰족하고 긴 부분으로, 칼자루와 칼날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유리건판 자료를 보면 장검 2점을 조사하면서<sup>11)</sup> 칼자루와 칼날을 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페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하였다.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스페의 명문>

두 자루 모두 스페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때 갑오년은 1594년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년 후이다. 장검 2점의 제작자로 새겨진 2인 중 태귀련(太貴連)은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 중 을미년(1695년)에 환도를 제작하였

10) 위 논문, p.21.

11)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편찬을 담당한 실무자이자 한국사를 연구한 전문가이다. 1928년 이순신 중손가에서 이순신 관련 유물을 확인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 - 조선역해전사료의 발견」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글을 썼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소유했던 장검 2자루에 대해 “순신 소지의 명도(銘刀)로서 역사적으로 진귀한 유물일 뿐 아니라, 조선 공예미술사상 더욱 주의할 유물”이라며 그 사료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사연구』 68, 2020, pp.149~174.

다고 기록된 태구련(太貴連)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충무공전서』 권7 「난중일기」 3, 1595년 7월 14일(乙酉)

“李祥祿，太九連，孔太元等入來 … ”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 )

『이충무공전서』 권7 「난중일기」 3, 1595년 7월 21일(壬辰)

“食後太九連彦福所造環刀 忠清水使，兩助防將處 各一柄分送”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보냈다.)

슴베의 명문으로부터 장검 2점은 1594년(선조 27)에 태구련과 이무생이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조선과 일본의 양식이 혼용된 도검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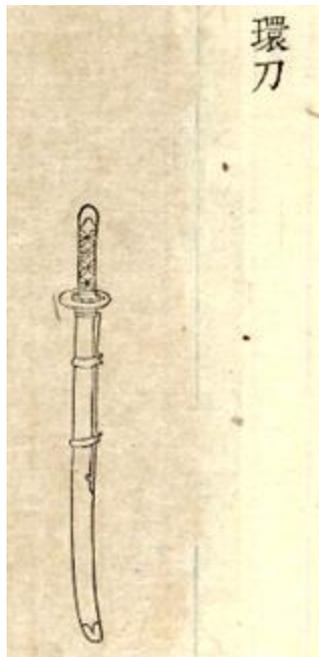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 도검[軍刀] 형식이며 전통적인 조선식 환도에 해당한다. 나무틀 위에 어피를 감고 주철을 한 칼자루,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기를 만들어 칼자루 표면에 부착한 금속판, 은입사기법으로 장식한 전통무늬,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칼집의 패용 장식과 가죽끈, 칼집 상단의 테두리와 하단의 마개 등은 조선의 도검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이다.

여기에 일본의 요소가 도입되어 적용되었다. 칼자루를 보면 철제 윗마개를 자루에 고정시키려고 나무를 쫓는 구멍을 제외하고, 2개의 구멍이 있다. 이 중에서 칼자루의 위쪽, 즉 사진의 오른쪽 구멍은 유소혈(流蘇穴)로서 매듭술장식인 유소를 매달기 위한 구멍이다. 칼자루의 아래쪽, 즉 사진의 왼쪽 구멍은 목정혈(目釘穴)로서 슴베와 칼자루를 결합했을 때 구멍을 맞추고 못을 끼워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다. 유소혈은 조선의 도검에서 자주 발견되는 구멍이고 목정혈은 일본의 도검에서 보이는 구멍인데, 장검은 유소혈과 목정혈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칼자루에 X자형으로 교차하여 끈을 매는 방식은 일본식으로, 칼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1813년에 간행된 『용원필비(戎垣必備)』의 도설에 그려진 환도의 칼자루에서는 X자형 매듭으로 묶은 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칼날이 휘어진 곡률이나 혈조를 넣는 방식은 일본의 칼날 제작 방식에 가깝다. 그러나 그 칼날 위에 새긴 글자와 무늬는 조선의 양식이다.<sup>12)</sup>

12)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살과 실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pp.94~95.



<장검의 구멍 : 목정혈과 유소혈>



<『용원필비』 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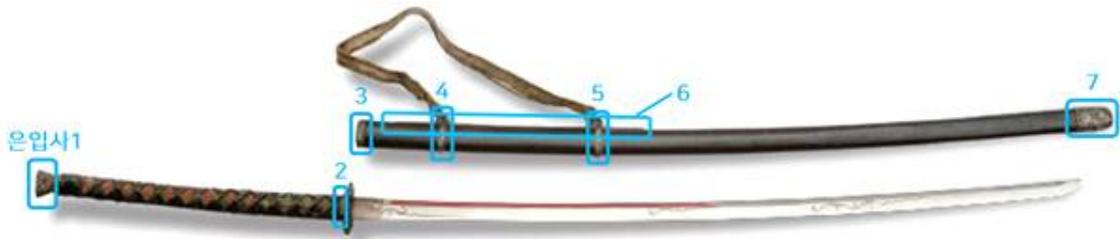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일본의 칼 제조기술은 매우 발달하였고, 전쟁 혹은 교류를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무기를 제작하는 재료나 기술을 흡수하고자 하였으므로 일본의 칼 제조법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리라 추정된다.

#### 4. 우수한 은입사 공예기법

장검은 칼자루와 칼집의 여러 부분에 은입사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철 표면을 곱게 쪼아질 한 후 은선으로 장식하는 은입사(銀入絲) 기법으로 연꽃과 넝쿨, 각종 기하학적인 무늬를 표현했다. 은입사는 고려시대 불구(佛具)부터 조선시대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금속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칼자루의 윗마개 측면(1번)에는 연꽃과 넝쿨무늬, 윗마개 상단 정면(1번)에는 X자로 영역을 구분한 후 방향을 바꾸면서 빗금무늬를 반복하였다. 칼자루의 아래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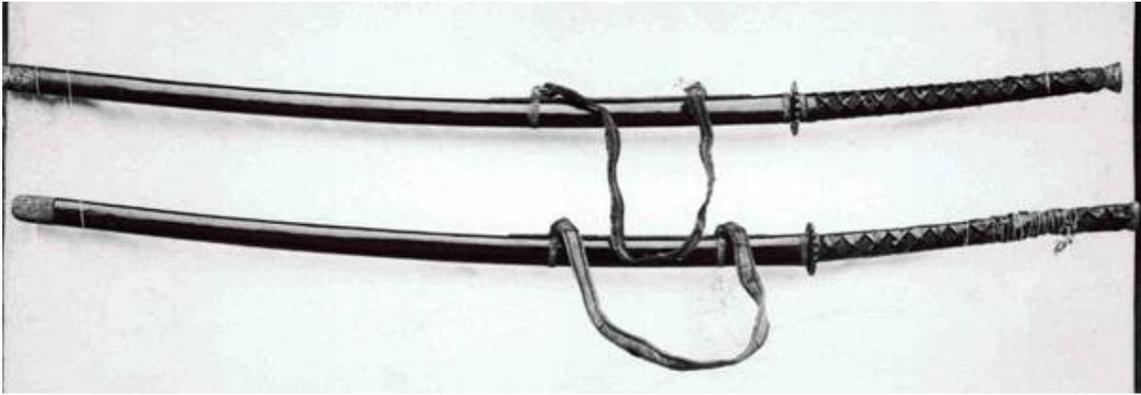
(2번)과 칼집의 위쪽(3번) 테두리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선을 두른 후 안쪽에 사선과 소용돌이 물결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코등이를 중심으로 상하에 위치한 부분으로 동일한 무늬를 사용하였다. 칼집에 가죽끈을 달아서 패용하기 위한 고리와 장식 부분(4,5,6번)은 모두 같은 무늬로 통일하였다.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선을 두르고 안쪽에는 지그재그를 한 줄로(6번), 혹은 상하대칭으로 두 줄로(4,5번) 배열하였다. 마지막 칼집 아랫마개(7번)는 연꽃과 넝쿨무늬로 가득 채웠으며, 이로써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 상단(1번)과 하단(7번)이 같은 무늬로 완성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문양 배치와 은입사 공예기술의 수준을 보았을 때 장검은 조형적으로도 우수하고 아름답다.



은입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위치	칼자루 윗마개	칼자루 아래	칼집 위	패용 고리1	패용 고리2	칼집 패용 고리와 장식	칼집 아랫마개
사진1							
사진2							

### 5. 보존 상태와 수리 연혁

세부적으로 손상되거나 노후한 부분은 있으나 장검 2점과 검집 2점 모두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특히 칼날은 부식이나 균열 없이 매우 뛰어난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장검>

1928년 촬영된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아래쪽 장검은 칼자루의 X자형 끈이 일정부분 풀어져서 나선형으로 감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는 끈은 다시 새로 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습배의 명문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칼자루로부터 칼날을 해체했었음을 의미한다. 칼날과 칼자루의 목정혈을 맞추어 다시 결합하였고, 칼자루의 X자형 끈도 수리한 것이다.

또한 후대에 혈조, 물결무늬, 검명 등 칼날의 홈과 선각에 붉은 색 안료를 채워 넣었다가 제거한 일도 있었다. 2011년 보존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칼자루 붉은 색 안료 및 흑칠, 칼날의 붉은 색 안료 등은 근대에 수리를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작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자루의 붉은 색 안료는 석간주(Hematite)이나 후대에 칠한 안료는 주사와 연단이 혼합된 안료였고, 칼날 혈조를 채운 붉은 색 안료는 근대 이후의 합성도료로 여겨지며, 칼날에 새긴 검명에는 황동으로 채워서 금빛을 발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3)</sup> 이후 2014년 FT-IR을 이용하여 혈조의 안료를 바인더 조사한 결과 주철이 아닌 현대 화학안료(합성수지도료)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도료를 제거하고 향후 원래의 안료 및 도포 방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전통 방식으로 다시 채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붉은 색 도료를 제거하고 보존처리하였다.<sup>14)</sup>

13)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2.

14)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pp.499~506.



<장검에 붉은색 안료를 채워넣은 상태>



<장검에 붉은색 안료를 제거한 상태>

## ○ 참고문헌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김동준, 「한국 기물명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소고」, 『진단학보』 97, 2004.
-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 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2020.
- 도보선, 「朝鮮時代品帶에 關한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 조혁상, 「조선후기의 도검증여(刀劍贈與)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27, 2014.
-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충무공 장검 제작 7주 갑 기념 특별전 도록』, 2014.
- 국립대구박물관 편, 『선비의 멋, 갓』 특별전 도록, 2020.
- 국립민속박물관 편, 『머리에서 발끝까지-모자와 신발』 특별전 도록, 2011.
- 서울역사박물관 편, 『운종가 입전(笠塵), 조선의 갓을 팔다』 특별전 도록, 2020.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편, 『조선시대 帶』 특별전 도록, 2021.
- 국립대구박물관 편,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 특별전 도록, 2021.



## ○ 현 상

이순신 유물 일괄은 지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도배와 받침 한 쌍 4점으로 모두 4건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검은 칼날 137.3·137.8cm, 칼자루 59.5·59.4cm, 칼집 144.5cm로 두 점이 대략 비슷한 크기로 파악된다. 검과 칼집의 짝이 분명하지 않고 칼집에 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크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최대 197.2cm로 확인된다.

칼집은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어피로 감싼 후, 여러 차례 옷칠을 올려 마무리하였고 끈목이 달렸다. 끈목을 연결하는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는 철제로 만들었고 표면은 은입사로 장식하였다. 양쪽 끝부분의 마개도 철 표면에 은입사로 문양을 새겨넣었다. 칼날에는 각각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라는 글자가 음각되었다. 칼자루는 어피로 감싸고 주칠한 후에, 그 위로 가죽끈을 교차로 매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칼자루의 양쪽 마개 부분도 칼집과 마찬가지로 은입사 장식이 나타난다.

## ○ 내용 및 특징

### 1. 명문과 장식기법

장검 두 점의 칼날에는 각각 ‘삼척서천(三尺誓天) 산하동색(山河動色)’, ‘일휘소탕(一揮掃蕩) 혈염산하(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있다(도1). ‘석자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반색하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네’로 이해된다. 글자를 새긴 부분은 황색이 남아, 끌로 파고 바탕 재료와 다른 물질을 채워 넣는 입사기법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도2). 일반적으로 입사는 장식할 공간을 파내고 금이나 은을 실로 만들어 두드려 넣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글자를 새기고 구리(85%)와 아연(15%)을 섞은 황동을 밀착해 넣은 다음 표면에 열을 가하여 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입사 방식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기술로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유용하며, 향후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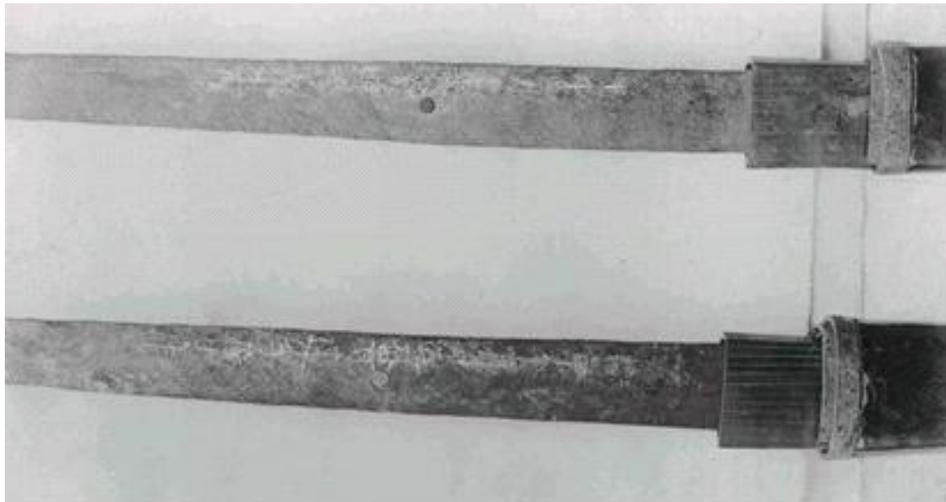


<도1. 장검의 칼날 명문>



<도2. 칼날 명문의 세부(입사기법)>

장검의 스페에도 명문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현재 직접 확인은 불가하지만 1928년 촬영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戊生作’의 명문을 볼 수 있다(도3). 이를 통해 갑오년인 1594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난중일기』 1595년 7월 21일 내용에 등장하는 태구련이 스페에 등장하는 태귀련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어, 장검의 제작 장인에 관한 단서를 전해준다.



<도3. 스페에의 명문>

장검의 칼날과 스페에 남은 명문은 충무공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시구가 포함되어 있고 제작된 시기와 장인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자를 새기고 장식한 방식에서, 조선시대 입사 기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한편, 칼집에 달린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 칼집의 양쪽 끝부분의 마개, 그리

고 칼자루의 양쪽 마개 부분 등에도 입사기법이 확인된다(도4). 이 부분은 모두 철제로 만들고 은입사로 장식하였는데,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을 통해 쫄음입사의 활용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이전 시대부터 유행하던 끼움입사에서 쫄음입사의 제작이 크게 늘어난다.



<도4. 칼집의 세부(입사기법)>

기물의 표면을 선이나 면으로 파내고 그곳에 금은사를 끼워 넣는 방식을 끼움입사라고 부른다. 반면 장식할 부분에 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사선을 반복적으로 새겨서 미세한 홈을 만들고 그 위에 무늬를 박아 넣는 방식을 쫄음입사라고 한다. 철제 기물의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선이나 판을 부착하여 장식하는 기법은 조선시대 널리 유행하였으며, 장검과 같은 철제 무기에도 다수 나타난다.

입사된 문양을 보면, 칼자루 끝부분의 둥근 마개 밑바닥은 직선으로 격자문을 넣었고 칼집에 달린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에는 직선을 위아래 두르고 사이에는 거치문이나 지그재그문으로 장식하였다. 그 밖에 칼집의 양쪽 마개와 칼자루의 마개 옆부분에는 당초문과 연화문을 화려하게 입사하였다. 철제 바탕이 다소 녹슬어 붉은빛이 감돌고 입사된 무늬가 박락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순신 장검은 글자와 문양을 모두 입사기법으로 표현하였지만 재료와 제작 방식의 세부는 차이가 있다. 충무공의 기세와 강개한 심정이 담긴 칼날의 문구는 황금빛이 돌면서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황동을 사용하여 열로 압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칼집과 칼자루에는 은으로 쫄음입사를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좁은 공간에는 지그재그와 같은 기하문, 마개 밑바닥은 격자문, 띠를 두르는 부분은 당초문, 칼집의 마개는 연화와 모란을 시문하였는데, 이처럼 원형이나 타 원형, 띠를 두르거나 고리 등의 공간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배치한 점에서 장인의 역량이 돋보인다.

## 2. 시대성과 희소성

이순신 장검은 1969년 4월 26일에 덕수 이씨 14대 종손 \*\*\*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현충사에 소장되었으며, 이후 15대 종부 \*\*\*에 의해 2009년 4월 3일 대여에서 기탁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가문의 유보로 전하는 장검은 이순신(1545~1598)의 소유품이 명확하고 습베에 남긴 명문을 통해 1594년의 제작 시기와 태귀련과 이무생이라는 장인의 이름도 파악된다. 조선시대 소유자와 제작 시기, 장인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검은 매우 희소하다. 또한 전체 길이가 197.2cm로 조선시대 도검 가운데 가장 크고 한 쌍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양쪽 칼날에 새긴 ‘삼척서천(三尺誓天) 산하동색(山河動色)’과 ‘일휘소탕(一揮掃蕩) 혈염산하(血染山河)’는 대구를 이루며, 두 검은 크기와 외형, 장식 등도 거의 비슷하다.

이순신과 연관된 검은 모두 8점이 알려져 있다. 4점은 명의 신종에게 하사받은 귀도(鬼刀)와 참도(斬刀) 각 한 쌍이며, 2점은 쌍룡검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고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충무공 사후에 중국에서 받은 귀도와 참도, 그리고 소재가 불명한 쌍룡검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이순신 장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8점 중에서 생전에 소유했던 검이면서,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고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검이 제작된 1594년은 임진왜란(1592~1598)의 시기였다.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였고 이는 도검의 제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순신 장검의 외형과 세부 장식은 조선의 전형을 보이지만 일부에는 일본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특히 칼날의 형식과 날의 끝부분, 습베의 형식과 명문, 국화 모양의 코등이, 칼자루의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법제에 준하는 도검이면서, 시대의 변화가 적용된 것이다. 비록 적국이라도 무기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활용하는 의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순신 장검은 국난을 수습해야만 했던 절박한 시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도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亂中日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武藝圖譜通志』 (디지털 장서각).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티다』, 2013.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엄소연, 「조선후기 박귀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분석」, 『고문화』 69, 2007.
- 조혁상,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

과학학회지』 31-4, 2015.

-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경희, 「조선과 청대 궁궐 건축에 보이는 박쥐문의 유입과 그 영향-19세기 중반 樂善齋와 恭王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2022.

□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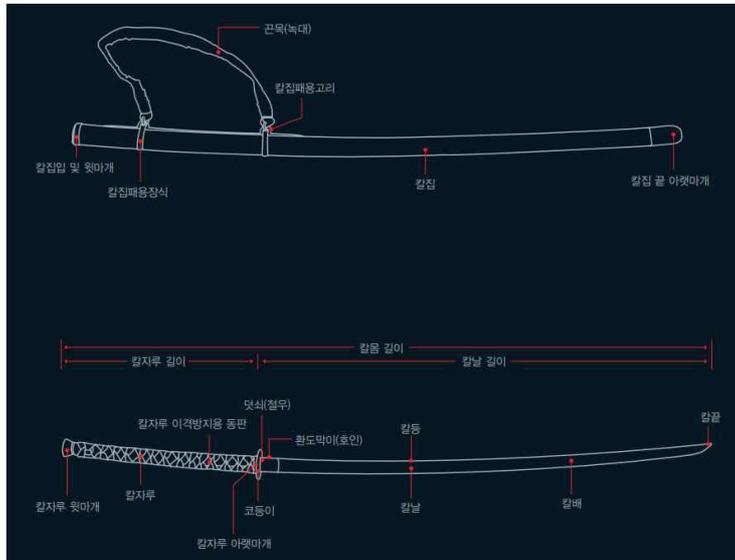
### 1. 유물 개요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몸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칼몸의 칼날에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三尺誓天山河動色(편의상 ‘삼척서천검’으로 호칭)’이, 다른 한 칼몸의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편의상 ‘일휘소탕검’으로 호칭)’가 각각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022년 12월 28일에 실측한 ‘삼척서천검’과 ‘일휘소탕검’의 제원은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삼척서천검’과 ‘일휘소탕검’의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삼척서천검’(위 사진의 아래쪽)과 ‘일휘소탕검’(위 사진의 위쪽)>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은 다음과 같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도>

## 2. ‘삼척서천검’과 칼집의 현상

‘삼척서천검’의 칼몸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져 있으며,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날부분은 단면 6각형의 구조이고, 칼끝은 날카로운 뱀 머리 형상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槽) 1개가 칼날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양 3개가 따로따로 날부분 가까이에 음각되어 있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古銅)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三尺誓天山河動色’ 8자가 음각으로 금동입사되어 있는데,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1.7cm이다.

‘삼척서천검’의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철 재질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화문양의 꽃잎수는 19개이고 꽃잎마다 가운데가 모두 투각되어 있다. 코등이의 칼날쪽에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는 타원형의 얇은 뎃쇠(切羽)가 설치되어 있고, 뎃쇠는 금동 재질에 테두리가 꽃잎문양으로 되어 있다. 뎃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카로운 날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지어 주는 황동(黃銅) 재질의 호인(護刃)이 칼날을 빙 둘러 설치되어 있으며, 호인의 너비는 4.83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삼척서천검’의 스킨에는 코등이로부터 약 18cm 거리에 구멍 1개가 있으며,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코등이에서 칼자루 방향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삼척서천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

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76cm이며,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으로서 길이 2.58cm, 깔대기 하부너비 5.85cm, 깔대기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너비 3.28cm이며, 깔대기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중앙에 구멍을 뚫어 깔대기를 칼자루에 목재핀으로 고정하였고, 깔대기 표면에는 당초문과 모란꽃 문양을, 깔대기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한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핀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메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는데, 구멍 부위의 동판 일부가 탈락되었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돈을새김 문양 동판이 일부 탈락된 것을 제외하면 최초 제작 당시의 모든 장식과 부속이 온전히 남아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집은 목재로 외형을 만든 다음 어피로 감싸서 마감을 하였다. 어피 위에는 어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칠(朱漆)과 옷칠을 수차례 반복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연화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철 재질의 패용장식과 2환 연결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패용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칼집은 조선식 군용도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최초 제작 당시의 전체 장식과 부속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 3. ‘일휘소탕검’과 칼집의 현상

‘일휘소탕검’의 칼몸 형태, 칼날부분,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 덧쇠(切羽), 호인(護刃), 스페의 명문, 칼자루, 칼집 등은 모두 ‘삼척서천검’과 동일한 형태와 규격이며,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만 약간 다르다.

‘일휘소탕검’의 칼날부분의 피홈(血漕)은 길이 64cm, 너비 9.1mm이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一揮掃蕩血染山河’ 8자가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는데, 글자 1

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2cm이다.

‘일회소탕검’의 황동(黃銅) 재질의 호인 너비는 4.55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일회소탕검’의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91cm이며,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2.08cm 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타원형 고리형태로서 너비 1.2~1.3cm, 타원높이 5.6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으로서 길이 2.7cm, 깔대기 하부너비 5.55cm, 깔대기 상부너비 4.53cm, 밑바닥 타원너비 3.36cm이며, 깔대기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중앙에 구멍 1개를 뚫어 깔대기를 칼자루에 목재편으로 고정하였다. 칼자루의 좌측 어피 위 유소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유소혈)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는데, 동판은 ‘삼척서천검’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일회소탕검’은 완전한 형태이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최초 제작 당시의 모든 장식과 부속이 온전히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이 칼의 ‘장검’ 명칭에 대하여

고대의 동양에서는 칼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도(刀), 양쪽에 있는 것은 검(劍, 劔)이라 하였다(『說文』 刀部, 刃部). 이와 같은 도와 검의 구분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서로 혼용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인 ‘삼척서천검’과 ‘일회소탕검’은 날이 한쪽에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장도(長刀)라야 옳지만 『이충무공전서』(1795) 편찬자가 장검(長劔)이라 호칭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날이 한쪽에만 있는 긴 칼을 장검으로 호칭하는 것은 이미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환도(環刀)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례는 『융원필비』(1813) 환도조에 잘 나와 있다.

이순신 칼의 명칭과 관련하여 『난중일기』 을미년 7월 21일 기사에는 이순신이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칼 1자루씩을 선물하면서 그 이름을 환도(環刀)라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이순신의 유물로 전해오고 있는 칼 2개도 엄격하게 말하면,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옳바르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장검으로 불려왔으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불려도 문

제될 것은 없다.

## 2.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음각된 칼의 명문

‘삼척서천검’의 칼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놀라 반색하네’이다. ‘일회소탕검’의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회소탕혈염산하)’가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한 번 휘둘러 소탕하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네’이다. 명문의 글씨체는 이순신의 친필 일기에 나타나는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순신의 친필 글씨를 칼에 새긴 것이 확실하다.

시구 자체도 충무공 이순신의 강개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빼어난 시문이며, 더욱이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을 그대로 새겼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 3.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스페 명문

두 칼의 스페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글씨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은 칼의 스페에 나오는 태귀련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라 할 수 있다.

## 4.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용도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흔히들 실전용이 아니며,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들은 큰 체구를 가진 충무공 이순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들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체구가 매우 크고, 8척 장신으로 전해온다. 『백호전서(白湖全書)』 권23, 사실(事實), 「통제사이충무공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에 “공은 큰 체구에 용맹이 뛰어났다(公長軀精勇)”라고 하였다. 「통제사이충무공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의 저자는 윤희(尹鑄, 1617~1680)이며, 윤희는 충무공 이순신의 집사(鈴下), 하인(蒼頭) 및 충무공을 섬긴 사람들을 만나서 충무공의 용모에 대해 물어

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윤희의 서모(庶母)는 충무공 이순신의 서녀이며, 윤희의 부친 윤희전(尹孝全)의 첩이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의 체구가 컸다는 윤희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한편, 『남파선생문집(南坡先生文集)』 권3, 칠언고시(七言古詩), 「제충민사(題忠愍祠)」에는 통제사 이순신을 “키가 훗칠하여 8척 장신에 원숭이처럼 팔도 기네(頎頎八尺猿臂長).”라고 하였다. 「제충민사(題忠愍祠)」의 저자 홍우원(洪宇遠, 1605~1687)은 충무공 이순신의 사위인 홍비(洪斐)의 장조카였으므로, 그는 숙모(이순신의 딸)나 숙부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언급한 8척 장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충무공전서』 권12, 「노량조이통제(露梁弔李統制)」 시에는, “팔척장신공의 몸을 귀신이 보호했네(八尺全軀神鬼護)”라고 하였다. 그 시의 저자는 맹주서(孟胄瑞, 1622~1679)로, 그의 본관은 신창(충청남도 아산시)이었으므로 맹주서도 어떤 경로로든지 이순신의 신체적 정보를 나름대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3가지 사례로서 충무공 이순신은 체구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 1566~1619)이 쓴 이순신의 「행록」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즉,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한 후 선영의 무덤에 성묘를 하는데, 무덤 앞에 쓰러져 있는 석인(石人)을 하인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일으켜 세우고자 했으나 결국 일으키지 못한 것을 이순신이 혼자 등으로 밀어 세웠다는 일화에서 이순신은 대단한 용력과 체구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귀련 등은 이순신의 지시를 받아 칼을 만들면서 이순신의 용력과 큰 체구를 고려하여 보통 칼보다 크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 칼은 당연히 이순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 칼이어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 천하에 막강한 왜적과 치열하게 대치 중이면서 장수가 한가하게 의장용 또는 벽사의례용 칼을 만들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의장용이 아닌 실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길이는 197.2cm, 무게는 4.3kg이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칼과 비교해 보면,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거워서 실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대단한 용력과 큰 체구를 가진 이순신과 같은 장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여겨진다.

<표1.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

검명	전체 길이	칼날 길이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1자=30.3cm(영조척), 1근=641.9g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1981 참고.

## 5.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도입된 외래적 요소

칼날의 형태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劔)과 장검(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충무공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스페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페의 결합을 위한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며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일본도도 그중의 하나였다. 조선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도의 장점 요소는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일본도 요소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장검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다.

## 6.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집약된 당대의 제철기술과 공예기법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날은 단면 6각형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고,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장인의 뛰어난 제철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는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양,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예술적 백미는 한문세대에서도 시적 의미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과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라는 이순신의 시구가 그것도 우리 민족이 가자 존경하는 위인인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 ○ 참고문헌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白湖全書』.
- 『南坡先生文集』.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1981.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河北教育出版社, 『中國古代器物大詞典』, 兵器·刑具,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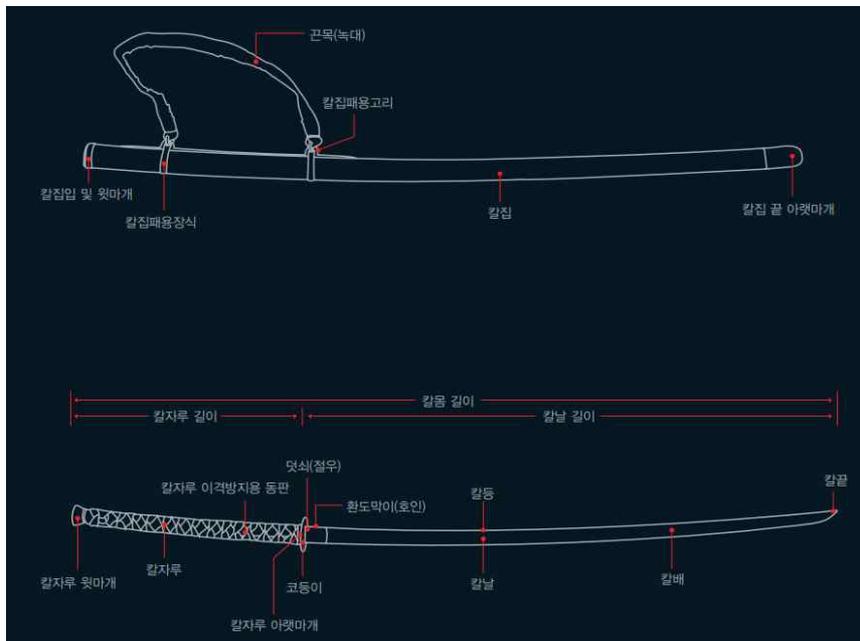


## ○ 현 상

병부는 새롭게 대체한 상태이다.

### 1. 유물 개요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이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한 도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이, 다른 한 도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가 각각 음각으로 금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022년 12월 28일에 조사 시 실측한 결과 두 자루 칼의 체원은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칼의 체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도>

## 2. 칼과 칼집의 현상

제1칼에는 ‘三尺誓天山河同色(삼척서천산하동색)’의 명문이, 제2칼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의 명문이 칼몸에 山河의 맹세글이 시문되어 있다. 칼몸 형태는 한 날이 있는 刀로써 단조에 의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휨각이 있다,

칼날 횡단면이 6각도이고, 칼끝은 역시 단조에 의해 사두형(巴頭形)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漕) 1개가 칼날 좌우측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 3개가 따로 따로 날부분에 음각되어 있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줄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해서체 글씨로 금입사되어 있다.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제1칼은 11.7cm이고 제2칼은 12cm로서 조금 크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철 재질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꽃잎 수 19개가 투각 국화문양으로 되어 있다. 코등이의 칼날 쪽에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는 타원형의 얇은 덧쇠(切羽)가 설치되어 있고, 덧쇠는 동 재질에 테두리가 꽃잎문양으로 되어 있다. 덧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 카로운 날 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지어 주는 황동(黃銅) 재질 호인(護刃)이 칼날을 잡아주고 있다. 호인의 너비는 4.83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얇은 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조선사편수회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칼의 스페에는 코등이로부터 약 18cm 거리에 구멍 1개가 있으며,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코등이에서 칼자루 방향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이 칼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76cm이며,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조선 중기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사다리꼴로 마치 중국인의 모자와 같은 모양이므로 이 부분은 중국식풍으로 보인다. 길이 2.58cm, 하부너비 5.85cm,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너비 3.28cm이며, 좌우측 중앙에 구멍을 뚫어 마개를 칼자루에 목재핀으로 고정하였고, 마개 표면에는 당초문과 연꽃 문양을, 병부 마개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한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오돌토돌한 모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핀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매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다. 구멍 부위의 동판은 제1점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제2점은 완전한 형태이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훈련도감에서 만든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훈련한 살수병이 사용한 환도나 용원필비에 게재된 칼보다 과장되어 긴 칼이다.

칼집은 목재로 만든 다음 어피로 감쌌고 그 위에는 주칠(朱漆)과 옷칠을 하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연화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장식과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패용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으로 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칼집은 조선식 군용도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최초 제작 당시의 전체 장식과 부속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다만 지

나치게 커서 과장된 모습을 보고 중국풍이다, 실전용이 아닌 의기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장검’과 ‘장도’라는 명칭

도와 검의 명칭은 정조 이후 무예도보통지에서 비로소 사용하였는데 예도편에 ‘수인씨가 도를 만들고 치우가 검을 만들어 도와 검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것은 도(刀), 양쪽에 있는 것은 검(劍,劔)’이라 하였다(『說文』 刀部, 刃部). 조선시대 전기에는 도와 검의 구분이 서로 혼용되었다. 손잡이가 짧고 휘두르는 원의 포용성을 둔 것은 검이라 하고 손잡이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것은 도로 통칭되었다.<sup>15)</sup>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을 대표하는 칼은 환도라고 부르고 계급이나 사용자가 확실한 칼에 대하여는 검이라고 붙여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용원필비』(1813) 환도조라 하여 환도로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운검, 상방검, 인검, 진검, 칠성검, 보검이라는 이름이 있어 소장자가 의미를 두고 제작하거나 사용한 칼을 검이라 불러주었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하나 이미 오랫동안 장검으로 불려왔으며 이순신만의 특별한 칼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 2. 칼의 명문으로 보는 한 쌍 두 자루

제1칼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놀라 진동한다’이다. 제2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가 새겨져 산하의 글자가 대구로 되어 있으며, 그 뜻은 ‘한번 휘둘러 소탕하니 피가 산하를 적신다’이다. 명문의 글씨체는 해서로서 이순신의 일기에 나타나는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순신의 친필로 판단된다. 글의 내용도 충무공 이순신의 군인다운 분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호방한 무인의 기개가 잘 나타나 있다.

### 3.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스페 명문

조선사편수회가 남긴 유리건판을 보면 두 칼의 스페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글씨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

15)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27.

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자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제작에는 실명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물 천자총통에도 그 제작자와 감수관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은 칼의 스펀에 나오는 태귀련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거북귀의 발음을 구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다.

#### 4. 실전용인가 의기인가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이다. 칼집에서 칼을 뽑 때 누군가는 시중을 들어야한다. 신체 사이즈 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여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아무리 큰 체구라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실전용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가 어렵다. 충무공 장검 이전의 칼은 월도나 협도처럼 중국 사람의 장기인 창 같은 칼 외에는 큰칼이 없다. 협도나 월도도 칼날은 그리 길지 않다. 충무공의 장검은 외형은 환도 같고 크기는 장도만하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겁다.<sup>16)</sup> 쌍수도는 호인이 길어 호인을 한손에 잡고 한손은 병부를 잡고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무공장검에는 호인이 손으로 잡을 만큼 길지 않다. 혹시 병부가 길어서 호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칼의 사용에는 균형이 맞아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실전은 중요하고 의기는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행위라고 할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모든 전투를 수행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배수진의 심정, 죽기를 각오하고 난중일기나 실록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전쟁의 신 치우를 기리는 독제를 출전

16)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1자=30.3cm(영조척), 1근=641.9g>

검명	전체길이	칼날 길이(刃長)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1981.

의 시발로 보았고, 당시의 깃발 역시 점성술에 의존하나 귀신에게 바치는 정성이 극심하였음을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추측하건데 독제나 출전하기 전에 결전의 의지를 굳게 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한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겠다.

## 5. 충무공 장검의 외형

조선 전기 조선도검의 세 가지 특징을 들라하면 첫째 ‘직단’, 둘째 ‘일면 평조도’, 셋째 ‘띠돈의 부착’,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sup>17)</sup> 이순신의 장검은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적으로 전통적 조선 칼과 다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칼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규격화가 되었던 직단이 아니라 휘고 긴, 묵직한 칼 병부의 매기방식이 실전에 편리하게 하였다.

당시 일본도는 최고의 무기였고 일본도 하나를 바치고 귀순하는 사람에게 벼슬까지 주었으니 전쟁도구인 일본도를 흠모해왔던 것은 주지의 일이다. 충무공 장검이 만든 시기가 바로 조선으로서는 당대의 최고선진의 기술인 일본도 제작의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한 때이다. 과장되게 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일본의 야태도 노타찌코시라에를 보고<sup>18)</sup>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이후 시대 충무공의 장검을 보고 무예통지의 쌍수도가 나왔다고 보여진다. 충무공의 장검을 사용하기에 무게의 중심이 어려웠으므로 후대에 나온 쌍수도는 중량을 줄이고, 호인을 길게 하여 단점을 보강한 것이다.

장군이 실제의 사용한 칼은 쌍용검이라 전하고 있는데 조선사편수회의 사진에는 이 쌍용검이 역시 한 쌍 두 자루로서 한 자루는 보병전에, 한 자루는 기병전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보병전용보다 기병전용이 좀 더 짧고 휘어졌다 한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수 없지만 그 시대 사람 학봉 김성일의 ‘쌍용검을 닮으며 원정을 달랜다’는 시에도 언급되고 있다.<sup>19)</sup> 칼 몸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劔)과 장검(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에도 적용되었지만, 일본도의 휨각은 지나치게 휘어 단조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아왔다. 충무공의 칼은 지나치게 휘지도 않은 조선의 선이다. 충무공 장검의 칼 끝에 단조에 의해 만들어진 사두(독사머리)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펀의 형식과 스펀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펀의 결합을 위한 목정형,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교차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작자인 태귀련과 이무생은 일설에 의하면 일본에 잡혀가서 칼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다시 임진왜란 때 향도로 돌아왔다가 이순신 휘하에 항복하여 칼 만드는 장인으로 충성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

17)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劔 忠을 베틀다』, 2013.

18) 노타찌코시라에는 野太刀로서 일본 기마 무장들이 시종에게 들게 하였다가 필요 시에 건네받아 사용하던 장척, 중량의 전투용칼이다.

19)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劔 忠을 베틀다』, 2013.

하면서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sup>20)</sup> 특히 임진왜란 해전에서 칼춤을 추며 나체로 달려드는 돌격 접근전에 속수무책 나가떨어지는 불리한 아군을 위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한다. 오죽하면 선조 때 오명항에게 내렸던 상방검이 일본도이겠는가?<sup>21)</sup> 일본의 제검방식이 조선에 스며들었다.

중국의 영향도 전반적으로 조선에 무시할 수 없게 이미 녹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병부 뒷마개의 사다리꼴 모양은 중국인의 모자 같은 형태이다. 특히 과장된 모습을 많이 사용하는 점은 중국풍을 따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사에 보이는 씨방이 있는 연화문양은 우리의 전통 예술로 보여진다. 따라서 장검에 보이는 외형은 한중일의 기술과 예술의 결정 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정기룡의 장검이나 광재우의 칼에도 나타난다. 조선의 도검이 크게 변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임진왜란이고 그 시작과 유행에 충무공의 장검이 선두에 있는 것이다.

## 6. 충무공 장검에 제철기술과 공예기법과 칼에 붙여넣은 정신

장검에는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물결무늬 인문, 전혀 부식되지 않고 기능성을 살린 투각국화문의 코둥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점박이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날은 단면 6각도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고, 제작된 지 약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장인의 뛰어난 제철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60장 100장이라는 단조에 의해 철에 들어있는 탄소를 빠져나가게 한 칼은 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녹 쓸지 않고 반짝인다.

칼에 새겨진 명문은 ‘山河’를 대구로 쓴 한문시로 즉, 우리영토를 침범한 적을 괴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충무공의 친필시이다. 이러한 검결은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담긴 의지 맹세글로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 7. 국보로서 완벽성에 대하여

국보는 수리가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실제 사용한 칼의 가장 강조점은 좋은 쇠로 보검을 만드는 정성일 것이다. 니벨룽겐의 설화에

20) 임진왜란 도중 훈련도감에서 양성하던 살수군의 무기에는 일본도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칼몸이 두꺼워지고 피홈이 생기며 손잡이는 가죽교차끈으로 감았다. 육군박물관의 ‘훈’자명 환도의 예가 있다.

21) 광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나오는 보검, 뜨겁게 달구어 가장 차가운 물에 넣는 담금질의 반복된 작업이고, 도자기의 온도를 쓸 줄 아는 장인의 불 다루는 기술이 들어 있다. 천년이 지나도 반짝이는 신물처럼 여겨진다. 다만 수련을 해야 할 때 병부는 갈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현충사 도록의 자료에 나타난 손잡이의 부식은 마땅히 칼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갈아 끼는 것이 마땅하다. 칼의 생명은 칼몸이고 손잡이와 칼집은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곽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1981.
-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 김성혜·박선식, 「조선시대 도검의 실측과 분석」, 『학예지』 5, 육군박물관, 1997.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 강성문, 「조선시대의 환도의 기능과 제조」,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2000.



## ○ 유물 개요

### 1. 전체 길이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2자루와 칼집 2점<sup>22)</sup>으로 2022년 12월 28일에 조사 시 실측한 결과 두 자루의 칼은 그 체원이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칼날은 그리 크지 않은 곡률을 가진 완만하게 휘 상태로 체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22) 편의상 ‘三尺誓山河動色’이라 새긴 칼을 ‘삼척검’, ‘一揮掃蕩血染山河’라 새긴 칼을 ‘일휘검’이라 한다.

## 2. 칼몸과 칼자루

칼날의 단면은 육각형이며, 칼끝은 사두형(巳頭形)이다. 칼날 위쪽 좌우측 칼등 가까이에는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漕) 1개가 파여 있다. 또한 칼코등이 쪽의 칼의 날과 가까운 부분 좌우측에는 구름이나 물결을 형상화한 것과 같은 무늬 3개가 선각(線刻)되어 있다. 두점의 칼 모두 칼날의 오른쪽면 코등이 가까이 있는 피홈과 물결무늬 사이에는 금색의 황동<sup>23)</sup>으로 검명(劍銘)이 입사(入絲)되어 있다. 한 도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검명의 전체 길이는 11.7cm)이, 다른 한 도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검명의 전체 길이는 12cm)’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순동 재질<sup>24)</sup>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화문양의 꽃잎 수는 19개이고 꽃잎은 가운데가 뚫려있는 투각기법이 사용되었다. 코등이의 칼날 쪽에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는 테두리가 꽃잎문양이 타원형의 얇은 덧쇠(切羽)가 대어져 있고, 덧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지어 주는 청동(靑銅) 재질<sup>25)</sup>의 환도막이(護刃)가 칼날을 빙 둘러 설치되어 있는데, 삼척검 환도막이의 너비는 4.83cm이고,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 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일회검의 경우 너비는 4.55cm이고,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칼날 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이며 삼척검은 길이 5.5cm, 너비 2.76cm, 일회검은 길이 5.5cm, 너비 2.91cm로, 겹을 어피로 감싸서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X자로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고 옷칠을 하였다. 일회검은 1960년대 이전 가죽끈이 훼손되어 이후 수리하였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자루쪽 변이 작은 사다리꼴로, 길이 2.58cm, 하부너비 5.85cm,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 너비 3.28cm이다. 좌우측 중앙에 구멍을 뚫어 마개를 칼자루에 목재못으로 고정하였고, 마개 표면에는 당초문을, 마개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해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오돌토돌한 모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못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메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23) 권혁남 등 5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p.67~68.

24) 윗글, p.67.

25) 위와 같음.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다. 구멍 부위의 동판은 삼척검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일회검은 완전한 형태이다.

### 3. 칼집

칼집 길이는 두 개 검 모두 144.5cm이며, 목재로 칼날을 본떠 만든 다음 어피로 감싸고 어피의 오돌도돌한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주칠(朱漆)과 여러 겹의 옷칠을 하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장식과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이 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격자의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으로 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조선 도검의 발전 과정과 명칭

칼은 사람이나 짐승을 베고 찢어서 살상하거나 물건을 베고 썰고 깎는데 쓰이는 손잡이용 연장이다. 칼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매우 오랜 도구이자 근력무기이다. 동아시아에서 칼은 도(刀)와 검(劍)으로 구분된다. 도는 칼몸이 휘어지고 한쪽에 낫이 있으며, 검은 칼몸이 곧고 양쪽에 낫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검을 선호하고 후대에는 도를 선호했는데 점차 개념상의 도와 검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왔다.<sup>26)</sup>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무기 중 궁시(弓矢)를 특장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검에 대한 개량이나 활용에 대한 발전을 위한 시도는 크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궁시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의 세부까지도 순우리말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칼에 대해서는 소략한 편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칼의 종류를 대체로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장도(長刀)·예도(銳刀)·왜검(倭樓)·제독검(提督劍)·쌍검(雙劍)·언월도(偃月刀)·협도(挾刀) 등으로 구분하였다.

장도란 명칭 그대로 아주 긴 칼로서 전체 길이 약 2.15m, 칼몸의 길이 1.65m, 자루의 길이 0.5m이고 칼몸이 칼등 쪽으로 휘었다. 예도는 전체 길이 1.42m, 칼몸의 길이 1.09m. 자루의 길이 0.33m인데 칼몸이 약간 칼등 쪽으로 휘었다. 왜검은 기본적으로 예도와 흡사하다. 제독검은 칼몸이 곧은 직도(直刀)로써, 칼몸의 길이 1.12m, 칼몸의 너비 5cm이다. 쌍검은 비교적 짧은 칼로서 전체 길이 약 1m, 칼몸

26) 兩刃曰劍 單刃曰刀 後世刀與劍相混(『武藝圖譜通志』 권 2 「銳刀」 案).

의 길이 0.83m, 자루의 길이 약 0.18m이다.<sup>27)</sup>

조선 칼의 구조는 칼몸·자루·칼집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위는 칼몸인데 베는 부분을 날[刃]이라 하고 그 반대되는 무딘 부위를 등[背]이라 하며 뾰족하게 찔러지는 부위를 끝[鋒]이라 한다. 칼몸의 자루에 끼워지는 가는 부위는 슝베라 하고, 자루와 칼몸이 경계를 이루는 곳은 관(關)이라 한다.<sup>28)</sup> 그러나 이런 명칭은 대략적인 것이며 최근 연구자들이 칼에 대한 부분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대체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세부 명칭을 참조하여 우리말로 바꾼 것이어서 통일성이 없다. 최근 간행된 도록에 실려 있는 칼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무인들 개개인의 단병 기술이나 군사적 훈련을 강조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유교적인 무인정신이 강조되는 새로운 무인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검의 장인들은 기능적인 무기 생산에 그치고 전대의 뛰어난 세공기술을 계승받지 못하였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도검은 환도이다. 환도는 군기감 산하의 환도장이 제작하였는데, 1460년(세조 6)에는 군기감(軍器監) 소속하에 환도장의 인원이 33명으로 증원 되고, 5명이 체아직을 받아 경공장의 전속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인원이 12명으로 감소되고, 소속도 상의원(尙衣院)으로 바뀌게 되었다. 경공장 소속의 환도장에 의해서 제조된 환도는 왕족 및 귀족들의 패용을 위한 일종의 복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장용이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의장용은 자연히 은세공과 같은 고급화 내지 사치품화 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지방에서 제조된 환도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용 무기였다. 환도는 상공의 품목으로도 선정되었기에, 여러 고을에서 일정량을 제조했다.

문종대에는 환도에 대한 규격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함길도 도절제사인 이정옥이 실전에 필요한 전투도에 대한 제작 공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가 제기한 환도의 형태는 모양이 곧고 짧은 직단의 형태였다. 이를 계기로 전투용 환도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져, 대체로 보병용 환도는 길이 1척 7촌 3푼(54.04cm), 너비 7푼(2.19cm), 자루 길이 2권(19.42cm)이었고, 기병용 환도는 길이 1척 6촌(49.98cm), 너비 7푼(2.19cm), 자루 길이 1권 3지(15.54cm)였다. 당시 조선의 기본 전법인 오위진법은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병을 중심 전력으로 삼고 여기에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었던 화약병기를 결합한 기병 중심의 전술체계였다. 따라서 도검류의 표준화에 있어서도 대 여진전을 통한 기병용의 표준화가 중심이고, 이를 계기로 보병용도 표준화하게 된 것이다.<sup>29)</sup>

27)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190.

28) 정영호 감수,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시공테크, 1999, p.33.

29) 박재광, 「조선시대의 무기」,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2012, pp.370~374.

한편 조선은 간헐적인 왜구의 침입을 겪으며 실전도로서 일본제 칼에 주목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조정은 왜도에 주목하여 왜구 토벌책을 통해 병기를 포획하거나, 무역을 통해 일본제 도검을 수입하거나,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일본도의 제조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선의 도검이나 전법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았다. 조선이 일본 도검류의 제조법과 사용법 전수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sup>30)</sup> 특히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기 동안 동아시아는 전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명과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 즈음 사실상 도검류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도의 형식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후금의 침략이 계속된 163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마번을 통한 무기 구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점차 도검보다는 화약과 조총류에 주안을 두었고, 1621년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령의 영향으로 점차 밀매의 형태로 변화하였다.<sup>31)</sup>

조선시대 전기에는 손잡이가 짧고 휘두르는 원의 포용성을 둔 것은 검이라 하고 손잡이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것은 도로 통칭되었다.<sup>32)</sup>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의 대표칼은 환도라고 부르고 계급이나 사용자가 확실한 칼에 대하여는 검이라고 불려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응원필비』(1813) 환도조라 하여 환도로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운검, 상방검, 인검, 진검, 칠성검, 보검이라는 이름이 있어 소장자가 의미를 두고 제작하거나 사용한 칼을 검이라 불려주었다.

이순신 칼의 명칭과 관련하여 『난중일기』 을미년 7월 21일 기사에는 이순신이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칼 1자루씩을 선물하면서 그 이름을 환도(環刀)라 하였다거나, 그의 시 ‘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의 절구에 ‘새벽 달은 활과 칼을 비추네(殘月照弓刀)’라고 하여 ‘도’자를 사용한 것, 칼의 외형으로 보아서는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하나 이미 오랫동안 장검으로 불려왔으며, 이순신과 관련된 특별한 칼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장검의 명문(銘文)

삼척검의 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라 새겨져 있고, 그 뜻은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감동한다’는 것이다. 일휘검의 날에는 삼

30)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pp.76~85.

31) 윤유숙, 「17세기 한일간 일본제 무기류의 교역과 밀매」, 『사총』 67, 역사학연구회, 2008, 참조.

32) 김성혜,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27.

척검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라 새겨져 있어, 그 뜻은 ‘한바탕 휘둘러 쓸어버리니 (왜적의) 피가 산하를 적신다’는 것이다. 이 명문은 약간의 기포도 관찰되는데 이는 칼이 완성된 후 글씨를 음각하고 흠에 황동을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완성, 가공한 것이다.<sup>33)</sup> 명문의 글씨체는 해서와 행서로 『이충무공전서』 「잡저」의 ‘검명’의 세주(細註)에는 ‘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기니 곧 공의 필적이다. 지금 공의 후손가에 있다’<sup>34)</sup>라고 하고 있으나, 필법이 이순신의 일기 등에 나타난 필체와는 상이하고, 글씨 자체도 졸렬하여 음각과정에서 그대로 필체를 살리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의 필체일 가능성이 크다.<sup>35)</sup> 따라서 장검의 검명은 ‘이순신의 글씨(親筆)’가 아니라 ‘이순신이 지은(所作)’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한쌍의 장검을 위해 충무공 이순신의 군인다운 정서와 기상을 그대로 표현한 검명을 지어 새겨졌다고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과정이나 이번의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사편수회가 남긴 유리건판을 보면 두 칼의 스킴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필체로 음각되어 있다.<sup>36)</sup> 이 명문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자임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조선시대 상민이나 노비의 이름은 한글 발음을 한자로 음차(音借)한 경우가 많고, ‘龜’자는 ‘구’와 ‘귀’ 두 발음으로 모두 쓰기 때문에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과 칼의 스킴에 새긴 태귀련은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난중일기』나 『임진장초』 등에 의하면 태귀련, 이무생, 언복, 정사준 등은 도검이나 정철총통(조총) 등을 제조한 전라좌수군영 휘하의 고급 기술을 소지한 군기제작들이었다. 따라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다. 향후 X-Ray나 MRI 촬영 등을 통해 재확인과 명확한 근거를 남길 것을 제안한다.

### 3. 장검의 외형

충무공 이순신의 장검은 전통적 조선도검에 외래적 요소가 결합하고 있으며, 길이에서도 이질적임은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변화한 요소들이 거의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칼날의 형태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劍)과 장검

33)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p.67~68. 기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금성분은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금입사’의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34) ‘長劍一雙分鑄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李忠武公全書』 권1, 「雜著, 劍銘.

35) 『이충무공전서』의 내용은 이 책이 편찬될 때인 정조 연간의 ‘장검’으로 불리는 상황과 일화의 전승을 반영한 것이다.

36)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p.72. 이 글씨와 검명 글씨의 동일성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다.

(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충무공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스페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페의 결합을 위한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시기는 일본이 100여 년에 걸친 내란인 전국시대를 끝낸 시점이었으며, 직전은 일본의 왜구가 명과 조선에 자주 출몰하여 왜변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오랜 기간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상무기로 최적화된 도검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던 조선, 명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 중에는 육지와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일본도도 그중의 하나였다. 조선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노획된 일본도는 해체되어 칼날 부분이 재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당시의 도검으로 전해지는 것들로는 이형검(異形劔)을 제외하고라도, 조선 중기 조선 환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래읍성 남문 출토 도검 20여 점을<sup>37)</sup> 비롯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전 유성룡검(경상대학교박물관 소장), 권응수장검(국립진주박물관 기탁), 광재우장검(의령 충익사), 이광악보검(독립기념관), 정문부장군검(독립기념관), 정기룡장검(하동 경충사), 이형상장도(개인 소장), 정공청환도(개인 소장), 최진립지휘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탁), 최경회 장검(개인 소장), 박홍춘환도(울산박물관), 이억기칠성검(육군박물관) 등 다수를 꼽을 수 있다.<sup>38)</sup>

현존하는 임진왜란 중 사용된 도검 중 일부는 이충무공장검과 칼의 크기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요소를 띠기도 한다. 이중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코등이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칼자루의 윗마개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순신장검의 투각된 국화모양의 코등이가 유사한 칼로는 의령에서 최초로 기의한 의병장인 홍의장군 광재우의 칼(보물)과, 상주목사와 경상우병사를 지내고 전후에는 삼도수군통제도 역임한 정기룡의 칼을 들 수 있다. 이 두 칼은 크기만 다를 뿐 완만히 휘 칼날이나, 조선 환도의 자루 형식, 칼자루와 칼집의 마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이순신장검도 칼자루의 윗막이와 칼자루의 길이 비율만 다르고 입사 장식을 갖추어 좀 더 화려할 뿐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7) 부산박물관, 『임진왜란』, 부산박물관, 2012, 참조.

38)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도판 34.

<표1. 이순신장검과 임진왜란기 도검의 코등이 장식 비교>

문화재명	전체	코등이 부분	길이(cm)
충무공장검			197.2
곽재우장검			88.0
정기룡장검			107.7

다음으로는 칼자루 윗마개 부분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유사한 칼로는 영천의병장으로 영천성을 탈환하고 경상좌병사, 충청방어사에 이른 권응수의 장검(보물)과 울산의병장으로 참전한 박홍춘 환도(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를 들 수 있다. 또한 청나라 형식의 칼과 비교를 위해 강화도에 수장되었던 대한제국기의 칼인 강화고 환도(江華庫環刀)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sup>39)</sup>

<표2. 이순신장검과 임진왜란기 도검, 강화고 환도의 칼자루 윗마개 비교>

문화재명	전체	칼자루 윗마개	길이(cm)
충무공장검			197.2
권응수장검			73.0
박홍춘장검			99.0
강화고환도			89.0

권응수장검의 칼자루 윗마개는 사실 얇은 철판으로 가공한 것으로 완전히 유사

39) 강화전쟁박물관, 『2016년 강화전쟁박물관 특별전시』, 2016. p.37.

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광재우나 정기룡의 칼자루가 둥글게 가공된 것과는 달리 직선으로 가공하여 오히려 이순신장검과 모양은 비슷하다. 이 권응수 장검은 일본군 장수 희팔(喜八)으로부터 노획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져 오며, 스페에는 ‘대영원년(大永元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보다 약 70년 정도 앞선 1521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한편 박홍춘 환도의 칼자루 윗마개는 사다리꼴의 형태로 이순신장검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에 반해 대한제국기 청나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고환도는 윗마개의 끝면이 평면이 아닌 곡면을 이루고 있어 서로 이질적인 감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장검의 칼자루 윗마개는 명군으로부터 도입한 중국적 요소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모방했다고 해도 상당히 변형되었거나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도 이순신장검이 제작된 1594년은 이순신이 명군과 접촉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유재란 이후 전쟁이 끝나던 1598년에야 비로소 명의 수군과 연합함대를 이룬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영향이라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칼날의 휨 정도, 코등이, 칼자루 윗마개 등이 이순신장검과 유사한 도검이 임진왜란 중 제작되거나 가공되었으며, 특이하게도 모두 경상도(특히 우도)에 편중된 것으로 보아 지역적 혹은 장인의 인적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도검이 크게 변화한 계기가 되었던 임진왜란 중 최고사령관의 한사람인 이순신의 주관으로 제작된 이 장검은 일본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대형 도검 형태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용도와 상징성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로, 발도의 과정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는 칼집을 잡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자루가 5kg에 가까우며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서 모두 휴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전용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가 어렵다. 충무공 장검 이전의 칼은 월도나 꼬투리처럼 중국 사람의 장기인 창 같은 칼 외에는 큰 칼이 없다. 협도나 월도도 칼날은 그리 길지 않다. 충무공의 장검은 외형은 환도 같고 크기는 장도만하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겁다.<sup>40)</sup> 쌍수도는 호인이 길어 호인을 한 손에 잡고 한 손은 병부를 잡고 사용하므로, 그런 의미로 본다

40)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1자=30.3cm(영조척), 1근=641.9g>

면 이순신 장검에는 호인이 손으로 잡을 만큼 길지 않다. 혹시 병부가 길어서 호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칼의 사용에는 균형이 맞아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쌍수도는 이순신장검이 조선 후기로 전해지면서 이 칼을 실전용으로 상정하여 이에 맞는 검법을 만들려고 했던 산물이 아닌가 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임진왜란 중 사용된 도검은 80cm 내외의 크기를 보이며 이순신장검 외 가장 큰 장검인 정기룡의 장검도 1m가 조금 넘는다. 일본의 경우도 임진왜란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오오다치(大太刀, 大山祇神社 소장)가 가장 큰 경우에 속하는데 1366년(貞治 5년) 제작된 것으로 칼날의 길이가 135.7cm에 이르지만 실전용 도검이 아닌 천황에게 봉납된 칼이다.<sup>41)</sup> 실제 임진왜란 중 사용된 일본 장수들의 도검은 70~80cm 내외의 크기이다.

서양의 경우 14~17세기 유행한 장검(Langes Schwert)의 경우 길이가 약 100~140cm(날의 길이 85~120), 무게가 약 0.8~1.8kg이었으며, 16세기 독일에서 사용한 실전용 대형검인 츠바이헨더(Zweihänder)는 쌍수검으로 140~180cm 내외에 일반적 무게는 2~3.6kg 정도였다. 최대 213cm, 4kg인 것도 있으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의식용으로 사용되었다.<sup>42)</sup> 체격이 큰 서양인도 2m가 넘고 4kg이 넘는 대형검은 실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검은 실전검으로서의 효율성이 낮고, 명문으로 보아 평소 마음을 다잡고, 전투 수행 전 장병들의 각오를 다지는 의식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 장군은 출전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전쟁의 신 치우를 기리는 독제를 지낸 기록이나, 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결의를 다지는 문서로 작성한 감결(甘結)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의식용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의장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검명	전체길이	칼날 길이(刃長)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1981.

41) 笹間良彦 감수, 棟方武城 집필, 『すぐわかる日本の甲冑・武器』, 東京美術, 2004, p.75 참조.

42) Wikipedia, Zweihänder 및 Langes Schwert 참조.

-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정영호 감수,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시공테크, 1999.
-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한국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2012.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티다』, 2013.
- 광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강화전쟁박물관, 『2016년 강화전쟁박물관 특별전시』, 2016.
-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 笹間良彦 감수, 棟方武城 집필, 『すぐわかる日本の甲冑・武具』, 東京美術, 2004.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4-002

### 2. 이순신 유물 일괄 (李舜臣 遺物 一括)

#### 가. 심의사항

‘이순신 유물 일괄’의 보물 추가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현충사관리소장으로부터 ‘이순신 유물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22.8.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2.28./'23.4.20./'23.5.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장검만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으며(지정명칭 ‘장도’) 그 외 유물은 보물로 유지하되 요대함은 추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보물 추가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세부명칭: 옥로, 요대 및 요대함,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 \*\*\* (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 수 량 : 옥로 1구, 요대 및 요대함 2건 2점,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 2조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금속, 나무, 옥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



옥로



요대 및 요대함



<이순신 유물 일괄>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크기(cm)
1	옥로	· 높이 6.2cm, 너비 4.43cm, 하단 금속 지름 5.1cm
2	요대 및 요대함	· 요 대: 좌우 지름 45.0cm, 전후 지름 42.0cm, 띠 너비 5.5cm · 요대함: 최대 지름 48.5cm, 몸체 높이 7.20~7.42cm, 뚜껑 높이 7.73~7.81cm
3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	· 복숭아모양 잔1: (줄기 있음) 8.45×7.34cm · 복숭아모양 잔2: (줄기 결락) 8.52×7.11cm · 받침1: 지름 15.5~15.8cm · 받침2: (보존상태 상 실측 불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옥로>

옥로는 조선 후기에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의 갓 머리에 다는 용도로서 비교적 시기가 내려가는 유물이다. 옥로의 재료인 백옥은 색이 맑고 깨끗한 중국산이고, 넓은 연잎 아래 해오라기 세 마리를 섬세하게 투각하는 기법 또한 조선의 전통 기술은 아니지만 조형적으로는 우수한 편에 속한다. 옥로를 쓴 청홍 비단을 누벼 연봉 매듭으로 마감한 옥로집이나 이것들을 함께 넣는 옥로함은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 및 바느질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이후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옥로와 옥로집 및 옥로함은 이순신 장군에 직접 관련이 없고 시대가 내려가는 유물이지만, 장군의 유품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요대>

이순신 유물 중 요대는 1598년 무술일기에 명나라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가 선물한 금대(金帶)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작시기와 제작지 및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유물은 비록 중국제이지만 한국의 무관 품대와 형태나 구조 등이 유사하여 조선 후기에 조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요대 위에 부착되어 있는 띠돈의 종류가 삼태, 남두육성, 타미, 좌보, 우필, 북두칠성 등이 하나의 훼손도 없이 온전하고 띠돈마다 사자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조각기술이나 세부의 묘사 또한 조형적으로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품대 뒤쪽 허리 부분에 부착한 덧댐천의 경우 진주에 주둔한 수군이 사용한 장책을 재활용하여 종이 여러 겹을 겹친 다음 쪽빛 염색한 비단으로 감싸는 줌치기법이 사용된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중국 명나라에서 전래된 유물이지만 조선의 전통 기법이 적용된 한중 절충형 유물로서 공예사적인 가치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 제작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해당 유물을 허리띠라는 의미의 요대로 부르고 있는데, 전체 형태나 구조 및 띠돈의 배치 형식 등에서 조선 문무관리의 품대와 유사하여 유물의 명칭을 ‘품대’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그동안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지 않은 유물로서 품대를 넣어두던 품대함이 있는데, 도넛 형태의 내함과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레를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일정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세우거나, 판재에 베싸기를 하고 흑칠을 하는 등 그동안 볼 수 없던 전통 기술의 전승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지정 상태에 있는 품대함은 품대를 보관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조선의 장인들이 조선에서 자생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조선의 품대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하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도배구대>

복숭아형 잔[도배]와 원형 받침대[구대]는 명나라 파총 진국경이 이순신 장군에게 선물한 목록에 화주배 한 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록 중국제이지만 복숭아 형태의 잔에 손잡이에 잎사귀 3개가 달린 잔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조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에 보관하고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 옥로, 요대, 술잔의 4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장검은 첫째,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칼날에 새겨진 검명은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며 당시의 사회상과 기물명 문화를 확인할 수 있고 충무공의 가치관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다. 둘째, 칼자루 속 슴베에 1594년 태귀런,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넷째,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검명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검 2점과 검집 2점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제작 관련 정보가 명확하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63년 보물 지정 당시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요대를 보관하는 함은 조선의 전통적인 공예기법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제작되어 있고 완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보물로 추가 지정하여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과 함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이순신 장검 2점은 명문을 통해 1594년의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전하는 도검 가운데 가장 크고 고위 무관에 어울리는 의장용 무기로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조선의 도검 가운데 소유자, 제작 시기와 장인이 명확하고 한 쌍의 구성이면서 완전한 형태로 전하는 예는 매우 희소하다.

장검이 임진왜란(1592~1598)이라는 특정 시기에 제작되어, 시대성이 반영된 점도 중요하다. 전례 없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변화는 불가피하였고 조선의 법제에 준하는 도검을 제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일본의 특징을 활용하였다. 이는 비록 적국이라도 무기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연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 의의를 지닌다.

장검을 제작한 공예기법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장검에는 글자와

문양을 새겨 넣기 위하여 입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입사는 금속공예품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시대에 따라 세부 기술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순신 장검에는 두 종류의 입사기법이 파악된다. 먼저 충무공의 기세와 강개한 심정이 담긴 칼날의 문구는, 글자를 파내고 그 안에 금빛이 감도는 황동을 사용하여 열로 압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반면 칼집과 칼자루의 문양은 쪼음입사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이는 철제 바탕에 선으로 요철을 만들고 은사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입사기법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재료와 기술의 세부 현황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검은 조선시대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의 소유품으로 역사성과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유물이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이 투영되었다. 우수한 제작 기술과 역량으로 완성되어, 장검의 제작과 장식기법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순신 장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보로 지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옥로, 요대, 도배와 받침은 제작 지역과 시기, 장인 등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본격적인 연구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측면에서 장검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괄 유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대와 함께 전하는 고리형 칠함은 조선 후기에 국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허리띠와 일괄품이므로 보물 목록에 추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I. 옥로

### ○ 내용 및 특징

이순신의 유품 중 옥로는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의 갓 머리에 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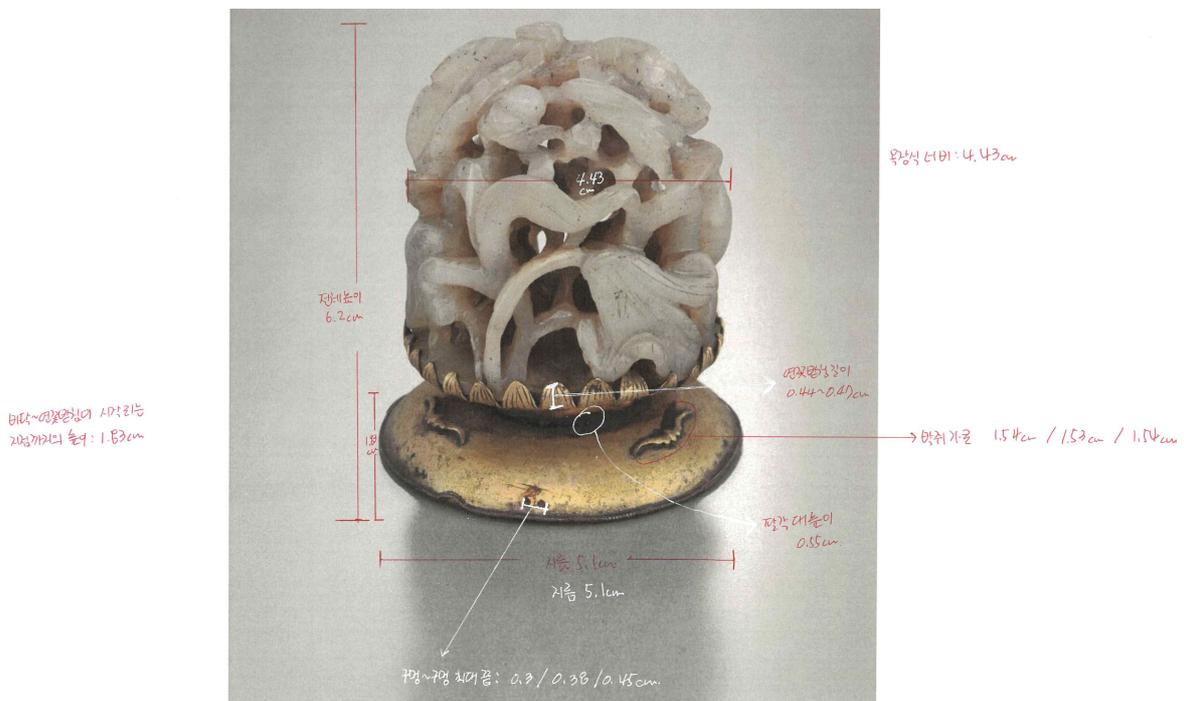
장신구로 둥근 금동 받침 위에 연꽃잎에 싸여 있는 3마리의 해오라기를 옥에 투각하였다. 또한 옥로 외에 옥로를 싼 보자기와 나무상자가 있다.



<옥로>



<옥로, 옥로지, 옥로함>



<옥로의 실측 치수>

옥로의 전체 높이는 6.2cm, 지름은 5.1cm, 연잎 아래에 해오라기 3마리가 서있는 옥 장식 부분의 너비는 4.43cm이다. 해오라기를 새긴 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데, 색이 맑고 깨끗한 고급 백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옥로의 받침에 사용된 금속의 경우 구리이고, 그 위에 금도금을 한 것이 확인된다.

옥로의 받침은 작지만 구조적이어서 불상의 수미좌단처럼 상중하의 3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상단은 연꽃을 떠받치는 양연의 연꽃 받침은 0.44~0.40cm이다. 뽕족한 연잎 13개를 둘러고 각각의 연잎에는 4~5줄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시하고 있다.

수미좌의 중단에 해당되는 팔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름이 작고 폭이 좁아 높이가 0.55cm이다. 하단은 약간 볼록한 원판형이며 세 곳에 날개를 활짝 핀 박쥐문 3개를 배치하였는데 그 크기는 각각 1.50cm, 1.53cm, 1.54cm이다. 이 양각으로 새겨져 납땜으로 붙여놓았다. 박쥐문과 박쥐문 사이에는 각각 2개씩의 구멍이 세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0.3cm, 0.38cm, 0.45cm이다. 이와 같은 박쥐문은 정조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박쥐문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것과 친연성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옥로의 상한 연대는 18세기 말 정조대이며 19세기에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옥로>



<옥로와 옥로집, 옥로함, 1928년 사진>

옥로는 거의 대부분 완형으로 투각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가 파손되어 결실되었으며 조각 사이 사이에는 먼지와 오염물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동 받침에는 갓머리에 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2개씩 세 곳에 뚫려 있으며 마찬가지로 먼지 등이 쌓여 있다.

옥로집은 보자기 형으로 걸감은 쪽빛이고 안감은 밝은 핑크색이며 솜을 넣고 짙은 남색실로 일정 간격으로 누볐다. 이것은 네 모서리를 한데 모으고 꼭대기를 연봉매듭으로 만들고 잠글 수 있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 및 바느질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이후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옥로 하단의 연꽃 받침>



<연봉매듭 부분>



<옥로집의 하단 누비>

옥로의 보관은 누비천으로 만든 옥로집으로 싼 다음 작은 방형의 나무함에 넣는 구조이다. 나무로 만든 옥로함은 상하로 구분되어 정면 외부에는 옷칠을 한 다음 사각형에 외곽을 궁글린 황동 장식 바탕에 낙목과 자물쇠가 달려 있다. 옥로함의 경첩은  $Cu : Zn = 78 : 22$ 의 황동으로 분석되었고 금도금으로 되어 있다. 옥로 상자의 CT 조사를 통해 상자의 나무 방향, 나무의 결합방법, 경첩 결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자의 바닥과 내부는 칠이 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의 뚜껑 부분에만 붉은 칠을 하였다. 옥로집과 옥로함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의 사진부터 확인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옥로함의 앞바탕과 낙목, 자물쇠>



<옥로함 안쪽 종이 위 주칠>

### ○ 참고문헌

- 박형박, 「朝鮮時代 筥(黑筥)의 造形性에 關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윤빛나·홍나영, 「조선시대 호수 입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34, 2015.
- 윤빛나, 「조선시대 입식(笠飾)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II. 요대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 중 일부를 이순신이 일기에 메모해 두었는데, 지금까지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의 유품 중 관복의 허리띠(요대)와 복숭아모양 술잔(도배구대)이 그것이다.

### 1. 요대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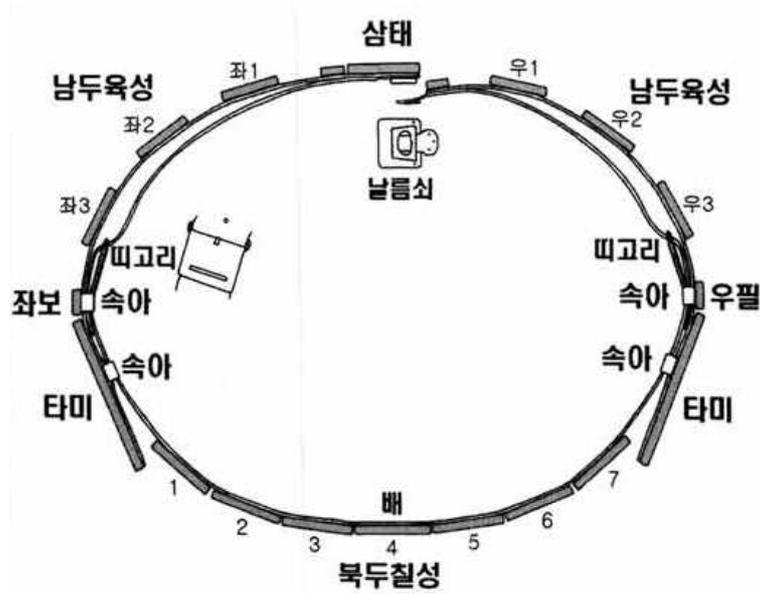
<요대 정면, 삼태와 남두육성 부분, 허리 부분의 덧댐 부분>



<요대 후면, 띠돈의 복두칠성 부분>

이순신장군이 무술년(1598)에 친필로 적은 초고에는 명나라 장수들의 준 선물 목록이 있는데(戊戌日記) 이 가운데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가 선물한 금대(金帶)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허리띠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 장수에게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여 금대를 선물로 준 왕원주의 호는 경남(敬南)으로 소주부(蘇州府) 태창위(太倉衛) 사람이다(李忠武公全書 24, 附錄6, 紀實[下]). 그는 높은 계급의 장수는 아니었고 표하유격(票下游擊)으로서 수병 2천을 이끌고 무술년(1598)에 조선에 와서(亂中雜錄3, 선조 31년 3월 3일) 고금도(古今島)에 머물다가 기해년(1599) 3월에 돌아갔다(象村集, 象村先生集 제57권; 大東野乘 再造藩邦志 5).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관리들은 관복 위에 허리띠(腰帶)를 착용하는데, 띠 바탕에 부착된 띠돈의 재료로 품계의 높낮이가 구분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허리띠는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관복에 두른다고 관대(官帶), 관리의 품계에 따라 구분할 때는 품대(品帶),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부른다. 품대(品帶)는 148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삼금대(鈹金帶),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 종3품은 삼은대(鈹銀帶), 종3~4품은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는 흑각대(黑角帶, 烏角帶)로 정해져 있었다. 즉 띠돈의 재료로 물소뿔을 비롯하여 금, 은, 흑각[쇠뿔]의 4종과 띠돈에 조각을 하는 유무[鈹, 素]에 따라 총 6종으로 구분된다.



<품대의 세부명칭>

### 1) 요대의 실측 치수

왕원주가 선물한 이순신장군의 요대는 가죽을 얇고 일정하게 펴서 안쪽으로 반씩 접어 옷칠을 바른 피태칠기 기법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선을 긋고, 띠돈을 붙인 형태이다. 띠돈은 총 20개로 여닫을 수 있는 삼태와 날름쇠가 앞쪽에 있고, 그 좌우로 심엽형 띠돈 6개로 남두육성을, 그 뒤로 띠고리를 각각 좌보 1개와 우필 1개 및 타미 2개를 붙여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뒤쪽에 7개의 장방형 띠돈으로 복두칠성을 만들고 안쪽에 허리를 받칠 배(背)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품대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데, 당시 명나라의 품대 형식도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대, 세부 치수>

이순신유물 중 허리띠의 전체 높이는 5.5cm, 지름은 42.0~43.0cm, 허리띠의 둘레 130cm 정도이다. 허리띠의 가죽은 피태칠기(皮胎漆器) 기법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흑칠을 하였고, 5.5cm 높이의 가죽은 상중하의 세 군데를 빙 둘러 금선으로 띠를 칠하였다. 위쪽에는 1줄, 가운데에는 3줄, 아래쪽에는 1줄을 칠한 것이 확인된다. 타미는 가로폭(테두리 포함) 9.5~11.0cm, 세로폭(테두리 포함) 5.5cm이다. 타미의 좌우에는 6엽 매화문 2엽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좌보는 테두리 바깥 3.3cm, 안쪽 2.7cm이다. 남두육성은 테두리 포함 6.2cm, 삼태는 7.0cm이다.

요대의 상하 높이는 5.5cm이고 지름은 42.0~43.0cm 정도여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요대와 비슷한 크기이다. 앞쪽 삼태의 띠돈은 중앙은 정방형으로 가로 7.0cm, 좌우 옆은 1.7cm이다. 삼태 옆 좌우에는 심엽형 띠돈이 각각 3개씩 총 6개를 붙여 일명 남두육성(南斗六星)이라고 불리는데, 테두리 포함 6.2cm이다. 타미 2개의 경우 가장 긴 길이의 가로폭은 11.0cm이고 직선부분의 가로폭은 9.5cm이다. 타미의 좌우에는 금제 6엽 매화문이 상하로 각각 배치되며 각각의 지름은 2.0cm이다. 타미와 6엽 매화문 옆으로는 좌보와 우필이 배치되는데, 상하로 좁고 긴 장방형이다. 각각의 안쪽 너비는 1.7cm이고 금속제 테두리를 포함한 바깥면은 3.3cm이다. 속아는 총 4개로 좌우의 타미에 각각 1개씩, 좌보와 우필에 각각 1개씩 황동제로 만들어 걸려 있다. 이 속아를 통해 허리띠의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허리띠의 재료와 기능적 구조

허리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 위에 부착된 띠돈의 재료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금속제로 감싸는 구조이다.



<삼태의 좌우 날름쇠, 세줄 금선>



<삼태 안쪽의 날름쇠 부분>

요대에 보이는 가죽은 표면은 멀리서 보면 흑칠로 되어 있어 매끈한 것처럼 보이

지만, 가까이 보면 울룩불룩한 표면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허리띠는 쇠가죽이나 염소가죽 및 사슴가죽 등을 비롯한 길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 이러한 가죽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면의 질감이나 느낌은 염소가죽이 좀더 경화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흔히 상어가죽으로 알려진 가오리가죽에 가까운 편이다.

이 요대는 실제 허리띠로서 사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삼태에 위치한 황동제 날름쇠를 통해 잠갔다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좌우 타미와 좌보 및 우필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속아를 통해 착용자의 허리둘레에 맞춰 넓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7개의 띠돈이 배치된 북두칠성의 위치에 종이를 여러 겹 싸고 쪽빛으로 염색한 비단을 두르는 줌치 기법에 의해 배(背)를 둘러놓은 것이 확인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순신장군 요대는 비록 1598년 중국 장수가 선물로 준 것이어서 원래는 중국제이지만, 이후 충무공의 유물과 함께 전세되면서 조선 후기에 착용을 위해 조선식의 착용방식이 덧붙여져 한중 허리띠의 절충 형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귀성이 엿보인다.

### 3) 띠돈의 형식과 제작 기법

요대에는 서각을 금속테두리로 짠 띠돈이 총 20개가 부착되어 있다. 배 앞에 위치하는 삼태 3개, 심엽형 남두육성 6개, 장방형 북두칠성 7개, 좌우 허리에 위치하여 허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는 좌보 1개, 우필 1개 및 타미 2개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금속 기법 중 알물림처럼 사자 조각이 새겨진 서각을 금속 테두리로 감싸고 있다.

20개 띠돈의 형태는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삼태와 타미 및 북두칠성은 가로로 긴 장방형이고, 남두육성은 심엽형이며, 좌보와 우필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다. 띠돈의 형태마다 조각이 달라 삼태와 타미 및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에는 구름 위에 노니는 사자를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좌보와 우필에는 영지버섯형 구름이 새겨져 있다.



<삼태의 좌우 날름쇠, 세줄 금선>



<삼태 안쪽의 날름쇠 부분>

띠돈의 경우 요대 띠돈의 금속테 및 띠돈 금도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속테의 금도금은 쉽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띠돈에 도금한 것도 확인되어, 칠 위에 금박 도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대의 장식은 원래 금속테의 꺾쇠로 고정하거나 요대 가죽에 구멍을 뚫어 실로 묶었으나 꺾쇠와 실이 끊어져 분리된 상태이다. 접합은 제거가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고농도의 어교를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원래 있던 구멍에 실로 묶어주었다. 또한 요대 뒷부분 안쪽에 종이를 천으로 감싸 덧댄 부분은 전분풀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심엽형 띠돈 6개의 남두육성에 새겨진 사자들의 다양한 모습>

띠돈 위에 새겨진 구름 위 사자의 조각은 형태의 세부 묘사나 조각적 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깊이감이나 운동감 등도 우수하다. 요대를 여닫는 버클의 역할을 하는 삼태의 좌우에는 심엽형 띠돈 6개가 배치되어 남두육성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린 사자들이 이글거리는 구름 위에서 앞으로서 나아가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사자는 근육이 탄탄하고 얼굴 표정까지 세밀하게 부조되어 있고 구름문은 높낮이를 달리하여 투각하는 등 조각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남두육성의 칠 또한 흑칠 위에 붉은 주칠을 하고 갈기 등에 금색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



<타미에 새겨진 사자 세마리>



<사자문 타미, 육엽매화문, 영지운문 좌보>

특히 타미는 크기는 다른 띠돈보다 커 문양을 새길 면적이 넓기 때문인지 사자 세 마리가 구름 속에서 노니는 모습을 새겼다. 큰 사자 1마리의 좌우에 각각 작은 사자 1마리가 함께 가운데 사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다. 이

러한 사자의 몸은 붉은 색이 바탕에 바른 후 그 위에 눈이나 갈기에 입체감을 띄며 금색을 칠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하로 가늘고 긴 좌보와 우필에는 영지운문이 새겨져 있고, 이 또한 검은 칠 위에 먼저 붉은 색을 바닥에 칠하고 그 위에 금칠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육엽매화문은 중앙의 꽃술은 井자로 가로세로 줄무늬를 촘촘하게 음각하고 가장자리에는 여섯잎 꽃잎이 배치되어 있으며, 둥근 앞사귀 사이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허리띠의 가죽이나 띠돈 전체는 방충 방부 방수에 탁월한 옷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물의 보존 상태가 매우 탁월하다. 띠돈의 바탕 전체를 흑칠한 위에 사자의 얼굴이나 갈기 등 몸체에 금으로 도금을 하였으며 입가에는 주칠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각각 20개의 띠돈은 금속테를 섬세하게 만들고 알물림 기법으로 감쌌다.

이처럼 요대의 경우 삼태와 타미, 좌보와 우필 그리고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에 해당되는 띠돈의 경우 모두 서각을 금속 테두리로 알물림하였다. 이러한 알물림 기법은 크게 3부분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장 안쪽 부분은 가는 액자틀 모양이며, 중간 부분은 넓으면서 약간 둥그스름하며, 가장자리는 일정 간격으로 선을 꼭꼭 눌러 용수철처럼 마감되어 있다.



<삼태 우측과 심엽형 남두육성, 가죽과 금선> <북두칠성 안쪽, 종이겹 위의 쪽빛 직물의 背>

현재에는 흑칠한 띠돈 위에 사자의 몸체 등에 바른 금도금이나 주칠 등이 일부만 남아 있지만 처음 왕원주가 선물할 때에는 금빛이 찬란하였기 때문에 이순신의 무술일기에는 금대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울러 띠돈 중 일부는 탈락되어 끈으로 고정된 상태이지만 이로 인해 원래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요대의 뒷부분이며 착장자의 허리에 맞는 부분에는 여러 겹의 종이를 쪽으로 염색한 비단천으로 감싸 덧댔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요대를 착용해 보면서 만들어 부착했던 것으로 헤지고 일부 들뜬 상태이다. 쪽빛 천의 안쪽에서 읽을 수 있는 글씨는 ‘晉州’, ‘一戰船’, ‘旗牌’ 등이다. 이를 통해 수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문서나 장책들을 재활용하여 여러 겹을 붙여 두툼하게 만드는 줌치기법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원래 명나라에서 선물한 요대를 조선 후기에 사용할 수 있게 종이에 천을 덧대어 한중 혼합으로 사용하였다.



<1품관 서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종3품 삼은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4) 요대 유물의 비교

이순신 요대와 비교되는 유물로 석주선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중 1품관 서대의 경우 삼태나 타미 및 남두육성 등의 형태는 일치하나 가장자리 금속테두리가 단순하고, 서각 내부 조각도 되어 있지 않아 소략한 편이다. 하지만 북두칠성의 안쪽 부분에 종이를 겹쳐 넣고 쪽빛 직물로 배를 두른 부분은 일치한다. 한편 석주선기념박물관소장의 종3품 삼은대의 경우 1500년대의 유물이다. 길이 137cm, 폭 4.7cm이며, 가죽에 흑칠을 한 각대(角帶) 위에 서수(瑞獸)와 만초문(蔓草紋)을 투각한 황장목(黃腸木) 조각에 은으로 장식판의 테두리를 둘러는데, 교구(鉸具)의 한쪽 부분과 방형장식판 1개가 탈락되어 없다. 허리 띠 안쪽 북두칠성 부분에 천으로 덧댄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음이 선명하다. 허리의 덧댄부분에서 장식판을 고정하는데 사용한 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타미 옆쪽으로 은매화 4개가 있고 좌보는 탈락되어 있다. 이 삼은대는 가장자리의 금속제 테두리를 순은으로 격식 있게 둘러고, 그 안쪽에는 서수와 만초문을 새겨 넣어 이순신 유물 중 요대 띠돈에 사자와 영지형 구름을 새기고 6엽 매화문을 배치하는 등 전체적인 형태와 문양이 매우 유사하여 15세기 조선과 명나라 유물로서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순신 유물 중 요대는 유격이 왕원주가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산이 아닌 중국 명나라 장인들의 솜씨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 요대와 관련된 유물 중에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주목되는 유물은 요대함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품대를 소중히 여겨 관대함에 넣어 보관하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 2. 요대함

이순신 유물의 요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물이 요대를 넣어 보관하는 요대함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동안 이 유물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흑백 사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촬영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고, 다만 1969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흑백 사진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대함은 요대를 넣어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지만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요대함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유물과 비교한 결과 본 유물은 조선의 재료와 기술 및 솜씨로 제작한 것으로 공예기술적으로 의미 있어 보물로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관대함, 1969년 흑백사진>



<관대함에 관대를 넣은 모습과 뚜껑>

## ○ 내용 및 특징

### 1) 요대함의 실측 치수

현충사 유물 일괄 중 주목되는 것은 요대를 담은 요대함이다. 요대함은 내함과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껑을 닫았을 때 바깥 지름은 48.5cm, 안쪽의 지름은 26.1cm이다. 뚜껑의 높이는 7.73~7.81cm, 뚜껑 판의 두께는 0.94~0.99cm이다. 뚜껑의 바닥 사이의 폭은 11.10~11.22cm이다. 뚜껑판의 두께는 외곽의 것이 0.74~0.85cm, 내곽의 것이 0.64~0.68cm이다. 관대 내함의 아래쪽은 바닥의 높이는 7.20~7.42cm, 바닥판의 두께는 0.65~0.71cm, 바닥 사이의 폭은 8.72~8.54cm이다. 외곽 두께는 0.72~0.77cm이며, 내곽 두께는 0.75~0.83cm이다.

이순신장군 관대함의 경우 둘레의 지름 크기에 의해 살펴보면 크게 4종류이다. 가장 크기가 큰 아름드리는 뚜껑 바깥면이고, 그보다 작은 아름드리는 내함의 바깥면, 다시 뚜껑의 안쪽면, 가장 작은 원둘레는 내함의 안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과 요대함의 안팎에 높이와 둘레가 다른 판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탁월한 목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 2) 요대함의 형태와 구조

이순신 유물 중 요대를 둥글게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아름드리 폭의 소나무를 일정한 두께로 자른 다음, 관대의 지름에 맞춰 넣을 수 있도록 도넛 형태로 만든 것이다. 현존 유물을 관찰한 결과 함은 아래쪽의 내함과 위쪽 뚜껑으로 구성되는데, 둘 다 바깥면과 안쪽면이 결합된 방식이다.



<관대를 넣은 모습>



<관대함 뚜껑>



<뚜껑을 닫은 관대함>



<흑칠 아래 베싸기가 된 부분>

이렇게 도넛과 같은 원형의 기물을 형태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통 공예에서 제작이 쉽지 않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구절판의 경우 얇고 가느다란 나무를 여러 겹 붙여 둥근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중 뚜껑 부분에서는 관재의 가장자리를 일정한 두께로 칼집을 주어 둥글게 돌려 세웠는데, 이러한 기법은 전통 소반을 제작할 때 천판에 초엽대를 빙그르 돌릴 때에 사용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둥근 관재 중 안쪽의 가장 작은 관재에는 상하 2군데 4개의 못이 박힌 것도 있어 조선 후기의 다양한 목공 기법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도넛형의 뚜껑면과 바닥면에 해당되는 관재는 넓은 면을 구하는 쉽지 않아서인지 관재를 2개를 맞댐하여 붙인 자국이 확인된다.

이순신유물 중 요대함에는 도넛형 내함과 뚜껑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 목공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전통 기술 중에는 둥근 소반을 만들 때 칼집을 주는 기법과 함께 조선시대에 전세되어 내려오는 민속 유물 중 마미체 등을 만들 때 첻바퀴를 만든 기술과도 연관된다. 곧 부드럽고 얇은 버드나무를 여러 겹 두르고 소나무 뿌리로 묶었다.

또한 조선 후기 관대함 중에서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둥근 도넛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고, 그중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품이 있지만 매우 희귀한 편인데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말기 관대함이 최근 전시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대모집>



<목각대집,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모집 안쪽,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관대함, 호림박물관 소장>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角帶집은 대개 긴 네모 모양인데 이 遺物처럼 둥근 모양은 드물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角帶함의 길이는 52.8cm, 세로 30cm, 높이 8.3cm이며, 二重構造의 精巧한 것으로 겉은 옷칠, 안은 朱漆을 했다.

##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가죽문화재식별분석 공동연구서』, 2020.
- 도보선, 「조선시대 품대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안명숙, 「한국 과대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 이영, 「조선조 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 Ⅲ. 도배구대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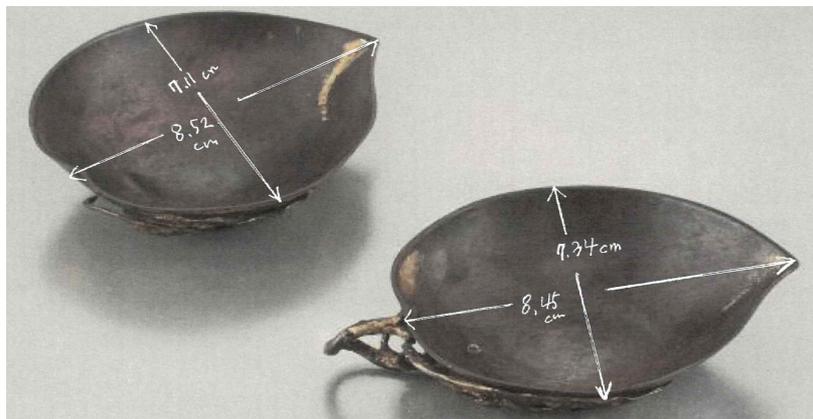


<이순신 유물 중 복숭아형 잔과 받침대>

도배와 구대는 파총 진국경이 선물한 목록에 화주배 한 쌍이 있는데 이 술잔을 그것으로 보고 있다. 복숭아 모양의 술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얇은 동판으로 제작한 후 금도금을 하였다. 도배 1점의 줄기 1개가 결실되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에는 땀 한 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의 금도금은 대부분 박락되어 없고 일부만 남아 있다. 구대 2점 모두 원형 테두리 부분이 갈라진 상태이다.

도배와 구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 99%의 순동으로 분석되었고 이 때문에 짙은 구리색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바닥 등에는 여전히 금도금을 확인할 수 있다. 도배 뒷면에서는 땀 흔적이 엿보이며, 주석과 납의 비율을 7:3이었다.

#### 1. 실측 치수



<도배의 실측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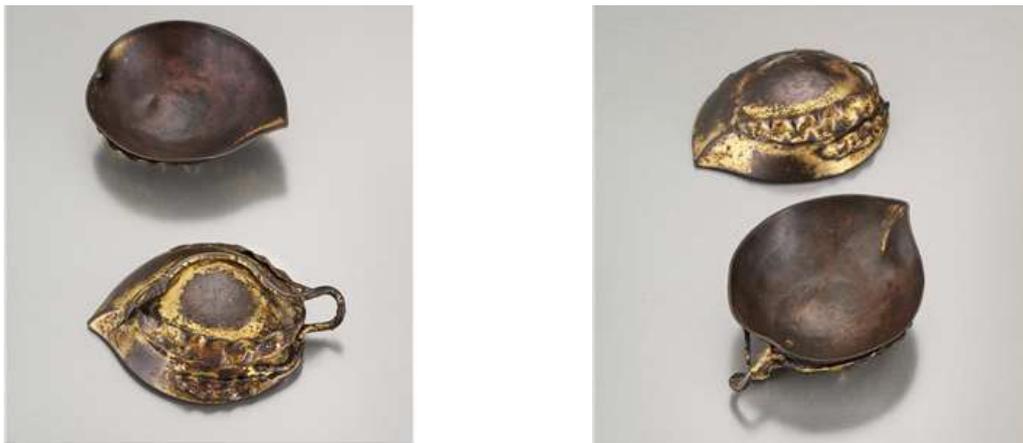
복숭아 형태의 도배 1쌍은 각각 길이 8.52cm, 폭 7.11cm이고, 잎사귀가 온전한 것은 길이 8.45cm, 폭 7.34cm로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받침대의 실측 치수>

받침대 2개는 원형에 전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상태가 좋은 것과 전이 떨어진 것 안쪽 넓은 원형면의 안지름은 12.8cm, 바깥 전의 겹지름은 15.5~15.8cm이다. 청동제의 표면에 도금을 했는데, 뒤집은 면에 도금이 많이 남아 있다.

## 2. 복숭아형 잔과 받침대



<복숭아형 잔 1쌍>



<잔 1쌍과 받침대 1쌍 >

이러한 도배는 복숭아형 표주박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제작할 때 사용한 재질은 은, 유기, 목재, 가죽, 종이 등 다양하고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유물로 전하는 숫자도 상당하다.



<표주박>, 은, 높이 4.1cm, 입지름 10.0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유기, 길이 11.5cm, 입지름 9.2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연옥, 높이 4.1cm, 입지름 9.3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나무, 길이 13.6cm, 높이 6.0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너비 9.5cm, 길이 12.5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지승, 높이 4.5cm, 입지름 9.0cm, 국립민속박물관

일반적으로 복숭아의 형태는 중국 신화와 고전에서 선계(仙界)의 신성함을 함의하고 있다. 복숭아에 부여된 신성성에 기반을 둔 변화와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와 노·장 사상에서 복숭아는 선인(仙人)의 장생(長生)과 불사(不死)를 약속하는 선과로 그려지며, 다른 사회적 이념과 문화적 배경을 지향하는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루어주는 기복(祈福)의 상징으로 여러 형식과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복숭아형 문화사적 연구는 도교와 신선 사상과 관련된 역사·문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무용·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복숭아형 잔은 중국에서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조선 후기에 전해져 관련 기록과 다양한 재질의 재질로 만들어진 잔이 남아 있어 제작이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명나라 장수가 선물로 준 복숭아잔은 복숭아 모양의 형태에 줄기에 잎사귀 3개가 달린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백자 복숭아 모양 잔은 물레로 둥근 형태의 완을 성형한 후 손으로 한쪽을 눌러 복숭아 모양을 만들고 양각으로 잎과 가지를 장식해 완성하였으며, 백자에 청화로 잎을 채색한 것과 전체에 철유를 시유한 것이 있다.



<백자청화천도형잔>, 19세기,  
높이 4.5cm, 입지름 9.7cm,  
국립중앙박물관



<靑畫白磁鐵繪桃形잔>, 19세기,  
높이 4.8cm, 입지름 8.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철유도형잔>, 조선 19세기,  
높이 4.7cm, 입지름 9.0cm,  
도쿄국립박물관

## ○ 참고문헌

- 김민정, 「조선후기 복숭아형[桃形] 연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윤희정,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 김정수, 「桃形杯와 花形杯의 용도에 대한 추론」, 『영남고고학』 90, 2021.



## I. 옥로

### ○ 현 상

옥로(玉鷺)는 옥(玉)을 해오라기[鷺] 모양으로 조각하여 관모의 정상에 장식하던 입식(笠飾)의 한 종류이다. 이순신 유물 일괄 중 한 품목인 옥로는 백옥을 깎아 만들었으며, 연잎과 줄기 사이에 있는 해오라기 3마리를 배치하였다. 3마리는 서로 다른 자세로 서있는데, 한 마리는 목을 움츠리고, 다음은 목을 펴고 앞을 바라보며, 나머지 한 마리는 뒤로 돌아보는 모습이다.

백옥 조각 아래에는 금속 받침이 있다. 구리를 포함한 금속 위에 금도금하여 받침을 만들었으며,<sup>43)</sup> 받침의 윗부분은 불상의 대좌처럼 연꽃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백옥 조각을 감싸며 잡고 있다. 받침 아래쪽에는 박쥐 세 마리가 양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박쥐를 한자로 편복(蝙蝠)이라 쓰고 그 발음이 복을 두루 미친다는 편복(遍福)과 같았기 때문이다. 받침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총 세 군데에 구멍이 각 2개씩 뚫려 있다. 이는 옥로 장식을 관모에 달아서 고정하기 위해, 즉실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구멍이다.

섬세하게 투조된 옥조각과 아래의 금도금 받침을 포함한 옥로 장식의 전체 높이는 6.2cm, 너비 4.43cm이며, 아래쪽 받침의 높이는 1.83cm, 지름은 5.1cm이다. 받침 윗부분의 연꽃 꽃잎은 갈라진 부분의 길이가 0.44~0.47cm로 꽃잎 한 장마다 5~6줄씩 선을 새겨 정교하게 제작하였다. 관모 고정용 구멍의 간격은 0.3~0.45cm로, 바늘땀 크기에 해당한다.

43)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72.



<옥로와 박쥐의 위치>

<관모 고정용 구멍>

옥로는 누비보자기에 썬 후 나무상자에 담아 보관하였다. 누비보자기의 결감은 연한 청록색, 안감은 진분홍색이고 구조는 버선본집과 유사하다. 사각형으로 만든 누비보자기의 꼭지점을 한 곳에서 만나도록 모은 후, 서로 맞닿는 가장자리 중에서 두 곳은 바느질하여 고정하고 나머지는 편지봉투의 뚜껑처럼 여닫아서 옥로를 담을 수 있게 하였다. 매듭단추와 고리를 달아서 잠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누비바느질은 재봉틀 바느질로서 근대 이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8년 촬영된 흑백사진 속에서도 동일한 누비 보자기가 확인되므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봉틀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바느질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처리도 영성하게 되어 있어, 16세기 말이 아니라 후대에 급하게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옥로함은 약 11cm 크기의 직육면체 나무 상자에 흑칠을 한 후 황동으로 경첩, 자물쇠 등을 달았다.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안쪽만 붉은 칠을 하였고, 나머지 상자의 안쪽과 바닥은 칠을 하지 않았다. 한쪽 손잡이는 결락되었고 옷칠도 군데 군데 벗겨져 있다.



<옥로를 보관하기 위한 누비보자기와 나무함>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 옥로와 함>

### ○ 내용 및 특징

갓[笠]의 꼭대기에 장식하는 것을 입식(笠飾) 혹은 정자(頂子)라고 하며, 이는 고려 말 공민왕 때 흑립 위에 직포에 따라 재료를 구분하여 장식을 만들어 달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 품계별 재료 규정이 있고, 용복(戎服)이나 군복(軍服)을 착용할 때 관모인 립(笠)에 옥로를 장식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sup>44)</sup>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김홍도필평안감사향연도(전金弘道筆平安監司饗宴圖)>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철종어진> 등의 회화에서도 발견된다.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평안감사향연도>에서 평안감사는 용복 차림으로 남철릭을 입고 주립을 썼는데 이때 주립의 정상에 흰색 정자를 달았고, <철종어진>에서 철종은 군복 차림으로 협수와 전복을 입고 대오리로 만든 죽사립(竹絲笠)을 쓰고 정수리 장식으로 백옥으로 만든 정자와 청색 깃털[靑轉羽], 공작새깃털[孔雀尾]을 달았다.

44) 『영조실록』 권75, 영조 28년 1월 8일 경오, “戎服動駕時服色, 以無揚黑紗貼裏靑帶, 則仍用存, 笠飾、玉鷺對靑鞞、玉帶之意, 只去羽。”;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7월 30일 임진, “原任將臣體貌, 與武宰有所區別。凡於戎服、軍服之班, 許飾玉鷺於紗笠氈笠之上, 似好。”; 『고종실록』 권126, 고종 16년 7월 10일 임오, “一, 玉鷺之飾、雙轎之乘, 依萊伯例爲之。”



<<평안감사향연도>>의 옥정자>



<<평안감사향연도>>의 옥정자>

평안감사의 흰색 정자는 크기가 작아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철종 어진>의 백옥 정자는 금도금한 받침 위에 매우 화려하게 조각한 봉황 한 마리가 올려져 있다. 해오라기가 아닌 봉황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화 외에도 국내와 해외에는 옥으로 만든 정자 장식이 다수 전해진다. 유물들을 비교해보면 조각한 동물의 종류와 수량, 조각의 구성, 받침대의 재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해오라기(백로)와 봉황 같은 조류가 대부분이지만 사슴도 있었다. 그중 제일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것은 옥로, 즉 해오라기이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로 해오라기의 숫자와 배치가 서로 달랐다. 동물의 구성에 따라 옥로의 조각방식이나 크기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해오라기나 봉황 한 마리만 있는 경우에는 양각으로 조각하고 받침대를 포함해도 높이가 3~4cm인데 비해 두세 마리로 늘어나면 연꽃과 연잎, 나무 등과 함께 배치되면서 투각으로 뚫어서 새기면서 높이가 약 6~7cm 정도로 커졌다. 옥의 색상은 백색이 가장 많지만 초록색, 붉은색 계통도 있고 적갈색의 자마노[자만옥,紫瑪瑙]로 만든 것도 있다. 옥장식의 받침 재료는 주로 금속이고 가끔 전체를 옥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받침에 구멍이 2개씩 쌍을 이루어 3쌍 있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관모에 고정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철종 어진>>의 옥정자>



이순신 일괄 유물 중 옥로는 조선시대 옥정자의 전형적인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옥정자 유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색이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백옥을 재료로 연꽃, 연잎, 줄기 사이에 세 마리의 해오라기를 투각으로 표현하였고, 금도금한 금속 받침 위에 옥 조각을 올린 후 연꽃 꽃잎 모양으로 만든 받침 상단을 한 잎 한 잎 구부려서 고정시켰다. 흥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李浚鎔, 永宣君, 1870~1917) 묘 출토 옥로와 크기도 비슷하고 옥의 조각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황실에서 사용한 정자 장식만큼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표1. 옥정자 유물 목록>

사진	소장처	시대	높이(cm)	구성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1800년)	3.8	백로1마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1750년)	4.0 /지름 2.7	백로1마리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말	옥로립 전체높이 16.5	백로1마리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3.5 /가로 2.5	옥부분만 남아있음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조선 19세기 (1902년 구입)	3.5 /지름 2.5	옥만 있음
	경기도박물관	조선	3.0	백로2마리, 연잎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조선 19세기 (1902년 구입)	4.8 /지름 2.8	백로3마리

사진	소장처	시대	높이(cm)	구성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 후기	5.7	꽃 위에 백로3마리
	서울역사박물관 (이준용 묘 출토)	19세기 말 ~1917년	6.3	백로5마리, 연잎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6.9	백로, 식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19세기	7.0	사슴, 식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19세기	7.5	사슴, 식물

## II. 요대, 요대함

### ○ 현 상

요대(腰帶)는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앞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중앙의 개폐장치인 삼태(三臺)로 여닫고, 뒤쪽은 별도의 띠가 있고 양 끝에 띠고리와 침이 있어서 앞의 속띠에 꽂아서 허리둘레를 조절한다. 앞쪽을 잠근 상태로 측정했을 때 좌우 폭은 45cm, 앞뒤 폭은 42cm이고, 띠의 너비는 5.5cm이다. 가죽에 검은 칠을 하였으며, 이 위에 금분으로 5줄의 선[梁]을 그렸다. 검은 가죽띠, 즉 흑정(黑靛) 위에 직사각형과 행엽형의 띠꾸미개(띠돈, 帶錢)를 붙였고 띠꾸미개의 가장자리에 금도금을 한 금속, 금테를 둘렀다. 나무로 만든 띠꾸미개에는 구름을 배경으로 서있는 사자의 모습을 조각한 후 흑칠과 금칠을 하였다. 현재는 금테의 도금이 벗겨진 곳도 있고 띠꾸미개의 흑칠이 떨어져나가면서 안쪽의 붉은색이 드러난 곳도 있다. 조각 위의 금칠은 대부분 결락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뒷허리띠의 안쪽에는 종이를 여러 겹 겹친 후 명주로 보이는 평직의 남색 직물로 감싸서 부착하였다. 이는 띠꾸미개를 허리띠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 철사 때문에

옷이나 피부를 손상시킬까봐 철사를 덮어 가리기 위한 장치이다. 착용했을 당시의 마찰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직물 부분이 닳고 헤어져서 현재는 직물 안쪽의 종이가 많이 노출된 상태이다. 종이의 묵서로 보았을 때 사용했던 종이나 서적을 재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요대(앞)>



<이순신 요대(뒤)>



<삼태를 잠근 모습>



<삼태를 풀어서 연 모습>



<띠꾸미개와 도금 테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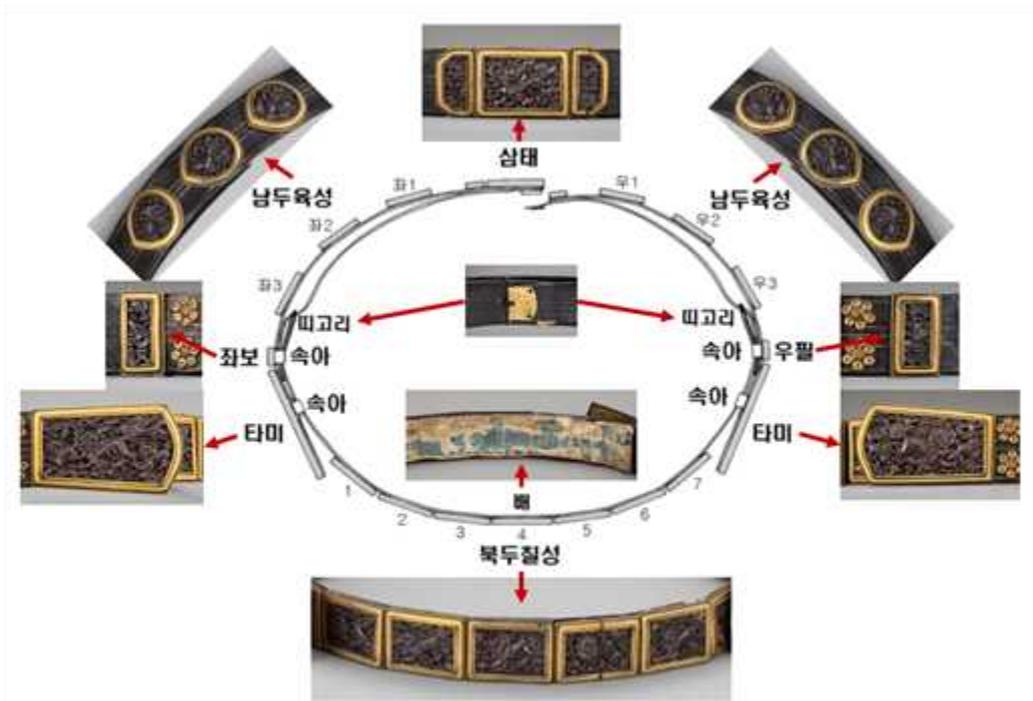
<띠꾸미개의 금칠 흔적>



<허리띠의 배(背): 종이와 남색 직물>

요대 유물은 조선과 명에서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품대(品帶)의 구조와 일치한다. 품대의 각 부위별 세부명칭과 함께 요대 유물의 사진을 배치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띠꾸미개의 이름은 별자리를 따라 붙었는데, 각 위치별 수량을 살펴보면 앞쪽 중앙의 삼태 3개, 남두육성은 왼쪽 3개와 오른쪽 3개, 왼쪽에는 좌보 1개와 타미 1개, 오른쪽에는 우필 1개와 타미 1개, 그리고 뒤쪽으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7개의 띠꾸미개가 배열되어 있다. 금테를 포함한 띠꾸미개의 크기를 살펴보면 세로길이는 허리띠의 너비와 거의 동일한 5.5cm이고 형태와 가로길이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삼태의 가운데 직사각형 띠꾸미개는 가로 7.0cm, 은행모양[杏葉形]의 남두육성은 6.2cm, 좌보는 3.3cm, 타미는 최대 가로길이 11cm이다. 길이에 따라 문양의 배치가 달라져서 삼태의 가운데·남두육성·북두칠성에는 사자 한 마리, 삼태의 양옆·좌보·우필은 좁아서 구름만 있고, 양쪽 타미는 길이가 길어서 크고 작은 사자 세 마리가 새겨져 있다. 띠꾸미개는 표면의 칠이 마모되거나 결락되고 수리한 흔적은 있으나 총 20개가 모두 남아 있어 요대의

구성품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이순신 요대의 각 부분45)>

요대는 원형의 나무로 만든 함(函)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 함은 위와 아래의 2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첩이나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방식이다. 위함과 아래함 모두 겉은 흑칠, 안은 주칠을 하였다. 흑칠한 면의 위나 아래 부분에는 직물의 경사와 위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옷칠을 여러 겹 올릴 때 삼베와 같은 직물을 호칠로 붙여서 면을 정리하고 강도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형의 요대함>



<함 안에 담긴 요대>

45) 품대의 선묘 도식화 출처: 中國社會科學考古研究所外, 定陵, 北京: 文物出版社, 1990, p.207. ; 이은주, 2011, p.140 재인용.



<요대함의 세부사진들>

위함을 덮었을 때 바깥쪽 지름[外徑]은 48.5cm이고 안쪽 지름[內徑]은 26.1cm이다. 위함의 높이는 7.7~7.8cm, 아래함의 높이는 7.2~7.4cm로 위함이 0.5cm 정도 크지만, 수평으로 놓인 윗면의 나무판 두께가 약 1cm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1.5cm 쯤 떨어져있게 된다.

위함과 아래함은 각각 3면의 나무판으로 구성된다.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판, 외경을 이루는 판, 내경을 이루는 판이다. 나무판의 두께는 대부분 0.7~0.8cm이며, 각 부분을 수차례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요대함의 세부치수(단위: cm)>

구분	위함(뚜껑)	아래함(본체)
높이	7.73~7.81	7.20~7.42
수평 판 두께	0.94~0.99	0.65~0.71
외경 판 두께	0.74~0.85	0.72~0.77
내경 판 두께	0.64~0.68	0.75~0.83
외경과 내경 사이거리	11.10~11.22	8.72~8.94



<요대함의 구조와 세부치수>

### ○ 내용 및 특징

요대는 허리 요(腰)와 띠 대(帶)가 결합한 단어로 글자 그대로 허리띠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허리띠는 재료, 장식, 색상, 구조에 따라 옥대(玉帶), 서대(犀帶), 삽금대(鍍金帶), 흑각대(黑角帶), 남전대(藍戰帶), 홍목대(紅木帶), 야자대(也字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으나, 요대는 허리에 두르는 띠를 폭넓게 지칭하는 단어였다. 허리띠의 명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로서,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는 혁대(革帶)라고 불렀고 가죽 위에 띠돈을 부착하여 장식과 함께 지위와 품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문무백관의 혁대는 품대(品帶)라고 불렀다.<sup>46)</sup>

『경국대전』에는 관리들의 복색과 품계에 따른 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조선 말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먼저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에는 동일한 품대를 착용하였다. 1품이 착용한 서대(犀帶)는 띠꾸미개의 재료를 무소뿔[犀]로 만들었으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했으므로 무척 귀했다. 2품은 금테를 두른 금대, 3~4품은 은테를 두른 은대를 사용하였는데, 금대와 은대는 띠꾸미개 판의 재료가 아니라 조각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었다. 즉 재료와 상관없이 판에 조각을 하면 새길 삽(鍍)자를 쓰고, 조각 없이 민자의 판을 사용하면 꾸미지 않을 소(素)자를 썼다. 다시 말해서 정2품은 조각이 있고 금테를 두른 삽금대(鍍金帶), 종2품은 조각없이 민자에 금테를 두른 소금대(素金帶), 정3품은 조각이 있고 은테를 두른 삽은대(鍍銀帶), 종3품과 4품은 조각없이 민자에 은테를 두른 소은대(素銀帶)로 규정되어 있었다. 5품 이하 관리들은 검은색

46)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5월 25일 병인, “殿下冕服, 無革帶。所謂革帶, 卽百官朝服所着品帶也。”

소빨로 만든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였다. 공복(公服)을 착용할 때에는 1품 관리는 동일한 재료로 만든 서대를 띠고, 2품에서 정3품까지는 여지무늬가 새겨지고 금테를 두른 여지금대(荔枝金帶)를, 종3품 이하는 흑각대를 착용했다. 이순신 일괄 유물의 요대는 나무에 조각을 하고 금테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보면 정2품의 삼금대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중 한산도해전의 공적으로 1592년 음력 7월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기 때문에 삼금대를 착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충무공전서』에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중에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금대(金帶) 기록이 있으므로<sup>47)</sup> 선물 받은 물품일 가능성도 있다.

<표2. 『경국대전』에 기록된 품계별 대의 종류>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	공복(公服)
1품	서대(犀帶)	서대(犀帶)
정2품	삼금대(鍍金帶)	여지금대(荔枝金帶)
종2품	소금대(素金帶)	
정3품	삼은대(鍍銀帶)	
종3품	소은대(素銀帶)	흑각대(黑角帶)
4품		
5~9품	흑각대(黑角帶)	

이순신 일괄 유물의 요대 유물은 조선 중기 허리띠의 구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양식의 품대는 대체로 분리형 구조를 지닌 원형을 이루고, 이후 단순한 일체형 구조로 변화되면서 타원형(橢圓形)으로, 다시 방형(方形)으로 변화하였다.<sup>48)</sup> 둥근 원형의 품대 유물은 남아있는 사례가 매우 적다. 1542년 중종(中宗)이 하사한 이현보의 금서대(金犀帶)는 띠꾸미개의 형태와 배열 방식이 달라서 비교가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서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모대(玳瑁帶), 그리고 1820년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영(金瑩, 1789~1868)의 품대 유물이 좌우 1쌍의 띠고리가 존재하는 분리형 품대이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뒷띠의 양 끝에 있는 띠고리가 없어지면서 일체형 구조로 변화하였다.<sup>49)</sup>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품대는 앞띠 한 쌍과 뒷띠 1개로 이루어진 방형의 일체형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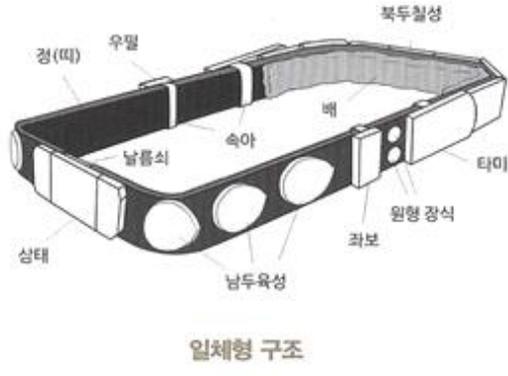
47) 『이충무공전서』 권14, 부록6, 기실(하), 이씨유록(李氏遺錄).

48)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p.139.

49) 위 논문, p.138.



분리형 구조



일체형 구조

<품대의 구조 변화>50)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원형 서대>  
(경기도박물관)



<원형의 대모대(玳瑁帶)>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시대 품대와 같은 허리띠의 보관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관복함의 뚜껑에 품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리띠만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었다.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요대는 허리띠만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원형 요대함에 담겨 있었다. 다른 요대함 유물들을 비교해보면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허리띠의 형태에 따른 것으로 품대 구조 변화 양상과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함의 형태 역시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원형 요대함은 나무틀에 가죽을 바느질하여 썩은 후 주철을 한 것으로 금속 자물쇠가 달려 있다. 호림아트센터 소장 원형 요대함은 2개가 있는데, 그중 요대함1은 나무틀에 가죽을 바느질하여 썩은 후 흑철을 하였으며 앞쪽에는 자물쇠가, 뒤쪽에는 경첩이 달려 있다. 요대함2는 나무 위에 바느질 없이 가죽을 함의 바깥쪽에 덮어썩은 채로 풀이나 칠로 붙였다. 칠은 붉은색 기운을 띤다. 자물쇠나 경첩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방식인데, 위함의 내경쪽 벽면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교해보면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위함도 아래함도 단면이 ㄷ자인데 비해서 호림아트센터 소장 요대함2는 위함은 ㄱ자, 아래함은 ㄷ자이다. 이렇게 만들면 크기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제작도 빠르고 간편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방형 요대함은 위함과 아

50) 출처: 국립대구박물관 편,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 특별전 도록, 2021, p.201.

래함을 덮어 끼우는 방식이다.

요대함의 높이는 대부분 8~9cm으로 비슷하지만, 가로와 세로 크기는 많은 차이가 난다. 같은 원형 요대함이라도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외경 48.5cm, 내경 26.1cm인데 비해 호림아트센터 소장 요대함들은 요대함1(흑칠)의 외경 35.0cm, 내경 21.0cm, 요대함2(주칠)의 외경 36.3cm, 내경 25.7cm이다. 벽면(바닥에 수직인 면)의 두께를 비교해보아도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0.7~0.8cm이고 요대함2(주칠)는 0.36cm이다.

이순신 유물의 요대함은 조선 중기 허리띠의 형태에 맞추어 원형으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유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크기가 매우 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전통적인 공예기법, 안정적인 조형성, 당시의 관복 및 품대의 보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우수한 유물이라 하겠다.



<이순신 유물 일괄 중 원형 요대함>



<원형 요대함>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원형 요대함1(흑칠)>  
(호림아트센터)



<원형 요대함2(주칠)>  
(호림아트센터)



<방형 요대함>  
(고려대학교박물관)



<방형 요대함>  
(서울역사박물관)

다만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통일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옷이나 물건 등을 담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통이므로 함(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고서에서는 요대함(腰帶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품대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띠집[帶家],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과대를 담은 상자라는 의미로 과대상(鑄帶箱)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바 있어 서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통일안이 필요하다. 의복이나 물건을 담아 보관하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집[家], 함(函), 통(桶), 각(閣), 상(箱), 궤(櫃/甌)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 Ⅲ. 도배구대

#### ○ 현 상

복숭아[桃] 모양의 술잔[盃,杯]과 함께 받침을 갖추고 있어[俱臺] 한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보물 지정 당시 도배구대(桃盃俱臺)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술잔과 둥근 받침은 얇은 동판으로 제작한 후 금도금을 하였다.<sup>51)</sup> 술잔의 바깥쪽과 받침의 아래쪽의 금도금은 대부분 박락되어 없고 일부만 남아 있다.

도배 중 1점은 줄기가 결실되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에는 땀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받침 2점은 모두 원형 테두리 부분이 갈라진 상태이며 특히 1점은 균열의 길이가 길다. 줄기가 원래대로 붙어있는 복숭아모양 술잔을 도배1, 줄기가 떨어져 나가고 땀질 흔적이 남은 술잔을 도배2라고 할 때, 도배1의 줄기가 시작되는 끝점에서 뽕족한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8.45cm, 너비는 7.34cm이다. 도배2의 길이는 8.52cm, 너비는 7.11cm로, 도배 한 쌍은 서로 같은 형태와 비슷한 크기이다. 한편 술잔의 받침은 바깥쪽 지름이 15.5~15.8cm이고 턱이 저서 내려온 안쪽 지름은 12.8cm이다. 가장 바깥쪽에서 약 1cm 들어온 부분에 턱이 있는데 그 선을 따라 균열이 생겼다.

51)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6과 p.72.



<도배구대 : 복숭아모양 술잔과 받침>



<도배구대의 금도금 박락>



<도배1 : 줄기 있음>



<도배2 : 줄기 결실>



<받침 테두리 부분의 균열>

## ○ 내용 및 특징

현재는 금도금이 벗겨지고 받침에 균열이 생겼지만, 원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복숭아 모양의 술잔과 손잡이로 사용되었을 줄기와 잎의 모양과 배치는 매우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복숭아모양 술잔>



<복숭아모양 술잔>

재료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복숭아 모양으로 만든 은술잔[銀桃杯]은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하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52)</sup>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표주박은 왕실에서 사용한 술잔 혹은 물잔이다. 복숭아를 반으로 가른 형태의 잔에 한쪽 끝에는

52) 『운양집(雲養集)』 권2, 시(詩) 북산집(北山集). “肅宗壬申. 宣醞玉堂. 因下銀桃盃. 鑄御製銘十六字以賜之. (숙종 임신년(1692)에 옥당(玉堂)에서 술을 베풀면서 은도배(銀桃盃)를 하사했다. 어제(御製) 명문 16글자도 새겨서 하사했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0,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賜銀桃杯各一部于銀臺玉堂. 作銘鏤杯心. 曰酒敢多又. 伐德喪心. 寧逾三爵. 予訓汝欽.”

줄기와 잎사귀를 만들어 붙이고 가지 끝에는 둥근 고리를 달았다. 이순신 유물의 도배는 한 쌍이 거의 같은 크기와 형태인 반면, 은제 표주박은 크기가 다른 것이 쌍을 이루고 있다. 왼쪽의 작은 잔은 높이 3cm, 길이 8.8cm이고, 오른쪽의 큰 잔은 높이 5cm, 길이 13.3cm 이다. 받침이 없다는 점도 이순신 유물과의 큰 차이이다.



<복숭아 모양 잔>  
(국립고궁박물관)



<복숭아 모양 잔의 줄기와 잎사귀>  
(국립고궁박물관)

『이충무공전서』 「이씨유록(李氏遺錄)」에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금대(金帶)와 진과총, 즉 과총(把揚) 진국경(陳國敬)으로부터 받은 화주배(花酒盃) 한 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53) 현재 전해지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표1.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 기록(『이충무공전서』 「이씨유록(李氏遺錄)」)>

명나라 장수	선물
來遊擊	靑雲絹一端, 藍雲絹一端, 綾襪一雙, 雲履一雙, 香棋一副, 香牌一副, 浙茗二斤, 香桂二斤, 四靑茶甌十箇, 生雞四隻.
千揚 江鱗躍	春茗一封, 花盆一箇, 藤扇一把, 服履一雙.
千揚 朱守謙	酒盞六箇, 硃箋二張, 小盒一箇, 茶葉一封, 神仙爐一, 寫埃二.
千揚 丁文麟	暑襪一雙, 領絹一方, 兩茶一封, 胡椒一封.
把揚 陳子秀	繡補一副, 詩扇一把, 香線十枝.
陸卿	花幌一條.
許把揚	靑布紅布各一端, 金扇二把, 花幌一條.
遊擊 福日升	靑布一端, 藍布一端, 金扇四把, 杭筯二束, 生雞二首, 鹹羊一肘.
遊擊 王元周	<b>金帶</b> 一鑲, 嵌圖書匣一, 香盒一, 鏡架一, 金扇二把, 絲線一封, 茶壺一, 蘇梳二事.
千揚 吳惟林	鑲帶一事, 拜帖二十張.
把揚 陳國敬	花茶一封, <b>花酒盃</b> 一對, 銅茶匙二副, 細茶匙一副, 紅禮帖一箇, 全柬帖五張, 書柬帖十張, 古折柬八張, 硃紅筯十雙.

53) 『이충무공전서』 권14, 부록6, 기실(하), 이씨유록(李氏遺錄).

명나라 장수	선물
季永荐	眞金扇一把, 汗巾一方, 蒲扇一把, 粗幌二條.
旗牌 王明	藍布一端, 枕頭花一副, 青絹線一封.
把揚 龔璣	紅紙一副, 浙茶一封, 茶匙六事, 蘇針一包.
中軍 王啓予	藍帶一事, 梳大細二事.

□

## ○ 현 상

이순신 유물 일괄은 지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도배와 받침 한 쌍 4점으로 모두 4건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검은 칼날 137.3·137.8cm, 칼자루 59.5·59.4cm, 칼집 144.5cm로 두 점이 대략 비슷한 크기로 파악된다. 검과 칼집의 짝이 분명하지 않고 칼집에 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크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최대 197.2cm로 확인된다.

칼집은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어피로 감싼 후, 여러 차례 옷칠을 올려 마무리하였고 끈목이 달렸다. 끈목을 연결하는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는 철제로 만들었고 표면은 은입사로 장식하였다. 양쪽 끝부분의 마개도 철 표면에 은입사로 문양을 새겨넣었다. 칼날에는 각각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라는 글자가 음각되었다. 칼자루는 어피로 감싸고 주칠한 후에, 그 위로 가죽끈을 교차로 매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칼자루의 양쪽 마개 부분도 칼집과 마찬가지로 은입사 장식이 나타난다.

칼자루의 끈매기는 후보되었고 헐거워진 마개나 철제 부분의 녹슨 흔적에서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보이지만 선명한 칼날, 덧쇠[護刃], 코등이, 칼자루의 연결, 칼집과 패용 장식 등 전체적으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옥로는 연꽃 줄기 사이에 노니는 해오라기를 투각한 윗부분과 금속제 받침으로 이루어졌으며, 직물과 칠함이 함께 전한다. 직물과 칠함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섬세하게 조각된 옥로는 약간 결실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완형으로 남았으며, 받침에는 갓머리에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2개씩 3곳에 있다.

요대는 가죽으로 만들어 표면에 옷칠하였다. 띠돈은 나무로 여러 형태의 사각형과 물방울 모양을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동물과 구름을 조각하였다. 그 윗면은 도금하고 주칠하였다. 띠돈 일부는 탈락되어 고정된 흔적이 보이고 부분적으로 들뜬 상태도 있지만 요대 전체 외형과 장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요대의 형태에 맞게 고안된 고리형 칠함에 보관되어 전한다.

도배는 받침과 세트를 이루며, 두 쌍이 전한다. 복숭아 모양의 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되고 동판으로 제작한 후 표면을 도금하였다. 도배 한 점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줄기가 결실되었고 받침대의 원형 테두리 부분은 일부가 갈라진 상태이다. 도배와 받침대 모두 뒷면의 금도금이 잘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옥로

옥로는 갓의 윗부분에 올리는 장식인 정자(頂子)로, 입식(笠飾)의 한 종류이다(도5). 정자에 관한 기록은 1367년(공민왕 16) 『고려사(高麗史)』 卷72, 志 卷第26, 輿服 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분에 따라 흑립에 백옥정자(白玉頂子), 청옥정자(靑玉頂子), 수정정자(水精頂子)를 달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 관(冠)의 일품(一品) 항목에는 ‘笠飾用銀 大君用金’이라고 명시되었다. 즉 대군은 입식으로 금을 사용하고 정3품 이상은 은으로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 절도사는 옥을 사용하였다. 한편 조선 말기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時原任大臣將臣, 戎服軍服時笠飾, 玉鸞’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전현직 대신이나 장신이 의식에 입는 용복과 군복에 입식으로 옥로를 하였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도 착용하였다.

옥로는 경기도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과 같이 옥으로만 제작된 예도 있지만(도6), 갓에 연결하는 부분을 금속으로 만든 경우도 많다. 옥로는 대부분 해오라기를 형상화하였으며, 실제 새의 수나 자세의 표현은 다양하다. 해오라기는 백로를 뜻하며, 조선시대 청백리를 상징하는 새로 자리하였다. 고위 신분이나 선비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장식으로 나타나고 시와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도5. 옥로, 이순신 유물>



<도6. 옥로, 높이 3cm, 경기도박물관>

이순신 유물은 연꽃 줄기 사이에 노니는 세 마리의 해오라기를 조각하였고 금동 받침 위에 꽃잎으로 감싸듯 연결되어 있다. 활짝 핀 연잎을 여러 모양으로 배치하고 줄기 사이로 해오라기 세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을 투각하였는데, 이와 거의 유사한 예가 중국 상해박물관에 전하고 있다(도7). 이 유물은 받침대는 없고 높이 5cm, 너비 4.6cm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순신 유물의 받침대를 제외한 크기와 거의 유사하며, 연꽃과 해오라기가 등장하는 구성과 투각된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옥로는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7. 옥로, 중국 원, 높이 5cm, 너비 4.6cm, 上海博物館>

옥로의 받침대는 동으로 만들고 도금하였으며, 세 마리의 박쥐문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가장자리에는 두 개씩 세 곳에 바늘구멍을 내어 갓머리에 고정할 수 있게 마무리하였다. 박쥐의 ‘복(蝠)’은 중국에서 ‘복(福)’과 음이 같아 명대 후기부터 길상문으로 선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청의 영향을 받아 18세기부터 유행한 장식 문양이다. 받침대의 박쥐문은 조선 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옥로의 제작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옥로는 이순신 후손의 유물이거나 받침대가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옥로가 중국에서 유입된 유물이고 이러한 외형은 원대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받침대만 후대에 우리나라에서 추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할 수 있다.

## 2. 요대

요대는 가죽으로 만들어 표면에 옷칠하였다(도8). 띠돈은 나무로 여러 형태의 사각형과 물방울 모양을 만들고 그 내부에는 동물과 구름을 조각하였다. 큰 갈기가 있는 상서로운 동물이 한 마리 혹은 세 마리가 구름을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조각의 솜씨가 우수하다. 표면에는 도금하고 주칠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띠

돈의 테두리는 금속으로 마감하였고 버클의 옆 부분에 금속으로 꽃무늬를 표현하였다. 『난중일기』에 명나라 장수인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 가운데 ‘금대 하나(金帶一)’가 언급되었는데, 이 유물의 유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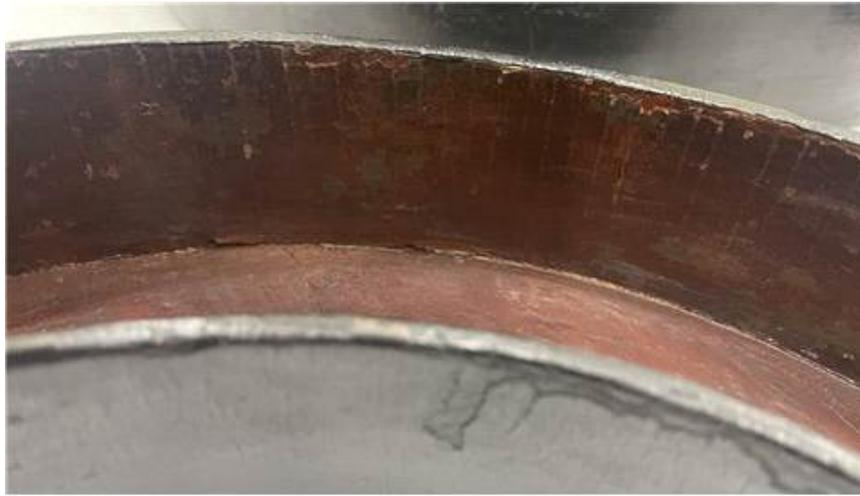


<도8. 요대>

요대는 원형의 칠함과 함께 전하고 있다(도9). 요대를 넣을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로 고리 형태를 지닌다. 나무로 만들고 표면은 흑칠하였다. 지름은 48.5cm에 이르고 요대를 넣는 공간은 11.2cm의 너비를 가진다. 통나무의 원형 테두리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고리 형태의 함을 만드는 제작기법을 엿볼 수 있다. 즉 바닥면은 이음새가 보이지만 원을 이루는 옆면의 판은 통나무의 원형을 잘라서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도10).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칠함이 요대와 세트를 이루는 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요대는 중국에서 선물로 전한 것이지만 보관함인 칠함은 후대에 국내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소장품을 잘 보관하기 위하여, 용도에 맞게 제작한 칠함도 의미가 크다. 요대와 세트를 이루는 구성품이라는 점에서도 보물로 일괄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9. 고리형 칠함>



<도10. 칠함의 옆면 내부>

### 3. 도배구대

도배는 받침과 세트를 이루며, 한 쌍이 전한다. 복숭아 모양의 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된다. 복숭아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을 잔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일찍부터 나타나는데, 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원대 도배 중에는 ‘수(壽)’나 ‘수비선도(壽比仙桃)’와 같은 글귀가 있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명나라 장수인 과총(把總) 진국경(陳國敬)에게 받은 선물 목록 가운데 ‘화주배 한 쌍(花酒盃一對)’과 대응하는 유물로 추정된다.

#### ○ 참고문헌

- 『亂中日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武藝圖譜通志』 (디지털 장서각).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엄소연, 「조선후기 박쥐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분석」, 『고문화』 69, 2007.
- 조혁상,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경희, 「조선과 청대 궁궐 건축에 보이는 박쥐문의 유입과 그 영향-19세기 중반 樂善齋와 恭王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2022.

###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4-003

#### 3.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가.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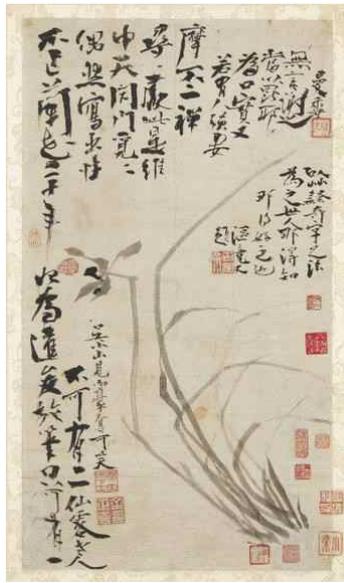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3.8.1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92.9×47.8cm, 화본 55.0×30.6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850년대
- 제작자 : 김정희(金正喜)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김정희 서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서예 필획을 응용한 김정희의 독창적인 난화(蘭畵)에 해당한다. 특히 김정희 예서 특유의 필획에 의한 난화 및 제발 글씨, 자문 자답 식의 제발 내용과 인장 등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종합해볼 때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세기에 현대식 유리액자로 표구되어 전해져온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불이선란도>는 김정희의 마지막 회화 작품이다. 난초 표현은 동아시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조형성을 가졌으며, 서화동원(書畵同原)의 조형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즉, 사의(寫意)적인 묵란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회화이다.

제발 글씨는 각체를 혼용해서 쓰며 태세 변화가 심하고 골기만이 남은 그의 말년 시기 추사체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 묵란화는 김정희의 과천 시기 삶과 사상, 그리고 예술 경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일부 인위적인 수정 흔적이 있으나 작품의 예술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 서화가인 김정희가 평생 추구한 사란(寫蘭)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대한 김정희의 자부심은 화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신이 화제에서 서술했듯이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라 글씨 쓰는 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불이선란도>는 그림이 아니라 글씨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제는 여러 서체를 섞어 썼지만, 마치 그림처럼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림은 글씨처럼 썼고, 화제 글씨는 그림처럼 그린 것이다.
- 이런 형식의 사란(寫蘭)은 김정희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등장한 적이 없다. 자신의 표현대로 '유일무이'의 작품이다. 수많은 작가들이 난초를 그렸지만, 김정희는 평생의 노력 끝에 <불이선란도>라는 새로운 경지의 사란(寫蘭)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에게 있는 <불이선란도>는 예술을 넘어 학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이선란도>는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할 것이다.
- 그림에 담긴 창작 동기와 자신이 사용한 인장들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인장을 통해 전승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이선란도>의 가치는 크다. 시대를 대표하는 수장가들의 손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 지정된 김정희의 서화 작품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다만, 지정 이후에 안전한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유리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지정 가치 있음)

<불이선란도>는 <세한도>와 더불어 추사 김정희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이다. <세한도>는 오랜 유배 생활의 처연함을 견디던 추사가 송백(松柏)으로 상징되는 유가적인 정신세계를 담은 그림이다. 반면에 선화(禪畵) 형식을 취한 <불이선란도>는 그가 만년에 도달한 분별과 대립을 넘어서는 유불을 아우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의 격조는 <세한도>를 넘어서지만 그에 비하면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한 면이 있다.

무관심한 태도로 서예적인 전절을 구사한 <불이선란도>의 난초는 회화에서 형사를 추구하지 않으며 서화동필론에 입각하여 서법으로 난초를 그린다고 하였던 추사의 회화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화면을 채우고 있는 제발은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를 담고 있다. 즉, <불이선란도>는 문인화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김정희의 예술적 경지와 일체의 분별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적인 정신세계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이선란도>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으로서 높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이선란도〉는 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전승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김정희는 한국사에서 한 시대의 문화를 방향 짓고 후대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그의 사상과 예술적 지향이 압축적으로 구현된 〈불이선란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화선지에 담묵으로 난화를 그려놓았고, 상단 좌측에서부터 좌측 하단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행서로 쓴 제화시 및 제관이 서사되어 있으며, 15과(顆)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좌측 하단에는 원래 인장 2과가 더 찍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인문을 긁어낸 흔적만 남아 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김정희가 1850년대에 제작한 난화(蘭畵)로, 달준(達俊)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인다. 달준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김정희가 20년 만에 우연히 난초를 치고 그에 대한 감회를 제화시와 짧은 문장으로 서사하였다. 첫 번째 제화시는 상단 좌측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측 상단 중앙까지 좌에서 우로 5행에 걸쳐 써내려갔고, 두 번째 화제는 첫 번째 제화시가 끝나는 부분에 이어 상단 중앙에서 상단 우측으로 4행을 쓴 다음 마지막 5행에 호와 낙관도장을 찍었다. 세 번째 화제는 좌측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에서 우로 2행에 걸쳐 썼으며, 네 번째 화제는 우측 중·상단에서부터 좌로 5행에 걸쳐 서사한 다음 인장을 날인하였다. 마지막 화제는 세 번째 화제가 끝나는 행의 우측에 1행에 걸쳐 쓰고 인장 2과를 날인하였다. 화제의 내용을 서사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不作蘭畵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난을 안 친 지 이십 년, 붓을 들지 못했는데, 우연히 치낸 난초, 진여본성의 경지에 도달했네. 의식의 문을 닫고, 그 이치를 찾고 찾아보니, 이게 바로 유마거사 불이선이란 걸 깨달았네.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 曼香

만일에 누가 口實을 달 것을 강요한다면 역시 유마힐의 無言으로써 답하리라.

始爲達叟 放筆, 只可有一, 不可有二. 仙落老人

처음엔 달준에게 (주기)위해서 붓을 편안하게 휘둘렀다. (이렇게 그리는 것은) 단지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以艸隸奇字之法, 爲之.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漚 竟又題.

草隸와 奇字의 법으로 (이 작품을)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구경이 또 쓰다.

吳小山見, 而豪奪. 可笑.

小山 吳圭一이 보고서 당연하다는 듯이 호기롭게 빼앗으려 드니 참 우습다 .

그림은 김정희가 가장 중시했던 글씨의 예서에 기초하되, 본인도 밝혔듯이 초서와 예서가 섞인 기자(奇字)의 필법으로 과감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화제는 행초서와 예서가 착종되어 있는 김정희 특유의 필체로, 화제마다 글씨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글씨는 농묵인 편에 반해 그림은 담묵으로 처리함으로써 농담의 변화와 원근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김정희(金正喜)의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지본묵서(紙本墨書)이며 액자 형식의 작품이다. 틀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세로 92.9, 가로 47.8, 두께 1.8cm이며, 화본의 크기는 세로 55.0, 가로 30.6cm이다.

종이 재질과 상태는 액자 유리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육안상으로 볼 때, 발측은 0.1cm 내외이며 한지에 보이는 장섬유가 확인되지 않고 단섬유 조직으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보인다. 중국산 화선지일 가능성이 있다. 붓질을 원활하게 하고 색감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백색 색료가 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화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일어났다.

작품 화면 중앙의 세로로 접힌 흔적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흔적이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 기간 액자가 아닌 형식으로 유전되었던 것 같다. 작품에는 1.4~1.6cm 폭의 비단으로 변아(邊兒)를 둘렀다. 비단은 수자직(繻子織) 방식으로 짜졌으며 만자(卍字)와 기하만자문이 삽입된 표주박문이 직조되어

있다. 그리고 변아 외곽에는 0.1cm 이내의 무늬결이 있는 섬유를 이용하여 사면 회장(四面回粧)을 처리했다. 변아와 사면회장의 직물로 미루어 일본식으로 판단되며 장황 솜씨는 정교하지 못한 편이다. 액자 상단에는 원환(圓環)이 박혀있으며, 육안상 동물 뼈 재질의 장식이 달려 있다.

작품은 변아와 회장의 재질, 액자 형식 등으로 미루어 20세기 중반 이후에 현재 처럼 장황되고 액자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아를 만들면서 혹은 그 이후에 화면에 찍힌 [석준사인(奭準私印)]과 [소당(小棠)]이 가려지는 현상을 막고자 해당 부분의 비단을 오렸다. 두 인장에는 세로 흔적이 확인된다. 이 중에 [석준사인]의 세로 흔적은 변아의 안쪽 선과 맞지 않으며 인색(印色)이 박락된 부분이 확인된다.<sup>54)</sup> 이는 현 상황이 있기 전에 원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면에는 인장 등을 지운 부분이 관찰된다. ①과 ②에는 인장 흔적이 확인된다. 그러나 ③과 ④, 그리고 ⑤부분에는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인장을 지운 것인지는 확증할 수 없으나 위치상으로는 인장을 찍는 곳에 해당한다(도1). 현재 ④과 ⑤부분 각각에는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의 인장인 [봉래제일선관(蓬萊第一僊館)]과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가 찍혀 있다.



<도1. 인장이 지워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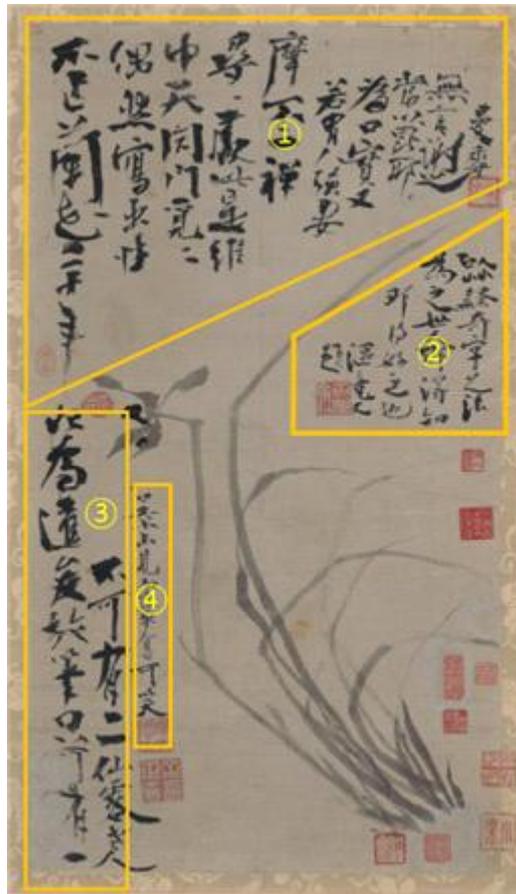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화면에는 난초가 열은 담묵으로 그려져 있다. 심하게 꺾인 잎과 아울러 봉안(鳳

54) [석준사인(奭準私印)]은 吳世昌 편, 『權域印數』, 국회도서관, 1968, p.317에 수록되어 있다.

眼)과 상안(象眼), 삼전법(三轉法) 등의 기본적인 난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묵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작자인 김정희가 난초를 그릴 때 서예의 필법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화론을 조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의도는 난초잎의 필선과 제발의 필법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특징에서도 확인된다.

김정희는 난초의 주변에 대략 네 차례에 걸쳐 제발을 썼는데, 그 순서는 최소한 ①→③→④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②의 경우는 ① 다음에 썼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③과 ④ 이후에도 썼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도2). 제발 중에 ①과 ③은 좌에서 우로 나아가는 역행법(逆行法)으로 썼다.



<도2. 제발 순서>

제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독되고 해석된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은 난을 거의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그렸는데 의도하지 않게 난의 참본성을 그렸다고 하며, 이를 『유마경(維摩經)』의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비유하였다. 이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이 제발에 이어지는 보다 작은 글씨로 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해당 묵란의 화법이 무엇인가를 말해달라고 강요한다면 불이법문에 관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질문에 유마거사(維摩居士)가 무언(無言)하였듯이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②에는 동기창이 “사인이 그림을 그릴 때는 마땅히 초예(草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이론을 인용하면서 초기 서예의 필법으로 난초를 그렸으니<sup>55)</sup>,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은 달준(達叟)이 난을 그려주기 위해 작심해야 할만한 인물이 아니기에 김정희는 묵란화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렸다는 내용으로, ①의 제발 내용에 대한 원인에 해당한다.

④는 오규일(吳圭一)이 이 작품을 보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에 재미있다는 반응이 담긴 글이다.

①

난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不作蘭畫二十年  
우연히 참본성을 그려냈네.                    偶然寫出性中天  
문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閉門覓覓尋尋處  
이것이 곧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이다.                    此是維摩不二禪

만일 사람들이 억지로 설명을 강요한다면, 또한 마땅히 비야(毘耶, 유마거사)의 무언(無言)으로 답하리라. 만향  
若有人強要爲口實, 又當以毘耶無言謝之. 曼香.

②

초예(艸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써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어찌 좋아하겠는가? 구경(漚竟)이 또 쓰다.  
以艸隸奇字之法爲之,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漚竟又題.

③

처음엔 달준을 위해서 붓을 자유롭게 휘둘렀으니, 오직 한 번은 가능하지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선락노인.  
始爲達叟放筆, 只可有一, 不可有二. 仙落老人<sup>56)</sup>.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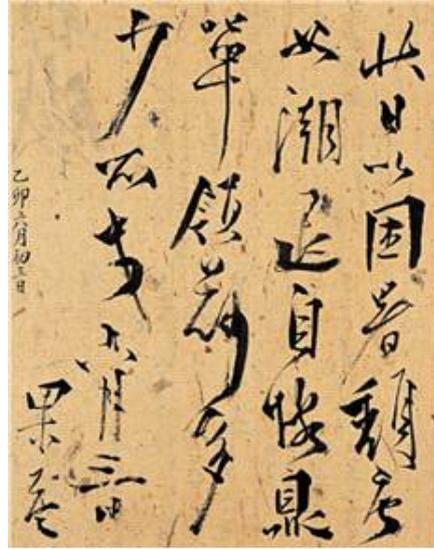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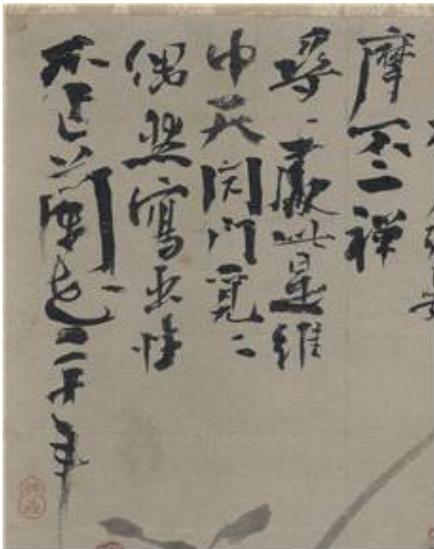
소산(吳圭一)이 보고서 호기롭게 빼앗으니 참 우습구나.

55) 董其昌, 『畫眼』, “士人作畫, 當以草隸奇字之法爲之.” 예초는 한(漢) 시기에 예서(隸書)를 빠르게 쓴 글씨이다. 다른 의미로 예서와 초서(草書)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는 전자의 의미를 따른다. 기자는 진(秦) 이전에 사용한 글씨로, 전서(篆書)의 일종이다.

56) 仙客老人과 仙落老人으로 판독되어 왔다. 후자의 경우는 두 번째 글씨를落的 고자인 漚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는 후자를 따른다.

吳小山見而豪奪. 可笑.

제발의 글씨는 예서 등의 각체를 사용하였으며 자형의 대소(大小) 차이가 크다. 서풍은 기본적으로 해서와 행서풍이나 몇몇 글자(之, 霧 등)에는 초예풍을 사용하여 과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글씨의 획은 전반적으로 날카롭고 살이 빠져 있으며, 태세(太細) 차이가 크다. 그리고 장법(章法)과 결구(結句)가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서풍은 김정희의 <보담재왕복간(寶覃齋往復簡)>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이선란도>의 제작 시기를 1855년 전후의 과천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김정희,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제발 부분      김정희, <보담재왕복간(寶覃齋往復簡)> 부분, 1855년, 경기도박물관

<도3. 서풍 비교>

화면에는 15과의 인장이 찍혀 있다(도 4). 김정희의 인장은 5과,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의 인장은 2과이다. 작품의 소장자였던 장택상(張澤相, 1893~1969)의 인장은 6과이고 손재형의 인장은 2과이다. 이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장의 주인이 확정적이다.

성명	수량	인문(印文)	비고
김정희	5	① [추사(秋史)]	
		② [고연재(古硯齋)]	
		⑬ [낙교천하사(樂交天下士)]	
		⑫ [김정희인(金正喜印)]	
		⑭ [묵장(墨莊)]	?
김석준	2	⑧ [석준사인(奭準私印)]	
		⑨ [소당(少棠)]	
장택상	6	⑮ [신품(神品)]	
		③ [불이선설(不二禪室)]	
		④ [다항서옥서화금석진상(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⑤ [물락속안(勿落俗眼)]	
		⑦ [소도원선관주인인(小桃源僊館主人印)]	
		⑪ [연경재(研經齋)]	
손재형	2	⑥ [봉래제일선관(蓬萊第一僊館)]	
		⑩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	

<도4. 인장>

## ○ 문헌자료

- 金正喜, 『阮堂全集』.

## ○ 참고문헌

- 강관식, 「추사 그림의 범고창신의 묘경-제한도와 불이선란도를 중심으로」,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김병기, 「秋史 「不二禪蘭圖」의 詩·書·畫 契合性 연구-제화시·문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37,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9,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5.



## ○ 현 상

- 본 작품은 현재 유리 액자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가로 세로로 일정하게 접힌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처음에는 별도의 장황이 없이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다시 장황을 했는데, 우측 하단에 합봉인(合縫印)으로 <석준사인(奭準私印)>, <소당(小棠)>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장황을 한 뒤 합봉인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915년에는 현재의 장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의 장황은 족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손재형(孫在馨)에 이르러 현재 모습인 유리 액자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재형의 인장 위치 등으로 추정한 것이다
- 또한 작품 좌측과 우측 하단에는 인장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우측 하단의 경우엔 손재형의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이 찍혀 있고, 좌측 하단엔 지운 흔적만 있다. 육안으로는 이전의 인장을 확인할 수 없고, 지운 이유도 알 수 없다. 다만, 지운 흔적 위로 손재형이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손재형이 현재의 모습으로 꾸미면서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작품 훼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 내용 및 특징

-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김정희가 ‘난(蘭)’이라는 화목(畫目)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김정희는 문인화 중에서도 사란(寫蘭)에 대해 일찍부터 심취하여, 10대 때 현란(玄蘭)이라는 호를

사용할 정도였다. 이후 그의 사란(寫蘭)에 관한 과심은 <난맹첩(蘭盟帖)>, <시우란(示佑蘭)> 등의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바로 <불이선란도>이다. 김정희는 <불이선란도>에서 세 번에 걸친 제시(題詩)와 제사(題辭)를 통해 사란(寫蘭)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 ① 不作蘭花二十年,偶然寫出性中天,閉門覓覓尋尋處,此是維摩不二禪
- ②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曼香
- ③ 以草隸奇字之法,爲之,世人那得知,那得好之也.漚竟,又題

먼저 ①에서는 자신이 추구했던 사란(寫蘭)의 최고 경지를 20년 만에 이뤄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 경지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②에서는 누군가 그 경지를 억지로라도 설명해 달라 해도 자신은 유마거사처럼 ‘무언(無言)’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끝에는 결국 그 이유를 고백한다. 그것은 ③에서 말한 ‘초례(草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이 아닌 글자를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찌 알 것이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 부분의 문답식으로 구성된 이 시와 글은 사실은 하나의 글이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눠 표현했을 뿐이다. 전무후무한 김정희식 제사(題辭)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그림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사는 약간의 장난으로 마무리 한다.

- ④ 始爲達叟放筆,只可有一,不可有二.仙露老人

처음부터 달준(達<sup>57</sup>叟)을 위해 그린 것이니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작품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달준(達叟)’은 김정희의 시동(侍童)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희의 위 시는 1867년에 간행된 『담연재시고』 권7에 <제란(題蘭)>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고, 이어서 <희제증달준(戲題贈達峻)>이란 시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달준(達峻)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자인 전각가 오규일이 보고는 빼앗는 장면이 나온다. 김정희는 이를 보고 웃고 있다.

- ⑤ 吳小山見而豪奪,可笑

①~⑤까지의 내용은 김정희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뤄졌다. 달준의 등장도, 오규일의 등장도 그림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57) 달(達)자는 ‘토(土)+진(進)’자로 묵서되어 있다.

하나의 설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세한도>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 다음으로 볼 것은 등장하는 인장들이다. 이 작품에는 모두 15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	수량	인문	비고
김정희	4	<秋史>, <古硯齋>, <樂交天下士>, <金正喜印>	
김석준	2	<爽準私印>, <少棠>	
장택상	6	<神品>, <不二禪室>,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勿落俗眼>, <小桃源僊館主人印>, <研經齋>	일부 미확인
손재형	2	<蓬萊第一僊館>, <素荃鑑藏書畫>	
기 타	1	<墨莊>	
합 계	15		

-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김정희 이후 소장자들의 인장이다. 다만, 오규일의 인장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연재(古硯齋)>는 오규일의 인장이다. 오규일이 제작한 자신의 인보 『고연재인보(古硯齋印譜)』에는 자신의 성명과 자호 및 ‘고연재’를 새긴 여러 방의 인장이 실려 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고연재오씨진장(古硯齋吳氏珍藏)>이 있다. 이는 ‘고연재’가 오규일의 당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김정희가 일부러 사용한 것이다. 또 <낙교천하사(樂交天下士)>란 인장은 심희순(沈熙淳)이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 실린 네 방의 인장 중에서 온전히 김정희 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추사(秋史)>와 <김정희인(金正喜印)> 뿐이다. <묵장(墨莊)>을 김정희 인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인장의 위치, 내용, 각법 등으로 볼 때 김정희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의 그림에 당대로부터 현대까지 소장자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도 이 그림의 큰 특징이다.

- <불이선란도>에는 김정희의 별호가 만향(曼香), 구경(漚竟), 선락노인(仙霧老人) 등 세 가지나 등장한다. 이처럼 작가가 동일한 그림에 화제를 쓰면서 각기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 또한 이 그림의 특징이다.

### ○ 지정사례

- 김정희 서화 작품은 국보로 지정된 <세한도>를 비롯하여 그의 종가 유물 일괄, 대련 등 서화 7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9, 2005.

-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학예일치의 경지』, 2006.
- 김정희, 『담연재시고』, 전사자본, 1867.
- 오규일, 『고연재인보(古硯齋印譜)』, 탁인본.

## ○ 기 타

- 본 작품은 본래 김정희가 시동인 달준(達峻)에게 그려준 것이나, 김정희 제자 오규일(吳圭一)이 빼앗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다시 김석준(金奭準)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다시 장택상(張澤相, 1893~1969), 손재형(孫在馨, 1903~1981) 등의 손을 거쳐 손세기·손창근 부자(父子)의 수장품이 되었고, 2018년에는 손창근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불이선란도〉의 서화 부분은 종이에 수묵을 사용하여 그려졌으며 평액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액자를 포함한 전체 크기는 92.9×47.8cm이며 회화 부분은 55.0×30.6cm이다. 액자는 나무틀을 사용하였고 이면은 종이로 마감하였다. 액자의 상단에는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벽에 걸도록 되어있는데, 동물의 뿔로 보이는 재질의 장식을 끼워 고리를 보강하였다. 제작 방식과 재질로 미루어 매우 오래된 액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은 미색의 바탕천 위에 부착되었다. 작품의 사변(四邊)과 배첩된 바탕천 사이에는 약 1.5~2cm 안팎의 문양이 있는 비단이 덧대어져 있다. 미색 계열의 이 비단에는 표주박과 넝쿨무늬 등이 직조되어 있다. 사변의 비단은 서로 연결된 한 장의 직물이다. 육안으로 보면 그림과 비단은 가장자리를 맞대고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흔히 사변에 각각 한 장씩 비단 변아(邊兒)를 덧대며 화면 가장자리를 약간 덮어주거나, 화면과 변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식과 다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결 방식은 육안만으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화면의 좌하단에 종이와 비단에 함께 찍힌 2과의 인장으로 미루어 이 비단은 이전 상황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불이선란도〉는 오랫동안 죽자 형태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새롭게 액자로 표구할 당시 인장이 찍혀 있는 기존 상황의 일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불이선란도 액자의 전면>



<불이선란도 액자의 배면 상태>

<불이선란도>의 중심인 묵란(墨蘭)은 화면을 크게 삼분하며, 삼분된 공간에는 4편에 이르는 추사의 글이 고루 적혀 있다. 난초는 담묵을 사용하였으며 난초 꽃술만 농묵으로 강조하였다. 글씨는 대부분 농묵으로 적었다. 글씨와 그림의 사이에는 15개의 인장이 남겨져 있는데, 인문은 선명한 편이다.

화면 하단의 좌우에는 종이 표면의 마모가 뚜렷하다. 특히 좌측은 제발의 ‘可有’자의 획 일부가 함께 마모되었다. 이 획의 상하에서 2~3과의 인장 흔적이 관찰된다. 박락된 인장들은 매우 희미하며 육안으로는 인문의 판독이 어려울 정도이다. 고의적으로 인장을 지우기 위하여 화면을 마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인장을 확인한다면 이 작품의 전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서화를 감상하고 글씨와 인장을 판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화면 전반에 걸쳐 접힌 자국, 미세한 종이의 갈라짐과 표면의 마모, 이물질에 의한 오염 등이 눈에 띄는 편이다.



<좌측 하단의 지워진 인장(2023. 4. 6. 촬영)>



<화면의 오염 및 종이의 손상>

## ○ 내용 및 특징

### 1.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불이선란도〉의 작가인 추사 김정희는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한 서화가이자, 금석학자, 고증학자, 서화 감식가, 비평가로서 19세기 이후 우리나라 문화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문화인이다. 추사의 생애를 결정지은 사건으로 북경 여행 시 청조의 학자들과 맺은 교류 및 만년의 긴 유배 생활을 들 수 있다. 그는 24세에 부친의 자제군관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당시 고증학, 금석학의 대학자인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완원(阮元, 1764~1849) 등의 지우를 얻었다.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이들과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으며 그들을 통하여 청의 학술과 문화를 수용하였다. 청대의 실증적인 학문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지를 구축한 김정희는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의 사상계에 발생한 전환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정희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료로서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던 중 정치적 공세에 몰려 1840년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으며 8년 뒤인 1848년이 되어서야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이듬해에 해배되어 돌아왔다. 이처럼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후에 그는 과천 초당에 자리 잡고 문예에 전념하였다.

서화 이론 면에서 김정희는 글씨와 그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서화동원론(書畫同源論)’, ‘서화동필론(書畫同筆論)’, 화가의 학문과 인격적 수

양을 중요시하는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 등으로 압축되는 남종문인화의 원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그는 활발한 서화 감평과 서화가들의 지도를 통해서 문인화의 원리와 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작 원리로서 적용해야 함을 반복해서 역설하였다. 이 때문에 김정희는 19세기 조선 화단에 남종문인화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 2. 〈불이선란도〉와 추사의 묵란도

김정희가 남긴 작품의 대다수는 서예이지만 산수화, 묵란, 영모화 등의 작품도 일부 남겼다. 이 때문에 한국미술사 서술에서 때때로 그는 문인화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묵란도를 제외하면 회화에 전문적인 기량을 지닌 인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김정희 회화의 중심은 서예의 원리가 적용되는 묵란도라 할 수 있으며 그의 회화 이론 역시 묵란도를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희는 20대부터 묵란을 의미하는 ‘현란(玄蘭)’이라는 호를 사용할 정도로 묵란화를 좋아하였으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묵란화를 제작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청조의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김정희는 다양한 명청대 화가들의 묵란화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대 묵란화의 화법을 탐구하였다. 특히 양주화파의 한명인 정섭(鄭燮, 1693~1765)의 경우는 청에 화적과 문집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보물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난맹첩(蘭盟帖)》은 정섭의 묵란을 비롯하여 명청대 화풍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자신의 묵란화로 나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김정희는 비교적 많은 수량의 뛰어난 묵란도를 남기고 있으나 〈불이선란도〉는 《난맹첩》과 더불어 묵란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불이선란도〉는 화면 상에 정확한 제작 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이 그림의 서예적 특징 및 제발의 내용을 종합하여 과천에서 지내던 1853~55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선란도〉의 중심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한 그루의 묵란(墨蘭)이다. 전체적으로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시작하여 왼쪽 상단을 향하여 화면을 가로지르다 중단에서 좌우로 나뉜다. 13~14 줄기의 난초 잎 대부분은 오른쪽을 향하여 나가는 반면에, 꽃대는 왼쪽을 향하며 화면의 균형을 이루었다. 일반적인 묵란화 화법은 붓을 부드럽게 운용하며 잎에 윤을감을 주는 삼전법(三轉法)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이선란도〉의 필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에서 떨어져 있다. 필선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서 붓을 굴리지 않고 꺾고 있으며, 꽃대는 직선으로만 표현하였다. 이것은 스스로 ‘초예, 기자의 법’이라고 밝혔던 서법으로 그린 결과일 것이다. 난잎에 보이는 거친 갈필과 비백은 이 그림에 조야한 멋과 쓸쓸한 정서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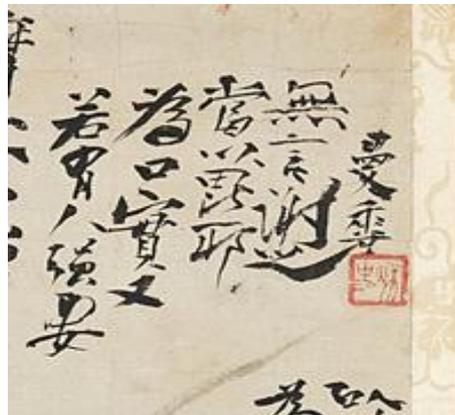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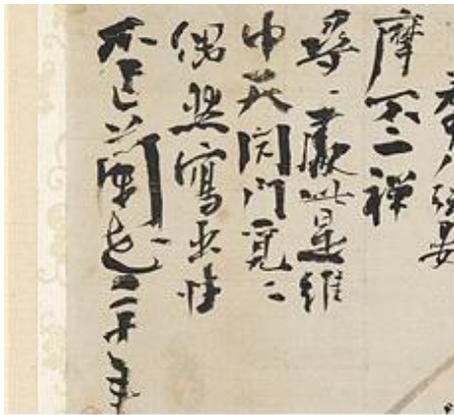
묵법을 살펴보면 난잎은 모두 담묵을 사용하였으나 화심만 농묵으로 강조하였다.

대조적인 묵의 농담은 선종적인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다. 화면 곳곳에 산재한 15개 인장의 붉은색은 수묵만을 사용한 서화와 색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채로운 인장은 조형적 요소일 뿐 아니라 근대기까지 이어지는 이 작품의 전승 내력이 포함된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불이선란도〉에 대하여 어느 학자는 “거의 극단적인 과격을 추구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만년의 김정희가 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세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 3. 작품의 제발 분석

#### 3-1) 상단 제발과 인장



印) 秋史

不作蘭畫二十年 난을 그리지 않은 20년에  
 偶然寫出性中天 우연히 성중천(性中天)을 그려냈네.  
 閉門覓覓尋尋處 문을 걸어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此是維摩不二禪 이것이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리라.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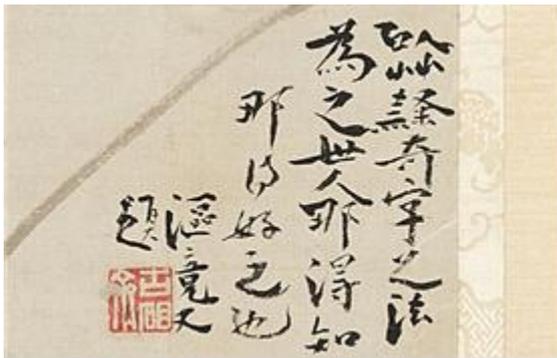
어떤 사람이 구실을 대라고 강요한다면 비야리성의 유마거사처럼 무언으로 이를 사양하겠다. 만향.

화면 상단의 제화시는 〈불이선란도〉를 그릴 당시의 김정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글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속해서 적혀 있다. 먼저 대자의 추사체로 7언 절구의 시문을 적고, 한단 아래에 글자 크기의 차이를 두어 부연을 곁들였다. 이 중 시문은 『완당전집(阮堂全集)』 권10에 「제란(題蘭)」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첫구에서 김정희는 난을 그리지 않은지 20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현존 작품을 살펴봐도 실제로 1830년대 이후 제작된 묵란도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불이선란도〉의 제작 시기를 대략 1853~55년 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다만 1830년대 이후로도 간혹 난초를 그렸던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난초를 그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성중천’의 천은 성리학에서 일컫는 만물에 부여된 본성과 이치를 의미하며, 뒷 구절과 연결하면 이는 난초만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본성을 포함할 것이다. 우연히 난초의 본성을 포착하였다는 이 구절은 형사(形寫)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그려야한다는 문인화론의 원리를 가리키며 추사 문예관의 근간으로 이어진다. 그는 일생 동안 추구하였던 불교의 경지인 불이선과 성중천이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유가와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는 다른 것이 아니며 하나로 통한다는 자각을 의미할 것이다.

상단의 글은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오른쪽으로부터 적지 않고, 역으로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을 행하여 적어나갔다. 이것은 전통적인 선종화의 제발 기입 방식으로서 〈불이선란도〉가 추사의 불교적인 정신세계를 담은 작품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 3-2) 우측 제발



印) 古硯齋

以艸隸奇字之法爲之，世人那得知，那得好之也! 漚竟又題

초예와 기자의 법으로 이를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구경이 또 쓰다.

초예(艸隸)는 초서의 기운이 있는 예서를 말하며 기자(奇字)는 전서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명말의 문인화가이자 이론가인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동기창은 선비의 그림은 초예와 기자의 법으로 그려야 속기에 빠지지 않고 선비의 기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평소 난초는

예서의 법으로 그려야함을 말하였던 김정희 자신의 문인화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 3-3) 좌측 제발



<좌하단의 첫 번째 제발>



<두 번째 제발>



<墨莊>



<樂交天下士>, <金正喜印>

始爲達參放筆，只可有一，不可有二。仙露老人

처음에 달준에게 주기 위하여 붓을 편안히 휘둘렀다. 한번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선락노인.

吳小山見而豪奪，可笑

소산이 보고서 호기롭게 빼앗으려드니 우습다.

이 제발에는 제작과 소장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그림을 증여받은 ‘달준’은 신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과천 시절 김정희를 시봉하던 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달준이라는 이름은 추사의 작품과 『완당전집』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추사는 이때마다 한자를 조금씩 달리 사용하고 있다. 두 글은 나란히 적혀 있지만 묵색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달준의 그림을 빼앗고자 하였던 ‘오소선’은 오규일(吳圭一)<sup>58)</sup>이라는 인물이다.

### 3-4) 인장

<불이선란도> 에는 모두 15개의 인장이 낙관되어 있다. 이중 제발과 이어지는 5개의

58) 오규일(?~?)은 호가 소산(小山)으로 내의원 오창렬(吳昌烈)의 아들이다. 관직은 규장각의 잡직인 가각감(假閣監)을 지냈다. 김정희와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의 문하를 드나들었으며 전각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인장은 추사가 당시에 남긴 것이다. 그 외에 이 작품의 전승과 관련된 인물들, 즉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의 인장이 외편 하단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각각의 인문과 주인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중 김정희, 김석준(金奭準<sup>59</sup>), 1831~1915), 손재형(孫在馨<sup>60</sup>), 1902~1981)의 인장은 밝혀져 있었으나 그 일부는 명확하게 주인공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황정수 연구가의 근래 연구에 의하면 나머지 6과의 인장은 모두 근대기의 정치인이자 서화 수장가였던 장택상(張澤相<sup>61</sup>), 1893~1969)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 神品
- 不二禪室
- 勿落俗眼
- 素筌鑑藏書畫
- 奭準私印
-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 蓬萊第一僊觀
- 研經齋
- 小棠
- 小桃源僊館主人印

수량	김정희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
1	秋史	奭準私印	蓬萊第一僊觀	神品
2	墨莊	小棠	素筌鑑藏書畫	不二禪室
3	樂交天下士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4	金正喜印			勿落俗眼
5	古硯齋			小桃源僊館主人印
6				研經齋

### ○ 문헌자료

- 金正喜, 『阮堂全集』.

### ○ 지정사례

김정희 관련 유물로서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아래의 10건이 확인된다. 지정 작품은 서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김정희 필치의 회화로는 <세한도>와 《난맹첩》이 포함되어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난맹첩》은 <불이선란도>와 같은

59) 자는 희보(姬保), 호는 소당(小棠) 등. 역관으로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서예가, 전각가로서 명성이 있었으며 김정희의 말년 측근에서 활약하며 지우를 받았다.

60) 자 명보(明甫), 호 소진(素田, 素荃, 篠巖, 篠田) 등. 근현대의 서예가, 전각가, 정치인, 서화수장가. 일본의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隣, 1879~1948)로부터 <세한도>를 양도받아 조선에 귀환시킨 인물.

61) 자는 치우(致雨), 호는 창랑(滄浪). 근현대의 정치인, 서화 수장가.

묵란화이기 때문에 지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난맹첩》은 여러 점의 글과 그림이 포함된 화첩으로서 상하 양권에 다양한 구도와 형상의 묵란화 16점과 글씨 7점이 수록되었다. 《난맹첩》 역시 김정희의 대표적인 묵란화의 하나이자 후대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높은 회화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제작 시기와 형식 등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며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도 작가의 생애에 밀착한 정도, 작품에 담긴 사유, 예술적 의의 등에서 〈불이선란도〉는 별개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그 외에 묵란도류의 보물 지정 사례로는 17세기 종실 출신의 화가인 이정 필 《삼청첩(三清帖)》에 3점의 금니 난초 그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연번	지정구분	작품명	소장처
1	국보	김정희 필 〈세한도(歲寒圖)〉	국립중앙박물관
2	보물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默笑居士自讚)〉	
3	보물	김정희 종가 유물(金正喜 宗家 遺物)	국립중앙박물관(기탁)
4	보물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金正喜 宗家 遺物 一括)	추사유물전시관
5	보물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好古研經)〉	삼성미술관 리움
6	보물	김정희 필 〈대팽고회(大烹高會)〉	간송미술관
7	보물	김정희 필 〈차호호공(且呼好共)〉	간송미술관
8	보물	김정희 필 〈침계(岑溪)〉	간송미술관
9	보물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書員嶠筆訣後)〉	간송미술관
10	보물	김정희 필 〈난맹첩(蘭盟帖)〉	간송미술관

## ○ 참고문헌

- 강관식, 「추사 그림의 범고창신의 묘경-세한도와 불이선란도를 중심으로」,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고연희, 「19세기에 꽃 핀 花卉의 詩·畵: 金正喜와 그 一派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1, 2002.
- 국립중앙박물관, 『歲寒: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 2020.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새 보물 납시었네』, 2020.
-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 학예 일치의 경지』, 2006.
- 김병기, 「추사 「불이선란도」의 시·서·화 계합성 연구-제화시·문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37, 2017.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미술사학』 19, 2005.

- 성인근, 「오규일(吳圭一)의 생애와 전각(篆刻) 연구」, 『서예학 연구』 31, 2017.
-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6.
- 유흥준, 『추사 김정희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창비, 2018.
- 유흥준, 『완당평전』, 학교재, 2003.
- 이인숙, 「[이인숙의 옛 그림 예찬] 김정희(1786~1856), ‘불이선란’(不二禪蘭)」, 『매일신문』, 2021.6.7..
- 최준호, 『추사, 명호처럼 살다』, 아미재, 2012.
- 황정수, 「황정수의 그림산책-불이선란’의 입장」, 『국제신문』, 2021.9.28..
- 한영규, 「추사파 역관 김석준의 학예 성향」, 『국제어문학회』, 2018.

## ○ 기 타

제발에 나타난 달준과 오규일 외에 인장을 남긴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이 한때 〈불이선란도〉를 소장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불이선란도〉의 소장자로 알려진 인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장택상→이한복(李漢福<sup>62</sup>), 1897~1944)→손재형→이근태<sup>63</sup>→손세기·손창근의 순서로 전하여왔으며 손세기·손창근에 의해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62) 호는 무호(無號), 수재(壽齋), 이복(李福). 근대의 서화가.

63) 손세기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 4.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가. 심의사항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정보문화재 환수 결과로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3.) 및 과학조사(’23.5.9.~5.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70.5×227.0cm
-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 형 식 : 미상
- 조성연대 : 1736년(영조 12)
- 제작자 : 미상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736년에 조성된 불화이다. 화기에는 비록 제작 화승이 적혀 있지 않으나 후불도 형식과 화풍을 통해 의균의 영향을 받은 팔공산화파 화승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도 권속으로 아미타팔대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다. 지장보살을 권속으로 표현한 영산회상도는 19세기에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후불도의 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후불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년),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 정도가 알려져 있다. 1736년 작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8세기 전반에 팔공산화파 화승에 의해 새로운 형식의 후불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작품이다.

이처럼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8세기 전반부터 영산회상도의 형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호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도난으로 절취되어 상·하측과 변아 등 장황과 화기부분의 봉안사찰 부분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 더욱이 제작한 화사들의 면면이 화기를 통해 밝혀지지 않아 불화 연구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이 시기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기준이 된다.

제작에 참여한 화사들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존상의 특색 있는 머리모양과 축 처진 가슴근육의 표현, 여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본존의 광배 상단 좌우측에 양 갈래 고수머리 타방불(또는 벽지불)의 배치, 본존 대의의 바람개비문(또는 日輝文),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먹 선 위주의 선묘 등의 표현 양식은 영천 봉림사, 울진 불영사, 의성 고운사 영산회상도 등 경북지역, 특히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화사의 화풍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 불화 제작에 참여한 몇몇의 승려들 역시 상기의 불화에 화원 또는 시주자로 참여한 활동 상황이 살펴지기 때문에 이 영산회상도 역시 같은 유파의 화원들이 주도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존성이 열악한 녹색계통 안료층이 바탕재질을 부식시키거나 바탕 재질을 물고 일어나 화면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일부에서 후대의 보채나 덧칠이 확인되지만 수리의 범위가 크지 않고 조성당시의 화면과 화격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추후 보존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황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주형 광배를 갖추고 불단 형식 대좌에 결가부좌한 편단우견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이 에워싼 군도 형식의 불화이다. 화면은 낮은 채도의 붉은색과 녹색으로 채색되고, 채색과 묘사가 정밀하여 품격 있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안정감이 있는 군도형 구도와 균형 있는 신체 비례의 권속 배치, 그리고 온화한 붉은색과 녹색의 중심 색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발전한 영산회상도의 도상 형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불화는 과거사 영산회상도(1707년), 법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3년) 등에서 볼 수 있는 본존을 권속이 에워싼 구도와 특유의 채도가 낮은 붉은색을 사용한 이 지역 불화 도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조사보고서



### ○ 현 상

이 불화는 1736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이다. 불화의 상태는 상하좌우의 회장이 절취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다행히 화면만은 온전하다. 화면 크기는 세로 170.5cm 가로 227.0cm로 재질은 비단이다. 바탕천은 향 오른쪽부터 54.4+63.0+62.5+22.3cm로 폭을 연접하였다. 화면의 존상 구성은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8위의 보살과 사천왕, 타방불과 십대제자 등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삼전하 축원문과 2개의 화기가 있다. 화면 상태는 세로와 가로 꺾임을 비롯하여 안료의 들뜸·터짐·박락과 일부 바탕천 박락 등이 확인된다. 안료 터짐과 박락은 녹색에서 주로 확인되며 박락이 진행된 부분은 개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화면 외곽의 회장이 없고 안료의 개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불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불, 보살, 호법신 등의 얼굴과 신체 표현, 채색 등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 고불사 소장 불화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범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한 영산회상도이다. 화면 중앙에는 편단우견으로 착의하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여래 좌우에는 8위의 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이 중 맨 앞에서 있는 협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여의와 연꽃 가지를 지물로 들고 있다. 나머지 보살 가운데 민머리에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을 제외하고 다른 보살의 존명은 보관과 지물 등의 특정 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화면 상단 광배 좌우에는 타방불이 있으며 그 옆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가섭과 아난을 중심으로 한 십대제자가 표현되어 있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당과 보탑을 든 사천왕이 좌우로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위로 사자관을 쓴 아차와 코끼리관을 쓴 건달바, 여의주관을 쓴 용왕과 용뿔과 여의주를 든 용녀가 있다. 화면 상단에는 여래의 정수리에서 발하는 서기가 좌우로 표현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여래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연화형 천개가 표현되어 있다. 주존이 앉아 있는 불단에는 묵서로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원문이 적혀 있다.

- 화면 하단에 마련된 2개의 화기에는 이 불화가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불화임을 밝히는 영산탱(靈山會)이란 화제와 1736년 작이라는 乾隆元年丙辰四月日이란 제작 시기가 적혀 있다. 그러나 봉안 사찰은 지워져 있고 봉안처인 법당(法堂)만 기록되어 있고 시주자만 적혀 있을 뿐 불화 제작을 담당한 화승을 비롯해 제작 불사로 참여한 증사, 지전, 화주 등을 기록한 연화질(緣化秩)은 없다.
- 제작연대를 제외한 제작화승에 대한 기록 부재에도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존상 구성과 표현, 세부 문양 등에 있어 18세기 전반 의균의 영향을 받았던 팔공산화파에 속한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판단된다. 의균은 청도 대비사, 대구 동화사, 대구 파계사, 포항 보경사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채민, 석민, 체준, 평원 등은 대구를 거점으로 영천, 청도, 김천, 포항, 경주, 창녕 등 경상도 일대와 강원도 건봉사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의균과 팔공산화파가 조성한 후불도는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 차화승 의균), <파계사 원통암 영산회상도>(1707, 수화승 의균), <법화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24, 수화승 채민), <정수사 영산회상도>(1731, 수화승 밀기),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 수화승 평원),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 밀기) 등이 남아 있다.
-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들이 조성한 영산회상도의와 관련해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의 협시로 표현된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아미타불의 팔대보살로 고려 후기부터 아미타불회도에 표현되는 주요 존상이다. 조선 후기 불화 중 지장보살이 표현된 영산회상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와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가 있으며 이후 19세기 초 사불산화파 수화승인 퇴운신겸에 의해 <주월암 영산회상도>(1800), <김룡사 영산회상도>(1803) 등을 포함해 사불산화파 화승들에 의해 전승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서울·경기지역 후불도에서 적용되어 제작되었다. 이처럼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와 함께 18세기 전반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결합한 새로운 후불도 형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삽도 1, 삽도 2).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년  
수화승 해웅, 차화승 의균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수화승 의균



법화사 영산회상도, 1724년  
수화승 채민



불명사 영산회상도, 1735년  
수화승 평원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수화승 (미상)



대전사 영산회상도, 18세기  
수화승 밀기

<삽도 1.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 제작 영산회상도>

-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도상과 형식은 <불명사 영산회상도>(1735)와 <대전사 영산회상도>과 유사하나 화면 크기가 작고 형태도 가로축이 길다. 이로 인해 석가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의 기본 구성과 표현은 두 불화와 같지만 보살들의 배치와 자세가 달라지고 호법신 중 범천과 제석천, 팔부중 등이 생략 혹은 축소되었으며 천공의 표현도 간략화되었다. 그러나 석가불을 비롯한 보살들의 얼굴과 세부 표현과 문양에서는 의균 이후 팔공산화파 화승들에게 의해 전승되면서 자기화한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여래의 붉은 대의를 장식하는 소용돌이원문과 대좌의 소용돌이 문양, 불보살의 복식에 화문 장식에 사용된 금니의 따데기 기법 등은 의균이 참여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과계사 영산회상도>부터 그의 영향을 받은 체준, 평원, 밀기 등의 화승들이 계승하여 사용한 주요 문양과 기법이다. 무엇보다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 불보살의 얼굴과 자세, 세부 표현과 기법을 보면 평원이 제작한 <불명사 영산회상도>과 가장 유사하다. 이로 보아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의균의 영향을 받아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팔공산화파 화승 가운데 평원 혹은 평원과 함께 작업한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64)</sup>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년  
수화승 평원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수화승 (미상)



대전사 영산회상도, 18세기  
수화승 밀기

<삽도 2. 영산회상도에 표현된 지장보살도>

- <고불사 영산회상도>은 세필로 각 존상의 얼굴과 신체, 복식의 형태, 문양들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섬세한 필치로 얼굴의 이목구비를 묘사하는 방식은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들의 불화에서 공통되게 간취되는 특징이다.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는 불보살의 눈 아래에 흰색을 덧칠하거나 녹색 눈썹에 가는 먹선을 긋고, 사천왕이나 팔부중 역시 눈썹과 수염, 눈매에 흰색을 칠하는 특색 있는 표현이 확인된다. 색채는 조선 후기 불화에서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홍색과 녹색을 적절하게 대비되게 사용하였으며, 여래 대의의 소용돌이원문을 비롯해 금니화문장식 등 다양한 문양이 빠짐없이 시문되어 있다.

○ 문헌자료

- ① 王妃殿下壽濟年  
主上殿下壽萬世  
世子邸下壽千秋
- ②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  
會幘安⊙⊙⊙⊙⊙⊙⊙⊙⊙  
⊙⊙⊙法堂  
婆湯大施主比丘守(澄)  
供養同暢施主等  
比丘碩藏 印已  
比丘尙堅 爾還

64)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 “雍正拾一年乙卯閏 四月初七日 靈山幘」畢功安于蔚珍西嶺」天竺山(天 影寺」緣化秩」證明比丘印悟保體」持殿比丘信澄保體」畫員比丘宏遠保體」比丘明俊保體」比丘淳日保體」比丘湫演保體」比丘秀坦保體」比丘哲眼保體」供養主淨允保體」豈敬保體」別座比丘覺欽保體」大施主張讚世兩主保體」大施主崔成奉兩主保體」大施主嘉善黃己天”.

比丘哲玄 弘信  
比丘竺安 德澄  
比丘彩元 灵信居士  
比丘順旻 海悅  
比丘廣湜 (最)演  
比丘義甘 俊益  
比丘再閑 ○清  
比丘呂清 ○應  
比丘斗玄 德清  
比丘儀湖  
比丘元贊  
比丘太軒  
比丘信淳  
比丘快悅  
比丘最閑  
比丘竺淡  
比丘戒初

③ 大施主秩

鄭守海兩主  
李守英兩主  
鄭晉業兩州  
池甘發兩主  
張貴發兩主  
李夢致兩主  
朴還印兩主  
鄭進業兩主  
金守侃兩主

□

### ○ 내용 및 특징

현재 상·하측과 상하좌우의 회장과 변아 부분은 도난 시 잘려나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은 4쪽의 비단을 시침질하여 바탕을 마련하였고, 각 폭(향좌→향우측 방향)은 21.5+63.2+63.5+54.7cm로 추정된다.

화면에 표현된 도상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여래와 그 회상에 참여한 권속들을 그린 영산회상도이다. 화면 중앙에 본존인 석가여래를 크고 웅장하게 배치하고, 나머지 권속들은 위계와 역할에 맞게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 두 곳에 장방형의 화기란을 마련하였고, 이곳에 제작시기와 봉안장소, 그리고 그림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와 시주자 등을 묵서로 기록해 두었다. 봉안 사찰과 전각은 도난 시 의도적으로 훼손되었고, 그림을 그린 畫員도 원래부터 기록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제작 시기는 건륭원년 병진 4월로, 서기 1736년(영조 12) 4월에 해당한다. 불화가 봉안된 4월은 석가탄신일이 있는 달로 석가탄신일을 봉축하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도 2> 좌협시보살과 사천왕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은 화면의 중앙에 높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문수·보살을 비롯한 8대보살과 아난·가섭 등 10대제자, 팔부중을 대표해서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코끼리 冠을 쓴 야차, 용왕과 용녀를 상단에 배치하고, 화면 하단 네 변에는 사천왕상을 배치하여 불회상 장면을 야무지게 마무리하였다. 화면의 배치와 구도는 좌우대칭과 수직 상승법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도 1, 2, 3]



<도 3> 본존과 주요 권속

세부적으로 그림을 살펴보면, 석가여래는 방형의 수미단위에 놓인 연꽃대좌에 결가부좌하였다. 연꽃 대좌 위로 내의를 균의를 묶은 하얀 띠 자락이 드리워져 있다. 석가여래는 단엽의 꽃잎모양의 광배를 등졌으며, 꽃잎형의 광배는 여러 겹의 색 띠로 두르고 안팎을 양분하였다. 신광의 내면에는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단순하게 녹색으로 칠했고, 색 띠에는 영락장식으로 장식하였다. 광배의 바깥면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을 상징하였는데, 떡 선으로 화염의 윤곽을 잡은 다음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단엽의 꽃잎형 광배는 이중 꽃 잎형(기형) 광배와 더불어 17~18세기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배이지만, 그 출현은 1699년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1699년, 首 義均, 보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首 義均, 도 4), 안동 봉정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13년),

정수사 영산회상도(1731년, 의성 고운사), 법주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36년) 등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후불도에 많이 등장하는 양식이다.

본존불의 머리에는 육계가 뾰족하게 솟아있고, 정상에는 작고 동그란 정상계주를, 중앙에는 반달모양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정상계주에서 발한 빛은 광배의 상단부에서 여의두문 모양으로 매듭을 맺고 다시 두 가닥으로 갈라져 천공으로 퍼져가도록 연출하였다. 단판의 꽃잎광배, 그리고 둥근 중앙계주에서 광명이 흘러나와 천공으로 뻗어가는 모습도 17~18세기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불화적인 표현이다.

석가여래의 발제선은 굵은 초록색으로 두텁게 다시 그어 푸른 머리를 강조하였고, 다시 발제선의 중앙부의 머리를 쌍방울처럼 봉긋하게 포인트를 주었고, 그 아래로 ‘八’字모양으로 애교머리 그려 넣었다. 머리의 외곽선을 동글동글 포도송이처럼 처리한 것도 특징이다. 얼굴은 윗면이 넓고 아랫면이 좁은 형태이며, 이마가 넓고 턱이 길고 두툼한 편이다.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을 크게 마련하고 눈·코·입은 넓은 얼굴 면적에 비해 작게 묘사하였고, 콧방울은 이중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휘파람을 불 듯 쫓긋 내민 입술이 인상적이다. 코에는 두 가닥의 콧수염을, 턱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수염이 늘어져 蛇行하듯 그려 넣었다. 귀는 폭이 좁은 세장한 형태이며 이룬결절이 표현되어 ‘3’字 모양을 이룬다. 귓불은 밖으로 외반 되었고 물방울 모양의 구멍을 표현하였다. 삼각와와 이갑강 등 요철로 인해 움푹 들어간 곳은 검은색으로 칠해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갑강에는 잔털을 그려 넣어 사실성과 해학성을 더하였다. 목에는 먹 선으로 세 줄의 삼도를 그려 넣었고, 노출된 가슴에는 중년의 늘어진 젖가슴과 살집이 표현되었다. 착의는 붉은색 가사를 偏袒右肩으로 걸쳐 입었으며 옷깃은 짙은 남색계통으로 칠하였다. 가슴을 수평으로 가로지른 군의 단은 녹화문과 녹화견련금문 조합으로 시문하였고, 군의 표면은 금색의 화문으로 꾸몄다. 군의는 백색의 끝으로 묶었고 띠 자락은 대좌아래까지 늘어뜨렸다. 붉은 색 가사에는 역동적인 둥근 바람개비원문이 主 문양으로 채택되었고, 옷깃에는 연화당초문이 白描로 베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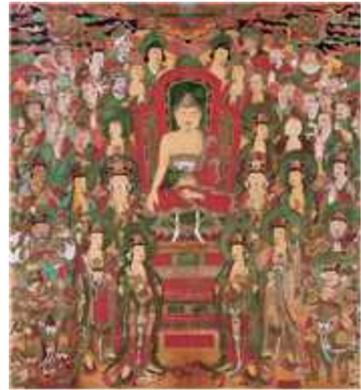
수인은 향마촉지인을 걸하고 있다. 특히 오른쪽 무릎 위에 내린 촉지인은 엄지를 벌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모았는데, 조각의 표현과는 달리 손날을 약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도 4>



<도 5>



<도 6>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년

특히 본존불에서 보이는 뽀족한 육계와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처리한 머리모양, 녹색계통으로 발제선을 강조한 점, 둥글고 큰 얼굴에 작게 묘사된 눈·코·입, 두툼한 턱, 늘어진 가슴근육의 표현, 색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는 먹 선으로 처리한 피부의 윤곽선 처리, 대의의 주 문양으로 사용된 대의 바탕의 바람개비 원문 등은 1724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도 5)를 비롯하여, 1731년 정수사 영산회상도(의성 고운사 소장), 1731년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1735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도 6), 1742년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744년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 등 18세기 전반기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불화들과 형태적,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불사 영산회상도 역시 상기 불화들의 제작자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모양과 이목구비, 가슴의 살집 표현 등 세부표현에서 동시기에 활약한 의겸이나 임한의 화풍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석가여래의 대좌 하단 좌우측에는 여의를 든 문수보살과 연꽃을 든 보현보살이 자리하였다. 상호의 표현은 여래와 같다. 두 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흑갑사의 광배를 갖추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였고, 보발은 길게 닿아 어깨위로 멋스럽게 드리웠다. 착의로는 천의와 군의, 요의, 광다회를 두르거나 걸쳤으며, 귀고리, 팔찌, 영락 등 각종 장신구로 불신을 장엄하여 화려하면서도 세속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양대 보살을 기점으로 지그재그로 상승하면서 3위의 보살이 적정한 공간감을 유지하며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였다. 상단 부처님의 광배 곁에 표현된 2위의 보살만 정면향을 취했고, 나머지는 보살은 측면향을 취하였다.

화면의 상단에는 가섭과 아난을 필두로 10대 제자가 표현되었다. 가섭존자는 지권인과 유사한 특유의 합장인을 결하였다. 나머지 젊은 나한에서 중장년의 제자들 가운데, 인상을 쓰거나 고개를 숙여 귀엣말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존자, 눈을 감고 깊이 사유에 잠겨 있는 존자 등 불·보살에 비해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읽을 수 있다.

상단의 가장자리 좌우에는 팔부중을 대표하여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야차, 그리고

용왕과 용녀가 상징물을 들고 배치되었다.

사천왕은 화면하단 좌·우측 가장자리에 각각 2위씩 배치하였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조각과 불화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는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비파)-동(보검)-남(용과 여의주)-북(당탑)을 지물로 취하고 있다. 사천왕 보관을 쓰고, 갑주를 착용하였으며 녹색 두광을 갖추고 위엄 있는 표정과 역동적인 자세로 도량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사천왕상 중에는 파련화 형태의 三葉보관을 쓴 북방 다문천왕과 보검을 칼집에서 빼고 있는 동방지국천왕을 상하에 배치하였다. 파련화 형태의 삼엽 보관은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북방천왕의 도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칼집과 칼이 모두 표현된 사례는 한국 불화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작가의 변칙이는 재치가 가미된 것이다. 북방과 서방은 정면향을 동방과 남방은 눈을 부라려 외곽을 경계하고 있다. 일부 갑옷에는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분법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석가여래 광배 최상단 좌우에는 뒷머리를 파마를 한 것처럼 양 갈래 고수머리를 한 2위의 보살이 합장하고 마주하였다. 특히 양 갈래 고수머리를 한 타방불은 지극히 경북일원의 제한된 시기에 등장하는 특징으로, 이 불화의 제작자 추정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 2위의 불상은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에는 辟支佛로 기록되어 있고, 내소사 영산회괘불탱에는 좌측에 다보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로 기록하여 『오종범음집』 법화거불에 등장하는 여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회상도에서의 타방불(또는 벽지불)은 2위~6위까지 그 수가 탄력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래가 회상에 등장하는지 존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다.

불화의 윤곽선은 주로 먹 선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노출된 피부의 윤곽선은 피부와 비슷한 톤을 가진 열은 주색선으로 칠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여기서는 먹 선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위해 사용되는 색선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색감은 채도가 높지 않은 녹색과 적색을 주색으로 사용하였고, 구도와 색감, 등장인물의 표현은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등과 직접적으로 비교된다. 특히 여래의 뒤쪽 좌우에 자리 잡은 2구의 타방불은 뒷머리를 붕긋하게 양 갈래 고수머리로 처리한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의 타방불은 위에서 비교대상으로 언급한 18세기 전반기 경북지역 불화에서 등장하는 표현요소로, 이 불화에 참여한 화원들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 고불사 영산회상도 화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채원, 계초, 준익은 위에서 언급한 불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어 이 불화의 도상과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는 3곳에서 확인된다. 대좌에는 왕실 삼전하의 축원문이 기록되어 있고, 두 곳 중 한 곳에는 불화의 제작시기와 승려 시주자, 다른 한 곳에는 재가 시주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이곳 화기의 특징으로는 본문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삼전하의 축원문을, 별도의 구획을 마련하여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1654년, 보물) 산청 울곡사 괘불탱(1684년, 보물), 부석사괘불(1684년, 국립중앙박물관), 성주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년, 보물),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보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년, 괘형식), 용주사 석가여래삼불도(179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정도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드물다.

## ○ 문헌자료

### <화기-대좌 하단>

王妃殿下壽濟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 <화기-우측>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  
 會幀安」  
 法堂」  
 婆蕩大施主比丘守澄」  
 供養同暢施主亦」  
 상단  
 比丘碩藏  
 比丘尙堅  
 比丘哲玄  
 比丘竺安  
 比丘彩元  
 比丘順昊  
 比丘廣湜  
 比丘義甘  
 比丘再閑  
 比丘呂淸  
 比丘斗玄  
 比丘義湖  
 比丘元贊

比丘太軒  
比丘信淳  
比丘快悅  
比丘最閑  
比丘竺淡  
比丘戒初  
하단  
印己  
爾遠  
弘信  
德澄  
灵信居士  
海悅  
○演  
俊益  
幸清  
淡應  
德清

<화기-좌측>

大施主秩  
鄭守海兩主  
李守英兩主  
鄭晋業兩主  
池甘發兩主  
張貴發兩主  
李夢致兩主  
朴遠甲兩主  
鄭進業兩主  
金守侃兩主

<표1. 고불사 영산회상도 화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활동사항>

주요 인물	작품명	제작시기	역할	비고
哲玄	여수 흥국사 석가모니후불탱	1693년	시주	보물
	충림사 시왕도	조선 후기	화원	
	감로도	1681		보물
彩元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	시주	보물
	영천 은혜사 영산회상도(대전사)	조선 후기	화원	
	불국사 삼장보살도	1739년	화원 2위	보물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년	시주	보물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년		
	홍익대학교 시왕도(제4오관대왕)		시주	
	영천 은혜사 백홍양 감로도	1792년	화원 9위	
廣湜	해남 대흥사 사천왕도(서·북)	1794년	주지	
	수덕사 노사나불괘불도		1766년 중수 별좌	
信淳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1728	대시주	
最閑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1769	대덕/淨桶	보물
戒初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도	1755	송주	보물
德澄	용봉사 괘불	1690	시주	보물
	의성 대곡사 삼화상진영	1782	화주	
	의성 대곡사 청허당대사진영	1782	화주	
	의성 대곡사 사명당대사진영	1782	화주	
俊益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	본사질	보물
	순천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	연화질	보물
幸淸	하동 쌍계사 국사암 아미타후불도	1781	시주/도감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	대시주/도감	보물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산중대덕/도감	
	하동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	1781	시주	

○ 지정사례

<표2. 영산회상도 지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제작시기	크기(cm)	재질	수화승
1	영산회상도(동아대)	1565	227.0×188.5	마본채색	
2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	336.5×294.8	마본채색	
3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1688	403.0×275.0	견본채색	天信
4	여수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1693	458.0×407.0	마본채색	天信
5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	340.0×254.0	견본채색	義均
6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1709	289.0×274.5	마본채색	印文
7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1724	450.0×370.0	견본채색	碩敏
8	해인사 영산회상도	1729	293.5×241.9	견본채색	義謙
9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1731	319.0×244.0	마본채색	道益
10	통도사 영산회상도	1734	339.0×233.0	견본채색	任閑
11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	402.0×373.0	견본채색	宏遠
12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1749	339.5×283.0	견본채색	海雄
13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1769	498.0×447.0	견본채색	有誠

○ 기 타

소장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광진경찰서의 도난문화재 수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던 권모 관장의 담보물이 서울옥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옥션과 유출문화재(聖寶)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함
- 그러나 형사소송에 의한 도난문화재 소유권 환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옥션이 보유한 도난 정보는 무상 기증하기로 하고, 그 외 권모 관장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유상기증 계약을 2017년 9월 20일 체결함
-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찰을 알 수 없는 문화재(聖寶)는 봉안할 수 있는 사찰에 이운하기로 함. 단 향후 봉안처가가 확인되면 원봉안처로 이안하기로 함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기장 고불사의 요청으로 2017년 11월 16일 종단에 성보 환수 기금을 약정하고 2020년 2월 4일에 기장 고불사로 본 불화를 이안함

□

## ○ 현 상

건륭 원년(1736)에 제작된 영산회상도 불화인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면을 비단 바탕에 세로 170.5cm, 가로 227.0cm 크기로 네 폭(향좌→향우측: 22.3+62.5+63+54.4cm)의 얇고 고운 비단을 이어서 제작하였다. 그러나 화면은 변이 부분에서 잘려져서 전체 상황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화면 양 끝에 하늘색으로 채색하여 최근에 칠한 듯 경계를 표시하였다. 화면 아래 바닥에 2곳에 나뉘어 적은 화기에는 1735년 영산회로 조성하여 법당에 봉안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봉안 사찰을 적은 부분은 직물을 부착하여 원 봉안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와 도상, 그리고 색은 원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면은 안료 박락과 들뜸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표면은 경화가 매우 심하여 펼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재 등글게 말아서 보관함에 넣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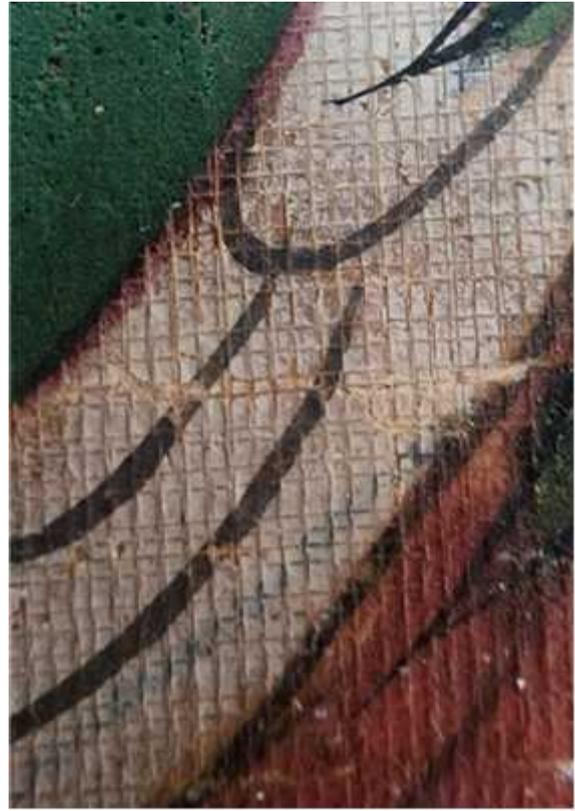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장면을 그린 회화이다. 본존 석가모니불은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향마촉지인을 하고 두광이 없이 하나의 커다란 주형 광배(舟形光背)를 갖추고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붉은색 대의를 입고 높은 방형 불단 대좌 위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본존 머리 위 동그란 정상계주 위에서 뻗어나간 서운(瑞雲)은 화면 위에서 양 갈래로 뻗어나가고, 대좌 아래 화면 바닥에 화기를 적어 화면이 본존을 중앙에 둔 구도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다. 하단의 협시보살인 연꽃 가지를 든 보현보살과 여의(如意)를 든 문수보살은 투명한 두광을 갖추고 마주 보며 화면 아래에 크게 강조되어 그려졌다. 그 뒤로 석장(錫杖)을 든 지장보살 등 6보살이 각각 3구씩 배치되어 8대보살을 표현하였다. 화면 위로 제자상과 분신불, 용왕·용녀,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천룡팔부중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화면 아래 2구씩 배치된 사천왕은 향우측은 비파와 칼, 향좌측은 용·여의주, 탑을 각각 들고 있다. 이 구도는 석가모니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에워싼 조선 후기 전형적인 군도 형식이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을 중심 색으로 사용하면서 황색, 청색, 금니를 적절히 배치하여 힘찬 붓질과 함께 안정감이 있는 색감을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섬세한 장식 문양과 함께 기물에는 금박을 사용하여 장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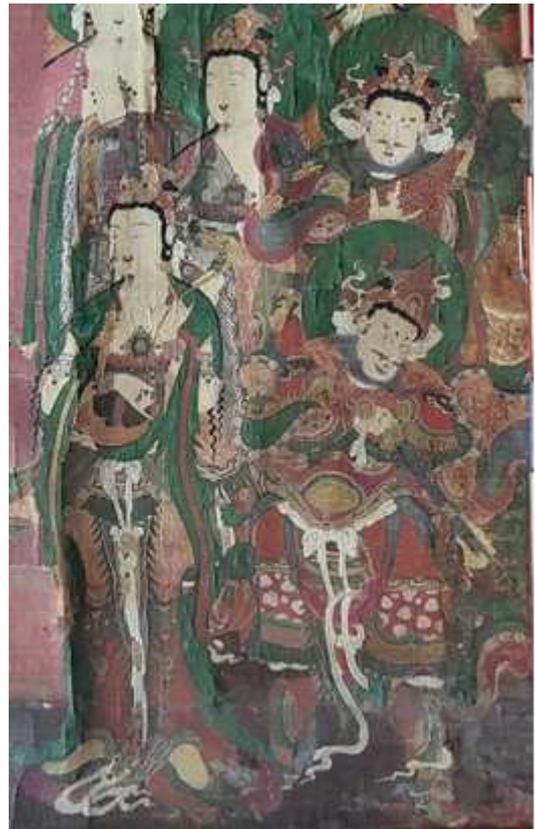
<그림 1> 본존과 협시보살 부분



<그림 2> 비단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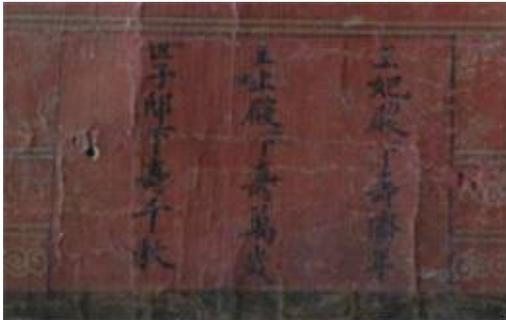
<그림 3> 향 좌측 사천왕상 부분



<그림 4> 향 우측 사천왕상 부분

석가모니의 방형 대좌 가운데에 네모 칸을 두어 묵서로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왼쪽에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濟年)’, 오른쪽에 세자저하수천추(世子低下壽千秋)’라는 삼전하 축원문을 적었다.

불화 시주발원 및 제작과 관련된 화기는 보통 화면 변아 부분과 겹쳐서 기록되는데 이 불화는 화면 아래 바닥 면에 방제 칸을 마련하여 두 곳에 기록하였다. 중앙부에는 조성연대와 봉안처, 사중 승려를 중앙 화기란에 적고, 향좌측 화기는 일반인 시주자를 기록하였다. 건륭 원년(1735)에 영산회(靈山會)로 조성되어 법당에 봉안되었는데, 봉안처 기록 부분은 화면에 천을 덧대어 가려놓아서 원래의 봉안처를 확인할 수 없다. 시주는 바탕 대시주 수□(守□)을 비롯하여 30명의 승려가 참여하였고, 일반인 시주는 鄭守海 부부 등 9쌍의 부부가 참여하였다. 그런데 불화 화기에 보통 증명·송주·화승 등 여러 소임을 적은 연화질(緣化秩)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 화기-불단 삼전하 축원문



<그림 6> 화기-향좌측



<그림 7> 화기-중양부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를 비롯한 권속들의 둥근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와 날씬한 신체 비례, 그리고 여러 장식 문양 등에서 18세기 전반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에서 보이는 차분한 색감으로 표현된 안정된 화면 구도와 같은 화풍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풍은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년), 대구 <과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1707년), 영천 <법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불영사 영

산회상도>(1733년),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1749년) 등 경상도 지역에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팔공산 동화사·과계사, 상주 용흥사, 청송 대전사 등에서 활동한 화파의 화풍과 도상적으로 연계되었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8년, 그림 8)는 화기를 통해 수화승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비구(尙明比丘) 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화이다. 수화승 해웅의 작품이 이 작품만 전하지만, 본존의 주형 광배와 화면 상단으로 뻗어가는 서운, 권속의 배치 형식 등은 이후 팔공산 화풍을 이끈 의균 화파로 연계된다. 대구 <과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그림 9)은 의균이 성익(性益), 체환(體環) 등 5명의 화원과 그린 것으로 당시 13세의 연잉군(延祜君, 후일 영조)이 시주하여 제작한 왕실 발원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이 에워싼 군도 형식으로 이 지역의 화풍에 충실하지만,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의 많은 권속보다 권속의 수가 간소화되었고, 석가모니불의 착의가 통견의를 하고 있지만, 주형 광배와 넓은 방형 대좌, 화면 아래 협시보살을 크게 강조한 형식은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구성과 비슷하다.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그림 10)는 보현산(普賢山) 법화사(法華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1724년에 팔공산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의균의 제자인 쾌민(快旻)과 체준(體俊) 등이 제작한 불화이다. 이 불화는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많은 권속이 가득 둘러싼 군도 형식으로 8대보살 대신 10대보살을 배치하였다. 방형 불단 대좌와 연화좌 위에 주형 광배를 한 편단우견의 착의를 하고 향마촉지인을 한 형식은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3년) 등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에서 볼 수 있는 도상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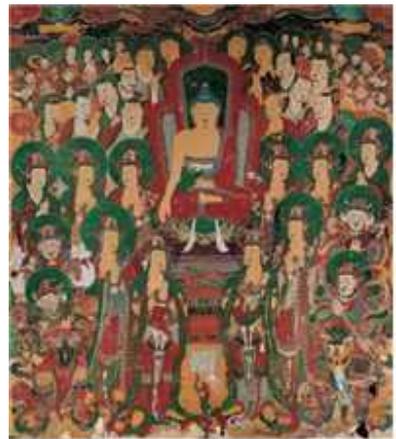
<그림 8>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년



<그림 9>

대구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그림 10>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년

## ○ 문헌자료

### <화기-불단 삼전하(三殿下) 축원문>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濟年

世子低下壽千秋

### <화기-중앙부>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會幘安于□□□□□□□」□□□法堂」婆蕩大施主比丘守□」供養同暢施主水」比丘碩藏 印巳」比丘尙堅 爾還」比丘哲玄 弘信」比丘竺安德澄」比丘彩元 靈信居士」比丘順旻 海悅」比丘廣湜 □演」比丘義甘 竣益」比丘(再)閑 □清」比丘呂清 □應」比丘斗玄 德清」比丘儀湖」比丘元贊」比丘太軒」比丘信淳」比丘快悅」比丘最閑」比丘竺淡」比丘戒初」

### <화기-향좌측>

大施主秩」鄭守海兩主」李守英兩主」鄭普業兩主」池甘發兩主」張貴發兩主」李(夢)致兩主」朴近印兩主」鄭進業兩主」金守侃兩主」

## ○ 참고문헌

- 이용윤, 「화승 의균의 불화 조성과 사명문중의 불사」, 『불교미술사학』 28, 불교미술사학회, 2019.

## ○ 기 타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환수하여 고불사에 소장된 불화이다. 고불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조계종 사찰이다. 건립연대는 1982년으로 역사가 짧지만, 보물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 1474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인 <목조여래좌상>(17세기 후반), 『묘법연화경』(1493년),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인 「권수정혜결사문」(1608년)을 소장, 관리하고 있다.

## 5. 파주 보광사 동종 (坡州 普光寺 銅鍾)

### 가. 심의사항

‘파주 보광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파주 보광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1.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8.7. 지정)
-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보광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9cm, 입지름 64.1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634년(인조 12)
- 제작자 : 천보(天寶),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파주 보광사 동종>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파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에 현재의 봉안 사찰인 고령산(高嶺山) 보광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동 300근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고 하여 조성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점, 17세기 전반 승장(僧匠)의 선도적 역할을 한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조성한 현존하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 기문(記文) 형식의 주성기(鑄成記)로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혀져 있고, 제작 목적이 확인되는 점, 봉안사찰이나 발원자 및 후원자 및 제작 장인 등이 명문으로 기록된 점에서 불교공예사나 조선 후기 주종장의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광사 동종은 고려말 연복사 종의 형식을 계승한 조선 초기의 종을 이어 받으면서 재래식 범종 형식과 외래적인 중국식 띠장식을 절충 혼합하여 토착화시킨 17세기 종의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설봉 천보의 범종은 15세기에 왕실 발원 종의 영향을 받은 1595년 양천목(梁天目)이 제작한 금사사 종의 영향을 받아 이후에 독자적으로 발전한 주종장으로서 그가 제작한 범종들은 이전의 형식과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이전의 제한적이고 일관된 경향과 달리 발전적인 기술력과 창작적인 문양과 장식 및 차별화된 도상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천보가

제작한 4기의 범종 중 1634년 보광사 동종은 가장 마지막 시기에 제작한 종이면서 종뉴에는 오고저(五鈷杵)와 ‘王’자형 오조룡의 쌍룡을 배치하고, 종신의 하대에 오조룡문과 수파문 등의 표현은 조형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 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구성에 맞게 처음으로 배치하여 사용한 1634년 <보광사 동종>은 설봉 천보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처럼 1634년 설봉 천보가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역사적, 학술적, 공예사적, 조형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독창적인 면에서도 탁월하여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과주 보광사 동종>은 종뉴와 종신이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전체적인 외형은 안정감이 있고 종뉴의 조각 솜씨는 우수하며, 종신의 장식도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또한 명문을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장 천보의 기록은 17세기 동종의 제작과 장인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가 남긴 동종은 보광사 동종을 포함하여 모두 5점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보가 제작한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외래형 범종의 특징으로 조선 후기 승장의 동종 제작과 계통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보광사 동종은 천보의 말년 작품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의 제작 시기, 조성 당시에 봉안된 사찰인 보광사의 유보로 전하는 점, 승장 천보의 작품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 전반,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사찰의 증건과 재건, 승장의 계보와 활약, 금속공예 기술의 수준과 특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동종은 한국 전통 종 양식과 중국 종 양식이 절충된 양식으로 천보가 이보다 앞서 만든 동종 양식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복에 새겨진 문양

의 배치와 표현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종의 형태도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천보의 모든 종들이 어깨 부분과 그 이하 부분을 철붙의 제작방식과 같은 틀을 이어 붙여 주물하는 분할 구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천보의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종 제작기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어 종의 배 부분에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종기를 통해, 당시 종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 주관자와 참여자, 제작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종은 천보가 제작한 동종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작이다. 그러나 1595년 금사사 동종을 시작으로 해서,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견사 동종, 1633년 안변 석왕사 동종, 1634년 파주 보광사 동종에 이르기까지의 천보 동종의 변천과 제작태도, 동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연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앞선 시기의 동종에서는 설봉 천보가 직접 주종장으로서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한데 반해, 이 종에서는 ‘鑄成畵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도장까지 새겨 넣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가 종의 문양 도안뿐만 아니라 주성까지 주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제작한 천보 동종 역시 그가 제작을 주도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 종은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의 양식과 달리 봉선사 동종(1469년)이나 흥천사명 동종, 해인사 동종(1491년) 등 조선 전반기 동종 양식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 이는 천보의 활동지역이 봉선사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그가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원 봉선사 동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1469년에 제작된 봉선사 동종을 범본 삼아 그의 동종 양식을 추구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한편 천보의 동종 양식은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을 제작한 김용암,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을 제작한 김애립 등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私匠의 동종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17세기 한국 주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동종이다.

특히 사인비구 동종 8점이 전체가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한 주종장의 작품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가 되고 있다. 비록 사인비구의 종에 비해 그 수가 적으나, 천보는 사인비구보다 앞서 활동한 경우를 비롯한 사인비구의 주종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선배 주종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종 양식이 조선 전기 동종양식을 강하게 풍기면서도 17세기 새로운 시대 미감도 가미하여 동종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동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利運)의 역사가 많은 다른 범종들과 달리 최초 봉안처에서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잘 보존된 보기 드문 범종이다. 양식사 측면에서는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그 제작 시기와 천보의 활동기간을 통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접점으로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술적 성취도 또한 17세기 대표 범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수한 작품이다. 그것은 천보가 제작한 범종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등사종(1619년)>, <고건사종(1630년)>과의 비교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부 천판과 용뉴의 안정적인 결합, 섬세한 세부 조각 수법, 종신 문양의 적절한 양감과 구성이 기존의 종들에 비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양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면모 역시 탁월한데 그것은 보살신앙과 직결되는 대표 진언(眞言)을 보살상과 함께 표현한 것에서 충분히 전해진다. 또한 수호의 상징인 용이라는 소재를 다른 범종들에 비해 문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도 이 범종에 담긴 염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범종의 세부 장엄 요소들이 전체 종신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복잡함보다는 안정감 있는 범종의 전체 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파주 보광사 동종>의 예술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체가 훌륭한 장문(長文)의 명문(銘文)과 기운생동 하는 용들의 표현은 15세기 왕실 발원의 수준 높은 범종들의 양상과 가깝게 여겨질 만큼 역사적 자료의 가치와 작품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주종장인 설봉천보가 장인으로서 완숙의 단계에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 그 탁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2012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천보의 두 범종의 사례처럼 그 일관된 가치 기준과 의미에 있어 <파주 보광사 동종>은 절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조사보고서

□

### ○ 현 상



<보광사 동종>



<보광사 동종 정면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 승장 설봉(雪峰) 천보(天寶)가 여러 승장(僧匠)과 함께 조성한 높이 94.9cm, 지름 64.1cm의 비교적 큰 작품이다. 이 범종은 위쪽에 쌍룡의 종뉴가 역동적으로 환조되어 있고, 종신에 굵은 황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물결문[水波文]이나 구름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용문(龍文)을 표현하고 있으며, 1,300여 자의 긴 명문(銘文)을 돌을새김[陽刻]으로 새기고 있다. 이 범종의 제작기법은 조선시대에 종신과 별도로 천판과 용뉴를 주조하여 종신에 부착하는 특징이 반영되었고, 주물을 마치고 연판문대의 결함이 발견되어 다시 주조하였지만,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나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주조기술로 문양을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 범종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이 동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종신 중앙을 가득 채워 주성기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성연대와 보광사

라는 소장처가 밝혀져 있고 조성목적은 새겼으며 발원자와 제작 승장 등이 정확하고 여기에 제작자의 인장까지 확실하게 양각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주 보광사 범종은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을 뛰어난 기술과 완숙한 솜씨로 제작하여 조형적으로도 탁월하다.



<보광사 동종 우측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배면 실측>



<보광사 동종 평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안쪽면 실측>

## ○ 내용 및 특징

### 1. 보광사의 입지적 환경

파주 보광사(普光寺)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고령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894년 도선국사(道詵國師)가 국가 비보사찰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창건 이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소략한 편이다.

조선시대에 중창된 보광사의 존재는 대웅보전에 소장되어 있는 1634년 승정칠년명 범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으로 확인된다.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02년(광해군 14)에 해서(海西)의 승려 설미(雪眉)가 법당을 세우고, 호서(湖西)의 승려 덕인(德仁)이 승당을 세워 사방에서 훌륭한 선사들이 사찰로 운집하였다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보광사가 17세기에 중창되었고, 1667년(현종 8)에는 지간(智侃)과 석련(釋蓮)이 중수하였다.

특히 보광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 영조대부터이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자신의 사친인 숙빈 최씨(1670~1718)의 능원인 소령원을 영건하였는데, 이때 보광사가 소령원을 수호하는 원찰로서, 경기도의 사찰 중 왕실 능원 원찰 7곳 중 하나로 기록되면서부터이다. 이때 대웅보전과 광응전(光膺殿), 만세루를 중수하였다. 이후 영조는 1753년 보광사와 관련된 시문을 57절 20수를 지었고, 1759년(영조 35) 3월에는 교서를 내려 ‘보광사는 능원의 수호사찰이며 일찍이 머물러 왔던 곳’이라고 공표하여 국왕 영조가 능행 시 들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당시 보광사는 공릉·순릉·영릉의 ‘조포사(造泡寺)’이자, 서삼릉의 ‘능사(陵寺)’로, 소령원의 불사(佛寺)로 기록되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왕릉의 능원사찰로

가능하면서 왕실의 대대적인 후원 아래 관리되고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보광사 경내에는 어실각(御室閣) 즉 왕친(王親)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 존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 이렇듯 영조대 왕실원당이자 주요 사찰로 자리 잡은 보광사는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 시 찾게 되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하며 전각의 중창 등이 이뤄졌다.



<과주 보광사 대응보전>

1863년(철종 14)에는 쌍세전(雙世殿), 즉 지금의 명부전과 나한전(羅漢殿), 즉 지금의 응진전, 큰방 만세루·수구암(守口庵)을 건립하고 지장보살과 시왕상(十王像)·석가모니불·약사여래불·아미타삼존불과 미륵보살과 대세지보살상·16나한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후 대원군과 고종과 민비 등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 발전하게 되었다. 1869년(고종 6)에는 만세루를 중수하였는데 1998년 만세루 해체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당시 세도가인 안동김씨 일가 즉, 김병학·김병국·김병기 등이 주요 시주자로 참여하여 왕대비 조씨의 수복과 흥선대원군 이하응,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안녕을 기원하며 만세루를 중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1884년(고종 21)에는 관음전과 별당을 지었고, 1893년에는 산신각을 신축하였다. 1896년 상궁 천씨가 중수 불사에 뜻을 두어 인파 영현(仁坡英玄)이 1897년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898년에는 순빈 엄씨와 상궁 홍씨의 시주로 단청불사도 행하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삼장보살도, 현왕도, 칠성도, 독성도, 감로도 등 6점의 불화가 조성 봉안되었다.



<과주 보광사 만세루, 1869년>

## 2. 주성기(鑄成記)에 의한 명문 분석

보광사 범종의 주성기는 종신의 중앙 하단부의 띠장식대 밑에 넓게 새겨져 있다.



<과주 보광사 동종의 명문대>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옆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중간 생략-----

승정칠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육 인전 응성  
설암 신종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헌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범휘 가  
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청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균  
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법정 응성 성현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고려 때 도선국사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이었는데,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1602년 해서의 승려[海西僧] 설미(雪眉)와 호서의 승려[湖西僧] 덕인(德仁)이 사찰 회복의 원을 세웠고 이후 사방에서 운집한 현사들과 힘을 합해 대웅전과 승당을 중창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문에 의하여 이 동종은 승정 7년 갑술(1634) 7월일에 무게 300근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원된 승려로는 해서의 승려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고 주성장인으로는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와 함께 조역승려로서 상륜(尙倫), 선잠(善岑) 및 경립(敬立)이 함께 제작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과 함께 마지막에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라는 명문과 함께 ‘天寶’라는 인장이 양각되어 있다.

그동안 여러 범종 중 승장 천보가 관여한 범종은 명문에 의하면 총 5기가 밝혀졌지만 1점은 망실되었고, 현존하는 것은 4점이다.

<표1. 천보 제작 범종 현황>

연번	범종명	제작연도	명문 장인	원봉안처		현봉안처
				지역	사찰	
1	금사사명 범종	1595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鐵匠 全南靈巖 梁天目	황해도 장연	금사사	평양 조선중앙력사 박물관
2	봉선사명 범종	1619년	天寶謹作書刻…緣化比丘 玄玉 正會 大元 瑩仁	경기도 양주	현등사	경기도 가평 현등사
3	견암사명 범종	1630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圖匠彌智山雪峯 沙門天寶 助役 緇竹 得男 得一	경상도 거창	견암사	경상도 거창 고견사
4	석왕사명 범종	1633년	釋 天寶 崇禎六年八月 十七日造	함경도 안변	석왕사	망실
5	보광사명 범종	1634년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 助役 尙倫 善岑 敬立	경기도 양주	보광사	경기도 파주 보광사



<금사사명 범종, 1595년>



<봉선사명 범종, 1619년>



<견암사명 범종, 1630년>



<안변 석왕사 범종, 1633년, 유리건판2626>

이처럼 설봉천보는 1595년부터 1634년까지 현존하는 4기의 범종을 제작했다.

첫 번째 것은 1595년 주물장 양천목이 제작한 금사사 동종이다. 이 종의 명문에 의하면 “有大明朝鮮國黃海道長淵 地洛迦山金沙寺重鑄寶金 鍾名并序 彌智山雪峰沙門天寶”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양천목이 제작하고, 종의 찬문[謹撰書]을 천보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범종은 북한의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것은 1619년 봉선사명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적혀 있어 화주가 천보였으며 그와 함께 찬문까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현재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것은 1630년 견암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有大明朝鮮國居昌縣牛頭山見岩寺新鑄寶 金鍾銘并序...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曷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있다. 이를 통해 천보는 찬문을 지었음 뿐 아니라 대장의 우두머리[도대장]로서 범종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것은 1634년 파주 보광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緣化秩 敬遲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라고 양각되어 있어 천보가 직접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설봉자 천보가 만든 범종 중 북한에 소장된 1점과 망실된 1점을 제외하고 거창 고견사 범종과 가평 현등사 유물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해 파주 보광사의 것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파주 보광사 범종이 비록 설봉 천보의 유물 중 1634년으로 조성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1641년 하동 쌍계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 보광사 범종 또한 지정가치에 대해 재고가 요구된다.

### 3. 범종의 형식

보광사 동종은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고 종뉴에는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이 배치되어 있는 조선 후기의 절충형 범종이다. 꼭대기 부분[鍾頂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포탄형 종신이 연결되어 있다. 보광사 동종은 종신의 외형선이 불룩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금사사명 범종, 북한, 1595년>



<거창 고건사 범종, 1619년>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 3-1) 종뉴: 오조룡의 쌍룡 용뉴

보광사 동종은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이나 1630년 거창 고건사 동종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중 불룩이 솟아오른 천판 위에 하나의 몸체로 이어져 머리를 반대로 돌린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뉴에 배치된 꼬리를 맞댄 쌍룡은 역동적이고 환미감이 풍부하며 세부 묘사가 생동감이 넘친다. 쌍룡의 얼굴은 용맹한 모습이 잘 형상화하여 눈코입의 세부 하나하나까지 허술함 없이 조각하여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다.



<파주 보광사 동종의 쌍룡 용뉴>

쌍룡의 크고 부리부리한 눈은 한올 한올 아래를 향해 덮은 눈썹까지 제각각 묘사하여 힘을 느낄 수 있고, 통방울 같은 코에는 그 좌우에 수염까지 기가 느껴지고, 아래쪽 입에는 상하 양 이빨을 앙다물어 뾰족한 철물을 물고 있는 표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얼굴의 좌우로는 귀가 쫄긋하고 이마에는 ‘王’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으며 2개의 뿔이 V자 형으로 위로 강인하게 솟구친 모습이다. 쌍룡은 몸체를 용트림하여 꼬여 있으며 얼굴 좌우로는 몸체에서 뻗어 나온 근육질의 발에 있는 발가락 5개는 발톱 끝까지 온 힘껏 기를 모으면 크기도 매우 커 힘껏 종을 움켜쥐어 용이 가진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견암사명 고견사종, 1630년



보광사종, 1634년

<용뉴 비교>



건암사명 고견사중, 1630년



보광사중, 1634년

<용머리에 새겨진 王자 비교>

용트림하는 쌍룡은 서로의 몸체를 휘감아 올라가며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쌍룡의 용트림치는 몸체의 중간 부분에는 공간을 마련하여 범종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은 중앙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는 금강(金剛) 형상을 모은 오고저(五鈷杵)를 배치하고 있다. 쌍룡의 발 사이에는 주조 시 용탕의 주입구인 약간 도드라진 원형이 남아 있다.



건암사명 고견사중, 1630년



보광사중, 1634년

<오고저 비교>

이렇게 쌍룡은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은 조선 왕실에서는 국왕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국왕에만 해당되는 문양인데, 불교 법왕의 상징성에 걸맞은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뉴의 쌍룡 표현이나 세부 묘사 및 조각적 솜씨가 매우 탁월하다.

### 3-2) 종신의 형식과 세부 문양

보광사 범종의 쌍룡 종류 아래 복련대 일부에는 주성 시 형틀이 흔들린 흔적과 함께 상하 형틀의 분리선이 남아 있어 당시의 주조방법을 시사해준다.

범종의 종신 외형선은 불룩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종신은 몸체 중단에 둘러진 세 줄의 굵은 횡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된다.



<과주 보광사 동종 용뉴 천판 아래 복연판> <과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연곽대와 진언, 불보살상>

구획된 상단에는 중앙에 연꽃 줄기와 봉우리가 길쭉하게 표현된 넓은 연판문, 내부에는 만개한 연꽃좌 중앙에 작은 돌기가 표현된 9개씩의 연뢰를 도톰하게 부조하였다.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 당초문을 배치한 사다리꼴 연곽, 다양한 형태의 합장형 불보살상, 실담문자로 표기한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범자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문양을 배치하고 있다. 하단에는 상단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구성이지만, 동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주종기를 비롯하여, 수과문,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과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사다리꼴 연곽대와 범자,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불보살상>

<과주 보광사 동종의 사다리꼴 유곽의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의 보살상 실측 치수>

### 3-3) 상단의 범자와 진언 및 문양

쌍룡이 배치된 천판 아래쪽 복련판이 있고, 종신의 세 줄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사다리꼴의 연곽대를 배치하였고, 그 안쪽에는 9개의 연꽃좌 위의 자그마한 연좌 꼭지,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과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연곽과 연곽의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범자와 실담문자로 표기한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을 배치하고 있다. 4구의 보살입상은 원형 두광에 통견의 대의를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 연화좌 위에 시립한 채 몸을 우측으로 돌린 자세이다.

설봉 천보가 발원한 범종에는 범종의 범자(梵字)가 새겨지는데, 양천목(梁天目)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 표현된 실담문자이다. 이러한 범자는 문양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종신 자체에 고부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천목이 1595년 제작한 <금사사 범종>에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고 육자대명

왕진언인 ‘반메흠’을 시문하였다. 이 점은 육자대명왕진언 신앙이 지장보살의 신앙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ㅅ ㅅ ㄹ

<금사사 범종, 1595년>

ㄹ ㅅ ㄴ

<견암사 범종, 1630년>

ㄹ ㅅ

<보광사 동종, 1634년>

1634년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1630년 견암사 범종의 범자와 위치 및 장방형의 한자진언문의 사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징적인 것은 <보광사 동종>의 연곽의 상부에 위치한 곳에 조선시대 범종 중 처음으로 란차문자 범문을 사용하여 우측 방향으로 육자대명왕진언이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란차문자는 데바나가리문자를 변형시킨 범자체로서 각문이나 서적의 표지 제목 등에 주로 쓰였으며 장식성이 강한 범자체이다. 란차문자 범자 아래에는 실담문자로 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의 범자를 2~3자씩 배치하였다. 따라서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으며, 란차문자의 구성에 맞게 실담문자 범자를 그 아래에 배치하는 등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곧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주종장은 1634년 <보광사 동종>을 제작한 설봉 천보라고 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 하단부 정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우측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배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좌측면>

이처럼 범자는 현세구복 및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장엄 요소이다. 주종장이 명시된 조선 전기의 범종은 왕실의 진언신앙을 통해 왕실 내 승려가 진언을 독송하는 법회가 열거나 왕이 직접 진언법회를 열 때 범보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확인된다. 특히 17세기에 들어 승장 설봉 천보는 선이 유려한 실담문자로 육자대명왕진언과 과지옥진언의 범자가 표현되는 공통양상이 보인다. 특히 천보는 왕실발원범종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표현 방식과 제작기법 및 실담문자 범자와 란차문자 범자를 사용하여 이후 그들만의 특징적인 한자진원문의 표현이 확인되어 전통성이 유지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에 배치한 주성과 관련된 銘文帶에 雲龍紋이 표현되었고 下帶에도 雲龍紋과 水波紋이 복합적으로 시문되었다. 이렇게 과주 보광사 범종은 이전까지 왕실발원의 통제 속에서 새겨지던 형태나 문양에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단 주종기 아래의 문양을 보면 종신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굵은 횡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신 하단에는 간략한 구성이지만, 하대와 하대띠장식 사이의 공간에는 오조룡한 마리와 범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이 양각

되어 있다. 기재된 주종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밖에 수파문(水波文)을 비롯하여,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용기선 횡대 아래의 하단부에는 유려한 모습의 운룡문이 고부조로 장식되었고, 이 운룡문으로 이루어진 문양판 사이로 긴 내용의 양각 명문을 새겼다. 아래 단에는 줄의 용기선을 두르고 하대처럼 표현된 종구의 윗부분에 파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가며 뺄뺄이 장식하였다.



<金沙寺鐘, 1595년, 총 높이 97.2cm,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奉先寺銘懸燈寺鐘, 1619년, 총 높이 77×59cm,  
보물, 경기 가평 현등사 소장>

### 3-4) 양식 비교

파주 보광사의 동종은 17세기 전반의 범종 가운데 중국종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서, 이를 제작한 설봉 천보는 이 시기에 여러 점의 범종을 만든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 중 현존하는 것은 모두 4점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이고,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 1634년 거창 고건사 범종, 1634년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등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은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주물공 양천목(梁天目)이 무게 200근으로 이 종을 만들 때 명문의 내용을 작성하는 찬술자로 참여하였다. 이 종은 높이 118cm로 비교적 아담하고 단정하며, 그 형태는 일정한 너비를 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리며

아래쪽에서 벌어진 느낌이다. 종의 머리에는 용 두 마리가 용트림하는 모습인데 한 마리의 용머리는 파손되어 있다. 종의 상대에는 연꽃 무늬가 중대에는 보살상과 연꽃이, 하대에는 두 줄의 넝쿨무늬가 있다. 아직 북한에서는 이 유물이 국보나 준국보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見岩寺銘古見寺鐘, 1630년, 총 높이 97.2cm, 보물, 거창 古見寺 소장>



<과주 보광사 범종, 1634년>

한편 천보는 1619년 <봉선사명 현등사 범종>을 제작하는 데에 화주로서 참여하였다. 봉선사는 효령대군의 농장에 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천보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문에 ‘化主天寶謹作書刻’로 기록되어 있어 명문 작성에 활동하였고 그밖에 玄玉, 正會, 大元, 瑩仁이 동반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천보는 활동 범위를 경상도까지 넓혀 거창군 고건사까지 내려가 緇竹 및 得男과 함께 1630년 <見岩寺銘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1630년 거창 고건사 소장 범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실봉 천보의 작품이다. 그는 ‘圖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는 명칭으로 緇竹, 得男, 得一과 함께 1630년에 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雪峯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古見寺鐘으로서 검은 색조에 전체적인 외형은 한국 전통종 보다 중국종 계열을 따른 전형적인 작품이다. 불룩하게 원구형으로 솟아오른 천관 위로는 음통 없이 두 마리의 쌍용으로 구성된 용뉴와 그 바깥의 주위에는 사각으로 된 복판의 연화문을 上帶처럼 둥그렇게 시문하였다. 종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용기선 횡대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어 윗 단에는 위로부터 연판문대와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연곽대, 범자문과 대좌

위에 앉은 佛坐像을 번갈아 가며 시문한 모습이다. 특히 불좌상 옆으로 위패형의 범자문대를 두고 그 옆에 ‘六字光明眞言’과 ‘破地獄眞言’이란 문구를 도드라지게 새긴 것은 이후 조선 후기 범자 다라니의 선행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종신의 중단 아래로는 역시 3줄의 용기선을 둘러 3구로 구획하였는데 바로 아래에는 蓮唐草文帶를 둘러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종신 전면을 돌아가며 긴 내용의 양각명이 새겨져 있으며, 이 명문구 아래로 다시 1줄의 용기선을 둘러고 鐘口에서 조금 떨어진 상부 쪽으로 파도문과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격동적인 모습의 용무늬를 번갈아가며 뺄뺄이 시문하였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엽까지 활약한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은 중국종과 전통종의 형식이 혼합되는 혼합형 종이 널리 만들어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혼합형은 첫째 용뉴에 두 마리의 쌍룡으로 장식되고, 종신의 상부에는 상대 없이 梵字文이 둘러지는 예가 많다. 둘째 종신의 중단 쪽으로 내려와 연곽을 배치하고 이 안에 꽃 모양의 연봉오리[蓮蕾]를 장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좌와 하대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기적으로 17세기 범종의 경우 종구 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하대처럼 문양대를 장식한 예가 많고 18세기 범종은 옥천사종(1776), 신흥사종(1773)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대가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뉴의 형태상 쌍룡을 지닌 선암사종(1700), 청계사종(1701), 명주사종(1704), 도림사종(1706), 옥천사 대웅전종(1708), 천은사종(1715)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가운데 청계사종과 영국사종은 17세기에 제작된 선암사 대각암종(1657)과 능가사종(1698)의 용뉴처럼 정상 천개 위쪽 부분에 두 마리의 쌍룡이 서로 쟁취하는 독특한 모습을 갖춘 예이지만 앞 시기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이나 종신 전체를 빠짐없이 장식하는 모습은 이미 고려 후기의 연복사종(1346)에서부터 보이던 중국종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연판문, 중대의 보상화당초문, 하대의 파도문 등은 조선 전기 해인사 대적광전종(1491)의 문양을 계승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모습이다. 천보는 1634년 보광사종을 제작할 때 조역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장인을 이끌고 제작한 점에서 17세기 전반의 승장 사회를 이끌었던 우두머리 장인이다.

무엇보다도 천보가 주성한 현존하는 4기의 범종 중 파주 보광사 범종이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다. 설봉 천보가 제작한 범종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쌍룡의 종뉴를 매우 크고 역동적으로 조각하며, 종신에 굵은 횡선을 이용하여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고 그 내부 공간에 연화당초문, 사다리꼴의 연곽, 불보살입상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범자 그리고 수파나 구름 속에 생동감 넘치게 표현된 용문을 표현하며 긴 내용의 명문을 양각으로 새긴 것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1634년 보광사 범종의 외형적 특징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제작된 동종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서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범종, 1491년 해인사 범종 등에서 그 선행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 등 17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작되는 종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된다.

천보의 작품 가운데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건사 동종 두 작품은 이미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은 크기 면에서도 고건사 종과 거의 유사하고 문양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들보다 훨씬 고부조로 표현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1634년 보광사 동종은 한눈에도 조선 초기 범종양식을 따른 외래형의 종으로서 17세기 전반에 천보라는 뛰어난 승장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왕실에서 주성한 홍천사종이나 보신각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처럼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 대신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띠장식대를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외래유형에 속한다. 때문에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승장인 천보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을 비롯한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전라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장들인 김용암이 만든 담양 용흥사종이나 선암사종 및 김애립이 만든 고성 운흥사종이나 능가사종으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자료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 ○ 문헌자료

###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銘文>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 /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德仁師之/ 念盡誠竭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蓋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時警擊滅惡善/ 崇積若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參秩/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雙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 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옆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부처의 높으신 덕을 어찌 서로가 모르겠는가.  
청정적멸로 항상 남을 이롭게 하신다.  
자비와 영험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감응하시니,  
사람들마다 부처를 섬기고 복을 얻고자 한다.  
헐어졌던 것이 채워져 마치 꿈과 같지만  
달음과 미혹이 구분되어,  
설미, 덕인, 신관의 무리가 삼생의 서원을 심을 수 있었다.  
이에 부족하지만 불법이 어우러졌으니,  
신이 건너와 나에게 종을 만들라 청하였다.  
지나가는 시각 시각마다 쳐서 경계하고 악을 없애 선을 높이니,  
완성품이 쌓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으뜸이 되리라.

송정 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육 인전 응성 설암  
신중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험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범휘 가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침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군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범  
정 응성 성현

## ○ 참고문헌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아름, 「1898년 파주 보광사 불사와 불화」, 『마한백제문화』 39, 2022.
- 노정옥, 「한국 梵鍾 龍鈕조형 양식고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박태준, 「파주 보광사 감로탱 내의 중단(감로단) 연구」, 중앙승가대 석사학위 논문, 2022.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문석, 「조선시대 梵鐘을 통해 본 梵字」, 『역사민속학』 36, 2011.
-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 『강좌미술사』 38, 1993.
- 최응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1998.
- 황인규, 「파주 보광사의 역사와 위상」, 『대각사상』 12, 2009.

□

## ○ 현 상

<파주 보광사 동종>은 현재 경기도 파주 보광사 대응보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1995년 8월 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높이 94.9cm, 입지름 64.1cm의 크기로 종뉴(鐘紐)와 종신(鐘身)이 완형을 이루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종신의 명문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은 보광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1634년(인조 12) 7월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어, 천보(天寶)를 중심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이 청동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고 전한다. 보광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종은 현재까지 그대로 봉안되어 있어, 유물의 제작에 관한 내역과 소장 경위가 명확하다.

## ○ 내용 및 특징

### <동종의 외형과 양식>

<과주 보광사 동종>의 종뉴는 쌍룡(雙龍)으로 두 마리의 용이 고리를 이루고 음통은 보이지 않는다. 음통은 통일신라 범종부터 나타나는 한국종의 주요한 특징이며, 종뉴도 한 마리 용의 모습으로 만든다. 음통이 없고 쌍룡의 용뉴로 나타나는 범종은 중국종의 형식이며, 고려 후기 원에서 유입된 외래형 범종에서 시작되어 조선 초기에 다수 제작되었다.

보광사 동종의 쌍룡은 두 개의 뿔이 있고 발가락은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이며,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종을 매달 수 있게 하였고 맨 윗부분에는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용의 표정과 몸체의 묘사, 생동감 있는 표현 등에서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볼 수 있다.

종의 몸체는 세 줄로 만든 횡대를 둘러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였다. 상단에서 천판의 바로 아래인 어깨 부분에는 복련(覆蓮)의 상대(上帶)가 있다. 상대 일부는 일정하지 않은 문양 표현이 확인되고 형틀이 분리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주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 아래에는 연곽과 합장보살입상 4구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연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이며, 연화당초문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에는 만개한 연꽃 9개를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보살상은 원형의 두광에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오른쪽을 향해 서 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습이다. 보살상의 좌우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 한 글자씩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하단의 윗부분은 한 마리의 용이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조성 내력을 기록한 명문이 양각과 선각으로 표기되었다. 그 아래로 파도문과 용이 교대로 등장하는 하대(下帶)가 있는데, 종의 구연부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단의 위아래로 등장하는 용은 공간에 어울리게 도안되었고 구불구불한 신체의 움직임은 역동적이며, 하대의 파도문은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보광사 동종은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와 종의 몸체를 횡대로 구분하는 특징이 대표적인데, 이는 조선 초기에 성행한 외래형 종의 양식과 연결된다. 조선 초기

왕실에서 발원한 <홍천사명 동종>(1462년, 세조 8), <옛 보신각 동종>(1468년, 세조 14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1469, 예종 1), <낙산사 동종>(1469, 예종 1) 등은 모두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횡대가 있는 중국종에서 비롯된 유형이다. 이처럼 외래형 범종이 유행한 이후, 전통형 범종과 외래형 범종, 양쪽의 특징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 등 조선시대 동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보광사 소장품은 외래형을 계승한 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동종의 명문 내용과 장인>

<과주 보광사 동종>의 종신 하단에는 주종기(鑄鐘記)가 있어, 범종의 제작에 관한 여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盖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時警擊滅惡善」 崇積若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參秩」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雙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以上 陽刻)

平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以上 線刻)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시대 도선국사의 비보로 고령산 보광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찰이 모두 전

소되어 폐허가 되었다. 시간의 흐르고 사찰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종의 제작은 늦어졌고 1634년에 이르러 완성하게 되었다. 당시 해서 지역(지금의 황해도)의 승려 신관을 새롭게 화주로 선정하였고 사찰 내 승려 2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승장(僧匠) 천보(天寶)가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보조를 두고 승정 7년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었다.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역이 명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鑄成畝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를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종장의 직명과 이름이 나타난다. 설봉자 천보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활약한 승장으로, 다수의 동종을 제작하였다. <황해도 장연 금사사 동종>(1595,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가평 현등사 동종>(1619), <거창 고건사 동종>(1630), <함경도 안변 석왕사 동종>(1633, 현재 소실) 등 보광사 동종(1634)을 포함하여 5점이 알려져 있다. 범종의 봉안처는 대체로 황해도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어, 천보가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천보의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으며,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불보살상의 외형, 실담 문자로 표기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화려하게 장식한 운룡문, 연화문, 수과문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천보는 외래형 범종의 계통을 잇는 승장이며, 종신을 호화롭게 장엄하기 위하여 역량을 발휘했던 장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제작된 유물이다. 종뉴와 종신의 하단에 등장하는 용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역동적인 조각과 생동감 있는 부조의 표현을 보여준다. 유려한 모습으로서 있는 보살상과 연화문, 당초문, 수과문 등에서도 장인의 재능과 솜씨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천관과 상대 일부에 나타나는 주조의 결함은 유례없는 전란을 복구하는 17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결점은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당시의 여건과 사정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최웅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 미진사, 2022.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1996.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웅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대한불교조계종 정보조보존위원회, 1998.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 내용 및 특징

과주 보광사는 高嶺山에 자리한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창건은 신라 진성여왕 8년(894) 왕명에 의해 도선국사가 비보사찰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215년에는 원진국사의 중창하였고, 1388년에는 무학대사가 중창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란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1622년 雪眉, 德仁 두 스님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고 도솔암을 새롭게 지었으며, 1634년 동종이 제작되었다. 1740년 사찰 인근에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를 안장한 소령원의 능침사찰로 지정되어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결과 조선 말까지 흥선대원군과 고종, 명성황후 등 왕실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도 1. 과주 보광사 동종, 1634년, 천보 작>



<도 2. 가평 현등사 동종, 1619년, 천보 작>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 鑄成圖大匠 彌智山 雪峯子(天寶)를 필두로 尙倫, 善岑, 敬立 등의 주종장이 참여하여 제작한 종이다. 주성도대장으로 등장하는 미지산 설봉자는 1595년에 제작된 장연 금사사 동종(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종신에 새겨진 명문의 찬자(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로 처음 등장한다. 현등사 동종 명문에는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찬문을 지었고, 거창 고견사 동종에는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 있어 찬문을 짓고 종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보 이후 등장하는 승려 주종장으로는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과 부여 무량사 동종을 제작한 경우와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년) 등 8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인비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보는 17세기 전반기 승려 주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도 3. 거창 고건사 동종, 1630년, 천보 작, 보물> <도 4. 안변 석왕사 동종, 1633년, 천보 작, 현재 망실>

설봉자 천보의 범명 앞에 수식어로 등장하는 미지산은 양평 용문사가 있는 용문산과 같은 산으로, 그는 미지산을 본거지로 해서 활약했던 승려로 판단된다. 예로부터 미지산 일원에는 보리사(원경대사탑비), 용문사, 사나사(원증국사 석종비), 상원사 등 수 많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되었다.

과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 전반기 승장으로 활동한 설봉 천보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설봉천보의 작품은 거창 가평 현등사 동종(1619년), 고건사 동종(1630년) 등 국내에 3점이, 북한 금사사 동종(1595년)<sup>65</sup>, 안변 석왕사 동종(1630년, 현재 망실) 1점을 포함하면 모두 5점이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시기적으로 천보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천보의 종의 특징은 종의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상하와 용뉴를 틀을 이어 붙여 구조하는 분할구조법을 택하고 있다. 아마도 상단부의 복잡하고 섬세한 용뉴부분의 구조 결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완전한 구조 이어지지 못하고 어깨부분에 구조 결함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구조 결함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제작한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종은 천보작으로 알려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몸통 가운데를 3개의 용기선을 돌려 상하를 나누었다. 천판의 상부는 두 마리 용이 서로 몸통을 꼬아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종뉴가 만들어졌는데, 천판의 대부분을 여백 없이 용뉴로

65) 현재 금사사 종은 1595년 작으로 알려져 있으나(『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편)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67쪽), 종의 양식이 1619년의 현등사 종보다는 거창 고건사 동종이나 보광사 동종에 가까워 명문과 양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채웠다. 종의 상대에는 연판문을 돌려 장엄하였다. 연판문 바로 아래에는 4개의 사다리꼴의 연곽대와 9개의 연뢰, 연곽대와 연곽대 사이의 공간에는 육자대명왕진언(란차문자)와 파지옥진언(실담문자), 그리고 4구의 합장 보살입상을 배치하였다. 종의 배에는 3줄의 용기선대를 돌리고 그 아래 운룡문과 명문을 배치하고 다시 그 아래로는 운룡문과 파도문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여 하대를 이루고 있다. 고려 이전의 종과 달리 하대가 종의 입구에 붙어서 마련되지 않고 약간 위쪽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하게 솟은 천판의 형태에 용뉴도 상응하고 있는데,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용뉴를 형성하고 있다. 뒷발은 하늘을 향해 들어 여의주를 다투고, 앞발은 천판을 힘차게 내딛어 종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이며 오조룡으로 표현되었다. 천판과 연결되는 종의 어깨에는 3점의 내림연판무늬로 장엄하였는데, 가장 안쪽의 연판은 고사리모양의 머리를 맞대어 마무리하고 표면에는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듯 표현한 점이 상큼하다. 이러한 특색 있는 내림연꽃의 표현은 이 작품 외에도 가평 현등사 동종, 거창 고건사 동종 등 천보의 작품에서 널리 응용된 표현방식이다.

연화당초무늬로 꾸며진 사다리꼴의 연곽대는 종의 가슴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는데, 모두 4곳에 배치하였다. 연뢰는 활짝 핀 국화꽃모양의 받침 위에 씨앗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연곽대 사이에는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새긴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연봉을 받쳐 든 보살입상을 양각하였다. 보살입상은 늘씬한 신체비례를 갖추고 있고, 측면관을 하고 있으며 17세기 보다는 그 이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의 배 부분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적은 주종기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역동적인 용이 새겨져 있다. 용은 몸을 요동치며 여의주를 희롱하며 하늘을 나는 모습이며 사실적인 모델링을 보인다. 하대에는 율동감이 넘쳐나는 파도문과 종복에 새겨진 운룡문과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형태의 용이 비행하고 있다. 문양의 분할된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같은 문양판을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천보가 지은 주종기에는 종을 만들게 되는 배경과 과정, 주관자, 제작자 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 종에서 보이는 특징, 즉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여의주를 다투며 용뉴를 야무지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나, 종의 배 가운데를 3줄의 용기선대로 구획하여 상단에는 연곽대와 보살상,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이루어진 진언을, 하단에는 운룡문과 수파문, 명문대를 배열한 형식은 1462년 홍천사명 동종,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보물), 1491년 합천 해인사 동종 등 15세기 제작된 동종 양식을 천보가 숙지하고 이를 자신의 종 양식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가 활동 근거지였던 남양주 봉선사에 1469년에 제작된 동종이 유존하고 있었기에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아마도 봉선사 동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보가 만든 동종은 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둥근 곡선의 천부에서 종구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형태적으로 안감을 준다. 두 마리 교룡이 ‘八’형을 이루는 종뉴에서부터 만곡을 이루는 천판, 상대의 연판대, 上狹下廣 사다리꼴의 연곽대, 국화꽃 받침의 연좌와 꼭지모양의 연뢰, 연곽대 사이의 실담문자의 진언과 불·보살상의 배치, 종복의 세줄의 용기선대, 하대의 명문과 문양 등 시대를 불문하고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좌상 대신 하여 보살입상을 배치한다든가, 진언을 추가한다든가, 운용문 대신 넝쿨문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문양대를 추가한다든가, 세부 문양의 변화를 주든가 하여 제작 시점에 작가의 변화된 제작태도와 감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 문헌자료

###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 銘文>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說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1592)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1602)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1631)」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1633)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渴)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蓋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 〃 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 〃 警擊滅惡善」  
崇積若(苦)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緣錄」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 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双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 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遲」  
鑄成畺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 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8.
- 최응천, 「주종장 김애립의 생애와 작품」, 『미술사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 최응천, 「보광사 불교법구」, 『성보』 1,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1998.



## ○ 현 상

현재 사찰 대웅전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 동종>은 1995년 8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제작 후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移運)된 사례가 많았던 다른 범종들과는 달리 애초에 보광사 승려들을 주축으로 발원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상태 그대로 원 봉안처에서 잘 보존된 범종으로 의미가 깊다. 전반적으로 상부의 부분적인 결함을 제외하면 주조의 상태 역시 훌륭하고 오랜 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타종하며 사용된 범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상부 결함은 제작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획한 문양을 추가로 정성껏 새겨 넣어 주조 시 결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쇠물을 부어 만드는 범종 제작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범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많은 범종들에도 이러한 주조 결함은 다수 확인된다. 힘든 제작 과정과 필수적인 재료의 수급조차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타종하여 소리를 내는 범종의 고유한 기능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외관상의 부족함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도하게 크게 자리한 상부의 용뉴와 둥글게 솟은 천판으로 인해 육중한 상부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종신의 외형이 적절한 균형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균형으로 종의 전체적인 미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종신 표면 장엄에서는 유달리 도드라지게 양감을 드러낸 문양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장엄이 보다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명문의 글자 역시 정확히 판독될 만큼 정성을 들여 주조한 면모가 훌륭하다. 종신의 넓은 공간을 당시 신앙적으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문양으로 충전하면서도 여백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번잡하고 복잡함보다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한국미의 특질 역시 겸비하고 있다. 종을 타종하는 당좌(撞座)를 두지 않은 관계로 타종은 종신의 하단부를 치게 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하단부의 두께를 다른 부위에 비해 두 배 정도 두껍게 주조하여 기능성을 강화한 면 역시 탁월하다.



<도 1.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 ○ 내용 및 특징

예로부터 한국 범종의 독창성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종(725년)>과 <성덕대왕신종(771년)>에서 간취되는 향아리형 종신과 한 마리의 용뉴, 음통, 여백을 강조한 종신의 아름다운 장엄과 함께 은은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다. 이후 고려시대는 세련된 장식미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용뉴 및 입상 연판문대(立狀蓮板文帶) 등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서 한국 범종의 장엄 요소는 더욱 다채로워진다. 조선시대 들어 범종은 15세기 왕실을 주축으로 발원된 <흥천사종(1462년)>, <봉선사종(1469년)> 등 대형의 사찰 범종들이 새롭게 제작되는 과정에서 고려 말 유입된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하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웅장한 두 마리의 용으로 구성된 쌍룡의 용뉴 등장, 음통과 당좌가 사라지는 경향, 밀교적 성격이 짙은 육자진언(六子眞言\_옴마니반메훔)으로 대표되는 범자문(梵字文)의 표현,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 등에서 살필 수 있다.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영향으로 16세기 각 지방 사찰에서 제작된 중소형의 범종 역시 중

양을 지향하는 양식이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곡성 태안사종(1581년)>, <공주 갑사종(1584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과 새로운 양식이 혼용되어 범종 장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용뉴에서 쌍룡과 단룡이 동시에 등장하고, 사라졌던 음통이 다시 표현되며, 고려 후기 범종의 특징인 천판 주변의 입상연판문대를 두르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혼용에 있어서도 한국 범종의 고유의 여백과 안정적인 종신 미감에 대한 지향은 변치 않고 유지되며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른 조선시대 범종의 조형미를 완성하게 된다.

<과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그 제작 시기와 더불어 주성을 담당한 장인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의 활동기간(1595~1634)을 고려해보면 15~16세기 정립된 조선 전기 범종을 계승하고 임진왜란(1592년) 이후 조선 후기 범종의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점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천보가 장인(匠人)으로서 최고 경지에 이른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그 완숙성까지 겸비한 작품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둥근 천판 위에 크게 자리한 쌍용의 용뉴가 압도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은 서로 대칭해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입은 천판에 접해있지만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동시에 두 다리를 힘 있게 굽혀 발로는 천판을 짚 쥐는 듯한 형상으로 웅크린 모습임에도 응축된 기운이 드러난다. 몸체는 천판의 중심에서 서로 꼬아진 형태로 얽혀 있어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용뉴에서 용의 안면 표현과 역동성은 이전 시기 <갑사종(1584년)>의 용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중국종의 특징인 쌍용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고려시대 용뉴에서 보이는 세밀하고 역동성 있는 용으로 표현해 위압적이고 둔중한 중국의 용과는 차별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천보가 이 종보다 이전에 만든 <현등사종(1619년)>, <고견사종(1630년)>의 용뉴가 과도하게 몸체가 꺾이거나 종신과의 접합부가 다소 불안했던 것과 달리 한층 세련된 표현으로 전체 종신을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천판과 접한 상부 곡선면은 연속되는 연판문을 두르며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 천판 장식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역할로 종신과 연결되어있다. 그 표현의 디테일은 16세기 범종의 연판 장식보다는 확실히 뛰어나고 오히려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 보이는 수준 높은 세부 표현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숙하다.



<도 2. 파주 보광사 동종 상부 장엄>



<도 3. 파주 보광사 동종 종신 장엄>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은 상부의 위엄 있는 장엄과 함께 그 아래 연속되는 종신 표면의 구성과 장엄 역시 이 시기의 범종의 대표작이라 할 만큼 예술적 성취도가 높다. 종신에는 중앙에 굵은 3조의 횡대(橫帶)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를 분명히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문양을 배치했다. 종신 상부엔 큰 연곽 4개와 연곽과 연곽 사이 보살입상이 주문양으로 하고 그 주변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범자문이 있다. 연곽대 내부를 충전한 넝쿨문, 연곽 안에 배치한 9개의 연뢰 표현 역시 천보의 다른 범종들 장식과 비교해 표현력이 월등히 섬세하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인근의 왕실 발원 범종인 남양주 <봉선사종(1469년)>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한 면모를 알 수 있으며, 연곽대 장식 및 보살상과 범자문의 세부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그 구성요소에서 보이는 상호 연관성은 상당히 깊다.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배치된 범자문 곁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라는 제목을 각각 틀로 새겨서 명확히 진언의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이 두 진언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두터운 신앙층을 형성한 관음(觀音) 및 지장보살(地藏菩薩)의 대표 진언이며, 현실의 안녕과 내세의 평안을 기원하는 보살 신앙에 가장 밀접한 두 진언을 보살상과 함께 범종에 새겨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자문의 표현과 상징성의 강조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부터 정립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한 장엄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에서 정성을 기울인 범자문과 보살상의 표현을 통해서는 조선 후기 단순한 패턴으로 도식화되어 의미조차 상실해 버리기 이전 한국 범종 표면 장엄이 추구했던 신앙에 대한 수준 높은 표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신 중앙의 횡대 아래 하부에도 상부 장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문의 명문과 구름 사이로 힘차게 날아가는 용을 배치하였다. 결국 수호의 대표적인 상징인 용이 종신을 휘돌며 범종의 제작 경위를 상세히 적은 염원의 글귀와 의지를 견고하게 수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더불어 그 아래 인접해서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과 함께 3개의 구름 속 용들이 어울려 있어 천

상과 바다를 아우르는 용들의 위풍당당한 위상을 거듭 강조한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명문과 용들의 표현이 극대화되어 강조되는 표현 역시 천보가 만든 기존의 두 종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성이다. 명문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제작연도, 제작목적, 봉안처, 발원자 및 후원자, 제작 장인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범종에 국한된 내력만이 아닌 큰 전란(戰亂) 이후 보광사 재건을 위한 건축과 의식 범구들을 갖추었던 공덕의 역사, 그 과정에서 많은 승려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노력 등을 오늘날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풍성한 명문 구성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의 형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범종을 주성하면서 깨달음의 소리가 영원하길 기원했듯이 당시 모든 이의 염원에 대한 기록에도 뜨거운 쇳물을 부어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한 선조들의 신심과 정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도 4. 파주 보광사 동종 명문과 정신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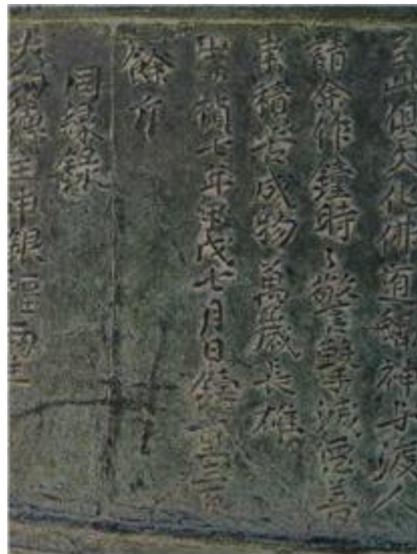
### <형식>

<보광사 동종>은 높이 94.9cm의 중형 종으로 실외 혹은 실내 의식용으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원통형의 종신(鍾身)에 상부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며 최상단의 천판(天板) 역시 반구형(半球形)으로 솟아 있다. 이 천판 위에 종을 거는 역할을 하는 용뉴(龍鈕)가 두 마리인 쌍룡으로 구성되어 큼직하게 자리한다. 종신의 표면 장엄은 다채로운 소재로 공간을 충전하여 나뉠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종신 중앙의 3선의 횡대를 통해 상부와 하부를 구획한 후 상부엔 상대(上帶), 연곽(蓮廓)과 연뢰(蓮蕾), 보살상(菩薩像), 범자문(梵字文) 등을 배치하고 하부엔 구름과 함께 하늘을 휘도는 역동적인 용과 함께 이 범종의 제작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명문(銘文)이 아주 선명한 글씨로 종신 하부 절반 이상을 두르며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종신 하단과 이격되어 표현된 하대(下帶) 내부 역시 용과 함께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으로 가득 충전하여 장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쌍룡의 용뉴, 당당하고 안정적인 원통형의 종신, 경쾌한 표면 장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명문의 존재 등으로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여 한국적인 조형 미감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던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17세기 범종의 대표작이다.

### <조성연대>

종신 하부에 새겨진 명문 후반부에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餘斤...”이란 내용을 통해 송정(崇禎) 7년(1634년) 조선(朝鮮) 인조(仁祖) 12년 7월에 주성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큰 병화를 딛고 사회 전반에 있어 민족 재건을 위한 동력을 결집할 시기로 불교계 역시 사찰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佛事)를 진행했던 정황을 이 범종을 존재와 명문의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도 5. 조성연대 명문부>

## 6. 불조삼경 (佛祖三經)

### 가. 심의사항

‘불조삼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불조삼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8.3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3.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6.27.~'23.7.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67, 석왕사
- 수 량 : 1책(합철본, 41장)
- 규 격 : 24.9×17.7cm(半郭: 20.0×14.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61년(공민왕 10)



<불조삼경>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嶽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하여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나아가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과 운흥사의 소장본보다도 인쇄가 선명할 뿐 아니라, 손·훼손의 정도에서도 완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根據 基準>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嶽寺에서 간행된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인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과 운흥사 소장본의 『佛祖三經』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불조삼경』은 한국에만 전하며,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불조삼경』도 몽산본의 계통을 잇고 있다. 국내에서는 1341년에 소백산 정각사에서 개판한 판본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 2종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신청본은 기 지정본보다 내용이 온전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선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불조삼경』은 元朝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년(1361)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으로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가장 앞부분에 至元 丙戌(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叙」(2장)를 시작으로 『불설사십이장경』(12장), 宋 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장수(張銖)의 「주위산경책서(注瀕山警策序)」(1장)와 『위산경책』 및 간행질(12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2건(국립중앙박물관 및 운흥사)이 전한다. 조사본은 기지정본에 비하여 인쇄 상태도 좋고, 보존상태도 우월하다. 또한 조사본에 비하여 시대적으로 늦은 1384년 간행된 판본 역시 3건(국립중앙박물관, 한솔종이박물관, 범어사)이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하여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書誌 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 記述>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高麗]

：[全州 圓峯寺]，恭愍王 10(1361).

1冊(41張)：四周單邊，半郭 20.0×14.9cm 內外，無界，8行17字 內外，註雙行，白口，上內向黑魚尾；24.9×17.7cm. 韓紙. 線裝(改裝).

標目：書誌記述法에 따라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을 統一 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함

表題：佛說四十二章經 (題簽).

卷首題：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

版心題：四十二章經，遺經，滄山.

卷尾題：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

譯註者：佛說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滄山警策(大洪嗣祖沙門守遂註).

內容：叙(德異，2張)，佛說四十二章經(13張)，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佛遺教經(12張)，注滄山警策序(1張)，滄山警策，刊行秩(12張).

口訣：墨書.

序文：[佛說四十二章經序]；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蘂運，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鉞梓名財施，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 叙。【牧叟】【蒙山】(佛說四十二章經經』頭部)

序文：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戒問四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

顧」 慚涼德常遵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 味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 (『佛遺教經』 頭部)

序 文: 注瀉山警策序;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自六祖而下有五派瀉仰居其一惜乎其後」 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 爲存亡瀉山之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 尚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 有舛錯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 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 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已未安居因學」 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之舛」 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 瀉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輝著見因以」 傳無窮而施罔極固不遑歎門人史德賢欲」 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瀉山警策』 頭部)

刊行秩: 右三經乃」 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 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 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 嶠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善 圖. (卷末)

刊 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嶠寺流益永祀者.

現 狀: 일부분 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목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所藏歷: 석왕사의 회주 영담(임학규) 선사가 은사 고산 혜원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함

既指定: 현재 신청본과 동일한 판본 2건(국립중앙박물관, 운흥사)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늦은 1384년판(국립중앙박물관, 한솔종이박물관, 범어사)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現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일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목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중국 元朝의 高僧인 蒙山 德異(1231~1308) 禪師가 釋迦와 祖師가 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佛書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의 42章 전체의 내용은

(01)出家證果, (02)斷欲絕求, (03)割愛去貪, (04)善惡並明, (05)轉重令輕, (06)忍惡無瞋, (07)惡還本身, (08)塵唾自污, (09)返本會道, (10)喜施獲福, (11)施飯轉勝, (12)舉難勸修, (13)問道宿命, (14)請問善大, (15)請問力明, (16)捨愛得道, (17)明來暗謝, (18)念等本空, (19)假眞並觀, (20)推我本空, (21)名聲喪本, (22)財色招苦, (23)妻子甚獄, (24)色欲障道, (25)欲火燒身, (26)天魔嬈佛, (27)無著得道, (28)意馬莫縱, (29)正觀敵色, (30)欲火遠離, (31)心寂欲除, (32)我空怖滅, (33)智明破魔, (34)處中得道, (35)垢淨明存, (36)輾轉獲勝, (37)念戒近道, (38)生卽有滅, (39)教誨無差, (40)行道在心, (41)直心出欲, (42)達世如幻 등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釋迦가 成道한지 40여 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拘尸那城 밖의 娑羅雙樹 사이에서 涅槃에 들러 할 때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警戒이자 마지막 說法이다. ‘『佛垂般涅槃教誡經』’, ‘『佛垂涅槃略誡經』’, ‘『佛臨涅槃略誡經』’이라고도 하며, 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하였다. 내용은 釋迦가 娑羅雙樹 아래에서 入滅할 것임을 밝히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였다. 우선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戒律의 모든 조항을 모은 戒本인 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戒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이 경전은 釋迦의 入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왔다.

『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高僧이자 僞仰宗의 開創祖로 알려진 滄山 靈祐(779~853) 祖師의 語錄으로 ‘『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며 威儀를 지키지 않는 등의 弊風이 심해지자 이를 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설법은 산문[長行]과 운문[重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간절하여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석서로는 宋朝 守遂의 『滄山警策註』 1권을 비롯하여 明朝 道霈의 『滄山警策指南』 3권 및 開訶의 『滄山警策句釋記』 2권 등이 있다. 『滄山警策』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警策함으로써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佛祖三經』에는 불교의 浩瀚한 내용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불교의 指針書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初學者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원조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년(1361)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 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하였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의 경우 後漢朝의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漢譯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姚秦朝의 鳩摩羅什의 漢역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滄山 靈祐(779~853)의 語錄이며, 이들 3종은 모두 宋朝의 守遂가 註釋한 것이다.

책의 구성은 至元 丙戌(1286)년에 蒙山和尚 德異가 지은 「叙」(2장)과 『佛說四十二章經』(12장), 宋 眞宗의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張銖의 「注滄山警策序」(1장)과 『滄山警策』 및 「刊行秩」(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表題는 題簽에 ‘佛說四十二章經’으로 墨書되어 있고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며, 版心題는 ‘四十二章經’·‘遺經’·‘滄山’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版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0.0cm 가로 14.9cm 내외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의 行字數는 8行17字 내외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판심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17.7cm이다. 지질은 韓紙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佛說四十二章經』의 頭部에는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 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 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 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 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 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 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 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 根器而有幸也大師者立雪斷臂求」 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 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藥運」 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 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 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 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 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 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 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 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 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 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鉞梓名財施」 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 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 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 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旧洞」 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 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 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의 「佛說四十二章經序」가 있고 『佛遺教經』의 頭部에는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 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 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 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 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 戒問四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 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顧」 慚涼德常遵

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 味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가 있으며, 『滙山警策』의 頭部에는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自六祖而下有五派滙仰居其一惜乎其後」 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 爲存亡滙山之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 尙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 有舛錯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 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 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己未安居因學」 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之舛」 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 滙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輝著見因以」 傳無窮而施罔極固不遑歎門人史德賢欲」 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의 「注滙山警策序」가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권말에는 “右三經乃」 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 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 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 嵩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善 圖”의 「刊行秩」과 이어서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嵩寺流益永祀者”의 刊記와 留板處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하여,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비구 行心이 발원하고 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尹善 등의 도움으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全州 圓嵩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은 宋·元板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충혜왕 복위 2년(1341)에 小白山 正覺社에서 간행된 판본과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 등이 있다.

## ○ 지정사례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현재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 판본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은 國家指定文化財 또는 地方의 有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공민왕 10년(1361)의 圓嵩寺 판본과 우왕 10년(1384)의 판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版式의 界線과 권말의 「跋文」 수록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佛祖三經』의 圓嵩寺 판본에는 版式에 界線이 없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없으나, 우왕 10년(1384)의 판본에는 版式에 界線이 있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과 운흥사의 소장본보

다도 인쇄가 선명할 뿐만 아니라, 손·훼손의 정도에서도 완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現況(2023. 5. 31. 기준)>

연번	판본	간행시기	간행처	간행기록	지정현황	소장처	비고
1	목판본	충혜왕 복위 2년 (1341)	正覺社	辛巳(1341)正月日 小白山正覺社開板	비지정	개인	
2	목판본	공민왕 10년 (1361)	圓嶽寺	至正辛丑(1361)六月六日重刊 留全州圓嶽寺流益永祀者	보물	국립중앙 박물관	
					보물	운흥사	
					전남유형	보림사	
					비지정	석왕사	지정신청본
3	목판본	우왕 10년 (1384)	불명	목은 이색 발(1384년)	보물	국립중앙 박물관	
					보물	한솔종이 박물관	
					보물	범어사	
					보물	동학사	
					충북유형	구인사	
					충북유형	개인	

###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嶽寺], 恭愍王 10(1361). 釋王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嶽寺], 恭愍王 10(1361). 국립중앙박물관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嶽寺], 恭愍王 10(1361). 雲興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不明], [禩王 10(1384)年, 李穡 跋]. 梵魚寺 所藏本.
- 경기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기도, 2020.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 2020.
- 박상국, 「불조삼경」 소견서, 2020.
- 박광현, 「불조삼경」 소견서, 202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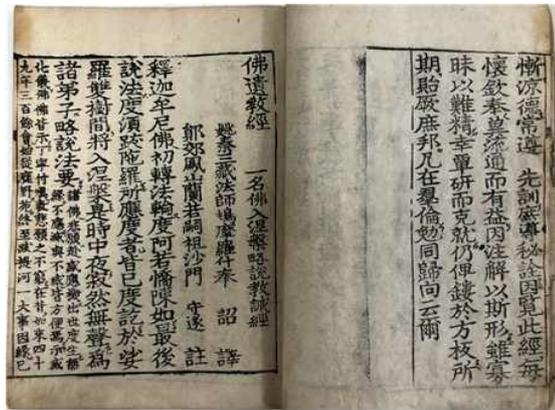
- 원각사성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 기 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석왕사의 회주인 영담(임학규) 선사가 은사 고산 혜원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한다(소장 경위서 참간).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卷末部>



<刊行秩(1)>



<刊行秩(2)>



## ○ 현 상

대체로 온전함

##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 / 守遂 註; 德異 編.

木板本.

全州: 圓嶺寺, 高麗 恭愍王 10(1361).

1冊: 四周單邊 半郭 20.0×14.9cm, 無界, 8行17字 註雙行, 上黑魚尾; 23.5×16.0cm.

[刊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同願比丘法空刊行.

敍: 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敍.

內容: 佛說四十二章經. - 佛遺教經. - 滄山警策.

석왕사 소장의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298)가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을 편집하여 간행한 판본을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嶺寺)에서 번각한 목판본 1책이다.

“불조”는 부처와 조사(祖師), “삼경”은 3종의 경전을 일컫는다. 몽산은 그의 법호이며 덕이는 출가 후에 얻은 법명이다. 몽산은 그 외에도 고균비구(古筠比丘), 전산화상(澗山和尚), 휴휴암(休休庵), 절목수(絶牧叟) 등의 자호도 사용하였다. 수선사 10세인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은 몽산의 법을 고려에 유통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몽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나 몽산의 저서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제경촬요(諸經撮要)』 등이 국내에서 간행 유통되는 등 그는 한국 불교의 간화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은 후한시대 가섭마등(加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 등이 처음으로 한역한 경전으로 부처의 짧은 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유교경』은 일명 『불입열반약설교계경(佛入涅槃略說教誡經)』이라고 하며 『유교경(遺教經)』으로 약칭한다. 내용은 부처가 열반 이전에 한 최후의 가르침이다. 『위산경책』은 위양종(滄仰宗)의 창시자인 위산(滄山) 영우(靈祐, 771~853)가 불도에 정진하는 이들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은 것이다. 앞의 2종은 중국 최초의 불경, 부처가 열반 직전에 남긴 최후의 불경이라는 시종(始終)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도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의 어록을 수록하여 선가(禪家)의 포용성을 수용하고 있다.

송나라의 수수(守遂, 1072~1147)가 이 3종의 불경에다 주석을 달았고, 원나라의 몽산 덕이가 편집하여 서(序)를 직접 붙인 것이 바로 『불조삼경』이다.

내용의 편성은 몽산 덕이의 서문, 「불설사십이장경」 본문, 「대종진종황제주유교경(太宗眞宗皇帝注遺教經)」, 「불유교경」 본문, 「주위산경책서(注滄山警策序)」, 「위산경책」 본문, 행심(行心)의 지(誌) 등 모두 4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



<지정신청본 『불조삼경』 표지>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불유교경」>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위산산책」>

권말에는 “1361년 6월에 중간하여 (목판을) 전주의 원암사에 두었으니 널리 유익하고 영원하기를 기원한다(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 留全州圓嵒寺, 流益永祀者).”는 발원자인 행심의 지문이 있다. 이어 동심 발원으로 간행에 참여한 범공(法空), 비용을 지원한 윤선(尹善) 등 간행을 주도한 인물들의 이름이 차례로 있다.

지정신청본의 앞표지에는 『佛說四十二章經』이라는 제침이 있는데, 오래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장책할 때 사용된 책사는 끊어져 없어졌으나 선장 형태의 윤곽은 명백하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먹색은 진하며, 인쇄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보아 판각 직후 또는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의 초기 인본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으며, 뒤쪽으로 갈수록 심해지나 본문의 손상은 없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권말에 있는 행심의誌>

뒤표지 면지의 내면에는 누가 언제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佛說一切法 湛然常寂滅 但信佛無言 可稱爲子期(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은 湛然하여 항상 적멸하시니 다만 부처님이 말이 없음을 믿으면 가히 種子期<sup>66)</sup>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는 주서(朱書)가 있다. 이 내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 권하 중에서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제21의 설의에 있는 글이다.

현재 동일한 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1981-1)과 전라남도 나주의 운흥사 소장본(2012) 등 2부가 있다. 지정신청본은 기 지정본보다 내용이 온전하고, 보존 상태 역시 좋은 편이다.

### ○ 참고문헌

- 『불조삼경』(나주 운흥사 소장본)
-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서』(경기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상백,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35, 2012, pp.155~178.

66)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듣는 知音者.

□

## ○ 현 상

### <書誌 事項>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1冊(41張) : 四周單邊, 半郭 20.0×14.9cm 內外, 無界, 8行17字 內外, 註雙行, 白口,  
上內向黑魚尾 ; 24.9×17.7cm. 韓紙. 線裝(改裝).

表 題: 佛說四十二章經 (題簽).

卷首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版心題: 四十二章經, 遺經, 滄山.

卷尾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譯註者: 佛祖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滄山警策(大洪嗣祖沙門守遂註).

內 容: 叙(德異, 2張), 佛說四十二章經(13張),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 佛遺教  
經(12張), 注滄山警策序(1張), 滄山警策, 刊行秩(12張).

刊 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 <現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석왕사의 회주 영담(임학규) 선사가 은사이신 고산 혜  
원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전한다.

책은 기본적인 지류유물에 나타나는 손상은 보이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  
호하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佛祖三經)』은 중국 元朝의 고승인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 선사가 석가와 조사가 설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이다.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성도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전 내용은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01)出家證果, (02)斷欲絕求, (03)割愛去貪, (04)善惡並明, (05)轉重令輕, (06)忍惡無瞋, (07)惡還本身, (08)塵唾自污, (09)返本會道, (10)喜施獲福, (11)施飯轉勝, (12)舉難勸修, (13)問道宿命, (14)請問善大, (15)請問力明, (16)捨愛得道, (17)明來暗謝, (18)念等本空, (19)假眞並觀, (20)推我本空, (21)名聲喪本, (22)財色招苦, (23)妻子甚獄, (24)色欲障道, (25)欲火燒身, (26)天魔燒佛, (27)無著得道, (28)意馬莫縱, (29)正觀敵色, (30)欲火遠離, (31)心寂欲除, (32)我空怖滅, (33)智明破魔, (34)處中得道, (35)垢淨明存, (36)輾轉獲勝, (37)念戒近道, (38)生卽有滅, (39)教誨無差, (40)行道在心, (41)直心出欲, (42)達世如幻 등이다.

『불유교경(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석가가 성도한지 40여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열반에 들러 할 때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경계(警戒)이자 마지막 설법이다. 이 경전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것으로, 『불수반열반교계경(佛垂般涅槃教誡經)』, 『불수열반약계경(佛垂涅槃略誡經)』, 『불임열반약계경(佛臨涅槃略誡經)』 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모든 조항을 모은 계본(戒本)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계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위산경책(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고승이자 위양종(僞仰宗)의 개창조로 알려진 위산 영우(滄山靈祐, 771~853) 조사의 어록으로 『위산대원선사경책(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자 이를 경책(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불조삼경』은 불교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 『불조삼경』은 元朝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1361)년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으로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가장 앞부분에 至元 丙戌(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叙」(2장)를 시작으로 『불설사십이장경』(12장), 宋 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장수(張銖)의 「주위산경책서(注滌山警策序)」(1장)와 『위산경책』 및 간행질(12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表題는 題簽에 ‘佛說四十二章經’으로 墨書되어 있고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滌山警策’이며, 版心題는 ‘四十二章經’·‘遺經’·‘滌山’이다.

版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0.0cm 가로 14.9cm 내외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의 行字數는 8行17字 내외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판심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17.7cm이다.



책의 본문 가장 앞머리에는 몽산화상 덕이의 서문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蘂運，公滌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滌山因，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滌山警策謂之佛，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鉞梓名財施，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



조사본 『불조삼경』의 끝부분에는 간행과 관련한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과 시주질 등이 수록되어 있다.

右三經乃」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嵩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同願比丘 法空 刊行」助緣居士 尹善 圖”



이 기록을 통하여 조사본 『불조삼경』은 비구 행심(行心)이 발원하고 법공(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윤선(尹善) 등의 도움으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全州) 원암사(圓嵩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과 같은 고려시대의 판본으로는 현재 3종만이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는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정각사(正覺社) 판본으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峯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이 있다.



<우왕 10년(1384) 판본>



<조사본(1361년)>

원암사 판본과 우왕 10년(1384)의 판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판식의 계선과 권말의 발문 수록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원암사 판본에는 판식에 계선이 없고 권말에 익대(益大)의 발문이 없으나, 우왕 10년(1384)의 판본에는 계선이 있고 권말에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 ○ 지정사례

- 보물 불조삼경(1981.03.1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2012.02.22.지정/전라남도 나주시 운흥사)
- 보물 불조삼경(1981.03.1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1995.07.19.지정/강원도 원주시 한솔종이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2007.09.18.지정/부산광역시 범어사)

### ○ 참고문헌

- 경기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기도, 2020.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 2020.

# 검 토 사 항

#### I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사천왕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조사경위 및 지정기준

#### 가. 조사경위

- 전라남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한('19.9.18.) '영광 불갑사 목조 사천왕상'에 대하여 2021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21.8.18.)에서 검토한 결과 '동종문화재 비교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를 개최하여 '구례 화엄사 소조 사천왕상' 등 12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이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6.13.)이 있어 대상을 확대해 총 13건을 조사함

#### <조사대상>

\* 지정조사 순서순

연번	문화재명	조사일자	비고
1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22.4.21.	소위원회 선정
2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22.5.30.	소위원회 선정 *복장유물 조사('23.1.27.) / 순천 송광사
3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22.5.30.	소위원회 선정
4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22.5.31.	소위원회 선정
5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22.7.4.	소위원회 선정
6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22.7.5.	소위원회 선정
7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	'22.7.28.	소위원회 선정
8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22.9.13.	소위원회 선정 지자체 신청('19.2.25.) *복장유물 조사('23.9.19.)
9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22.10.25.	소위원회 선정
10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22.11.22.	소위원회 선정
11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23.1.10.	지자체 신청('22.6.13.)
12	고창 선운사 소조사천왕상	'23.1.26.	소위원회 선정
13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	'23.2.28.	소위원회 선정

- 2023년 동산문화재분과 제2차 소위원회('23.2.28.)를 개최하여 부의 대상을 선정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등 12건 부의)하고 지정기준을 설정함

\* '고창 선운사 소조사천왕상' 제외(1971년 작)

※ 사천왕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 ①혹은 ②+③에 해당할 경우 지정

①17세기 중엽 이전 작품으로 전란 이후 재건 불사 및 불교 중흥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

②17세기 후반 작품으로 그 구성이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은 작품

③17세기 후반 작품으로 재료, 기법, 도상, 양식 등에서 시대성 또는 작가의 유파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

※ 단, 동일 유파의 작품이 다수일 경우 가장 확실하고 대표성 있는 작품으로 선정

## 7.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求禮 華嚴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求禮 華嚴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5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전반, 1632~1636년 추정)
- 제작자 : 미상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5m에 이르는 거대한 규격에 사실적인 조각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네 구 모두 의자에 앉은 자세에 방형의 큰 얼굴과 당당한 신체, 정면 또는 사선으로 처리된 다양한 시선, 역동적인 동작 등이 특징이다. 부릅뜬 눈과 큼직한 코, 화문과 구름, 봉황, 용 등이 장식된 크고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발 밑에는 생령좌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전체적으로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도상 및 형식 등 기본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이 보당과 망구스인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무릎을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점과 더욱 커진 팔의 동작성과 정교성을 가미해 역동성이고 사실적인 사천왕을 연출한 점에서 조형적인 차별성을 두었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랐다. 즉,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향 좌측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과 망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북→동→남→서방의 순서이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내부 복장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화엄사는 백곡 처능의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을 비롯한 사적기의 내용을 통해 1630~1636년 경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목심에 흙을 덧바른 소조상으로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과 재질 및 지물, 양식적 특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벽암 각성에 의한 화엄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17세기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큰 규모에 사례가 적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조형적 우수성을 갖춘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표준작이라 할만큼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보관의 형태, 갑옷의 형식과 문양, 착의법, 요대와 장신구, 지물 등의 측면에서 네 천왕이 유사하면서도 각각 개성있게 변형을 주고 있어 세부장엄을 동일하게 처리한 다른 사찰 천왕문의 사례들과는 비교가 된다. 또한 거의 동일한 도상과 양식으로 여수 홍국사 사천왕의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유형이 17세기 전반 표준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통적인 탑을 든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서방광목천왕으로 조성하는 대신에 티베트 불교도상에서 영향을 받은 서수(瑞獸)를 데리고 있는 도상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천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채색이 어느 정도 원형을 계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천왕상의 얼굴색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피부톤에 변화를 준 것은 다른 사찰에서 같은 피부톤으로 채색한 사례들에 비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천왕이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 역시 천왕문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각도로 생각되어 가장 이상적인 형식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 사천왕 발 아래의 악귀들이 보이지 않아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들도 악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북방다문천왕의 비파는 실제 비파처럼 내부가 비어있지는 않지만, 비파의 목과 줄감개통이 만나는 원산(너트)이 실제 비파처럼 돌출되어 있어 현이 걸쳐있는 구조이다. 또한 줄감개통도 제대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경우는 목에 줄이 떠 있을 수 있도록 브릿지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지만, 화엄사 북방다문천의 비파의 구조가 가장 사실에 가깝다.

옷주름이나 옷자락의 펄럭이는 부분이 도식적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끈이나 띠를 묶은 표현도 마치 실제로 매듭지어진 것처럼 사실적이어서 세부 묘사에 세심한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사천왕의 옷자락 등을 천왕문 상부 부재에 걸어두기 위해 연결한 철근 등은 현대적인 와이어로 걸려있는 상태에 비해 원형에 가까워, 추후 와이어로 결구된 다른 천왕문의 경우 복원고증에 참고가 된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제작연도, 제작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특이하게 여수 홍국사상과 동일한 범본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보

관의 세부 장식 등의 남아있는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발 아래의 악귀들이 없는 것이 원형인지, 혹은 유실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범본인 흥국사 역시 없는 것으로 보아, 유실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보존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수 흥국사 천왕상은 악귀가 없는 대신 천왕상이 봉안된 바닥 전면을 소조로 만든 물결문으로 메운 반면, 화엄사 천왕문의 바닥은 마루바닥이 노출되어 있어, 만약 악귀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화엄사 천왕문의 바닥 역시 소조 물결문으로 장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천왕상의 앞부분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뒷부분은 소조의 표면이 박락되어 내부 흙과 충전재인 새끼줄 등이 노출된 부분도 있어 차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선후기 사천왕 도상의 표준형으로서 화엄사 사천왕상은 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에서 보이는 위엄과 기품이 넘치는 표현양상에서 화엄사가 중창불사가 시작되던 1632년부터 1단계 불사가 마무리되는 163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화엄사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으로는 청현, 영이, 인균, 응원 정도인데, 상에서 보이는 시원하고 위엄 있는 이목구비와 중량감 넘치는 조형미, 그리고 사천왕상의 손의 위치와 시선처리, 갑옷의 표현, 持物을 취한 자세 등은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이나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사천왕상도 당시 벽암문도의 조각승 중 화엄사 일원에서 활약하던 응원과 인균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제작사례가 드물고 사천왕상으로 갖춰야 할 기백과 기품, 뛰어난 조형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곳곳에 균열과 안료와 소지층의 탈·박락 등 손상이 확인되므로 정밀진단을 통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과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과 비교할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조각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더불어 임진왜란 후 전국의 사찰이 중건되던 시기, 가장 많은 불사를 주도했던 벽암각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교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상이다. 소조불상은 흙이라

는 재료의 특성 상 유래가 많지 않고 훼손이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조사보고서



## ○ 내 력

구례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서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십찰 중의 한 곳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물론 주요 정보유산들이 시대별로 많은 사찰로도 유명하다. 화엄사의 내력과 중창 등을 다룬 사적기도 전한다. 현재는 없어진 중관 해안(中觀 海眼, 1567~?)의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여기에 발문을 붙인 백암 성충(柏庵 性聰, 1631~1700)의 1697년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1697년, 33.7×26cm, 화엄사정보박물관), 1740년 이후의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 필사본』 등이 전한다. 그리고, 백곡 처능(白谷 處能, 1617~1680)이 쓴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도 중요하다.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는 벽암 각성(1575~1660)이 1626년 인조로부터 받은 시호이다.

이 기록 가운데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화엄사 중창에 대한 내용이 주목하다. 백곡 처능의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에는 ‘壬申年(1632년)에 화엄사를 수리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성대하게 총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한국불교전서>, 동국대출판부, 2015).

즉, 화엄사는 1632년 벽암각성의 주도하에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남아 있는 대웅전은 1636년, 불단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635년에 제작되어 중창불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례 화엄사는 벽암 각성의 주도하에 1630년 경부터 1636년까지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창 시기에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1).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잘 보전되어 있지만 훼손된 부분도 많은 편이다. 천왕상의 뒷면을 중심으로 소조편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이에 내부 목심과 철못이 표면에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앞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밑면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묵서도 남아 있다(도2).



<도1 화엄사 천왕문>



<도2 뒷면 훼손 부위와 밑면 묵서(남방)>

### ○ 현상과 특징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은 5m의 대형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붙여 만든 소조상이며, 훼손된 부분을 통해 소조토에 새끼줄을 섞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의 무게는 천왕문의 천장과 뒷면에 철심으로 상과 서로 고정하여 지탱하였다. 사천왕은 천왕문의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가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안치되어 있다(도3). 의자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나무로 짜 맞춘 튼튼한 구조이며, 의자 밑 부분은 막혀 있다. 사천왕은 얼굴 모습의 볼륨감과 표정 묘사가 뛰어나며, 대형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 부의 비례가 잘 맞아 균형잡힌 모습이다. 자세는 정면 또는 사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특징이며, 남

방천왕은 측면을 향해 용을 무섭게 노려보며 제압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사천왕은 모두 낮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나무로 만든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 화문, 용, 봉황, 새, 구름 등의 장식을 만들어 보관과 두꺼운 철사로 고정하였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위로 올라가는 구불거리는 관대를 두었으며 머리카락은 귀 중간을 감으면서 흘러내려 어깨에 늘어졌는데 두 가닥은 위로 솟아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은 방형의 넓직한 형태에 두 눈을 크게 뜨거나 부릅떠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다. 콧망울이 넓은 코, 미간과 이마에는 굵은 주름을 표현하여 인상적인 표정을 연출하였다. 균형 잡힌 당당한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었으며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 상갑, 허리띠 등을 차용하였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에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솟아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다.

천왕상의 발 밑에 생령좌들이 없는데 이 점은 매우 특이하다. 생령좌가 없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구례 화엄사와 여수 흥국사가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북방



동방



남방



서방

<도3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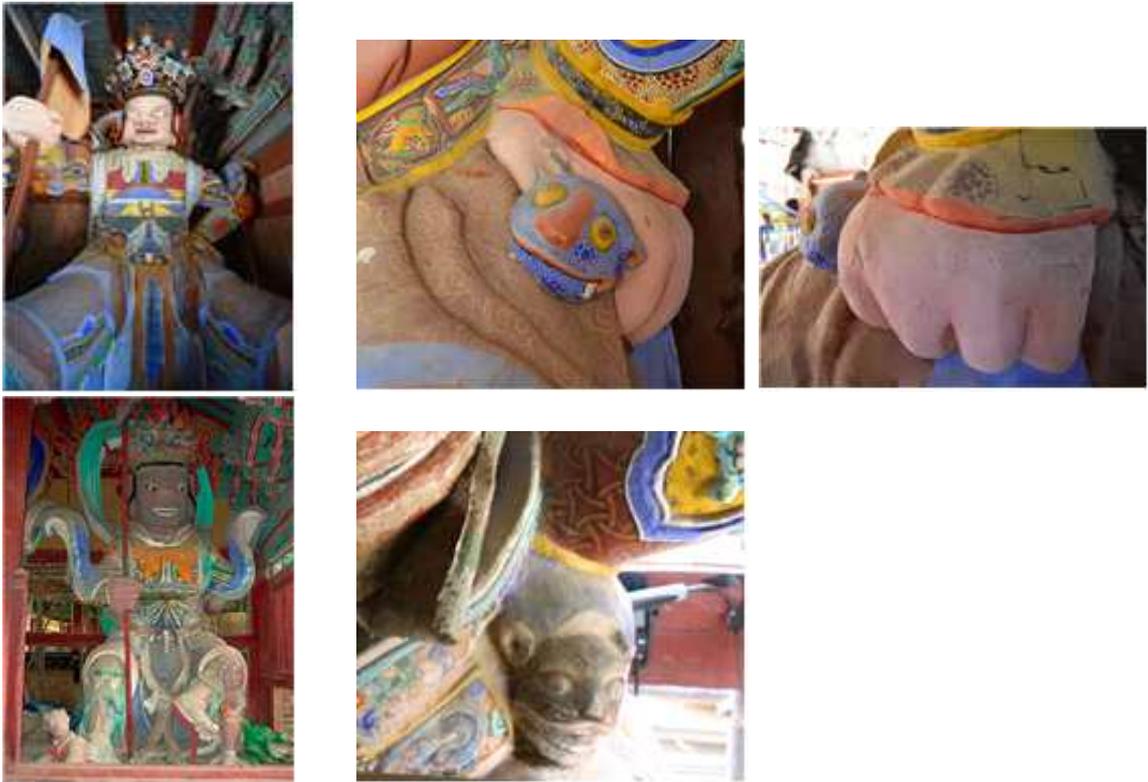
사천왕상의 배치는 오른쪽(향 우측) 부터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향 좌측)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망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시계방향으로 북→동→남→서방의 순서로 안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이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순천 송광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과 배치는 물론 사천왕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는 재료는 물론 자세와 지물, 방형의 얼굴 형태, 찡그린 표정과 이마의 주름, 콧방울을 넓고 두텁게 표현한 점, 위로 솟은 어깨 위의 머리카락, 목에 두른 스카프까지 유사하다(도4). 또한, 서방천왕의 지물인 망구스의 목을 허리에서 잡은 자세 및 짧은 귀에 동그랗게 뜬 눈, 밋밋한 머리 형태의 망구스 형태까지도 같다(도5). 이는 화엄사 사천왕상이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그러나, 화엄사 사천왕상과 송광사 사천왕상의 조형적 차이점도 발견된다. 송광사 사천왕상의 경우 위로 치솟은 소매부리가 크고 과장되었으며 자세는 정면 위주에 소극적 자세가 특징이다. 반면, 화엄사 사천왕상은 전체적으로 유연하고 사실적이며 무릎을 더 넓게 벌리고 팔의 동작성을 크게 하여 자연스러우면서 역동성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사천왕의 자세나 동작성은 1649년에 조성된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과 좀 더 비슷하게 보인다(도 4). 예를 들어,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의 경우 시선을 용을 향해 사선으로 두고 여의주를 든 팔을 쪽 뺀어 용을 제압하는 동작성은 완주 송광사 사천왕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

명칭 및 제작시기, 조각승	동방천왕 (칼)	남방천왕 (용, 여의주)	서방천왕 (당, 망구스 또는 탑)	북방천왕 (비파)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응원, 보물)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1632년 경)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49년, 보물)				

<도4 17세기 전반 소조사천왕상 비교>



<도5 구례 화엄사(상)와 순천 송광사(하)의 서방광목천왕 망구스 비교>

따라서, 화엄사 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순천 송광사와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이 만들어진 1628년에서 164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화엄사 중창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중창불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1632~1636년에 제작되었을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의 제작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현 상

화엄사 천왕문은 벽암 각성의 주도로 이루어진 1630~1636년의 중건 기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지붕 건축이다.[도 1] 화엄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축선으로 보았을 때 남쪽에서 다소 서쪽으로 치우친 좌향을 하고 있으며, 천왕문 역시 같은 좌향의 축선에 놓여있다. 천왕문으로 진입하면 건물의 동쪽인 우측의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인 좌측의 안쪽에는 광목천왕, 바깥쪽에는 증장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방위로 보면 북방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방위의 천왕들을 이동시켜 배치한 조선시대 천왕문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도1 화엄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화염보주가 상단을 장엄했고, 그 아래로 가운데의 푸른 봉황과 좌우의 흰 학이 날고 있으며, 보관의 정면 중앙에는 황룡의 우측(향좌측·북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측면으로 묘사되었다.[도3] 이 주변으로는 꽃을 위에서 본 모양의 장식이 구름문양과 함께 달려있다. 그중에서 꽃잎이 네모난 모양으로 펼쳐진 장식은 다른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어서 눈에 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다른 사찰의 천왕상들은 이 띠가 두껍게 표현된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매우 가느다란 띠로 표현된 것이 다르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도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며,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도 보살상에서의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한 가닥만 귀를 덮고 있는 점,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둥글게 한번 감긴 다음 마치 달팽이 더듬이처럼 두 갈래의 끝이 솟아있는 점이 특이하다. 머리카락의 울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주름살 등은 없어 비교적 젊은 인상을 주는데, 양쪽 눈썹이 굵고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는데 끝이 갈고리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간에는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노려보거나 혹은 찌푸릴 때 나타나는 주름이 U자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콧등의 뿌리 부분이 한번 주름진 다음 크고 몽툰한 콧등이 이어진다.

얼굴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천왕문의 출구 쪽을 바라보는 듯 고개를 살짝 틀고 있다. 눈꼬리와 입술이 모두 위로 추켜올라가 있는데, 눈은 부릅뜬 모습이고, 입술은 앞니만 드러나게 웃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친근한 인상을 합쳐놓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2 북방다문천왕상>

<도3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도4 북방다문천 상체 세부>

일반적으로 천왕의 목은 힘줄이 잔뜩 서있는 모습이 강조되지만 여기서는 목둘레에 두른 스카프가 다른 사찰의 천왕들에 비해 폭이 넓은 스카프여서 목과 갑옷의 흉갑을 넓게 가리고 있다.[도4] 흉갑은 가운데에 띠를 두르고 끈으로 묶었는데, 이 띠 윗부분은 소슬금문, 아래는 어린문(魚鱗紋)으로 꾸몄는데, 돈을새김이 아니라 채색으로만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다. 어깨를 덮는 상박갑 및 허벅지를 가리는 군갑(裙甲)도 모두 어린문으로 꾸몄는데, 어린문의 경우 상박갑만 푸른색이고, 다른 부분은 갈색으로 채색되었다.

상박갑의 상단은 황색의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도5]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이 소매자락은 붉은 색으로 채색되었고, 더불어 글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목숨 수(壽)’의 도안을 간략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함께 펼쳐지는 옷자락은 소조상으로서의 구조적으로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매에 고리를 달아 긴 철근을 이어 천왕문의 상부구조에 걸어두었다.[도6] 다른 천왕문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대적으로 제작된 와이어를 이용해 매달아 놓은 곳도 있는 반면, 여기서는 전통적인 철근을 이용해 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에 두른 요대의 버클인 대구(帶鉤)는 정면에서는 지물인 비파에 가려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다른 천왕들과 마찬가지로 요대의 중앙을 물고 있는 사자 혹은 해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청색으로 채색되었다. 요대의 각 마디는 황색의 사자, 청색에 오방색 깃털을 지닌 봉황 등으로 입체적이면서 화려하게 꾸몄다. 그 아래로는 흰색의 띠 두 가닥이 흘러내리다가 X자형으로 교차되며 바닥에 늘어뜨려지고 있다.[도7]



<도5 북방다문천 상박갑 세부> <도6 북방다문천 상체 반측면> <도7 북방다문천 하체 옷자락>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다른 사찰의 북방천왕과 비교해보면 비파의 크기가 천왕의 크기에 비해 다소 작은 느낌이다. 이렇게 작은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은 북방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는 손이 실제로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손 안에 들릴 수 있는 비파의 크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통 오른손은 비파의 현을 튕기고, 왼손은 비파의 지판 부분을 잡고 있는데, 화엄사 북방천왕은 오른손이 비파의 목 가까이를 잡고 있고, 일부의 손가락이 지판을 짚을 수 있는 위치이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마치 우쿨렐레와 같은 작은 악기를 다룰 때의 자세로도 볼 수 있고, 북방천왕의 손의 간격은 원래의 모습인 것 같으므로, 이러한 자세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파의 중간에는 흰 칠이 된 부분에 코끼리 눈 같은 것을 그려 비파의 울림구멍을 표현했는데, 실제 비파처럼 구멍이 뚫려있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 형식인데, 비파 끝의 줄감개통을 실제로 파고 그 안에 줄감개를 달아 현을 고정하고 있다.[도8] 또한 원산(nut) 부분도 실제 비파와 동일하게 돌출되도록 하여 여기에 현이 걸쳐지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실제 비파의 생김새에 대한 고증이 충실한 비파로 볼 수 있다.



<도8 북방다문천 비파 줄감개통 세부>



<도9 북방다문천 하의, 슬갑과 신발 세부>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군갑 아래로는 황색에 꽃무늬가 그려진 바지를 입고 있으며, 무릎에서 이 바지를 붉은 끈으로 묶었다.[도9] 아마도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실제 이렇게 갑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바지 아래의 종아리 부분에는 정강이를 보호하는 슬갑을 착용하고 있다. 발목에는 양쪽 테두리가 굵은 금색의 돈을새김이 된 발찌를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겉면이 주로 줄무늬로 꾸며진 형태로서 신발끈 매는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연속된 물방울 무늬가 길게 이어져 있다. 신발 끝 부분, 즉 정면은 여의두문으로 마감되었다.

북방천왕의 측면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옷주름을 표현했는데, 옷자락 틈에 마치 두 개의 골뱅이 껍질처럼 생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도10] 이것이 단순히 옷자락이 말린 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과 연관된 표현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도10 북방다문천 측면의 옷자락 처리>



<도11 북방다문천의 앉은 자세와 바닥>

일반적으로 천왕의 발 밑에는 악귀들이 표현되는데, 화엄사 천왕문의 천왕상들에는 이 악귀가 남아있지 않다. 천왕의 자세를 보면 발을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왼발은 살짝 들고 있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현재는 천왕문의 마루바닥에 발이 닿아있다.[도11] 만약 원래는 악귀가 있었다면 왼발은 공중에 떠 있으므로

그 사이에 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다. 현재는 이렇게 발을 받칠 악귀가 없어 발 아래에 기둥처럼 받침을 달아 발을 들고 있다. 반면 오른발의 경우는 발이 바닥에 닿아있어 그 사이에 악귀가 들어갈 틈이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원래부터 악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바닥이 지금보다 더 낮았다면 악귀가 바닥과 천왕의 발 사이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천왕의 좌우에서 내려온 옷자락인 피건(被巾)이 다른 경우에는 바닥에 더 길게 늘어뜨려져서 천왕의 전면부까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측면에서 짧게 마무리된 것도 바닥면이 원래보다 높게 마감되면서 바닥에 흘러내린 옷자락 부분을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염사 사천왕상은 여러 면에서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홍국사 사천왕상도 천왕 발 아래에 악귀가 없다. 두 사찰의 천왕문이 우연히 동일하게 악귀들이 유실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이 두 계통의 천왕상은 악귀가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래부터 악귀가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고려해볼만 하다.

어깨에 걸친 피건은 등 뒤에서는 바람에 나부끼듯이 위로 솟구쳐 있고 여기에 화염문이 붙으면서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6] 이 옷자락은 가장 상단부가 천왕문의 측벽 기둥에 달린 가로부재에 고정되어 있다. 이 상이 소조상임을 감안할 때 천왕문과 분리가 매우 어려워 보여 현재로서는 천왕문의 건립과 사천왕 조성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얼굴표정이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며, 천왕문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을 내려다 보고 있는 듯하다.[도12] 지물로는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마치 당장이라도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듯이 어깨를 높이 들어 칼을 들고 있으며, 반면 왼손은 허벅지 위에 살짝 들고 있는 상태로 양쪽 어깨의 높이차가 크다. 칼은 손잡이 끝이 둥글게 말려 있어 장식적이지만 코등이 부분은 유실되어 없다. 칼날은 푸른색으로 채색된 상태다.

한편 측면에서 보면 흘러내린 옷자락이 북방천왕에 비해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옷주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북방천왕의 옷주름처럼 되어 있던 것이 수리 과정에서 간략하게 마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대의 대구는 연두색에 점박이 문양이 있는 사자, 혹은 해태의 얼굴이고, 요대의 마디는 다양한 색채의 용, 푸른색 사자, 그리고 끝단은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다.[도13] 대구의 사자는 아래턱에 흰 끈을 물고 있는데 턱 양쪽으로 흘러내린 끈이 중간에서 X자형으로 매듭지어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이러한 형식은 북방

천왕과 동일한데 다만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가려지지 않아 확인이 용이하다.



<도12 동방지국천>      <도13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14 동방지국천 뒷면 옷자락>

동방천왕의 뒷면이나 혹은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손바닥 부분은 소조의 표면이 박락되어 있고, 뒤쪽으로 휘날리는 피건 자락의 경우는 표면이 박락된 사이로 진흙을 고착하는 새끼줄 등이 일부 드러나 보인다.[도14] 표면이 박락된 곳은 모기장 같은 철망으로 임시적으로 감싸서 추가적인 박락을 보호하고 있다.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장엄요소는 대동소이하며 얼굴표정에 있어 입술의 양끝을 더 아래로 쳐지게 하여 힘을 주어 꼭 다물고 있는 인상을 강조했다.[도15] 현재의 채색이 어느 정도 원형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부색의 경우 맞은편 북방·동방천왕에 비해 남방 및 서방천왕은 더 붉은빛이 도는 살색으로 채색했다. 지물로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이 자세도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양쪽 팔을 넓게 벌려 다소 과장된 자세로 들고 있다. 오른손에 잡고 있는 용은 황룡이며 몸에 주황색 점박이 문양이 시문되었다.[도16] 천왕의 팔뚝을 몸으로 휘감고 있는데, 용의 뿔, 뿔, 귀와 혀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더불어 다른 천왕들과 달리 양쪽 다리의 군갑과 군갑 사이에 마치 담요를 덮은 듯 푸른색 천이 걸쳐져 있다.[도17] 이러한 착의법은 화엄사 천왕문에서도 유일한 모습이고,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서도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이 천의가 있으므로 해서 요대에서 흘러내린 흰 띠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꼬이면서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위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인다.



<도15 남방증장천> <도16 남방증장천의 지물인 용> <도17 남방증장천 하체 세부>

서방광목천은 마치 맞은편 북방천왕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입을 벌려 고함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도18] 갑옷 착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방천왕은 다른 천왕과 달리 동물가죽 형태의 장식을 매달고 있는데, 이런 동물가죽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요대에 있는 대구에 달린 고리에 이런 가죽이 매달려 있는 것에 비해, 화엄사 서방광목천은 흉갑을 두른 천을 묶은 흰 끈의 매듭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이 고리에 꿰어있는 모습이다.[도19] 또한 동물가죽은 좌우대칭으로 코와 눈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턱 안의 이빨 및 뒷다리까지 표현되어 있다. 마치 너구리과의 동물가죽처럼 보이는데, 이마 부분에 하나의 뿔이 돋아난 흔적이 있어 현실적인 동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방천왕의 지물은 원래 경전에 따라 북방천왕의 도상에 해당하는 보탑과 당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탑 대신 사자처럼 생긴 푸른 동물을 왼손으로 잡아 허리에 품고 있다.[도20] 이러한 도상은 티베트 불교도상에서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몽구스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있는데, 그 끝은 삼지창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걸은 푸르고 안은 붉은 천이 마치 술장식처럼 달려 나부끼고 있다.



<도18 서방광목천>

<도19 서방광목천 하체 세부>

<도20 서방광목천 지물인 서수>

□

○ 조사내용

화엄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지리산 내의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주요 전각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소실된 전각과 예배존상의 중창은 17세기 들어서서 본격화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벽암각성이 있었다.

1592년(선조 25)에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화엄사에서는 승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주지였던 雪弘은 승군 300여 명을 규합하여 호남 일대로 진격하는 일본군과 맞서 楡谷의 石柱鎭에서 싸우다 전사하였고 1593년 일본군은 화엄사의 전각 500여 칸을 소각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장육전의 화엄석경도 불에 탔다.<sup>67)</sup> 임진왜란으로 화엄사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된 후 1630년에 가서야 대규모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화엄사 승려들의 요청에 의해 碧巖覺性(1575~1660)이 공역을 주관하였고 7년만인 1636년에 一次 완공되었다. 즉 中觀海眼(1657~?)이 1636년에 저술한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과 義昌君 李珖(1589~1645)이 쓴 <화엄사 일주문 편액>, <화엄사 대웅전 편액>을 통해 1636년경에 1단계 불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관해안은 휴정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크게 활약한 인물인데 일찍이 화엄사에서 법회를 열고 龍門庵에 머문 적이 있으며 만년에는 大隱庵에 주석하였다.<sup>68)</sup> 화엄사사적에는 1593년 왜군에 의해 큰 병화를 입었다는 사실과 1630년 碧巖覺性이 주석하면서 많은 승려들이 7년에 걸

67) 伽山智冠, 「禪教兩宗智異山大華嚴寺事蹟碑銘」, 『華嚴寺와 導光大禪師』, 화엄사 화엄문도회, 2008, p.10.

68) 金龍泰, 「朝鮮後期 佛教의 臨濟法統과 教學傳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친 노력 끝에 법당, 불상, 불화, 종 등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벽암각성은 그의 고향인 보은 법주사(1626년) 재건을 시작으로, 구례 화엄사(1636년), 하동 쌍계사(1640년) 등 영호남의 중요 사찰을 재건하였다. 벽암각성의 화엄사 재건 불사는 화엄사 사적에는 163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백곡처능이 쓴 벽암 각성의 행장인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에는 1632년에 화엄사를 개수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길을 매우고 큰 충립을 이루었다고 적혀있다. 재건 시점에서 두 기록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로 163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재건불사가 시작되어 화엄사 사적기가 완성되는 1636년에 중심구역의 불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사천왕상의 조성도 1636년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근간에 작성된 『화엄사귀중품대장』에는 1632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사 중창시작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 「화엄사사적기」에 기록된 가람의 현황을 보면, 대웅상적광전, 장육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天王門 三間の 존재도 확인된다. 재건 불사 시 이러한 전대의 역사적 맥락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천왕문은 화엄사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 건물로,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를 거쳐 중정을 통해 주불전인 대웅보전과 각황전으로 연결된다. 사천왕의 배치는 진입부에서 향 우측에 동방과 북방천왕을 배치하였고, 향 좌측에 남방천왕과 서방천왕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 배치의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다. 북방과 서방은 정면향을 취했고, 동방과 남방은 입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천왕상의 시선처리는 불화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표1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 4구 모두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머리에는 용봉문, 구름문, 각종 화문, 화염문 등으로 장엄한 화형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 아래로 가지런히 빛은 보발이 표현되었고, 구레나루를 타고 내려온 머리카락을 어깨에서 둥글게 엮은 뒤 다시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하늘로 뻗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양감이 있는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위엄과 당당한 기품 서려있다. 목에는 스카프

를 매듭지어 묶어 頸甲을 대신하였고, 견갑에는 龍文이 표현되어 있다. 상박갑과 비갑, 흉갑, 슬갑, 脛甲을 모두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요의를 두르고 요대를 착용하였다. 갑옷에는 솟슬문과 비늘문 등으로 시문하였고, 스카프와 전포, 박고 등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흉갑 위에는 띠모양의 胸帶를 돌리고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다. 천의자락은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으며, 어깨를 걸치고 흘러내려 바닥면까지 폭넓게 드리웠다. 양 팔꿈치 부근에는 전포가 바가지 모양으로 펼럭이고 있다. 바지로는 縛褲를 입었는데, 정강이 부근에서 품 넓은 박고를 끈으로 묶었다. 복부에는 귀면이 표현되었고, 귀면은 腰帶와 綬環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서방천왕은 귀면 대신 수피가 표현되었는데, 수피의 콧구멍에 고리를 끼워 胸帶를 묶은 밧줄에 매달아 두었다.

북방다문천왕은 두 손을 아래로 내려 차분히 비파를 연주하고 있으며, 동방지국천왕은 오른손으로 칼의 손잡이를 잡았고 칼끝은 허벅지 위에 두었다. 칼날은 연봉형으로 굴곡을 주지 않고 침형으로 처리하였다. 남방증장천왕은 오른손은 내려 용의 몸통을 잡았으며, 활시위를 당기듯 치켜든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구슬만한 여의주를 잡고 있다. 서방은 오른손으로 삼지창이 달려 있는 당을 움켜쥐었고, 왼손은 허리춤에서 몽구스를 쥐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에서 몽구스 같은 동물형상을 지물로 취하는 도상은 순천 송광사, 여수 흥국사 등인데, 이들은 모두 벽암각성 또는 그의 문도들이 중창한 사찰이다. 이들 사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으로는 應元과 印均들 수 있다. 이 두 조각승은 벽암문도로 파악되며, 벽암각성과 함께 중창 불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조각승이다. 따라서 같은 지역권 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벽암문도에 의해 중창된 사찰이므로, 이들 사찰에 조성된 사천왕상의 도상적 연관성을 갖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것이다. 네 구 모두 보관을 쓰고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보이며 표현력도 뛰어나며, 대체로 1628년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천왕상 얼굴(동방)>



<지물(서방, 몽구스)>



<갑옷의 표현(서방)>

□

### ○ 현 상

- 화엄사 천왕문(天王門) 안에는 좌우 양측으로 각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내부 왼쪽으로는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칼을 쥔 동방증장천왕이, 오른쪽으로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과 그리고 당과 사자를 쥔 서방광목천왕이 안치되어 있다.
- 사적기에 의하면 1630년(인조 8)에서 1636년(인조 14) 사이에 벽암각성(碧巖覺性)의 주도로 대웅전, 금강문, 보제루, 천왕문, 적묵당, 일주문 등의 건물을 대대적으로 중건하였다고 한다. 화엄사 사천왕상과 같은 소조불은 주로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든 사천왕상은 165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벽암각성 주도 불사의 양상과 소조라는 재료의 유행 시기, 후술할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천왕상도 이 무렵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천왕문 자체가 흙을 이용해 건립되었고, 역시 소조로 만든 사천왕상이 벽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사천왕상의 복장을 개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사천왕상 내부에는 아직 복장이 그대로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내용 및 특징

- 사천왕상은 의자에 걸터앉은 좌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조화롭다. 가소성이 뛰어난

난 흙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입체감이 잘 살도록 모델링하였다.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천왕들은 갑옷을 입은 무장형으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에는 중앙에 봉황이 있고, 구름, 꽃, 화염보주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천왕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화엄사 대웅전에 모셔진 보살상의 보관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 17세기 전반 내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과 전체적인 신체의 비례감, 상호의 표현, 제작 방법이 거의 유사하여 동일한 조각승 집단이 조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관이나 비파의 형식, 상의 조립 방식에서 여수 흥국사와 화엄사 사천왕상 사이에 강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중 서방광목천왕상의 상호에는 단웅유과가 제작한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이 보인다.

- 송광사나 직지사 사천왕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왕상의 지물 중 비파 뒤에 중수기를 적은 경우가 많은데, 화엄사 사천왕상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

-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1632년 혹은 1636년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벽암각성이 1630~1636년 무렵에 걸쳐 화엄사를 중창했으므로, 천왕문을 끝으로 중창 불사를 마쳤을 것이라고 판단해 1636년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둘째, 『大覺登階集』에 실린 백곡처능(白谷處能)의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에 보이는 “壬申年(1632, 인조 10)에 화엄사를 수리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떼웠으며 성대하게 총림이 되었다”는 구절에 의거하여 1632년에 사천왕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 참고문헌

- 白谷處能, 임재완 옮김,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조선 28,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8.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麗水 興國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麗水 興國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주시 흥국사길 160, 흥국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전반)
- 제작자 : 미상



<여수 홍국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에 창건된 홍국사는 임진왜란 이후인 1624년부터 계특(戒特)대사에 의해 중건이 이루어진 사찰이다.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대웅전과 그 안에 봉안된 목조 석가여래삼존상 및 홍교 등의 정보들 역시 17세기 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폭 넓게 진행된 중창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천왕상에 대해서는 1805년 도화원(都畫員) 화악 평삼(華岳評三)스님이 개채한 내용이 현판에 남아 있고(<여수 홍국사 천왕중수개채기>), 가장 최근 기록은 1982년의 중수이다.

홍국사 사천왕상은 4m 가까운 크기에 천왕이 들고 있는 지물의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천왕문의 내부에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그리고 당과 망구스를 든 서방광목천왕으로 배치는 북-동-남-서의 순서이다. 전체적으로 배치 및 지물 등은 조선후기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징도 보인다. 발 밑의 생령좌가 없는 점은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과 비슷하며, 사천왕의 형식 및 양식, 주름진 얼굴 모습, 망구스의 형태 등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홍국사로 이어지는 지역적인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지역적인 성격과 더불어 조각승과도 연관될 것으로,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 그 제자인 인균으로 이어지는 조각승의 유파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수 홍국사 소조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17세기 전반기(1630~1636년 경)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홍국사의 중창불사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홍국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조

사천왕의 측면과 뒷면을 중심으로 심한 균열로 인한 훼손이 진행 중이므로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기본적으로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의 도상과 유사한 범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사천왕상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유형이 1600년대 전반 무렵에 대표성을 지닌 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화엄사 사천왕 도상과 유사한 틀을 지니고 있지만, 세부적인 장엄 요소에서는 흥국사만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보관에는 용장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흥국사상은 마치 여의주만 남기고 용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남방천왕의 지물인 용과 여의주의 표현에 있어서 여의주는 보통 단순한 구형(球形)을 하고 있는데 반해 흥국사 증장천의 여의주는 보관에 있는 여의주 장식처럼 불꽃 같은 것이 솟아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보관 중앙부에 달린 붉은 구슬이 여의주 모티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은 표현하지 않는 대신 여의주로서 이를 대신한 독특한 표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네 천왕의 자세는 대체로 화엄사 천왕들과 방위별로 대응하여 모두 동일하지만, 얼굴 묘사에 있어서는 북방과 남방천왕이 서로 가장 닮았으며, 동방천왕은 차이가 많은 편이다. 다만 같은 흥국사 천왕상들 중에서도 동방천왕의 얼굴은 양식적으로 보다 해학적이고 과장된 성격이 보이는 편이다.

북방다문천의 비파는 실제로 공명통을 구멍을 뚫어 표현하고, 줄감개통도 정밀하게 표현하는 등 세심한 부분에 공을 들인 흔적을 읽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엄사 사천왕상의 비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국천왕의 칼 손잡이 끝 부분이 마치 동물의 허벅지뼈 마디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것도 화엄사와 흥국사 사천왕상의 공통점이다.

천왕상의 얼굴표현에 있어서 북방천왕은 앞니 두 개를 드러낸 모습, 남방천왕은 입술 양쪽이 처진 것처럼 처리되면서 입을 굳게 다문 듯한 표정, 서방천왕은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를 듯한 표현 등이 공통적이다. 다만, 화엄사의 동방천왕은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흥국사 동방천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어서 차이가 있다.

흥국사 사천왕상도 화엄사 사천왕처럼 천왕들의 발 아래에 악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흥국사 천왕문의 바닥은 일반적인 마루 바닥이 아니라 천왕상과 같은 소조로 물결을 만들어 마감했다. 이런 모습이라면 악귀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 유실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바닥을 바다나 큰 연못 등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 악귀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북방다문천의

발 아래에는 악귀 대신 거북이처럼 생긴 동물이 놓였는데, 이처럼 물과 거북이 바닥을 장엄한 사례는 여수 흥국사가 유일하다. 특히 여수가 바닷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흥국사 사천왕상은 화엄사 사천왕상과 함께 조선 후기 사천왕 도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 흥국사만의 개성 있는 표현도 지니고 있다. 특히 천왕문 바닥을 바다와 같은 물로 표현한 것이 주목되며, 화엄사 천왕문의 완전한 복원고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흥국사 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흥국사 사천왕상은 왜란 이후 사찰 재건과정에서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파악된다. 흥국사의 본격적인 불사는 1620년대부터이며, 가장 먼저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창하고 이어서 가람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이 복구되고, 예배존상들도 차례대로 조성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천왕문은 사찰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 전각으로 재건 불사의 우선 순위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이 보여주는 중량감 넘치는 조형감과 상호의 표현, 세부 문양과 도상 등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등 같은 지역 내의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알 수 없으나 흥국사 정문이 건립되는 1645년 무렵 사천왕상도 제작되었을 것이고 이를 주도한 조각승은 응원·인균으로 추정된다.

흥국사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때 수군이 주둔한 사찰답게 사천왕상 바닥을 파도문으로 장식하여, 해상을 수호하는 상징성을 사천왕상을 통해 담아내었다. 더불어 야차의 자리에 거북이를 도입하여 해변 사찰의 입지적 특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작가의 재치가 돋보이는 사천왕상이다.

17세기 전반기 호남지역에서 유행한 사천왕상 도상과 양식, 그리고 흥국사의 성격과 입지적 특징을 사천왕상을 통해 잘 구현한 뛰어난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현재 사천왕상은 오랫동안 개방된 전각에 봉안되어 온 탓으로, 곳곳에 균열과 박락, 그리고 심하게 터진 부분이 있다. 정밀진단과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비록 명확한 제작연도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천왕문의 대략적인 건립연대나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구례 화엄사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과의 양식적인 친연성을 고려할 때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상의 비례가 안정적이며 소조의 재질을 십분 활용한 모델링이 훌륭하다. 또한, 천왕상의 각 세부가 조화롭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조각 작품으로서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각적 성취도는 당대에 수조각승으로 활약했던 응원이나 인균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그것과 비등하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비견되는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한 흥국사 소조사천왕상도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 내 력

흥국사는 제9교구본사 화엄사의 말사로서, 고려시대 1195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들의 본거지였으며 전쟁 직후 중창불사가 크게 이루어졌다. 흥국사의 창건과 중수에 관한 내용은 1703년의 <흥국사 중수사적비>에 전한다(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12호, 도1). 이에 의하면 1560년 법수(法修)화상이 사찰전각을 중건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인 1624년에 계특(戒特)대사가 중건하였다고 하였다. 1986년 실제로 법수화상의 부도에서 사리함이 발견된바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흥국사의 정보들도 계특대사의 중건 시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즉, 대웅전을 비롯하여 홍교(虹橋), 崇禎연간(1628~1644)의 대웅전 주존불인 목조석가여래삼존입상(보물 제1550호), 무사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21구의 존상들이(1648년)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645년에는 팔상전과 불조전이 중건되었다.



<도1 興國寺重修事蹟碑, 1703년>

천왕문(도2)과 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805년 화악 평삼스님이 개채한 기록이 현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1982년에 작성한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중창기>가 있어 1982년에 범왕문과 사천왕상의 중창 즉 개채 및 보수가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다(도3).



<도2 흥국사 천왕문 전경>



<도3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 중창기, 1982년>

### ○ 현상과 특징

사천왕상은 390~400cm의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 붙여 만든 소조상이다. 현재 소조토가 떨어져 내부가 확인되는 부분을 보면 굽기가 다양한 새끼줄을 섞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균열이 심하고 뒷면에는 소조토의 박락도 진행 중이며, 신체의 측면에 심하게 갈라지는 등 크고 작은 균열들로 위험한 상황이다(도4).



<도4 측면 균열(동방지국천왕)>

사천왕은 의자에 앉은 자세이며 낮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다(도 5). 보관 장식은 화문, 구름문, 화염문인데 없어진 부분도 많은 듯 하며 일부 장식은 밑에 떨어져 있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위로 솟구치는 관대가 있으며 머리카락은 귀 중간을 감고 원을 형성하며 어깨위에 늘어졌는데 두 가닥은 위로 솟아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에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다. 두 눈은 튀어 나올 듯 부릅떴으며 크고 넓은 콧망울, 벌리거나 짝 다문 입 등 천왕의 성격에 맞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묶었으며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천의는 천왕의 뒷면에서 마치 광배처럼 둥글게 만 다음 그 가장자리에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였으며, 소매부리를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는 위로 접혀져 날리듯 표현하였다. 그리고 허리띠를 물고 있는 괴수라든지 수피를 달아 장식적이면서도 위협적인 모습의 천왕을 연출하였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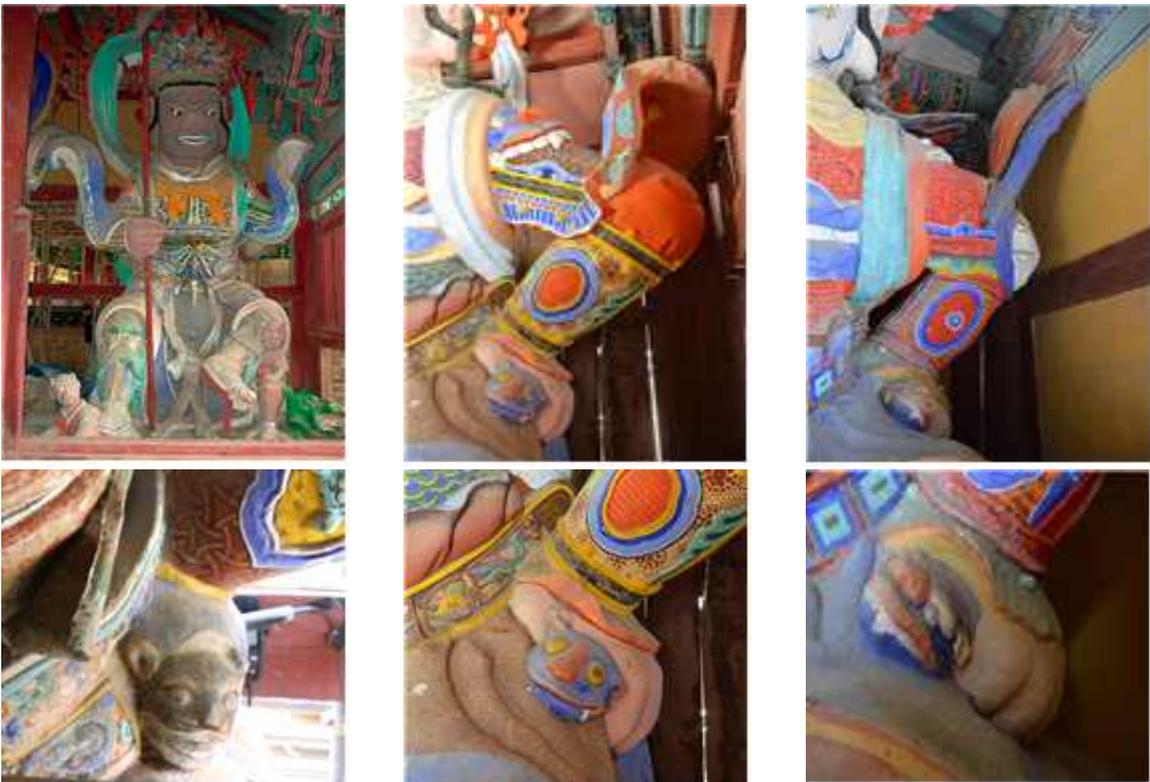
서방광목천왕

<도5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조선 17세기 전반기>

사천왕상의 배치는 오른쪽에서부터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망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각각 시계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동→남→서방의 순서로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이다.

흥국사 사천왕상의 특징은 발 밑에 생령좌가 없는 점으로 이는 화엄사 사천왕에서도 보이는 형식이다. 화엄사와 흥국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 가운데 생

령좌를 조성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느껴진다. 화엄사 사천왕상과는 이외에도 재질, 사천왕의 배치, 보당과 망구스를 든 서방천왕의 지물까지도 유사하다. 특히, 허리에 왼손으로 망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작은 귀를 쪽긋 세우고 둥글고 뭉뚱한 머리 형태의 망구스는 구례 화엄사 망구스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된 사례가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서방천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해되며 이는 지역적으로 같은 권역에 해당되는 점에서 중요하다(도6). 즉, 망구스를 들고 있는 사례는 강원도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데 망구스를 오른쪽 허리에서 잡아 손의 위치도 반대이고 망구스의 형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도7).



순천 송광사(1628년)

구례 화엄사(17세기 전반)

여수 흥국사(17세기 전반)

<도6 17세기 전반 서방광목천왕의 망구스 비교>



<도7 홍천 수타사 서방광목천왕의 망구스, 1676년>

이외에도 송광사와 화엄사, 홍국사 사천왕상은 형식 및 양식, 방향의 얼굴 형태와 표정, 이마의 주름, 넓고 투박한 코, 위로 솟은 어깨 위의 머리카락, 목에 두른 스카프 등 세부까지 유사하다. 따라서 같은 권역이라는 지역적 동일상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성은 아마도 같은 유파의 조각승들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응원과 특히 홍국사를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응원의 제자 인균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 ○ 현 상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은 1645년~1646년에 홍국사의 중문 및 봉황루가 건립될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다. 중문, 봉황루와 함께 천왕문은 사찰의 진입로에 위치한 건축이기 때문에 이 무렵에 홍국사의 진입공간이 대대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익공식 건축이며, <홍국사천왕중수개채기>에 의하면 천왕문은 벽파·용운 스님에 의해 1805년에 중수 및 단청이 다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홍국사 가람의 좌향은 서향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방향이고 천왕문도 같은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사천왕의 배치는 천왕문의 실질적인 방위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남향 건축에서와 동일한 배치로 봉안되었다. 즉,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천왕문에 진입했을 때 건물 남쪽인 우측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건물 북쪽인 왼쪽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도1 여수 홍국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단은 둥근 색색의 꽃 문양이 열리어 있다.[도3] 관대의 가운데 부분에는 오색의 구름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드물게 꽃 문양이 섞여있다. 이 장식문양에서 특이한 것은 중심부에 붉은 구슬에 화염문이 달린 장식 하나가 달려있는데, 언뜻 여의주처럼 보여서 원래는 가운데에 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홍국사 사천왕상이 모두 이 여의주 같은 장식만 있고 용은 없어서 원래 이렇게만 달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괄적으로 누군가 용 장식만 떼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원래부터 용은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두 가닥의 붉은 띠가 흘러내려 휘날리고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른 사찰의 사천왕에 비해 여기서 휘날리는 띠는 상의 크기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도 보살상에서의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한 가닥만 귀를 덮고 있는 점,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어깨에 밀착되어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며 마치 달팽이 더듬이처럼 양측면으로 솟아있는 점이 차이점이다.[도4]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이마에 희미하게 있는 주름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얼굴이 비교적 젊은 인상을 준다. 눈과 눈썹은 과장되게 치켜 올라갔는데, 양쪽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으며, 두 눈썹 사이, 즉 미간에는 마치 V자 모양의 주름처럼 도드라진 부분이 보인다. 이것은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의 표정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미간 주름은 홍국사의 다른 사천왕에서도 보이는데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표현에 비해 도식화된 편이다.



<도2 북방다문천>



<도3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도4 북방다문천 보발과 상박갑>

북방천왕은 고개를 약간 숙였고, 눈동자도 천왕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듯 아래로 향했다. 코뿌리에 1단의 주름이 보이고, 그 아래로 주먹코라고 할 만큼 크고 둥근 코가 표현되었다. 입술만 보면 살짝 다문 채 입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고 앞니 두 개만 노출되어 있어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인데, 추켜올라간 무서운 눈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살짝 노출된 목 주변으로는 흰색의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로는 소슬금문이 입체적으로 새겨진 붉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어깨와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 역시 소슬금문인데, 상단에는 몸은 푸르고 코는 붉은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소매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옆으로 펄럭이고 있다. 소매의 안쪽에도 옷주름을 새겨 정교함을 더했다.[도5] 한편 오른쪽 팔굽에서 휘날리는 옷자락은 천왕문의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팔굽에서 나온 옷자락은 가느다란 철봉과 철사를 이어 천왕문 천정 부재에 걸어두었다.



<도5 북방다문천 좌측면>



<도6 북방다문천 하체 세부>



<도7 북방다문천>

가슴과 배 사이에는 옥색 천을 벨트처럼 휘감고 이를 다시 흰색 끈으로 묶었다. 반면 허리에는 관대 형식의 옥대를 착용했는데, 마디마다 옥색으로 채색하고 그 안에 네모난 금빛 장식문양을 넣었다.[도6] 이 요대는 청사자로 보이는 동물의 얼굴이 물고 있는 형상인데, 상박갑의 사자처럼 코는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도7] 이 요대와 청사자 얼굴은 정면에서는 비파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요대의 사자 아래로는 흰색의 띠가 양쪽으로 흘러내려 중간에 교차되면서 매듭지어진 다음 다시 두 갈래로 늘어뜨려져 바닥에 닿았다.[도8]



<도8 북방다문천 하체 정면>



<도9 북방다문천 비파 세부>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은 현을 튕기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손가락을 모두 펴고 있고, 왼손은 지판을 뒤쪽에서 감싸고 있어서 지판을 짚고 있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연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조되지 않았다.[도9] 손가락은 다소 두껍고 투박하지만 손톱 등은 세심하게 표현했다. 비파는 단순히 나무색으로 채색만 되어 있을 뿐, 나무결 문양 표현 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몸

통의 봉황눈처럼 보이는 것은 비파의 울림구멍을 표현한 것인데, 보통은 채색으로 그려 넣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다. 육안으로 보기에 상판이 비파의 아래판과 별도의 나무로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파가 실제 내부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비파 상단의 줄감기 하는 부분도 실제 구멍을 뚫고 감개를 꽂아둔 형식이어서 비파의 정교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비파의 현은 다소 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줄감개 부분이 실제로 현을 당겨 팽팽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인데, 끝부분은 여의두문으로 장식되었다.

어깨에는 피건을 걸치고 있는데, 머리 뒤로 솟아올라 둥글게 휘날리고 있으며, 테두리에 화염무늬를 달아 광배의 역할도 하고 있다.[도5] 겨드랑이를 타고 뒤쪽으로 흘러 크게 굽이치며 펄럭이고 있다. 이 피건은 다른 사찰의 천왕상의 경우는 옆으로 펼쳐지며 펄럭이다 바닥으로 내려와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엉덩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흘러내린 다음 바닥에 닿으면서 끝나고 있다. 또한 피건의 가장 상단부와 뒤로 펄럭이는 끝단은 모두 천왕문의 벽체에 고정되어 있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은 상체의 갑옷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나, 허리의 요대 아래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에 가려 일부만 보인다.[도8] 갑상 아래로는 붉은 색 군의를 입고, 그 안에 흰 바지를 착용했는데 무릎 아래에는 붉은색 띠로 묶었다. 이 흰 바지 아래에는 정강이와 종아리를 보호하는 붉은색 슬갑(膝匣)을 착용했으며, 발에는 여의두문으로 장식된 화려한 신발을 신었다.[도10]



<도10 북방다문천의 신발·슬갑과 물결모양의 바닥> <도11 북방다문천 왼발 아래의 거북형 받침>

발은 왼발은 살짝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들 발 밑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악귀들은 현재 없다. 살짝 든 왼발의 경우, 보통은 악귀들이 어깨로 받치고 있어서 가능한 자세였는데, 현재는 바닥에 거북이 같은 등껍질 표현이 있는 어떤 물체를 도드라지게 하여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다.[도12] 원래 악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유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천왕문의 사천왕이 봉

안된 홍살 너머의 공간은 바닥이 전부 물결무늬처럼 꾸며져 있고, 마치 거북이 물 위로 떠올라 천왕의 발을 받친 것처럼 되어 있어 만약 이 공간이 바다와 같은 물 위에 뜬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악귀들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천왕은 바다 위에 앉아있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건 자락 등이 바닥에 흘러내린 것을 보면 부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어, 물결 설정은 악귀가 사라진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새롭게 가미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도 있다. 특히 물결을 표현한 소조의 흠층은 두껍게 깔려 있는데 반해 천왕상들 주변은 이런 다소 낮게 원래의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피건 자락 등 바닥에 흘러내린 옷자락이 이 물결 위에 출렁이는 것이라면 원래부터 물결 바닥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옷자락은 물결이 없는 원바닥층까지 내려와 있다. 이것은 어쩌면 바닥의 물결층이 나중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제작상의 편의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전부 바닥에 닿는 것까지만 표현하고 사천왕을 다 만든 다음 주변에 물결층을 가설한다면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결층은 악귀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만들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도12 동방지국천>

<도13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14 동방지국천 요대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보관의 양 측면에서 철사를 달아 화염보주문이 매달려 있는데, 정중앙의 화염보주 및 이 양쪽으로 튀어나온 화염보주문이 다른 화염보주문보다 더 크게 강조되었다. 용이나 다른 동물은 없이 여의보주에서 영기(靈氣)가 서려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다른 흥국사 천왕들과 같다.[도13]

얼굴은 천왕문 입구로 막 들어오려는 사람을 위협하는 듯이 바라보는 시선이며, 윗니를 드러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눈썹과 수염을 검은색으로

채색했고, 특히 턱수염을 구불구불하고 짧으면서 덩수룩하게 표현하여 젊은 장수로 느껴진다. 갑옷은 북방천왕과 동일하나 채색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황색이고,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帶鉤)도 황사자이다.[도14] 요대는 녹색, 갑옷을 감싼 천은 청색으로 채색했다. 오른손을 치켜들어 든 칼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보인다. 우선 손잡이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손잡이가 약간 꺾여있는 특수한 용도의 검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뒤틀려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도15] 그리고 손잡이가 마치 동물의 허벅지 뼈처럼 끝이 돌기처럼 마감되고 있으며, 손잡이에는 미세하게 구름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코등이는 화문처럼 테두리의 네 부분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며 테두리만 도드라지게 물딩을 넣었다. 칼날은 먼지가 많이 쌓여있지만 아래쪽을 보면 청색으로 채색한 듯하다. 지국천왕의 칼날을 청색으로 칠한 예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펴서 칼날 끝에 대고 있는 모습이며, 칼날 끝은 여의두문으로 마무리했다.



<도15 동방지국천 지물(칼) 세부>



<도16 동방지국천 우측면 균열 부위>

동방천왕은 우측면에서 보면 하체의 허벅지에서 종아리를 따라 큰 균열이 발생했는데, 내부의 흠이 드러나 보인다.[도16] 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발의 자세는 북방천왕과 유사하나, 살짝 들고 있는 왼발은 바닥에 세워진 기둥 같은 형태의 받침으로 받쳐지고 있어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북방천왕과 차이가 있다.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과 좌우로 크게 강조되는 화염보주문이 모두 사라졌으며, 하단의 꽃장식도 일부 사라진 상태이다.[도18] 홍국사 천왕들의 보관의 특징인 여의주 장식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남방천왕 보관의 다른 장식들처럼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도17 남방증장천>      <도18 남방증장천 장엄 세부>      <도19 남방증장천 지물(용)과 하체>

얼굴은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천왕문 입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눈썹과 수염을 흰색으로 처리하여 나이 든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입은 입술 양쪽을 아래로 처지게 하여 굳게 다문 모습이다. 이미 부분에는 다소의 박락이 보인다. 갑옷의 형태 등은 대동소이하나, 흉갑은 붉은색, 상박갑은 황색으로 다르게 채색하고, 상박갑을 어깨에서 물고 있는 사자도 황사자로 채색했다. 흉갑을 감싼 옥색의 천을 묶은 끈은 흰색인데, 끈의 꼬임문양까지 정교하게 새겼다. 요대는 청색을 주조로 하고,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는 청룡이다. 앞서 북방 및 동방천왕의 대구는 뿔 등이 없어 사자로 보았으나, 여기서는 양쪽에 뿔이 있고, 용으로 볼 수 있다. 뿔과 함께 귀도 마치 소 귀처럼 길게 솟아있다. 또한 아래턱의 밑에는 옥색으로 용의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지물로는 오른손에 황룡을 들고 왼손에는 붉은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잡고 있다.[도19] 황룡은 오른팔 팔뚝을 휘감고 있으며 입을 벌려 포효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경우는 용이 어는 정도 남방천왕의 손아귀에서 길게 뻗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용머리 아래 목을 움켜쥐고 있어서 용이 다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남방천왕이 든 여의주는 단순히 보주형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꽃문양이 길게 뻗어 나와 있어 주목된다. 특히 흥국사 천왕들의 보관에서는 이처럼 보주와 화염줄기가 있는 장식을 주요 모티프로하기 때문에 같은 모습의 여의주를 천왕이 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서방광목천의 보관은 북방천왕의 보관과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에 있던 보다 큰 화염보주장식이 보이지 않는다.[도20] 대신 그 위치에 여의주 장식이 남아있다. 특히 다른 보관에는 보이지 않던 동물장식이 보이는데, 흰색의 이 동물은 긴 꼬리를 가진 쥐처럼 보인다.[도21] 특히 쥐로 보는 이유는 서방광목천의 도상이 원래는 북방다문천의 도상인데, 티베트 불교도상에는 북방다문천이 몽

구스, 혹은 쥐를 지물로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흥국사 북방다문천은 그러한 예를 따라 탑 대신에 왼손에 사자 같은 동물을 데리고 있는데, 이는 티베트 도상의 몽구스나 쥐와는 다른 동물이다.[도23] 따라서 티베트 도상의 쥐가 대신 보관에 삽입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쥐로 해석해본 것이며, 그렇다면 티베트 불교도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도20 서방광목천>



<도21 서방광목천 보관 세부>

얼굴은 흥국사 사천왕 중에서 가장 험악한 표정인데, 눈을 부릅뜨고 이가 드러나 보이게 고함을 치는 듯한 표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고개를 들고 있어 천왕문을 지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 요대는 황색의 사자가 물고 있으며, 요대의 마디는 청색 바탕에 옥색의 네모난 장식이 채색되어 있다.[도22] 이 요대 아래로는 동물가족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데, 코끼리 눈 같은 눈과 귀, 그리고 외뿔이 달린 동물의 가족이다. 또한 아래에는 척추의 표현과 함께 지느러미 같은 것이 양쪽에 달려있는데, 어떤 경우는 동물의 뒷다리가 표현된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느러미를 통해 물에 사는 동물의 가족임을 암시하고 있다.



<도22 서방광목천 장엄 세부>



<도23 서방광목천 지물(서수) 세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른손에 당을 든 것은 일반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이지만, 탑 대신 서수(瑞獸)를 데리고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도상의 영향이다.[도23] 여기서는 청사자를 왼손으로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요대 등에 표현된 사자와 달리 더 동글동글하고 머리만 크게 표현되어 새끼사자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은 다른 사례에 비해 당의 굽기가 다소 가는 편이며, 끝에는 삼지창 형태와 깃발이 달려있다.



<도24 흥국사(좌)와 화엄사(우) 북방다문천왕 비교> <도25 흥국사(좌)와 화엄사(우) 남방증장천왕 비교>

### ○ 문헌자료

흥국사 사천왕상 중수개채기 원문. 1805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기 위해 벽파(碧波)·용운(龍雲)·영월(詠月) 등이 화주를 하여 보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混沌未開初無天地之象七鑿既率始有方隅之名自比天神地神各司方隅佛界生界亦殊分界令興國大來名藍亦有 四天王司方之像毘嵐劫燧還同昭氏家藏匣之琴 行路傷嗟主愴惻以故寺官使議皆曰此非凡僧 者之可堪實是宗師過之能事物論輿望專推宗師 宗師中碧波龍雲詠月翫海四大師者皆以本山人 文敵有裕空門傑出者也共發肯心互斷金石勸軸 各擔杖屨相忙落日途中幾抱投宿之歎凌晨街上從懷覓檀之愁是爲樂歟是爲若耶行乞坵青 蓮老碧波一過兼開畦衣事作也龍象□蹴賢凡 捷肩建掛佛庭中秦眼樓上幡邑花飄風 空金聲魚解徹天動岳是日也明光滿□瑞 氣空□賞老□悲感而掛布如雲參觀鵠□心 而擲錢如雨是乃諸大師之法力以有佛菩薩之冥 資余亦貫考此山幸參末席僉以有徵請記余以無 文□再曰爲文者豈皆能文而文□筆者豈盡能 筆而筆俟知後來世雖或有記諺”

□

## ○ 조사내용

흥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1196년(명종 26)에 창건되어 크게 번창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여수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의 휘하의 의승 수군들이 주둔하여 국난극복에 앞장선 호국도량이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왜군들에 의해 유린되자 승려들은 국난극복에 팔을 걷어 붙였다. 흥국사는 전라좌수영 부근에 있던 고찰이며,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 조직은 1592년 9월 경에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흥국사는 좌수영의 주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찰의 본격적인 중창은 1624년 계특대사에 의해서이다. 이때부터 법당을 비롯한 여러 불전들이 차례대로 재건되어 갔고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람의 면모를 회복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에는 벽암각성 문도들이 주석하며 사찰을 경영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사적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연혁은 살필 수 없으나 1691년 간행된 흥국사사적 목판과 <흥국사 사적비>, 그리고 현전하는 불교미술품을 통해 흥국사의 연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창건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중기 法修스님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의승 수군의 근거지가 되어 크게 전공을 세웠으며, 또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임진·정유재란 이후 사찰의 재건불사가 본격화되었다. 사찰의 주불전인 대웅전이 1624년 가을에 계특대사에 의해 중창되었고, 그리고 도반인 회, 익, 언 등과 함께 선방 및 모든 요사들을 일신해서 재건하고 시간에 따라 모든 전각과 당우를 짓고 범종 및 불구를 갖추었다.<sup>69)</sup> <선당중집기>에는 계특대

사가 흥국사 고법당을 중창한 후 옥청이 법왕문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흥국사에 남아 있는 명문 암막새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명문 암막새는 흥국사 내 불전의 중창 또는 蓋瓦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후 1639년에 흥교(보물)를 축조하고, 1645년 正門을 건립하였고, 1646년 봉황루가 건립되었다. 이로써 대체로의 사찰의 규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왕문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문이 천왕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찰에서는 천왕문 바로 아래 迎聖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흥국사 「공북루중수기」에는 공북루를 정문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문을 이루는 일주문, 천왕문, 拱北樓 등을 일괄로 정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sup>70)</sup>

1805년 <사천왕상중수개채기>에는 천왕각과 조계문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천왕각은 천왕문일 터이고, 조계문은 일주문일 것이다. 적어도 정문과 봉황루가 건립되는 시기에 천왕문도 건립되었고 사천왕문의 건립에 맞춰 사천왕상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불사와 관련하여 흥국사에는 여러 시기에 제작된 명문기와도 남아 있다. 가장 앞서는 銘文瓦는 天啓元年(1621)銘 귀 목문 암막새이며, 이외 天啓 6년(1626), 崇禎 2년(1629), 崇禎 7년(1634), 崇禎 9년(1636) 등 16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사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대웅전 내에는 승정년간(1628~1644)에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고, 응원·인균과 조각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무사전 지장시왕상(首 印均)은 수조각승 인균이 1648년에 제작되었고, 응진전의 석가여래삼존과 16나한상 역시 1655년에 수조각승 인균이 제작하였다. 이외 1689년에는 불조전 53불(首 印戒)이 제작되었다.

흥국사의 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는 사천왕문은 일주문-천왕문-봉황루-법왕루-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중심축선상에 있는 건물이다. 즉 스님들이 수행하는 요사채를 제외하면 사천왕문은 사찰의 신앙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전각이다. 전란 이후 재건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불사가 진행되었겠지만, 주불전인 대웅전 중창에 이어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어도 주불전인 대웅전 불상이 조성되는 시기부터 부속전각인 명부전 조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05년에 기록된 「興國寺四天王重修改彩記」에는 사천왕상 개채와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 허물어진 천왕문을 보수하기 위해 碧波, 龍雲,

69) “……天戒四年甲子秋重建法堂希翼顏之徒踵武興功禪舍諸寮日新月改金鍾玉磬隨時變改出世因緣社樹之餘香未泯靈鷲之佳氣增濃庸非朝鮮刹寺料天乎……”(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纂輯, 『全羅道順天府靈鷲山興國寺事蹟』, 『朝鮮寺刹史料集』上, 1911, pp.229~230); 明扇 監修·眞玉 編著, 『호국성지 흥국사』, 불지사, 1989, pp.208~212에 원문과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70) 「興國寺拱北樓重修記」(1893년), “營之西靈鷲山興國寺在普照國師之棚建而義僧之駐鎮也余莅營之越明年暮春遊覽是寺寺之正門拱北樓修葺既多歲月傾頽慮柱朝夕諸僧徒告憫曰……” 좌수영의 서쪽 영취산 흥국사는 불일보조국사의 창건으로 의승들의 진주사이다. 내가 영에 부임한 다음해 봄에 이 절에 들렀다가 정문에 위치한 공북루가 보수한지 오래되어 조석시간에 붕괴될까 염려하여 모든 스님들이 고민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를(明扇 監修·眞玉 編著, 『호국성지흥국사』, 불지사, 1989, pp.235~236).

詠月 등이 화주를 맡아 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사천왕상 수리를 맡은 도화사는 華岳 評三과 그 외 十六人의 화사가 참여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중수 개채를 맡은 평삼은 해천사 삼세불도(1765년, 15위, 首 快濶, 순천 선암사 소장), 남해 용문사 괘불(1769년, 10위, 首 快琬),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777년, 6위, 首 快允), 영광 불갑사 대웅전 지장도(1777년, 6위, 首 快允),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1781년, 아미타 首), 하동 쌍계사 국사암 신중도(1781년, 首), 구인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86년, 首), 수도사 감로도(1786년, 首, 통도사 소장), 하동 쌍계사 고법당 신중도(1790년, 首),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1808년, 首)에 참여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크게 활약한 불화승이다. 이외 중수기록으로는 1982년에 작성한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 중창기>가 있어, 1982년에도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 배치도>

흥국사 사천왕상은 나무로 뼈대로 삼고 흙으로 살을 만들고 표면을 조각한 소조상이다. 사천왕상은 사천왕상의 역할에 부합하게 모두 눈을 크게 뜨거나 강렬한 인상을 쓰고 있는, 이른바 분노형으로 제작되었다. 머리에는 꽃과 구름, 화염 등으로 장식한 花形寶冠을 착용하였다. 보관 장식이 군데군데 빠져있다. 목에는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멧을 내었고, 각 부위마다 그에 걸맞은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팔꿈치에는 전포자락이 날개처럼 펴져있고 있으며, 흉갑 위에는 흉대를 두르고 끈으로 묶었다. 상갑 위에는 요의를 두르고 요대와 끈으로 고정하였다. 북부의 귀면이 요대와 끈으로 만든 수환을 물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 뒤로는 천의 자락이 둥글게 돌려 화염광배를 만들었다. 정강이에는 바지자락을 묶었으며, 문양을 시문한 戰靴를 신고 있다. 발아래에 표현된 야차는 원래부터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의 바닥은 소조로 물결을 만들어 마치 사천왕이 해상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수군이 이곳에 주둔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야차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북이를 등장시켜 해변 사찰이 갖는 입지적 특징을 사천왕상의 모티프로 활용하는 등 작자의 재치가 돋보인다.



<사천왕상 얼굴(남방)>



<서방광목천왕(몽구스)>



<거북이 생령(북방)>

사천왕의 지물로는, 북방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고 모습이고 동방지국천왕은 어깨를 세워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펴 칼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다. 남방증장천왕은 오른손으로 용의 목을 움켜잡았고, 왼손은 치켜들어 여의주를 잡았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당을 잡았고, 왼손으로 허리춤에서 몽구스의 몸통을 움켜쥐고 있다.

특히 서방광목천왕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와 구례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당과 몽구스를 지물로 채택하고 있다. 몽구스는 작은 귀와 동그란 코를 가졌으며 윗니를 살짝 드러내고 있다. 사실적인 순천 송광사 몽구스와 구례 화엄사에 비해 다소 이상적인 동물형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성 시점에 따른 도상과 양식의 변화로 이해된다.

사실 사천왕상의 지물로 등장하는 몽구스는 이른바 寶鼠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티베트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사문천(다문천)의 지물로 여겨졌다. 티베트 경전에서 북방다문천이 금화가 가득 찬 황색 쥐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財寶神인 비사문천의 지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호탄의 구살단나왕이 적의 침략을 금색과 은색빛 털 쥐의 신령함과 도움으로 승리하여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고 재를 올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호탄 지방에서는 몽구스가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신앙되어 비사문천이 보탑대신 몽구스를 지물로 취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천왕상의 경우 주로 북방다문천왕 보다는 서방광목천왕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 도상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왼쪽 허리춤에서 몽구스를 쥐고 있는 도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서방광목천왕, 1636년경의 구례 화엄사 서방광목천왕에

서만 볼 수 있어 지역적, 유과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는 벽암 각성 문도와 관련 있는 사찰이며, 중창불사 시 벽암문도의 조각승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응원·인균과 조각승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찰이어서 이 사천왕상도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 문헌자료

### <여수 흥국사 천왕중수개채기> 현판

混沌未開初無天地之象七鑿既卒始有方隅之名自比天」  
 神地神各司方隅佛界生界亦殊分界令興國大乘名藍」  
 亦有四天王司方之像毘嵐劫燧還同昭氏家藏匣之琴行」  
 路傷嗟屢主愴惻以故寺官使議皆曰此非凡僧者之可堪實」  
 是宗師過之能事物論輿望專推宗師宗師中碧波龍雲詠」  
 月翫海四大師者皆以本山人文獻有裕空門傑出者也共發肯心互」  
 斷金石效軸各擔杖屢相忙落日途中幾抱投宿之歎凌晨街上」  
 徒懷覓檀之愁是爲樂歟是爲若耶行乞於坵宅猶困於夏畦既」  
 倨穀財始作佛事五化主一面共設天王緣化於青蓮老碧波一過兼」  
 開畦衣佛事於寂默兩緣化端倪則重天中先後兩始落成則端陽後」  
 同時兩終其佛事作也龍象並蹴賢凡接肩建掛佛庭中奏點」  
 眼於樓上幡色花色飄風翻空金聲魚解徹天動岳是日也明」  
 光滿磬瑞氣蟠空翫賞老嫗悲感而掛布如雲參觀鵠叟歡」  
 心而擲錢如雨是乃諸大師之法力以有佛菩薩之冥資余亦」  
 貫考此山幸參末席僉以有徵請記余以無文辟辭再曰爲文者」  
 豈皆能文而文秉筆者豈盡能筆而籠使知後來世雖或有」  
 記諺之文猶足於上古岙不可攷結繩之政願師母辭略述今事」  
 闕遺畏生像未壞前人欲修復然則今日重修之記他年更修」  
 之資主事諸員盡載板上功之輕重觀者權衡如此則何如」  
 也曰可也遂書爾

崇禎紀元後百七十九年乙丑六月日 順庵摯舒 謹識」

상

山中宗師緣化秩」

證師 順庵摯舒」

化士 龍雲樞泓」

化士 碧波桂隱」

化士 詠月壯旻」

孝庵充鑑」  
化士 翫海儀俊」  
化士 羅仁」  
雜物化士嘉善感澄」  
都畫員華岳評三」  
畫工都數十六員」  
都監通政 策密」  
別座前住持 美彥」  
時住持通政 夢希」  
維那前住持 感千」  
佛位都監嘉善感澄」  
佛有司 曉添」  
典庫都監 暹性」  
典有司 曉俊」  
記室 命喆」  
前啣秩」  
嘉善 大岑」  
前住持 奉活」  
嘉善 碧奎」  
通政 彥桓」  
通政 策密」  
前住持 存平」  
通政 竺賢」  
嘉善 照敏」  
前住持 典哲」  
前住持 典淳」  
前住持 侃一」  
嘉善 睿克」  
時持殿 睿謙」  
眞木都監嘉善侃哲」  
중단  
施主秩」  
山人 斗定」  
嘉善 照敏」  
通政 壯玉」

嘉善 感澄」

前任持 感千」

李景浩」

丁牛山」

金吾宅」

金漢突」

金漢龜」

鄭大炯」

鄭晋炯」

徐有德」

姜遇文」

丁東赫」

崔不憶」

朴蘭先」

丁處權」

丁千年」

曹允國」

裴萬年壽」

天王曹溪丹獲施主秩」

理事判廳 僉員」

甲子甲 僉員」

甲戌甲 僉員」

甲申甲 僉員」

三宝廳 僉員」

三綱 表文」

命玉」

卓性」

直樓 叙策」

羅憲」

明倫」

하단

東過將祿雲」

西過將如欣」

堂司兼助使 友眞」

西過助使 曉芸」

天王閣曹溪門丹青秩」

畫工 惠文」 71)

教桓」 72)

戒性」 73)

妙喆」

伯文」

刻手秩」

曉旬」

浩文」

供養主秩」

始元」

快宗」

誦呪秩」

性悟」

守仁」

### <여수 흥국사 천왕중수개채기> 현판 번역(진옥스님)

천지가 혼돈하여 음과 양이 아직 열리지 않고 달과 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처음에는 천지간에 형상이 없었는데, 7가지 요소가 서로 교차하여 일어남으로써 사방과 四隅가 생겼다. 천신과 지신이 각각 방위를 맡고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또한 환경을 달리 하였다. 이제 대승사찰인 흥국사에 사천왕문이 있고 사천왕이 사방을 맡은 사천왕상이 있는데 풍진에 의해서 하룻밤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빈터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흥국사 스님들도 고민했으며 흥국사와 관계있는 관원들도 서로 걱정하였다. 이 복원불사는 일반 승려로는 힘들며 여망과 덕이 높은 종사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흥국사 스님인 백과·용운·영월·완해스님 등은 덕망과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관과 민 모두에 유대가 좋다고 하면서 복원불사의 연화주역을 요청하였더니 긍정적으로 수락하였다. 네 분의 스님은 권선책을 각각 휴대하고 죽장망혜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화주하다가 해가 지면 나무 아래와 풀밭에서 몇 밤이고 서로 안고 유숙하기가 예사였다. 별빛이 나는 때면 밤에 일어나 시주들을 찾아서 호별방문을 하고 다니는 이 화주가 즐거움인가 고통인가, 아무튼 돈과 곡물이 준비되어 불사를 시작하였다. 다섯 화주가 한편으로 천왕불사는 청련암에서 설판하고 한편으로

---

71) 서산 개심사 대웅전 관경변상도, 1767년.

72) 선암사 나한전 삼세불도(1802년), 선암사 나한전 신중도(1802년), 고성 옥천사 패불(1808) 제작에 참여.

73) 선암사 팔상전 화엄도(1780년), 선암사 나한전 삼세불도(1802년), 선암사 나한전 신중도(1802년), 석남사 지장도(1804년), 동화사 양진암 신중도(1804년), 통도사 보광전 화엄도(1811년) 제작에 참여.

가사불사는 적목당에서 설판하였다. 두 가지 불사의 시작은 선후를 찾고 경중을 논하였지만 낙성은 단오 후 같은 때에 거행하니 용상대덕들이 발걸음을 바빠하고 현사와 대중들이 어깨를 같이 해서 괘불을 뜰앞에 모시고 점안을 누각에서 거행하니 이날 깃발의 색과 꽃의 빛같이 바람에 휘날리고 허공에 번쩍이며 종소리와 어산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며 영취산의 골짜기를 뒤흔드는 듯 하늘 외에 특별한 경계요 부처님의 세계가 재현한 듯하였다. 밝은 달은 허공에 가득하고 서기는 사방에 서려 있으므로 참가한 사람들의 희열은 지극하고 모두 환희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경사는 스님들의 법력과 불보살의 가피인양 하여 신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대중스님들이 불사의 기록을 나에게 청하나 나는 글에 대해서 조예가 없으므로 이를 사양하였는데, 재삼 청하면서 글 쓰는 사람이 어찌 모두가 문장에 능하리오 하면서 후세에 전하고 알려주면 글이 불품없고 필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옛날에 끈을 맺어 후세에 전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족하다 하므로 이제 모자란 것을 보완하여 후인들에게 조심하고 선인들이 손대고자 하는 점은 헐지 않았다. 지금의 중수문이 다음에 다시 역사를 쓸 분에게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불사를 맡아서 하는 분들의 공적사항은 현판에 기록하였으며, 공적의 고하는 보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짐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승정기원후 179년 을축 6월일 順庵摯舒가 삼가 짓다.



## ○ 현 상

- 흥국사 입구의 천왕문 내에 좌우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이 최초로 건립된 연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1805년에 작성된 「흥국사천왕중수개채기」에 의하면 천왕문의 건축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 때에 벽파와 용운스님 등이 중수하고 단청을 입혔다고 한다. 이로 미뤄볼 때 흥국사에는 1805년 이전부터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645년에 흥국사의 정문이 신축되고, 1646년에 봉황루가 건립된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시기에 천왕문이 건립되고 사천왕상도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 4구의 천왕상은 목심 위에 진흙을 붙여 성형한 소조상으로,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장대한 규모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고 있다. 양식적으로 1636년에 조성된 화엄사 사천왕상과 유사점이 많아서 1640년대 중후반 천왕문이 건립될 때 사천왕상도 함께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는 소조

사천왕상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 천왕들은 모두 의자 위에 무릎을 구부린 채 양발을 약간 벌리고 앉아 있다. 머리에 각종 화문으로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발은 귀 중앙을 감싸면서 돌아내려와 어깨 위에서 좌우로 갈려져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모습이다.
- 천왕들의 얼굴은 방형으로 미간에 힘을 주어 찌푸렸으며, 둥근 눈은 부릅뜨고 있어 험상궂어 보인다. 사천왕 중 동방지국천왕상만이 반개하여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비교적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코는 모두 주먹코로 콧등에는 잔주름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남방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 서방광목천왕은 당과 사자, 북방다문천왕은 비파, 동방지국천왕은 칼을 지물로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왼 무릎 위에 기댄 비파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며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은 1628년에 조성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나 1636년경 조성된 구례 화엄사의 사천왕상 중 다문천왕의 모습과 동일하다.
- 천왕문의 바닥에는 흙으로 마치 구름을 연상시키는 문양을 조각해두어서 이채롭다.

#### ○ 참고문헌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9.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報恩 法住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11.22./'22.11.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報恩 法住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5.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입상형(立像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중엽)
- 제작자 : 미상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법주사의 소조사천왕상은 절대연대는 없지만, 법주사가 중창되는 17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천왕상은 소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 크기에 지물은 물론 발 밑에 있는 생명좌들까지 원 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생명좌는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다는 악기를 들고 있거나 정면을 바라보는 특이한 모습에 세밀한 표정과 기법이 특징인데 이는 17세기의 일반적인 사천왕과는 다른 요소들이다.

법주사 소조 사천왕은 6m 가까운 크기에 재료는 소조이며 서 있는 자세인 점에서 조선후기의 다른 사천왕과 크게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사천왕은 위협적이고 무서운 과장된 모습보다 잘 생기고 인자한 모습에 자연스러운 자세가 특징적이다. 이는 밑에 깔린 생명좌의 무심하거나 해학적인 표정과도 묘한 대조를 이룬다.

법주사의 주 사찰 배치는 남북축선상으로 금강문-천왕문 - 팔상전 - 대웅보전으로 이어진다. 이 선상에서의 주요 전각은 팔상전과 대웅보전으로, 두 건물 모두 17세기 전반기에 중창불사가 진행되었다. 즉, 팔상전은 1605~1626년에 걸쳐 재건이 진행되었으며, 대웅보전은 그 안에 봉안된 최대 크기의 소조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1624~1626년에 이루어졌다. 이 중창 불사는 사명대사 유정, 벽암 각성 등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 시기 최고의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주사에서 가장 큰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17세기 전반기에 남북축선상에 놓인 전각과 불상들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함께 재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천왕문과 사천왕상 역시 천왕문 기둥의 최외각 연륜연대가 1619~1620년 경, 사천왕상의 심목과 마루판이 1636~1664년

으로 분석된 결과도 참고된다.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은 복장물이나 발원문을 통해 절대연대나 조각승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찰의 역사와 배경, 나무의 연륜연대 조사 결과에 따라 17세기 전반기, 늦어도 17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대 크기에 입상 형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은 현존하는 한국의 사천왕상 중에서 매우 드문 입상 형식에 그 크기가 최대 규모이며, 예술성 또한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이후 서울 봉은사 사천왕상이 입상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 반면 석굴암 사천왕상, 통일신라 석탑이나 사리기, 석등에 새겨진 사천왕, 청도 운문사 사천왕상 등은 모두 입상이며, 불화에서도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입상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좌상의 사천왕 도상과 상체의 자세는 동일하나 입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일 뿐 아니라, 같은 자세일지라도 입상인 만큼 천왕상 각각의 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북방다문천왕은 마치 음유시인이 비파를 연주하며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서방광목천은 부처님을 향해 꽃을 던지는 공양자처럼 운동감이 느껴진다.

법주사는 팔상전, 대웅전 및 그 안에 봉안된 불상들도 매우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천왕문도 그에 맞는 규모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규모와 유일한 입상 형태의 사천왕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만약 천왕문이 단순히 보조적인 전각에 불과했다면 주불전과 불탑의 규모에 맞춰 함께 크게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심 불전의 규모에 맞춰 천왕문도 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천왕문이 단순한 보조 전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왕문 자체도 사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천왕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법주사 사천왕상은 입상이라는 특유의 자세 뿐 아니라, 천왕이 쓰고 있는 보관, 발 아래 악귀의 형태 측면에서도 다른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왕이 착용하는 보관은 보살상이 착용하는 보관과 유사한 형태이나, 법주사에서는 이외에 깃털 달린 투구형태의 관도 동방 및 서방천왕이 착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깃털 달린 투구는 서양미술에서는 헤르메스가 착용하는 투구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은사탑 출토 사리기에 부착된 사천왕의 머리 양쪽에 마치 깃털처럼 솟은 것이 보이는데, 다만, 머리모양에 상투와 머리칼이 보이는 것을 보아 투구를 착용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양쪽에 솟은 것이

깃털인지 혹은 불꽃인지 확실치는 않다. 또한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신장상편의 3종의 도상 중 하나에서 활을 든 신장이 이처럼 깃털 달린 투구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법주사 사천왕상의 장엄요소들은 보다 오래된 전통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러한 투구는 위태천이 착용하는 것으로 불화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법주사에서 사천왕이 왜 신장이나 위태천이 착용하는 투구를 착용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이러한 계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법주사에 이어 사천왕이 입상으로 조성된 서울 봉은사의 경우에는 남방증장천왕이 이와 같은 투구를 착용하고 있어 입상과 깃털 달린 투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법주사 사천왕상의 발 아래 악귀들 중 특히 북방다문천이 밟고 있는 악귀는 일반적으로 청나라의 황제인 홍타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난모’라고 하는 여진족의 특유의 겨울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천왕이 아니라 북방천왕이 밟고 있다는 것은 그 아래 존상들이 북방민족이라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도 보여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실제 홍타이지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이 이곳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법주사 천왕문의 다른 악귀들도 도상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머리 위에 외뿔이 솟은 것 같은 악귀는 우리나라 도깨비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 외뿔 이미지가 단지 일본의 ‘오니’의 영향을 받은 근대기적 소산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남방증장천 아래의 두 존상은 마치 풍신과 뇌신의 조합과 같은 인상을 준다. 북채를 든 뇌신의 도상은 비교적 정확하나, 풍신은 뇌신의 또 다른 도상의 하나인 바라 같은 지물을 들고 있어 정확히 풍신·뇌신의 조합은 아니지만, 서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불화, 특히 감로탱 등에는 풍신·뇌신이 드물게나마 보이지만, 한국미술사에서 조각상으로는 지극히 드문 사례여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풍신·뇌신은 원칙적으로 악귀가 아니고, 다만 모양만 도깨비 모양인데, 왜 악귀들과 함께 천왕의 발 아래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통해 다른 미술에서 잘 묘사되지 않았던 풍신·뇌신에 대한 한국미술사에서의 인식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주사 사천왕상은 정확한 조성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근래 실시된 과학적 연대 측정에 의해 1654년 무렵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북방천왕 아래 청나라 사람이 들어가는 점과도 부합하여 조성연대는 1650년대 정도로 잠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주사 사천왕상의 중요한 미술사적·문화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17세기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의 사천왕상이며, 입상으로 계획된 작품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소조미륵여래오존상(미륵불은 소실로 1938년 새로 제작)에 비견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천왕상 자세 중 입상으로 계획된 것은 이 법주사 상이 유일하다. 소조기법을 잘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을 보여줘 작품성도 갖추고 있는 사천왕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제작된 사천왕상은 대부분 보살형의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법주사 사천왕상의 경우 2구는 보살형 보관을, 2구는 장군형 투구를 쓰고 있어 사천왕상 도상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감로왕도처럼 사천왕상의 생령좌에 청나라 관리와 조선의 관리를 도입하여,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고 조선의 탐관오리들에게 종교적 鑑戒와 교훈을 주고자 했던 점에서 사회사적 의의가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법주사 소조 사천왕상은 건립연대가 알려진 상이자,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천왕상 중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는 가장 시대가 이른 사천왕상으로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천왕문 안에 사천왕상이 안치된 시기가 이른 사례로서 중대한 기준이 된다. 비록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초대형의 입상으로 서 뛰어난 기량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것은 확실하다. 종합하면, 17세기 전반의 소조 사천왕상의 기준작으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있고, 임진왜란 이후 전국의 중창불사를 주도했던 벽암각성이 조성을 주도한 불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에, 보물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현존하는 소조불상의 수량이 많지 않고, 사천왕상의 경우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주사 소조 사천왕상은 보물로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내 력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 천왕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입상의 소조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크기는 570cm 내외로 6m에 가까우며 입상의 사천왕상은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특이성을 가진다. 법주사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17세기 전반 경에 중창불사가 크게 이루어진 법주사의 연혁과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법주사는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이 사찰에서 출가한 신미(信眉)대사가 주석한 조선전기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신미대사는 1450년 내원당을 궁 안에 짓고 법요를 주관했으며, 복천사를 중수한 불사로 유명하다. 법주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의 본거지로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전각이 불탄 이후인 17세기 초부터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표1). 팔상전의 재건이 그 시작으로 1605년의 사리장엄구 銅版과 비단 보자기의 명문에서 팔상전 건립 경위가 밝혀졌다. 즉, 동판에는 1597년 9월에 왜군에 의해 불타고 1605년(乙巳年) 3월에 ‘朝鮮國 僧大將 裕淨 比丘’가 팔상전을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팔상전 재건은 청허문중의 대표 인물인 사명유정을 비롯하여 부휴문중 및 벽암 각성의 제자들이 참여한 대불사였다. 뚜껑에 용무늬가 새겨져 있는 은제함의 밑바닥에는 1620년(광해군 12년) 세자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들었다는 글귀가 있다. 또한, 1626년 팔상전 서면 내목도리 바닥에서 목서가 발견되었는데, ‘佛像大化主 □實比丘, 盡□ 玄眞比丘, 太眞比丘’라는 기록이다. 玄眞은 1626년 법주사 대웅대광명전의 삼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이 무렵 팔상전 내부의 불상을 조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팔상전은 1605년부터 1626년까지 오랜 기간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1 법주사의 전각과 중창불사>

연번	전각명	재건연대	주관
1	팔상전	팔상전: 1605~1626년 팔상전 서면 내목도리 목서(1626년)	사명대사(朝鮮國 僧大將 裕淨 比丘)
2	대웅보전	대웅보전: 1618~1624년 소조비로자나삼불상: 1626년	벽암각성(1575~1660)
3	천왕문	17세기 전반~중엽 경(추정)	

대웅보전은 1624년 벽암각성이 중창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총 120칸에 건평 170평, 높이 61척의 다포식 중층건물이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1626년(인조4)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된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후, 1630년 『법주사사적기』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법주사의 중창 불사는 1626년경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상전과 대웅보전은 법주사 전각 가운데 금강문-천왕문 - 팔상전 - 대웅보전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선상의 주요 건물이다. 따라서, 17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중창 불사는 남북축선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북축선상에서의 시작인 천왕문 역시 함께 중창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천왕문과 사천왕상 관련 자료는 1926년의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해비명(俗離山法住寺修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에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1899년에 천왕상 4위(位)를 개채하였다고 기록하였다(丁酉修天王門 己亥改彩四天王四位).

### ○ 현상 및 특징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의 네 봉우리에 거주하며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섬부주), 북(구로주) 사대주를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형상화한 사천왕상은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천왕문의 내부에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비파, 칼, 용과 여의주, 보당(산개)과 탑을 든 천왕의 순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북-동-남-서방으로 방향을 가지는데 법주사 사천왕 역시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와 구성을 따르고 있다. 즉, 천왕문(도1)을 들어서면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 보당과 탑을 든 서방천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1 보은 법주사 천왕문 전경>

법주사 천왕문의 사천왕은 5~6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각기 다른 보관과 지물을 들고 서 있으며, 자세와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도2). 전체적으로 얼굴은 크고 옆으로 긴 눈, 허리가 긴 장신의 비례감 그리고 지물의 성격과 방향에 맞춘 자유로운 자세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물은 두 팔을 벌리거

나 비스듬히 사선으로 들어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공간감을 보이며 얼굴은 험악하고 무서운 모습보다는 부드럽고 잘생긴 인상을 풍긴다. 갑옷을 입은 형태라든지 보관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2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서방광목천왕은 능형의 낮은 보관을 썼으며 두 손에 각기 보당과 탑을 들었다. 밑에는 두 구의 생명좌를 밟고 있다. 천의자락은 두 발밑으로 바닥까지 흘러 내려 안정감을 주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방지국천왕은 칼을 비스듬히 들었으며 능형의 낮은 보관에 양측에 새의 날개와 깃털이 달린 보관을 쓰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두 팔을 벌린 역동적인 자세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다. 나무로 추정되는 보관을 쓰고 관대가 양 측면으로 휘날리며 보관에는 화문과 구름, 봉황

등을 별도로 만들어 고정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의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으로 장식하였다.

사천왕들의 발 밑에는 작은 크기에 각각 2구의 생명좌(야차)들이 천왕의 발에 깔리거나 밟혀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도3). 악기를 연주하거나 관리나 양반과 같이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인물도 있는데 표정이 생생하고 찡그린 표정까지 매우 사실적이다. 그리고, 묵중한 크기의 사천왕에 눌린 고통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심하게 정면을 응시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밝은 모습 등에서 점에서 오히려 풍자와 해학적인 모습도 보인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3 범주사 사천왕상의 생명좌>

천왕문과 사천왕상 등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륜연대가 조사되었다. 천왕문 기둥의 최외각 연륜연대는 1619~1620년이며 사천왕상의 심목과 마루판은 1636~1664년으로 참고된다.

□

## ○ 현 상

법주사 사천왕상은 법주사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된 후 벽암각성에 의해 1624년 중건될 때 함께 중건된 것으로 보이는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다.[도1] 이 천왕문의 연륜연대 분석에 의하면 1621년으로 편년되어, 이 무렵 벌목된 후 기존의 추정연대인 1624년 무렵에 중건된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주심포 형식의 건축이며 법주사의 전체적인 좌향인 남서향을 따르고 있다. 천왕문은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천왕상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도1 보은 법주사 천왕문>

천왕문 안의 사천왕의 배치는 일반적인 남향 건축에서와 동일한 배치로 봉안되었다. 즉, 남쪽으로부터 진입했을 때 건물 동쪽인 우측의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서쪽인 좌측의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찰의 천왕상은 모두 좌상인 반면에 유일하게 입상으로 조성되었으며, 때문에 천왕상의 높이가 5.7m 가량에 이르러 천왕상 중 최대 규모이며, 이렇게 거대한 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해 천왕문 역시 최대 규모이다. 또한 단지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조형성 또한 매우 높다. 앞서 연륜연대분석에 의해 고찰된 바와 같이 사천왕이 천왕문보다 30년가량 늦게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천왕문이 이처럼 거대하게 세워진 것은 이처럼 남다른 규모의 사천왕을 봉안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천왕상을 세우지 못하고 치밀한 준비를 거쳐 결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을 완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북방천왕은 천왕문을 통과해서 나가려는 사람을 인자하게 배웅하는 듯한 모습으로 조성되었다.[도2] 지물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북방천왕의 도상인 비파를 들고 있지만 입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정중앙과 좌우의 보주는 특별히 더 크고, 특히 중앙의 보주 안에 꽃 장식이 추가적으로 그려져 강조되어 있다.[도3] 그 아래에는 꽃잎

열이 3겹인 등근 국화문 같은 꽃장식과 구름문양이 장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화염보주문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좌우에는 더 큰 국화문을 달았고, 특히 정중앙의 국화문은 좌우에 그보다 작은 국화문이 뒤에 겹쳐있어 더 화려하게 꾸몄다. 보통은 천왕의 보관 중앙에는 용이 위치하는데, 법주사 천왕들은 예외적인 장엄이라 하겠다. 정중앙의 국화문 장식 좌우 상단에는 다시 흰색과 녹색의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이 달려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상이 커서 이 띠의 휘날리면서 접히는 부분이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또 띠 안에는 금색의 원형 장식이 그려져 있어 실제 장식문양이 있는 비단자락이 휘날리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준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도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며, 다만 입체성이 강조되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뒤로 넘어가는 것은 보살상의 보발이나 다른 사찰 사천왕상의 보발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어깨로 흘러내리지 않고 끝나고 있다. 귀에는 ‘?’형으로 구부러진 철사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 끝에 붉고 동그란 구슬형 귀걸이가 달려있다. 귀걸이 끝에는 실제 이러한 장식구와 고정하는 철사를 마감할 때처럼 꽃잎 장식이 그려져 있고, 철사의 끝도 금색의 단추 같은 부재로 깔끔하게 마감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검은 눈썹과 검은 수염이 북방천왕을 젊어보이게 한다. 이마에는 매우 굵은 주름살이 한 줄 가로새겨 있는데, 이 주름은 미간에 있는 세로선으로 새겨진 잔잔한 주름과 함께 노화로 인한 주름이라기 보다는 눈에 힘을 주어 인상을 쓸 때의 주름처럼 보인다. 다른 사찰의 사천왕의 경우 콧구멍이 마치 숨을 거칠게 내쉴 때처럼 크게 표현된 경우도 많으나, 여기서는 매우 작게 흔적만 표현되어서 차분한 인상을 준다. 입은 미세하게 미소짓는 듯한 인상이고, 입을 살짝 벌려 윗니가 그 틈으로 조금 보인다. 북방천왕은 특히 수염이 인상적인데 턱에서 시작된 수염이 수직으로, 또는 아래로 모아지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펼쳐지듯이 넓어지고 있어 특이하다. 마치 삼국지의 관우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북방다문천왕은 문무를 겸비한 인자한 장수의 분위기를 풍긴다.



<도2 북방다문천왕>      <도3 북방다문천왕 상체 세부>      <도4 북방다문천왕 요대 수식>

목에는 보라색 스카프를 둘렀고, 갑옷은 전체적으로 소슬금문으로 꾸며졌다. 이 소슬금문은 금색 등 단색으로만 채색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청색, 적색, 연두색의 세 색을 번갈아가며 칠해 단청이 주는 화려한 느낌을 살렸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의 상단에 푸른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푸른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팔굽에서부터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는데, 그 모습이 흥함꺾질처럼 속이 비어있어 입체감을 살렸다. 특히 소조로 이렇게 나부끼는 옷자락을 만들면 무게를 지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도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조개꺾질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양쪽 소매의 끝을 모두 천왕문의 기둥에 붙여두었는데, 여기에 고정을 하여 지탱하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 팔굽 부분에 보이는 속옷은 분홍색으로 그 위에 꽃과 구름문양이 그려졌는데 음영이 들어가 있어 마치 부조로 새긴 듯 입체적으로 보인다.

가슴과 배 사이에는 붉은색 천을 벨트처럼 휘감아 정면에서 묶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휘감은 천 자체로 매듭지어 묶었다. 이 매듭 안쪽으로 보이는 갑옷은 가슴에 보이는 문양과 같은 소슬금문인데 채색을 살구빛 단색으로 칠했다. 허리에는 금빛의 장방형 마디로 이루어진 요대를 착용하고 그 안에 푸른색의 화려한 천으로 허리를 감싼 모습이 보인다. 요대 중앙에는 회흑색의 용처럼 생긴 동물 가죽이 달려있는데, 몸에 비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물고기 같은 몸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죽의 입에서 붉은 띠가 좌우로 흘러나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데, 무릎 높이에서 한번 매듭이 지어진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도4] 보통 요대 마디 장식은 용이나 봉황 등을 입체적으로 화려하게 새겨넣는데, 범주사의 경우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있다.

허벅지는 흉갑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으로 소슬금문을 채색했고, 그 아래로는 바지 자락이 보이는데 팔굽에서 드러난 옷과 마찬가지로 분홍색조에 붉은 색의 연주원문이 점점이 그려졌다.[도5] 무릎 아래에서 이 옷자락을 붉은 끈으로 묶고, 정강이에는 붉은 색조의 슬갑을 착용했다. 신발은 먼지가 쌓여 세부 문양은 잘 보이지 않지만 상판은 붉은색에 황색의 평행선이 그어진 형태로 보이고, 발등의 가운데에는 국화문으로 꾸몄으며, 신발코는 푸른색의 여의두문으로 마무리되었다.



<도5 북방다문천왕 좌측면>



<도6 북방다문천왕 악귀(왼발)>



<도7 북방다문천왕 악귀(오른발)>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왼손은 지판 위에 올라가 있지만, 오른손은 비파의 하단을 받치고 있는 자세여서 연주하는 모습은 아니다.[도3] 비파의 공명 구멍은 마치 코끼리의 눈처럼 채색이 되었고 그 주변도 마치 흰 가죽을 입힌 것처럼 채색되었다. 비파의 몸통에는 나뭇결이 정교하게 그려져 사실성을 더했다. 현을 고정하는 줄걸이판이나 지판 끝의 목 부분에도 휘가 들어간 채색장식이 보이는 등 세심하게 장엄한 것이 느껴지며, 비파의 형식은 목이 꺾인 당비파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4개의 현 중에서 하나는 끊어진 상태로 매달려 있다. 양손은 소조상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손가락 마디마디의 굴곡을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손톱도 비교적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북방천왕의 어깨에는 피건이 걸쳐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피건이 좌우로 휘날리면서 바닥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깨에서 내려와 겨드랑이를 타고 등쪽으로 넘어가면서 U자형으로 굽이 치며 뒤편 허리춤으로 말려들어갔다 다시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뒤틀리면서 바닥까지 드리워지고 있다.[도5] 바닥에는 악귀들이 누워있는데 이 악귀들을 바닥에서 감싸듯이 드리워지고 있다.

범주사 천왕은 모두 입상이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서 악귀들은 모두 이들 천왕에 밟힌 모습을 하고 있다. 왼발 아래 밟힌 악귀는 배를 위로 하여 누웠는데, 머리칼을 마치 고깔모자를 쓴 것처럼 쓸어 올린 것처럼도 보이고, 혹은 외뿔이 돋아나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도6] 전체적으로 피부는 붉은색에 근육질의 몸을 지녔고, 얼굴은 옆으로 넓적하며 튀어나올 듯한 눈동자에 들창코, 꼭 다문 기다란 입술에 아래에서 솟아난 송곳니가 전통적인 도깨비 이미지를 보여준다. 짧은 소매의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었으며 옷자락 일부가 바닥에 늘어져 있다. 바닥을 짚고 있는 손이 매우 굵게 표현된 것도 특이하다.

한편 오른발로 밟고 있는 악귀는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워 밟혀있는데, 범주사에서는 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조각상이다.[도7] 전해지기로는 병자호란 등을 겪은 뒤이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청 황제 홍타이지를 북방천왕의 발 아래에 넣은 것이라고도 한다. 이 인물이 홍타이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착용한 모자가 청나라 겨울 관모인 난모(暖帽)처럼 보여 청나라 사람을 의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 인물은 악귀로서의 특징은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며 입고 있는 옷도 화려해 보이는 등 고급관료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른 악귀들과 마찬가지로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려 팔뚝과 종아리를 드러내 벌을 받고 있는 중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 인물이 실제로 홍타이지나 청나라 군사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면, 청에 의한 정묘호란(1627)이나 병자호란(1636~1637)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기존의 1624년 제작설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이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밝혀진 1655년은 북방천왕 악귀의 여진인(청나라)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천왕상과 악귀들은 모두 천왕문 바닥 위에 설치한 나무 궤짝 같은 받침 위에 조성되었다.



<도8-1 동방지국천>      <도8-2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9 동방지국천 하체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의 장엄요소는 북방천왕과 대체로 대동소이하나,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기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도8]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관대의 가운데 부분이 완만하게 솟은 삼각형 모양인데, 다른 장식은 전혀 부착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이고, 다만 관대의 상단 테두리가 여의두문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다.[도8] 이렇게 관대는 단순하지만 대신 양쪽에 깃털이 달려있어 일종의 조우관처럼 보이기도 하며, 측면에는 단청 채색된 날개가 달려 있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투구, 혹은 위태천의 투구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보관에서 뒤로 두건 같은 것이 뒷통수 부분을 덮고 있는 것도 다른 천왕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보살의 보발 표현도 보이지 않고 단지 보관 아래로 약간의 머리카락이 살짝 보일 뿐이다. 수염, 눈썹은 구불구불 말린 형태로 채색되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젊은 장수의 모습이다. 입은 차분히 다물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이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걸이가 부착되어 있다.

갑옷의 형태는 대체로 북방천왕과 유사하나 요대를 결박하는 대구 부분이 청룡이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도9] 용은 두 개의 뿔을 지녔고, 아래턱도 분명히 묘사되었으며, 정수리와 턱아래에 구불구불한 갈기가 있어 사자처럼도 보인다. 상박갑 아래 팔굽에서 드러난 상의의 문양은 여기서는 국화당초문처럼 채색되어 있다. 지물인 보검은 손잡이가 금강저처럼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칼날의 끝 부분이 여의두문처럼 장식적으로 처리된 것도 주목된다.[도8] 마치 칼날의 예리함을 점검하듯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을 살짝 칼날에 대고 있는 정형적인 동방지국천왕의 자세이다. 보통 칼날은 청색으로 채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말에서 ‘시퍼렇게 선 날’이라고 할 때의 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서는 금빛으로 채색한 것이 특이하다.

악귀는 왼발의 경우는 북방천왕 왼발의 악귀와 같은 도깨비 모습인데 정수리에 끝이 뾰족한 두건을 쓰고 있다.[도10] 아마도 두건 아래에 뿔이 있기 때문에 두건 끝을 뾰족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배를 땅에 대고 누워 밟힌 상태이다. 오른 쪽 발에 밟힌 악귀는 사람의 모습인데 조선의 관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식 자체는 앞서 살펴본 청나라 사람을 모델로 한 인물과 유사한데, 머리에 조선 관리가 쓰는 복두를 쓰고 있어 구분된다. 아마도 무능한 조정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채색으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그려두었으며, 귓구멍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특이하다.



<도10 동방지국천 악귀(왼발)>



<도11 동방지국천 악귀(오른발)>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은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나, 관대 뒤쪽에서 펼쳐지는 2중의 S자형 띠는 북방천왕의 띠에 비해 평면적이고 휘날리는 형태도 단순하다.[도12] 이것이 원형인지, 아니면 원래는 북방천왕처럼 정교한 띠 장식인데 후에 보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흉갑의 표면은 금빛의 소슬 금문으로 채색된 것으로 보이는데, 목에 걸친 스카프 자락이 넓게 펼쳐지고 있어서 거의 가려져 있고 펼쳐지는 스카프의 틈새로 조금씩 드러나 보일 뿐이다.[도13] 상박갑은 녹·청·적색의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어 있다.



<도12 남방증장천>

<도13 남방증장천 갑옷 세부>

<도14 남방증장천 좌측면>

요대 부분은 허리에 두른 푸른색 천에 의해 가려져 있고, 대신 복부에 두른 붉은 천의 위쪽 테두리가 마치 요대처럼 마디마디 여의두문으로 채색되어 있다. 복부를 보호하는 갑옷의 표면은 어린문으로 채색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금색의 굵은 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 푸른색의 용 가죽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 가죽에는 청색반점이 있으며, 정수리에는 외뿔이 돋아나있다. 가죽의 아래 부분에는 뒷발이 늘어져 있어 이 가죽장식의 표현을 세심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허벅지를 가리는 군갑은 커다란 어린문으로 채색되었으며, 군갑 아래로 보이는 하의를 무릎 아래에서 붉은 끈으로 묶은 것은 다른 천왕들과 동일하다.

한편 지물로는 오른손에 황룡,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용은 마치 여의주를 빼앗겨 잔뜩 약이 오른 듯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 생동감이 있다. 이 오른팔의 견갑 아래로 흘러나와 옆으로 펼쳐지는 옷자락은 원래 천왕문의 벽면에 연결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 소조상의 내부 흙이 드러나 있고, 내부의 목심에 철사가 감겨 천왕문의 공포에 매달려 놓은 구조가 확인된다.



<도15 남방증장천 악귀>

남방천왕의 악귀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뇌신의 모습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뇌신은 악귀가 아니지만, 형태는 도깨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악귀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뇌신은 보통 풍신과 함께 짝을 지어 표현 되는데, 남방천왕 아래에는 두 존재 모두 뇌신의 도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바라를 들고, 하나는 북채를 들고 있는데, 풍신은 보통 바람주머니를 들고 있어 구분된다. 오른발 아래의 뇌신은 발에도 북채를 들고 있어 일반적인 뇌신과는 다르다. 머리에는 머리띠를 땀는데 이마 위에서 묶은 것으로 보이며 그 위에 화염문 같은 것이 세워져 있다. 왼발 아래의 뇌신은 머리 좌우에 상투를 튼 동자의 모습인데, 들고 있는 바라 안에는 구름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어서 혹시 이것이 풍신을 상징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16 서방광목천왕>



<도17 서방광목천 상체 세부>



<도18 서방광목천 상체>

끝으로 서방광목천은 동방지국천과 같은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눈썹과 수염은 밝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입을 벌려 살짝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다. 흉갑의 문양은 변형된 소슬금문으로 볼 수 있는데, 十자형과 X자형의 짜임이 교차하며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낸다. 상박갑은 일반적인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었는데, 소슬금문을 이루는 삼각형의 한면 한면이 녹·적·청으로 채색되어 있다. 흉갑을 둘러싼 천이나 허리를 감싼 천은 모두 요대로 고정시킨 것처럼 보여서 마치 요대를 상하로 두 개 착용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제 허리에 찬 요대는 아랫배로 늘어진 상태로 착용하고 있는데, 서방천왕의 경우는 특히나 이 요대를 고정하는 용 얼굴모양의 버클인 대구(帶鉤)가 없어서 더욱 이렇게 늘어진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천왕에서 자주 보이는 요대나 가슴에 매달린 가죽장식도 생략되었고, 대신 커다란 원반 모양의 장식이 갑옷 복부에 매달려 있다.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왼손에는 오층탑 형식의 보탑을 받들고 있는데, 자세가 마치 공을 던질 때의 자세처럼 당당하다. 바닥에는 푸른색의 피건 자락과 요대에서 흘러내린 붉은 띠가 소용돌이치듯이 감기고 있고, 그 사이 광목천왕의 발 아래에는 동방천왕처럼 복두를 쓴 관리와 악귀가 밟혀있다. 두 존재 모두 바닥에 늘어진 옷자락 사이에서 마치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또한 관리의 경우는 귀에서 귓털이 빠져나온 것까지 채색되어 있어 사실성을 더했다.



<도19 서방광목천 악귀>



<도20 서방광목천 악귀(오른발)>

□

### ○ 조사내용

법주사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시대 義信스님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8세기 후반 眞表가 속리산에 터를 정하고 제자 永深이 법주사를 세움으로서 사찰의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진표는 신라시대 점찰법회를 주도한 법상종의 승려로, 영심 또한 스승의 종지를 잘 따랐기에 창건 당시 법주사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전 국토와 사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찰의 재건은 전란이 끝나고 본격화 되었다. 그 중심에는 불교의 중앙행정 체계인 팔도도총섭이 있었고, 스님으로는 벽암 각성이 있었다. 법주사의 중창도 벽암 각성이 주도하였다. 벽암각성은 그의 고향이 보은이었기에 법주사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사찰이었음이 분명하다. 법주사는 1602년 팔상전 중창을 시작으로, 1618년 대웅보전 중창, 1626년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부좌상 조성 등 전란에 의해 소실된 전각을 차례대로 복구해 나갔다.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천왕문의 중건 연대와 연계하여 1624년 경으로 추정해 왔다.<sup>74)</sup> 최근 보존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대측정에서 천왕문은 1621년 경으로, 사천왕상의 목적은 1655년 경으로 파악되었다. 1655년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상이 조성되던 해와 같아 주목된다.

천왕문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법주사도>에 일주문-수정교-금강문-천왕문-팔상전-대웅보전이 일직선상으로 그려져 있다. 1926년 세워진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수비명>에 의하면,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1899년에 천왕상 4위를 개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75)</sup> 2019년에는 남방증장천왕의 보관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존처리가 있었다.



<표1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 배치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小形의 사천왕상인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입상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 기법은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흙을 발라 형을 잡고, 채색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 높이가 600cm에 달하는 초대형 상이다. 문의 좌우측에 각각 2위씩 배치하였는데, 조선후기 등장하는 통상의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즉 향해서 우측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보검을 든 동방지국천왕을, 좌측에 당탑을 든 서방광목천왕과 용과 여의주를 잡은 남방증장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동방천왕의 보검은 칼끝을 꽃봉우리 모양으로 등

74) 李康根, 『朝鮮中期 佛教建築 內附空間의 莊嚴』, 『불교미술연구』 1,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4, p.64.

75) 『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守碑銘』(1926), “...丁酉修天王門己亥改彩天王像四位...”.

글린 형태이며,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왼손의 중지과 약지를 구부려 칼등에 올려놓았다. 북방과 남방천왕은 裱같은 천으로 胸帶를 두르고 매듭지어 묶었다.

입상으로 계획된 초대형 사천왕상이지만 사실적인 모델링이 돋보인다. 다른 곳의 사천왕상과 달리 이곳의 사천왕상은 寶冠부터 남다르다. 즉 북방과 남방은 여느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보관을 썼지만, 동방과 서방사천왕은 투구를 썼다. 조선후기 투구를 쓴 사천왕상은 법주사 상이 유일하지만, 보살사 영산회괘불탱(1649년), 안심사 영산회괘불탱(1652년)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같은 불화에서 투구와 보관을 쓴 사천왕상이 동시에 등장한다.



<사천왕상 투구(동)>

<세부표현(북방)>

<사천왕상 야차(청나라 관리)>

눈은 크게 표현하였으나 다른 사찰에서 표현된 사천왕상과 달리 튀어나오듯이 과장되지 않고 인간적이다. 콧날은 삼각형으로 오뚝하게 표현하였다. 목에는 頸甲을 대신하여 스카프를 둘렀고, 머리 뒤를 돌아 양어깨로 걸친 천의는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으며, 천의 자락이 울동적으로 佛身을 휘감고 바닥까지 풍성하게 흘러내렸다. 견갑과 흉갑은 소슬금문(산문갑)으로 표현하였고, 슬갑은 동방은 소슬금문, 동방은 비늘모양으로 달리 표현하였다. 전포 위에는 裳甲, 裳甲 위에는 요의를 멋스럽게 걸쳤다. 북부에는 귀면이 요대와 수환을 물고 있거나 獸皮가 胸帶<sup>76)</sup>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수환은 정강이 부근에서 나비매듭으로 한차례 묶고 장식처럼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이곳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표현은, 바로 흉대와 요대에 있다. 북방과 동방천왕은 통상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북부의 귀면이 요대와 긴 끈 형태의 수환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으나 남방천왕은 수환으로 요대로 삼고 있는 점이 특색이 있다. 또한 가슴의 흉대 역시

76) 17세기에 조성된 대부분의 사천왕은 가슴부근에 띠를 두르고 밧줄로 묶은 모습이나 법주사 사천왕상은 북부에서 띠를 둘렀다. 기술의 편의상 흉대라고 부르겠다.

띠를 두르고 밧줄로 묶는 통상의 방법과 달리 혁대를 둘러 흉대를 고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야차의 모습도 가장 활달하고 특색 있게 묘사하였다, 범주사의 야차는 모두 사천왕에게 밟혀 있는 모습이다. 생령의 모습도 인간형 야차와 악귀형 야차가 동시에 등장한다. 남방천왕의 좌측의 야차는 인간형의 야차로 양손에 바라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고, 우측 야차는 악귀형으로 양손에 북채를 들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의 야차 중 오른쪽에는 관리형을, 왼쪽에는 악귀형 야차의 등을 밟고 섰다. 북방다문천왕은 오른발로 청나라 관리형 야차를 밟았고, 왼발로 악귀형 야차를 밟고 있다. 동방지국천왕의 오른발 아래에는 사모관대를 쓴 관리형 야차를, 왼쪽에는 악귀형 야차를 배치하였다. 특히 북방다문천왕의 생령으로 등장하는 청나라 관리형 야차는, 북방 오랑캐인 淸이 병자호란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왜란 이후 범주사를 중창을 이끈 벽암각성은 병자호란의 격전장이 되었던 남한산성 축성(1624년)을 주도한 인물이고, 병자호란 시 의승군을 모집하여 참전까지 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중창을 주도한 범주사, 그것도 호법신인 사천왕상 생령좌에 청나라 관리형의 야차를 도입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삼전도에서 있었던 국가적 치욕을 씻고자 했던 그의 호국적 의지를 드러낸 해학적 장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청나라 관리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천왕상은 기존의 1624년 범주사 재건시작 당시, 또는 범주사 대웅전 삼불상이 제작되는 1626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병자호란(1636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범주사 사천왕상의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7세기 전반기의 범주사의 가람배치는 대웅보전-팔상전-사천왕문-일주문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중심축이 바뀐다. 따라서 천왕문은 가람을 구성하는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창불사 시 최우선 고려되었던 건물일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범주사의 재건불사는 1602년 팔상전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618년에는 대웅보전이 중창되었으며, 1649년에는 원통보전이 중창되었다. 그리고 대웅보전의 삼불상은 1626년에 대형의 소조상으로 제작되었고, 원통보전의 관음보살상은 1655년 목조로 제작되었다. 최근 사천왕상 보존처리 시 실시한 연대측정에서 천왕문은 1624년 경, 사천왕상은 1655년 경의 제작연대로 추정되었다. 사천왕상은 늦어도 1655년 경에 제작된 상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발원문 없이 제작자를 유추하기 어렵지만,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등 초대형 소조불의 조형감각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룬결절, 날카롭게 늘어진 耳孔을 가진 귀와 삼각형의 다소 낮은 콧날은 원통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혜희가 만든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과 양식적으로 통한다. 따라서 사천왕상도 범주사 원통보전 관음보살상을

조성한 혜희 유파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 있다. 혜희는 이미 1641년에 수조각 승 청헌을 도와 초대형 소조불상(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천왕상을 제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조사결과에서 제시한 1655년경에 근접하는 시대 편년이 나온다. 일련의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1626년 대웅전 불상 조성과 멀지 않은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이고, 벽암각성이 법주사에 머물던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벽암 각성은 1641년 완주 송광사 불사를 마치고 해인사와 보개산을 거쳐 1646년 속리산에서 사형인 孤閑熙彦(1561~1647)과 함께 지냈다. 1647년 희언이 입적하자 장례를 치른 뒤 화엄사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법주사 사천왕상은 1646년 벽암각성이 다시 속리산에 주석할 때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벽암각성은 1641년 자신이 주도한 완주 송광사 대웅전 삼불좌상 제작에 참여했던 청헌·혜희 등의 조각승들을 다시 초청하여 이 사천왕상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 현 상

- 보은 법주사 천왕문에는 좌우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칼을 든 천왕과 비파를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왼손에 여의주를 쥐고 오른손에 용을 쥔 천왕과 오른손에 당을 잡고 왼손으로는 탑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 법주사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으나, 1624년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에 의해 중창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법주사 천왕문은 벽암각성이 법주사를 중창할 당시에 중건되었다. 대형의 소조상은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천왕문과 연결하여 지지력을 높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천왕상도 천왕문이 초건되었을 당시 조성된 것 추정된다.
-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해비명(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에 의하면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천왕상 4위를 개채했다고 한다. 천문왕문은 1971년에 해체보수되었으며, 이 때 사천왕상도 보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 ○ 내용 및 특징

- 법주사 사천왕상은 높이가 570cm에 이르는 현존하는 한국 최대 크기의 사천왕상으로 입상이다. 천왕상의 천의를 천왕문의 상부구조에 철사로 묶어 고정하여 하중을 분산하였다. 사천왕상은 장방형의 마루판 위에 서 있어 다른 사찰의 천왕문

과 사천왕상의 안치 양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천왕은 살짝 고개를 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운동감이 느껴진다. 얼굴은 위아래 길이 보다 양옆 폭이 넓은 방형이다.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은 살짝 눈을 내려뜬 표정이며, 여타의 세 천왕도 다른 사천왕상에 보이는 것 같은 험상궂은 표정은 아니다. 눈은 매우 크고 주먹코에 가까운 형태이다.
- 조선시대 여타의 사천왕상은 통상 네 구 모두 보관을 쓴데 반해 법주사 사천왕상 중 당과 탑을 든 천왕은 고식의 투구를 착용하였다.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이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제작된 사천왕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앞선 시기 사천왕상의 특징을 계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 『법주사사적(法住寺事蹟)』.
- 심영신, 「양주 회암사지(楊州 檜巖寺址) 4단지 문지 출토소조편(塑造片)을 통해 본 회암사 사천왕상」, 『문화재』 54-3, 2021.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10.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2.25.) 및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 조사(’22.9.13./’22.9.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중창봉안기 1점, 후령통 1점, 묵서편 2점
- 규 격 : 최대 높이 4.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종이 및 금속 등 ※ 복장유물 목록 참조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 제작자 : 단응(端應), 탁밀(卓密), 경원(敬遠), 사원(思遠), 법청(法淸) 등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지정 대상 복장유물 목록>

연번	구분	도판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서방광목천왕		중창봉안기	1665년	종이	43.0×56.8	1	
2			후령통	1665년	동, 비단	9.5×6.0	1	*황초폭자에 싸여있음
3			묵서편	조선후기	종이	29.0×7.7	1	*머리부분출토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
4			묵서편	조선후기	종이	34.8×7.1	1	*몸통부분출토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목조사천왕상은 1665년(康熙 4)에 제작된 작품으로 2013년 8월 불교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조사되면서 알려졌다. 그동안 1660년대의 사천왕상은 나무로 제작된 능가사 사천왕상이 있지만 1649년 송광사 사천왕상, 1676년의 수타사 사천왕상 사이에 소조작품은 없어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공백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작품의 출현과 능가사 사천왕상과도 공통된 시기적 특징이 확인됨으로서 17세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1660년대 사천왕상의 도상 및 양식적인 특징이 반영되었으며 장육상에 해당되는 큰 규모인 점도 중요하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도 직지사 사천왕상 네 구 가운데 세 구에서 방위가 적힌 목서가 나와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즉,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며, 검을 권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이 된다. 그리고, 화원들의 활동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목서가 나옴으로써 호남과 영남 조각승들의 불상 제작과 교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방위를 비롯한 중요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적 가치 및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된 작품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되어 1665년에 조각승 단응을 수화승으로 삼아 전주 송광사의 승려들이 조성한 것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작이 될 수 있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화엄사, 흥국사 사천왕상의 양식과 도상을 보여주는 계열 외에 직지사 사천왕상처럼 신체가 길게 늘어진 독특한 양식의 사천왕상 계열을 설정해볼 수 있는데,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이 대표적인 예이고, 범주사도 유사한 흐름 속에 있다. 능가사는 목조이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직지사는 소조상이면서도 능가상과 유사한 점에서 이러한 표현이 단지 재료상의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체가 전체 비례에서 매우 긴 특징을 지니며, 사천왕 지물에서도 직지사만의 특징이 보인다. 예를 들어 서방광목천의 보탑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탑이다. 화순 운주사의 난형탑(卵形塔)을 연상시킨다. 북방다문천왕의 비파에 청사자가 올라가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직지사 사천왕상의 발 아래 있는 악귀들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승려처럼 변장한 악귀, 노동자처럼 보이는 악귀, 관복을 차려입은 인간 모습의 악귀 등을 통해 당시 다양한 계층의 복식 등 생활상도 추정해볼 수 있다.

사천왕 각각의 갑옷의 표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착의방식은 같지만 각각의 문양이나 색상, 표면장식, 특히 요대 장식은 네 천왕이 뚜렷히 구분되도록 차이를 두었다. 특히 용 얼굴 문양의 대구는 네 천왕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직지사 천왕문은 임란 때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직지사의 오래된 건축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원래 봉안되어 있었던 사천왕상은 비록 단웅이 새로 조성하면서 철거되었겠지만, 목심은 그대로 남기고 흙 작업만 새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직지가 계열을 따르는 사천왕상들의 상체가 길고 경직된 듯한 특징들은 오히려 고려 말~조선 초의 양식적 특징일 수 있어 보다 오래된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기준작이 될 수 있는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함께 출토된 복장문헌과 함께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사천왕상은 17세기 사천왕상 중에서 원 발원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제작시기와 단웅이라는 제작자가 모두 밝혀져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전라도 완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조각승들을 초청해 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목서를 통해 밝히고 있어 17세기 후반 사찰과 문중 중심으로 집단화된 僧匠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위표기가 있는 목서편을 통해 17세기 승려예술가들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던 사천왕상 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가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살이 없고 야위고 주름진 얼굴, 과장된 눈꺼풀, 세장하고 날씬한 단웅의 조각적 경향을 잘 담고 있다. 단웅은 사천왕상뿐만 아니라 주불전의 주존, 부속 불전의 지장시왕상 등 다양한 도상을 제작한 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각승이었다. 특히 조각과 불화를 접목하여 만든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통상 목각탱이라 부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불교미술 장르를 창안한 다재다능한 조각승이었다. 이 작품은 그가 보조 조각승에서 수조각승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작품이며, 이 작품을 계기로 활동 범위를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관에서부터 갑옷, 각 사천왕이 밟고 있는 야차(생령)에 이르기까지 크게 수리,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간직하고 있고, 야위고 주름진 얼굴, 세장한 신체비례 등 단웅의 조각적 특징도 잘 담겨있다. 인간의 품가 잘 반영된 야위고 주름진 얼굴은

당시 전란과 기근,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며 피폐해진 중생들의 고달픈 삶을 사천왕의 이미지에 투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하루 속히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의 염원을 담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 후기 사천왕상 중 조각유파의 근거지와 활동양상을 유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미가 큰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복장유물과 발원문, 내부 목서를 통해 166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이 밝혀진 유물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2013년의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발견된 복장유물도 직지사성보박물관에서 일괄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다. 현재 알려진 약 17건의 조선후기 사천왕상 중 1660년대의 작례는 나무로 제작된 능가사 사천왕상에 불과해서, 이 시기 소조 사천왕상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첫째, 직지사 <사천왕상>은 연대가 확실히 알려진 소조사천왕상으로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다. 둘째, 복장 기록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천왕상의 방위를 명확히 밝힌 결정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상의 복장에서 17세기 승려 장인의 활동 반경과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목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지사 사천왕상 역시 그와 같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천왕상과 복장유물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내력 및 발원문

직지사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으며 이후 재건된 사찰이다. 이후 천왕문(도1)도 건립되었다. 직지사 사천왕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 내부의 묵서 등을 통해 165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 중수 기록, 그리고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도2).



<도1 직지사 천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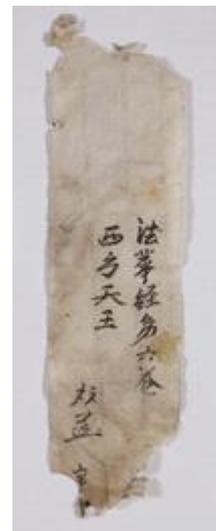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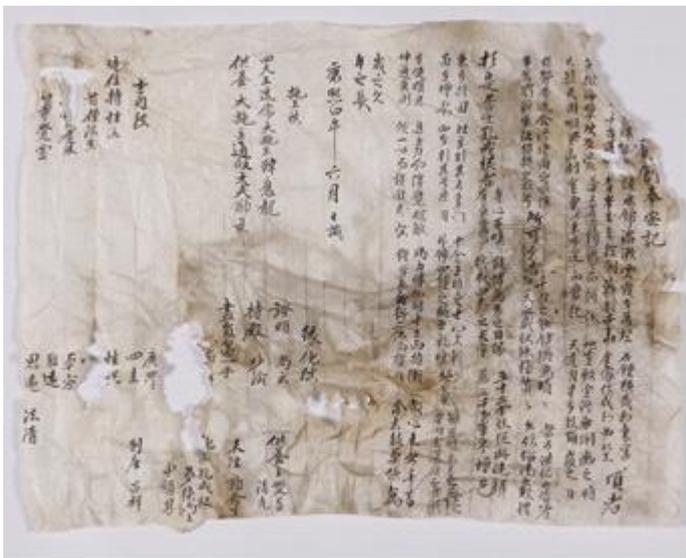
<도2 방위가 적힌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묵서>

서방천왕의 내부에서 29.0×7.7cm 크기의 종이에 묵서가 발견되었는데 ‘法華經第六卷」西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다. 북방천왕에서도 34.8×7.1cm 크기의 종이에 ‘法華經第七卷北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는 묵서가 발견되었다. 칼을 든 천왕의 몸체 내부와 복장목에서는 ‘東’, ‘東南’의 묵서가 발견되어, 비파를 든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 되며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임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칼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왕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北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

(西方廣目天王)이 된다. 사천왕상의 존명에 대한 자료는 2004년에 발견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으로 봉함목에 ‘北方’이라는 목서가 비파를 든 상에서 나왔다. 반면, 직지사 사천왕상은 세 구에서 방위가 명시되었으므로 확실한 자료가 등장한 셈이다.

또한, 서방천왕에서는 일부 파손된 상태로 ‘…重創奉安記’를 시작으로 ‘康熙四年六月日識…’ 등이 적힌 43.0×56.8cm 크기의 종이에 쓰여진 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도3). 마지막 부분에는 일부 화원들의 이름도 밝혀졌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데 ‘畫員 第一手 端應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참여 화원은 약 10명 정도가 되며 가장 앞의 수화승은 단응임을 알 수 있다. 화원질의 7번째에는 탁밀, 마지막에는 범청이 있다. 탁밀과 범청은 단응과 함께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제작한 화원들이다.

서방천왕 내부에서는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畫員來造成之也”와 북방천왕에서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1665)三月日塗作也”라는 목서도 확인된다(도4). 기록상의 전주 송광사에는 1649년의 소조사천왕상이 남아 있는데 양식적인 공통점은 크게 없다.



<도3 발원문(북방천왕), 43.0×56.8cm>



<도4 내부 목서>

願文: …重創奉安記」…三韓福①」…千古道②」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石鍾橫截於東冥」金像作成於西竺」頃者」③掀海鬣殃及池魚」火烈民間烟飛山刹」藥王菩薩獨悵」而何依」金粟如來亦遑」而靡托」地豈○宝○無闡幽之時」天道周星乃致顯微之日」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所可欠者」千門之妙鍵猶爲瑣」」四天之威儀殊極蕭」」常爲法侶之咨嗟」久作緇徒之歎惜」於是居士孔戒根者」專心再煥」有意重修」敢借萬天之因緣」○成四大之天

帝」五十三金佛從此洗顏」萬二千玉峯白今增色」東方持國」南方增長」北方則其名多門」西方則其号廣目」中含五行之火八〇斬」外飾四種之粧五彩煥」然矣」雖外現天王之威猛」案內含菩薩之慈悲」方便難思」神通莫測」具王力而降魔破敵」傾一心而護國民安」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稽首承合科二佛而護〇」敬心奉安千百」齊志致奠億萬」歲之久」年之長」康熙四年六月日識」施主秩」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泉」寺內秩」時住持性沅」首僧法熏」㉑㉑覺林」㉑寺覺虛」緣化秩」證明尙玄」持殿妙演」畫員第一手」端應㉑㉑」……廣學」四圭」性悅」㉑㉑」卓密」敬遠」思遠」法清」供養主 雙益」清允」來往 郭命生」化主 孔戒根」夢德兩主」申福男」別座 呂祥」(불교문화재연구소)

사천왕상 내부목서

동방지국천왕 東方

남방증장천왕 〇子主西殿普一

서방광목천왕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북방다문천왕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良工化主洪戒根〇」  
別座呂尙比丘」

중수 목서(비과)

四天王佛事緣化秩」詩住持 ㉑㉑㉑」總務 ㉑㉑現」財務 ㉑㉑〇」書記 朴〇圓」畫員秩」金魚 退㉑日變」李忠烈」李承茂」李元七」李明烈」吳鍾㉑」

## ○ 내용 및 특징

직지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을 들어서면 그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과를 든 천왕상, 칼을 든 천왕, 그리고 왼쪽으로 용과 여의주, 보당을 든 천왕상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도5). 크기는 450cm 정도의 대형으로 소조사천왕 가운데는 범주사 사천왕(600cm)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도5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네 구의 천왕은 모두 의자에 앉아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몸은 가늘고 긴 편인데 전체적으로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 발밑에는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크기는 작지만 악귀를 상징하는 부릅뜬 눈과 근육 등이 강조되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관의 크기가 높고 커서 얼굴이 상체에 비해 크게 보이는 효과를 주며, 보관은 화염문과 꽃을 장식하여 화려한 반면 관대는 작고 소박하다.

사천왕상의 신체는 허리가 길고 앉은 자세가 좁아 밑으로 길쭉한 형상인 반면 얼굴은 옆으로 긴 방형으로 특이한 모습이다.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들렀는데 옷자락이 양 무릎에 흘러 내려져 있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들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바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를 심목으로 그 위에 흙으로 성형한 소조 기법으로, 의자는 4개의 나무로 결구하고 그 위에 통나무를 높게 올려 형태를 잡았다. 통나무 위에 사천왕의 모습을 진흙을 붙여 완성하였으며, 흙만이 아니라 짚과 같은 이물질이 섞인 흙을 반죽하여 사용하였다. 중간 부분에 쇠못으로 결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사천왕의 허리 부분은 균일한 두께로 길쭉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심목인 통나무의 두께를 최대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천왕상의 의자부분 뒷면에 나무로 마감한 부분을 떼어내면 천왕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의자 내부는 4개의 가장자리 목심을 두고 그 사이를 모두 나무판으로 고정하여 안을 마감하였으며, 앉은 부분에 해당되는 윗 판 위에는 몸통에 해당되는 통나무가 세워져 있다. 통나무는 약 400cm 내외의 길이로 파여 있으며 그 안에 복장물이 채워져 있다. 현재, 사천왕상 가운데 당과 탑을 든 천왕상에서만 완전한 형태의 복장물이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천왕상의 복장물은 일부 도난된 상태이다. 사천

왕상 가운데 비파를 든 천왕과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의 내부에서는 새로 끼워 놓은 나무들도 확인되어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파에는 일섭(日燮)스님(1900~1975)이 참여한 사천왕 불사 기록이 적혀 있어 20세기에 사천왕상이 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정면을 바라보는 경직되고 뻣뻣한 자세에 옆으로 긴 얼굴과 가늘고 길쭉한 신체비례가 특징이다. 이는 1620~40년대의 전주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각기 다른 시점으로 문 쪽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자세와는 다른 모습이며, 방형의 얼굴에 표현된 양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늘고 길쭉한 신체 비례는 통나무를 심목으로 사용한 제작기법과도 연관되는데, 166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정면 위주의 직지사 사천왕상의 자세와 시각, 양 무릎에 흘러내린 천의자락의 표현은 1676년의 흥천 수타사 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직지사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 중엽경의 시기적 특징이 반영된 작품이며, 1660년대를 기점으로 형식적인 변화를 보이는 점에서 과도기적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 ○ 현 상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천왕문은 직지사의 건축물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건축으로 전하고 있다.[도1] 또한 일부 소개(디지털김천문화대전)에는 직지사 사천왕상이 고려 태조 19년(936)에 능여대사가 직지사 중건했을 때 조성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천왕문의 정확한 연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고, 사천왕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어 1665년에 조각승 단응(端應) 등이 조성했음이 밝혀졌다. 다만 천왕문은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천왕문과 달리 높이나 규모가 크고, 기둥 상부에 남아있는 배흘림의 흔적, 귀포의 구성 등을 보면 고려 말~조선 초기 건축으로 추정되는 북한 석왕사 호지문(천왕문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과도 유사한 측면이 보여서 실제 연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만약 천왕문의 연대가 올라간다면, 내부의 사천왕 역시 연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발원문이 발견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가정은 일단 의미를 잃게 되었다. 다만, 1665년에 원래부터 내려오던 사천왕상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의 목심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사천왕상의 얼굴 표현이나 장엄 등은 조선 후기의 양상을 띠더라도 조각상의 뼈대에 따른 전체적인 비례는 과거의 양식을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지사 사천

왕상이 지닌 독특한 비례적 특성은 보다 오래된 전통의 반영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1 김천 직지사 천왕문>

직지사 천왕문은 남향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사천왕의 배치는 천왕문으로 들어섰을 때 오른쪽 안쪽에 북방다문천, 바깥쪽에 동방지국천, 왼쪽 안쪽에 서방광목천, 바깥쪽에 남방증장천이 봉안되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천왕문의 봉안법식을 따랐다.



<도2-1 북방다문천왕>

<도2-2 북방다문천 세부>

<도3 북방다문천 좌측면>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이다. [도2] 착용한 보관은 화염보주, 오색구름, 꽃, 비천, 청룡 등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특히 꽃의 종류가 유난히 많은 것이 눈에 띈다.[도3] 보관 정중앙 정상부에는 봉황 장식이 달려있는데, 현재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모든 천왕들이 동일한 상태여서 이 상태가 원형처럼 추정된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펴터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보관 좌우 측면으로 긴 철사가 나와 끝에 마치 엽경대처럼 생긴 화염보주가 달려있다. 보관 아래로는 발제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촘촘히 표현되어 있고,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매듭지어진 후 펼쳐지는 모습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다른 사례의 경우 이 어깨에 늘어진 보발은 생략되거나 혹은 달팽이 더듬이처럼 위로 뻗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부분의 피건 자락이 뒤쪽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보발이 어깨를 감싸는 형식으로 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지가 천왕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피건이 천왕의 뒤에서 위로 솟구치지 않고 수평에 가깝게 뒤로 펼쳐져서 천왕문 벽면에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도4] 대신 이 피건 자락이 위로 솟구치면서 일종의 광배역할을 하게 되는데, 직지사는 솟구치지 않고 누워있는 방식이어서 광배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도4 북방다문천 상체>



<도5 북방다문천 요대 수식>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윤곽을 보이며 짙은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다.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보이며, 미간은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W자형의 주름이 생기며 도드라져 있다. 눈 아래와 볼, 입 주변으로도 잔주름을 표현하여 나이가 많은 것을 강조했다.

북방천왕의 눈의 시선은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상이며, 입술은 언뜻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릅뜬 눈에 의해 그다지 친근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입술 사이로 앞니 두 개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에서 자주 보이는 형식이다. 또한 수염이 목 전체를 감싸고 가슴 위로 넓게 퍼지는 독특한 모습인데, 범주사 천왕문의 북방다문천의 수염과 유사한 것이다. 단지 수염 뿐 아니라 길게 늘어진 신체표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범주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 수염은 범주사도 그렇지만 북방다문천왕에서만 보이며, 나머지 세 천

왕의 수염은 모두 짧고 곱슬한 형식이다. 귀 끝에는 국화꽃 모양의 귀걸이가 붙어 있다.

목둘레에는 꽃문양이 들어간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의 흉갑은 주황색 어린문(魚鱗文)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복부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점이 촘촘히 찍힌 형태로 채색되었다. 소조상은 이런 표면처리를 입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평면적으로 다듬고 문양은 채색으로만 표현했다. 다만 흉갑 중앙에 세워진 금색의 금강저 장식만큼은 금박을 입체적으로 시문했다. 흉갑과 복갑 사이에는 당초문과 구름문이 시문된 하늘색 천을 두르고 이를 다시 금색의 끈으로 묶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감을 두어 입체적으로 처리했고, 끈의 꼬임도 연속된 V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복갑 중앙에는 커다란 5겹의 원판 장식 같은 것이 표현되었다. 이 원판은 각 겹마다 연주문, 고사리문, 연판문 등으로 장식이 된 것이며, 각각의 둥근 윤곽선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이렇게 복부를 장식한 원반장식은 범주사 천왕상, 특히 서방광목천의 갑옷 착의에서도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은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었으며, 상단 어깨쪽에는 푸른사자가 갑옷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이 옷자락은 붉은색 바탕에 보상화문, 구름문 등으로 문양이 그려졌다. 또한 휘날리는 소매 하단은 흰색의 끈으로 묶은 것처럼 매듭이 보인다. 이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굽 부분의 상의는 황색이고 보상화문이 그려져 있다. 팔뚝을 덮은 갑옷은 황색 바탕에 동심연주문이 시문된 형식이고, 좌우에 늑형의 구획을 두어 금색의 단추 같은 것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다.



<도6 북방다문천 요대 세부>



<도7 북방다문천 지물(비파)>

허리에도 하늘색의 보상당초문이 시문된 천을 두르고, 이를 관대 형식으로 마디가 있는 요대로 묶었는데 요대의 각 마디 장식은 실제로 부조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도6] 그 문양은 천도복숭아, 청사자, 모란꽃, 표주박, 비천상 등이다. 이 요대의 중앙부를 푸른 사자가 물고 있는 형상인데, 이 청사자의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돋아나 있다. 윗니가 드러나게 요대를 물고 있는데, 그 아래로 입을 맞댄 동

물가죽이 매달려 있다. 코 옆에 더듬이가 있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동물의 가죽이며 날카로운 이빨도 표현되었다.[도5]

북방천왕의 지물은 비파인데 천왕의 손은 비파를 들고 있는 자세이지만, 현재 비파는 이탈하여 무릎 위에 놓여있다.[도7] 손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북방천왕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데, 특히 왼손이 지판이나 몸체와 지판이 연결되는 부분을 잡고 있는 자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어중간한 위치이다. 이 때문에 비파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이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손의 모습을 보아서 비파의 몸통을 감싸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톱의 색을 희게 칠하여 손과 구분했고, 손가락 마디 등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의 움직임과 각각의 위치 등은 실제 손의 움직임을 잘 포착했다. 비파는 매우 납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목이 굽은 당비파 형식이다. 별다른 장식은 없이 네 줄의 현만 달려있지만, 특이하게 줄감개통 위에 청색의 사자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사자는 서방광목천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흥 능가사의 경우 서방광목천 자리에 있는 동방지국천왕 도상의 천왕이 피건 사이에 이러한 사자를 품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처럼 북방천왕의 비파에 사자가 올라가있는 예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도 홍갑과 마찬가지로 어린문으로 채색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붉은색의 군의를 입고, 다시 그 안에는 연한 하늘색에 당초문이 시문된 바지를 입었는데 무릎 아래에서 붉은색 끈으로 한번 묶었다.[도8]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膝甲)을 착용하였는데, 팔뚝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늑형의 구획을 두었고, 바탕에는 파란색 바탕에 동심원주문양이 채워졌다. 신발은 발등 부분에 국화문의 장식이 있고, 발등은 전체적으로 청색바탕에 흰색의 동심연주만이 채워졌다.



<도8-1 북방다문천 하체 및 악귀들>



<도8-2 북방다문천 악귀(오른발)>

천왕의 발 아래에는 악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악귀를 밟고 있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그중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동물가죽을 뒤집어 쓴 모습인데, 원래 이런 가죽을 뒤집어 쓴 도상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도9] 이후 알렉산더대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인도에서는 금강역사의 모습으로 차용되기도 했다. 직지사 북방다문천 아래의 이 악귀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도깨비 등의 묘사에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사자가죽의 모습도 점차 물개가죽처럼 변모했다. 얼굴은 무엇에 놀란 듯한 표정인데, 미간 부분에 주름이 둥글게 패인 것처럼 표현된 것이 보인다. 북방천왕의 발을 어깨에 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이며 실제 일꾼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포착하여 표현했다. 상체는 벗고, 아래는 푸른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뒤에서 볼 때 뒤집어 쓴 가죽의 꼬리부분에 달린 매듭, 어깨에 걸친 땀은 머리 등을 정성스럽게 조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이 주목된다. 오른발에 밟힌 악귀는 삭발을 한 상태여서 언뜻 승려처럼 보인다.[도8] 그러나 이빨이 튀어나온 것을 보면 악귀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승려행세를 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악귀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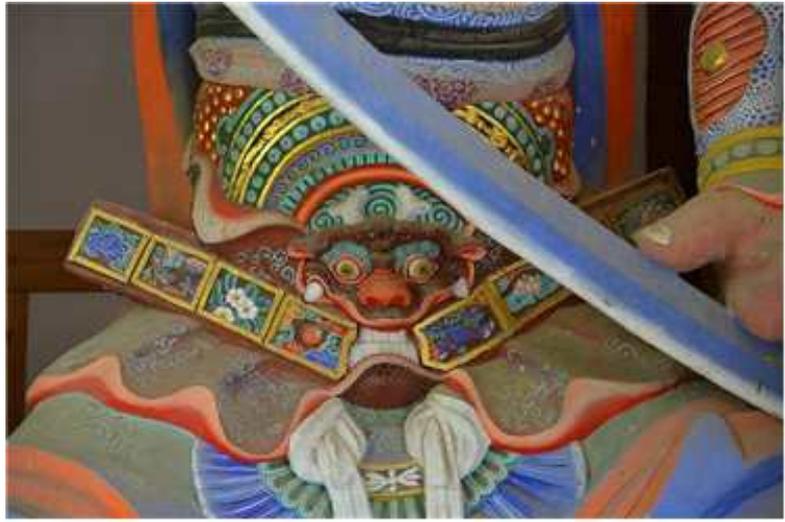


<도9 북방다문천 악귀(왼발)>

어깨에는 긴 피건(被巾)을 걸치고 있는데 옆구리를 지나 허리 부분에서 한번 휘어 감긴 다음 뒤쪽으로 해서 바닥에 흘러내리는데, 악귀 뒤쪽에서 마무리 된다. 어떤 경우는 악귀들의 앞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비교적 짧게 마무리된 편이다. 다만 허리 쪽에서 마치 매듭지어질 것처럼 휘감기는 표현은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이처럼 감겼기 때문에 피건이 바닥에서 짧게 마무리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도10-1 동방지국천왕>



<도10-2 동방지국천 요대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북방다문천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다문천 좌측에 앉은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이나 얼굴의 근육처리 등은 북방천왕과 같으나, 피부색이 조금 더 갈색이 돌며, 입모양은 윗니를 전체적으로 드러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표정이다.[도10] 수염은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갑옷은 상체는 전반적으로 입체감 있는 금색의 돌기들로 채워졌으며, 흉갑 중앙에는 북방천왕처럼 금강저 장식이 금박으로 붙어있는데, 더 여러 개가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칼을 든 오른손은 높이 치켜들고, 왼손은 낮춰 칼날 끝에 손가락을 대고 있다. 동방지국천의 지물인 칼은 일반적으로 휘지 않은 검(劍)인데 반해, 여기서는 날이 휘고 넓은 도(刀)의 형태인 것이 특이하다. 손잡이 끝은 금강저 형태로 마무리 되었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장식은 적색의 용이며 머리에 짧고 갈래가 있는 뿔이 돌아 있다.[도10] 또한 아래턱까지 묘사되어 있고, 심지어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어 입을 짝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깨물고 있는 모습의 대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방천왕은 북방천왕처럼 여기에 동물가죽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신 그 아래로 흰 색의 띠 두 가닥이 늘어뜨려져서 아랫부분에서 길상적인 매듭을 맺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천왕 발 아래의 악귀는 모두 상체는 벗고 아래에는 푸른색의 기장이 약간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왼발을 받친 악귀는 북방천왕의 경우와 달리 매우 힘겹게 동방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도11] 그러면서도 자신이 쓴 모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는 것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다른 악귀는 동방천왕의 오른발에 밟혀 배를 땅에 대고 누웠다.[도12] 머리에는 두건 같은 모자를 썼는데, 목덜미 쪽으로 햇빛 가리개 같은 천이 흘러내려 덮고 있다.



<도11 동방지국천 악귀(왼발)>



<도12 동방지국천 악귀(오른발)>

그 맞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모습이며, 흉갑의 표면이 소슬금문으로 장식되면서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게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도13] 다른 천왕의 경우는 소조는 평면으로 마감하고 채색으로만 문양을 넣은 것과는 다소 차이점이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는 황룡이며, 머리에 짧은 외뿔이 돋아나 있다. 요대의 마디는 청룡 등도 있지만, 대부분 화초문으로 장식되었다.



<도13 남방증장천왕>



<도14 남방증장천 악귀(왼발)>



<도15 남방증장천 악귀(오른발)>

지물로는 왼손에 용을 들고 있는데 황룡이며, 팔뚝을 칭칭 감고 꼬리까지 바짝 치켜세운 모습이다. 여의주는 왼손의 엄지와 중지 끝으로 잡고 있는데, 여의주에 화염문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악귀는 왼발 아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천왕을 발을 어깨에 올리고 있는데 건너편의 악귀들이 노동할 때의 복식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붉은색 관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 등 악귀로서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도14]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땅에 대고 누웠는데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바지 형식이면서 상하의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마치 점프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도15] 이 악귀도 얼굴 표현에서는 특별히 악귀라는 인상을 풍기지는 않는다.

서방광목천은 당과 탑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도상으로, 입을 벌려 고탐를 치는 듯한 모습인데, 입안의 혀, 치아 등의 드러난 부분 묘사가 정밀하다.[도16]

지물로 든 당의 깃대는 대나무형이라 드문 사례에 속하고, 왼손에 들고 있는 보탑도 다른 사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어서 주목된다.[도17] 마치 화순 운주사에서 볼 수 있는 이형석탑이 연상된다. 가슴에 묶은 흰 띠의 매듭도 정교하게 새긴 것이 특징이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은 청룡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아래턱까지 묘사되었는데, 윗입술 주변에는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어 다른 세 천왕과 차이가 있다. 머리에 짧은 외뿔이 돋아나 있다. 이들 대구장식은 각 천왕이 제각각 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조각가가 변화를 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요대 장식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천왕마다 개성이 뚜렷한데, 서방천왕은 요대 오른쪽은 길상문으로, 왼쪽은 용, 청사자 등 신화속의 동물들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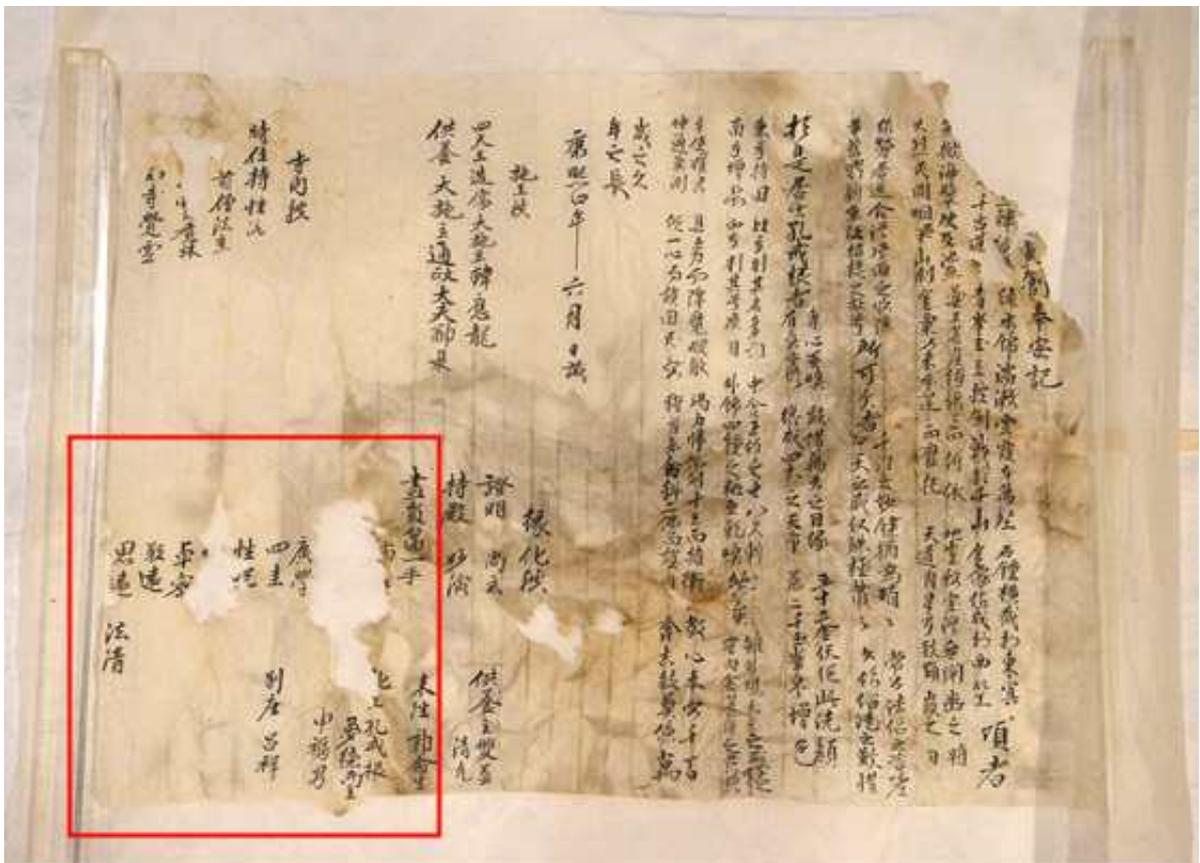
악귀는 왼발 아래에는 복두를 쓴 관리가 어깨에 천왕의 발을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 역시 돌출된 이빨 등이 없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도18]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조각했다. 오른발 아래에는 등을 땅에 대고 누운 푸른 옷을 입은 인물이 보이는데, 역시 삭발한 것으로 보아 승려행사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던 악귀를 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도19] 사람이 쓰러져서 발버둥칠 때의 현실적인 모습을 조각으로 잘 포착했다.



<도16 서방광목천왕> <도17 서방광목천 보탑> <도18 서방광목천 악귀> <도19 서방광목천왕 악귀>

○ 문헌자료

서방광목천 북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직지사 사천왕상은 1665년에 ‘畫員 第一手 端應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淸’ 등에 의해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다만 수화승의 이름 부분이 다소 박락이 되었지만, 서방천왕과 북방천왕 내부의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畫員來造成之也’,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라는 목서를 단서로 수화승이 단응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단응은 목서의 송광사에 매우 인접한 위봉사 승려로 기록된 바 있으며, 이 무렵 경상도로 건너와 많은 작업을 남긴 점, 나아가 안동 봉황사 대좌에도 유사한 목서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하면 발원문의 남아있는 글자와 비교해 단응으로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 ○ 조사내용

김천 직지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에 소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이다. 직지사의 창건은 신라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645년에는 자장율사가 중수하였으며, 조선 초인 1399년에는 정종의 태를 사찰 북봉에 안치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각 43동 중 40동이 소실하였으며, 남은 건물은 천불전, 사천왕문, 자하문(일주문)정도였다고 한다. 전란 이후 1649년에 대웅전을 중창하고, 1665년 사천왕상을 흙으로 조성하였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규모가 452~470cm에 이르는 대형 소조상이다. 흙을 굽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소조상은 왜란과 호란 이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재건 불사 과정에서 선호된 재료였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다루기 용이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탁자에 앉은 의좌상으로 우선 통나무를 세워 몸통을 만들고 속을 파 복장을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몸통에 팔과 다리 같은 세부 신체는 꺾쇠로 연결해 이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새끼로 감았다. 다시 그 위에 흙을 여러 번 바르고 표면을 조각한 뒤 삼베로 배접하고 채색을 올려 마감하였다.

사천왕상의 바닥이 내려앉고 상 또한 여러 곳에서 균열과 탈락, 개채의 박락 등이 일어나 2014~2015년에 걸쳐 보존처리를 거쳤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천왕상에 대한 복장조사와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조사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 2013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천왕상의 내부에서 제작과 관련된 묵서와 복장 발원문을 비롯한 복장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주목할 만한 묵서와 기록으로는 북방다문천왕 내부의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良工化主洪溪根○ 別座呂尙比丘’와 백지묵서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 서방광목천왕 내부의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 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와 백지묵서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 동방지국천왕의 ‘東方’ 등이다. 이 묵서명을 토대로 정리하면,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전라도 전주부 송광사에 거주하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과 정확한 사천왕상의 방위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특정 사찰 또는 문중 중심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조각승의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서방광목천왕에서는 사천왕문을 중창하면서 사천왕상을 조성한 중창봉안기가 남아 있다. 중창발원문에 의해 사천왕상은 166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상 조성에는 尙玄이 증명을 맡고, 조각은 端○, ○○, ○○, 光學, 性悅. 卓密, 敬遠, 思遠, 法淸이 했다. 수조각승 ‘端’字 다음이 결실되어 불분명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조각승들은 수조각승 단응과 주로 활동하던 단응파 조각승들이어서 ‘端’字 다음에 결실된 글자는 ‘應’로 추정된다.



<표1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 4구는 대체로 머리에는 꽃잎형의 원통형 보관을 쓰고, 보관의 표현에는 화염, 구름, 龍鳳, 등의 장식판을 부착하였다. 머리에는 상투를 틀어 올렸으며 보발을 길게 닳아 어깨위로 드리웠다. 두 팔은 울동을 하듯 들거나 내려 지물을 취하고 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묶고, 어깨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는 견갑을, 팔뚝에는 비갑을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비늘로 이루어진 흉갑을, 복부에는 두 세 겹으로 요갑과 요의, 혁대 등으로 무장하였다. 하체에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슬갑과 각반을 착용하였으며, 장화를 신었다. 북부에서 鬼面이 腰帶를 물고 있는 형상이인데, 북방다문천왕은 요대와 멧돼지모양의 獸皮를 동시에 물고 있다. 요대는 ‘V’자형으로 느슨하게 차고 있다. 요대의 마디마디마다 용, 사자, 말 등 다양한 瑞獸와 寶文을 새겨 넣었다. 신발은 발목부분에 국화꽃 무늬를 새겼고, 신발 코에는 파련문으로 장식했다.



<사천왕상의 얼굴(동방)>



<사천왕상의 세부(남방)>



<사천왕의 야차(남방, 인물형)>

각 천왕별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북방다문천왕의 비파의 현을 조임새 부분에는 사자모양의 모양의 귀여운 장식을 덧붙였다. 비파의 뒷면에는 1960년대 수리기가 적혀있다. 양 발 아래에는 각각 악귀를 밟고 있거나 악귀가 다리를 받쳐 든 모습이다. 오른쪽 악귀는 밟혀서 버둥거리는 모습이고, 왼쪽 악귀는 동물의 탈을 쓰고 사천왕상을 받쳐 든 모습이다. 동방천왕은 외날의 장도를 지물로 채택하였다. 대부분의 동방지국천왕이 쌍날의 보검을 든 것과 구별된다.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두 개를 펴서 칼등을 살포시 대고 있는 형상으로, 불화와 조각 등 동방지국천왕의 일반적인 칼을 잡는 법이다. 남방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다. 오른손으로 움켜쥔 용은 남방천왕의 팔뚝을 칭칭 감고 있으며,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북부의 鬼面이 매듭지어 길게 늘어뜨린 綏環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으로 대나무로 만든 당을, 왼손으로 접시 위에 상륜부를 올려놓은 것 같은 탑을 받쳐 들었다. 오른발로 악귀의 배를 밟았고, 왼쪽에는 관모를 쓴 악귀가 다리를 받치고 있다. 전신을 휘감은 천의가 광배를 이루는 다른 사천왕상과 달리 어깨 뒤쪽에서 벽체와 연결되어 지지대 역할을 하며, 나머지 천의자락은 양어깨를 걸치고 차분히 드리웠다.

2014년 6월 26일부터~2015년 12월 21일까지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수리와 보존처리를 거쳐, 꺼진 마룻바닥을 바로잡고 손상된 사천왕상도 최대한 원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사천왕상은 볼에 살이 없어 주름지고 야윈 모습이다. 허리가 길고 세장한 전반적으로 깡마른 체형을 가진 세장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사천왕이다. 이에 비해 손은 아기 손처럼 짧고 도톰하다. 이러한 신체 비례와 조형 감각은 마곡사 사천왕상이나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형감각으로, 端應 조각에서 살필 수 있는 특징이다.

## ○ 문헌자료

2013년 복장조사 시 4구의 사천왕상에서 모두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로는 표지를 제거된 상태로 납입한 경전류(『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하, 『제반문』, 『십지경론』, 『선종영가집』 권 상·하)와 「대불정수능신주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그 중 1665년 직지사예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사천왕상 제작에 맞춰 인출하여 납입한 것으로 판단된다.<sup>77)</sup>

<중창봉안기>, 1665년, 종이, 43.0×56.8cm, 1매

77) 「묘법연화경」 권1 말미에 ‘康熙四年二月日慶尙道金山郡西黃嶽山直指寺開板’이라는 간기를 통해 1665년 직지사예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존상마다 권1의 낱장본만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복장에 납입하기 위해 1권만 의도적으로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願文：…重創奉安記」

…三韓福①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 石鍾橫截於東冥

頃者」

…千古道①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 金像作成於西竺

①掀海鬣殃及池魚 藥王菩薩獨悵 〃 而何依 地豈○宝○無闡幽之時」

火烈民閻烟飛山刹 金粟如來亦遑 〃 而靡托 天道周星乃致顯 微之日」

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

千門之妙鍵猶爲瑠 〃 常爲法侶之咨嗟」

所可欠者

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

四天之威儀殊極蕭 〃 久作緇徒之歎惜」

專心再煥 敢借萬天之因緣 五十三金佛從此洗顏」

於是居士孔戒根者」

有意重修 ○成四大之天帝 萬二千玉峯白今增色」

東方持國 北方則其名多門 中含五行之火八○斬

雖外現天王之威猛」

然矣

南方增長 西方則其号廣目 外飾四種之粧五彩煥

案内含菩薩之慈悲」

方便難思 具王力而降魔破敵 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 敬心奉安千百」

神通莫測 傾一心而護國民安 稽首承合科二佛而護○ 齊志致奠億萬」

歲之久」

年之長」

康熙四年六月日識」

施主秩」

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

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泉」

寺內秩」

時住持性沉」

首僧法熏」

①①覺林」

①寺覺虛」

緣化秩」

證明尙玄」

持殿妙演」

畫員第一手」

端①」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供養主 雙益」  
清允」  
來往 郭命生」  
化主 孔戒根」  
夢德兩主」  
申福男」  
別座 呂祥」

<사천왕상 내부묵서>

동방지국천왕	東方
남방증장천왕	○子主西殿普一
서방광목천왕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 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북방다문천왕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良工化主洪戒根○ 別座呂尙比丘 <비파 중수묵서, 1969년 경>, 1969년 사천왕문을 중수하면서 함께 사천왕상도 수리한 것으로 생각됨. 四天王佛事緣化秩」 時住持○○○」 總務○○○」 教務○○現」 財務李愚明」 書記朴正圓」 畫員秩」 金魚 退○日燮」 李忠烈」 李承茂」 李元七」 李明烈」 吳鍾○」

<황악산직지사사천왕문중수상량문>, 1969년

黃岳山直指寺四天王門重修上樑文  
西紀壹阡九百六拾九年七月參日巳岨重修上樑  
萬代遺傳 香火不絕 大揚禪風  
伏願 上樑之後  
衆生共享 佛日增輝 法輪常傳

第八敎區 大本山 直指寺 山中大衆 秩

總領 住持比丘 吳影虛

總務 金石愚

敎務 朴道現

財務 李愚明

書記 朴正圓

2단

朴和潭

禹晚悟

金法燈

李法日

柳法性

3단

金性眞

李樹煥

4단

都片手 李鍾春

石工 李秉在

木手 馬周鳳

木手 李일호

<직지사사천왕보결 및 개채불사>, 1989년

직지사사천왕보결 및 개채불사

서기일구팔십구년십월일

편수 김준웅」 부편수 이기만」 화원 김용진」 화원 김학성」 화공 이경남」 화공 이찬환」 화공 정영재」 화공 강천수」 화원 김용상」 화원 김수곤」 화원 김종욱」 이차 인연공덕 발원

#### ○ 참고문헌

- 김천시·전아건설(주)·서진문화유산(주),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수리보고서(사천왕문 보수 및 사천왕상 보존처리)』, 2015.



## ○ 현 상

직지사 천왕문(天王門) 안에는 좌우 양측에 두 구, 도합 네 구의 천왕상이 홍살 내에 모셔져 있다(도1, 2). 이들은 전체 높이가 452~470cm에 이르는 초대형의 상으로 소조사천왕상 중에는 법주사 사천왕상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내부를 바라봤을 때, 향좌측에는 오른손에는 용 왼손에는 여의주를 낀 천왕, 그리고 오른손에는 보당(寶幢)을 쥐고 왼손바닥에는 탑을 든 천왕이 모셔져 있다. 향우측에는 오른손으로 칼을 낀 천왕과 양손에 비파(琵琶)를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2013년 8월에 진행된 복장조사 및 정밀학술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사천왕상의 내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sup>78)</sup> 구체적으로는 사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명과 복장물 및 발원문 등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제작연대와 조성 주체인 승려 장인, 그리고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방위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때의 복장 조사에서는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든 천왕의 내부에서 새로 끼워 넣은 목재가 확인되어 과거의 보수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비파의 뒷면에는 근현대기에 활약했던 불모 일섭(日燮)스님(1900~1975)이 참여한 사천왕상 불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서 20세기에도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9)</sup>

2013년 조사에서는 사천왕상을 지탱하고 있던 마루가 서서히 꺼지면서 흠이 갈라지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사천왕상을 비롯하여 봉안처인 천왕문의 재목을 교체하는 등의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에 천왕문의 보수가 완료되었다. 이때 사천왕상에도 새롭게 마련한 복장을 안치하고 점안식을 봉행하였다.

78)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참조.

79) “四天王佛事緣化秩/ 時住持 ㉠㉠㉠/ 總務 ㉠㉠㉠/ 教務 ㉠㉠現/ 財務 李㉠○/ 書記 朴○圓/ 書員秩/ 金魚 退㉠日燮/ 李忠烈/ 李承茂/ 李元七/ 李明烈/ 吳鍾煥”;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p.13.



<도1 직지사 천왕문 정면>



<도2 직지사 천왕문 배면>



<도3 직지사 천왕문 내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 배치 양상>



<도4 직지사 천왕문 내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 배치 양상>

### ○ 내용 및 특징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네 구 모두 의자에 앉은 좌상이다. 네 상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몸은 전반적으로 세장한 편으로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도5, 6, 7, 8). 허리가 길고 다리를 좁게 벌리고 앉아 있어서 위아래로 길쭉한데, 이와 같은 신체의 표현은 뒤에 서술할 재료 및 제작기법과 직결된다. 또한, 이와 같은 신체 표현 방식은 16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의 목조사천왕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세장한 신체와 대조적으로 얼굴은 가로가 긴 방형이다. 사천왕은 머리에 화염과 꽃으로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관은 높고 큰 데 반해, 관대는 작고 소박하다.



<도5 직지사 남방증장천왕>



<도6 직지사 서방광목천왕>



<도7 직지사 동방지국천왕>



<도8 직지사 북방다문천왕>

몸에는 평상복을 걸치고 갑옷을 입었으며, 하체에는 군의를 입은 위에 천의를 들렀는데 양 무릎을 따라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들렀다. 어깨에 걸친 갑옷 아래로는 옷자락이 빠져나왔는데 바람을 받아 부푼 것처럼 위로 치솟은 모습이다. 이 옷자락 부분과 어깨 뒤로 훔날리는 천의 자락은 천왕문의 부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천왕문 자체가 사천왕상의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9, 10). 또한, 칼의 권 천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들어 올린 오른팔의 경우 와이어를 통해 천왕문에 연결하여 지지력을 보강하였다(도10). 각 천왕의 발 밑에는 악귀들이 2구씩 배치되어 있다. 악귀들은 천왕의 발밑에 깔려 있거나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도9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우측 팔>



<도10 직지사 서방광목천왕상 배면>



<도11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복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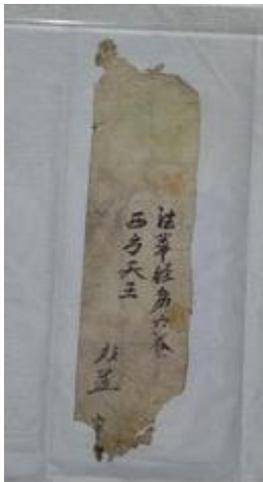


<도12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복장공 끝 목구멍과 머리 부분의 연결 부위>

직지사 사천왕상은 나무를 심목으로 삼고 그 위에 흙을 붙여 성형한 소조 불상이다. 중간 부분에는 쇠못으로 결구한 흔적도 여러 찾아볼 수 있다. 사천왕이 앉은 의자는 4개의 나무 기둥으로 열개를 짜고 기둥 각각의 사이는 판재로 마감하였다. 내부에서 보면 기둥 위에 마치 보처럼 목재를 가로로 놓아 사방으로 결구하였다(도11). 의자 상판의 중앙에 통나무를 높게 올려 형태를 잡았다. 의자의 상판 아랫부분은 나무로 마감하였는데, 이 나무를 떼어내면 천왕의 몸 안으로 이어진다. 이 통나무를 심목으로 삼아 짚 등을 섞어 보강한 진흙을 붙여 사천왕의 형상을 만들었다. 심목인 통나무의 두께를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사천왕의 허리 부분이 균일한 두께로 길쭉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심목으로 삼은 통나무는 높이 약 400cm 내외의 깊이로 파여 있으며 그 안에 복장물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도12).

2013년의 조사에서는 네 구의 상 중 탑을 든 천왕상에서만 온전한 형태의 복장물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천왕상의 복장은 이미 교란된 상태였다. 먼저 탑을 든 천왕에서 발견된 주요 복장물부터 살펴보면, 그 내부에서는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는 29.0×7.7cm 크기의 한지가 발견되었다(도13). 비파를 든 천왕의 내부에서는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라는 목서가 있는 34.8×7.1cm 크기의 종이가 발견되었다(도14). 즉, 이 목서는 비파가 북방천왕의 지물인 것을 알려준다. 이는 2004년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해체 보수 시에 발견된 목서명을 잇는 중요한 발견이다. 당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중 비파를 든 천왕의 복장 봉합목에서 '北'이라는 목서가 발견되어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방위 해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중 칼을 든 천왕의 몸 안쪽에서 '東方'이란 목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선후기 17세기 후반에는 서방, 북방, 동방천왕의 지물이 각각 탑, 비파, 칼로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명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용과 여의주는 자연히 남방증장천왕의 지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도13 서방광목천왕 복장 발견 목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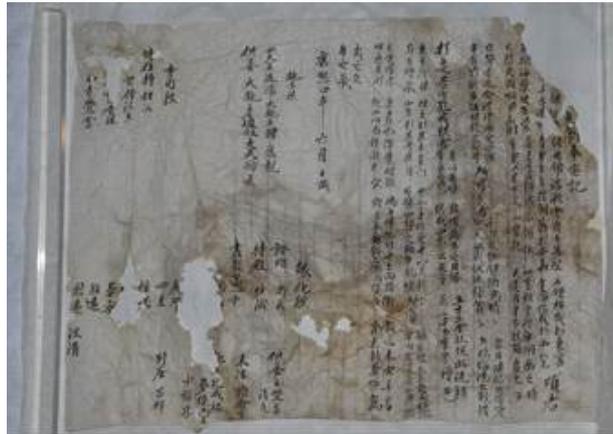
<도14 북방다문천왕 복장 발견 목서지>

서방광목천상 안에서는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지만 '…重創奉安記'로 시작되어 '康熙四年六月日識…' 등의 내용을 43.0×56.8cm 크기의 종이에 적은 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도15). 원문의 후반부에 '…畫員第一手/ …廣學/ 四圭/ 性悅/ 卓密/ 敬遠/ 思遠/ 法清'이란 화원의 이름이 확인되었다.<sup>80)</sup> 비록 손상이 있기는 하나 수화승의 첫 번째 글자의 우변으로 판단해 볼 때 단응(端應)으로 유추되며,<sup>81)</sup> 대략

80) “…重創奉安記/ …三韓福○/ …千古道○/ 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 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 石鍾橫截於東冥/ 金像作成於西竺/ 頃者/ ○掀海鬣映及池魚/ 火烈民閻烟飛山刹/ 藥王菩薩獨悵〃而何依/ 金粟如來亦遑〃而靡托/ 地豈○宝○無闡幽之時/ 天道周星乃致顯微之日/ 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 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 所可欠者/ 千門之妙鍵猶爲瑯〃/ 四天之感儀殊極蕭〃/ 常爲法侶之咨嗟/ 久作緇徒之歎惜/ 於是居士孔戒根者/ 專心再煥/ 有意重修/ 敢借萬天之因緣/ ○成四大之天帝/ 五十三金佛從此洗顏/ 萬二千玉峯白今增色/ 東方持國/ 南方增長/ 北方則其名多門/ 西方則其号廣目/ 中含五行之火八○斬/ 外飾四種之粧五彩煥/ 然矣/ 雖外現天王之威猛/ 案內含菩薩之慈悲/ 方便難思/ 神通莫測/ 具王力而降魔破敵/ 傾一心而護國民安/ 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 稽首承合科二佛而護○/ 敬心奉安千百/ 齊志致奠億萬/ 歲之久/ 年之長/ 康熙四年六月日識/ 施主秩/ 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 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泉/ 寺內秩/ 時住持性沉/ 首僧法熏/ ○○覺林/ ○寺覺虛/ 緣化秩/ 證明尙玄/ 持殿妙演/ 畫員第一手/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供養主雙益/ 清允/ 來往郭命生/ 化主孔戒根/ 夢德兩主/ 申福男/ 別座呂…祥”(밑줄 필자).

81)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136;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pp.137~

10명 내지 11명 정도가 참여한 불사로 판단된다. 단응은 고승 소영 신경(昭影 神鏡)의 문인으로 전북 완주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까지 50여 년에 걸쳐 활약한 조각승이다.<sup>82)</sup> 원문의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성열(性悅)은 1628년 응원(應元)과 함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보물), 1650년에는 혜희와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승려 장인이다. 화원질에 7번째로 기재된 탁밀(卓密)과 마지막에 기재된 법청(法淸)은 1684년에 예천 용문사 목각설법상을 단응과 함께 제작한 조각승들이다.



<도15 직지사 서방광목천왕상 복장 발견 「중창봉안기」>

당시 불사에 참여한 승장들에 대해서는 서방천왕상과 북방천왕상의 내부에 목서가 있어 더 확인할 수 있다. 서방천왕상 복장공 안에는 ‘전라도 전주부 동쪽 중남산의 송광사에 거주하는 승려 화원들이 와서 이를 만들었다’라는 목서가 있고,<sup>83)</sup> 북방천왕상의 복장공 안에서는 ‘전라도 전주의 송광사 화원들이 을사년 3월에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목서가 발견되었다.<sup>84)</sup> 이에 의거할 때, 당시 단응은 전라도 완주 송광사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5)</sup> 종합하면,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에 호남의 승려 장인들이 영남지역으로 진출해 불상을 제작한 양상을 알려주고 있어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

## ○ 참고문헌

-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 2013.
-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138.

82) 단응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2013); 허형욱, 「조선 후기 조각승 端應의 造像 活動과 性格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32(2022).

83)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84)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85)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p137~139;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pp.138~139.

-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허형욱, 「조선후기 조각승 端應의 造像 活動과 性格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32, 2022.
-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 11.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高興 楞伽寺 木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0./'23.1.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2000.6.20. 지정)
- 명 칭 :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高興 楞伽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능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4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66년 경)
- 제작자 : 미상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능가사 사천왕상은 정면향의 자세에 길쭉하고 늘씬한 독특한 비율이 특징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꽃는 장식이 없이 문양을 그린 원통형의 보관, 장방형으로 긴 얼굴 형태와 신체 비례는 같은 시기의 다른 사천왕상과 구별되며, 정면을 응시하는 무표정한 얼굴에 큼지막한 메부리 코 등도 독특하다.

사천왕과 관련된 기록은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 시 발견된 상량문(1666년, 1824년 중창), 사적비(1690년 비문), 복장발원문 등이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1666년 조성된 천왕문과 함께 제작되었고 1824년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만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량문에 나오는 승려는 동방지국천왕에서 나온 발원문에 나오는 ‘禪德 信璨’과도 일치하는 점에서 정확성을 보인다. 즉, 1666년 상량문에 있는 ‘大清康熙五年丙午四月吉日初朔都監兼 信讚’의 초창도감 신찬과 같은 승려로 추정된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대웅전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든 북방천왕이 있으며 그 반대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즉, 지물에 따른 도상을 참고해 보면, 오른쪽에 동방과 북방, 왼쪽에는 서방과 남방천왕의 순서로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와는 다르다. 비슷한 유형이 수타사 사천왕상에도 나타나는데 동-남-서-북방의 순서로 능가사 사천왕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과 그 배경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앞으로 의례 및 의식을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소조사천왕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이며 개성적인 비례, 곧은 자세에 정면을 향한 무표정한 얼굴 표정, 단순하고

평면적인 보관이 특징이다. 또한 천왕문 중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666년과 1824년의 중수기록이 확인된 점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은 대형의 조각상이면서도 목조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같은 목조이지만 불갑사 천왕상의 경우는 소조상의 조형감과 큰 차이가 없이 표현되었으나, 능가사 천왕상은 이러한 상들에 비해 다소 투박한 감이 없지 않으나, 목조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서 화엄사 계통의 전형적인 소조상 계통과 전혀 다른 사천왕 양식 계보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목조의 특성에 맞게 자세가 다소 경직된 모습이며, 신체 특히 상체가 과장되게 긴 비례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비례가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이나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의 비례와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목조상이 소조상에 영향을 준 것인지 혹은 소조상이 목조상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양식이 단지 목조이기 때문에 나타난 양식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천왕의 배치 또한 능가사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왕문의 실제적인 좌향과는 무관하게 천왕상의 배치는 천왕문이 남향하고 있을 때의 상황에 준하여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흥천 수타사와 더불어 고흥 능가사는 실제의 좌향을 의식하여 네 천왕을 배치한 특이한 사례에 속하며, 이에 대해 연구하면 전통문화에서의 방위개념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가사 사천왕은 배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방위개념에서 보았을 때 동방지국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이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것이 방위를 바꿔 봉안한 것인지, 아니면 도상을 바꿔 봉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남방천왕을 제외하면 모두 1구씩의 악귀만 남아있다. 그러나 원래는 다른 사례에서처럼 양쪽 발 아래에 모두 악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악귀들 중에서 입이 새부리처럼 생기고, 손과 발도 새의 발처럼 생긴 악귀가 주목된다. 이는 드물게 보이는 유형의 악귀로서 한국의 도깨비 도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악귀 중에 귀 뒤쪽으로 불꽃 같은 것이 깃털처럼 달려있는 도상 역시 시왕도 등의 옥졸 표현에서 보이는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능가사 사천왕상은 소조사천왕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 사천왕상 계통의 사천왕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계통의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목조사천왕상 작품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의 소조사천왕상도 현존하고 있어 재료와 양식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또한 천왕 발 아래의 악귀 도상들 중 반인반조의 모습이나 귀 뒤에 별도의 머리카락이 불꽃이나 뿔처럼 자라고 있는 점은 드문 도상으로서 한국의 악귀, 나아가 도깨비 도상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동방지국천왕에서 발견된 복장기와 사천왕문 상량문을 통해 이 사천왕상은 1666년에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판단된다. 복장기에는 아쉽게도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참여자 명단에 경림, 행탄 등 17세기 후반 운혜와 색난의 문하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들의 이름이 다수 확인된다. 사천왕상에 보이는 전체적인 표현감과 조형감각은 1667년 운혜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화순 쌍봉사 지장시왕상 등의 명부 장군상과 비교되므로, 이 사천왕상도 운혜 유파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의 17세기 후반기 첫 작품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사천왕이며, 이 이후로 전남 지역에서 사천왕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천왕상의 차지하는 조각사적 의의가 크다.

17세기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몇 안 되는 사천왕상으로, 17세기 후반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능가사 사천왕상은 제작시기를 비교적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으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또한, 능가사 사천왕상은 다른 사찰에 봉안된 동시기의 사천왕상의 규모를 뛰어넘는 450cm 장대한 크기여서 주목된다. 천왕문에 사천왕을 배치한 방향, 천왕이 들고 있는 지물, 보관 등에서 같은 시기 제작된 사천왕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조각승의 정체와 도상적 전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되는 상이기도 하다. 천왕문의 건립과 중건연대, 그리고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밝혀진 상으로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여타의 조선후기 사천왕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대하여, 따라서 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내 력

높이 5.1m에 귀부 위에 서 있는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1690년 비문 작성, 1750년 건립)에 의하면, 능가사의 원 이름은 보현사(普賢寺)이며 임진왜란 때 절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후 벽천 정현대사(碧川 正玄大師)에 의해 1644년(인조 22)에 재건되면서 능가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재건 과정에서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제작되었다.

사찰 입구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천왕문이 위치해 있다. 사천왕은 소의경전인 <금광명경>, <경륜이상>에 따라 동, 남, 서, 북방에 있는 4구의 천왕이다. 사천왕은 입구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비파(북), 칼(동), 용과 여의주(남), 보당과 탑(서)을 든 사천왕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1999년 8월 3일 태풍으로 인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당시 복장 개봉 후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여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부분의 복장물은 이미 도난되었고 경전 일부와 진언다라니 판본, 후령통 2개, 복장기, 비단 1점 등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이후 2004년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후령통은 북방, 남방, 동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에서 발원문(43×10cm, 21×535cm)이 발견되었다.

사천왕상과 관련된 기록은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 시 발견된 <고흥 팔령산 능가사 천왕문 상량문>에 창건과 중수기록 2건이 확인된다(도1).

1. 大清康熙五年 丙午 四月吉日初朔都監兼 信讚(1666년)
2. 大清道光四年 甲申重朔都監秋坡當養初(1824년)

이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 166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초창도감(初朔都監)은 신찬(信讚)인데, 동방지국천왕에서 나온 발원문(복장기)에도 선덕(禪德) 신찬(信璨)이 있어 같은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거하여 사천왕상도 1666년 경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824년에 중창되었음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능가사 사적비>에는 ‘天王門化主是閑別座懷益王像化主天一冲印’이라 적혀 있으며, 천왕문 조성 시 참여한 소임비구들의 이름이 확인된다. 마지막 중창은 소화 11년(1936) 병오의 상량문으로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大清康熙五年丙午四月吉日初册都監兼 信讚(1666년) 大清道光四年甲申重册都監秋坡當養初(1824년)  
<도1 고흥 능가사 천왕문 중도리 상량문>

### ○ 현상 및 특징

능가사 천왕문(도2)에는 문 좌우측으로 각 두 구씩의 천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이다. 나무를 접목하여 만든 목조사천왕이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신체 비례에 마르고 길쭉한 불신이 특징이다.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가늘고 납작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한 위로 추켜올라간 큰 눈과 눈매, 뭉툭한 큰 코, 목에 힘을 준 주름, 단순한 원통형의 형태에 꽃과 구름으로 장식한 보관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비파를 직접 연주하는 듯한 손가락 놀림 등 세부적인 표현도 특징이다.



<도2 능가사 천왕문>

사천왕은 각각 특징 있는 지물을 들고 있다.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이다.

그러나 위치는 일반적인 사천왕의 배치와 다르다(도3). 대웅전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든 북방천왕이 있으며 그 반대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4.5m 정도로 매우 장대한 규격이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3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4구의 사천왕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머리에는 원통형의 나무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옆이 좁고 위아래로 긴 길쭉한 장방형이며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천의는 각 사천왕이 조금씩 다른데 머리 뒤에서

등글게 말아 그 위로 화염문을 조각하여 마치 광배 같은 효과를 냈다. 그리고 양 어깨를 걸쳐 허리에서 한번 묶거나 또는 양 측면으로 길게 늘어뜨려 바닥까지 길게 닿아 있다. 광배와 같은 천의는 뒷면의 벽과 나무로 연결하여 지지대를 만들어 고정하였으며, 앉아 있는 의자와 천왕상 역시 못으로 연결하여 안정감 있게 처리하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는 흉갑과 상갑, 허리띠나 벨트를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는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전체가 위로 치솟거나 말아 올려져 역동감을 자아낸다.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은 허리에 수피를 매달아 무서우면서도 입체적인 모습으로 차별화하였다. 천왕상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이며 발 아래에는 각 2구씩의 악귀들이 각기 다른 자세로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누워 있다. 악귀는 야차 또는 생령좌라고 부르며 한 발은 악귀를 밟고 다른 쪽 발은 반정도 구부려 악귀가 들고 있는 자세가 일반적이다.



## ○ 현 상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은 1666년에 세워지고 1824년과 1931년 중건 기록이 있는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익공식 건축인데, 특이하게도 능가사의 좌향에 따라 북향을 하고 있다.[도1]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능가사 천왕문의 천왕상 배치는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남쪽에서 진입하거나 혹은 방향이 다소 틀어지더라도 남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천왕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볼 때 오른쪽 가까이에 동방, 안쪽에 북방, 왼쪽 가까이에 남방, 안쪽에 서방천왕이 배치되므로, 북방+동방, 서방+남방천왕이 짝을 지어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능가사는 북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되, 오른쪽 가까이에 북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조선시대 천왕문 도상의 일반적인 규칙인 비파를 든 천왕을 북방천왕으로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다. 여기서 북방천왕의 옆에는 원래 서방천왕, 즉 당과 탑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칼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도2] 조선시대 천왕문 도상에서는 칼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능가사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방천왕의 맞은편은 동방에 해당하여 원래 여기에 칼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능가사에서는 당·탑을 든 서방광목천 도상의 천왕이 동방천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3] 대각선 방향은 남방에 해당하며 실제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도상에 따른 천왕이 배치되었다. 결국 동방과 서방천왕의

위치가 반대로 자리잡은 상황인 셈이다. 능가사 천왕상의 제작자들이 두 천왕의 도상을 바꿔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에서 동·서의 방위를 뒤집어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 사찰이 북향한 것의 풍수지리적 단점을 동서의 방향을 뒤집어 표현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동·서 천왕의 도상이 바뀐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하도록 하겠다.



<도1. 고흥 능가사의 북향한 천왕문>



<도2 능가사 사천왕 배치(서쪽의 서방 및 북방)><도3 능가사 사천왕 배치(동쪽의 동방 및 남방)>

우선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가까운 위치에 서있으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4] 착용한 보관은 다른 장식은 전혀 붙어있지 않고, 채색으로만 꾸며져 있다.[도5] 보관의 관대는 앞뒤의 가운데 부분이 삼각형으로 솟았는데, 앞부분이 뒤에 비해 더 높고 더 넓은 단순한 형태로서 보살상의 보관의 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보관의 정면에는 청룡의 얼굴이 정면향으로 그려졌으며, 그 옆의 양옆으로 연꽃줄기가 나와 꽃을 피우고 있다. 또한 마치 용의 귀 부분에서도 연꽃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용의 옆에서 나온 연꽃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귀에서 나온 연꽃은 비교적 사실적

인 화풍으로 그려졌다. 용의 머리 위에는 연꽃을 위에서 본 연판문이 그려졌고, 용의 좌우에도 연판문이 그려졌으며, 그 사이에 여의두문이 표현되었다. 보관이 원래 이렇게 채색만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꽃이나 구름 문양 장식이 붙어있었는데 유실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보관의 군데군데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다른 사찰의 천왕상들처럼 입체적인 장엄이 붙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단은 두 줄의 용기문 띠가 금색으로 둘러지고, 그 사이에는 연주문으로 꾸몄다. 또한 관대의 좌우 뒤편으로는 철심을 달고 그 끝에 주황색으로 채색된 띠가 매듭지워진 후 흘러내리고 있다. 다만 이 띠는 완전히 측면을 향하고 있어서 정면에서는 매듭진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보관 아래로는 타래진 머리카락이 발제선을 따라 표현되었는데,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었으며, 다른 경우는 보살상처럼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며 뒤러 넘어갔다가 어깨로 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되어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보관에서 흘러내린 띠가 측면으로 걸리고, 어깨로 보발이 늘어뜨려지지 않는 이유는 어깨에 걸친 피건이 위로 솟구치면서 광배처럼 천왕의 뒤를 에워싸고 있는데, 보통은 이 피건이 뒤로 충분히 넘어간 다음에 위로 솟아서 어깨의 피건 위에 보발이 늘어뜨려지고, 또 보관의 띠도 피건 앞부분에서 펼쳐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어깨에서 곧바로 피건이 솟아올라있기 때문에 보발이 늘어뜨려질 자리도, 보관의 띠가 옆으로 펼쳐질 자리도 없게 된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왜 이처럼 피건이 어깨에서 바로 위로 솟구치게 되었는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원래는 어깨 뒤로 충분히 넘어간 다음 위로 솟은 방식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 천왕문이 축소되면서 피건이 뒤로 넘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피건을 앞으로 세우는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왕의 뒤로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피건 뒤에는 이를 받치기 위한 소매자락이 굵게 조각되어 있어서 피건의 각도가 변형되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능성은 원래의 천왕문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피건을 뒤로 넘길 공간이 없어 어깨에서 곧바로 세웠으나, 추후 천왕문을 수리하면서 규모를 확장하여 지금처럼 천왕 뒤쪽에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의 천왕의 모습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4 북방다문천>

<도5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

<도6 북방다문천 상체 및 비파>

천왕의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또한 위아래로 긴 형태이다. 이마에는 두 줄의 주름이 새겨졌고, 미간에는 다른 사찰의 천왕의 경우는 양쪽 눈썹을 이어주는 V자형의 돋을새김의 주름이 표현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한 줄의 세로선만 표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간략히 표현했다. 대신 콧등에 3단의 주름을 강조한 것은 다른 천왕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능가사 천왕상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눈 아래를 유독 깊이 파고 눈의 아래 윤곽선을 따라 주름도 새겨서 두 눈이 마치 튀어나올 듯 두드러지게 보인다. 또한 천왕문의 천왕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천왕문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능가사 천왕문에서는 천왕들이 서로 맞은편 천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눈썹과 수염은 흰색으로 채색하여 다소 나이든 모습이지만 목의 힘줄이 잔뜩 일어난 모습을 보면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입술은 약간 벌리고 있어 입안의 치아가 약간 보이는데, 마치 누군가를 위협하는 듯한 표정으로 읽힌다.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으며, 상체 갑옷은 금빛의 소슬금문이 전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지물로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다른 사찰의 북방다문천에 비해 손을 높이 들어서 비파를 들고 있어서 상체의 가슴부분이 비파에 의해 많이 가려지고 있다.[도6] 다른 시각에서 보면 능가사 천왕들은 대체로 상체가 길고, 그에 비해 팔은 짧은 편이다. 심지어 상박이 짧기 때문인지 어깨를 가리는 견갑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팔이 짧고 상체는 길다보니 마치 비파를 높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견갑은 걸치지 않았지만 다른 사찰의 천왕들처럼 상박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듯 위로 솟구쳐 있는 모습은

동일하게 표현되었는데, 다른 사찰에서는 양쪽 소매가 모두 휘날리고 있는 것과 달리 능가사 천왕상은 칼을 든 천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쪽 소매만 위로 솟구쳐 있고 반대쪽 팔의 소매는 아래로 쳐져 있는 점이 다르다. 비파에는 공명통이 그려지지 않았고, 단지 상판의 나무결이 강조되어 그려졌으며, 지판 끝의 목이 꺾인 당비파를 들고 있다. 비파를 연주하는 손은 손가락 마디의 주름, 손톱의 세부적인 묘사 등에서 조각가가 세심하게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허리에 두른 요대의 버클인 대구(帶鉤)는 푸른색의 용면(龍眠)이며, 요대의 각 마디는 꽃, 용면, 봉황 등으로 꾸며졌다. 일반적으로 이 용면의 아래턱에 고리 등이 물려있어 동물가족이나 끈 장식이 아래로 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식이 생략되었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군갑은 허리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에 덮여 많이 가려있을 뿐 아니라 흉갑에 새겨진 소슬금문 같은 문양이 없이 단순하게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어 마치 하체에는 갑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도7] 그러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바지나 군의가 아니라 허벅지 앞부분을 어떤 것이 덮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군갑을 걸친 것을 알 수 있다.[도8] 아마도 개채하면서 이 부분을 단순한 군의로 알고 갑옷장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갑 아래로 흘러내린 군의자락이 반전되면서 군갑의 하단을 덮고 있으며, 측면으로 흘러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군의 아래로는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무릎 아래에서 붉은 색 끈으로 한번 묶여 있다. 그 아래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을 착용한 것이 보인다. 신발은 발등에 줄기 옆에 잎사귀가 달린 듯한 문양이 표현되고, 신발 전체에는 연꽃의 자방처럼 둥근 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5점의 연주문이 둥글게 에워싼 문양이 반복적으로 채워졌는데, 이 연주문 동심원은 바깥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작게 표현되었다. 일부는 중첩되면서 아래로 들어간 문양은 가려져 있는 것도 보인다.

어깨에 걸친 피건은 아래로는 들어져 바닥에 펼쳐져 있는데 오른쪽 끝단은 길게 이어져 천왕 아래의 악귀를 뒤에서 감싸듯 길게 늘어지고, 왼쪽으로 늘어진 끝단은 측면으로 군의가 흘러내린 정도까지만 이어지다 끝난다. 이처럼 좌우가 다른 길이로 흘러내린 것도 다소 특이하다. 다만 왼쪽 피건 자락은 바닥에 닿은 다음 군열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짧게 연장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에 한번 끝자락이 부러져서 이후 짧게나마 다시 연장하여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건의 상단은 천왕의 머리 위로 높게 휘날리고 있는데, 그 끝 테두리에 불꽃무늬가 붙어서 마치 광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도7 북방다문천>

<도8 북방다문천 우측면>

<도9 북방다문천>

천왕 발 아래의 악귀는 오른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 1구만 보인다.[도9] 다른 천왕들도 모두 1구만 남아있는데, 다만 대각선 맞은편 남방천왕만은 누워있는 악귀가 양발 아래 모두 들어가 있다. 악귀가 1구만 남아있는 천왕상들은 모두 살짝 높이 들고 있는 발을 앉아서 받들고 있는 악귀들인데, 남방천왕은 두 악귀가 모두 바닥에 누워 뱃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중 한 구는 다른 천왕의 발 아래에서 잘못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아마도 원래는 모든 천왕상 아래에 각각 2구씩의 악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천왕상의 악귀가 없는 쪽 발도 공중에 떠있어서 그 아래에 악귀가 드러누울 공간은 만들어져 있다.

북방천왕의 오른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오른팔은 소매가 짧고 왼팔은 소매가 길어 손이 전혀 안 보이는 상의를 여며 입었는데, 가슴을 풀어헤쳐 근육질의 가슴이 보인다. 목에는 마치 스카프를 두른 것처럼 천이 둘러져 있다. 바지는 짧아서 근육질의 종아리가 드러나 있다. 생김새는 동자처럼 양쪽에 상투를 틀었고, 귀 뒤쪽에 녹색으로 뿔 같은 것이 돋아난 것이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고려시대 시왕도에서도 지옥의 옥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울그락불그락한 양감이 묘사된 얼굴에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는 윗니가, 하나는 아랫니가 비대칭으로 보인다.

북방천왕 옆에 봉안된 서방광목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서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위상으로는 서방이 분명하나, 실제 도상은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의 도상이 적용되었다.[도10] 천왕의 얼굴표정은 윗니를 드러내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표정이 독특하다. 또한 숨을 쉰 것처럼 콧

구멍이 옆으로 추켜올라가 크게 뚫려있는 것도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다. 목에 두른 스카프, 소슬금문의 흉갑, 용면 문양의 대구와 관대 등은 북방천왕과 같은 유형이나, 북방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어 가슴 부분이 가려진 반면, 상체 전체를 볼 수 있는 서방천왕 등 다른 천왕상을 보면 상체가 얼마나 긴 비율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도11]



<도10 (추정)서방광목천>



<도11 서방광목천 상체>

천왕이 들고 있는 칼은 다른 사찰의 동방지국천왕이 들고 있는 칼에 비해 매우 정교한 편이다. 칼 손잡이 끝 장식은 마치 용의 발톱이 여의주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며, 코등이도 꽃잎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보이며, 투각형태를 하고 있어 매우 정교하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지국천왕의 검은 날이 양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칼 끝을 보면 좌우대칭이 아니라 한쪽에만 날이 있어 검이 아니라 도(刀)를 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방천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건의 틈새에 좌우로 사자가 머리를 내밀고 놀고 있는 듯한 형상이 표현된 것이다.[도12·13] 오른쪽의 청사자는 약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왼쪽의 황사자는 약간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어 마치 두 사자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해학적이다. 원래 이러한 사자는 서방광목천이 보탑 대신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서방광목천 자리에 있는 것이 동방지국천의 도상을 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사자를 집어넣어 이 천왕이 서방광목천임을 나타내려고 의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왼쪽 사자 위쪽으로는 피건에서 갈라져 나온 끝이 날카로운 띠 한 자락이 구불거리며 바깥으로 휘날리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능가사 천왕들의 피건 표현의 특징이다.



<도12 서방천왕 우측 피건의 청사자> <도13 서방천왕 좌측 피건의 황사자> <도14 서방광목천 악귀>

오른발 악귀는 북방천왕의 악귀처럼 무릎을 꿇고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있는 모습이다.[도14] 짧은 소매의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이마에 단이 져 있는 민머리 형상이다.

북방천왕의 맞은편에 위치한 동방지국천왕 자리에 있는 천왕은 서방광목천의 도상인 당과 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도15] 얼굴표정에 있어서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 안을 깊이 파내서 현재 그 안에 별집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조각의 특성상 안면부를 별도의 목재로 만들어 두부(頭部)에 접합하기 때문에, 접합 전에 뒷부분을 파내서 입 안이 비어있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위아래 치아도 정교하게 표현했다. 보관 뒤쪽에서 흘러내리는 매듭장식은 다른 천왕들은 주름진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된 반면 동방천왕의 매듭은 윤곽만 표현되고 주름은 전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의 매듭장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손에는 삼지창에 깃발이 달린 당을 들고 왼팔은 정수리 높이로 높게 들어 금색의 삼층탑을 손에 받치고 있다.

서방천왕과 유사하게 동방천왕의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피건의 중간 부분에서 한 띠 자락이 바깥으로 구불거리며 펴져 있고 있다. 또한 이 피건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두 번에 걸쳐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만든 것인지, 혹은 상을 옮기거나 수리하면서 어색하게 복원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능가사 천왕상들은 위치가 조금씩 조정되거나 혹은 공간상의 변화로 인해 이 피건이 흘러내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도17] 한편 황룡으로 표현된 관대 중앙의 대구(帶鉤) 바로 아래로 헛바닥처럼 길게 늘어지고 그 안에 오색구름문양이 단청된 장식이 보인다.[도18] 보통 다른 사찰의 천왕상에서는 동물가죽형태의 장식이 대구의 용면

아래턱에 걸린 고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의 장식  
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의 고리에 매달리 형식이 아니라 대구 안쪽면에 붙어있  
는 듯이 처리된 것은 다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15 (추정)동방지국천>

<도16 동방지국천 상체>

<도17 동방지국천 좌측면>

발 아래의 악귀는 들고 있는 천왕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 1구인데 완전한  
민머리에 짧은 바지만 입고 있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다.[도19] 받들고  
있는 모습이나 표정이 매우 공손하고 충직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노출된 신체  
가 많은 만큼 강인한 근육이나 골격의 표현이 섬세하게 드러난다. 조선시대 미술  
에서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도18 동방지국천 하체>



<도19 동방지국천 악귀>

이 옆의 남방증장천왕은 일반적인 용과 여의주를 든 도상을 따르고 있다.[도20] 얼굴은 입을 굳게 다물어 목에 힘줄이 선 것 같은 모습이며, 그나마 다른 천왕들에 비해 상체를 틀어 천왕문에 들어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증장천왕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우선 피건이 양쪽 어깨에서 직선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부분에서 X자형으로 교체된 다음에 각각 반대편 측면으로 흘러내리도록 한 점이다. 또한 피건의 중간 부분에서 깃발처럼 펼쳐지는 띠자락이 다른 천왕들은 한쪽만 있는데 반해 증장천은 좌우 양쪽에서 안쪽으로 휘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견갑 아랫부분의 소매가 위로 솟구쳐 있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도 소매만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휘날리는 소매 부분에 고리를 감아 일부러 세워놓은 것처럼 붉은 색의 굵은 띠 같은 것을 감아놓은 것이 보인다. 이와 함께 다른 사찰의 천왕상 장엄에서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동물가죽 모양의 영락장식이 증장천에서 보이는데, 차이점은 다른 사찰에서는 이 가죽이 관대의 용면 대구의 아래턱에 고리를 달아 매달아 둔 것에 비해, 능가사 증장천은 흉갑을 감싼 천을 가로로 묶고 있는 끈에 매달아 놓은 점이 특이하다.[도21] 때문에 이 가죽 장식은 허리의 요대에 매달았을 때보다 더 길게 강조된 느낌이다. 더불어 능가사 사천왕의 다른 장엄은 비교적 간단하고 생략적인데 반해 이 동물가죽에는 유난히 신경을 써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죽의 입 부분에 달린 송곳니도 앞뒤로 두 쌍이 튀어나와 있고 특히 두 귀 사이에 외뿔이 돋아난 것도 정교하게 묘사했다.



<도20 남방증장천>

<도21 남방증장천 장엄 세부>

<도22 남방증장천 지물(용)>

오른손에 잡고 있는 용은 황룡이며 몸의 전면에는 신발에 그려진 문양과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작아지는 5중의 연주문 원이 그려져 있다. [도22] 또한 일반적으로 이 용은 증장천의 팔뚝을 휘감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쥐고 있는 천왕의 손가락을 한번 휘감은 다음 위로 솟구쳐 올라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용의 코 아래에서는 긴 수염이 돋아나 있다. 왼손의 여의주는 동방천왕이 탑을 들고 있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팔을 높이 들어 머리 높이로 잡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용이 여의주를 바라보며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용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도 다르다.



<도23 남방증장천 아래의 두 악귀>

한편 증장천은 능가사 천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쪽 발 아래에 모두 악귀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악귀는 천왕의 발을 받들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두 악귀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다.[도23]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중 하나는 다른 방위의 천왕 아래에 있던 것을 잘못 옮겨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현재의 정황으로 보면 원래는 능가사 천왕들도 각각 무릎 꿇은 악귀와 바닥에 엎드린 악귀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증장천의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등에 대고 누웠는데 짧은 바지만 입고 있다. 누운 자세는 오른쪽 다리를 뺀고 왼쪽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 두고 무릎을 세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어서 마치 천왕의 발 아래에서 응용포복 자세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은 관람자를 바라보는 듯 올려다보고 있으며, 혀를 내밀고 있어 해학적으로 보인다. 등에는 척추와 그 주변의 근육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왼발 아래의 악귀는 등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얼굴은 입의 모양이 마치 새의 부리처럼 앞으로 돌출된 모양이며 손과 발도 새의 발처럼 세 개의 발톱을 오므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악귀의 상체는 근육을 묘사한 것 같은데 양감은 없이

근육의 심줄만 강조되어 있어 마치 고행상을 보는 것 같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탄탄하게 잘 묘사가 되었다.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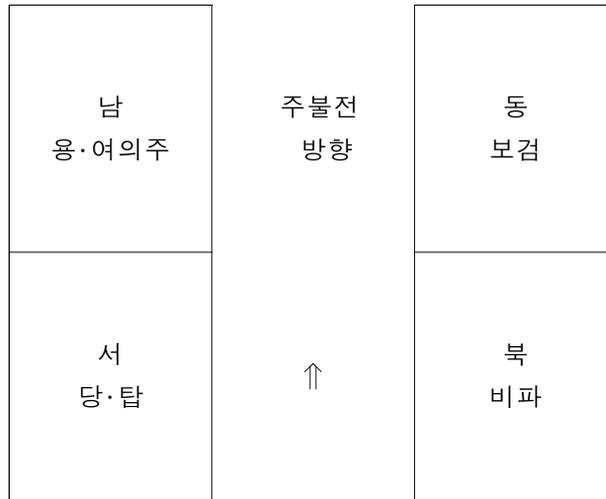
고흥 능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아도화상 창건하여 보현사라고 했다고 전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찰 역시 임진왜란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소실되었으며, 전란 이후인 1644년 벽천정현이 중창하고 능가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능가사 천왕문은 사찰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고, 주불전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건물이다. 천왕문의 건립은 천왕문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666년으로 확인되며, 사천왕도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최근 동방지국천왕에서 복장기가 발견되었다. 기존에는 천왕문 상량도리 목서 ‘大清康熙五年兵午四月吉日初朔 都監兼化主信讚’이라는 기록을 통해 천왕문과 함께 16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는 1690년 세운 <능가사 사적비>에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시주자 명단이 비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동시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더해 준다. 천왕문의 상량문에서 1666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작시기 부분은 남아 있지 않으나 동방지국천왕의 복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활동시기도 이 시기와 중첩되므로 사천왕상은 1666년에 작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化主 信讚은 제작연대 부분이 결실되어 발견된 동방지국천왕 복장기에도 이름(복장기엔 信瓌)을 올리고 있어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거의 동시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목되는 승려는 敬林, 幸坦 등 운혜, 색난과 조각승들의 명단이 보인다. 사실 능가사는 벽암각성의 문도로서 전란 이후 호남일원 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碧川正玄이 중창한 사찰이고, 그 역시 조각승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또한 이곳에는 17세기 후반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 크게 활약한 색난(화엄사 각황전 불상에 팔영산인으로 등장)의 본사로서, 색난과 조각승들이 주석하고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통해 볼 때 능가사 사천왕상은 운혜파 또는 색난파 조각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능가사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배치와 다르다. 진입부에서 우측에 북방(비파)·동방(보검)을 배치하였고, 좌측에 서방(당·탑)·남방(용·여의주)를 배치하였다. 주불전이 좌향이 일반사찰과 달리 남쪽에 자리 잡아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사천왕상의 배치가 주불전의 좌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치 않다.



<표1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배치도>

네 구의 사천왕상은 모두 탁자모양의 의좌에 앉은 의좌세로, 모두 꽃잎 형태의 보관을 썼으나, 별도의 장식물은 부착하지 않았다. 보관의 표면에는 꽃과 귀면 등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 사천왕의 목에는 스카프를 매듭지어 묶었고, 견갑과 비갑, 흉갑, 요갑, 요포, 전포 등을 두루 걸쳤다. 상의는 전포로 타이트 하게 입었으며, 하의는 품이 넓은 박고형으로 정강이 부근에서 띠로 한번 매듭지어 묶었다. 몸을 휘감은 천의가 머리 뒤에서 화염 광배 역할을 하고 있다. 팔꿈치 부근에서 소라처럼 말아 올려 표현한 전포자락(북방)과 아래위에서 옷깃을 각각 한 번씩 접어 그것을 바늘로 묶은 흉대(서방)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17세기 전반기 작품에 비해 중량감이 줄어들고 세장한 형태미를 갖고 있다.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얼굴>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측면>

<회순 쌍봉사 명부전(1667년, 운혜 작)>

북방은 비파, 동방은 보검, 남방은 오른손에 용 왼손에 여의주를 받쳐 들었다. 남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왼손바닥으로 칼끝을 받쳐 들었다. 살짝 든 오른 발 측면에는 악귀형 야차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선 모습이다. 원래의 것은 아니고 최근 수리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다. 허리춤 천의자락 좌우측에 얼굴을 내민 두 마리 사자가 인상적이다. 서방천왕은 어깨위로 치켜든 왼손에 보탑을 받쳐 들었고, 오른손으로 삼지창모양의 寶幢을 쥐고 있다. 왼쪽 허벅지를 악귀형 야차가 받쳐 들었다. 요의는 상하가 같은 모양으로 주름을 잡고 끈으로 묶었다. 북방천왕과 동방천왕, 서방천왕은 허리춤에서 귀면이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남방천왕은 허리춤에서 요의를 들렀고 멧돼지형상의 獸皮를 고리로 매달았다.

사천왕상은 일반 불상과 달리 과장된 인물표현을 통해 사천왕상이 상징하는 위엄과 역동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 그러므로 숭고한 정신성과 종교적 이상성이 강조된 불상의 상호표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명부전의 장군상이나 불상 중에서는 귀의 표현 등에서 조각승의 조각 습관 등을 읽어낼 수 있고, 이것을 읽어내면 어느 정도 유파의 조각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의 장방형의 폭이 좁은 얼굴, 파초모양의 눈썹, 몽툰한 삼각형의 콧날과 鼻柱가 훤히 노출된 들창코, 상·하각 사이를 긴 음각선으로 처리하고 이갑강의 폭이 좁은 귀, 울룩불룩 처리한 목의 힘줄 등 운혜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1667년에 제작한 화순 쌍봉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천왕상은 운혜파 조각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야차는 원래 사천왕의 좌우 다리에 각각 1위씩 모두 8위가 만들어졌을 것이나, 현재는 5위만 보이는데 모두 악귀형 야차이다. 이 악귀들은 최근 중수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북당 다문천왕 악귀는 엉거주춤 앉아 어깨로 사천왕상의 다리를 받치는 모양새다. 위아래의 송곳니가 돌출해 있고, 머리는 쌍계로 묶었다. 남방증장천은 두 마리 악귀형 야차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

## ○ 문헌자료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1-1

大清康熙五年丙午<sup>86)</sup>四月吉日初朔都監兼化主信讚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1-2

大清道光四年甲申<sup>87)</sup>三月吉日重朔都監秋坡堂養初

1995년 8월 4일 墨書銘 上樑도리 2本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 보관

86) 顯宗 7년(1666).

87) 純祖 24년(1824).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2

昭和十一年丙子五月吉日三册都監海隱堂裁善

同苦錄

圓華堂 性眞

霽華堂 泰允

海隱堂 裁善

一庵堂 宗仙

滿谷堂 成洙

蓮皓堂 龍甲

春凝堂 夢吉

松潭堂 喆洙

時任秩

住持 海隱堂

監院 滿谷堂

別座 松潭堂

木手

金士鉉

高鳳來

鄭允明

李亨基

宋智浩

權性淑

宋連燮

供司 丁日秀

負木 黃正洙

本山 職員

住持 綺山堂

監務 龍隱堂

法務 藤谷堂

財務 春谷堂

伏願上樑之後寺運通泰

<東方持國天王腹藏記>

(43×10cm; 가로는 현존 크기)

□□□□□□□□□□衆常隨圍繞不離左

□□□□□□□□□□大願力忍□不梵□□□

(이하 유실되었음)



<표2 사천왕상 복장기에 등장하는 승려들의 주요 활동>

승명	소임	활동사항	시기	비고
學俊	老德	곡성 도림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90	조각승(9위, 충옥)
信璨	禪德	고흥 능가사 사천왕문 상량문	1666	化主 信讚
勝學	禪德	보은 범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	조각승(12위, 혜회)
懷玉	禪伯	안성 청룡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01	조각승(8위, 광원)
敬琳	禪伯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	시주질(응매)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65	조각승(2위, 운혜)
		화순 쌍봉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67	조각승(5위, 운혜)
		고흥 능가사 대웅전 석가여래상	1639	조각승(3위, 운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1663	비움기
		보은 범주사 벽암대사비	1664	門弟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78	조각승 首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1685	右帝釋大施主 嘉善
		고흥 능가사 사적비	1690	解脫門施主 嘉善
		고흥 능가사 동종	1690	嘉善
正元	仙伯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36	조각승(5위, 수연), 淨元
沖信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	시주질(영규, 忠信)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1663	通政(忠信)
義湘	禪伯	해남 서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0	조각승(운혜, 6위), 義尙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	시주질(응매), 義尙
楚雨	禪伯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85	조각승(8위, 색난)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87	조각승(5위, 색난)
順元	老德	구례 화엄사 각황전 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	1703	조각승(7위, 색난), 順瑗
唯一	本寺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	시주질, 唯日
		서울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	1664	行者 唯日
釋宗	禪和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시왕상(원 화순 대원사)	1680	조각승(7위, 색난)
淸雨	沙彌	부산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722	조각승(2위, 진열)
淸彦	沙彌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61	조각승(7위, 회장)
印英	沙彌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금산사)	1650	시주
		진주 청곡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7	조각승 首, 印迎
竺閑	禪和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2	조각승(5위, 응혜)
幸坦	禪和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84	조각승(3위, 색난) 行坦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85	조각승(6위, 색난)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87	조각승(3위, 색난)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93	조각승(2위, 색난)
		해남 대흥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701	조각승(2위, 색난)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석가삼불 및 사보살	1703	조각승(8위, 색난)
太澄	老德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미륵보살좌상	1654	조각승(3위, 회장)
太浩	禪伯	고흥 능가사 대웅전 불상발원문	1639	조각승(15위, 운혜)



## ○ 현 상

- 고흥 능가사 입구에 위치한 천왕문 안에는 좌우에 각 2구씩 목조 사천왕상 4구가 목책 뒤에 모셔져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1995년에 해체 복원 공사 중 발견된 장여의 상량문을 통해 1666년(현종 7년)에 초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824년과 1931년에 증건되었다고 한다. 현재 장여는 송광사 정보박물관으로 이전되어 관리 중이다.
- 이 사천왕상은 천왕문이 처음 건립될 당시 함께 조성된 것으로, 소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였고 의자에 걸터앉은 의좌상이다.

## ○ 내용 및 특징

- 능가사 사천왕상은 높이가 450cm에 달하는 대형 상이다. 신체 비례는 허리가 길고 가늘어서 세장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통나무를 자료로 사용한 것에도 관련된다. 신체 비례 상 천왕들의 얼굴은 별로 크지 않고 하체가 장중한 느낌을 준다. 다만 얼굴이 작다 보니 다소 위엄이 없어 보인다.
- 천왕상 허리의 표현은 단웅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데 반해, 귀와 콧날을 비롯한 상호의 표현은 운혜의 개인 양식과 상통한다. 운혜가 1660년대에 전라도를 활동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이 참조가 되긴 하나, 현재 알려진 운혜의 작품 중에는 사천왕상의 작례가 없어서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점은 능가사 사천왕상에 특이성을 더해준다.
- 천왕상은 의복 위에 갑옷을 입은 무장형으로, 어깨 위에는 천의를 걸쳤다.
-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조선후기의 다른 사천왕상과는 지물의 구성이 달라서 특이하다.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의 경우, 통상 북방다문천왕이 들고 있는 비파를 동방지국천왕이 들고 있으며, 동방지국천왕이 드는 칼은 남방증창천왕이 들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탑을 드는 것으로 묘사된 서방광목천왕은 용을 쥐고 있으며, 북방다문천왕은 칼과 당을 들고 있다.
- 또한 천왕들이 쓰고 있는 보관도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상과 달리 원통형이어서 특이하다.
- 1999년 8월에 사천왕상의 복장을 조사했을 때, 후령통 2개와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송광사정보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관리 중이다. 발원문에는 연대가 없기는 하나, 보물로 지정된 1698년명 능가사 동종의 명문과 비교분석하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동종의 명문에 보이는 이름 중 10여 명이 복장 발원문과 겹치는 것이다. 복장발원문에는 사미로 적혀 있으나 동종 명문에는 승계가 올라가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복장발원문이 더 먼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천왕상의 생령좌는 모두 도난당했다고 하며, 근래 새로 만든 것으로 명확한 제작년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91.
- 『능가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3.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 12.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靈光 佛甲寺 木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9.1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1.8.18.)를 실시하고 2021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21.10.14.)에서 검토하였으나, ‘동종문화재 비교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를 개최하여 비교조사 대상을 선정해 관계 전문가 조사(’22.4.21.~’23.2.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1987.9.18. 지정)
- 명 칭 :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靈光 佛甲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59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후반)
- 제작자 : 미상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 (보류)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높이 4m가 넘는 대형상으로 전체적으로 당당하면서도 세부적인 세밀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은행나무로 만들었으며 머리카락이나 세부장식, 양감이 필요한 부분은 흙으로 제작하여 정교함을 드러낸다. 구성과 배치에서는 가장 이른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을 비롯한 17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방위 및 이에 따른 사천왕의 지물 역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천왕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그 안쪽으로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 천왕문 입구의 오른쪽으로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그 안쪽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이 있는 구조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의 형식 및 구성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작품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정면향의 자세라든지 얼굴이 작고 보관을 높고 크게 하여 정면에서 봤을 때 더욱 장엄하고 위압적으로 표현한 점, 중앙에 용을 배치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주악천인 등의 장식성 등에서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사천왕상과 구별되는 창의성을 보인다. 또한 17세기 후반기의 경직되면서도 과장된 표현 기법. 긴 신체비례, 평면적인 보관 형식과 경직된 얼굴 표정, 소매자락의 과도한 뻗침 등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의 조성시기는 17세기 중엽 경, 늦어도 17세기후반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 사천왕상의 재질은 나무와 흙이며 후기로 갈수록 점차 목조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17세기 사천왕상 가운데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과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 높이 600cm), 1632년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632년, 373cm),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166

5년), 443cm),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1666년),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1676년, 295cm), 마곡사 소조사천왕상(1683년, 390cm),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1688년, 450cm)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18세기 초기까지 이어지는데,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1702년),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1705년),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1726년)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1726년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을 거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사천왕상은 사찰 입구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공간인 天王門(또는 天王殿)에 봉안된다. 같은 형식이 중국에서도 제작된다. 즉, 원대 1345년의 북경 거용관과 1499년에 중수된 산서성 쌍림사 천왕전과 같이 사천왕이 문이라는 성격을 띄면서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의 전각이 들어서고, 그 내부에는 대형의 사천왕상이 부조 또는 원각상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중국과는 다른 배치와 도상, 사천왕의 지물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미술로 발전되는 독창성을 보인다.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장유물 중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을 통해 조선 17세기 중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거대한 크기에 은행나무로 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대형의 목조사천왕인 점과 제작기법, 세부 장식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조형성에서 매우 뛰어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천왕상이 가지는 희귀성과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을 비롯한 조선후기 17~18세기의 사천왕상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거쳐 지정문제가 다시 논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 (보류)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전체높이 4m가 넘는 대형상으로 이 정도 크기이면 소조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조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목조이면서도 섬세함을 더하기 위해 세부 장엄은 소조로 덧붙인 기법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사천왕상은 소조의 비중이 높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차 목조의 비중이 커지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그런 목조사천왕상의 계보상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폐사지에서 옮겨오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사천왕 각각의 도상과 천왕문 내에서의 방위에 따른 배치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가장 이른 사례인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 이후의 일반적인 법식을 따르고 있다. 그와 함께 보살상의 보관과 같이 유독 높은 형태에 일반적인 사천왕 보관의 장엄인 화염보주 외에 비천, 구름, 꽃모양 등의 장엄이 붙은 보관을 착용한 것, 일관적으로 정면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같은 조선후기 사천왕상 중에서도 연대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재 17세기 사천왕상 가운데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1515년), 순천 송광사(1628년), 완주 송광사(1649년)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높이가 6m에 달하고 입상으로 조성되어 최대 규모로 생각되는 보은 범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을 비롯하여 높이 4m 내외인 김천 직지사(소조), 예천 용문사(소조), 하동 쌍계사(목조), 고흥 능가사(목조) 사천왕상과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구례 화엄사(소조), 홍천 수타사(소조), 공주 마곡사(소조), 안성 칠장사(소조) 사천왕상 등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사천왕상들의 조성연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목조와 소조와의 관계, 순수한 천왕상만의 크기와 제작기법과의 문제 등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비교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이 밟고 있는 악귀들은 일종의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 한국형 도깨비 도상의 기원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왕문에는 이러한 악귀 혹은 기타 인물상이 천왕상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바, 그중에서도 도깨비 도상들은 별도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나 아직까지 사천왕상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다른 천왕문들의 악귀들과 비교하여 불갑사 천왕문 악귀들의 도상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사천왕상 도상 및 배치는 중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범식을 이루고 있어서 조선불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천왕상들의 종합적인 비교고찰을 통해 불갑사 사천왕상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추정해보고 조선후기 사천왕 조성의 역사에서 불갑사 사천왕상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하여 그 우수한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갑사 사천왕상의 지정문제는 이러한 전체적인 조사 이후로 보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보류)

불갑사 사천왕상은 아쉽게도 제작시기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시기는 판단할 수 없으나, 큰 규모에 균형 잡힌 신체비례, 섬세하게 조각된 세부 표현 등에서 솜씨 좋은 장인의 작품임에 틀림없다. 현재 조선시대 사천왕상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 초창, 1666년과 1772년 중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응원 작),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 등 불과 3건에 불과하다. 사천왕상은 규모도 크고 갑옷이나 지물, 장엄 등 세부 표현에서 상당한 공력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늘 개방되어 있는 사천왕문에 봉안되어 비바람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후대 몇 번의 수리를 거치긴 했으나 조성 당시의 형상은 잘 유지, 보존하고 있다. 또한 사천왕상에서는 발견된 복장전적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상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편이다.

다만, 17세기와 18세기 초에 조성된 기년명 또는 무기년명 사천왕상은 보은 범

주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166년),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1666년),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1676년),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1670년),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1683년),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1702년),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1705년), 안성 칠장사 사천왕상,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 등 대략 10여점 알려져 있고,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4m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상으로 우리나라 사천왕상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검토 하기에 앞서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 마.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지정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검토 대상으로 삼은 다른 사천왕상과의 비교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높이가 459cm에 이르는 대형 상으로 조선후기 사천왕상 도상과 양식을 잘 갖추고 있고, 위엄을 갖춘 사천왕상으로서의 표현력이 우수한 편이다. 원래 이 사천왕상은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 있던 사천왕상을 연기사가 폐사됨에 따라 불갑사의 雪竇禪師(1824~1889)가 1876년에 이안된 것으로, 다른 사천왕상과 다른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이력을 간직하고 있다. 동시기 이와 유사한 불상의 이운 사례는 목포 달성사, 예산 수덕사, 남원 선원사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규모가 큰 사천왕상으로서의 유일한 사례이다.

- 불갑사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편년은 어렵지만,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천왕상 복장전적은 1441년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15세기 간본 4종, 1535년 간행된 『청문』 등 16세기 간본 15종과 함께 1607년 간행된 『묘법연화경』 등 17세기 간본 14종이 확인되었다. 복장 전적 중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은 전라도 태인 운주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1(1670년 간행)로 불갑사 사천왕상의 하한연대를 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후기 사천왕상 제작기술의 흐름상,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시점에 조성된 사천왕상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17세기 전반기는 장중한 형태미를 갖춘 소조사천왕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유행하고, 17세기 후반에는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기 지정된 17세기 전반기 사천왕상은 사찰의 연혁과 사적기를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고 난 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불교의 부흥이라는 범불교적 역사적 소명을 담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불교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양식과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을 통해 17세기 후반에 제작

된 상으로 판단되며, 승려와 지역 주민 등 일반민중의 염원을 담아 제작한 사천왕상으로서의 성격과 의미가 있다.

- 불갑사 사천왕상의 보관과 이목구비, 갑옷과 자세, 양감 등 양식에 있어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은 1539년 제작되어 1668년 明俊에 의해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중수의 범위가 개채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순천 송광사 16나한상과 사천왕상의 예를 통해 볼 때 완전히 새롭게 중창하는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을 중수한 조각승과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 간의 조각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준은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중수 이외 1676년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시왕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무렵 인근 무장 소요산 연기사 사천왕상 제작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다른 사천왕상과의 비교조사에서 정확한 제작시기를 남기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조형적인 면에서는 다른 존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17세기 후반의 양식과 우수한 조각적, 예술적 감각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자칫 연기사의 폐사와 함께 17세기 후반의 귀중한 사천왕상도 소실될 위기에 처했으나, 설두대사 노고로 원형의 손상과 변형 없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다만, 불갑사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사천왕상의 복장전적은 다수의 귀중본과 희귀본이 포함되어 일찍부터 관련 학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불갑사의 명부전, 응진전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들과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복장전적 일괄은 사천왕상의 조성과 함께 납입된 종교적, 역사적 상징물로서 사천왕상과 일괄로 보존되어야 할 유산이다. 최근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번 기회에 과거 3건의 존상에서 발견되어 일괄로 보물로 지정된 복장유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리 정리 후 각 유물이 갖는 성격과 의미에 맞게 존상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지정명칭은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으로 하되, 보물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중 사천왕상 복장전적 33종 46책 포함.

## 조사보고서



### ○ 현 상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천왕문 내부에 봉안되어있는 사천왕상은 雪竇禪師(1824~1889)가 1876년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의 폐사된 烟起寺에서 불갑사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소요산은 원래 전라도 흥덕현에 있는 산이며,<sup>88)</sup> 연기사는 흥덕현(현재의 고창군) 소요산에 있었던 절로서 烟起庵으로 불리웠으며, 烟起祖師가 창건한 절이라고 한다.<sup>89)</sup> 즉 고창 연기사는 현재의 영광군과 가까운 위치인 점에서 폐사되면서 불갑사로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의 내부에서 1453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을 비롯한 44종 51책의 경전이 발견되었다.

불갑사 사천천왕상은 450cm에 이르는 대형상으로 사천왕 자체의 크기도 326~369cm에 이른다. 재료는 은행나무이며, 대형 크기에 현재까지 잘 남아있는 지물과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점 등에서 오랫동안 조선후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언급되어 왔다. 사천왕상에서는 ‘南左天衣’와 화염문의 뒷면에 방위가 표시된 목서가 발견되어 사천왕의 존명 파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998년 태풍으로 인해 사천왕상이 파손되면서 사천왕상 일부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의 일부는 이미 도난된 상태지만 당시 발견된 전적 33건 4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적 가운데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은 사천왕상의 조성연대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 ○ 내용 및 특징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에 들어서면서 그 오른쪽에 칼을 든 상, 그 왼쪽에 비파를 든 상 그리고 반대편에 해당하는 입구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과 그 왼쪽의 보당을 든 천왕 등 모두 네 구로 구성되어 있다. 천왕들은 모두 앉은 자세에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었으며, 각각의 상징적인 지물을 들고 있다. 발 밑에는 각 두 구씩의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혹은 무릎 꿇은 자세에 천왕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데, 표정이나 자세 등은 딱딱하지만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발 밑의 악귀는 누운 자세에 나무토막 같이 경직된 형상이며, 왼발을 받친 악귀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 팔에 힘을 주어 근육이 불거진 모습에 고깔모자를 쓰고 있다.

88)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흥덕현조 산천조 逍遙山: 현의 서쪽 15리에 있으며, 산내에 水月寺가 있다고 한다.

89) “全羅北道興德(今入高敞郡)逍遙山縣西二十”(권상로, 『한국사찰전서』 下, 이화문화사, 1994).



<도1 영광 불갑사 천왕문과 사천왕상>

천왕은 모두 보살이 쓰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장식이 화려하고 관의 크기가 높아 양 측면에 늘어진 관대와 더불어 얼굴 부위가 신체에 비해 더욱 크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보관의 재료는 나무인데 이마에 닿는 부분과 보관의 전체 형상을 따로 만들어 붙인 구조에 철재를 이용하여 구름이나, 모란을 비롯한 다양한 꽃과 봉황, 태풍소를 부는 주악비천 등을 만든 다음 구멍을 뚫어 판과 고정하였다. 보관의 윗부분에는 6개의 화염문을 테두리에 꽂아 더욱 장식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U자형의 관대를 달아 고정하였다.

천왕의 얼굴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에 끝이 뾰족하고 유난히 큰 코, 콧수염과 짧은 턱수염, 옆으로 긴 입술 등에서 공통적인데 무서우면서도 위엄스런 모습이다. 이외에, 각각의 다른 얼굴 모습도 특징이다(도3). 예를 들어, 가는 눈을 위로 치켜 뜬 남방천왕의 눈이나 앞으로 튀어 나오듯이 부릅뜬 눈을 한 비파를 든 북방천왕, 서방천왕에 비해 동그란 눈에 도드라진 눈썹으로 칼을 든 동방천왕과 보당을 든 서방천왕의 표정은 해학적이면서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콧수염과 턱수염도 얼굴표정에 맞게 표현한 점도 재미있다. 눈동자는 다른 사천왕처럼 유리 등으로 마감한 눈동자 감입은 없이 묵선과 흰색만으로 표현하였으며, 머리카락인 보계는 따로 만들어 붙이고 어깨에 늘어진 보발은 흙으로 제작하였다.

몸에는 화려하면서도 둔중한 전포를 입고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갑옷을 입어 무장한 모습이다. 즉, 가슴에는 흉갑, 배에는 치마처럼 裳甲을 입었으며,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갑옷을 입은 위로 긴 천의를 어깨 뒤로 돌려 마치 광배처럼

표현하였으며, 그 위로 불꽃모양의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목에는 스카프 같은 장식을 둘렀으며, 흉갑과 배갑을 착용하고 전포의 소매부리를 둘둘 말아 배래 부위에 생긴 너풀거리는 끝단을 묶었는데, 묶은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팔뚝에는 핑갑, 양쪽 정강이에는 脛甲을 두르고 넓적다리에는 腿甲을 찻으며, 戰靴를 신었다.

갑옷의 무늬도 화려하다. 양 어깨에는 귀면 장식이 있고, 목에서부터 가슴을 가린 흉갑에는 소슬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 부분은 흙으로 만들어 붙여 더욱 정교하다. 가슴에는 폭이 넓은 띠로 두르고 다회끈으로 묶었으며, 肋甲과 이를 묶은 끈이 두 갈래로 나뉘어 밑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그리고, 머리 가운데 하나의 뿔이 달린 일각수(귀면)가 요대를 물고 있는 형상인데, 요대 역시 진흙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제의 허리띠처럼 방형 장식을 서로 연결한 구조로 만들고 그 장식 안에는 국화, 문자 등 여섯개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사천왕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목서도 발견되었는데, 천의 뒷면에서 ‘南左天衣’라는 명문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천왕에도 비슷한 글씨가 남아 있다. 즉, 본체에 따로 만들어 천의를 이어 붙이면서 방위를 표시하였으며, 당시 장인들도 이를 천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천왕은 대체로 측면으로 나누어 붙이고 여러 단면을 서로 붙인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귀 부분이나 머리 부분의 앞 뒷면, 갑옷의 사이사이에 나무나 껍쇠로 결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머리 윗 부분 역시 여러 개의 나무를 합친 흔적이 보여, 여러 판을 대어 접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계는 특이하게 작고 낮은 두 개의 뿔처럼 조각되었으며 역시 따로 만들어 꽃았다. 전체 재질은 나무지만 보발과 갑옷의 일부, 벨트 장식 등은 진흙으로 마감하여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결구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못으로 고정하였다. 즉, 소슬무늬나 머리카락, 허리띠 문양 등 정교하고 세밀함이 필요한 작업은 흙으로 빚어 표현력을 극대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체를 나무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진흙을 이용하여 섬세함을 높였으며 그 위에 채색을 하였는데, 현재의 채색은 원래의 것은 아니며 뒷면은 나무가 그대로 보여 채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외에, 부분적으로 다리 아래부분에 직사각형의 덮개(28cm×9cm)가 발견되는데 이는 복장물을 별도로 넣은 구조인 점에서 흥미롭다.

사천왕이 앉아 있는 의자는 여러 개의 나무를 잇댄 단순한 구조로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 고려되었으며, 현대에 새로 고친 흔적도 발견된다. 천왕의 발밑에 있는 악귀들 역시 접목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철못을 이용하여 결구하였다.

조각으로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조선시대의 사천왕상은, 1515년(중종 10)에 제작된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이며(도2), 천왕문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동방지국천왕과 칼을 든 남방증장천왕, 안쪽으로 보당과 탑, 비

과를 든 사천왕의 서방과 북방다문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구조와 배치법은 이후에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어 17세기 사천왕상들은 거의 모두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불갑사 사천왕상의 구조와 배치 역시 조선후기 천왕문에 서 있는 사천왕상의 가장 일반적인 배치이다. 즉, 천왕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안쪽에는 비과를 든 북방다문천왕, 다시 입구에서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그 안쪽에는 탑과 보당을 든 서방지국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조선후기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거의 이 방위와 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경우, 천왕문의 입구에서 좌우에 탑과 용, 여의주를 든 상이 배치되었고, 그 안쪽으로 비과와 칼을 든 사천왕이 있어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도2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조선, 1515년>



북방다문천왕(비과)



서방광목천왕(보당과 탑)



남방증장천왕(용과 여의주)



동방지국천왕(칼)

<도3 천왕문 입구에서 바라본 불갑사 사천왕상>

사천왕의 존명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쓰여진 묵서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628년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에서 비파를 든 사천왕의 봉함목에서 북방이라는 묵서가 발견되었으며, 직지사 사천왕상에는 북장유물에서 발견된 경전에 ‘西方天王’과 ‘北方天王’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칼을 든 천왕에서는 ‘東’이라는 묵서가 발견되었다(도4). 마곡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에서도 칼을 든 동방천왕 내부에 ‘東’이라는 묵서가 쓰여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탑이나 보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임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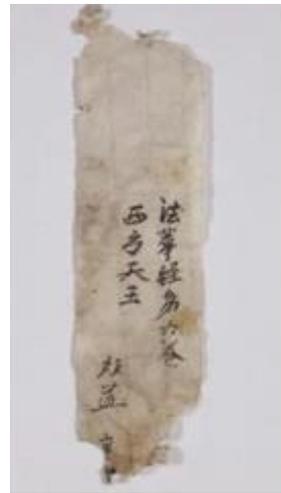
사천왕상의 이러한 구성은 중국의 원과 명, 그리고 조선전기의 사천왕상 도상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1314년에 번역된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약사칠불의괘공양법)>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東’



북방천왕



서방천왕

<도4 직지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방위 관련 기록>

###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 임영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 ○ 현 상

불갑사 천왕문에 봉안되어있는 조사대상인 사천왕상은 불갑사를 중창한 설두선사(1824~1889)가 고종 7년인 1870년에 전라북도 무장의 폐사인 연기사(烟起寺)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 높이가 450cm에 이르며, 사천왕 자체의 크기도 350cm 내외로 대형에 속한다. 사천왕 중에는 ‘南左天衣’와 화염문의 뒷면에 방위가 표시된 목서가 발견되어 사천왕의 존명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혹은 사천왕을 해체하여 옮겨오는 과정에서 부재들이 섞이지 않도록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8년 태풍으로 인해 사천왕상이 파손되면서 사천왕상 일부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도난된 상태였지만, 1453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 등 전적 44종 51책이 발견되었고 이중 33건 4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1670년 <수륙의문>이 사천왕상의 조성에 즈음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 내용 및 특징

천왕문에 봉안된 불갑사 사천왕상은 진입하면서 볼 때 오른쪽에 칼을 든 상, 그 안쪽에 비파를 든 상 그리고 반대편 바깥쪽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과 안쪽에 보당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도1]



<도1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좌로부터 북방, 동방, 남방, 서방천왕)>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사천왕 배치의 일반적인 법식이다. 사천왕은 모두 의자에 앉아 갑옷을 입었으며, 발 아래에는 두 구씩의 악귀들을 배치했는데, 오른발 밑의 악귀는 누운 자세에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는데, 엎어져 있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형상이다. 왼발 쪽 악귀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왕을 발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악귀들은 현재 일반화된 한국 도깨비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도깨비 도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생각된다.[도2]



<도2 조선시대 도깨비 도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불갑사 천왕문의 다양한 악귀들>

천왕은 모두 보살이 쓰는 보관과 유사한 형태의 높은 관을 쓰고 있는데, 관대에는 넝쿨문을 그려 넣고 그 위에 철사로 비친, 측면의 꽃장식, 원형 꽃장식, 모란, 구름, 화염보주문 등의 장엄을 부착하였다. 보관 옆에는 3가닥의 U자형의 띠가 서로 교차되며 펠럭이고 있다. 또한 보살처럼 얼굴 양쪽으로 머리카락이 귀를 타고 흘러내려 어깨 위에 몇 가닥이 드리워져 있다.

천왕의 얼굴 윤곽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이며, 짧지만 크고 뭉툭한 코, 긴 입술에 윗니 전체, 혹은 앞니를 살짝 드러낸 형태, 부리부리한 눈, 이마의 주름살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천왕들의 표정은 겁을 주는 듯하면서도 익살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몸에는 화려한 갑옷을 걸쳤으며, 그 위로 천의 자락이 바람에 펠럭이듯 위로 둥글게 치켜 올라가 있다. 그 위로는 불꽃모양의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갑옷의 양 어깨에는 귀면 장식이 있고, 목에서부터 가슴을 가린 흉갑에는 소슬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교하게 흙으로 만들어 붙였다. 요대 역시 진흙으로 제작하였는데, 여러 개의 방형판을 연결해 만든 요대를 모델로 만들었으며, 각각의 방형판에는 학, 국화, 문자 등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이 요대를 뿔이 하나 달린 귀면이 버클처럼 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방과 남방천왕은 이 귀면에 달린 고리에 동물가죽 형태의 술 장식이 달려있다.

별도의 부재로 만들어 붙인 천의의 뒷면에는 ‘南左天衣’ 등의 명문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천왕에도 비슷한 글씨가 남아 있다. 즉, 따로 만든 천의를 천왕에 이어 붙이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천왕의 복식도 ‘천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의 사천왕은 목조, 혹은 소조로 조성되었는데, 대체로 측면으로 나누어 여러 단면을 서로 이어붙인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귀 부분이나 머리 부분의 앞

뒀면, 갑옷의 사이사이로 결구한 흔적이 보인다.

사천왕이 앉아 있는 의자는 여러 개의 나무를 잇댄 단순한 구조로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 고려되었으며, 현대에 새로 고친 흔적도 발견된다. 천왕의 발 밑에 있는 악귀들 역시 접목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철못을 이용하여 결구하였다.



### ○ 조사내용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여러 편의 나무를 접목해서 조성한 목조사천왕상이며, 제작시기는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1876년 雪竇大師(1824~1889)가 전북 무장 소요산의 연기사터에서 배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불갑사로 이운해온 것으로 전한다. 사천왕상 이운과 관련하여 설두대사와 영광 고을 수령과의 얽힌 관련된 재미있는 연기설화가 전하고 있다. 이 사천왕상은 2013년 전체적인 수리와 개체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동방천왕의 다리 뒤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동 3통 850번지 화공 김영찬’이라는 기록과 서방광목천왕의 치맛자락 안쪽에도 매직으로 ‘서우’, ‘서좌’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2013년 이전에도 한 차례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전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가기반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고, 사찰도 승려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재건사업에 온 힘을 기울렸던 시기이다.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대단위 건설, 토목 공사와 불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주재료였던 나무는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17세기 전반에는 나무를 대신하여 흙으로 예배 존상을 많이 만들었고, 순천 송광사나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보은 범주사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사천왕상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7세기 후반 차츰 나무의 수급이 나아지면서 불상의 재료 역시 흙에서 나무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상황과 사천왕상 재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기년명 사천왕상으로는 1624년의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범주사 소조사천왕상과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이 등이 같은 시대적 양식과 배경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들 네 곳의 사찰은 벽암 각성이 중창한 사찰로 그의 문도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사천왕상을 만들었거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원래 봉안된 사찰은 변산반도에 자리 잡은 소요산 연기사이다. 17세기

후반 전라도 일원에서 활약한 조각승 중 크게 두각을 나타낸 조각승은 색난, 금문, 마일, 단응 정도가 눈에 띈다. 이들 조각승 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단응 작품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단응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단응의 작품이 세장한 장신형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얼굴묘사에서 차이가 있다.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북)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동)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서)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남)

<도1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수리 전 증장천왕



수리 전 광목천왕



수리 전 지국천왕



수리 전 다문천왕

<도2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수리전>

불갑사 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의 주된 소재가 흙이 것에 반해, 여러 조각의 나무를 결구해서 만든 사천왕상이다. 정확한 조성연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나무의 소재가 등장하는 것이 17세기 중엽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천왕상도 17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상으로 판단된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대웅전 쪽에서 바라봐서 왼쪽 상단에 비파를 든 사천왕을, 아래쪽에 보검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었고, 오른쪽 상단에 당탑을 든 사천왕을, 아래쪽에 용과 여의주를 쥔 사천왕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 후기 통상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른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파를 든 사천왕상의 안쪽 하단부에는 ‘北方’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고, 보검을 든 천왕의 치마 뒷면에는 ‘東方’이라는 방위명이 적혀있다.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이나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75년)의 사천왕상, 마곡사 석가모니괘불도(1687년)의 사천왕상, 천은사 아미타회상도(1776년) 사천왕상 등 작품에 방위명이 남아 있는 여러 사례에서 모두 비파를 든 사천왕상은 북방다문천, 보검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보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천왕상은 머리에는 꽃과 화염, 봉황, 비천 등으로 장엄된 관을 쓰고 있다. 보관의 입면은 조선 후기 보살상이 쓰는 보관과 마찬가지로 꽃잎형으로 설계되었고, 두 장의 꽃잎 관을 앞뒤에서 붙여 원통형 보관을 만들었다. 보관의 좌우에는 S자로 나누기는 이중의 관대가 부착되었다.

넓직한 방형의 얼굴에는 눈은 크게 떠 부라렸고 코는 큼직한 주먹코이다. 북방과 서방은 입을 벌려 심상찮은 미소를 표현하였고, 동방과 남방은 입을 양다물어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사천왕은 평상복 위에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상반신은 甲身, 어깨위의 怪獸面, 어깨와 팔을 보호하는 被縛, 팔꿈치 아래를 보호하는 臂甲을 찼고, 하반신은 허리 이하 대퇴부를 보호하기 위한 甲裙과 그 밑으로 앞부분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鵠尾를 착용하였다. 손에는 각 천왕을 상징하는 지물을 들고 있으며, 머리 뒤에는 화염광배가 표현되었다. 특히 남방천왕과 서방천왕의 허리에는 귀면의 코에 건 獸皮形 장식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수피형 장식은 불화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북방천왕의 비파와 함께 원대 티베트 불교미술과 관련된 도상으로 이해된다.

각각의 사천왕상은 2구의 악귀를 동반하고 있다. 악귀 중 한 구는 의좌세로 앉은 사천왕상을 왼쪽 발을 받쳐 든 모습이고, 다른 한 구는 드러누운 채 사천왕상의 오른 발에 밟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도3 동방천왕의 악귀>



<도4 남방천왕의 악귀>

17세기 후반의 뛰어난 수작임이 분명하나, 아쉬운 것은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현재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복장유물은 대체로 15세기에서 17세기 중엽 경에 간행된 불서들이며 이후의 시기의 것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천왕상의 제작과 더불어 납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천왕상의 하한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 간기가 있는 전적 중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것은 1441년 전라 고산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이며, 가장 연대가 내려가는 것은 1670년 전라 태인 운주사간 『묘법연화경』 권1과 『수륙의문』이므로, 16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사천왕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양식적으로도 17세기 전반기의 중량감 있는 볼륨감에 당당한 체격을 갖춘 사천왕에 비해 몸집이 정제되어 균형 잡힌 장신형으로 조형감각이 변모된 점과 좁고 높은 화형 보관을 쓰고 있는 점은 17세기 후반기 조각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3.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洪川 壽陀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4.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1998.9.5. 지정)
- 명 칭 :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洪川 壽陀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수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2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76년(숙종 2)
- 제작자 : 여담(汝湛) 등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수타사가 위치한 홍천 공작산은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貞熹王后(1418~1483)의 태를 물은 곳으로 실제 수타사에는 월인석보를 소장하고 있어 왕실과 관련된 능묘사찰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천왕을 봉안한 전각인 봉황문은 1674년에 조성되었으며 1676년에는 사천왕상이 조성되었음이 1688년에 쓴 <수타사사적>을 통해 확인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300cm 규모로 17세기에 제작된 다른 사천왕상에 비해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역동성과 정교한 기술을 보인다. 재료는 흙과 나무를 이용한 소조상이며, 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부위에 따라 사용하고 특히, 강원도 지역의 특성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더한다.

사천왕의 형상은 앉은 자세에 두 구의 생령좌를 밟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따랐지만 구성과 배치는 이례적이다. 즉, 봉황문의 향우측에는 검을 든 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상, 그리고 반대편으로 비파를 든 천왕, 망구스와 당을 쥔 천왕상을 배치하였다. 이는 동-남-서-북의 순서로 일반적인 사천왕상(북-동-남-서)과는 다른 배치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사천왕의 방위와 지물은 같지만 위치만 다른 것으로 차별화된 배치 형식은 능가사 사천왕상에도 남아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강원도에서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으로 봉황문과 사천왕상의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정교성, 풍부하고 섬세한 표정, 보당과 허리에 망구스를 잡고 있는 서방천왕의 지물 등이 특징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화엄사 계통의 도상을 따르고 있으나, 정교함의 측면, 다양한 장엄적 요소의 적극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존 가장 화려한 사천왕상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수타사사적기』를 통해 1676년(숙종 2)에 승려 여담(汝湛)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작품성으로 보아 여담은 매우 뛰어난 조각승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활약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사적기에 의해 1676년이라는 제작연도를 알게 되어 기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문은 천왕문이라는 명칭 대신 봉황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서향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문의 실제 좌향과 무관하게 남향한 천왕문을 염두에 두고 사천왕을 봉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수타사는 서향한 것에 맞춰 사천왕의 배치를 조정한 특수한 예에 속한다. 고흥 능가사의 경우도 북향한 천왕문의 방위에 맞춰 천왕상의 배치를 조정했지만, 동방과 서방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점은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에 반해 수타사는 서향을 염두에 두고 천왕상의 위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린 것에 해당하며, 논리적으로 부합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수타사 천왕상들은 조선후기 사천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엄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사용되어 매우 화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갑옷 문양이나 갑옷에 걸친 수식의 세부 묘사가 매우 입체감 있고 정교해서 실제로 끈을 묶고 천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북방다문천왕의 경우는 수염을 얇은 부조로 표현하거나 채색으로만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염을 실제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서수(瑞獸)도 사자를 표현한 듯 풍성한 갈기가 얼굴 주변에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사찰 천왕문에서 확인되는 서수 표현에 비해 입체적이고 풍만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차별화되는 수타사 사천왕의 특징들이다.

사천왕 아래의 악귀들도 매우 섬세한 기법으로 조성되었는데, 북방다문천왕처럼 수염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신체가 드러난 경우에는 근육과 골격의 표현을 어느 정도 해부학적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표현했다. 또한 귀 뒤에 뿔처럼 솟은 머리칼의 모습은 고려~조선시대 시왕도의 지옥형벌장면에 등장하는 옥졸들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인데, 사천왕 악귀 도상이 이러한 옥졸과 연관이 있으며, 점차 도깨비 도상의 근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밖에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악귀는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도상에서 기원한 것이고,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의 도상으로도 쓰였으며, 불교문화권에서는 금강역사를 표현하는데 쓰였다. 한국에서는 특히 헤라클레스의 도상이 점차 도깨비 도상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도상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정형성을 지니면서도 정교함에 있어서는 정형성을 뛰어넘은 수타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의 좌향에 따라 네 천왕의 위치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등 중요한 공간개념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더 깊이 연구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수타사 사천왕상은 사적기를 통해 167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며, 조각승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여담이라는 제작주체를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조각사적 의미가 있다.

4구 모두 흙으로 빚어 만든 塑造像답게 생동감 있는 얼굴 묘사와 자연스러운 동작, 그리고 갑옷에 표현된 문양과 여러 모티프들이 빈틈없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17세기 후반 사천왕 중 단연 돋보이는 의장성을 보인다. 특히 사천왕과 함께 조성된 생령인 야차 8구가 온전히 전하고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인 獅子形 瑞獸는 17세기 전반기 몽구스에서 변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몽구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소멸해 가는 도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조선 후기 일반적인 사찰의 사천왕상 배치법과 달리 사찰입구에서부터 우측에 남방·동방, 좌측 서방·북방의 사천왕상을 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이전에 등장하는 古式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포하며, 강원 지역에 조성된 사천왕상으로는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이 유일하여 희소성이 있다.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문헌자료를 통해 제작연대가 1676년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상이기에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형식과 양식 변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더불어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상의 규모는 작지만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준다. 특히 얼굴은 가소성이 뛰어난 흙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잘 살린 모델링이 일품으로 천왕의 생생한 표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은 조각적으로 매우 우수한 작품이며, 조선후기 사천왕상 중에 잘 보이지 않는 형식적, 도상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내 력

홍천 수타사(壽陔寺)는 9세기를 전후하여 창건된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의 사찰명은 일월사였으며, 선조 연간(1567~1572)이나 혹은 1530년 이전에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수타사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수타사가 위치한 홍천 공작산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많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황비 이씨(貞熹王后 李氏, 1418~1483) 즉 정희왕후의 태를 공작산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실제 수타사에는 월인석보를 소장하고 있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도1).



<도1 월인석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조선전기 세조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편하여 1459년(세조 5)에 간행한 불교 대장경이다. 수타사 소장의 『월인석보』 권 17·18은 1950년대 수타사 동방지 국천왕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신문 기사에서 밝힌 적도 있다(1957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수타사 소장의 1688년(숙종 14) 승려 정원(淨源)이 편찬한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이하 『수타사 사적』)에는(도2) 수타사의 창건과 중수 및 중건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사찰의 주요 전각들을 비롯하여 범종 및 소조사천왕상 등을 조성한 사람이나 조성시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다. 즉, 1674년(효종 15) 법륜(法倫) 사문이 봉황문(鳳凰門)을 새로 조영하고

(‘次召法論沙門新建鳳凰門康熙十三年甲寅也’), 2년 뒤인 1676년(숙종 2) 여담(汝澁) 사문이 주도하여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였다(‘有沙門汝澁 塑成四天王康熙十五年丙辰也’). 따라서 1688년의 『수타사 사적』을 통해 천왕문인 봉황문과 소조사천왕상이 각각 1674년과 1676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수타사 입구에는 봉황문이라는 명칭의 전각이 자리하고 내부에 소조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도3).



수타사 사적 표지



수타사 사적의 천왕문 관련 기록

<도2 수타사 사적>



<도3 수타사 봉황문>

### ○ 내용 및 특징

수타사 사천왕상은 높이 356~380cm로 조선후기 사천왕상 가운데는 작은 편이지만 강원도 지역의 유일한 소조사천왕상이다(도4, 도5). 크기는 작지만 안정감 있는 비례와 역동적인 자세를 갖추었다. 이들 사천왕상은 의자좌에 앉아있고, 발 아래로 악귀형 권속이 천왕상의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하고 있다.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보관과 양 측면으로 관대를 늘어뜨렸으며, 보관의 표면에는 용, 봉황, 구름, 꽃, 화염문 등을 별도로 만들어 꽃아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방형의 큰 얼굴은 유난히 크게 부릅뜬 눈, 벌렁거리는 주먹코, 얇은 입 등으로 무서운 인상이다. 그러나, 사천왕상 마다 벌리거나 짝 다문 앞, 눈이나 수염 등을 달리 조각

하여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칼이나 비파를 든 천왕상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덩수룩한 수염 표현은 매우 독특하다. 착의법은 갑옷 위에 천의를 둘렀으며 목에는 스카프를 매고 하반신에는 군의를 입었다. 천의는 머리 뒤에서 둥글게 말아 마치 광배와 같은 효과를 주었으며 바닥에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갑옷은 가슴, 어깨, 팔뚝, 허벅지, 정강이에 착용하였고, 짐승얼굴이 허리띠를 물고 있으며 비파를 든 천왕상은 허리띠 아래로 수피장식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졌다.



<도4 수타사 봉황문 소조사천왕상>



비파



당과 망구스



용과 여의주



갈

<도5 수타사 소조사천왕상과 지물>

사천왕의 구성은 봉황문의 향우측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상, 검을 든 천왕상, 그리고 향좌측에는 보당과 망구스를 쥔 천왕상, 비파를 든 천왕상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사천왕상 배치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수타사 사천왕만이 아니라 능가사 사천왕에도 보이는 특징이다. 즉, 각 사천왕의 위치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사천왕과 같이 검을 든 동방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보당과 망구스(또는 보탑)를 쥔 서방천왕 그리고 비파를 치고 있는 북방천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지물은 서방천왕이 왼손에 보당을 잡고 오른손은 허리에서 망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점이다(도6). 망구스가 있는 사례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632년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망구스는 인도의 북방천인 쿠베라의 지물로 등장하며 원대의 경우 다문천왕이 망구스를 들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재신(財神)의 의미를 가진다.



보당(산개)



망구스

<도6 보당과 망구스>

제작기법은 목심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그 위로 새끼줄을 두른 후 흙을 붙여 성형하였다. 천왕상이 앉아있는 의자부터 튼튼하게 구조를 짠 후 그 위로 접목식 목심으로 골격을 세웠다. 사천왕을 받치는 의자는 4개의 기둥을 세워 의자처럼 구성하고 마룻바닥을 통과하여 지면과 닿아있고, 사천왕의 목심 형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두 다리 사이로 드리운 균의자락은 외가지를 우물 정자 형태로 엮은 골격을 사용하였다. 박락된 흙덩이나 등판에 드러난 소조층을 볼 때 소조층 두께가 매우 두꺼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방천왕상의 의자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1675년 전후로 시기가 밝혀졌으며 이는 사적기에 기록된 1676년 제작설과 일치한다. 또한, 천왕상 목심 수종은 주로 소나무이고, 의자 상판의 가로대는 상수리나무, 다리 사이 늘어지는 옷자락은 졸참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머리 뒤에 솟구치듯 올라온 천의의 가장자리 화염장식은 피나무를 사용하였는데 피나무는 강원도지역에서 주로 자라나는 나무로 주목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변화와 생동감 있는 얼굴 표정, 수염 표현, 한 손에는 보당과 다른 손에는 망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서방천왕의 지물, 매 단 입체적인 수피와 요의의 다양성, 은 낮고 앞면에 초문과 조각된 신발(혜)의 형태 등으로 특징을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갑옷의 표현이나 생령좌의 악귀 표현 등에서 세부적인 정교성을 보인다. 사천왕의 배치에 있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방식과 다르며, 다른 사천왕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발 형태와 지물로 잡고 있는 망구스 등 도상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

### ○ 현 상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천왕문은 특이하게 봉황문이라 불리고 있다. 『수타사사적기』에 의하면 이 문은 1674년(강희 13)에 승려 법륜(法倫)이 세웠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축이며, 수타사의 가람의 좌향과 같은 서향으로 세워졌다.[도1] 이어 사천왕상은 1676년(강희 15)에 승려 여담(汝湛)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찰들과 달리 사천왕의 배치가 진입하는 위치에서 보면 우측 안쪽부터 동방지국천과 남방증장천, 좌측 안쪽부터 북방다문천과 서방광목천이 자리잡고 있다.[도2] 이는 일반적인 조선후기 천왕문에서는 우측에 북방·동방천왕, 좌측에 서방·남방천왕이 배치되는 것에 비해 반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치의 특이점에 대해 수타사가 서향의 좌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향한 가람배치에서의 사천왕 배치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하동 쌍계사의 경우도 서향에 가깝지만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배치는 수타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1 홍천 수타사 봉황문>



<도2 차별화된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배치>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좌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3]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 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보주가 완전히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치 연화화생하는 것처럼 보주를 받치고 있는 잎사귀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절반만 드러나 있는 점이 특징이다.[도4] 정중앙 정상부에는 봉황이 정면향으로 날개와 꼬리를 위로 추켜올린 상태로 올라가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황룡(黃龍)이 S자형으로 구불거리며 우측으로 날아가듯이 표현되었다. 보관 우측에는 또 하나의 흰 봉황이 측면으로 표현되었는데, 아마 좌측에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 주변으로는 다채로운 채색의 구름과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쳐지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보관 아래로는 발제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촘촘히 표현되어 있고,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매듭지어진 후 펼쳐지는 모습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양쪽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고, 미간은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V자형 주름이 생기며 도드라져 있다. 또한 미간 아래 콧날이 시작되는 부분에도 1단의 주름이 있다. 이런 미간 표현은 수타사의 다른 천왕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코는 매우 뭉툭하고 크며, 콧구멍이 강조되었다.

북방천왕의 얼굴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인상이며, 입술은 약간 벌려 이제 막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이 보인다. 특히 수염이 강조되어 있는데, 턱 주변으로 마치 해바라기처럼 넓고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수염은 주로 용왕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



<도3 북방다문천왕>



<도4 북방다문천 두부와 상체 세부>



<도5 북방다문천 허리장식>

목둘레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의 흉갑은 거의 전면이 입체적인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흉갑을 감싸고 있는 붉은색에 푸른 테두리를 지닌 긴 천은 끈으로 묶었는데, 끈의 꼬임까지도 정교하게 새겼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도 입체적인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었고, 상단 어깨쪽에는 사자가 갑옷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도6 북방다문천 요대 장식>

허리에는 붉은색에 금색 수가 놓인 넓은 천을 두르고 그 위에 정식으로 요대를 두르고 있는데 요대의 마디마다 용, 사자 등의 문양이 입체적으로 새겨졌고 금색의 채색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도5] 장식 부분은 마디별로 따로 만들어 붙인 듯 네 귀퉁이에 못을 박은 듯이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 가장 끝단의 이 장식이 떨어져나간 부분을 보면 실제로 못 자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보여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장식을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았음을 알 수 있다.[도6] 요대 중앙의 버클(帶鉤)은 용의 얼굴모양을 하고 있으며, 입으로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버클 아래로 국화문의 원반 장식이 달려 있는데, 그 중앙에 사슬처럼 고리가 달려있고, 그 끝에 마치 용의 가죽처럼 보이는 동물가죽이 술 장식처럼 매달려 있는데 크기가 매우 커서 바닥에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천왕의 발이 위치한 앞쪽까지 나와 있다.[도7]

지물로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은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 비파의 현을 튕기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비파가 오른손에서 벗어나 양 무릎 사이에 걸쳐 있다.[도8] 현재는 비파가 아래로 매우 처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른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 이탈된 것이거나 혹은 이 비파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 올려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왼손의 중지와 검지만 굽어진 모습도 지관에서 현을 누를 때의 모습처럼 보인다. 손가락 끝부분은 손톱과 단차를 두어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비파에는 중간에 흰 칠이 된 부분에 코끼리 눈처럼 생긴 울림

구멍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인데, 줄 감는 부분 등은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도7 북방다문천 하체 세부>



<도8 북방다문천 지물(비파)>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도 흉갑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며[도9],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膝甲)을 착용하였는데, 안에 착용한 바지로 슬갑의 상단을 덮고 끈으로 묶은 것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도10] 신발은 연주문으로 둘러싸인 원형장식이 촘촘히 그려져 있으며, 신발의 코끝은 여의두문으로 장식되었다.



<도9 북방다문천 허벅지 안쪽 갑상>



<도10 북방다문천의 슬갑과 신발>



<도11 북방다문천 악귀(원발)>

천왕의 발 아래에는 악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악귀를 밟고 있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그중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두건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비니 모자를 쓴 것처럼 표현되었다.[도11] 양쪽 귀 위로 머리카락이 뿔처럼 솟아있는 형식이며 미간에 V자형의 굵은 주름이 있는 것은 북방천왕의 얼굴 표현과 같다. 눈은 크고 둥글게 돌출되었으며, 입술은 양끝이 아래로 처진 호를 이루고 주변에 주름진 모습을 보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상체는 벗은 상태여서 노출되었는데 가슴 근육 등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팔뚝과 목의 힘줄, 젖꼭지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바지의 상단이 접힌 것이거나 혹은 넓은 천으로 묶은 옷자락이 반전되며 허벅지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오른발 아래 밟힌 악귀는 귀 위로 솟구친 머리카락이 없는 대신 정수리에 상투를 족두리를 얹은 모습이다.[도12] 왼발쪽의 악귀와 달리 소매가 긴 옷을 왼쪽이 위로 가게 여며 입고 있다. 얼굴의 표현은 비슷하지만 목 부위의 근육이 없고 얼굴이 더 가름하며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악귀는 여성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깨에는 긴 피건(被巾)을 걸치고 있는데 등 뒤에서는 바람에 나부끼듯이 위로 솟구쳐 있고 여기에 화염문이 붙으면서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13] 아래로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둥근 호를 그리며 발 밑으로 흘러나와 악귀들의 아래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방천왕은 현재 왼쪽 아래로 늘어진 피건 자락만 남아있다. 서방·남방의 천왕들은 좌우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북방·동방도 원래는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14]



<도12 북방다문천의 악귀(오른발)>

<도13 북방다문천 우측면>

<도14 서방광목천>

서방광목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북방다문천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다문천의 우측에 앉아

있는 서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꽃모양 장식의 수가 더 많이 남아있고, 봉황은 황색이며, 보관 중앙에 황룡이 있는 것은 북방천왕과 같다.[도15] 그러나 고개가 정면향이 아니라 목을 비틀어 뒤를 바라보고 있는 점이 다르고, 봉황도 용이 바라보는 쪽에 위치하여 북방천왕과 반대방향에 달려있다. 이목구비의 표현도 북방다문천과 유사하지만 입을 더 크게 벌려 고향을 치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네 천왕 중에서 유일하게 수염이 강조되지 않은 것도 서방천왕의 특징이다.

흉갑의 문양도 북방천왕과 동일한 소슬금문이고, 금색으로 채색이 되었던 흔적이 보인다. 그밖의 갑옷의 다른 부분도 북방천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옥대를 물고 있는 귀면의 표현은 북방다문천이 얼굴표현에만 집중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얼굴 주변의 갈기, 뿔 등을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도16] 아마도 네 천왕 중에서 가장 섬세한 귀면대구가 서방천왕의 대구일 것이다. 특히 서방천왕의 도상은 원래는 북방천왕의 도상에 기초한 것인데, 북방천왕의 도상 중에서 탑과 당을 든 도상 외에 몽구스와 당을 든 티베트 불교도상 계열이 있으며, 수타사 서방천왕은 이러한 티베트식 도상 계열에 따라 탑 대신 몽구스의 변형으로 보이는 사자처럼 보이는 동물을 오른손으로 잡아 허리에 품고 있는데, 이 동물의 얼굴과 대구의 귀면 얼굴이 유사하여 의도적으로 어미와 새끼처럼 보이게끔 짝을 맞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도17] 또한 이렇게 탑 대신 동물을 잡고 있는 경우, 화엄사 서방광목천처럼 동물을 왼손에 품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서방천왕이 봉안되는 위치에 따라 지물을 든 손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물의 표현을 보면 갈기가 풍성하고 입체감이 있으며, 사자의 얼굴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이러한 도상의 사천왕 중에서 아마 가장 정교한 서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15 서방광목천 상체>

<도16 서방광목천 하체>

<도17 서방광목천 서수 세부>

옥대의 귀면대구 아래턱에는 매듭고리가 걸려있고, 이 고리에는 동물의 가죽 같은 것의 코에 꿰어 있는데, 그 위에 옷자락이 흘러내리면서 얼굴 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코 외에는 다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도16]

한편 악귀의 모습도 북방천왕과 유사하여 왼발은 남성형 악귀가 받치고 있고, 오른발 아래에는 여성형 악귀가 밟혀있는 형식이다. 왼발쪽의 악귀는 상체가 완전히 나신이 아니라 가슴을 가로지르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다르다.[도17] 또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며, 턱에는 수염이 마치 작은 돌기처럼 솟아나 있다. 악귀의 수염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것을 통해 수타사 사천왕이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두 눈 사이의 미간에는 양감 있게 주름이 져있는데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마치 또 하나의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서방천왕의 양쪽에서 흘러내린 피건 자락은 마치 이들 악귀들을 휘어감듯이 바닥을 감싸고 있다. 악귀들이 이 피건 자락에 휘감겨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도18]

다음으로 북방천왕 맞은편의 동방지국천왕을 살펴보면, 보관은 서방천왕과 유사하나 봉황은 청색이고 하단의 봉황이 중앙의 용에 밀착되도록 근접해 있는 것이 다르다.[도20] 흉갑을 감싼 띠를 묶은 끈은 다른 방위의 천왕의 경우 매듭이 보이지 않는데 동방천왕만 앞에서 매듭을 지은 것이 표현되었다. 다른 천왕들은 이 매듭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떨어져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아서 동방천왕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도18 서방광목천 좌측면> <도19 서방광목천 악귀(왼발)> <도20 서방광목천 악귀(오른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점검하듯이 날 끝에 들고 있다. 칼은 손잡이와 날은 단순한 형태이고 코등이도 테두리에 돌레가 있는 둥글고 단순한 형식이다. 왼손과 칼날은 현재 철사 같은 것으로 이어져 있는데, 손가락에 박혀 있는 못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철사와 칼날에 박힌 나사는 최근 것이어서 원래부터 이러한 고정장치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이 철사 부분이 느슨하게 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힘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대를 물고 있는 귀면대구는 귀가 유난히 축 쳐진 것이 눈에 띄며, 아래턱이 옥대 아래를 물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도23] 그 아래로는 허리를 감싼 천에서 나온 띠가 흘러내리다가 누운 8자매듭을 한번 지은 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도21 동방지국천왕>

<도22 동방지국천 상체>

<도23 동방지국천 하체>

동방천왕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다른 천왕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밟혀있고, 왼쪽은 천왕의 발을 받들고 있는데, 그 형태는 맞은편의 천왕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왼쪽은 머리에 동물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고, 가죽의 앞발이 양쪽 어깨로 늘어져 있다.[도24] 이러한 형태는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도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사자의 갈기 등은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뒤쪽에서 보면 양쪽 귀만 표현된 간단한 형태이다.[도25] 이 악귀의 자세, 착의 등은 다른 천왕의 왼발을 받친 악귀들과 대동소이하다. 오른발 아래의 악귀도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배를 바닥에 붙이고 누워있는 자세 등이 다른 천왕의 악귀와 유사하다. 다만 머리 위에 족두리 같은 것이 없이 단순히 두건을 쓴 것 같은 모습이며, 얼굴도 더 투박한 모습에서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

그 옆의 남방증장천왕도 다른 천왕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정면의 황룡이 정면향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다만 용은 정면을 응시한다기 보다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도26] 또한 연꽃과 그 안의 자방을 표현한 듯한 장식문양이 좌우에 보이는데, 이런 점도 남방천왕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얼굴 표정은 입술의 양끝이 아래로 쳐진 호형을 이루며 꼭 다물고 있으며, 입술 주변에는 수염을 묘사한 듯 돌출새김이 보인다.



<도24 동방지국천 약귀(왼발)>

<도25 도24의 측면 세부>

<도26 남방증장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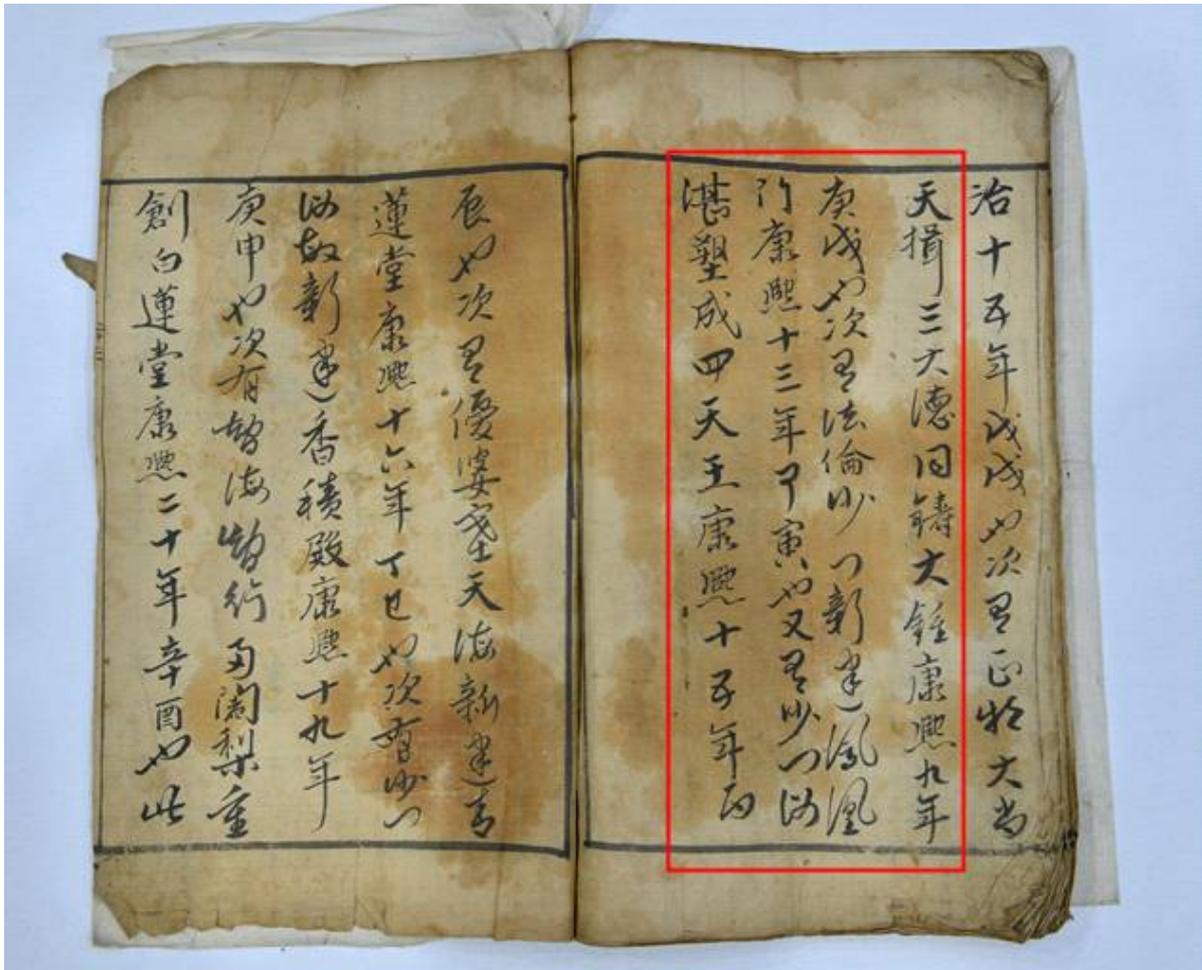
흉갑을 감싼 푸른색의 띠를 묶은 끈은 꼬임이 유독 정교하게 잘 남아있으며, 요대를 물고 있는 귀면대구의 아래턱에는 고리가 매달려 있고 이 고리에도 동물가죽이 매달려 있는데, 요대 아래서 흘러내린 매듭자락에 의해 다른 부분은 덮여있어 동물의 코와 코에 꿰인 고리만 보인다.

지물로는 왼손에 용을 들고 오른손에는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잡고 있다. 용은 팔뚝을 휘감으며 길게 어깨까지 이어져 있으며, 약이 바짝 오른 듯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이다. 발 아래의 약귀는 그 형식이나 자세 등이 다른 천왕들의 조합과 대동소이하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사진을 보면 수년전까지만 해도 현대적인 안료로 채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는 거의 벗겨진 상태이다. 아마도 개금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안료를 거둬 내고 고증을 위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 ○ 문헌자료

『수타사사적기』에는 법륜 스님이 강희 13년(1674)에 봉황문을 세우고, 강희 15년(1676년)에 여담(汝湛) 스님이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어 사천왕상의 조성연대와 조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

○ 조사내용

홍천 수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말사이다. 708년(성덕왕 7)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원래 일월사였다가 16세기대 사찰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수타사로 불렸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6년 그씨가 중건하고, 이어서 學俊, 戒哲, 道侗, 僧伽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강원도의 명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鳳凰門에 봉안되어 있으며 1676년 汝湛 등이 조성하였고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57년 사찰 측에서 실시한 해체수리 때 복장에서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17·18이 발견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사천왕상은 봉황문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보존처리 공사 중에 있다. 최근에 칠해진 표면층의 채색이 제거된 상태이다. 표면에는 과거의 채색층 일부가 확인된다.

사천왕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상이다. 사적기에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즉 “鳳凰門康熙十三年甲寅(1674)也又召沙門汝湛塑成四天王康熙十五年丙辰(1676)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674년 봉황문이 건립되고, 2년 뒤에 이곳에 봉안될 사천왕상을 여담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담이 조각승인지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 사적기의 서술체계상 일을 주관했거나 재원을 마련한 화주승일 가능성이 크다. 수타사 사천왕상 외 여담이 조성한 불상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보당을 들고 있는 사천왕상 내부 기둥에서 ‘西方’이라는 목서명이 확인되므로, 조선후기 등장하는 통상의 사천왕상 도상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입구에서 우측에 동-남, 좌측 서-북으로 배치하여 고려시대 이전의 고식의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표1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 배치도>

4구 모두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분노형으로 묘사되었으며, 불신에는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하지만 머리는 멋스럽게 틀어 올려 상투를 만들고 보살형의 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 아래로 보발이 노출되어 있으며 귀밑으로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관형태는 前高後低의 꽃잎형으로, 보관의 바탕에는 용봉문, 연화문, 모란문, 구름문, 화염문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표면을 장엄하였다. 천의는 머리 뒤를 둥글게 돌며 화염 광배를 이루었고, 양어깨를 걸쳐 속도감 있게 바닥까지 흘러내려 무대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 얼굴(서)>

<동물형 지물(서)>

<세부표현>

몸에는 부위마다 그에 걸맞은 갑옷을 착용하였다. 어깨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는 견갑을 착용하고, 목에는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멧을 부렸다. 팔뚝에는 臂甲을 착용하였고, 가슴에는 胸甲을 착용하였다. 흉갑은 소슬금문을 넣어 산문갑을 형상화했고, 흉갑 위에는 요의 두르고 밧줄로 묶었다. 요의의 위아래 단을 과도치듯 주름 잡아 멧을 내었다. 팔꿈치 부근에는 토끼 귀 모양으로 솟구쳐 펄럭이는 전포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복부에는 鬼面으로 표현되어 있다. 동방천왕은 귀면이 腰帶와 긴 끈으로 표현된 綬環을 물고 있고, 나머지 천왕은 콧구멍에 고리를 끼운 獸皮를 물고 있다. 裳甲 위에는 요대를 두르고 긴 끈으로 묶어 늘어뜨렸다. 裳甲은 흉갑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새겨 넣었다. 종아리에는 脛甲을 착용하였고, 발에는 밑창이 낮고 구름 문양이 새겨진 목이 없는 신(鞋)을 신었다. 바지는 박고 형으로 정강이 부근에서 풍성히 흘러내린 바지 단을 끈으로 동여맸다. 각 사천왕은 2구의 야차를 생령좌로 삼고 있다. 1구는 왼쪽 다리 밑에서 사천왕상을 다리를 받쳐 들었고, 다른 1구는 발에 밟혀 버둥대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야차는 모두 악귀형으로 표현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의 왼발을 받쳐 든 야차는 동물의 탈을 쓴 형상이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야차의 모습은 눈이 빨갛고 피는 검으며, 사자·용·당나귀 머리 등 온갖 동물의 머리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도상으로 잘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방다문천의 눈은 인간적으로 표현되었고, 다른 3구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부라리고 있다. 광대뼈는 도드라져 인간적이며, 이마와 미간에는 등에는 분노의 주름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코는 뭉툭하게 처리하였으며, 코와 턱에는 수염을 호방하게 표현하였다. 손은 손바닥은 두툼하지만 손가락은 이 시기 다른 사천왕상에 비해 긴 편이다. 사천왕상의 손가락이 짧고 굵게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힘

세고 거친 사천왕상의 모습에는 적합했을 것이다.

북방은 비파, 동방은 보검, 남방은 용과 여의주, 서방광목천왕은 왼손으로 삼지창이 달려 있는 당을 움켜잡았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곱슬머리를 한 사자형 동물을 움켜쥐었다. 서방광목천왕의 동물형 지물은 일반적으로 몽구스(또는 寶鼠)로 알려져 있는데,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의 몽구스가 시기가 지나면서 변모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방지국천왕은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집게모양으로 벌려 칼끝을 누르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왼손으로 용을 움켜잡았고 오른손으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오른발로 악귀의 등을 밟았고 다른 악귀는 무릎을 꿇고 사천왕의 왼쪽 다리를 받쳐 들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몽구스(여기서는 사자로 보임)를 움켜쥐었고, 왼손으로는 당을 잡았다. 당의 정상부에는 2지창으로 마무리 하였다.

□

## ○ 내 력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에는 봉황문(鳳凰門) 안에는 1998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천왕상 4구가 봉안되어 있다(도1, 2). 봉황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향좌측에는 왼손에 보당을 들고 오른손에 망구스를 든 서방광목천왕과 양손으로 비파를 받쳐 든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되어 있다(도3). 향우측에는 오른손에 칼을 쥐고 동방지국천왕과 오른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왼손으로는 용을 쥐고 남방증장천왕이 모셔져 있다(도4). 지물(持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조선시대 후기에 세워진 천왕문의 경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향우측 안쪽부터 비파(북방), 검(동방), 용과 여의주(남방), 당과 탐(서방)을 든 천왕이 시계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수타사의 경우 검, 용과 보주, 당과 망구스, 비파를 든 천왕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배치에서 천왕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 배치여서 특이하다.

봉황문 및 사천왕상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현재 수타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관리 중인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이하 『수타사사적』)에 실려 있다. 이 책은 1688년 승려 정원(淨源)이 지은 것으로, 1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여기에는 사찰의 주요 전각, 범종, 사천왕상 등에 조성자와 조성 시기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타사사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타사는 우적산(牛跡山) 자락에 있던 일월사(日月寺)를 계승한 사찰이다.<sup>90)</sup> 1567년 경 현

90) 수타사의 창건 시기와 연혁에 관해서는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2021), pp.171~178 참조.

재의 위치로 이겼다고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임진왜란 이후 1630년대부터 168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재건된 것으로 보인다. 약 50여 년 간 10여 동의 전각이 재건되었는데, 여기에는 봉황문(鳳凰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1674년(康熙 13년, 효종 15) 승려 법륜(法倫)이 봉황문을 새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사천왕상은 봉황문이 건립되고 2년 후인 1676년(康熙 15년 丙辰, 숙종 2) 승려 여담(汝湛)이 흙으로 빚어 조성하였다고 전한다(도5).<sup>91)</sup>



<도1 수타사 봉황문 전면>



<도2 수타사 봉황문 배면>



<도3 수타사 봉황문 내 향좌측 천왕상>



<도4 수타사 봉황문 내 향우측 천왕상>

91) 『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제23면, “…次召法論沙門新建鳳凰門, 康熙十三年, 子寅也. 又召沙門汝湛塑成四天王, 康熙十五年, 丙辰也…”



<도5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제23면>

### ○ 내용 및 특징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약 3미터에 달하는 크기로, 조선후기인 17~18세기에 조성된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규모가 작은 편이다.<sup>92)</sup> 사천왕상의 크기는 상이 봉안되는 전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타사는 주불전인 대적광적 외에 부수적인 불전이 건립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수타사의 가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봉황문의 크기도 그에 걸맞게 설계했고, 이에 따라 소조사천왕상도 전각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형으로 제작된 것 같다.<sup>93)</sup> 현재 사천왕상은 와이어로 봉황문에 고정되어 있다. 제작기법 상 목심에 새끼줄을 감고 흙을 붙여 만든 후 그 위에 채색한 소조상이지만, 보관과 지물 등은 나무로 만든 후 채색한 것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일반적인 조선후기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의 형상과 자세를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의자 위에 앉아 있으며, 양 발 아래에는 각각 1구씩 악귀상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발 아래에는 제압당한 악귀가 표현되어 있고, 왼 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사천왕상은 원형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은 상과는 달리 목재로 후 썩은 것이다. 보관의 표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문양과 용, 봉황 등의 조각이 부착되어 있으며, 가장 위쪽에는 화염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보관의 양 옆으로는 관대가 늘어서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의 상호는 이목구비가 유달리 크게 표현된 점이 특징적이다(도6). 소조라는 재료와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92) 1746년 제작된 서울 봉은사 목조 사천왕상이 전체 높이 2.3미터로 현존하는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작으며, 수타사의 소조사천왕상은 그 다음으로 크기가 작다.

93)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2021), pp.181~183; 홍천군·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수 및 단청에 관한 연구』(2022), p.41 참조.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많이 만들어진 목조사천왕상의 다소 경직된 얼굴 표정과는 대조적이다. 북방다문천왕은 눈을 반쯤 감은 모습이나, 나머지 세 천왕은 모두 커다란 눈을 부릅뜬 형상이다. 코 역시 매우 큰 주먹코 모양인데, 콧구멍이 잘 보이게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어 찡그린 표정을 나타내었다. 입을 반쯤 벌린 서방광목천왕을 제외하면, 나머지 천왕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처져 있어서 불만을 품은 듯한 모습이다.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에 보이는 크게 부라린 눈과 콧구멍이 보이는 주먹코, 꼭 다문 입은 1628년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이나 1649년 조성의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표현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은 목제로 수업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은 수업을 덧붙이지 않고 얼굴에 채색을 하여 그려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목과 소매, 종아리에 전포(戰袍)를 갖춰 입었으며, 그 위에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어깨에는 견갑(肩甲), 가슴에는 흉갑(胸甲), 배에는 복갑(腹甲), 허벅지에는 퇴갑(腿甲), 종아리에는 경갑(脛甲)을 착용했고, 팔뚝에는 핑갑(肱甲)과 용수(龍手)를 착용하였다. 갑옷에는 모두 촘촘하게 짠 산문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산문은 소조나 목조라는 재료와 관계 없이 17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사천왕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45년 조성의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이나 1649년 제작의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66년 조성된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1690년 조성의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에서 나타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목 주변에는 포를 두르고 앞에서 가지런히 묶은 형상이다. 양어깨에는 천의를 걸치고 있는데, 이 천의는 머리 뒤쪽에서 뒤집어진 U자형 형태를 이룬다. 가장자리에는 화염 문양이 부착되어 있어 불보살상의 화염광배와 같은 형상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의 복식 중 신발은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상과는 다르게 앞코가 넓고 납작한 형태의 혜(鞋)여서 특이하다(도6, 7).

수타사 사천왕상의 지물은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에 망구스의 목을 틀어쥐고 있어 특이하다. 망구스를 든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다른 사례로는 1628년 조성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과 1632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이 있다.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도5 수타사 사천왕상의 상호와 보관 표현>



<도6 동방지국천왕의 신발>



<도7 서방광목천왕의 신발>

##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1.
-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 2021.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홍천군·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수 및 단청에 관한 연구』, 2022.

## ○ 기 타

동방지국천왕 배 부분에서 복장유물로 월인석보 권17, 18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수타사정보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다(도8).<sup>94)</sup> 그러나 이 때에 발견된 여타의 복장유물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다.

94) 『동아일보』 1957년 5월 10일. 수타사 소장본은 보물 제745-5호로 지정.



<도8 수타사 동방지국천왕 내부 발견 월인석보 권17, 18>

## 14.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10.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9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83년(숙종 9)
- 제작자 : 미상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1683년 소조기법으로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4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 정면을 바라보는 곧은 자세, 길쭉한 신체비례, 방형의 큰 얼굴과 해학적인 인상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마곡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특징과 함께 마곡사 사천왕만의 독자성을 보인다.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기록을 통해 1683년(康熙二十三年癸亥)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마곡사의 사적기인 벽암후인월과당인영이 쓴 《마곡사적(麻谷寺蹟)》에는 1681년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산전과 함께 천왕문이 건립되었으며 ‘裕敏之功開於天王門’라 하여 유민이 천왕문 건립에 공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천왕문에 있는 ‘泰華山麻谷寺天王門重修記’ 현판에는 1910년 금효약효에 의해 중수와 개채 불사가 이루어졌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내부 묵서, 사적기 기록, 중수 및 개채 기록 등이 모두 확인되는 점에서 17세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천왕문의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 천왕상이 낮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안치되어 있다. 배치는 천왕문을 들어서서 전각 내부의 오른쪽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에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있으며, 각 천왕상은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봉안되었다.

4m에 가까운 장대한 크기에 목심을 만들고 흙과 짚, 새끼줄을 이용한 소조토를 사용하였으며 점점 더 정제된 흙을 이용한 세 번의 바름 등 정석적인 소조기술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소조기법의 사천왕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 도판]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

<마곡사 서방광목천왕상의 내부 목서와 세부>



<마곡사 남방증장천왕상의 생령좌>



<‘東方’명 보관 화염장식>

## ○ (지정 가치 있음)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소조로 조성된 사천왕상의 사례 중에서 보존 사례가 양호하고, 사천왕의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조형적으로도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후기 사천왕의 전형적인 지물을 반영하고 있으며, 악귀·도상들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서방광목천왕이 보탑을 들거나 서수를 데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탑을 든 도상의 자세와 같지만, 보탑 대신 과일바구니처럼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어 특이하다. 서방광목천의 도상은 원래는 북방다문천의 도상이었고, 북방다문천은 재물을 관리하는 천왕이기 때문에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보탑은 사리탑으로서의 탑이 아니라, 북방다문천이 지니고 있는 많은 재물을 담아 부처에게 보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 도상이 동아시아에 와서는 불탑이나 사리탑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곡사 서방광목천왕은 이 보탑의 의미가 사리탑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다문천의 재물보시를 상징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 듯 연잎에 높인 떡거리를 들어 바치는 도상으로 변형되었다. 전형적인 도상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부처에 대한 공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천왕의 원래의 의미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옆의 남방증장천이 들고 있는 용의 여의주 역시 사과에 잎사귀가 달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즉, 북방다문천이 공양하고 있는 물건이 단지 과일이나 채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의 여의주와 같은 진귀한 보물임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천왕의 도상은 다른 사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으로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왕족)의 의무인 브라만(종교수행자)에 대한 보시의 의무를 불교에서 사천왕을 통해 널리 권선하고자 했던 개념을 정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마곡사에 보이는 인도불교적 특징들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마곡사 오층석탑 상륜부의 티베트식 청동불탑, 영산전의 과거7불의 봉안, 대광명전의 본존불이 부석사 무량수전, 나아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당의 본존불처럼 동쪽을 향해 좌정한 점 등은 인도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방다문천왕의 음식공양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천왕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꽃과 구름, 용 등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연화화생하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어 독특하다. 또한 북방다문천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가 눈이 세 개인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도상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사천왕의 요대를 결구하는 버클인 대구(帶鉤) 장식으로서 사자 혹은 용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사천왕 장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나, 마곡사 사천왕, 특히

서방광목천의 경우에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처럼 내밀고 있고, 동방지국천은 눈동자가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껴서 바라보고 있는 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천왕의 대구장식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 자체도 신성한 힘을 가진 생명체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천왕의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적인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작품성이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천왕의 지물 등을 통해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인도불교에서의 사천왕의 원래의 의미인 보시의 주체자로서의 제왕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적·사상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천왕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마라난타 스님 등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전수받은 백제불교의 특성과 연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사천왕상이 제작되는 2년 전 천왕문 좌측 편 공간에 자리한 영산전의 과거칠불과 제존상이 조성되는데, 이 불상은 端應 등 20명의 화원들이 함께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북 일원에서 활동하던 단응 유파의 조각승들을 초빙하여 영산전 불상 등 마곡사의 諸像들을 제작하면서 시차를 두고 이 사천왕상도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7세기 사천왕 도상 및 조각유파의 활동 범위와 동향, 불상의 제작 방식과 제작 순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학술 연구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구성이 약한 塑造像으로서 제작 이후 노출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리보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나, 원형에서 큰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은 유지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천왕상은 특히 동방지국천왕의 내부 기둥에 제작 당시(1683년)의 묵서명을 남기고 있어,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천왕상 자체가 보여주는 세장한 신체비례와 야위고 주름진 얼굴은 17세기 중엽 경 완주 송광사(또는 완주 위봉사)를 본거지 삼아 수련기를 거쳤으며, 17세기 후반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제작을 계기로 경북과 충북일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던 조각승 단응 유파와 관련이 깊은 조각이다. 17세기 사천왕상 연구 및 조각 유파의 활동범위와 불사 동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이라는 제작연대가 명확히 알려진 작품이자, 1649년 조성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1665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의 계보를 잇는 소조불상으로서의 중대한 가치가 있다. 비록 복장물이 산일되어 사천왕상을 조성한 조각승의 이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작방식과 전체적인 구조 및 형식적인 특징에서 김천 직지사 소조 사천왕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수조각승 단응이나 그 계열이 조각승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마곡사 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 소조 사천왕상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기준작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상이기에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보물로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 내력과 기록

공주 마곡사 천왕문(天王門, 도1)에는 높이가 약 390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소조사천왕상(塑造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다. 천왕문은 개울을 경계로 남쪽 사역에 배치되었는데 마곡사의 산문 역할을 하는 해탈문(解脫門)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마곡사는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의병의 결진(結陣) 장소였다.(『宣祖實錄』 卷 48, 宣祖 27年 2月 乙卯.“(전략) 厥後罷兵還來, 以忠淸監司關, 結陣于公州 麻谷寺, 十一月上疏罷兵, 軍糧軍器, 則監司處收入”) 이후 1650년 각순(覺淳) 등에 의한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1675년 이후 남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제작되었다.



<도1 마곡사 천왕문 전경>

마곡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든 천왕, 왼쪽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 오른손에는 보당, 왼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든 천왕상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천왕상 네 구의 의자는 밑면이 뚫린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내부 상단부분에 복장공이 모두 뚫린 채 열려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복장물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도2).



<도2 사천왕상의 내부 복장 모습>

마곡사 사천왕상과 관련된 명문과 기록은 상의 내부에 적힌 묵서, 17세기 후반 인영의 <마곡사적>, 그리고 천왕문 위에 걸린 현판 등이 있다(표1).

<표1 마곡사 사천왕상 관련 기록>

연번	명칭	시기	내용	위치 및 소장처	사진
1	내부 목서	1683년	康熙二十三年 癸亥三月五日	동방지국천왕 내부 목서	
2	마곡사적 (麻谷寺蹟) 월파당 인영	1670~80년대	裕敏之功開於天 王門	마곡사성보박물관 / 영산전과 더불어 천왕문을 유민이 건립	
3	泰華山麻谷寺 天王門重修記	1910년	天王改彩..隆熙 四年六月日...金 魚比丘」錦湖若 效	천왕문 현판	

첫 번째는, 검을 든 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는 가느다란 필선으로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라는 목서가 쓰여 있다. 따라서, 1684년(강희 23)으로 추정되지만 간지 ‘계해’에 맞추면 1683년이 된다. 그 측면의 안쪽에서는 ‘東’이라는 글씨도 확인되는데 방위를 표시한 것으로 이에 동방지국천왕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도상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를 토대로 방위를 맞춰보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는, 마곡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적기 《마곡사적(麻谷寺蹟)》에는 천왕문이 1670~80년대 영산전과 더불어 건립하였으며 유민이 건립하였음을 밝혔다(도3). 영산전은 1681년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목조과거칠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므로, 영산전 건립 이후 곧 바로 사천왕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3).



1670~80년대 영산전과 더불어 천왕문 건립

‘裕敏之功開於天王門’

<도3 <마곡사적>의 천왕문 건립 내용>

마지막 기록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개채기록으로 천왕문의 문 뒷면 위에 걸려 있는 ‘泰華山麻谷寺天王門重修記’ 현판이다. 현판에는 1910년(隆熙 4) 6월 대화주(大化主)이자 금어(金魚)로 약효(若效)가 참여하여 융희 4년(1910) 천왕문을 보수하고 사천왕상을 개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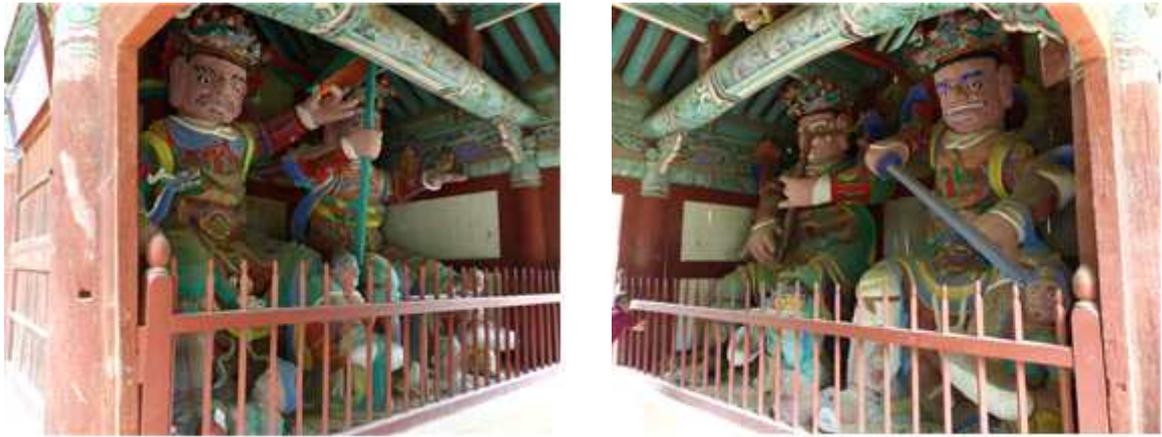
(「泰華山麻谷寺天○門重修○」歲在庚戌仲○之初興寺中○一同志○欲重修」天王改彩而財殫力少猶豫莫○矣幸家朴仁」默氏及本寺錦湖堂之大施主而始加修輯其所」有功難可萬一之酬故列祿於左耳爲永世之不」忘云爾」隆熙四年六月日」大施主秩」乾命己亥生朴仁默」…金魚比丘」錦湖若效」灑波法灑」月庵金池」淸應牧雨」東星定淵」渾應聖周」夢華」奉珠」性擘」泰昊」大興」鐘頭 芝生」商擘」供司 玄鎬」玄機」別座 永浩」普含」都監 慧月性珠」大化主 錦湖若效」時攝理明星寶榮」三綱首僧 永浩」書記 頓含」三甫 昌浩」)

금호당 약효는 마곡사의 화승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근대기의 대표적인 불모이다. 충청도 계룡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00여 점 가량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확인은 어렵지만, 개채 시 사천왕상에도 작은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은 왼손에 과일을 담은 그릇을 받치고 있어 도상적으로 특이한데 원래의 지물보다는 중수 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 현상 및 특징

마곡사 천왕문에는 각각 2구씩의 천왕상이 서로 마주하며 서 있다. 오른쪽에는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상,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상이 위치하고,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공양물이 담긴 그릇을 받쳐 든 서방광목천왕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도4).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동방지국천왕상은 상높이 397.3cm, 최대너비 290.4cm, 서방광목천왕은 상높이 387.6cm, 최대너비 291.4cm이

다. 남방증장천왕은 상높이 392.9cm, 최대너비 272.3cm, 북방다문천왕상은 상높이 392.0cm, 최대너비 281.1cm로서 네 구의 천왕상 높이가 거의 4m 정도 된다(도5).



<도4 마곡사 천왕문 입구에서 바라본 천왕상의 배치와 구도>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북방다문천왕

<도5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높이 약 390cm, 1683년>

천왕상 네 구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머리에는 정면 중심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발밑에는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생령좌의 크기는 작지만, 부릅뜬 눈과 근육 등이 강조되어 있다.

사천왕상의 얼굴은 방형이며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바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전각의 끝에 닿아 있다.

천왕상들은 모두 의자 위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발 아래에는 각 2구

씩의 악귀들이 무릎 꿇은 자세로 천왕상의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누워있다(도5). 이 악귀들은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동그랗게 크게 뜬 눈에 송곳니를 드러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경직되게 표현하였다. 사천왕상은 상반신이 길쭉한 신체비례를 보이는데 머리에는 꽃, 구름, 화염보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각각의 지물을 들고 서 있다. 이들의 얼굴은 넓적한 방형에 찌푸린 이맛살, 부릅뜬 눈, 끝이 뭉뚝한 주먹코, 짧은 콧수염과 턱수염 등이 동일하며 천왕상마다 눈과 입 모양을 차별화하여 약간씩 다른 인상을 풍긴다. 앞니를 드러낸 채 웃고 있는 북방천왕상이나 입술을 꼭 깨물어 윗니 전체를 보인 동방천왕상 등의 표정은 위엄보다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다. 정수리에는 짧은 상투머리가 있으며 어깨 위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생략되었다.

착의법은 갑옷 위로 천의를 둘렀으며 하반신에는 군의를 입었다. 갑옷은 가슴에는 흉갑(胸甲), 팔뚝에는 썩갑, 정강이에는 경갑(脛甲) 등을 착용하였다. 목에는 스카프를 둘러 묶었으며 말아 올려 묶은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전각 끝이나 벽면에 닿는 등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가슴에는 넓게 주름진 띠를 두르고 다회끈으로 묶었으며 허리는 요대를 둘렀는데 이는 짐승 얼굴 형상이 물고 있는 모습이다. 갑옷 위로 둘러진 긴 천의는 어깨를 두르고 허벅지 위를 횡으로 가로질러 늘어지기도 하였다. 어깨 뒤로 둘러진 천의는 역U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마치 두광처럼 나타내었는데 그 위로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천왕상의 옷주름들은 소조상의 특성상 굴곡이 깊었으며, 남방증장천왕상이 든 여의주에는 나뭇잎을 표현하여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서방광목천왕상이 받쳐 든 고추, 과일 등이 담긴 그릇 등은 독특한데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기법은 나무를 심목으로 그 위에 흙으로 성형한 소조 기법이다(도6). 구조는 4개의 방형 나무기둥을 결구하여 의자를 만들고, 그 위로 통나무를 올려 중심 골격을 짚으며 등판에는 별도의 나무를 접합하였다(도7, 도8). 접목한 목심 위로 흙을 입혀 성형하였으며 재료는 흙에 짚을 보강 재료로 사용하여 소조토의 점력을 높여 균열과 박리, 박락을 방지하였다. 또한, 목심의 표면에 칼집을 내어 접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새끼줄을 활용하여 접착력을 높였다(도9, 도10).



<도6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내부 심목>



<도7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의자목심구조>



<도8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내부 통나무 목심구조>



<도9 마곡사 남방증장천왕상-등 부분의 흠과 새끼줄>



<도10 마곡사 북방다문천왕상-머리 뒤 천 부분의 흠과 새끼줄>

□

## ○ 현 상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익공식 건축인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으며, 이 건축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10년에 중수된 기록이 있다.[도1] 천왕문은 조선후기 건축으로만 소개되고 있다. 천왕문의 좌향은 남향이며, 이에 따라 남쪽으로부터 천왕문에 진입했을 때 건물 동쪽인 좌측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서쪽인 우측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도1 공주 마곡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상단 테두리 부분은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고, 관대는 주로 꽃과 구름 문양의 장식들이 부착되었으며, 하단 좌우에 청룡과 황룡이 부착된 형태이다.[도3] 황룡(향우측)의 위에는 연화화생하는 인물 장식이 꽃혀있는데, 머리에 붉은색 리본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으로 생각되며, 손은 기도하듯이 모아 연꽃을 들고 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위아래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은 같은 장엄에 비해 띠가 다소 작은 비례로 달려있다. 이 띠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단의 매듭 부분에는 철사가 길게 솟아나와 별도의 화염문을 끝에 달았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지만, 보살상의 경우처럼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귓볼에도 철사가 달려있고, 그 끝에 노란색의 둥근 귀걸이가 달려있다. 철사가 박혀있는 귀 부분에는 꽃잎 장식이 붙어있다.



<도2 북방다문천>



<도3 북방다문천 보관 세부>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지만 이마에는 2줄의 깊은 주름이 있는데 다 눈썹과 수염이 모두 흰색으로 채색되어 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도4] 눈썹은 양감 있게 돌출되어 있지만 콧수염과 턱수염은 채색으로만 표현되었다. 입은 살짝 벌렸는데, 그 틈으로 앞니 두 개만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치아의 표현은 조선후기 북방다문천 도상에서 자주 발견된다.

푸른색 스카프를 매었고, 상체의 갑옷은 전면이 어린문으로 장식되었다. 상박갑의 상단에는 황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푸른 소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았다. 상체의 갑옷은 가슴 높이에서 녹색의 천을 벨트처럼 휘감고 이를 다시 주황색 끈으로 묶었다. 보통 허리에는 관복에 입는 관대처럼 마디마디 이어진 형식의 벨트를 착용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문양이 들어가지 않아 마치 혁대를 맨 것처럼 보인다. 이 요대 중앙에는 황룡이 이를 드러낸 채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며, 이 황룡의 코에 고리가 달려있어 그 아래로 흰색의 동물가죽처럼 보이는 형태가 매달려있다.[도5] 이 가죽형상은 길게 늘어져 바닥까지 이어지며, 가죽의 중심에는 척추뼈처럼 보이는 돌출새김이 보이고, 중간에는 이 동물의 뒷다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다.

허벅지 위에는 마치 무릎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녹색의 천이 덮여있어서 허벅지를 보호하는 갑옷인 군갑을 착용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녹색의 천은 어깨에 걸친 피건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건이 천왕의 양쪽 옆으로 휘날리는 형상이지만, 마곡사 천왕은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건이 겨드랑이를 타고 뒤로 넘어가 앉아있는 엉덩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허벅지 쪽으로 넘겨져 반대편으로 흘러 왼편으로 넘어간다.[도6] 두 피건 자락은 발 안쪽으로 늘

어져서 모아져 있는데, 끝이 소라껍질처럼 말리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피건의 위쪽은 천왕상의 머리 뒤로 둥글게 휘날리고 있는데, 그 테두리에 불꽃을 달아 광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도4 북방다문천 상체>

<도5 북방다문천 하체>

<도6 북방다문천 좌측면>

천왕은 푸른색 군의를 입었고, 그 안에는 밝은 옥색의 바지를 입었으며, 무릎 아래에서 이 바지단을 붉은 끈으로 묶었다. 그 아래로는 슬갑을 착용한 것이 보이는데, 붉은색에 연주원환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신발은 상관은 붉은색에 바닥은 청색 테두리에 흰 깔창으로 채색되었는데, 뒷꿈치 부분에 청색의 국화문 같은 장식이 달려있고, 여기서 신발 밑창 테두리와 같은 푸른색 끈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밑창과 연결되어 있다. 갈색의 상관은 다른 채색장식은 없으며 다만 주름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방천왕의 지물인 비파는 전체적으로 나뭇결 무늬가 시문되어 있으며, 다른 장식문양은 없다.[도4] 특이한 것은 비파의 공명통이 일반적으로는 채색으로만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구멍을 뚫어 사실성을 더했다. 비파는 목이 꺾인 당비파 형식이며, 손의 자세를 보면 왼손은 지판을 짚고, 오른손은 지금 막 현을 튕긴 듯한 모습이다. 다만 손가락이 매우 짧고 굵어 노인의 얼굴과는 대조되는 아이의 손 같은 인상을 준다.

천왕은 일반적인 사천왕의 앉는 자세에 따라 오른발은 바닥에 딛고 악귀를 밟고 있으며, 왼발은 살짝 들고 있는데, 악귀가 이 발을 받치고 있는 형식이다. 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푸른색에 구름문양이 들어간 테두리를 지닌 고깔모자를 쓰고 있으며, 얼굴은 굴곡이 많고 큰 코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미간에 또 하나의 눈이 달려있어 특이하다.[도7] 마치 치아가 없는 사람처럼 입술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 노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악귀들은 짧은 소매와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대로 파스텔톤의 도포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언뜻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아래 송곳니가 날카롭게 솟은 모습을 통해 도깨비 같은 존재임을 나타냈다.[도8] 복식으로 보아서는 긴 소매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로 저고리와 치마인지, 아니면 채색을 하면서 임의로 상·하의를 구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상·하의가 연결된 한 벌의 옷이라면 모자의 형태를 보아 청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옷깃 부분이 두껍게 표현된 것도 주목된다. 보통 악귀들이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데 반해 이처럼 옷을 갖춰 입고 몸을 가린 악귀는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



<도7 북방다문천 악귀(왼발)>



<도8 북방다문천 악귀(오른발)>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북방천왕 보관에는 청룡·황룡이 쌍으로 달려있는 것에 반해 동방천왕 보관에는 현재 황룡 장식만 남아있고, 연화화생하는 장식도 달려있지 않다.[도9]

얼굴표정은 이를 드러내고 분노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얼굴에는 굴곡이 역력한데, 이것이 근육표현 같기도 하고, 혹은 주름처럼도 보인다. 미간에 보이는 V자형의 주름은 다른 사찰의 사천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도식화된 주름이지만, 눈두덩을 마치 구름처럼 굴곡지게 표현한 모습, 눈꼬리 옆의 주름살, 입꼬리 주변의 주름 등은 그로테스크한 인상을 준다. 수염은 푸른색으로 채색되었다. 목에는 턱과 연결되는 부분에 마치 목젖을 표현한 것 같은 둥근 돌출부를 중심으로 그 옆으로 보다 작은 돌기가 마치 연주문처럼 이어지면서 목 근육을 표현

했는데 보통 세로로 힘줄을 표현하는 방식과는 달리 도식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콧볼의 표현도 사실적인 편인데, 북방천왕과 같은 귀걸이는 없지만, 귀걸이를 매단 철사가 박히는 자리에 원형 돌기가 보여, 여기에 원래 철사를 달아 귀걸이를 매달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9 동방지국천>



<도10 동방지국천의 대구 장식 세부>

혁대처럼 보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의 용은 청룡이다. 다만 용의 뿔 등은 생략되어 있어 해태 같은 동물일 수도 있다. 또한 눈동자가 정면을 보지 않고 마치 위쪽 무엇을 보는 듯 움직이고 있어 마치 이것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는 것도 특이하다.[도10] 이러한 눈동자 표현은 개채를 하면서 근대에 새롭게 그려 넣은 방식일 수도 있지만, 완주 송광사 사천왕에서도 보이고 있어, 개채 시 원래의 채색을 의식하고 답습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방천왕에서는 요대 아래로 흰색 동물가죽이 늘어져 있었지만, 여기서는 좌우로 흰색 띠가 흘러내려 중간에 8자형의 매듭을 짓고 다시 아래로 흘러내린다. 동방천왕의 지물인 칼은 코등이가 원형이 아니라 팔각형인 것이 특이하다. 또한 칼날에 갖다 댄 왼팔의 손가락 모습이 마치 손가락으로 길이를 잴 때의 엄지와 소지를 최대한 넓게 편 것 같은 형태인 점도 특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엄지와 검지를 새우는 경우가 많다. 칼의 끝 부분에서는 날을 운두문으로 모양을 내었다.

동방천왕은 상박갑 아래로 휘날리는 옷자락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고 잘 남아 있는데, 이 옷자락은 끝이 모두 천왕문 벽에 붙어 있어 고정되어 있다. 또한 어깨에 걸친 피건은 옆으로 휘날리지 않고 등 뒤로 굽이치고 있는데 이 역시 천왕문 측벽에 붙어 고정되어 있다.[도11]

동방천왕의 악귀는 왼발을 받친 악귀의 경우 모자의 챙을 위로 젖힌 듯한 중국식 투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도12] 그러나 몸에는 갑옷을 두르지 않았고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있다. 얼굴은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심하게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병거지(전립) 형태의 모자를 착용한 것 같은데 챙이 짧다.[도13] 상체는 벗고 바지만 착용한 채 등을 땅에 대고 누워 마치 자신을 밟고 있는 천왕을 올려다보는 듯한 자세이다. 양손을 땅에 짚은 자세인데, 몸에는 근육의 표현이 없다. 얼굴은 하회탈처럼 굴곡이 과장되었다.



<도11 동방지국천 우측면> <도12 동방지국천 악귀(왼쪽)> <도13 동방지국천 악귀(오른쪽)>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중앙 위쪽에 황룡, 하단에는 꽃장식에 가려진 봉황 장식이 중심을 이룬다.[도14] 동방천왕처럼 얼굴의 굴곡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눈두덩이를 구름처럼 굴곡지게 묘사한 점은 유사하다. 입술은 다문 채로 양끝이 아래로 처져 있고 그 끝에 볼 근육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통해 입을 굳게 다물고 단호한 표정을 표현했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면은 황룡이며, 여기서 흰 띠가 흘러나와 리본 매듭을 지며 아래로 흘러내린다. 지물은 청룡과 여의주인데, 여의주를 단순한 구슬 모양이 아니라, 마치 과일을 나무에서 막 딴 것처럼 잎사귀와 줄기 일부가 달려있는 것이 특이하다.[도15·16] 이러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곡사 증장천왕의 특징이다. 증장천왕은 이 여의주를 얼굴 높이로 높게 들고 있는데 용도 고개를 들어 이 여의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들어졌다. 발 아래의 악귀의 모습은 북방천왕의 조합과 유사한데, 다만 북방천왕에 보이는 눈이 세 개인 특이한 모습은 아니다.



<도14 남방증장천>



<도15 남방증장천 지물(용)>



<도16 남방증장천 지물(여의주)>

끝으로 서방광목천은 보관에 청룡 장식을 중심으로 그 아래 좌우에 비천이 묘사되어 있으며, 장식이 가득 차 있어 네 천왕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도17] 입은 입술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가 살짝 들어나도록 약간 벌리고 있는데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마곡사 천왕문의 사천왕은 대체로 정면을 보고 있어 천왕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하기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서방광목천은 비록 얼굴은 정면향에 가깝지만 눈동자가 아래를 흘겨보는 것처럼 아래로 향해있어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귀걸이는 달려있지 않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은 황룡인데, 헛바닥을 길게 내민 모습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표현이며 특히 그 혀가 마치 코구멍으로 들어갈 듯한 표현은 매우 해학적이다.[도18] 동방천왕의 청룡 대구처럼 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서방천왕은 원래 경전에 따르면 북방천왕의 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손에는 보탑,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마곡사 서방천왕은 특이하게 보탑 대신에 연잎에 과일이나 채소가 올라간 듯한 지물을 들고 있다.[도19] 북방천왕이 원래 부(富)를 관리하는 천왕이기 때문에 보탑도 원래는 사리탑으로서의 탑이 아니라, 보물이 담긴 탑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자신의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쩌면 마곡사 천왕상은 인도에서 사천왕이 부처님께 발우를 드린 설화에 충실하게 음식을 공양하는 모습을 통해 보탑이 지니는 원래의 의미를 음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옆의 남방천왕이 들고 있는 여의주가 마치 과일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 사방천왕의 음식공양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당의 형태

도 단순한 나무 막대의 모습이 아니라 대나무의 마디가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당의 끝에는 삼지창 모양이 달려있는데, 여기서는 노란 보주 같은 것만 올라가 있고, 삼지창 표현은 없다. 육안 관찰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당이 거의 천왕문 서까래에 닿을 정도로 높아서 삼지창 형태의 장식에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 보수하면서 천정이 낮아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분도 특이한 요소다.



<도17 서방광목천>



<도18 서방광목천 요대 대구 세부>



<도19 서방광목천 지물(공양물)>

서방천왕 발 아래의 악귀들은 다른 천왕들의 악귀와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들만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다. 우선 왼발을 받들고 있는 악귀는 형상은 북방천왕의 악귀 등과 비슷하지만, 이처럼 두 팔로 천왕의 종아리 부분을 완전히 감싸 받들고 있는 형상은 보기 드물다.[도20]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나르는 사람의 자세처럼 적극적으로 천왕을 모시고 있는 인상을 준다. 왼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웠는데, 팔을 꿰고 머리를 바짝 세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사천왕 발 아래 밟혀 있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아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도21]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별 받는 것조차 즐기는 악귀의 모습 같다. 모자는 청나라 특유의 난모를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도20 서방광목친 악귀(왼발)>



<도21 서방광목친 악귀(오른발)>

□

○ 조사내용

마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곡사의 643년 자장율사 창건설과 840년 보조선사 체징 창건설 두 가지가 전한다. 마곡사 역시 초유의 전란인 왜란과 호란의 병화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파괴되었다. 마곡사의 중건 불사가 시작된 것은 마곡사에 전하는 여러 사적자료를 통해 볼 때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천왕문은 해탈문-천왕문-대광보전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중심축 선상에 있는 건물이다. 사천왕상은 이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다. 그에 앞서 만나는 해탈문에는 금강역사 2구와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봉안되어 있다. 이들도 양식상 사천왕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탈문(또는 금강문)에 봉안된 騎獅·騎象童子를 통상 문수·보현동자로 이해하고 있으나, 1705년에 조성된 하동 쌍계사의 발원문에서 한산·습득 동자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해탈문의 두 동자상은 한산·습득 동자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산·습득은 문수와 보현의 화신으로 생각되는 故事 속의 인물이므로 의미상 통한다.

마곡사에 전하는 각종 「사적자료」에 따르면, 마곡사 천왕문은 1682년 영산전과 더불어 裕敏이 건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650년대 사찰의 본구역인 北院 일원의 중창불사가 마무리되고 1670~80년대 영산전이 자리한 南院에 대한 중창불사 과정에서 영산전(1682년 건립)을 비롯한 천왕문, 해탈문, 그리고 이곳 전각에 봉안할 예배존상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표1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 배치도>

마곡사의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즉 입구에서 보면 향 우측에 동-북 천왕이, 향 좌측에 남-서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花形으로 능을 준 보관의 표면에 용과 구름, 화염문으로 장식한 보관을 썼다.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간 천의가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다. 머리는 틀어 올려 상투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관 아래의 보발만 간략히 표현하였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많은 얼굴이며, 깨진 계란처럼 특색 있게 눈과 눈꺼풀을 표현하였으며, 코는 짧고 뭉툭하며 전반적으로 실제 인물을 보는 듯 사실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귀는 삼각와가 돌출해 있으며, 하갑장의 耳孔은 고드름처럼 늘어진 형태이다. 콧불에는 구슬을 달아 귀고리로 삼았다. 손은 아기 손같이 작고 도톰하다. 여기에서 표현된 인물 표현은 이보다 앞서 제작한 1665년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의 표현양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도 이와 같은 표현감각을 따르고 있다.

신체에는 각종 갑옷을 장착하였다. 목에는 전포의 깃이 노출되어 있고, 그 아래로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묶었다. 어깨에 위를 덮은 견갑에는 용문이 자리하고 있다. 상체에는 전포를 하체에는 바지인 박고를 입었고, 그 위에 흉갑, 비갑, 슬갑 경갑 등 여러 갑옷을 갖춰 입었다. 흉갑 위에는 胸帶를 두르고 밧줄로 묶었다. 흉대는 위아래에서 헛바닥처럼 대칭적으로 주름을 잡은 것이 특징이다. 裳甲 위에는 요의를 치마처럼 둘렀고 물결치듯 주름을 잡아 울동적이다. 복부에는 뿔이 없는 귀면 장식이 있으며, 귀면은 요대와 수환, 또는 수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정강이 부근에는 품 넓은 바지 단을 묶은 박고형이며, 발에는 戰靴를 신었다. 서방광목천왕의 귀목은 헛바닥으로 콧구멍을 활고 있어 작자의 돈보이는 해학적 연출을 감상할 수 있다. 갑옷 밖으로 노출된 여러 가지 옷자락들이 상당히 울동적으로 처리하였다.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동방지국천왕 얼굴>

각 천왕별 도상적 특징으로는, 동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 잡았고, 왼손의 손등으로 보검의 끝부분을 받쳐 든 모양이다. 보검의 끝은 꽃 봉우리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북방천왕은 왼손으로 코드를 맞추고 왼손으로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 비파의 울림통에는 초승달 모양의 코끼리 눈을 투각하였다. 남방천왕은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용의 몸통을 움켜잡았고,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든 왼손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입은 양다물었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 대나무로 만든 당을 움켜잡았고, 당의 상부에는 삼지창으로 처리하였다. 왼손으로 과일이 담긴 荷葉 접시를 받쳐 들고 있다. 통상 과일은 천동이나 천녀의 지물이나 여기에서는 사천왕상의 지물로 채용되고 있다. 특히 접시에 담겨 있는 과일 중 주목되는 것은 고추이다. 고추는 17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추의 도입 시기를 입증해 주는 실증적인 사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천왕상에서 볼 수 없는 지물로, 후대 보수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단웅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광목천왕의 탑도 하엽 위에 올려놓았고, 단웅 작으로 추정되는 예천 용문사 명부전 무목귀왕의 寶印도 하엽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단웅이 즐겨 사용한 모티프가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북부의 귀면 역시 혀를 내밀어 콧구멍을 핥고 있는 연출은 다른 사천왕상에서 볼 수 없는 독보적 재치이다.

야차는 각 사천왕 마다 2구씩 마련되었다. 야차는 고깔모자를 썼고 좌측의 야차는 사천왕상의 다리를 받쳐 든 모습이고, 우측의 야차는 등이나 배가 밟혀 버둥거리는 모습이다. 북방다문천왕의 다리를 받쳐 든 야차는 고깔모자에 눈이 세 개인 삼목으로 표현되었다. 야차 역시 사천왕처럼 야위고 주름이 많아 늙고 초췌한 모습이다.

동방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라고 행초서로

갈겨 쓴 묵서와 제작시기 관련된 묵서와 그 측면에 東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묵서가 적혀있다. 강희 23년은 갑자(1684)이고 강희 24년이 癸亥(1683)이다.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경우 통상 일반인에게 익숙했던 干支를 따르므로,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곡사 사천왕상은 마곡사의 II단계 중창불사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II단계 사찰의 남쪽에 해당하는 남원구역이다. 이곳에는 영산전과 해탈문,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영산전은 1682년(태화산 마곡사 천불전중수기)에 건립되었으며, 영산전 불상은 영산전 건립에 앞서 1년 전인 1681년에 단응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다.<sup>95)</sup> 마곡사 사천왕상도 2년 뒤인 1683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영산전 불상을 만든 단응 유파 조각승이 조성했을 것이다. 이후 1910년 천왕문을 보수하고 약효스님에 의해 사천왕이 개채되었다.

□

## ○ 현 상

- 공주 마곡사 천왕문 안 좌우 양측에 2구씩 안치된 소조의 사천왕상으로, 현재는 목책이 천왕 앞에 설치되어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는 장검을 든 동방지국천왕과 양손으로 비파를 든 북방문천왕상이 안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양손에 각각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지국천왕과 오른손에는 보당 원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 마곡사 천왕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다. 천왕문의 문 뒷면 위쪽에 걸려 있는 현판에 쓰인 「태화산마곡사천왕문중수기」를 통해, 1910년(융희 4) 6월에 대시주 박인묵과 금효당 약효의 주도로 천왕문이 보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사천왕상도 함께 보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후술하겠지만, 동방지국천왕 의자의 묵서를 통해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1683년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천왕상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천왕문 건립의 하한연대를 1683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전거가 마련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 마곡사 사천왕상은 전체 높이가 약 390cm에 달하는 중대형의 상이다. 천왕들은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다. 천왕의 발밑에는 악귀가 2구씩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8구의 악귀가 있다. 한 구의 악귀는 천왕의 발밑에 깔린 모습으로 묘

95) 영산전 불상 발원문 “康熙二十年辛酉始役於二月訖功於六月奉安于華山麻谷寺……證師 道元 持殿 震玄 畫員 端應 戒天 性還 卓密 學崙 義修 敬悅 弘胤 戒淨 敬心 義禪 海密 太禪 體元 文信 海旭 旻性 太敏”.

사되고, 다른 한 구는 천왕의 발을 떠받친 자세를 취하였다. 악귀들은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사천왕상의 규모가 더욱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눈을 부릅뜬 표정이며 얼굴의 이목구비는 크고 과장되게 묘사되었다.

- 사천왕상은 위아래는 짧고 양옆이 긴 방형의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찡그린 분노상이다. 코는 주먹코로 수조각승 단응(端應)이 조영한 상과 표현상 친연성이 있다.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보관을 썼는데, 용, 비천, 구름, 꽃 등의 모티프를 철사로 관에 고정하여 상당히 입체적이고 화려하다. 보관의 가장 위쪽은 구름 위로 솟아오른 화염보주 모티프로 장식되어 있다.

- 네 명의 천왕은 모두 허리가 긴 체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운동감을 느끼기 힘들고 다소 뻣뻣하다. 이와 같은 신체의 표현은 재료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마곡사 사천왕상은 심목으로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몸에는 먼저 평상복을 입고 그 위에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갑옷을 착용하였다. 하반신에는 입은 균의는 허리띠를 매어 고정하였고, 그 위에 천의를 둘렀으며, 목에는 스카프를 매고 있다.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은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 동방지국천왕의 경우 지물로 오른손에 검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칼날을 잡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왼손으로 비파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며, 오른손에 용을 쥐고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잡은 천왕은 남방증장천왕이 된다. 오른손에 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에 해당하는데, 왼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받치고 있다. 이러한 과반은 사천왕의 도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후대에 보수 시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천왕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4개의 나무로 결구하여 다리로 삼았다. 의자의 밑면은 뚫려 있어서 입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며, 내부의 복장물은 현재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의자의 상판에는 통나무를 올려 목심으로 삼았고, 거기에 흙과 물에 보강재로 짚을 섞은 것을 붙여 형태를 잡았다. 과거 조사에 의하면 새끼줄을 활용하여 접착력을 높이고 접합이 용이하도록 목심 표면에 칼집을 내었다고 한다.

- 동방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서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란 목서가 발견되었다. 강희23년은 1684년에 해당하지만, 계해라는 간지는 1683년이다. 간지가 좀 더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 측면 안쪽에서는 방위를 표시하기 위한 ‘東’이란 목서도 확인된다.

## ○ 참고문헌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15.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 (醴泉 龍門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3.2.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醴泉 龍門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52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88년(숙종 14)
- 제작자 : 미상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은 4m가 넘는 크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소조사천왕상이다. 제작시기도 확실한데, 『속용문사적기(續龍門事蹟記)』를 통해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1688년에 함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의 배치 및 지물 등은 일반적인 조선후기 사천왕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4m가 넘는 장대한 크기에 정면을 향한 자세, 방형의 얼굴,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생령좌 등이 특징이다. 보존상태도 좋으며 거의 마지막 소조사천왕상인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각승에 대한 기록도 『속용문사적기』에서 확인된다. 즉, 원선(圓善)과 공신(公信)이 사천왕상을 제작하고 채색한 승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조각승의 활동이 확인되는 17세기의 자료에 이 조각승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 승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점에서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 화엄사 사천왕상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보다는 다소 과장되고 형식화된 표현이 엿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인 변화상은 또한 같은 화엄사 사천왕상 계통이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마곡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곡사상이 마곡사만의 개성을 반영한 변형이라면, 용문사상은 보다 충실히 도상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표현이 과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화엄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은 천왕의 발 아래 악귀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에서는 악귀들이 등장한다는 점

에서 화엄사상의 원형을 복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악귀들도 마치 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천왕의 발 주변에 악귀들을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 같은 인상도 주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천왕들이 높이 들고 있는 팔의 경우는 하중으로 인한 소조상의 균열이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팔 아래에 기둥처럼 막대를 세웠는데, 양끝을 보면 연화대 좌까지 만들어 받치고 있어서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설치한 받침 기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둥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어서 후에 큰 보수작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서방광목천의 경우는 탑, 또는 서수를 지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세를 보면 왼손을 허리에 대고 있어 서수가 그 손안에 품어져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서수가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왼손의 표현 자체가 어색하게 생략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수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688년 무렵 화엄사 사천왕 도상 계열의 사천왕상으로 조성되었으나, 다소 도식화되고 생략화 된 경향을 지니며, 이후에는 일부 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보인다. 동방지국천왕의 지물인 검도 유난히 크고, 사천왕이 착용한 요대의 사자머리 장식도 과장되게 큰 경향이 보인다.

조선 후기 화엄사 사천왕상 계보의 사례 중에서 매우 개성 있는 악귀들을 거느린 중요한 사례이지만, 후대에 보수나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점이 보여, 어디까지가 원형이고 어디서부터가 후대에 추가 혹은 수리된 부분인지에 대한 고증을 거쳐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은 속용문사기에 따라 圓善과 公信이 상을 만들고 채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천왕상에서 풍기는 용모와 양식은 직지사과 마곡사 등 단응이 제작한 사천왕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소조상이 완성되는 1680년대는 소영당 신경과 단응 유파의 조각승들이 용문사를 비롯하여 충북과 경북 일원에서 광폭의 활동을 벌이던 시절로, 이 상 역시 이러한 조각승의 활동시기에 그들의 양식을 반영하여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단응 유파에서 흙으로 만든 사천왕상 중 김천 직지사(1665년)-공주 마곡사(1683년)-예천 용문사(1688년)로 이어지는 계보에 있으며, 가장 마지막 작품이 된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단응 유파로 판단되는 작품을 우선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은, 현전하는 소조사천왕상의 마지막 작품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적기에 조각과 채색의 담당자로 기재된 圓善과 公信이 여전히 17세기 조각승일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불상의 양식에 맞지 않게 기록된 조각승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정 가치 미흡)

예천 용문사 소조 사천왕상은 기록을 통해 1688년에 천왕문이 건립될 때 함께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17세기 후반의 사천왕상으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사천왕상이 봉안된 회전문과 사천왕상을 이견하면서 상당부분 보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때 수리된 양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내부 구조나 제작기법, 복장유물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용문사의 사적기 『속용문사적기(續龍門事蹟記)』에는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도1). 즉, 1688년 천왕문을 크게 짓고 소상(塑像) 4구를 세웠으며 사천왕상을 제작하고 채색한 승려는 원선(圓善), 공신(公信)이라고 밝혔다(「...今年春 大設天王門於泛鐘樓南 左右立塑像四軀 未數月 功告訖 處源三雄 以材而勗者也 圓善公信 造像而繪者也...」). 따라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은 1688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1 『속용문사적기(續龍門事蹟記)』와 천왕문 및 사천왕상 관련 기록>

용문사에는 회전문(廻轉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전각이 사천왕을 봉안한 전

각이다. 내부에는 네 구의 천왕상이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보당 등 각각 다른 지물을 들고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서방천왕이 보당을 들고 왼손은 보탑이나 망구스 등의 지물 없이 허리에 손을 댄 자세인 점은 차이점이 있지만, 다른 지물이나 북-동-남-서방의 배치 순서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을 따르고 있다.

의자 밑에는 복장물을 넣었던 공간인 복장공이 있으며 이를 막은 봉함목은 없어진 상태이다. 상의 내부는 잘 다듬어져 있으며 비어 있는 상태이다. 사천왕 4구 모두 얼굴은 앞으로 향해 정면을 응시하였다. 머리에는 꽃, 구름, 봉황, 새, 연봉오리로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양 측면에는 구불거리는 관대가 달려 있고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 내려와 있다. 사천왕의 높이는 433~452cm 정도로 큰 편이며 신체도 장대한 편이다. 얼굴은 넓적한 방형에 크게 부릅뜬 눈, 주먹코 등을 표현하였는데 채색 때문인지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착의법은 갑옷 위에 천의를 두르고 하반신에는 군의를 입었는데, 다른 천왕상과 같이 가슴, 허리, 팔뚝, 정강이 등에 별도의 대를 착용하였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러 묶었다. 천의는 둥글게 어깨 위로 감아 화염장식을 가장자리에 조각하였다. 어깨와 팔뚝의 갑옷 사이로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있다. 발 아래에는 두 구의 악귀가 다양한 자세로 천왕상의 다리를 받치거나 밟혀있는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북방지국천왕



동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다문천왕

<도2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



## ○ 현 상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은 ‘속용문사적기’에 의하면 1688년 봄에 천왕문이 세워지고 곧이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천왕문은 회전문이라고 불리고 있다. 천왕문은 남향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이에 따라 천왕상은 진입하는 시각에서 보면 우측에 안쪽에 북방다문천, 바깥에 동방지국천, 좌측의 안쪽에 서방광목천, 바깥쪽에 남방증장천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법식을 따랐다.

사천왕상의 기본적인 도상과 형식은 화엄사 사천왕상 계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계열인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도 천왕 아래의 악귀상들이 보이지 않는데, 용문사 사천왕은 같은 계열의 도상이면서도 악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특히 머리를 땅에 박고 고꾸라지듯이 쓰러진 상태에서 한 팔이 천왕의 발 아래 밟힌 모습 등은 다른 사찰의 천왕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자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천왕의 발 아래 밟힌 악귀들과 달리 이 악귀들은 마치 천왕의 발이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악귀들을 덧붙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서도 원래는 악귀가 없었으나 후대에 덧붙인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 외 천왕이 살짝 들고 있는 왼발을 어깨에 받치고 있는 악귀들은 마곡사 사천왕상 아래의 악귀들과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 ○ 문헌자료

<속용문사적기>은 1688년 박세대가 쓴 글을 1726년 신재산인이 옮겨 기록한 글로서, 이에 의하면 천왕문 및 천왕상은 용문사적기가 쓰인 1688년에 조성된 것이다. 천왕문은 현재는 회전문으로 불리고 있으나 당시는 천왕각으로 불렀고, 처원(處源)·삼웅(三雄)이 세웠으며, 천왕상은 원선(圓善)·공신스님이 만들고 단청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무진戊辰년(1688) 늦겨울(季冬: 음력 12월) 수경(守庚)하는 일로 용문사에 올라갔더니 주지住持가 절의 고적古蹟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바로 고려 이학사李學士가 찬술한 비문이었다. 펼쳐서 살펴보니 두운杜雲·조옹祖膺·자엄資嚴 세분 대사大師의 절을 창건하고 중수한 자취가 또렷하여 마치 어제 일 같았다.

주지가 말하길 “아, 이 절의 창건은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의 흥하고 쇠함은 그 변화가 얼마인지 알 수 없건만 그러한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은 이학사 이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중수한 것은 무슨 집이고 새로 창건한 건물은 어느 것이며,

아무개가 세운 것이고 어느 스님이 주관한 일이라는 사실은 끝내 스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스러져 전하지 않으려는 데도 어찌서 글로 기록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글숨씨가) 거칠고 졸렬하다고 사양하였으나 스님의 요청이 강해 마침내 절 내력의 전말을 자세히 물었더니 주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또한 여러 장로들에게 들은 것입니다만, 지난날의 이른 바 아흔 세 곳이 모두 무너지고 스러져도 고치지 않고 망가지고 재가 되어도 수리하지 않아서 우뚝한 윤장대 한 채마저도 장차 기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거주하던 스님네가 탄식하고 지나가던 납자衲子들도 서글퍼하여 만력萬曆 무신戊申년(1608)에 호남의 승려인 혜명慧明스님이 옛 규모보다 늘려서 제하당霽霞堂을 중수하였답니다. 순정崇禎 병자丙子년(1636)에는 이 절의 스님인 학문學文이 적묵당寂默堂을 지었으며, 그 남쪽에 있는 범종루는 그 이듬해 두인杜印스님이 이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건물, 즉 제하당과 적묵당의 북쪽에는 광명전光明殿을 세워서 범종루와 통하게 하였는데, 나는 듯 나래를 편 듯하며 초라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았으니, 일을 주관한 이는 광인廣印스님이고 때는 기축己丑년(1649)이었답니다. 지장전地藏殿은 그 서쪽에 있으며 영칙靈則스님이 만들었고, 응향각凝香閣은 그 동쪽에 있는데 도오道悟스님이 이루었다 합니다. 영준靈俊스님이 원통전圓通殿을, 행변후스님이 삼삼전을, 학문學文스님이 응진전應眞殿을, 그리고 혜일惠日스님이 미타전彌陀殿을 이룩하였는데, 모두 근래에 수리하거나 지은 것으로서 이루어진 연월일은 그 기문記文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하당의 남쪽에 해징海澄·취성就性 두 스님이 삼강실三綱室을 설립하였고, 동북쪽으로 수십보 떨어진 곳에 태상太祥·각철覺哲 두 스님이 만월당滿月堂을 이룩하였으니, 때는 경술庚戌년(1670)이었답니다. 의섬義暹·의탄義坦스님이 서까래와 기와를 손보아 대장전大藏殿을 수리한 것도 이 해에 이루어진 일이라 합니다. 이에 여러 스님들이 다 함께 분발하고 대중들이 서로 다투다시피 힘을 기울여서 신유辛酉년(1681)에 만세루萬歲樓를 지었으니, 법률法律·희인希印·대규大奎·밀언密彦·법견法堅스님 등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시왕전十王殿을 만들었는데, 두관斗寬·법청法淸·도해道海·인경印瓊·정률精律·형영스님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금당金堂을 세우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축수전祝壽殿을 이룩하였으니, 처영處英·심보心寶·여식·삼언三彦·설견雪堅·삼인三忍·해장海藏·대기大機·홍택洪澤스님 등이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시왕상十王像과 금당의 판불版佛을 만드는 일은 실로 신경 대사神鏡大師의 힘에 의지한 것으로, 절 스님네의 대부분이 그의 공덕에 탄복하여 축수전 서쪽에 별도로 감실龕室 하나를 마련하여 장차 대사의 진영眞影을 안치하려고 합니다.

청심당淸心堂은 시왕전 앞에 있으며, 명월寮明月寮는 적묵당의 오른쪽에 있으니, 이들은 주지 성충性聰스님이 병인丙寅년(1686)에 지은 것입니다. 이 해 여름에

성인箴印스님이 서울에서 공신公信스님이 보낸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충스님은 전임 주지로서 그 일을 총괄하였습니다. 올 봄에는 범종루 남쪽에 천왕각天王閣을 크게 짓고 좌우에 (사천왕) 소상塑像 4구軀를 세우면서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아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처원處源·삼웅三雄이 재목을 들여 집을 짓고 원선圓善·공신스님이 천왕상을 만들고 단청을 한 것입니다. 도량 밖에 따로 암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것이 서전西殿인데 영칙스님이 세웠으며, 북쪽에 있는 것을 비전碑殿이라 하는데 혜진惠眞스님이 이룩하였습니다. 비전의 아래가 양로암養老庵이니 치능致能 노스님이 머물고 있으며, 그의 문도들인 해월海月·밀청密淸 등 10여 명이 스승이 노년을 보내고 강의하는 곳으로 지은 것입니다. 아, 아래위로 80년 사이에 옛 건물을 고치고 새 건물을 세운것이 약 26 군데에 이르니, 비록 조응·자엄스님이 수리하고 고친 평장함에는 그 융성함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난 날 무너지고 스러져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또 명년明年을 기약하고 일주문一柱門과 향적전香積殿을 조성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는 이들이 더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더 융성하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한 무너져도 고치지 않고 쓰러지는데도 수리하지 않아서 가시덤불에 뒤덮이게 되거나 여우와 토끼의 소굴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무릇 세상에는 족히 믿을 만한 것이 있으나, 그것이 사물의 흥함과 망함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읊은 읍시, 이재 조우인曹友仁이 화운和韻 한 시, 그리고 청풍淸風 정윤목鄭允穆의 고시古詩 한 편篇은 한 지역의 그윽하고 고요한 정경을 그려내었고 천고의 흥망성쇠를 남김없이 엮어내었으니, 참으로 썩지 않는 것은 여기(詩文)에 있지 저기(건물)에 있지 않다 하겠습니까.

내가 위와 같은 주지의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그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돌려 주었다. 주지는 누구인가? 희욱希旭이 그의 범명法名이다.

위의 글은 박세대朴世大 공公이 지은 것이며, 글씨는 늙고 못 난 내가 젊은 시절에 쓴 것이다.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잠깐 사이에 박공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나도 당시의 붉은 얼굴이 변하여 백발이 되어 (글을) 펴서 살펴보니 감개가 새롭다. 글의 말미에 글 지은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뒷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적어 두는 바이다.

병오丙午(1726)년 4월 하순 신재산인新齋散人 쓰다.

중수기重修記와 시율은 김하기군이 글씨를 쓰고 아울러 기록하였다.



## ○ 조사내용

예천 용문사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내지리) 소백산 기슭에 자리하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말사이다. 『김룡사본말사지』에 따르면, 신라시대 870년(경문왕 10) 杜雲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고려시대 祖應과 資嚴 등이 중창하였으며, 명종의 태를 보관하였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1478년(성종 9) 소헌왕후의 태실을 봉안하여 고려시대 못지않은 사격을 유지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08년부터 본격적인 불사 진행이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戰禍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은 「俗龍門寺記」에 사천왕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천왕상은 “올 봄에 남쪽에 천왕각을 크게 짓고 좌우에 소장 4구를 세우면서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아 일이 마무리되었다. 處遠과 三雄이 재목을 들여 집을 짓고, 圓善과 公信이 천왕상을 만들고 단청을 하였다”<sup>96)</sup>라는 기록을 통해 1688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는 원선과 공신이 사천왕상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천왕에서 보이는 방형의 얼굴형에 야위고 주름이 많은 얼굴, 눈꺼풀이 강조된 눈, 울동적인 주름 표현, 세장한 형태미는 조각승 단응의 유풍을 반영하고 있다. 아마도 원선과 공신은 일을 주관한 화사 또는 대시주로 판단되며, 실제 조각은 단응 유풍에서 말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보다 앞서 서울에서 공신스님이 재물을 가져와 불사를 진행했다는 기록과 1684년에 제작된 시왕상과 금당의 版佛(보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대한 기록도 신경대사가 주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7)</sup> 실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화기의 별도 구역에 “金堂始創造佛像版幀○, 名現大德昭影堂大師神鏡”이라고 特記하고, 본 화기란 화원질에 “端應, 卓密, 學倫,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84년 작성된 용문사 「維康熙二十四年歲次甲子菊月日龍門寺金堂始創腹藏記」는 금당과 불상을 조성하며 남긴 기록으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화기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에 따르면 소영대사가 우연히 이 절을 지나다가 금당이 없어서

96) 「續龍門事蹟記」, “...今年春 大設天王門於泛鐘樓南 左右立塑像四驅 未數月 功告訖 處源三雄 以材而榘者也 圓善公信 造像而繪者也”.

97) 「續龍門事蹟記」, “辛酉作萬歲樓法律希印大奎密彥法堅之屬爲之役 明年(1682)作十王殿斗寬法清道海印瓊精律潤英之徒通其力 又明年(1683)作金堂又明年(1684)作祝壽殿處英心寶呂湜三彥雪堅三忍海藏大機洪澤之明幹其事十王之造像金堂之版佛案籍神鏡大師之力居多寺僧歡其功德別設一龕于祝壽之西將欲安大師之影子也”.

신유년(1681)에 만세루를 지었으니, 범률·회인·대규·밀언·법건스님 등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듬해(1682)에는 시왕전을 만들었는데, 두관·범청·도해·인경·정률·형영스님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금당을 세우고 다시 이듬해(1684)에는 축수전을 이룩하였으니 처영·심보·여식·삼인·설건·삼인·해장·대기·홍택스님 등이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시왕상과 금당의 판불을 만드는 일은 실로 신경대사의 힘에 의지한 것으로, 절 스님네의 대부분이 그 공덕에 탄복하여 축수전 서쪽에 별도로 감실 하나를 마련하여 장차 대상의 진영을 안치하려고 합니다(『龍門寺』, 용문사 성보박물관, 2006, pp.21~23 참조).

세우고자 했는데, 이에 사중의 스님들이 그 뜻을 받들어 불전과 불상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이 불사에는 宗現이 증명을, 조각승으로 端應, 卓密, 學崙,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이 참여하였다.<sup>98)</sup> 소영과 단응은 1680년대 이루어진 용문사 불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천왕상 조성을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승 단응은 처음에는 무염의 영향력 아래 완주 송광사와 위봉사를 본거지로 하여 성장한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 단응은 1665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제작을 계기로 활동 범위를 경북지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주로 소영당 신경스님과 함께 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와 충청 북부 지역의 사찰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천 용문사에는 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사천왕상이 건립되는 해보다 2년 전인 1684년에 신경이 주관하고 단응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사천왕상 4구는 1688년에 조성된 것인데, 주름이 많은 야윈 얼굴과 다소 과장된 눈꺼풀, 몽툰한 주먹코, 얇은 입술, 짧고 도톰한 손가락, 세장한 신체, 위아래에서 헛바닥처럼 주름잡은 胸帶와 옷단을 물결처럼 주름잡은 요의 등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과 동일 계통이다. 따라서 이 사천왕상도 단응 유파의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광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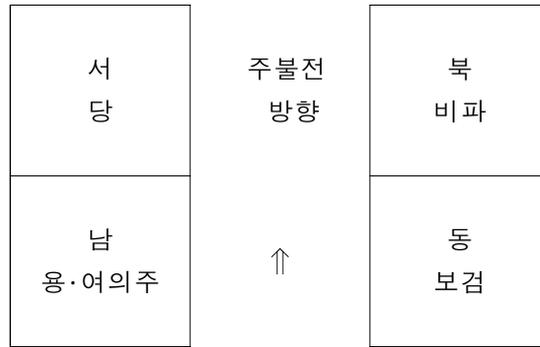
<남방증장천왕>

<남방증장천왕 얼굴>

한편 용문사는 1984년 초과일 때 화재가 있었고, 5동의 건물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98) 『龍門寺金堂始創腹莊記』, “…昭影堂大師寓過此寺 而無金堂而可興 寺內僧徒 僧其大師之流言山之僧處英其名者主化任成其殿大師之弟洪澤淨謹黃莫金李信元等共發大願幹其造佛相三尊兼彌隨會版幘功成已畢…證明 宗現比丘…善手 端應 卓密 學崙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化主 弘澤 淨心”.  
소영당대사가 우연히 이 절을 지나다가 금당이 없어서 세우고자 했다. 절의 스님네가 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이곳의 처영이라는 스님이 화주의 소임을 맡아 그 불전을 이룩하였고, 대사의 사제인 흥택스님과 정심스님, 황막금, 이신원 등이 큰 서원을 세우고 불상 세분과 미타회관탱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증명 중현비구…선수 단응 탁밀 학청 범청 탄성 의선 체원 학탄 태민 화주 흥택 정심…(『龍門寺』, 용문사성보박물관, 2006, pp.116~117).

천왕문은 피해를 면했다.



<표1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의 배치는 주불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향 우측에 동-북방, 향 좌측에 남-서방의 배치로, 17세기 이후 일반화된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네 구 모두 탁자형 의자에 의좌세로 앉았다. 봉황, 비천, 꽃, 구름, 화염 등으로 장식된 보관을 썼다. 어깨위로 드리운 보발이 하늘로 향해 뻗었으며, 주름진 얼굴에 처진 눈꺼풀, 몽툰 돌출 코 등 개성이 충만한 얼굴이다. 목에는 스카프, 어깨에는 용문이 새겨진 견갑, 윗 팔뚝에는 상박갑, 아래 팔뚝에는 臂甲, 가슴에는 흉갑과 복대를 들렀고, 복부에는 귀면이 표현되었다. 귀면은 요대와 수환, 또는 수피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허리와 허벅지에는 상갑으로 무장하였고, 정강이에는 脛甲을 착용하고 戰靴를 신었다. 좌우 팔꿈치에는 갑옷 안에 착용한 전포자락이 펼쳐지며,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간 천의자락이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고, 동방지국천왕은 두 손으로 보검을 베틀고 있으며, 남방증장천왕은 한손으로 용의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여의주를 잡고 있다. 서방다문천왕은 오른손으로 당을 잡고, 왼손은 허리춤에 대고 있다. 자세는 의좌세로, 오른발로 야차를 밟고, 왼쪽은 야차가 장딴지를 받쳐 들고 있다. 그래서 오른발은 땅에 발이 닿아 있고 왼발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다.

지물과 착의형식, 의자세, 야차의 구성 등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의 도상관례를 잘 따르고 있다.

□

### ○ 현 상

- 용문사 회전문(廻轉門)은 정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로, 그 안의 좌우 양측에는 홍살 뒤로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 회전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향우측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과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이 순서대로 안치되어 있다. 향좌측에는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용을 권 남방증장천왕과 오른손에는 당을 쥐고 왼손은 허리에 댄 서방광목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 사천왕상은 전체 높이가 433cm에서 452cm에 달하는 중대형으로,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이다. 발밑에는 악귀들이 천왕의 다리를 받쳐 들고 있다.
- 사천왕은 방형의 얼굴로 얼굴의 위아래 길이가 짧고 양옆이 길다.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만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나머지 세 구의 천왕은 눈을 크게 부릅뜬 험상궂은 표정이다. 비파를 든 천왕은 주먹코로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불상에서 보이는 것과 표현이 동일하다.
- 머리에는 연화, 학, 구름 등을 붙여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 보관의 최상단은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다. 머리 양옆으로 보관에 달린 관대가 휘날린다. 몸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었으며, 어깨에는 한 가닥의 천의를 걸쳤다.
- 남방증장천왕에는 지름 32cm, 깊이 150cm 가량의 복장구가 있다. 안쪽에 벽돌을 석단 정도 댄 것으로 보아 천왕상을 이전, 보수하면서 많이 개수된 것으로 보인다. 생령좌도 상당히 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 용문사에는 3책의 사적기가 전하는데 그중 『용문사사적 유용건(龍門寺事蹟 有用件)』에 수록된 「속용문사사적기(續龍門寺事蹟記)」에는 17세기의 중창불사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688년(숙종 14)에 처원(處源)과 삼웅(三雄)이 범종루 남쪽에 천왕문을 크게 세웠으며, 내부의 사천왕상 4구는 원선(圓善)과 공신(公信)이 만들고 단청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원선과 공신은 실제 천왕상을 만든 장인이라기 보다는 불사를 주도한 승려로 생각된다.
- 비록 「속용문사사적기(續龍門寺事蹟記)」에는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같은 기록에 신경(神鏡)대사가 언급되어 있어서 조각승 단응과 그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상의 외형적인 특징도 이와 같은 추정에 부합한다. 신경대사는 태백산에 거주하던 승려로, 단응이 만든 대부분의 불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신경과 단응은 1684년 9월에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탱의 조성에 함께 참여했다. 「속용문사사적기(續龍門寺事蹟記)」에는 “시왕당과 금당의 판불을 만드는 일은 실로 신경대사의 힘에 의지한 것으로, 스님들의 대부분이 그의 공덕을 탄복하여 축수전 서쪽에 별도로 감실 하나를 마련하여 장차 대사의 진영을 안치하려고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 회전문은 붕괴 위험이 있어서 1995년에 해체하여 1997년에 당초 규모와 양식에 맞추어 중수하였고, 사천왕상은 1998년에 개채하였다. 이 때 상에도 상당한 보수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 『용문사사적 유용건(龍門寺事蹟 有用件)』.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16.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 (清道 磧川寺 木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7.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1982.2.24. 지정)
- 명 칭 :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清道 磧川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적천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동길 304, 적천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8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90년(숙종 16)
- 제작자 : 미상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은 3m가 넘는 크기에 정면향에 위엄을 갖춘 우수한 작품이다.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을 통해 정확한 존명도 확인되며 동물 조각을 곳곳에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아마도, 이는 나한전이나 명부전 존상에 익숙한 조각승의 개인적 특징일 것으로 생각된다.

적천사 사천왕상은 1980년대 복장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복식을 비롯한 다수의 복장이 발견되었고 1690년에 만들어졌음도 밝혀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복장물은 모두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지물인 보탑이나 발 밑의 생령좌 등도 다수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은 화엄사 사천왕상 도상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소조가 아니라 목조라는 점, 발 아래 악귀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점, 또한 그 악귀들이 도상이 모두 개성이 넘치고 해학적인 면을 지닌 점, 서방광목천이 서수가 아닌 탑을 들고 있는 점 등에서 변화를 읽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도상학적으로 선구적인 것인지, 혹은 복고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변용인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성격 규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 과거에 복장에서 발견된 문헌자료들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적천사 사천왕상은 북방다문천왕의 보탑을 비롯하여, 사천왕상의 보관, 야차 등 사천왕상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후대에 새롭게 교체, 변형된 것이 확인된다. 조각 양식상 단웅 유파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분류되며, 천의나 지물 등에 동물 문양들을 삽입하여 색다른 의장적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이 보다 앞서 단웅 유파에서 조성된 사천왕상에 비해 중량감이 있다. 이는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일련의 양식적 변화로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천사 사천왕상은 의미가 있고, 이후 18세기 작품인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과도 양식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도상에서 변형과 새롭게 조성된 것이 확인되고, 특히 과거 조사에서 발견되고 확인된 발원문을 비롯한 다양한 복장유물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지금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검토하기에 부적절하다.

### ○ (지정 가치 미흡)

적천사 사천왕상은 1981년 복장에서 발견됐다는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17세기 후반의 우수한 작례이다. 다만, 발원문을 포함한 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이 뿔뿔이 흩어져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의 수량이나 양상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현존하는 복장유물의 파악과 정리가 이뤄진 후, 사천왕상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분실된 악귀들이 언제 보수되고 새로운 상으로 교체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수와 수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정을 보류하고자 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상과 특징

청도 적천사 천왕문(도1)에 봉안된 목조사천왕상으로, 천왕문은 1981년 수리되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해 보면 발원문에 ‘康熙二十九年 庚午七月 淸道郡地 南嶺華嶽山 磧川寺 四天王’이라고 쓰여 있어 1690년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한다(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81년, 2004년). 그리고, 현재 복장물은 없지만 1980년대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사리 3, 경전 80, 두루마기 장심을 비롯한 의류 23,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복장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도1 적천사 천왕문>

사천왕은 천왕문의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장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의 순서로 의자에 앉아 있다(도2). 또한 서방광목천왕의 왼손은 위를 들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형상인데 실제의 사진을 참고해 보면 보탑이 놓여 있었다(도3). 이 보탑은 1981년 조사 당시 보탑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2004년의 조사에서는 없어졌다고 쓰여 있다(경상북도 문화재위원 회의록 참조). 따라서, 원래의 보탑에서 바뀐 상태이며, 이마저도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적천사 사천왕상은 보탑만이 아니라, 발 밑에 있었던 생명좌도 다수 없어진 상태이다. 특이한 점은 동방지국천왕의 칼에 동물을 조각하거나 천왕의 복식에 사자 같은 동물 조각이 있다는 점이다(도4). 아마도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이 나한전이나 명부전 상의 도상에 익숙한 승려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2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 1690년>



적천사 문화재대장



2010년(실태조사)



현재

<도3 서방천왕, 보탑의 변화 상황>

□

## ○ 현 상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 보아 대체로 화엄사 사천왕상 계열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화엄사 사천왕상이 소조상인 반면 적천사상은 목조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때문에 다소 경직된 느낌이 든다. 반면 화엄사상은 발 아래 악귀가 생략된 반면 적천사상은 푸른색의 몸을 지닌 악귀들이 다양한 자세로 들어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이 서수가 아닌 탑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모습도 읽을 수 있다.

북방다문천왕의 경우 사천왕 발 아래의 악귀 중 왼발 아래의 악귀가 반인반조의 모습을 띄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새부리 모양의 주둥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날개를 달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 만약 이 날개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극히 드문 사례로서 주목할만 하다.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머리가 마치 말미잘처럼 돌기가 솟은 듯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독특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또한 비파의 4개의 현을 감는 줄감개통에 달린 네개의 줄감개가 양쪽에 교차되어 달린 것이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는 점도 특이한데, 이것은 실제의 비파와는 다른 것이어서 후에 수리되거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파의 현을 뜯고 있는 오른손의 경우 손가락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조각가가 상당히 능숙한 기량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동방지국천왕은 화엄사상의 경우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적천사상은 윗니를 드러내고 더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왼발 아래의 악귀는 마치 동자 머리처럼 쌍상투를 틀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주름이 많은 나이든 악귀로 표현되어 있다. 얼굴도 다른 악귀들과 달리 인자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러한 악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른발을 받친 악귀는 이마 위에 마치 또 하나의

귀가 달린 것처럼 소귀 모양이 달려 있는데, 이 역시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남방증장천의 경우도 천왕의 도상은 대체로 화엄사상 계열과 유사하여 천왕문의 입구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악귀 표현의 경우는 오른발을 받친 악귀가 y자 형태의 띠를 상체에 두르고 있다. 이 띠는 악귀의 가슴을 가로지른 띠를 한번 휘감아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그 표현을 매우 정교하게 마무리했다. 이러한 착의법의 악귀는 매우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또한 귀 뒤로 마치 불꽃모양 같은 것이 솟아 있는데, 이 표현이 다른 경우는 머리카락이나 벚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세부 표현이 없어 이러한 단계를 거쳐 점차 불꽃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추정케 한다.

서방광목천은 화엄사 광목천과 달리 탑을 들고 있는 보다 전형적인 북방다문천의 보탑을 든 도상을 계승하고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보탑을 도상이 먼저 등장하고 점차 서수를 품은 도상을 바뀐 것인지, 아니면 화엄사 도상처럼 서수를 먼저 품고 있다가 적천사 사천왕처럼 복고적인 탑을 든 도상으로 바뀐 것인지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바, 적천사상의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혀진다면 불교도상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방광목천의 악귀 중 왼발 아래의 악귀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마치 약을 올리듯 혀를 내밀고 있는데, 이처럼 적천사 사천왕상의 악귀들은 하나같이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 ○ 조사내용

적천사는 664년 원효대사가 수행을 위해 토굴을 지었으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828년에는 심지왕사가 중창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보조국사 지눌이 크게 불사를 일으켰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 일부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1664년 왕의 하사금으로 대웅전을 중창하였고, 1694년에도 태허스님에 의해 다시 한 번 중수한다. 그러나 대웅전에는 1636년에 현진이 제작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어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 중창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676년에 조각승 수일이 만든 석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이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사찰의 가람배치는 천왕문을 들어서서 조계문을 지나면 넓은 中庭이 나오고 이곳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주불전인 대웅전이 자리한다. 대웅전의 우측에 명부전이 자리하고 좌측에 적묵당이 자리하여 중정을 ‘口’자형으로 에워싸고 있는 구조이다.

천왕문은 1664년 대웅전 중창 때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천왕상은 1690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용진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 백일기도

중 부처님 사리 7과와 팔양경 연화경이 77판, 청동 떡시루 1점이 발견되었고, 6월 20일에는 천왕문 보수 중 사천왕상 안에서 사리 3과, 경전 80여 판, 의류(장삼 두루마기) 23점 및 다라니 經板 찍은 것이 다량으로 나왔다. 이 腹藏記에 의해 적천사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7백여 명의 승려의 이름과 신도 4백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腹藏記에는 “康熙二十九年庚午七月 清道郡地 南嶺 華嶽山 磧川寺四天王 造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사천왕상은 1690년(숙종 16)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9)</sup> <디지털청도문화대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적천사 사천왕상 복장유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적천사 사천왕상 복장유물은 1981년 적천사 四天王閣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천왕 목상 안에서 발견되었다. 경관, 다라니경, 곡식, 향료 등과 함께 철릭, 장삼, 창옷, 적삼, 중치막, 직령 등 의류 23점이 발견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복식 유물은 7점으로 철릭 3점, 장삼 1점, 중치막 1점, 직령 2점이다. 적천사 사천왕각에서 발견된 유물은 사리, 경관, 의류, 다라니경, 곡식, 향료 등이며, 이와 함께 복장기가 나왔다. 복장기에는 ‘康熙二十九年庚午七月清道郡地嶺華岳山磧川寺四天王造像’이라는 기록이 있어, 강희 29년인 1690년(숙종 16)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보다 자세한 복장유물에 대한 기술이 있다.

1981년 발견된 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의 소재는 불분명하다. 또한 1981년 윤용진 교수가 적천사 사천왕상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야차(악귀)가 모두 8구였으며, 1988년에는 3구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5구로 변화가 있다. 야차 중 서방광목천왕 좌측 야차와 북방다문천왕 좌측 야차만이 원래의 것이고, 나머지 야차는 후대 새롭게 제작하여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천왕의 보관 장식도 대부분 교체되었다. 사천왕상은 1981년 수리 이후 1988년 화공 김영식이 수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은 여러 개의 나무부재를 결구를 하여 만든 목조 사천왕상이다. 4구의 사천왕은 모두 탁자에 앉은 의자상이다. 한 다리는 공중으로 살짝 들고 다른 한

99) 윤용진, 「磧川寺 四天王의 坐像」, 『청도군』, 1981, p.363; 魯明信,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p.79 재인용.

다리는 야차를 밟고 있고 있다. 천의를 머리 뒤로 등글게 돌려 화염 광배를 만들고, 나머지 자락은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머리에는 꽃과 화염으로 장식된 보관을 착용하였고, 양 팔꿈치에서 묶은 전포자락이 토끼 귀처럼 솟구쳐 있다. 목에는 경갑 대신 스카프를 매듭지어 멋스럽게 묶었고, 胸甲, 腹甲 肩甲, 上膊甲, 臂甲, 膝甲, 脛甲, 전화 등 전신에 걸쳐 각종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복부의 귀면이 요대와 띠모양의 수환을 물고 있는 모습이다. 소슬금문으로 갑옷의 주문양을 삼았다. 특히 상하를 꽃잎형으로 주름 잡고 밧줄로 묶은 胸帶와 절첩 형태로 주름잡은 腰衣가 특징적이다. 각 사천왕상별 세부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방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으며, 비파는 4현의 비파이다. 비파는 병모양의 몸통과 조임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임 부분이 뒤로 꺾어져 있다. 복부에서 늘어진 獸皮 자락을 사자가 물고 매달려 있다. 오른쪽 다리에는 다리를 받쳐 든 야차가 표현되었고, 왼쪽 발로는 악귀의 배를 밟고 있다. 삼지창처럼 세 개의 날카로운 손을 가진 악귀형 야차이다.

동방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어 위협하는 형상이다. 긴 보검을 지물로 취하였다.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칼끝은 왼쪽 허벅지 위 허공을 가르고 있다. 보검의 손잡이 끝에는 매듭을 부착하였고, 방패마기에는 개구리 같은 동물문양을 새겨 넣었다. 일반적으로 왼손은 칼끝을 받치거나 버리는 모습이지만 이곳에서는 허벅지에 올려 두었다. 다른 사천왕의 야차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야차는 사천왕의 다리를 받쳐 들었으나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였고, 왼쪽 야차는 밟혀 버둥대는 모습이다. 2구의 야차는 최근 수리에서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방증장천왕은 오른손으로 용의 허리를 잡았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여의주를 잡고 희롱하는 모습이다. 왼쪽 야차는 등이 밟혀 버둥대는 모습이고, 오른쪽 야차는 살짝 위로 든 사천왕의 발 아래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야차 2구는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천왕상 얼굴>



<사천왕상 생령좌(복)>



<사천왕상 옷깃 속 사자(서)>

서방광목천왕은 정상부가 삼지창으로 이루어진 寶幢을 잡았고, 왼손으로 삼층탑을 받쳐 들고 있다. 1981년 조사 당시 보탑이 있었다가 2004년 조사에는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2010년 <적천사 문화재대장>의 사진에는 삼층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 삼층탑은 지금의 삼층탑과 다른 것이므로, 아마 저도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방광목천왕의 표현에서 흥미로운 것은 좌측 하단 천의자락 속에 사자형 동물을 새겨 넣은 것인데, 동물을 지물로 취하는 관습을 반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적천사 사천왕상은 逆사다리꼴의 각진 얼굴형, 삼각형의 뭉툭한 돌출코, 이룬 결절이 있는 귀의 표현, 어깨 위에서 휘날리고 있는 머리카락, 울그락불그락 골격이 드러나 있는 얼굴, 단단한 신체 비례를 가지고 있다. 얼굴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크게 활약한 단응 유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단해진 신체의 볼륨은 소조에서 목조로 변안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양식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천왕상은 이보다 앞서 단응 유파가 제작한 김천 직지사, 공주 마곡사,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에 비해 세부 표현이 소략하고, 체구가 커지고 단단해 졌는데, 여기서 보이는 양식은 이보다 15년 뒤에 조성된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과 유사하다.



## ○ 현 상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적천사 사천왕문(四天王門) 안쪽 좌우 홍살 뒤에 모셔진 목조 사천왕상이다(도1, 2).<sup>100)</sup> 사천왕문 안쪽 향좌측에는 용과 여의주를 양손에 각각 쥔 남방증장천왕과 양손에 각각 당(幢)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문 향우측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과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이 모셔져 있다(도3, 4).

1981년 6월에 사천왕문과 사천왕상의 보수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사천왕상 안에서 복장이 발견된 바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때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康熙二十九年 庚午七月 淸道郡地 南嶺華嶽山 磧川寺 四天王 造像”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1690년(숙종 16년)이라는 조성 연대가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는 7백 여명에 이르는 승려들과 신도 4백여 명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하나 이번 조사에서 실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시주자들의 구성에서 일반민중의 염원을 담아 제작된 사천왕상이라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장발원문과 함께 사리 3과, 경전 80여 판, 의류 23점 및 인본 다라니가 다량 나왔다고 하나 금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sup>101)</sup>



<도1 적천사 사천왕문 정면>



<도2 적천사 사천왕문 배면>



<도3 적천사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



<도4 적천사 북방다문천왕과 동방지국천왕>

100) 적천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下(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993 참조.

101) 디지털청도문화대전 「적천사 사천왕상 복장 유물」 항목에 의하면 23점의 복식 유물 중 현재 7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 ○ 내용 및 특징

적천사 사천왕상은 그 높이가 각각 340cm에서 380cm에 달하는 장대한 규모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양식을 잘 갖춘 상이다. 17세기 전반에는 주로 소조사천왕상이 만들어졌고, 17세기 후반이 되면 목조 사천왕상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작례이다. 적천사 사천왕상은 여러 조각의 나무를 잇대어 만든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재 네 구의 사천왕상 어깨 위에서부터 솟아올라 머리 뒤쪽으로 펼쳐진 천의 자락에 부목을 덧대어 전각에 고정시킨 상태이다(도5). 사천왕은 의자에 걸터앉은 의좌상으로, 상과 의자는 큰 못으로 고정하였다(도6). 네 구 모두 오른발을 들어 올리고 왼발을 수직으로 내린 자세를 취하였다. 발밑에는 악귀가 표현되어 있다. 천왕들은 몸에는 천의와 갑옷을 입고 있으며, 어깨 위쪽의 천의에서는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화염의 모양은 마치 화염 광배와 같은 인상을 준다. 네 구 모두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나 근래에 보수한 것이다. 보관은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연화, 모란, 화염이 층층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도5 천왕상의 천의가 전각에 고정된 양상>



<도6 북방다문천왕상이 의자와 고정된 모습>

네 구의 상은 가슴 주변의 옷주름이나 갑옷 형태, 몸통의 입체감 등에서 거의 균일한 표현 수법을 보여준다. 균형 잡힌 자세와 치밀한 갑옷의 표현 등 조각승의 우수한 표현력이 잘 발현된 상이기도 하다. 상호의 경우, 턱 부분이 이마 부분 보다 좁게 만들어진 삼각형 꼴이다. 이마는 평면적인데 반해 눈썹에서 급작스럽게 융기하면서 뚜렷한 윤곽을 만들며 솟아올랐다. 북방다문천왕은 불상과 유사하게 눈을 반쯤 내려감은 모습이다(도6). 나머지 세 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있어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도7, 8, 9). 코는 모두 주먹코 모습이나, 입은 네 구가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도7 북방다문천왕의 상호>



<도8 동방지국천왕의 상호>



<도9 남방증장천왕의 상호>



<도10 서방광목천왕의 상호>

1981년의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사천왕의 발 밑에는 모두 8구의 악귀가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악귀가 3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2004년의 지정조사 당시에, 남방증장천왕의 악귀 2구, 서방광목천왕의 악귀 2구, 북방다문천왕의 오른쪽 악귀 1구, 동방지국천왕의 오른쪽 악귀 1구 도합 6구가 분실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는 다시 8구의 악귀가 갖추어져 있어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의 악귀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북방다문천왕의 좌측 발 밑에 깔려 있는 새 형상의 악귀이다.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손과 발은 삼지창 형태이며, 입은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다른 하나인 서방광목천왕의 좌측 발 밑에 표현된 악귀는 발에 물갈퀴가 달려 있다.



<도11 북방다문천왕 좌측 발밑의 악귀>



<도12 서방광목천왕 좌측 발밑의 악귀>

### ○ 참고문헌

-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노명신,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202, 1994.
- 윤용진, 「적천사(積川寺) 사천왕(四天王)의 좌상(坐像)」, 『청도군지』, 청도군, 1991.
- 장일순,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생령좌 연구」, 『불교미술사학』 16, 2010.

## 17.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南海 龍門寺 木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7.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05.7.21. 지정)
- 명 칭 :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南海 龍門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용문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65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703년(숙종 29)
- 제작자 : 법종(法宗), 명언(明彦) 등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남해 용문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이 활동했던 호국사찰로, 사찰 입구에 천왕각과 그 안에는 목조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사천왕은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인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원문과 합 형태의 후령통을 비롯하여 승려가 입던 12점의 복식이 발견되었는데, 깃 부분에 용문사 중창에 참여한 ‘太天熙性’의 법명이 묵서로 쓰여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상에서 12점의 승려 복식이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복장물 가운데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1703년(강희 4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상을 만든 수조각승 法宗이 확인되었다. 17세기의 사천왕상은 소조가 많은 반면, 18세기에는 목조사천왕상이 더 많이 제작되었다.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1690년)을 비롯하여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1703년) 등이 대표적으로,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은 목조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용문사 목조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연대와 수조각승이 확인되는 18세기 초에 해당하는 접목조기법으로 제작된 상으로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다. 또한 발원문과 당시의 승려 복식이 다량으로 발견된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아직 17세기의 사천왕상도 조사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으로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상적으로는 화엄사 사천왕상 계열에 속하지만, 목조라는 점과 시기적으로 후대에 조성되면서 다소 경직된 조각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보관 장식 중의 무궁화 꽃 모양은 남해 용문사에서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후대에 추가된 것인지 원형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서방광목천의 경우 원손에 서수를 품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보이지 않으며, 대신 펄럭이는 옷자락을 쥐고 있다.

복장물을 통해 정확한 조성기록이 확인되었지만, 현재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들이 모두 1600년대 조성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수년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기준선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연대가 1700년 이후로 다소 내려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관리의 모습을 한 악귀들이 공통적으로 한 구씩만 남아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나, 이것이 원래 두 구였던 것이 한 구만 남은 것인지 등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보관의 무궁화 표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직 원형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연대가 1700년 이후로 다른 사천왕상보다 연대가 다소 늦은 점 등의 원인으로 지정을 보류하고, 다만 추후 무궁화 장식의 정확한 연대 등이 밝혀진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은 18세기 초(1703년)에 조성된 상으로,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분명한 사천왕상이다. 이 사천왕상은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1705년)과 더불어 18세기 사천왕상을 대표한다. 다만 용문사 사천왕상을 제작한 법종은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활약한 조각승으로,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마련된 사천왕상 지정 기준(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18세기 대 작품에 대한 재검토 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지정 가치 미흡)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은 제작시기와 제작한 조각승의 이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상이다. 또한 사천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복장에서 승복이 출토된 사례로서 희귀성이 있다. 그러나 금번에 일괄 조사하여 심의하는 조선후기의 사천왕상 중에서는 시기가 비교적 느린 작품이며, 현재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현 단계에서는 지정가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현재와 같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보호,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본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남해 용문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사찰이다. 사찰의 입구에 천왕각이 있고, 개울을 건너 꺾어져 올라가면 대웅전이 있는 구조이다. 용문사 천왕각(도1)의 좌우에는 각 2구씩의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도2).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 무궁화를 비롯한 각종 꽃과 봉황, 화염문 등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특히, 남방증장천왕은 보관 중앙에 날개를 크게 펼친 봉황 한 마리를 배치하고, 꽃과 화염문으로 장식하였다.



<도1 남해 용문사 천왕각>



<도2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

사천왕의 배치는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천왕, 검을 든 동방지

국천왕,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과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천왕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정면을 응시하였으며, 갑옷을 입고 각 신체 부위에 견갑(肩甲)·흉갑(胸甲)·복갑(腹甲)·요갑(腰甲)을 둘러쌌다. 천의는 머리 뒤쪽에서 둥글게 말아 광배처럼 꾸몄으며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으로 장식하였다. 천의는 어깨를 거쳐 발 끝까지 늘어져 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흉갑 가운데에 주름진 가슴띠가 둘러져 있으며, 허리띠는 기본적으로 화문장식을 바탕으로 중앙에 용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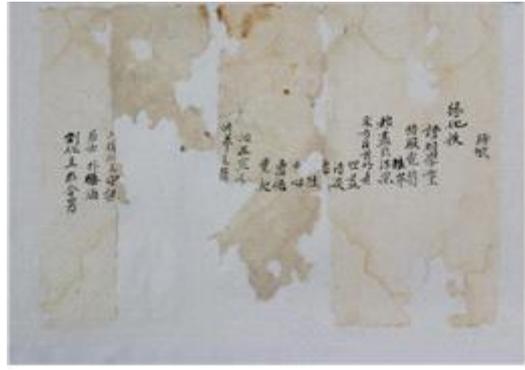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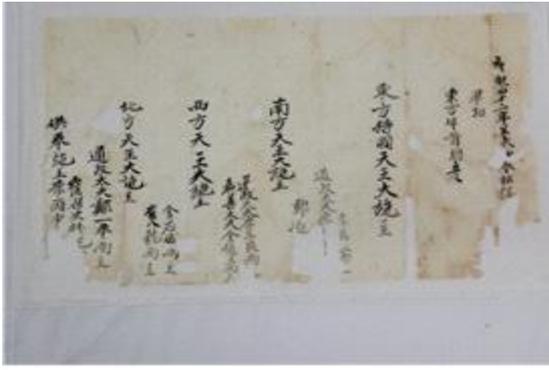
사천왕의 발 밑에 있는 생명좌는 관리나 양반과 같이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일반적인 아귀의 모습과 차별된다. 또한, 생명좌는 각 사천왕의 발 중앙에 옆드리거나 누워있는 모습인데, 하급 관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회 풍자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재질은 나무이며 나무를 서로 연결한 접목조로 제작되었으며, 각 이음 부분에 나무로 끼우거나 철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사천왕 내부에서는 다양한 복장물이 조사되었는데, 주요 물품은 후령통, 발원문, 다라니 등 지류 및 두루마기와 적삼 등 각종 복식류가 발견되었다(도3). 복식은 모두 12점으로 두루마기, 속적삼, 삼의, 장삼 등이며, 다문천왕에서 포 3점과 적삼 3점이 나왔다. 광목천왕에서 나온 삼베두루마기에는 두루마기의 깃 부분에 ‘太天熙性’의 법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다. 태천희성 스님은 1666년 대웅전 중창과 청련당(靑蓮堂) 재건에 힘쓴 승려이다. 이외에도, 금속제 꺾쇠, 다라니와 묵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3 사천왕에서 발견된 복장물: 적삼과 후령통>

발원문은 훼손이 심한 상태로서 강희 42년과 필공(畢功)이라는 내용이 있어 1703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4). 상을 만든 화원은 ‘도화원 법종(都畫員法宗)’이다. 조각승 법종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하였으며 초기에 승호 밑에서 보조화원으로 활동한 승려이다. 주요 작품은 1681년의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 1683년 청도 대비사 석조여래좌상, 1688년 군위 인각사 석조삼세불좌상 등이다. 이후, 수조각승으로 1708년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08년 고흥 봉래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711년 양산 범천사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마지막 활동은 1730년 경까지 확인된다.



<도4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 발원문>

□

○ 현 상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은 천왕각에 봉안되어 있으며, 이 천왕각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익공식 건축이다. 사찰의 전체적인 좌향은 남향이지만, 진입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 천왕각은 동향하고 있다. 그러나 천왕상의 배치는 일반적인 남향 좌향의 천왕문에서의 배치와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면 천왕각은 1702년에 세워졌고, 천왕상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동방지국천왕에서 발견된 연기문은 강희 42년(1703)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완성은 170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천왕각은 1895년 무렵 호은 문성(虎隱文性) 스님에 의해 중수된 이력이 있다. 2010년대 사진에는 천왕각 벽체의 중단 아래가 시멘트로 보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토벽으로 정비된 상태이다. 사천왕의 배치는 진입하는 위치에서 보면 우측(북쪽) 안쪽부터 북방다문천왕, 바깥으로 동방지국천왕, 좌측(남쪽) 안쪽으로부터 서방광목천과 남방증장천이 자리잡고 있다.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의 일반적인 도상을 따랐다. 착용한 보관은 대부분 화염보주문을 중심으로 장엄되어 보관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 화려하다. 또한 화염보주문을 다양한 색으로 채색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중간중간에 봉황과 꽃문양 장식도 부착되어 있는데, 특히 보관 정면 중앙에는 무궁화 모양의 꽃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언제부터 이 무궁화 장식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궁화 장식은 북방천왕 뿐 아니라 나머지 방위의 천왕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보관 관대의 측면 뒤쪽 좌우로는 띠가 바람에 휘날리는 나부끼고 있는데, 위쪽은 고사리문양으로 띠가 말리며 끝에 잎사귀 문양이 달려있고, 아래 부분은 2줄의 띠가 S자형으로

휘날리고 있는 형태인데, 아래쪽 S자형 자락만 금색으로 채색했다. 이러한 띠자락은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쳐지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일반적인 형식과 달리 옆으로 넓게 펼쳐져 휘날리는 점은 용문사 천왕상들의 특징이다. 보관 아래로는 발제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촘촘하게 타래지며 표현되어 있고,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뒤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통은 이 머리카락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또 어깨까지 늘어뜨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귀를 덮은 부분은 채색으로만 표현했고, 또한 어깨 위로 늘어뜨려지지 않는다. 다만 왼쪽 귀를 보면 머리카락이 덮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검은 채색 부분이 벗겨지면서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데, 원래는 입체적인 머리카락을 붙였던 흔적이 다소 남아있다. 또한 다른 방위의 천왕들은 실제로 입체적인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서방광목천의 경우는 귀 뒤에서 어깨로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중간에 부러진 듯한 흔적도 있다. 만약 원래는 어깨로 늘어지는 보발이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왜 용문사 천왕상들은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파손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진 등의 피해로 인해 이러한 연결부위들이 부러지는 등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윤곽을 지녔으며 콧볼이 양쪽으로 추켜올라가 콧구멍이 보이는 모습이 마치 콧바람을 강하게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방천왕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천왕들은 눈동자가 둥글고 커서 마치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북방천왕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원래부터 북방천왕만 다른 인상으로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북방천왕만 얼굴이 수리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눈동자 뿐 아니라 얼굴의 근육 묘사에서도 다소 평면적으로 묘사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천왕의 얼굴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인상이며, 입술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미소짓는 듯한 표정인데, 이런 모습은 근엄한 얼굴표정임에도 친근감이 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얼굴근육이 다른 천왕상에 비해 평면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목의 심줄 표현도 다른 천왕들과 달리 생략되어 밋밋하다.

목둘레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의 흉갑은 거의 전면이 입체적인 붉은색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흉갑을 푸른색 천이 감싸고 있으며, 이 천은 다시 붉은 색의 끈 두 가닥으로 가슴 전체를 둘러 묶고 있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도 입체적인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었는데 흉갑과 달리 푸른색이며, 상단 어깨 쪽에는 사자가 갑옷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다만 다른 사찰의 천왕상이 입은 갑옷에 비해 용문사 천왕상의 상박갑 사자는 다소 작게 표현되어 있다.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양팔의 팔굽에서 위로 솟아있다.

허리에는 마치 연꽃잎이 펼쳐진 것처럼 주름진 넓은 천을 두르고 그 위에 요대를

두르고 있는데 요대의 마디에는 동심원연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요대를 걸구하는 대구(帶鉤)는 용면 형식이 일반적인데, 북방천왕의 경우는 마치 소의 머리처럼도 보이며, 적갈색으로 채색되었다. 입을 크게 벌려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

들고 있는 비파는 현을 감는 목 부분이 직선인 향비파이다. 만약 이 부분이 수리된 것이 아니라 원형이라면 천왕문의 비파 중에서 당비파가 아닌 향비파를 든 매우 드문 사례라 하겠다. 오른손은 현을 튕기는 모습이며, 왼손은 손을 펼친 상태에서 중지로 지판의 현을 짚고 연주하는 듯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섬세한 손가락 표현을 위해서였는지 손등을 두툼하고 크지만 그에 비해 손가락은 매우 섬세한 편이다.

어깨 위에는 피건이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등 뒤에서는 머리 위로 휘날리듯 솟아올라 있고, 그 테두리에 높낮이가 다른 불꽃문양을 표현하여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광배 역할을 하고 있다. 피건은 어깨 아래로는 바람에 심하게 나부끼듯 옆으로 뻗어 휘날리다가 아래로 늘어뜨려지고 있는데, 바닥에 닿기 전에 끊겨있고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피건 끝자락은 중간에 위로 솟구쳐 오르도록 다소 어색하게 붙어있다. 의도적으로 바닥에 흘러내린 피건자락을 지금처럼 공중에 솟도록 개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북방천왕의 오른쪽 아래로 늘어진 피건 자락의 뒷편에 묵서로 ‘남방(南方)’이라 기록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용문사에서는 비파를 든 천왕을 남방천왕으로 인식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소 어색하게 붙어있는 피건 자락이 원래는 남방천왕의 피건 자락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피건의 현상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 용문사 천왕각의 남방천왕의 오른쪽 피건 하단에도 이와 같은 ‘남방’의 묵서가 보이는데, 북방천왕의 묵서가 있는 오른쪽 피건의 상단부는 원래 남방천왕의 피건 상단부가 아니었나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대 대구에서는 용면 아래로 두 가닥의 띠가 흘러내리다가 중간에 리본 모양으로 매듭이 지어진 후 다시 양갈래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 역시 원래는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지만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체에는 허벅지를 덮는 갑상(甲裳)을 착용한 것 같지만 허리에서 흘러내린 천과 갑상 아래의 옷자락이 반전되며 갑상 밖으로 흘러나온 부분이 다시 갑상을 덮으면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그 틈으로 약간 노출된 부분을 보면 갑상은 붉은색의 소슬금문이 새겨졌으며, 그 테두리는 어린문(魚鱗紋) 및 거치문 등으로 장식되었다. 갑상 아래로는 흰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무릎에서 붉은 끈으로 한번 묶었으며, 그 아래로는 정강이를 보호하는 슬갑을 착용했다. 슬갑은 붉은색 바탕에 흑색의 격자문을 중심으로 작은 사각형이 겹겹이 채워진 문양이다. 슬갑의 아랫단은 발찌를 두른 듯 장식되었는데, 그 테두리에 구슬이 달려있어 매우 정교하다. 신발은 단청의 늘휘 문양처럼 채색되었고, 신발 끝은 여의두 모양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반적인 천왕의 자세와 동일하게 북방천왕도 한 발은 살짝 들고 한 발은 바닥에 내리고 있는 자세를 보이는데, 두 악귀가 각각 한발을 받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누워있는 악귀 1구씩만 표현되었다. 이들 악귀가 완전히 바닥에 누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리쪽은 바닥에 붙이고 상체는 약간 치켜세워 높이를 높인 것은 천왕의 두 발의 높이차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래부터 용문사 사천왕상은 1구씩의 악귀만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문사의 악귀는 일반적인 도깨비의 형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방천왕 아래의 악귀는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었으며,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팔은 없이 화염문의 투각판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 원형인지, 만약 원형이라면 왜 팔 대신 화염문이 달려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북방다문천왕은 목조부재를 연결한 흔적들이 잘 남아있어서 결구방식을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특히 팔을 아래서 보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안을 비워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유난히 작은 부재들을 연결해서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이하의 천왕들은 기본적으로는 북방천왕과 유사하다. 북방천왕의 왼쪽에 봉안된 동방천왕의 보관에도 북방천왕과 마찬가지로 무궁화 장식이 붙어 있다. 다만 무궁화 장식이 붙어있는 위치는 천왕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동방천왕의 경우는 좌우 측면에 달려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천왕들은 모두 눈이 부리부리하게 튀어나올 듯 둥글고, 미간의 주름이나 눈 주변의 주름이 표현되어 입체감이 강조되었다. 동방천왕은 윗니를 드러내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형상이다. 귀 뒤에서 어깨로 늘어지는 보발은 없지만 귀를 덮은 두 가닥의 보발가닥은 입체적으로 붙어있다.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는 듯 콧구멍이 크게 부각되었고, 목에는 심줄이 서있어 흥분한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흉갑의 문양도 북방천왕과 동일한 소슬금문인데, 색은 북방천왕에 비해 밝은 붉은색이며, 견갑 역시 동일한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 흉갑을 감싸 묶은 끈의 꼬임까지 정교하게 새겼으며, 앞에서 묶은 매듭의 표현도 사실적이다. 요대의 형식도 유사한데, 요대 마디의 문양은 범자문이 그려져 있고, 대구는 밝은 옥색의 용면이다. 용은 귀가 쫓긋이 서고 그 사이로 두 개의 흰 뿔이 돋아난 모습이다. 지물은 칼을 들고 있는데, 손잡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코등이는 유실되었는지 현재는 없다. 왼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뺀어 검의 날 끝에 살짝 갖다 대려는 듯한 모습이다.

어깨에 걸친 피건은 북방천왕에 비해 잘 남아있는 편인데, 북방천왕은 왼쪽으로 흘러내린 피건이 중간에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반면, 동방천왕은 좌우가 대칭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끝에 가서는 몇 단으로 잘려진 상태에서 어색하게 연결되다가 다소 억지로 위로 솟아오르도록 개조한 것처럼 보

이다. 동방천왕도 대구 아래로 두 가닥의 띠가 내려오다 리본형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장식이 있었을 것 같지만, 현재는 띠가 떨어져나간 흔적이 보인다. 대신 그 아래에 있는 술 장식이 풍성한 균의자락이 보인다. 한편 오른쪽으로 흘러내린 피건 뒤에는 묵서로 ‘동방우(東方右)’로 읽힐 수 있는 묵서가 있어서 이것이 동방천왕의 오른쪽 피건임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천왕이 앉은 대좌 기둥에는 도감 등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이 묵서로 쓰여 있으나 화원(畫員)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발 아래의 악귀는 관리의 모습인데, 북방천왕 아래의 관리에 비해 젊은 모습이 다. 머리에는 당나라 때 유행한 두건처럼 생긴 복두를 쓰고, 배를 위로 하여 누웠는데 양팔을 뒤로 뻗어 엉덩이와 등이 땅에 닿지 않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는 높이가 낮은 하체 쪽을 천왕의 들고 있는 왼발 아래로 들어가게 하고, 높은 상체를 천왕이 바닥에 내린 오른발 발등 위에 올라가게 배치하였다.

동방천왕의 맞은편에 위치한 남방증장천의 보관은 북방다문천의 보관처럼 보관 중앙에 무궁화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좌우의 봉황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마치 이 무궁화 꽃잎에 앉아있는 것처럼 겹쳐져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입술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 입을 꼭 다물고 분노한 표정이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는 황룡의 얼굴이며 붉은색의 요대에는 채색이 거의 지워졌지만, 중앙의 마디에는 북방천왕과 같은 여러 겹의 동심원연주문이 일부 남아 있다. 이 용면 대구 좌우에서는 두 가닥의 띠가 흘러내려 중간에 한번 매듭지어진 다음 다시 두 가닥으로 나뉘어 흘러내리는 것은 북방천왕과 같은 장엄요소이다. 또한 갑상이 소슬금문으로 장식된 것도 동일하다.

오른손에는 황룡을 들고 있는데, 용은 팔뚝을 휘감은 상태에서 바닥을 보고 있다.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마치 용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듯 왼팔을 옆으로 벌리고 있다.

발 아래 악귀는 높은 상투를 튼 관리의 모습이며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는 듯 등을 위로 하여 누워 상체를 팔로 버티고 있으며, 천왕각의 관람자를 바라보도록 고개를 틀고 있다. 다만 천왕의 발 아래에 밟히지 않고 오히려 발등 위에 누운 모습인데, 이런 위치가 원형인지는 알 수 없다.

남방천왕의 오른쪽 피건 자락 뒷부분에도 ‘남방우(南方右)’의 묵서가 보이며, 대좌의 기둥 안쪽에는 ‘남(南)’이라는 묵서가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천왕이 남방증장천이 분명하고, 북방천왕의 피건에 쓰인 ‘남방’ 묵서 부재는 원래 이 남방천왕의 옷자락 부재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에 당, 왼손에는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건자락을 쥐고 있는데, 보통 탑이나 서수를 들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관에는 중앙과 좌우에 무궁화가 달려있어 가장 많은 무궁화 장식을 달고 있으며, 눈을 크게 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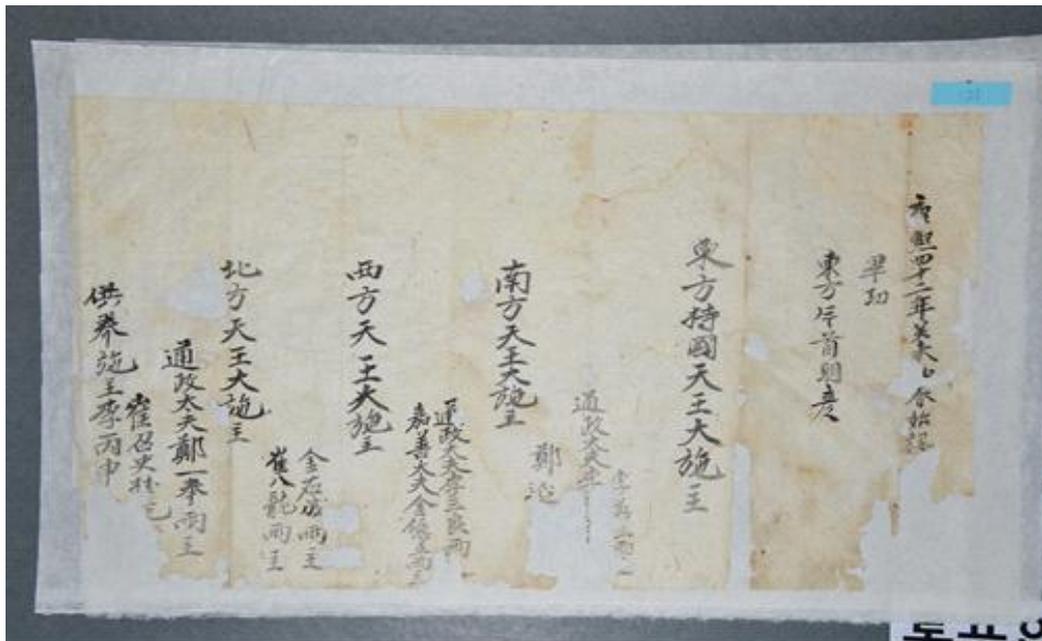
입을 벌리고 있어 마치 무엇인가 놀란 듯한 해학적 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왼쪽 귀 뒤로는 보발이 흘러내리다가 부러진 흔적이 있어서 서방광목천 뿐 아니라 용문사의 천왕들이 모두 어깨위로 흘러내리는 보발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요대의 대구는 청룡 얼굴모양이며, 요대 마디는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만(卍)’자와 주변에 구름문양이 그려진 형식이다. 아마도 이 대구 아래에 매달린 것으로 보이는 고리에는 동물가죽의 코에 고리를 꿰어 걸어둔 장식이 보인다. 가죽의 문양은 표범가죽 같은 점박이 문양이며 털이 솟아난 것처럼 채색을 했다. 귀 사이에는 외뿔이 돋아나 있다.

들고 있는 당의 끝에 달린 깃발에는 중간에 장방형의 구멍이 있는데, 마치 이곳에 무엇인가를 납입하고 봉했던 것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당을 옆으로 비스듬히 들고 있어서 옆에 있는 남방증장천의 얼굴에 당의 깃발이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다.

발 아래의 악귀는 역시 관복차림의 관리인데 각이 진 복두를 쓰고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는 모습이며, 배를 아래로 하여 팔굽을 땅에 대고 상체를 다소 세운 채 누워있는 자세이다. 이 관리도 고개를 돌려 진입로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발 쪽은 천왕의 발 아래에 밟혀있고, 얼굴은 천왕의 오른발 발등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인다.

### ○ 문헌자료

동방지국천에서 발견된 조성연기를 통해 강희 42년(1703) 조성된 것이 밝혀짐





### ○ 조사내용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 기록화 과정에서 조성발원문을 포함한 후령통, 다라니, 두루마기, 적삼 등 각종 복식류 같은 복장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 동방천왕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康熙四十二年癸未○春始役畢功… 都畫員 法宗 東方片手 明彦, 坦益, 淸淡, 惠○, ○性, 惠悟, 覺和’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용문사 사천왕상은 강희 42년 계미(1703)에 조성된 상이다. 조각에는 수조각승 법종이 총지휘를 맡았고, 東方片手 明彦이라는 기록을 통해 각 사천왕상마다 책임 조각승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조각승 법종은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년, 시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1681년, 首 승호),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조각승 8위, 首 승호), 장흥 보림사 고법당 삼존불 개금(1695년, 2위, 首 수일), 전주 심경암 목조여래좌상(1708년, 首), 고흥 봉래사 목조관음보살좌상(首), 양산 법천사 목조보살좌상(1711년) 등의 불상에서 활약한 조각승이다. 동방편수로 등장하는 明彦 역시 17세기 후반부터 활동한 조각승으로, 1688년 수화승 지현과 더불어 상주 북장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을 제작하였다.



<표1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은 굵은 통나무로 몸통을 세우고, 속을 파내어 복장을 납입할 공간을 마련하였다. 팔과 다리 등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은 별도의 나무를 깎거나 못 등으로 결구하여 만든 목조사천왕상이다. 깎쇠가 박히는 부분에는 흙을 파고 깎쇠를 박았으며, 나무를 깎아 흙을 메웠다. 4구 모두 머리에선 화형으로 능을 준 바탕에 화염과 꽃무늬 등으로 장식한 보관을 썼다. 보관의 장식 중 무궁화 같은 꽃장식을 통해 최근 수리에서 새롭게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만들고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귓볼을 가르고 있으나, 어깨위로 길게 늘어진 垂髮은 표현하지 않았다.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입은 앙다물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윗입술을 빼죽 올리거나 하며 심각한 인상을 표출한 이른바 분노형으로 시각화 하였다. 귀는 양감이 있어 도톰하고 귓볼은 짧게 표현하였다. 귀의 삼각와의

음각선이 얇고 짧아 불분명하고 열쇠고리모양의 이갑강을 새겼다. 얼굴표정은 사천왕상이 불법과 가람을 수호하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강렬한 인상을 표출하기 위해 과장되었지만, 다른 조각승들의 사천왕들에 비해 실재적이고 인간적인 감각을 간직하고 있다. 어깨에는 용문장식이 있으며 견갑과 흉갑, 그리고 무릎의 슬갑은 소슬금문으로 입체적으로 새겼으며, 양 팔꿈치에서 전포자락이 솟구쳐 올랐다. 하의로는 정강이 부근에서 품을 줄이기 위해 끈으로 묶은 박고형 바지를 입었다. 흉갑 위에는 고리 모양으로 흉대를 두르고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다. 胸帶는 17세기 작품에 비해 도식화 된 모습이다. 裳甲 위에는 다시 한 번 요의를 둘렀다. 복부에는 귀면이 표현되었고, 귀면이 요대를 물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귀면 아래로는 북, 동, 남방천왕에는 흘러내리면서 한 차례 매듭지은 수환이 드리워졌고, 서방광목천왕에는 고리에 매달린 멧돼지 모양의 水皮로 장식하였다. 머리 뒤로 타원형으로 돌아간 천의는 불꽃을 뿜으며 두광을 이루고 있으며, 양어깨를 걸치고 흘러내린 천의자락은 구불구불 사행하며 바람에 휘날리듯 활달하게 바닥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천의는 여러 편의 조각을 이어 붙여 완성하였기에, 서방천왕의 ‘東片右’같이 그 위치를 표기한 목서가 일부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북방다문천왕은 악귀의 허벅지를 밟고 있고, 동방지국천왕의 살짝 들어 올린 왼발 아래에는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야차가 누워 있고, 밟는 시늉을 하듯 표현되었다. 서방광목천왕은 관모를 쓴 관리형 야차의 등을 밟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의 발 아래로도 상투를 높게 튼 제왕형의 야차가 엮드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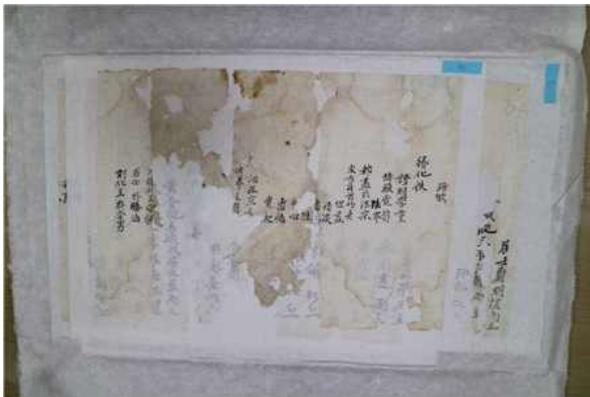
<사천왕상 얼굴(서방)>

<세부표현(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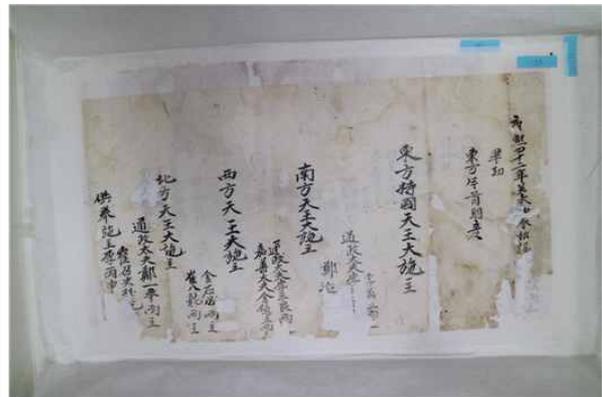
<관리형 야차(서방)>

북방천왕은 초승달 모양의 코끼리의 눈이 새겨진 비파를, 동방천왕은 양날의 보검, 남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서방천왕은 꼭대기에 삼지창이 달려 있는 寶幢을 지물로 취하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입은 앙다물었다. 어깨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으며, 견갑과 흉갑은 산문갑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양 팔꿈치에는 전포자락이 솟구쳐 올랐으며 모두 의자세로 앉았고 발바닥으로 생령을 밟고 있는 듯한 자세이다. 남방지국천왕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벌려 칼끝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북방은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과 어울리게 다른 사천왕과 달리 즐거운 모습이다. 나머지는 분노형이다. 기본적으로 사천왕상이 착용하는 갑옷은 모두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17세기 사천왕상과 달리 한 다리는 내려 야차를 밟고, 다른 한 다리는 생령이 받쳐 든 모습이나 이곳에서는 두 발 모두 야차를 밟고 있어 17세기 사천왕상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의 야차로 조선시대 관리가 등장한다. 아마도 이는 부패한 탐관오리를 야차와 동일시하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함과 동시에 척결되었으면 하는 종교적 感戒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상 복장 연화질>



<사천왕상 복장 조각승 및 시주질>

## ○ 문헌자료

### <목서>

남방증장천왕 안쪽 심목에 목서가 남아 있는데 重修 시 관여했던 소임자로 보인다.

都監 釋允熙

別座 釋○弘

時摠攝 釋昌律

指揮 釋定洪

化主 釋○○

### <복장조성발원문>

<1>

居士鄭明信兩主」

○○施主 崔○○兩主」

琢?比丘」

寺內秩」

老德 廣軒」

天悟」

通政 尙浩」

通政 道淳」

通政 ○○」

通○ ○○」

○習」

印明」

智仁」

通政 慈允」

通政 學清」

自認」

智玄」

六摠」

玄印」

琢雷」

省眞」

하단

印天」

淨全」

汝澄」

庚竺」

時和尚 玄侃」

三綱通政 守悅」

玄境」

忠眼」

書記 双湜」

<2>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3>

金貴奉兩主」

李尙建兩主」  
黃戒弘兩主」  
布施主 釋倫比丘」  
處心比丘」  
金尙玄兩○」  
金允……」  
金丑明○○」  
朴起善兩主」  
姜……」  
黃金施主通政李太益兩主」  
朱紅施主李板每保體」  
抹醬施主 清伯比丘」  
呂能比丘」

<4>

琢欣」  
緣化秩」  
證明 學靈」  
持殿 覺贊」  
法岑」  
都畫員 法宗」  
東方片手 明彥」  
坦益」  
清淡」  
惠○」  
○性」  
惠悟」  
覺和」

治匠 宣元」  
供養主 慧○」  
결실  
大德化主 守謙」  
居士 朴勝海」  
副化主 朴今南」

<5>

康熙四十二年癸未○春始役

畢功

東方片首 明彦

東方持國天王大施主

李莫立兩主

通政大夫李○○○○

鄭延○○○

南方天王大施主

通政大夫李三良兩主

嘉善大夫金億立兩主

西方天王大施主

金右成兩主

崔八龍兩主

北方天王大施主

通政太夫鄭一奉兩主

崔召史桂○○○

供養施主李丙申……

□

## ○ 현 상

- 남해 용문사 천왕각에는 좌우 2구씩, 총 4구의 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보았을 때, 향좌측에는 서방광목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향우측에는 동방지국천왕과 남방증장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 앞면 3칸 옆면 칸 규모의 천왕각은 1702년(숙종 28년) 처음 건립된 것으로 전하며, 「남해용문사중흥기(南海龍門寺重興記)」에 의하면, 1896년(고종 33년) 호은(虎隱) 스님에 의해 중건되었다고 한다.
- 서방광목천왕 내부에서 발견된 동방연기문을 통해 사천왕상이 1703년(숙종 29, 강희 42년)에 법종(法宗)스님이 도화원(都畫員)으로서 이끈 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법종이 사천왕상의 불사에 참여한 기록은 현재까지 이것이 유일하다.

## ○ 내용 및 특징

- 용문사 사천왕상은 4구 모두 의자에 걸터앉아 발을 아래로 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천왕들은 각각의 발밑에 별도로 만들어진 잡귀 1구씩을 밟고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악귀의 형상이 아니라 세속의 관리 모습을 하고 있어 이채롭다.

- 사천왕상의 얼굴은 방형이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비록 일부 장식들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증장천왕을 제외한 세 천왕의 보관은 중앙에 무궁화를 배치하고 그 양편에 서로 마주보는 봉황을 각 1마리씩 배치하여 장엄하였다. 그 주변은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하였다. 증장천왕의 보관 중앙에는 날개를 크게 편 봉황 한 마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꽃과 화염문으로 장식하였다.
- 천왕들은 몸에 의복을 입은 위에 갑옷을 착용하였다. 견갑(肩甲), 흉갑(胸甲), 복갑(腹甲), 요갑(腰甲)을 갖추어 입고 있다. 어깨 위로 걸친 천의는 머리 뒤쪽으로 뒤집어진 U자형으로 흘러내리는데, 가장자리는 대형화염문으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화염 광배와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이 천의의 자락은 양쪽 어깨에서부터 시작하여 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강한 울동감을 자아내며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천의의 자락은 하반신 아래에서 8자 모양으로 매듭지어져 있다. 다만 천의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곳이 있었던 떨어진 조각들이 보수할 때 뒤죽박죽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 동방지국천왕은 비파,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은 당, 북방다문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다.
- 용문사 사천왕상은 여러 개의 목재를 사용한 분할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부분의 이음새는 나무심을 끼워 처리하였다. 필요에 따라 철심으로 고정하였다.
- 사천왕의 등과 팔뚝에 복장공이 있는데, 남방증장천왕의 경우 팔뚝의 복장구가 열려 있는 상태이다. 팔도 통나무를 그대로 두면 무겁기 때문에 팔에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복장구를 만들고 복장품을 안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천왕문 안쪽 좌우에 위치한 광목천왕과 다문천왕상 2구의 복장은 개봉되어 조사되었는데, 스님의 복식이 12점 발견되었다. 기림사 불상의 복장에서 가사가 나온 적은 있으나 사천왕상에 승복이 나온 것은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이 처음이다.

## ○ 참고문헌

- (주)금강문화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8호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복장 유물 보존처리』, 경상남도·남해군·용문사, 2021.

## 18.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河東 雙磎寺 木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7.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04.10.21. 지정)
- 명 칭 :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河東 雙磎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25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705년(숙종 31)
- 제작자 : 단응(端應), 덕륜(德倫), 상념(尙念), 혜륜(慧崙), 탄옥(坦玉), 탁린(琢璘)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하고 4m가 넘는 큰 규모에 당당한 신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사천왕상의 도상 비교에 기준작이 되는 작품이다. 현재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천왕상 가운데 목조사천왕은 적은 편이다. 사천왕의 배치는 북(비파), 동(칼), 남(용과 여의주), 서(보당과 탑)으로 구성된 조선후기 사천왕의 보편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특히, 보관을 비롯하여 갑옷의 부분적인 점에서 장식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돋보인다.

제작기법은 나무를 접합하여 서로 이어 제작하였으며 접합 부분은 직사각형의 나비장과 철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특히, 머리 뒤에서부터 어깨와 허리선까지 흘러내리는 천의자락, 복갑의 용문 아랫부분, 그리고 허리띠 등에 잇대어 못질을 하였으며, 의자와 사천왕상 사이에도 철제못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복장문과 시주질을 포함한 복장물이 남아 있어 1705년의 제작시기와 단응을 비롯한 6명의 조각승, 소영당 신경이 증명으로 참여한 점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17세기의 사천왕상들도 아직 조사와 지정이 되지 않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쌍계사 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 전형적인 조선후기 사천왕상 도상을 따르고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며, 특히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어, 마찬가지로 단응이 조성한 직지사 사천왕상과 좋은 비교고찰이 되지만, 그에 비해 연대가 1700년대 이후로 내려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은 보류하고, 단응의 작품으로서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그 가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미흡)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은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1705년이라는 조성시기와 수조각승 단응이 제작한 사천왕상으로서, 17세기와 18세기를 이어주는 사천왕상으로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 보다 선행하는 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은 이른 감이 있다. 추후 18세기 대에 제작된 사천왕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후 다시 지정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쌍계사 사천왕상은 복장 기록을 통해 조성연대가 확인된 사천왕상으로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다. 장대한 규모로 신체의 당당함도 돋보이는 상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약 18건의 조선중후기 사천왕상 중에는 비교적 시기가 늦은 18세기의 상으로서 17세기 조성된 상 보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낮다. 이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미흡하며 현재와 같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상 및 특징

하동 쌍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통 있는 사찰이다. 사천왕상은 1705년에 조성된 4m가 넘는 작품으로, 1704년 백봉 의경(栢峯 義瓊)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왕문 내부에 봉안되어 있다. 사천왕상 내부의 복장물은 발견된 후 도난되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한다. 복장유물은 책으로 묶은 사천왕복장문(四天王腹藏文), 시주질,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는데(도1), 이를 통해 사천왕상은 1705년(順治 16 己亥 閏三月 二十三日)에 제작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조각승과 시주자 등이 확인되었

다. 상을 만든 화원은 연화질에 증명과 조각승을 적었는데, 端應比丘 德倫比丘, 尙念, 慧崙, 坦玉, 琢璘 등 6명이 협업하여 조성하였으며 증명은 소영당대비구(昭影堂大比丘)이다. 이 조각승들은 1692년의 안동 봉황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만든 조각승과 같으며, 경상도에서 단응의 활동은 소영당 신경(昭影堂 神鏡)의 역할이 컸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천왕상 복장문, 58×39.5cm, 1705년



시주질 중 연화질, 41×461cm

<도1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 복장문과 시주질>

사천왕은 갑옷을 입고 지물을 쥐고 있으며, 의자 위에 앉은 자세로 발 아래의 생명좌를 밟고 있다(도2). 4m가 넘는 크기의 사천왕상은 우람한 체격에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다. 머리에는 다양한 장식을 꽂은 큰 보관을 쓰고 있는데, 그 정상부에 날개를 활짝 편 봉황과 용 그리고 새·모란·꽃·구름 등의 문양으로 가득 채웠으며 관대는 구불거리며 위로 솟구친 형상이다. 보관과 관대의 조각은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모습이다. 특히, 보관의 정 중앙에 용이나 봉황을 크게 배치하여 위엄과 장엄을 더한 모습이 특이하다. 방형의 각진 얼굴에 부릅뜬 눈, 벌리거나 짝 다문 입은 무섭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2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신체에는 평상복에 갑옷을 입은 다음, 부위별로 견갑(肩甲)·흉갑(胸甲)·복갑(腹甲)·요갑(腰甲)·경갑(脛甲)을 입었으며, 어깨에는 천의를 걸쳤다.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복갑 가운데 부분에는 용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제작기법은 전체적으로 나무를 서로 붙이는 접목조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나비장이나 철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또한, 나무와 나무 틈새에는 작은 나무를 이용하여 메웠다. 현재, 사천왕상은 매우 진하고 강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얼굴도 각기 다른 색으로 채색하여 방위신(方位神)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새로 보수한 것이다. 사천왕상의 뒷면은 채색하지 않았으며 등 쪽에 길이 78cm, 폭 50cm

정도 크기의 한지 1매에 묵서로 다라니를 붙였다. 발 밑에는 천왕의 발에 깔려 누워있거나 천왕의 발을 든 생령좌들이 놓여 있는데 귀가 뽕족하거나 가슴에 나무기둥이 꽂혀있거나 혹은 관리의 모습 등 다양하다.

사천왕상은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좌우 각 2구씩 4구의 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비파, 지국천왕은 오른손에 긴 칼(長劍), 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 서방광목천왕은 당과 보탑을 들고 있다. 사천왕의 배치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

## ○ 현 상

1704년에 세워지고 1825년 및 1978년에 중수 기록이 있는 쌍계사 천왕문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축이며, 지정조사 대상인 사천왕상은 천왕문이 지어지고 1년 뒤인 1705년에 천왕문 안에 조성되었다. 천왕문은 대체로 서향에서 약간 남쪽을 향한 좌향이다. 그러나 사천왕의 배치는 천왕문의 실질적인 방위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남향 건축에서와 동일한 배치로 봉안되었다. 즉, 서쪽으로부터 천왕문에 진입했을 때 건물 북쪽인 좌측에 서방·남방천왕, 남쪽인 우측에 북방·동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고, 정중앙 정상부에는 봉황이 정면향으로 날개와 꼬리를 위로 추켜올린 상태로 올라가 있다. 그 아래 보관 정면에는 황색의 용면(龍面)이 정면향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둥글게 용이 꼬리를 튼 모습을 위에서 본 모습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용 좌우에는 각각 흰 두루미와 다채로운 채색의 봉황이 마치 용의 협시처럼 날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변으로는 오색의 구름과 국화꽃, 오얏꽃을 위에서 본 둥그런 꽃장식과 모란꽃을 옆에서 본 장식이 화려하게 달려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 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도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며,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도 보살상에서의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한 가닥만 귀를 덮고 있는 점,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어깨에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며 마치 더듬이처럼 정면을 향해 솟아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주름살 등은 없어 비교적 젊은 인상을 주는데, 양쪽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고, 이 도드라진 부분이 미간으로 연장되어 두 눈썹이 연결되어 있으며, 미간의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과 콧날이 시작되는 부분에 마치 주름처럼 도드라진 부분이 보인다. 이것은 미간에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노려보거나 집중해서 볼 때의 표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간 표현은 쌍계사의 다른 사천왕에서도 보이는데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표현에 비해 도식화된 것이다.

북방천왕은 고개를 약간 숙였고, 눈동자도 천왕문을 지나는 사람들을 응시하듯 아래로 향했다. 눈꼬리와 입술이 모두 위로 추켜올라가 있는데, 입술만 보면 치아가 드러나게 입을 살짝 벌리고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눈을 부릅뜨고 있는 표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친근한 인상을 합쳐놓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코는 매우 두툼한 편이며, 콧볼 상단의 움푹 들어간 부분만 간략히 표현되어 있다.

목은 힘줄이 잔뜩 서있는데 이를 통해 이 천왕이 근육질의 몸을 지녔음을 암시하고 있다. 목둘레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고, 갑옷 안에 입은 흰 옷의 끝단이 밖으로 나와 있다. 갑옷의 흉갑 부분은 금빛의 비늘형 문양이며,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의 상단에 푸른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 있다.

가슴과 배 사이에는 하늘색 천을 벨트처럼 휘감고 이를 다시 붉은색 끈으로 묶었다. 반면 허리에는 붉은색에 금색 수가 놓인 넓은 천을 두르고 그 위에 정식으로 요대를 두르고 있는데 요대의 마디마다 옥색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금강저, 봉황, 용 등의 장식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요대 중앙의 버클(帶鉤)은 황색의 사자 혹은 용의 얼굴모양을 하고 있으며, 입으로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동물의 아래턱으로부터 붉은 띠의 매듭이 좌우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국화문의 원형장식에서 한번 꼬였다가 다시 바닥까지 늘어지는 형식이다.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양손의 자세가 실제로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다. 오른손의 유난히 구부러진 중지는 방금 현을 튕기고 내려온 것 같으며, 왼손의 중지와 검지만 굽어진 모습도 지판에서 현을 누를 때의 모습처럼 보인다. 단순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을 튕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통해 조각가의 섬세한 표현력을 읽을 수 있다. 비파에는 중간에 흰 칠이 된 부분에 코끼리 눈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원래 비파의 울림구멍이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마치 기타처럼 울림통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채색이 되어 있는 것은 새로 단청을 한 작가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인데, 끝부분에 부채처럼 달린 장식이 매우 넓고 크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은 소슬금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며, 갑상의 아래로는 녹색바탕에 꽃문양이 그려진 군(裙)을 입고 있다. 군 밑으로는 하의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데 중간에 무릎 아래에서 붉은 끈으로 한번 묶은 형식

이고, 무릎 부분에는 용포의 흉배처럼 꽃모양의 굴곡이 있는 원형 테두리 안에 용이 그려져 있어 이들 천왕이 제왕의 신분임을 나타낸 것 같다. 하의 밑에도 슬갑(膝匣)을 착용했으며, 신발에는 연주문으로 둘러싸인 원형장식이 촘촘히 그려져 있으며, 신발의 코끝은 여의두문으로 장식되었다.

천왕의 발 아래에는 악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악귀를 밟고 있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그중 오른발 아래 악귀는 입에 부리가 있고, 부리와 눈썹 주변에는 닭의 벃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귀 위쪽으로는 빨처럼 솟은 것이 보이는데, 이는 시왕도의 옥졸 등에 보면 머리카락이 불꽃처럼 솟을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악귀의 손은 새의 발톱처럼 되어있고, 그에 반해 발은 일반적인 사람의 발이다. 손과 발이 모두 새발톱처럼 생긴 악귀도 있어서 차별성을 지닌다. 왼발을 받친 악귀는 짧은 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인데, 오른쪽 악귀와 유사하지만 입은 부리모양이 아니다. 대신 배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솟아나 있는데 마치 장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은 다른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어깨에는 긴 피건(被巾)을 걸치고 있는데 등 뒤에서는 바람에 나부끼듯이 위로 솟구쳐 있고 여기에 화염문이 붙으면서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로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둥근 호를 그리며 악귀들까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꽃모양 장식은 달려있지 않다. 피부색은 회녹색이고, 얼굴의 표정도 유사하지만 입술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윗니를 드러내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흉갑의 문양은 귀갑문이고, 가슴에 두른 천은 주황색이며,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의 용은 청룡이다. 이 용의 코에는 큰 금빛의 코걸이가 달려있고, 이 코걸이에는 멧돼지 가죽처럼 보이는 동물가죽이 매달려 아래로 들어져 있다. 요대의 문양도 보병, 학, 용 등으로 북방천왕의 요대장식과 조금씩 다르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허리에 얹었으며, 칼은 손잡이와 날은 단순한 형태이고 다만 코등이는 사방이 여의두문으로 굴곡을 준 장식을 했다. 갑옷 아래의 군은 황색을 착용했다. 동방천왕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밟혀있고, 왼쪽은 천왕의 발을 받들고 있는데, 왼쪽은 북방천왕 왼발의 악귀와 비슷하나 배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없고, 오른쪽은 상투를 소라고동 모양으로 틀어 올린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다른 도상에서는 이를 나계범왕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교도·외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유형의 악귀는 다른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다.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장식된 꽃의 수는 다소 적으며, 중앙의 용은 정면관이 아니라 측면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얼굴의 피부빛은 붉은 빛이 도는 살색이며, 입은 턱에 힘을 주어 다물고 있다. 흉갑의 문양은 소슬금문으로 다른 천왕과 구별된다. 요대의 장식은 옥대에 금을 입힌 것처럼 표현되었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의 용은 녹색의 용이며, 갑상 아래의 군은 청색이다. 지물로는 오른손에 황룡을 들고 왼손에는 붉은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잡고 있다. 황룡은 오른팔 팔뚝을 휘감으며 길게 꼬리까지 솟아있는 모습인데 마치 약이 바짝 오른 듯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이다.

맞은편의 북방과 동방천왕이 오른발로 악귀를 밟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는 것에 반해 남방 및 서방천왕은 그 방향이 반대로서 왼발로 악귀를 밟고 있고 오른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남방천왕의 악귀는 사람 형태로서 복두를 쓰고 관복을 입은 관리 모습인데 탐관오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를 땅에 대고 누운 모습이다. 오른발 아래 악귀는 앞서의 악귀들과 대동소이하나, 송곳니가 강조된 것이 다르고 특히 아랫 송곳니가 좌우로 솟아있다.

서방광목천은 북방천왕의 보관만큼 화려한 꽃 장식이 돋보이며, 다만 중앙의 황룡이 남방천왕처럼 측면으로 묘사된 것이 다르다. 피부색은 옅은 보랏빛이며, 입은 약간 벌리고 있는 것이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다. 흉갑은 귀갑문이고, 이를 감싼 붉은 색 천은 금색의 끈으로 묶었다. 요대는 적색의 용이 물고 있으며, 요대의 각 마디에는 쌍학, 초승달, 용 등이 장식되어 있다. 요대 아래의 천은 서방천왕만 다른 천왕들과 달리 녹색 바탕이며, 금색의 보상화문 문양이 들어가 있다. 서방천왕은 원래 경전에 따르면 북방천왕의 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손에는 보탑,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있다. 보탑은 5층탑 형식인데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당은 끝이 삼지창으로 되어 있어 창에 가깝고 그 아래에 걸은 붉고 안은 푸른색인 천이 마치 술장식처럼 달려 있으나 실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이 휘감겨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다. 북방천왕의 악귀는 다른 천왕들의 발을 받들고 있는 악귀와 유사한 모습이고, 다만 남방천왕처럼 송곳니가 강조되었는데 여기서는 위쪽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다. 왼발에 밟힌 악귀는 동자머리를 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다. 상체는 벗고 아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각 천왕의 피부색이 오방색을 상징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동방지국천의 푸른색과 남방증장천의 붉은색이 도는 피부를 제외하고는 오방색과는 큰 연관은 없어 보인다. 원래 북방은 흑색, 서방은 백색인데 이러한 색조는 북방천왕이나 서방천왕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쌍계사 천왕문에서는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도깨비 형태로 비교적 일관되게 표현한 반면 밟힌 악귀들은 새모양, 외도, 탐관오리, 동자 등 각각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 ○ 조사내용

하동 쌍계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니산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이다. 쌍계사의 창건은 724년(성덕왕 23)에 義湘大師의 제자인 삼법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쌍계사 역시 임진왜란의 병화를 피해가지 못했으며, 사찰의 중창은 17세기 중정년간(1628~1644)에 德化를 화주로 碧巖覺性和 逍遙太能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쌍계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는데, 천왕문은 쌍계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산지 지형을 따라 층층이 마련된 배치 구도 속에 중요 건물로 자리한다. 사천왕상은 1704년 白峯 義瓊이 건립한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다. 사천왕은 규모가 4m 이상 되는 대형 목조상으로, 4구 모두 온전히 남아 있다. 물론 제작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작 당시의 형태와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형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쌍계사 사천왕상에서는 존상의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주는 발원문과 시주·연화질이 발견되어, 사천왕상의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 배치도>

발원문에 따르면, 이 사천왕상은 昭影堂 神鏡의 증명으로, 端應, 德倫, 尙念, 慧峯, 坦玉, 琢璘 등이 참여하여 1705년에 제작하였다. 상은 규모가 크고 표현력도 뛰어나다. 18세기 사천왕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증명을 맡은 신경은 단웅 유파의 조각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단웅 유파의 불사를 지원하였다. 그는 1684년 예천 용문사 금당 창건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년, 수 단웅) 제작 발원을 시작으로 1689년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상, 1692년 안동 봉황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1692년 제주 영조사 아미타삼존불감 등 단웅이 제작한 불사에 증명으로 참여하였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입구부터 우측에 동-북, 좌측에 남-서로 배치하였다. 북방은 비파, 동방은 보검, 남방은 용과 여의주, 서방은 당탑을 들고 있다. 삼각형의 우뚝한 콧날, 逆사리꼴의 얼굴, 뭉툭한 돌출코, 우람한 신체 등 단웅의 조각유풍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다만, 단웅 유파에서 이보다 앞서 제작된 직지사 소조사천왕(1665), 마곡사 소조사천왕에 비해 체구는 보다 우람하고, 얼굴의 주름도

퍼져 목조라는 재질에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조형 감각이 반영되었다.

사천왕사이 봉안된 천왕문은 일주문-금강문-천왕문-팔영루를 거쳐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가람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한다. 4구의 사천왕상 모두 조선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머리에는 봉황, 용, 구름, 화염으로 장엄한 화형 보관을 착용하였고, 보관의 아래로는 보발이 표현되었다. 보관의 의장은 후대 수리과정에서 일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역 사다리꼴의 얼굴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인상을 잔뜩 쓴 분노형으로 표현되었다. 어깨위로 흘러내린 보발이 하늘로 솟구치는 표현도 단웅의 사천왕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목에는 頸甲을 대신하여 스카프를 둘렀고, 어깨에는 용머리가 장식된 견갑과 상박갑, 비갑을, 가슴에는 흉갑과 흉대를, 허리와 무릎에는 裳甲과 요의를, 정강이에는 脛甲을, 발에는 戰靴를 신어 완전히 무장하였다. 머리 뒤로는 천의를 둥글게 돌려 화염광배를 만들었고, 가슴의 흉대는 위아래를 꽃무늬로 주름잡고 밧줄로 묶은 형태이다. 복부의 귀면이 요대와 끈으로 장식된 수환과 고리에 매달린 獸皮을 물고 있는 모습이다. 각 방위별 2위의 악귀형 야차를 생령좌로 삼고 있다. 한 마리는 사천왕상의 다리를 받쳐 들었고, 다른 한 마리는 사천왕상에게 밟혀 버둥대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쌍계사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갑옷의 착용 형식과 양식, 그리고 무릎을 받쳐 든 야차와 등과 배가 밟힌 야차를 등장시킨 것은 대체로 17세기 사천왕상의 도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사천왕상의 채색은, 제작 당시의 채색은 아니며, 최근에 새로 개채한 것이다.



<사천왕상 얼굴(남방)>



<세부표현(남방)>



<관리형 야차(남방)>



<사천왕상 복장기(1705년)>



<사천왕상 시주·연화질(조각승)>

○ 문헌자료

<발원문 시주질>

銘文: …道天 比丘」性機 比丘」斗閑 比丘」性正 比丘」智寬 比丘」德文 比丘」…  
 文眼 比丘」海齋 比丘」海暎 比丘」禪學 比丘」海明 比丘」法藏 比丘」文印 比  
 丘」法坦 比丘」贅秀 比丘」贅海 比丘」坦行 比丘」贅衍 比丘」德卞 比丘」雪岩  
 比丘」應哲 比丘」信悅 比丘」信行 比丘」信嚴 比丘」三惠 比丘」贅宝 比丘」贅  
 寬 比丘」贅益 比丘」信敬 比丘」克林 比丘」克贅 比丘」克湘 比丘」克能 比丘」  
 秀岩 比丘」警訓 比丘」警熙 比丘」警特 比丘」禪月 比丘」克稔 比丘」法端 比  
 丘」警湖 比丘」二先 保体」善宗 保体」今奉 保体」芑鶴 保体」承發 保体」芑鐵  
 保体」玉尙 保体」先伊 保体」奉鶴 保体」次先 保体」占善 保体」松立 保体」尙  
 命 保体」莫哲 保体」世集 保体」哲良 保体」白戍鶴 保体」崔石伊 保体」緣化  
 秩」訂明昭影堂大比丘」畫員」瑞應 比丘」德倫 比丘」尙念 比丘」慧崙 比丘」坦  
 玉 比丘」琢璘 比丘」持殿宗順 比丘」供養主秀一 比丘」克禪 比丘」惠日 比丘」  
 琢玄 比丘」三益 比丘」引勸」坦俊 比丘」性照 保体」幸文 比丘」黃金化主信行  
 比丘」天像化主海暹 比丘」坦照 比丘」別座 法揚 比丘」

…<결실>

道天 ○○」性機 比丘」斗閑 ○○」性正 比丘」智冠 比丘」德文 ○○」文  
 眼 比丘」海齋 比丘」海英 比丘」禪學 ○○」海明○○」法藏 ○○」文印  
 比丘」



## ○ 현 상

- 쌍계사는 임진왜란 전소된 것은 1632년에 벽암각성 스님이 대대적으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전한다.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천왕문은 1704년에 박봉스님이 초건하였으며, 1825년과 1978년에 중수되었다.
- 천왕문 안에는 좌우에 각 2구씩, 목조 천왕상 4구가 안치되어 있다. 이 사천왕상은 2004년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동방지국천왕상 내부에서 한지 묵서 복장발원문 6매가 발견되어서 1705년에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천왕문이 1704년에 완성된 후 일년 후에 사천왕상 불사가 완료되어 봉안된 것이다.

## ○ 내용 및 특징

- 천왕상은 각각 높이가 475cm에 달하는 대규모의 상이다. 전체적으로 나무를 접합하여 엮는 기법과 분할 부분의 이음에 나무토막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활용하여 조성한 목조 사천왕상이다. 굴곡이 지는 곳들에 분할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얼굴의 볼 윤곽선과 가슴에서 배에 이르는 갑옷 앞부분 및 허리띠, 팔꿈치, 무릎, 발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직사각형의 나무심을 이용해 그 접합 부분들을 고정하였다.
- 네 구의 천왕은 모두 의자 위에 앉은 채 발아래의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의자와 사천왕상 사이는 철제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사천왕들은 장대한 체격에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다.
- 어깨에는 견갑, 가슴에는 흉갑, 배에는 복갑, 허리에는 요갑, 팔에는 경갑을 걸쳤다. 복갑의 가운데에는 용의 얼굴을 그려넣어 위엄을 더하였다. 어깨 위에는 천의를 두르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다.
- 동방지국천왕은 오른손으로 장검을 들었고,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에 창을 쥐고 왼손으로는 보탑을 들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양손에 각각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으며, 북방다문천왕은 양손으로 비파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다.
- 사천왕상의 뒷면은 채색되어 있지 않은데, 등 쪽에 묵서로 다라니를 쓴 길이 78cm, 폭 50cm 가량의 한지가 붙여져 있다.
- 동방지국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은 표지를 포함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시주질과 연화질에 수조각승 단웅의 이름이 보이는데, 연화질에는 단웅을 포함한 화원 6명이 기록되어 있다.

## 19.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安城 七長寺 塑造四天王像)

### 가. 검토사항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6.13.)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83.9.19. 지정)
- 명 칭 :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安城 七長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칠장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5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 제작자 : 미상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후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제작된 소조사천왕상인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15년 천왕문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 공사 중에 천왕문 장여와 도리에서 발견된 묵서를 통해 제작시기가 확인되었다. 즉, 1682년에 시작하여 1683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칠장사의 중창불사를 주도한 탄명(坦明)비구가 주축이 되어 제작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천왕문 도리 묵서에는 1712년 탄행(坦行)스님이 다시 천왕문을 이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사찰사료>에는 “1726년에 천왕문을 건립하였다”라는 기록도 전한다. 그리고, 사천왕의 대좌 밑에는 1888년 보수가 이루어졌던 묵서가 남아 있다.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조선후기 사천왕의 배치 및 양식과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1683년 천왕문의 완공 후 몇 십년만인 1712년에 다시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이건하였으며, 1726년에 천왕문 건립 기록도 있어 이에 대한 배경과 역사적 검토 등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의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안성 칠장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으로서 같은 재료를 사용한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길다란 상체와 움직임 표현하는 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그러나 도상적으로는 서방광목천왕이 탑이 아닌 서수를 지니고 있는 서방천왕의 도상을 하고 있는 점, 또한 그나마도 서수 자체는 생략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왕들의 발 아래에 있는 악귀들의 자세를 보면 두 사찰의 천왕상이 매우 유사한 도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상의 변천과 차용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되나, 현재 칠장사 사천왕상에 대한 제작연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칠장사사실기>의 1726년에 사천왕문을 건립 기록을 근거로 사천왕상도 이 때 조성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천왕문 수리 공사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르면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683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1712년 천왕문은 현재의 자리로 이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천왕문을 이진하면서 사천왕상도 함께 이안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상량문의 연화질에서 시주·연화질에 기재된 수많은 사람 중, 편수를 포함해서 이 시기에 활약한 조각승의 이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상량문과 묵서명 등 최근 칠장사 사천왕상과 관련하여 좋은 자료가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좀 더 진척되고, 이어서 양식과 제작시기가 분명해진 뒤 보물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지정 가치 미흡)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대형의 소조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작기법의 측면에서 소조에서 목조로 사천왕상의 재료가 변해가는 과도기에 제작된 흥미로운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보물로 지정된 1665년명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과 비교할 때 신체의 조형에 있어서 경직되고 평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장식표현도 상당히 간략화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7세기에 조성된 여타의 소조사천왕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18세기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비록 천왕문 도리에 1712년에 천왕문이 이진될 때 천왕상도 함께 이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내구성이 약하고 이동이 어려운 소조라는 재료의 특성상 이진된 상이 어느 정도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천왕상을 옮기면서 수리된 양상이 불분명하여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보류하고자 한다. 향후 사천왕상의 내부구조와 복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조사보고서

□

### ○ 현상과 특징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해서는 2015년 천왕문 해체수리 시 보존처리 공사 중 장여와 도리에서 발견된 목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1682년부터 1683년 2월 탄명(坦明)이 시주하여 사천왕상을 만들었으며 1712년 탄행(坦行)이 이견하였다고 하였다. 발견된 목서는 ‘탄명(坦明)’, ‘사왕형상(四王形像)’, ‘탄행이건(坦行移建)’ 등의 글자가 판독되며, 도리 목서의 뒷부분에서는 康熙 51년 ○辰(1712년)과 ‘대화사통정대부(大化士通政大夫)’ 탄행비구가 쓰여 있다. 탄행은 1710년 삼불회 괘불탱 구성에 참여했으며, 별좌(別座)로 기록된 인물이며, 이 시기는 1704년부터 원래 절터로 사찰을 옮기고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목서는 천왕의 대좌 밑면에도 남아 있다(도1). 목서는 ‘四天王主 戊子三月日 造成 三剛 主長有玄 首僧丈惠 三寶 永坦’이다. 여기에 나오는 승려들의 법명은 사찰에 남아 있는 불화의 화기에 쓰여 있는 법명과 같아 1888년 기둥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조선사찰사료>에는 1726년 천왕문을 건립했다고 하여 앞의 목서와는 다른 내용도 남아 있다.



<도1 천왕 대좌 목서>

칠장사 사천왕상은 사찰의 입구에 있는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으며 사천왕의 내부에서도 ‘天王門’이라는 목서가 남아 있다(도2). 재료는 심목으로 중심을 잡고 그 위에 짚으로 보강한 소조토로 성형하였다. 천왕 모두 의자에 앉은 모습이며 그 밑을 원통형의 큰 기둥이 막고 있는 구조이다. 각각 천왕의 발 밑에는 누워있거나 한 쪽 발을 들고 있는 형상의 생령좌들이 있다. 사천왕은 머리에 크고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신체에는 갑옷을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는데 소매부리는 위로 솟아 과장되지만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도2 안성 칠장사 천왕문과 내부 목서>

사천왕의 배치는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그리고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을 들고 한 손은 허리에 댄 서방광목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보당만을 든 서방광목천왕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조선후기 사천왕의 구성과 배치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 현 상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나 양식적으로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상체가 길게 조성된 점이나 악귀들의 형태를 보면 다소간의 공통점이 느껴진다.

북방다문천왕의 경우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실제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가락을 관찰한 듯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자세에 있어서는 직지사상의 경우 나란히 앉은 북방과 동방천왕이 모두 왼발을 들고 오른발을 바닥을 딛고 있는 반면, 칠장사에서는 두 상이 각각의 바깥쪽의 발을 들고 있어 차이가 있다. 악귀의 모습은 두 사천왕상이 모두 인간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으며 관리, 혹은 승려를 해학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보인다.

동방지국천왕은 지물인 칼이 직도에 양날 검이 아니라 한쪽 면에만 날이 있는 도인 점이 주목되는데, 직지사 사천왕상 역시 도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맥락이 느껴진다. 다만 직지사상의 검이 휘어있는 곡도인데 반해 칠장사상은 직도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주목할만 하다. 또한 동방천왕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한쪽 팔로 천왕의 종아리 부분을 감싸고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도 직지사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남방증장천의 경우는 악귀의 형태와 자세가 직지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천왕의 왼발 종아리 부분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있는 악귀, 배를 바닥에 완전히 깔고 누워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악귀의 형상은 직지사와 칠장사의 사천왕상이 동일한 도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방광목천은 직지사 서방광목천왕상의 경우 보탑을 들고 있지만 칠장사상의 경우는 서수를 지닌 도상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막상 서수도 표현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발 아래의 악귀를 보면, 특히 우측 발 아래 밟힌 악귀는 세부적인 생김새는 다르지만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사천왕의 발이 배 위에 올라간 상태인데다 그럼에도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한 도상은 공통적으로 상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같은 틀을 사용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주는 다양한 변용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 ○ 조사내용

조선 후기 칠장사는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하여 희생된 자신의 아버지 金悌男과 아들 永昌大君을 위한 원당로 삼으면서 크게 중창하였다. 현재 사찰에는 인목왕후가 쓴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와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사경이 전한다. 조선사찰사료에 수록되어 있는 「칠장사사실기」에 따르면, 1674년 세도가가 葬地를 점유하며 사찰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세도가의 葬山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자 초견스님에 의해 다시 한 번 중흥의 기회를 맞이한다. 초견스님은 옛 절터의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 갑인년(1674) 여름에 집을 다시 건축하고 그 해 가을 단청으로 단장하여 영원히 폐철될 위기에 놓인 절을 몇 달 안에 새롭게 중건하고 다음해 4월 천지수륙대회를 개최하였다. 초견스님 이후로도 坦明, 思侃, 일준, 정순, 상원, 석신, 선진, 두한, 윤영, 처휘 등이 불사의 주관자가 되어 불상을 조성하고 불전과 요사, 누문을 건립하여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천왕문은 1726년 사간이 개울가에 명부전을 짓고 그 안에 지장상과 시왕상을 모셨으며 태청루 아래 쪽에 천왕문과 해탈문을 건립하였다.<sup>102)</sup>

그동안 『조선사찰사료』 「朝鮮國京畿道竹州府七賢山七長寺事實記」에 근거하여 사천왕상의 조성도 천왕문의 건립시기에 맞춰 1726년으로 추정해 왔다.<sup>103)</sup> 그런데 2015년 이루어진 칠장사 천왕문 해체보수 과정에서 장여와 도리에서 목서가 확인되었다. 사천왕문 장여 목서에는 1682년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여 1683년에 기둥과 상량을 올리고 단청을 해 공사가 마무리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도리 목서에는 1712년 천왕문의 이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천왕문은 칠장사사실기와 달리 1683년에 건립되어 1712년 지금의 자리로 이건한 것이며, 사천왕상 또한 마찬가지로의 연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1712년 이건된 사천왕문은 1736년 주지 설영, 화주 도정에 의해 중수를 거친다.

1683년 천왕문 건립 당시 사천왕상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丹青四天王造成大施主 坦明으로 보인다. 탄명은 사천왕상의 조성과 단청 이외, 1703년에는 칠장사 비전 건립에 대시주로 참여, 1703년에는 노지에 흩어져 있는 불상 8구를 모아 전각을 짓고 상을 봉안 했으며, 1706년에는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하였고, 1710년에는 삼불회괘불도와 괘불함 제작에도 관여하였다. 1725년에는 80세의 나이에 괘불대 건립 대시주로, 1718년에는 칠장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상 조성에 시주자로, 1728년 대공덕주로서 칠장사 명적암 53불명호비 건립을 주도하고, 무너진 28층 칠당간을 수리하는 등 칠장사 불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장여에는 1683년 작성된 成造緣化秩에는 장인과 주요 소임자의 이름도 확인된다. 편수는 法玉, 義雲, 道義(?), 朴善龍이며 冶匠片手는 정이복이다. 공양주는 각선·도문이며, 여와편수 강거사, 부와편수 승현비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청사천왕조성대 시주 탄명 비구이다. 앞서 언급한 편수가 천왕문을 건립한 목수들인지 사천왕상을 건립한 조각장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조선후기 조각장인들 중에서는 법옥, 의운, 도의(?) 같은 승려장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들은 건물을 지은 편수로 추정된다.

102) 「朝鮮國京畿道竹州府七賢山七長寺事實記」, “... 太祖正德元年丙寅重建寶坊不失舊制至 康熙十二年甲寅(1674)遂爲勢家之所占山山中緇徒皆有四散之志時有道人楚堅其名者常山人也 不尙浮華志於道義歷遊名山願養道胎參看厥事不忍慘心以重建丹牖爲己任與同志四五人更相地于舊址之北面對巒峯爽塿奇秀尤得勝手執片文一出山門風說從四來相助建覆於青虎之夏粧獲於厥年之秋幾爲永弊之寺不數月而重新翌年清和月廣張天地水陸大會焉爲化主而建立迄功之若是神速者實前後之所罕聞也 至甲戌(1694)歲家又移葬山故後 至甲申(1704)至春本寺住持碩奎與諸緇徒同心協議欲還舊址 請大化土思侃袖藏勸詞力募檀緣鳩財 請工先移人天師所臨殿大法堂癡香閣眞如門 化土一俊移建青蓮堂 比丘精律移建尋劍堂 比丘緇進移建寂默堂白蓮堂 化寺精順建西別堂 山人尙元移建太清樓 化土碩信設香積殿於太清樓之西 至於乙巳(1725)之歲善眞斗閑等設圓通殿 丙午(1726)允英處輝等敬速觀音尊像奉安花座 上化土思侃設冥府殿於川邊奉安地藏大堅之尊像十王之烈位 煥然結構勢若羣飛 太清樓下設天王門 門外建解脫門 寺北有彌陀殿 殿上有碧應大師眞影堂 堂前立鄭東溟斗卿所撰碑銘……(조선총독부내무부지방국, 『조선사찰사료』 상, 高麗書林, 1986, pp.69~70).

103) 칠장사사실기에 “영조 원년(1725)에는 선진, 두한 스님이 원통전을 세웠다. 이듬해(1626)에는 윤영, 처휘스님이 원통전에 새로 관음상을 봉안하였고 사간스님은 개울가에 명부전을 짓고 그 안에 지방상과 시왕상을 모셨으며, 태청루 아래쪽에 천왕문, 해탈문을 건립하고 절 북쪽에 미타전과 벽웅대사 진영당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至於乙巳(1725)之歲善眞斗閑等設圓通殿 丙午(1726)允英處輝等敬速觀音尊像奉安花座 上化土思侃設冥府殿於川邊奉安地藏大堅之尊像十王之烈位 煥然結構勢若羣飛 太清樓下設天王門 門外建解脫門 寺北有彌陀殿 殿上有碧應大師眞影堂 堂前立鄭東溟斗卿所撰碑銘).

1712년 건물을 이건하고 난 뒤 기록한 도리에도 중요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이 건을 주도한 사람은 坦行이며, 편수에는 도편수, 수편수, 편수 등 세 명이 등장하는데 판독이 어렵다. 이들도 건물이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목수들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건을 주도한 탄행은 대화사로 불사를 주도하였다.

한편 동방지국천왕의 대좌 목서에 열은 글씨로 ‘七長寺天王造成畫員 十五名〇〇之’라고 적고 이것에 이어 짙은 먹 글씨로 ‘四天王主戊子三月日造成 三綱秩 主長有玄 首僧 丈惠 三宝 永坦’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 적은 열은 글씨는 조성당시의 글씨로 보이며, 뒤이어 적은 짙은 글씨는 사찰에 남아 있는 지장시왕도 등 불화 화기와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1888년 사천왕상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04)</sup> 따라서 사천왕상은 1683년 처음 제작되었으며, 그 이후 천왕문이 移建되면서 함께 移建되었거나 이건 후 새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칠장사에 봉안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칠장사사실기>의 제작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높이가 350cm 정도의 규모로, 조선후기 제작된 사천왕상 중에서는 작은 편이다. 칠장사 천왕문은 주불전인 대웅전의 전방 우측 편에 위치한다. 주불전을 중심으로 일직선상에 가람을 구성하는 핵심 전각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대웅전은 서쪽에 자리 잡아 동쪽을 향하였고, 천왕문은 남쪽에 자리잡았다. 즉 남쪽에서 천왕문을 통과하여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서면 주불전이 나타나는 ‘J’자형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부속 전각이 들어 서 중심사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표1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은 2013년에 도굴 흔적이 있어 한차례 보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2023년에도 훼손되고 손상된 부위가 있어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배치법에 따라 천왕문의 좌우측에 각각 2위씩 배치되어 있다. 진입부에서 향 좌측에 보검을 든 동방지국천왕과 비파를 쥌고 있는 북방다문천왕을 안치

104) 칠장사 명부전 지장시왕도 화기에 “崇禎紀元后五戊子三月二十六日神供金地藏尊二位繪十冥府王四天王靈山會一部中壇幀二部神衆幀二部現王山神各一部點眼四月初五日奉安七賢山七長社因茲奉祝”이라고 적고 흰색 변아에 ‘三綱 主丈 有玄 首僧 丈惠 三宝 永坦’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888년 무자해에 유현, 장혜, 영탄 세 스님에 의해 사천왕상이 새롭게 조성되었다기 보다 수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였고, 향 우측에 용과 여의주를 잡은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을 나란히 안치하였다.



<동방지국천왕>



<세부표현(동방)>



<사천왕상 야차(동방)>

사천왕 네 구는 탁자형 의자에 두 다리를 편안히 내리고 앉은 의좌상이다. 천의는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 양어깨에 걸쳤으며, 천의자락은 바닥면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모두 용봉, 구름과 꽃, 화염 등으로 장엄한 꽃모양의 보관을 썼다. 흙으로 빚은 塑造 상치고는 세부표현에서 입체성이 떨어지고, 사천왕의 위풍당당한 기세를 드러내기 보다는 정겹고 귀여운 인상을 풍긴다. 신체에는 각종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목에는 경갑 대신하여 스카프를 묶었고, 어깨에는 용문이 새겨진 견갑을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소슬금문이 시문된 흉갑을, 흉갑 위에는 胸帶를 돌리고 밧줄로 묶었다. 裳甲 위에는 腰衣를 걸쳤다. 복부에는 귀면이 표현되었고, 귀면은 요대와 수환을 물고 있는 형상이다. 그 중 남방증장천왕은 수피를 흉대에 매달았다. 팔꿈치 부근에는 전포 자락을 바가지 모양으로 묶었다. 신체가 기둥처럼 세장하게 표현되었으며, 얼굴은 부릅뜬 눈과 찡그린 얼굴이며, 이마에는 약간의 주름살이 져 있고, 볼에는 주름살 없이 매끈하게 표현하였다. 대체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이 가지고 있는 도상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고, 얼굴의 표현이나 세장한 신체 비례 등에서 직지사 마곡사 계통의 단응 유파의 조각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칠장사 사천왕상을 장여도리 상량문을 근거로 초창연대를 1683년으로 본다면, 마곡사상과 같은 해에 조성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마곡사상에 비해 얼굴 주름이 적고 인상도 온화해 졌다. 갑옷과 세부의장, 옷 주름 등도 차분하여 소조적 기풍이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한편 칠장사에는 摩日이 1685년에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고, 명부전에는 1706년에 金文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목

조지장시왕상이 현존한다. 마일과 금문은 혜희파로 분류되는 조각승으로, 불상의 이목구비와 명부전의 장군상에서 풍기는 조형적 감각은 칠장사 사천왕상과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밀도 높은 연구가 필요한 상이다.

## ○ 문헌자료

### <장여 목서>

以此代北距一里

許初創建造成

樑傳書記

清康熙二十一年壬戌

○月始於訖功二十一年

癸亥二月初一日起始四

月十一日立柱五月十三日上

樑又於燔瓦則四月

十一日付役五月晦日成

造燔瓦兩緣化皆於

回向全次丹青四天王

造成矣浚示諸人開

列于后 奉爲

主上三殿壽萬歲

奉日

.....

成造緣化秩

片手 法玉比丘

  仅雲比丘

  道仅比丘

  朴善龍

冶匠片手 鄭二福

.....

自發願成造成修莊嚴

丹青四天王造成大施主

坦明比丘

.....

<장여 목서-번역>

북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서 처음 창건한 조성 상량문을 기록한다. 청나라 강희 21년 임술년(1682) ○월 시작하여 22년 계해년(1683) 2월 1일에 마치었습니다. 4월 11일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여 5월 13일 상량하였습니다. 또한 번와는 4월 11일에 부역을 하여 5월 그믐날에 번와를 마치었습니다. 두 연화를 모두 회향하고 다음으로 사천왕을 단청하고 조성하였으며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름을 나열합니다. 주상삼전 수만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리목서>

○○○○粵  
之春三月會  
德坦明○○  
及四王形像  
賢歲年久○  
交術寺有道  
坦行移建○  
可謂本末相  
近相照盡短  
律○照來衣  
文士之可觀  
示末○之○  
來沙門壞○  
使右人之功  
無歎

.....

緣化秩  
都片手嘉善  
都片手○○  
片手覺

.....<중략>...

前住持別座  
彩輝比丘  
大化士通政大夫  
坦行 比丘  
大化士青信

雷哲

…康熙五十一年

壬辰四月會 五日

○略記始末錄

○示芳 名○

### <동방지국천왕 목서>

七長寺天王造成畫員 十五名○○之

四天王主戊子三月日造成 三綱秩 主長 有玄 首僧 丈惠 三宝 永坦

□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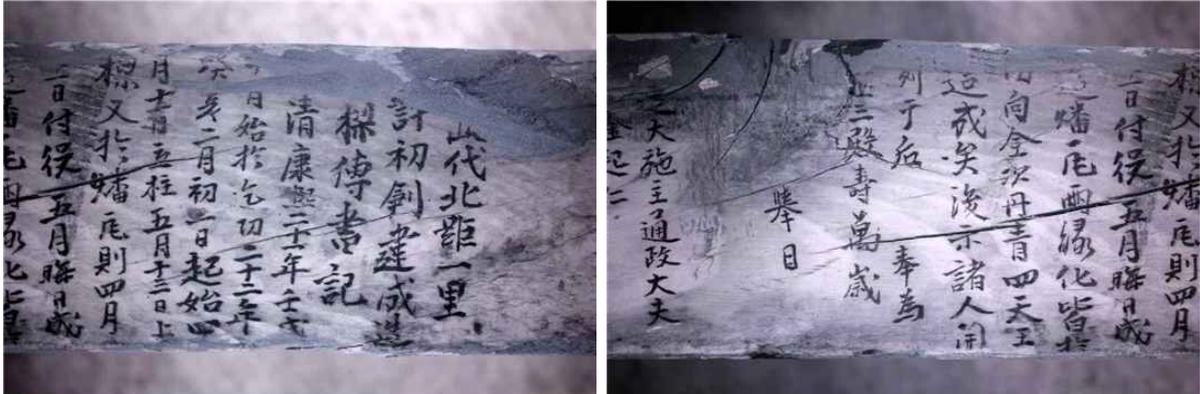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서남향의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다. 칠장사에는 현존하는 사적기가 없으므로 그동안은 1911년에 작성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상권에 보이는 기록과 현존하는 유물의 발원문에 의거하여 사찰의 연혁과 주요 문화유산의 조성연대에 대해 논의해왔다.<sup>105)</sup> 「조선국경기도죽주부칠현산칠장사사적기(朝鮮國京畿道竹州府七賢山七長寺事實記)」에 의하면 1726년(丙午, 영조 2)에 태청루(太淸樓) 아래에 천왕문을 세우고, 천왕문 바깥에는 해탈문(解脫門)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sup>106)</sup> 즉, 1726년에 천왕문을 건립했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사천왕상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보아왔다.

한편, 2015년에 천왕문을 해체보수하고 보존처리 공사 진행할 때 장여와 도리의 두 부재에서 사천왕상의 조성에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목서명이 발견되었다. 먼저 장여의 목서명은 1712년(康熙 51年 壬辰, 숙종 38) 4월 25일에 기록된 것으로, 현재의 천왕문이 아니라 본래 칠장사의 사역에서 북쪽으로 1리 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있었던 초창 당시 천왕문의 상량문에 해당한다. 이 상량문은 초창 천왕문의 공사 과정, 여기에 참여한 시주자 및 장인, 사중의 승려들의 목록, 그리고 사용된 재목의 출처와 수량 등의 기록으로 시작된다.

105) 칠장사의 연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이 참고가 된다. 『朝鮮寺刹史料』 上, 「京畿道之部」(朝鮮總督府, 1911), pp.66~79; 경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 『畿內寺院誌』 (경기도, 1988); 京畿道,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上·下(경기도, 1996);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 칠장사의 가람중수와 불화제작」(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지역 불사와 후원자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06) “…至於乙巳之歲善眞斗閔等設圓通殿丙午允英處輝等敬速觀音尊像奉安花座之上化土思侃設冥府殿於川邊奉安地藏大堅之尊像十王之列位煥然結構勢若絮飛太淸樓下設天王門門外建解脫門寺北有彌陀殿殿上有碧應大師眞影堂堂前立鄭東溟斗卿所撰碑銘又有九層舍利塔露月堂舍利浮屠與淨大師瓮浮屠其後有極樂庵禪僧守敬初創于西麓不滿十載墮非莫甚山人熙演煥然重新山中一庵惟爲奇觀…”(『朝鮮寺刹史料』 上, 「朝鮮國京畿道竹州府七賢山七長寺事實記」, p.70).

이에 의하면 초창 천왕문의 공사는 1682년(康熙 21年 壬戌, 숙종 8)에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683년(康熙 22年 癸亥, 숙종 9) 2월에 종료되었다(도1). 같은 해 4월 1일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여, 5월 13일에 상량하였다고 한다. 번와는 4월 11일부터 5월 그믐날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사천왕을 단청하고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07)</sup> 다른 공사와는 달리 사천왕상의 조성 과 단청 자체에 걸린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683년을 즈음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엄을 발원하고 단청사천왕상을 조성한 대시주로서 탄명비구가 기록되어 있다.<sup>108)</sup>



<도1 천왕문 장엄 목서>

이 외에도 탄명의 이름은 몇몇 기록에 등장하고 있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칠장사 불사를 주도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703년(癸未, 숙종 29)에는 탄명이 노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불상 8구를 모아 전각을 지어 봉안했다고 전한다.<sup>109)</sup> 또한, 탄명은 1706년(康熙 45年 丙戌, 숙종 32)에는 칠장사 명부전 <목조 시왕상>의 조성 에 시주했으며,<sup>110)</sup> 1710년(康熙 49年 庚寅, 숙종 36)에는 부모를 위해 괘불탱, 미타회탱, 현왕탱 각 1폭의 조성을 단독으로 후원하였고,<sup>111)</sup> 1718년(康熙 57年 戊午, 숙종 44)에는 원통전 <목조 관음보살좌상>

107) “○此代北距一里/ 許初創建建造/ 樑傳書記/ 清康熙二十一年壬戌/ ○月日始於訖功二十二年/ 癸亥二月初一日起始四/ 月十一日立柱五月十三日上/ 樑又於燔瓦則四月/ 十一日付役五月晦日成/ 造燔瓦兩緣化皆於/ 回向全次丹青四天王/ 造成矣浚示諸人開/ 列于后 奉為/ 主上三殿壽萬歲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안성시, 2022), p.61.

108) “...自發願造成修莊嚴/ 丹青四天王造成大施主/ 坦明比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안성시, 2022), p.64.

109) “...康熙四十二年癸未孟春<sup>1)</sup>丘坦明者自發廣大深願奉安佛像八尊累年置於露地未免雨雪過者懷悲居者含慘矣坦明比丘者不忍悲慘盡竭心力成一堂始於癸未孟春至於四月畢役矣...”(밀줄 필자); 『朝鮮寺刹史料』上, 『碑殿庵上新建法堂造成記』,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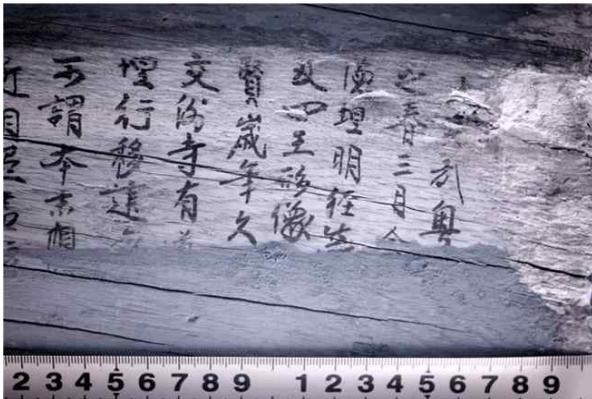
110) 시왕상의 원문은 “願文/ 康熙四十五年丙戌五月廿八日/ 京畿左道竹山都護府地南嶺七寶山/ 七長寺新造成十王願文/ ... 十王大施主嘉善大夫金命立兩主/ 嘉善大夫林萬金兩主/ 通政大夫尹時萬兩主/ 嘉善大夫坦明比丘...”(밀줄 필자);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35.

111) <칠장사삼불회괘불탱>의 화기는 “康熙四十九年/ 庚寅五月日書成/ 留鎮于七長寺/ 奉為/ 主上殿下壽萬歲/ 緣化秩/ 大書士/ 勝藏比丘/ 印惠比丘/ 敬尙比丘/ 玄冊比丘/ 玲眼比丘/ 持殿呂淨比丘/ 證明名現德玄信/ 比丘/ 供養主 竺密比丘/ 弘祐比丘/ 別座通政坦行比丘/ 每事次知都監役玄/ 一比丘/ 比丘坦明為母/ 大靈山會掛佛幀一部彌陀會幀一部現王幀一部獨辦造成留鎮七長寺誠惶謹書”(밀줄 필자);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35.

괘불함에도 유사한 내용이 목서되어 있다. “康熙四十九年庚寅/ 五月日坦明比丘為/ 父母獨辦造成大灵/ 山會掛佛幀及

불사에 금을 시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칠장사 불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이 확인된다.<sup>112)</sup>

천왕문 도리 묵서에는 탄명이 조성한 사천왕의 형상이 오래되어서 탄행(坦行)이 이견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도2).<sup>113)</sup> 다음으로 공사에 참여한 시주자와 산중대덕, 그리고 장인들과 소임자의 명단이 열거된다. 사천왕상의 이견을 이끈 탄행은 ‘대화사 통정대부 탄행 비구(大化士 通政大夫 坦行 比丘)’라 기록되어 있다(도3).<sup>114)</sup>



<도2 천왕문 도리 묵서>



<도3 천왕문 도리 묵서>

### ○ 내용 및 특징

2015년의 안성 칠장사 천왕문 해체 보수는 그동안 1726년작으로 간주돼왔던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의 연대를 17세기 후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장여의 묵서명에 의하면 최대 높이가 350cm에 달하는 이 대형 소조사천왕상은 1683년에 탄명비구가 시주자로 참여해 조성되었으며,<sup>115)</sup> 1712년에 탄행 비구의 주도로 현재의 자리에 천왕문과 함께 이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발견은 그간 칠장사 천왕문과 소조사천왕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조선

入盛/ 橫留于七賢山七長/ 寺”(밀줄 필자); “康熙四十九年庚寅五/ 月日坦明比丘爲/ 父母獨辦造成靈山會掛/ 佛幀及入盛 / 橫留于七/ 賢山七長寺”(밀줄 필자);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35.

112) 관음보살좌상의 원문은 “願文/ 康熙五十七年戊戌秋化主允映處輝等發大/ 誓願欲塑寶相廣募衆緣各邑檀信同心戮/ 力以成勝利己亥四月二十四日安于七長寺不爲/ 一身獨脫三界亦不永人天福報只歎一切衆/ 生皆發菩提心同生極樂國兼願見聞隨喜/ 都人等現增福壽當生淨刹者檀越姓/ 民開列于左/ 施主秩/ 佛像大施主通政比丘慧日/ 施金嘉善比丘坦明...”(밀줄 필자);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32.

113) “...之春三月會/ 德坦明徑竺/ 及四王刑象/ 賢歲年久○/ 交術寺有道/ 坦行移建建○...”;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안성시, 2022), p.65.

114) “...大化士通政大夫/ 坦行 比丘/ 大化士 清信/ 雷哲/ 康熙五十一年/ 壬辰四月念 五日/ ○略記始末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안성시, 2022), p.68. 탄행은 앞서 언급한 1710년명 괘불탱의 화기에는 ‘별좌 통정탄행비구’라 열거되어 있다. 각주 7 참조.

115) 각 상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동방지국천왕 전체높이 345cm, 무릎폭 180cm
- 서방광목천왕 전체높이 350cm, 무릎폭 167cm
- 남방증장천왕 전체높이 324cm, 무릎폭 177cm
- 북방다문천왕 전체높이 341cm, 무릎폭 178cm

사찰사료』 수록의 「조선국경기도죽주부칠현산칠장사사적기」와는 배치되나, 신빙성 있는 일차사료로서 지대한 의미를 지닌다.

칠장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좌우에 2구씩, 도합 4구의 사천왕상이 현재 목책 안에 안치되어 있다(도4, 5). 천왕문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 오른쪽에는 칼을 든 천왕상과 비파(琵琶)를 든 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도6). 왼쪽에는 앞쪽에는 용(龍)과 여의주를 든 상, 그 뒤로 보당(寶幢)을 든 천왕상이 자리 잡고 있다(도7). 네 구의 천왕은 모두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엄격한 정면관을 취하고 있어 다소 경직된 느낌을 준다. 전체적인 신체 비례 상 허리가 다소 길며 체격도 다소 가늘어서 350cm에 달하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장대하다는 느낌을 들지 않는다. 천왕들은 모두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관의 크기와 높이가 상당히 커서 상체 보다 얼굴이 커 보이는 효과를 자아낸다. 천왕은 눈이 불거지고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으며, 조선후기 조각승 중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불상과 형식적인 친연성을 보인다. 천왕의 발밑에는 각각 한 명의 악귀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천왕의 발에 깔려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경외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천왕의 발을 받쳐 든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도4 칠장사 천왕문 정면>



<도5 칠장사 천왕문 배면>



<도6 북방다문천왕상, 동방지국천왕상>



<도7 남방증장천왕상, 서방광목천왕상>

칠장사 사천왕상은 나무로 심목을 만들고 그 위에 진흙을 붙여 성형한 소조상이며, 중간에서 쇠못으로 결구한 흔적이 보인다. 사천왕이 앉은 의자는 여러 개의

나무를 결구하여 만들어졌다. 모서리의 네 다리 외에 중앙에 원형의 통나무 기둥을 두어 지지력을 보강하였다(도8). 의자의 아랫부분은 나무 판재로 마감되어 있다. 현재 이 원통형 기둥이 의자 하부 중앙을 막고 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도9). 다만 내부 구조가 확인된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1665년)의 사례로 유추해볼 때, 의자의 상판 위에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나무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에 사용된 통나무들은 높이 40cm 가량으로, 심목이자 복장물을 넣는 공간으로서 활용되었다. 칠장사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동세가 보이지 않는 단조롭고 경직된 신체의 조형은 심목으로서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왜냐하면, 통나무를 가공 없이 심목으로 사용하게 되면 허리 부분이 균일한 두께의 통나무로 구성되어 길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칠장사 서방광목천왕상의 경우 의자 하부를 막은 나무 판재와 원통형 기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의자 상판에서부터 상의 안쪽으로 높이 약 113cm, 지름 약 38cm에 달하는 심목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도8 사천왕상 의자부분>



<도9 사천왕상 의자 하부 중앙의 원통형 기둥>

## ○ 참고문헌

- 京畿道,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上·下, 경기도, 1996.
- 경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 『畿內寺院誌』, 경기도, 1988.
- 안성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2022.
-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 2012.
- 『朝鮮寺刹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1.
-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 칠장사의 가람중수와 불화제작」,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지역 불사와 후원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 기 타

현재 북방다문천상의 어깨가 터져있는데 향후 수리하기 전에 내시경 카메라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천왕상의 내부 구조와 복장의 납입 양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도10).



<도10 북방다문천왕 어깨의 터진 부분>